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①

HALLOW



조원·김·김설 | 문학수첩

문학수첩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1 (해리포터 시리즈 제 7 탄)

조앤 K. 롤링 지음 / 최인자 옮김 | 문학수첩 퍼냄

원제 -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 차례

- 제 1 장 마왕의 비상
- 제 2 장 추도문
- 제 3 장 떠나는 더즐리 가족
- 제 4 장 일곱 명의 포터
- 제 5 장 쓰러진 전사
- 제 6 장 파자마를 입은 굴 귀신
- 제 7 장 알버스 덤블도어의 유언
- 제 8 장 결혼식
- 제 9 장 은신처
- 제 10 장 크리처의 이야기

## 제 1 장 마왕의 비상

달빛이 비치는 좁은 오솔길, 두 남자가 약간 거리를 두고 허공에서 불현듯 나타났다. 그들은 상대방의 가슴에 지팡이를 겨눈 채, 잠깐 동안 꿈쩍 않고 서 있었다. 곧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그들은 지팡이를 다시 망토 속에 집어넣고 같은 방향으로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소식이라도?”

두 사람 중에 키가 더 큰 자가 물었다.

“최고의 소식을 가져왔지.”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대답했다.

오솔길 왼쪽에는 낮게 자란 야생 가시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말끔하게 손질한 산울타리가 높이 솟아 있었다.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의 긴 망토 자락이 발목 근처에서 펄럭거렸다.

“하마터면 늦는 줄 알았어”

악슬리가 말했다. 머리 위로 드리워진 나뭇가지가 달빛을 가릴 때마다 흐릿한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까다롭더군. 부디 그분께서 만족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네 말투로 보니 꽤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자신하는가 보군?”

스네이프는 성의 없이 그저 고개만 까닥했다. 이윽고 오른쪽으로 돌아선 두 사람 앞에 저택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나타났다. 역시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높은 산울타리는, 길을 가로막고 우뚝 선 화려한 문양의 철 대문을 지나서 안쪽으로 한없이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 없이 인사를 하듯 왼쪽 팔을 번쩍 치켜들더니 마치 어두운 철문이 연기로 변해 버린 것처럼 곧장 통과해 버렸다.

빽빽이 들어선 주목나무 울타리가 두 사람의 발소리가 울려퍼지는 것을 막아 주었다. 그때 오른편에서 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악슬리는 재빨리 지팡이를 다시 뽑아들고 동행자의 머리 위로 겨누었다. 소리를 낸 것은 다름 아닌 새하얀 공작새였다. 공작새는 산울타리 위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있었다.

“루시우스 그놈은 항상 호화판으로 살았지. 공작새라니....”

악슬리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지팡이를 다시 망토 속에 넣었다.

곧게 뻗은 진입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우리으리한 저택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다. 마름모꼴 유리를 끼운 아래층 창문에서 불빛들이 반짝였고, 산울타리 너머 어두운 정원 어딘가에선 분수가 물을 내뿜고 있었다. 스네이프와 악슬리가

현관문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는 자갈이 자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현관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다. 하지만 문을 열어 준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희미하게 불이 밝혀진 현관 복도는 아주 넓고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는데, 대리석 바닥 대부분이 근사한 양탄자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 걸린 파리한 얼굴의 조상화들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스네이프와 악슬리를 계속 주시했다. 두 사람은 옆방으로 통하는 육중한 나무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마침내 스네이프가 청동 손잡이를 돌렸다.

응접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방에 있던 다른 가구들은 아무렇게나 벽 쪽으로 밀쳐져 있었다. 금박을 입힌 거울이 놓인 웅장한 대리석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며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스네이프와 악슬리는 잠깐 동안 문간에서 머뭇거렸다. 하지만 어둠에 차츰 익숙해지자, 방 안에서 가장 기묘한 광경 쪽으로 시선이 저절로 올라 갔다. 분명 의식을 잃은듯한 한 사람이 테이블 위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천천히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투명한 밧줄이 그자를 매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거울과 그 밑에 놓인 테이블의 매끄러운 표면에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이상한 광경을 쳐다보지 않았다. 딱 한 명,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바로 밑에 앉아 있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만 예외였다. 그는 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듯, 거의 1분마다 힐끗힐끗 위를 올려다 보았다.

“악슬리, 스네이프”

테이블 머리 쪽에서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마트면 늦을 뻔했군.”

목소리의 주인공은 벽난로 바로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방금 방에 들어온 사람들 눈에는 한동안 검은 윤곽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점차 드러났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콧구멍은 가느다랗게 뚫렸으며, 동공이 세로로 쭉 찢어진 새빨간 눈이 번뜩거리는 것이, 꼭 뱀 같은 얼굴이었다. 그의 낯빛이 어찌나 창백했던지 마치 진주처럼 뿐연 광택을 발하는 것 같았다.

“세베루스, 이리로.”

볼드모트가 자신의 바로 오른쪽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악슬리, 돌로호브 옆에.”

두 사람은 각기 지정된 자리에 가서 앉았다. 하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스네이프 만 뒤쫓았다. 볼드모트가 제일 먼저 말을 건 사람도 바로 그였다.

“어떻게 됐지?”

“주인님. 불사조 기사단은 다음 주 토요일 해질 녘에 해리포터를 현재의 은신처에서 이동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술렁였다. 어떤 이는 몸을 꼿꼿이 세우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절부절못했다. 그러나 모든 이의 시선은 오직 스네이프와 볼드모트에게로 쏠려 있었다.

“토요일... 해질 녘이라...”

볼드모트가 되뇌였다.

그러더니 새빨간 눈으로 스네이프의 까만 눈동자를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고 무시무시하던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 중 몇몇은 슬며시 눈을 돌렸다. 자신들도 그 소름 끼치는 시선을 마주하게 될까 봐 벌벌 떠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어떤 동요도 없이 볼드모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잠시 후에 입술이 없는 볼드모트의 입이 살짝 벌어지면서 미소 비슷한 모양으로 일그러졌다.

“좋아. 훌륭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보원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스네이프가 대답했다.

“주인님.”

악슬리가 긴 테이블 저쪽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볼드모트와 스네이프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주인님. 제가 들은 정보는 좀 다릅니다.”

악슬리가 말을 멈추고 기다렸다. 하지만 볼드모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악슬리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오러인 도울리쉬가 무심결에 훌린 정보에 따르면, 포터가 30일까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녀석이 만 열일곱 살이 되기 전날 밤까지 말입니다.”

스네이프가 씩 미소를 지었다.

“제 정보원이 저에게 말하길,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짜 정보를 훌릴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건가 봅니다. 도울리쉬는 틀림없이 혼동 마법에 걸렸을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요. 그는 이미 마법에 잘 걸리기로 유명한 자입니다.”

“주인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울리쉬는 꽤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악슬리가 다시 주장했다.

“그자가 혼동 마법에 걸렸다면, 당연히 그렇겠지.”

스네이프가 대꾸했다.

“악슬리. 내가 장담하는데, 오러 사무국은 더 이상 해리포터의 신변 보호문제에 관여하지 못할거야. 불사조 기사단은 우리가 마법부 내부까지 침투했다고 믿고 있거든.”

“그렇다면 기사단이 한 가지는 맞혔구먼, 안 그래?”

악슬리 근처에 앉아 있던 한 땅딸막한 남자가 깔깔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테이블 여기저기에서도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흘러 나왔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조금도 웃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머리위에서 천천히 돌고 있는 사람을 향해 옮아갔다. 뭔가 골똘히 생각에 빠진 것 같았다.

“주인님....”

악슬리가 끈질기게 말을 이었다.

“도울리쉬는 그 녀석을 이동시키는데 모든 오러들이 총동원될 거라고....”

그러나 볼드모트가 크고 하얀 손을 들어 올리자, 악슬리는 당장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볼드모트가 다시 스네이프를 향해 몸을 돌리는 광경을 분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녀석을 어디에 숨길 작정인가?”

“불사단 기사단 중 한 명의 집이라고 합니다.”

스네이프가 대답했다.

“정보원에 따르면 그곳은 기사단과 마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보호를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일단 그 녀석이 그곳에 들어가면 불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질 것 같습니다. 주인님. 물론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마법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만약 마법부가 무너지면 우리는 상당수 마법들을 알아내어 해제한 다음에 나머지 마법들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 악슬리?”

볼드모트가 테이블 끝 쪽을 향해 물었다. 그의 새빨간 눈이 벽난로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빛났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마법부가 무너지겠지?”

다시 한 번 모든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악슬리는 어깨를 쭉 풀었다.

“주인님,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참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파이어스 씨크니스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거는데 성공했습니다.”

악슬리 주위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감탄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의 옆에 앉아 있던 긴 쭈그렁바가지처럼 생긴 돌로호브는 악슬리의 등을 탁탁 두드리기까지 했다.

“이제 시작이군.”

볼드모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씨크니스 한 명뿐이지 않은가? 내가 행동을 개시하기 전까지 우리 쪽 사람들이 완전히 스크림저 주변을 장악해야만 한다. 장관을 한 번에 처치하지 못하면, 나는 아주 한참을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법사 법률 강제집행부의 부장인 씨크니스는 정기적으로 장관을 직접 만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마법부 부서의 부장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런 고위 관료가 우리 손에 있으니 다른 관료들을 예속 시키기가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다 함께 스크림저를 끌어내리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친구 씨크니스가 다른 관료들을 포섭하기 전에 발각되는 일이 없다면 말이지.”

볼드모트가 말했다.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마법부가 내 손아귀에 들어올 것 같진 않군. 일단 녀석이 은신처에 들어가면 쉽게 건드릴 수 없을 테니, 녀석이 이동하는 도중에 해치워야겠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주인님.”

악슬리가 얼른 나섰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볼드모트에게 인정받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모양이었다.

“현재 마법 교통부에도 우리 쪽 사람들을 여러 명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포터가 순간이동이나 플루 가루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녀석은 그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스네이프가 딱 잘라 말했다.

“불사조 기사단은 마법부에서 관리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그 어떤 운송 수단도 피하고 있습니다. 마법부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됐군.”

볼드모트가 말했다.

“그렇다면 녀석은 공공연하게 이동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불잡기도 훨씬 더 쉽겠지.”

볼드모트는 이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회전하고 있는 사람을 또다시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일은 내가 직접 맡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리 포터가 관련된 문제마다 너무 실수가 많았다. 그중 일부는 나의 실수였어. 포터가 여태껏 살아 있는 것은 녀석의 공이라기보다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이다.”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볼드모트를 쳐다보았다. 모두 혹시나 해리 포터가 계속 살아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 쏠릴까 봐 두려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그자들에게 말하기 보다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 위에 의식 없는 상태로 떠 있는 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부주의했어. 그래서 완벽한 계획이 아니면 모두 좌절시키고 마는 훼방꾼들인 운과 우연이 번번이 방해를 높지. 하지만 이제 난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이해한다. 내가 바로 해리 포터를 죽일 그 사람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소름끼치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통과 절망에 못 이겨 내지르는 처절한 절규였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밑을 내려다보았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발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웜테일.”

볼드모트가 조금도 변함없이 침착하고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회전하는 몸을 향하고 있었다.

“죄수를 조용히 시키라고 네게 이르지 않았느냐?”

“네, 주, 주인님.”

테이블 중간쯤에서 조그만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몸이 어찌나 푹 꺼져 있던지 얼핏 보면 그가 앓아 있는 자리가 비어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이제 그는 황급히 의자에서 기어 내리더니 허둥지둥 방을 나가 버렸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이상한 은빛 섬광만이 남았다.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나는 이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볼드모트가 바짝 긴장한 추종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가령, 내가 해리 포터를 죽이려 갈 때에는 그 전에 너희 중 한 사람으로부터 지팡이를 빌려야 할 것이다.”

볼드모트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만이 가득했다.

마치 그들의 팔 한짝을 빌려야겠다는 선언이라도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누구 자원자 없느냐?”

볼드모트가 물었다.

“어디 보자.... 루시우스, 너는 더 이상 지팡이를 갖고 다닐 이유가 없을텐데.”  
루시우스 말포이가 고개를 들었다. 벽난로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노랗게 질려 있었다. 두 눈은 푹 깨지고 눈 밑에는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다. 그가 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네에? 주인님?”

“네 지팡이를 달란 말이다. 루시우스.”

“저.....저는.....”

루시우스 말포이가 옆에 앉은 부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금발을 허리까지 늘어뜨린 부인은 남편만큼이나 창백한 얼굴을 하고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 밑으로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손목을 잠깐 잡았다 놀았다. 그러자 말포이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지팡이를 꺼내서 볼드모트에게 전달했다. 볼드모트는 그의 새빨간 눈 앞에 지팡이를 바싹 갖다 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었으로 만들었느냐?”

느릅나무입니다. 주인님. “

루시우스 말포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속에 넣은 것은?”

“용입니다. 용의 심장을 넣었습니다.”

“좋아.”

볼드모트는 자신의 지팡이를 꺼내더니 서로 길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때 루시우스 말포이가 무심결에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자세를 취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기 지팡이를 바친 대신 볼드모트의 지팡이를 받을 거란 생각을 한 것 같았다. 볼드모트가 그런 동작을 놓칠 리가 없었다.

“루시우스, 내 지팡이를 너에게 달라는 거냐? 내 지팡이를?”

모여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키득키득 숨죽여 웃었다.

“루시우스, 난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최근에 너와 네 가족의 표정이 좋지 못하다는 걸 진작부터 눈치 채고 있었다. 내가 네 집에 머물러 있어서 기분이 나쁜게냐, 루시우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님!”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루시우스....”

볼드모트의 잔인한 입이 더 움직이지 않는데이도,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가 쑥쑥거리는 것 같았다. 쑥쑥 소리가 점점 커지자, 마법사 한두명은 부르르 몸서리가 쳐지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뭔가 육중한 것이 테이블 밑 마루위를 스르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거대한 뱀이 모습을 나타내어 볼드모트의 의자 위로 천천히 기어올랐다. 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이 계속해서 기어오르더니, 볼드모트의 어깨를 휘감았다. 뱀의 목은 거의 성인 남자의 허벅지 만큼이나 굵었다. 동공이 세로로 찢어진 뱀의 눈은 한시도 깜박이지 않았다. 볼드모트는 여전히 루시우스 말포이를 노려보며,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는 무심히 뱀을 쓰다듬었다.

“어째서 너희 말포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 그토록 못마땅해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나의 귀환, 내 힘의 부활이 그토록 여러 해 동안 너희 입으로 소망한다고 공언했던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물론입니다. 주인님.”

루시우스 말포이가 황급히 대답했다. 윗입술에 송골송골 맷힌 땀을 닦는 그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저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의 왼쪽에 앉아 있는 그의 아내는 볼드모트와 뱀을 외면한채 뻣뻣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오른쪽에 있는 아들 드레이코는 줄곧 머리 위에 떠 있는 의식 잊은 몸뚱이를 쳐다보고 있다가 볼드모트 쪽을 한 번 재빨리 쳐다보더니 시선을 마주칠까 두려워서 얼른 얼굴을 돌렸다.

“주인님.”

테이블 중간쯤에 앉아 있던 검은 머리의 여자가 불쑥 입을 열었다. 감정을 잔뜩 얹누른 듯한 목소리 였다.

“주인님을 저희 집안의 저택에 모시는 것은 커다란 영광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검고 눈꺼풀이 두꺼운 그녀는, 옆에 앉은 여동생 나시사와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까지도 매우 달랐다. 나시사가 뻣뻣하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던 반면, 벨라트릭스는 그저 말만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지 표현하기에 모자라는 듯, 볼드모트를 향해 잔뜩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단 말이지.”

볼드모트가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벨라트릭스를 쳐다봤다.

“벨라트릭스, 네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아주 의미심장하군.”

그녀의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두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는 걸 주인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큰 기쁨이 없다..... 내가 듣기론 이번 주에 너희 집안에 커다란 경사가 있었다던데, 그보다도 더 기쁘단 말인가?”

그녀가 입을 헤벌리고 볼드모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네 조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벨라트릭스. 그리고 루시우스와 나시사, 너희 두 사람의 조카이기도 하지. 바로 얼마전에 늑대인간 리무스 루핀과 결혼을 했다면서. 무척이나 자랑스럽겠군.”

테이블 주위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아주 재미있다는 듯 한 표정을 주고받았다. 어떤 이는 깔깔거리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기도 했다. 이 갑작스런 소란에 약이 오른 커다란 뱀이 입을 딱 벌리고 신경질적으로 쑥쑥소리를 냈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벨라트릭스와 말포이가족이 모욕당하는 꼴을 보고 너무 신이 났던 것이다. 방금전까지 기쁨에 겨워 달아올랐던 벨라트릭스의 얼굴은 이제 흉하게 붉으락푸르락해졌다.

“그 계집애는 저희 조카가 아닙니다. 주인님!”

웃음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벨라트릭스가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저희는, 그러니까 나시사와 저는 동생 안드로메다가 잡종과 결혼한 이후로 눈길 한 번 준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계집애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계집이 어떤 짐승이랑 결혼했든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드레이코, 너는 무슨 할말이 없느냐?”

볼드모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시끄러운 야유와 조소 속에서도 똑똑히 들렸다.

“그 애새끼들의 보모 노릇이라도 하려느냐?”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드레이코 말포이는 공포에 질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자기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자, 이번에는

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살짝 머리를 흔들더니, 다시 무표정하게 맞은편 벽을 응시했다.

“그만.”

볼드모트가 성난 뱀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만.”

일순간 웃음소리가 싹 사라졌다.

“우리의 가장 유서깊은 마법사 가문들 중에 상당수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병들어 가고 있다.”

볼드모트가 말을 이었다. 벨라트릭스는 숨도 쉬지 못하고 애원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 건강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를 쳐내야만 하지 않겠느냐? 나마지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부는 잘라 버리도록 해라.”

“네, 주인님.”

벨라트릭스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다시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기회가 되는 대로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잖아 기회가 올 것이다.”

볼드모트가 말했다.

“너희 집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는 오직 진짜 순수한 혈통을 지닌 자만 남을 때까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들을 계속해서 잘라 낼 것이다.....”

볼드모트는 루시우스 말포이의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매달려서 천천히 돌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곧장 겨누더니, 살짝 흔들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신음소리와 함께 깨어나더니 보이지 않는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우리의 손님이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셀베루스?”

볼드모트가 물었다. 스네이프가 눈을 들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자 마치 호기심을 드러내도 좋다는 허락이라도 받은 듯이, 죽음을 먹는 자들 모두가 그 포로를 올려다 보았다. 빙빙 돌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마침내 벽난로의 불빛을 향하게 되었을 때, 잔뜩 겁에 질린 여자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베루스! 날 좀 도와줘!”

“아, 네.”

스네이프가 대답했다. 그 포로는 다시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너, 드레이코는 어때냐?”

볼드모트가 지팡이를 들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뱀의 콧등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드레이코는 경련을 일으키듯이 마구 머리를 흔들었다. 그 여자가 깨어난 이후로, 드레이코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너는 저 여자의 수업을 듣진 않았겠지.”

볼드모트가 말을 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오늘 밤 이 자리에는 채러티 벌베이지가 함께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까지 호그와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

테이블 주위에서 이제 알겠다는 듯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어깨가 넓고 등이 구부정하고 이빨이 뾰족한 한 여자가 첫소리를 내며 떠들어 댔다.

“맞습니다..... 벌베이지 교수는 마녀와 마법사들의 자식들에게 머글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머글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 중 한명이 마룻바닥에 침을 턱 뺐었다. 채러티 벌베이지의 얼굴이 다시 스네이프를 향해 돌아갔다.

“세베루스.....제발.....제발....”

“조용.”

볼드모트가 또다시 루시우스 말포이의 지팡이를 까딱 움직였다. 그러자 채러티가 재갈이라도 물린 듯,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다.

“마법 세계 아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벌베이지 교수는 지난주 <예언자 일보>에 잡종들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글까지 썼다. 그리고 마법 세계는 우리의 지식과 마법을 훔친 이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지. 순수혈통의 감소야말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면서..... 이 여자는 우리 모두가 머글들과 짹짓기를 바랄 것이다. 혹은 분명이 늑대인간과도.....”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볼드모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멸시를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세 번째로, 채러티 벌베이지의 얼굴이 스네이프를 향해 돌아갔다. 그녀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쏟아지더니 머리카락 속으로 흘러내렸다. 스네이프는 감정이라곤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시 돌아갔다.

“아바다 케다브라.”

초록색 불빛이 번쩍하더니 방 안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비추었다. 채러티가 킁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테이블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몇몇 춤음을 먹는 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심지어 드레이코는 의자에서 마루로 굴러 떨어지기까지 했다.

“저녁식사다. 내기니.”

볼드모트가 조용히 말했다. 커다란 뱀이 몸을 흔들며 그의 어깨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반들거리는 나무 테이블 위로 향했다.

## 제 2 장 추도문

해리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원손으로 오른손을 꼭 움켜쥐고 들릴 듯 말 듯 육을하면서, 해리는 어깨로 침실문을 밀어젖혔다. 순간 와작하고 도자기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침실 문 앞 복도에 누군가 갖다 놓은 식은 찻잔을 밟아 버린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프리벳가 4 번지의 총계참에는 개미 새끼 한마리 얼씬대지 않았다. 여기에 찻잔을 갖다 놓는 건 아마 두들리의 머리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함정이었을 것이다. 피가 흐르는 손을 높이 치켜든 채, 해리는 다른 한 손으로 부서진 찻잔 조각을 끌어 모았다. 그리고 침실문 안쪽에 바로 보이는, 이미 쓰레기가 꽉 찬 휴지통에 버렸다. 그런 다음 해리는 쿵쿵거리며 육실로 가서 손가락을 수도꼭지 밑에 갖다 댔다.

마법을 쓸 수 없는 날이 아직도 나흘이나 남았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스럽고 한심하고 바보 같았다..... 하지만 어쨌든 손가락에 난 이 날카로운 상처가 그를 좌절시켰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리는 한번도 상처 치료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그의 마법 교육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당장 실행해야 할 계획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했다. 나중에 헤르미온느에게 상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해리는 커다란 휴지뭉치를 가져다가 쏟아진 차를 최대한 말끔하게 닦아 냈다. 그러곤 침실로 돌아가서 문을 꽁 닫아 버렸다.

해리는 학교 트렁크를 바닥까지 싹 비우느라 오전 시간을 다 보냈다. 6년 전 처음 학교 트렁크를 싼 이후로 처음이었다. 매 학기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그저 가방에서 위에 있는 내용물의 4 분의 3만 덜어내고, 나머지 온갖 잡동사니들은 그냥 바닥에 내버려 둔채, 새로 산 물건들을 다시 채워 넣곤 했던 것이다. 덕분에 트렁크 바닥에는 낡은 깃펜이니 바싹 마른 딱정벌레 눈알이니 더 이상 맞지 않는 양말 한 짹 등이 굴러 다니고 있었다. 방금 전에도 이 잡동사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얼른 빼 보니,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작업을 계속했다. 다시 트렁크 옆에 무릎을 꽂고 앉아 바닥을 조심조심 더듬었다. ‘케드릭 디고리 이겨라’, ‘포터는 야비하다’란 글씨가 희미하게 교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옛날 배지와 금이

가고 망가진 스니코스코프, 그리고 R.A.B.라는 서명이 적힌 쪽지가 감추어져 있는 황금 로켓을 끄집어낸 끝에, 비로소 손에 상처를 입힌 날카로운 물건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해리는 한눈에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5 센티미터 길이의 유리 조각으로, 세상을 떠난 대부 시리우스가 준 마법 거울이었다.

해리는 그것을 옆에 내려놓은 다음, 또 다른 파편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트렁크 안을 뒤졌지만, 대부의 마지막 선물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오직 잘게 부서진 유리 가루만이 제일 바닥에 깔린 잡동사니들에 달라붙어 모래알처럼 반짝거렸다.

해리는 몸을 일으키고 앉아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날카로운 거울 조각을 살펴보았다. 거울 표면에는 자신의 밝은 초록색 눈동자만이 반사되어 보일 뿐이었다. 해리는 그날 아침에 받아서 읽지도 않은 채 침대에 던져 놓은 <예언자 일보>위에 거울 조각을 옮겨놓았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남은 나머지 잡동사니들을 향해 맹렬하게 덤벼듦으로써, 깨어진 거울의 발견이 불러일으킨, 애타는 그리움과 쓰라린 후회와 가슴 아픈 기억들의 갑작스런 흥수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썼다.

쓸모없는 물건들은 버리고, 앞으로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따로 구별하면서 트렁크를 완전히 비우는 데에는 다시 한 시간이 더 걸렸다. 교복과 퀴디치 운동복, 냄비, 양피지, 깃펜, 그리고 교과서 대부분은 두고 가기 위해서 한쪽 구석에 쌓아 놓았다. 해리는 과연 이모와 이모부가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할지 궁금했다. 아마 무슨 꼼찍한 범죄의 증거라도 되는 양, 한밤중에 몰래 태워 버릴 것이다. 머글 옷과 투명망토, 마법약 제조도구, 몇권의 책, 해그리드가 예전에 준 사진첩, 편지 뭉치, 그리고 지팡이는 낡은 배낭속에 다시 넣었다. 배낭 앞주머니에는 호그와트 비밀지도와 R.A.B.서명이 있는 쪽지가 담긴 로켓을 넣었다. 이 목걸이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명예를 누릴만한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값나가는 물건이라서가 아니라(사실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컸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눈처럼 하얀 부엉이 헤드위그와 나란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신문 더미 뿐이었다. 올여름 프리벳가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배달된 것이었다.

해리는 마루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 번 켜고 책상 쪽으로 걸어갔다. 신문을 뒤적거리면서 한 장 한 장씩 쓰레기 더미위로 던져도 헤드위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이 들었거나 혹은 잠든 척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요즘 새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제한 했기 때문에, 헤드위그는 화가 나 있었다.

신문 더미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자 해리는 차츰 속력을 늦추었다. 그리고 여름을 보내려 프리벳가로 돌아온 직후에 배달되었던 신문을 찾아보았다. 그가 기억하기론, 그 신문의 1면에는 호그와트의 머글 연구 과목 선생인 채러티 벌베이지의 사임에 관한 짤막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마침내 그 신문을 발견하자 해리는 10면을 펼쳐들고 책상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찾던 기사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알버스 덤블도어를 기억하며

-엘피아스 도지

알버스 덤블도어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열한 살때였다. 그날은 우리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첫날이었다. 그와 내가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우리 둘다 자신이 왕따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학교에 들어오기 직전 드래곤 수두에 걸렸고, 전염성이 없어진 후에도 곰보자국이나 푸르스름한 얼굴색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꺼렸다. 한편 알버스는 원치 않는 악명을 짊어지고 호그와트에 들어왔다. 불과 1년 전에 그의 아버지 퍼시발이 세 명의 어린 머글들에게 잔인하고 널리 알려진 공격을 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알버스는 절대로 자기 아버지(결국 아즈카반에서 세상을 떠났다)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어보았을때, 알버스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그 이상

언급하는 것은 거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말이다. 사실 어떤이들은 그의 아버지의 행동을 높이 칭송했고, 알버스 역시 반 머글주의자일거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오해였다. 알버스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언하듯이, 그는 반 머글적인 성향을 눈곱만큼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반대로 머글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때문에 그 후로 수년 동안 많은 적들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자, 알버스의 아버지의 명성은 아들의 유명세에 가려 빛을 잃기 시작했다. 1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그는 결코 반 머글주의자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호그와트 학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우리 중에서 그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린 학생들은, 그가 항상 기꺼이 베풀어 주는 도움과 격려는 말할 것도 없고, 모범적인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덕을 보았다. 나중에 알버스는, 이미 그 시절부터 남을 가르치는 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고 나에게 고백했다.

그는 학교에서 주는 상을 모두 훨씬는데 그치지 않고, 곧 당대에 가장 유명한 마법사들과 정기적으로 서신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중에서 유명한 연금술사인 니콜라스 플라멜과 저명한 역사학자인 바틸다 백섯, 그리고 마법 이론가인 아달버트 와플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그가 쓴 여러 논문들은 <오늘날의 변신술>, <마법의 난제들>, <실용 마법약> 등의 학술 잡지에 실렸다. 덤불도어의 장래는 별처럼 창창해 보였다. 문제는 오직 그가 언제 마법부의 장관이 되느냐 하는 것 뿐이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가 장관이 될 때가 되었다는 말이 종종 오르락내리락했지만, 알버스는 단 한 번도 장관 자리에 대한 야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우리가 호그와트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알버스의 동생인 애버포스가 입학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다. 애버포스는 결코 학구적이지 않았고, 알버스와는 달리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결투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를 더 좋아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두 형제가 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토록 서로 다른 두 소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이좋게 지냈다. 사실 애버포스 입장에서 말하자면, 알버스의 그늘 밑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항상 알버스 보다 뒤쳐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친구가 되는 데 꼭 뒤따르는 위험요소였으니, 동생이라고 해서 더 유쾌할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다.

알버스와 내가 호그와트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시 전통이었던 세계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계획했다. 각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서기 전에, 다른 나라의 마법사들을 만나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를 방해했다.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알버스의 어머니인 켄드라가 돌아가신 것이다. 이제 알버스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생계를 이어갈 유일한 책임자가 되었다. 나는 여행을 연기하고 켄드라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의를 표했다. 그런 다음 혼자서 외로운 여행길에 올랐다. 돌봐야 할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금화를 물려받은 알버스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날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교류가 뜳했던 시절이었다. 나는 어쩌면 눈치없게도, 알버스에게 여행 중에 본 놀라운 일들에 대해 자세히 써서 보냈다. 그리스에서 키메라들을 만나 간신히 도망친 이야기며 이집트 연금술사들이 하는 각종 실험에 대해서까지 말이다. 반면 알버스의 편지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 분명 그토록 명석한 마법사에게는 짜증이 날 정도로 지루한 하루하루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행이 끝날 무렵, 나만의 여행에 푹 빠져 있던 내게 너무나 끔직한 소식이 전해졌다. 덤불도어에게 또 다른 비극이 닥쳐온 것이다. 바로 그의 여동생인 아리애나의 죽음이었다.

비록 아리애나가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나 되어 잇달아 찾아온 불행은 두 형제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알버스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나도 그 운 좋은 사람들 중 하나인데-은 아리애나의 죽음과 그에 대해 알버스가 느끼는 개인적인

죄책감(물론 그의 잘못은 전혀 아니지만)이 그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고국으로 돌아온 나는 일찍부터 어른들의 고통을 경험한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알버스는 전보다 훨씬 말수도 줄고 더 어두워져 있었다. 그를 더욱 힘들게 한것은, 아리애나의 죽음이 알버스와 애버포스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기는커녕 서로 더 소원해지게 했다는 사실이었다(얼마 지나자 소원함은 사라졌다. 몇 년후에 그들은 비록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분명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었다.). 알버스는 그때부터 부모님이나 아리애나에 대해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고, 친구들도 그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계속된 업적에 대해 쓰려면 깃펜이 몇 개는 더 필요할 것이다. 그가 위존가모트의 의장으로 있는 동안 남긴 수많은 판례들에서 보여 준 지혜는 물론이고, 용의 피를 사용하는 열두 가지 방법의 발견을 비롯하여 마법 학계에 기여한 헤아릴수 없이 많은 공헌들은 다음 세대에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1945년에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가 벌였던 마법 대결을 능가할 만한 시합은 없다고 말한다. 이 대결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 비범한 마법사 두 사람이 결투를 벌이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경외에 대해 쓰곤 했다. 덤블도어의 승리와 그에 따라 마법 세계에 나타난 여러가지 결과들은 마법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국제 비밀 법령의 도입이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의 몰락에 필적할 만한 것이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결코 자만하거나 허영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일찍 가족을 잃은 경험이 그에게 위대한 인류애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나누었던 우정을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상실은 마법사 세계가 잃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역대 호그와트 교장들 중에서 덤블도어야말로 가장 커다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커다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란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는 평생 살아온 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던 그날에 드래곤 수두에 걸린 어린 소년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더 커다란 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해리는 신문을 다 읽은 후에도 멍하니 추모기사 옆에 실린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덤블도어가 낯익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신문에 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해리를 깨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슬픔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그의 마음을.

해리는 평소 덤블도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추모기사를 읽고 나니, 그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해리는 덤블도어 역시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상상을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웬지 덤블도어는 해리가 알았던 그 모습 그대로, 머리가 하얗게 센 기품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 같았다. 심대 시절의 덤블도어를 상상하는 것은 명청한 헤르미온느나 온순한 폭탄 꼬리 스크루트를 상상하는 것 만큼이나 어색하고 이상했다.

해리는 한 번도 덤블도어에게 과거를 물어볼 생각를 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틀림없이 기분이 어색했을 것이고, 심지어 무례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와 전설적인 대결을 펼쳤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는데도, 해리는 덤블도어에게 그 대결이 과연 어떠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덤블도어의 다른 유명한 업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어제나 해리의 과거, 해리의 미래, 해리의 계획.... 해리, 해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자신의 장래가 아무리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고 불확실하다 해도, 덤블도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묻지 못한 것은 참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쳐 버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리가 덤블도어에게 딱 한 번

개인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웬지 덤블도어가 솔직히 대답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딱 한 가지 질문이기도 했다.

“교수님은 이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나? 두꺼운 양모 양말 한 쌍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몇 분 동안의 생각에서 깨어난 해리는 <예언자 일보>에서 추모 기사를 오려내어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실용 방어마법과 사용법>의 초판본 안에 끼워 넣었다. 그런 다음 남은 신문들을 버릴 쓰레기 더미에 던져 넣고 방 안을 향해 돌아섰다. 방은 훨씬 더 말끔해 보였다. 남아 있는 것은 침대에 얹전히 놓여 있는 오늘 날짜 <예언자 일보>와 그 위에 놓인 깨진 거울뿐이었다.

해리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리고 거울 조각을 밀쳐놓고 신문을 펼쳐 들었다. 오늘 아침 일찍 우편 배달 부엉이에게 돌돌말린 신문을 받았을 때, 머리기사만 대충 훑어보고 볼드모트에 대한 기사가 한 줄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한쪽으로 밀쳐 두었던 것이다. 해리는 마법부가 <예언자 일보>에 볼드모트의 기사를 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 했다. 그러므로 이제야 아침에 보지 못하고 놓쳤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1면 하단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덤블도어의 사진위로 작은 표제가 실려 있었다.

덤블도어-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가장 위대한 마법사라고 생각했던 불완전한 천재의 충격적인 이야기, 다음 주에 전격공개. 리타 스키터는 은빛 수염을 기른 온화한 현자라는 덤블도어의 대중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방탕했던 젊은 시절, 평생에 걸친 불화 그리고 무덤까지 가지고 간 추악한 비밀들을 낱낱이 밝혀낸다. 왜 그는 마법부의 장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단지 평범한 교장으로 남아야만 했는가? 불사조 기사단이라고 알려진 비밀 조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덤블도어는 실제로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가?

이와 같은 의문들과 그 밖의 여러 의문들에 대한 대답이 새로 출간되는 충격적 전기,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리타 스키터 지음)에서 명쾌하게

밝혀진다. 관련기사 베티 브레이스웨이트의 독점 인터뷰, 13면에 계속

해리는 신문을 펼쳐서 13면을 찾아보았다. 또 다른 낯익은 얼굴이 실린 사진 한 장이 그 지면의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었다. 정성 들여 구불구불하게 손질한 금발에 보석 박힌 안경을 쓴 여자가 이빨을 다 드러내며 분명 제 딴에는 애교있는 미소라고 여겼을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해리는 최대한 이 구역질나는 모습을 무시하려고 애를 쓰며, 기사를 읽어내려 갔다.

개인적으로 만난 리타 스키터는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글이 주는 인상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아늑한 자택의 현관 복도에서 나를 반갑게 맞은 그녀는 곧장 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파운드케이크 한조각을 내놓았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가십을 한 보따리 풀어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물론 덤블도어는 전기 작가들의 꿈이죠.”

스키터가 말했다.

“그토록 갖가지 사건으로 가득 찬 긴 생애를 살았으니까요. 분명히 제 책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쓰아져 나올 거예요.”

분명 스키터는 출발이 빨랐다. 9백페이지에 달하는 그녀의 전기는 지난 6월에 덤블도어가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맞이한 뒤로 불과 4주만에 완성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이토록 초특급으로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오, 당신도 저만큼이나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 왔으니, 마감일에 맞추어 기사를 쓰는 것이 제 2의 천성처럼 몸에 배었을 거예요. 저는 마법 세계 전체가 이 사건의 전모를 간절히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그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나는 위즌가모트의 특별고문이자 알버스 덤블도어의 오랜 친구인 엘피아스 도지의 널리 알려진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스키터의 책은 개구리 초콜릿 카드만큼의 진실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스키터는 고개를 젓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오, 깜찍한 노인네! 몇 년 전인가 인어들의 권리에 대해서 그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아, 가엾어라. 완전 노망난 사람 같았어요. 우리가 원더미어 호수(잉글랜드 북서부에 있는 잉글랜드 최대호수:역주)바닥에라도 앉아 있는 줄 아는지 계속해서 저더러 송어(‘trout’에는 ‘송어’와 짜증나는 여자 ‘라는 뜻이 있음:역주)를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책이 부정확하다는 엘피아스 도지의 비난은 여기저기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스키터는 불과 4 주라는 짧은 시간이 덤블도어의 길고 비범한 생애를 완전히 그려 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이, 참”

스키터는 내 손마디를 다정하게 살짝 내려치며 활짝 미소지었다.

“겔레온 한 보따리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는지 당신도 나만큼이나 잘 알잖아요. ‘안 되요’란 말을 막는데 특효약이죠. 게다가 예리하고 훌륭한 속기 깃펜도 있고요! 어쨋든 덤블도어에 대한 험담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니까요. 당신도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 전부 덤블도어를 그렇게 대단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들의 심기도 엄청나게 많이 건드렸죠. 늙고 교활한 도지도 그 높은 히포그리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자들이 기꺼이 자기 지팡이와도 맞바꿀 그런 소식통과 제가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었는데, 덤블도어가 가장 난폭하고 소란스런 젊은 시절을 보낸 때 그와 아주 가까이 지냈답니다.”

스키터의 전기에 대한 사전 광고를 보면, 덤블도어가 흠 없는 삶을 살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키터가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무었이었을까?

“오우, 베티, 괜한 소리 말아요. 사람들이 책을 사기도 전에 나더러 제일 흥미로운 대목을 다 말해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스키터는 깔깔 웃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아직도 덤블도어가 그의 흰 수염처럼 결백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번쩍날 거예요! 덤블도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덤블도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어둠의 마법에 손을 댄 적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걸까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그토록 관용을 호소해 온 마법사가 젊은 시절에는 전혀 너그럽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래요, 알버스 덤블도어는 수상한 집안내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어두운 과거를 지녔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죠.”

나는 스키터에게 덤블도어의 동생인 애버포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물었다.  
15년전 그가 부적절한 마법 사용으로 위존가모트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오, 애버포스는 그 더러운 똥구덩이의 일각일 뿐이죠.”

스키터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영소들이랑 빈둥대며 놀기 좋아하는 동생이라든가. 머글들을 병신으로 만든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어쨋든 덤블도어는 두 사람 모두 조용히 덮어 둘 수는 없었죠. 양쪽 다 위존가모트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흥미를 끈 쪽은 오히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파헤쳐 본 결과, 엄청난 범죄의 온상을 발견했죠.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9 장에서부터 12 장에 걸쳐 읽으시게 될거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덤블도어가 어쩌다가 코를 부러뜨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집안의 비밀은 그렇다고 해도, 스키터는 수많은 마법의 발견을 이룬 덤블도어의 명석함까지 부인할 것인가?

“머리는 좀 있는 사람이었죠.”

스키터가 인정했다.

“비록 요즘 들어 과연 그가 이룩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업적들이 전적으로 그의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 말 말이죠. 제가 이책의 16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아이버 딜론스바이는 덤블도어가 그의 논문을 ‘표절’ 했을 때, 자신은 이미 용의 피를 사용하는 여덟가지 방법을 발견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덤블도어의 어떤 업적들은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린델왈드를 패배시킨 그 유명한 사건은 어떤가?

“오, 드디어 그리델왈드 이야기를 꺼내 줘서 기쁘군요.”

스키터가 감질나게 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덤블도어의 그 요란한 승리를 순진하게 바라 보았던 사람들은 폭탄선언을 들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것도 똑 폭탄을 말이죠. 참으로 더러운 일이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전설적인 엄청난 대결이 진짜 있었다고 너무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책을 읽고 나면, 사람들은 결국 그린델왈드가 지팡이 끝에 마법으로 불려낸 하얀 손수건을 달고 조용히 걸어 나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스키터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대신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그녀의 독자들을 매혹시킬 인간관계로 화제를 돌렸다.

“오, 그래요.”

스키터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이 책의 한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포터와 덤블도어의 관계를 밝히는 데 할애했어요. 사실 그것은 대단히 불건전하고 심지어 사악한 관계로 알려져 왔지요. 독자 여러분이 그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원한다면, 역시 제 책을 사 보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덤블도어가 처음부터 포터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 소년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일이었는지는, 글쎄요, 두고 봐야겠지요. 포터가 누구보다도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나는 스키터에게 아직도 해리와 연락이 되느냐고 물었다. 작년에 스키터는 해리와의 인터뷰로 명성을 날렸다. 그 횡기적인 인터뷰에서 포터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독점 공개한 바 있다.

“오, 그럼요. 우리는 꽤 긴밀한 유대를 맺어 왔거든요.”

스키터가 말했다.

“가엾은 포터에겐 진정한 친구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 트리위저드 시합 때 만났잖아요. 저는 아마 해리 포터의 참모습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살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일 거예요.” 그 말은 자연스럽게 덤블도어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싸고 아직도 떠돌고 있는 수많은 소문들로 이어졌다. 스키터는 덤블도어가 죽을 때 그 자리에 포터가 있었다고 믿고 있는가?

“글쎄요. 너무 많은 이야기는 해 드릴 수가 없네요. 모두 다 제 책에 적혀 있어요. 하지만 호그와트 성의 내부 목격자들은 덤블도어가 쓰러졌는지 누군가 덮쳤는지, 아니면 떠밀렸는지 어쨌든 그런 직후에, 해리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걸 보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포터는 세베루스 스네이프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지요. 해리가 원한을 품은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이죠. 과연 모든 게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일까요? 그거야 마법사 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죠. 일단 제 책을 읽어 본 다음에 말이죠.”

이 흥미로운 발언을 끝으로, 나는 스키터와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스키터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될 책을 쓴것만은 확실하다. 한편 덤블도어의 수많은 추종자들은 머잖아 자기네 영웅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드러날 것인지 두려움에 떨 것이다.

해리는 기사를 마지막 줄까지 다 읽은 후에도 여전히 멍하니 신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역겨움과 분노가 토했듯이 밀려올라왔다. 해리는 신문을 둘둘 뭉쳐서

있는 힘껏 벽을 향해 던져 버렸다. 신문 뭉치는 이미 넘쳐 나는 쓰레기통 근처에 쌓아 놓은 폐품 더미 위로 떨어졌다.

해리는 무턱대고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괜히 텅 빈 서랍을 열어 보기도 하고 책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기도 하면서, 자신이 뭘하고 있는지 거의 의식이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리타의 기사에 나온 구절들이 뒤죽박죽 떠오르며 자꾸만 맴돌았다.

저는 이 책의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포터와 덤블도어의 관계를 밝히는 데 할애했어요..... 사실 그것은 대단히 불건전하고 심지어 사악한 관계로 알려져 왔지요.....덤블도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어둠의 마법에 손을 댄 적이 있어요.....대부분의 기자들이 기꺼이 자기 지팡이와도 맞바꿀 그런 소식통과 제가 만났거든요.....

“거짓말이야!”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창문 너머로 잔디 깍는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려고 멈춰 서 있던 이웃집 사람이 불안한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해리는 침대에 털썩 걸터앉았다. 그 바람에 깨어진 거울이 춤추듯 흔들렸다. 해리는 거울을 집어 들고 손가락 사이로 빙글빙글 돌렸다. 덤블도어와, 리타 스키터가 그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서 꾸며 낸 거짓말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순간 아주 밝은 푸른색이 번쩍했다. 해리는 그 자리에서 꿈작도 하지 못했다. 이미 베인 손가락이 다시 거울의 깔쭉깔쭉한 가장자리 위로 미끄러졌다. 헛것을 본 것이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해리는 어깨 너머로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벽은 페트니아 이모가 고른 그 꼼찍한 복숭아 색 그대로였다. 거울에 비칠만한 푸른색이 나는 것은 전혀 없었다. 해리는 다시 거울 조각을 들여다 보았다. 자신의 빛나는 초록색 눈동자만이 빤히 마주 보고 있을 뿐이었다.

헛것을 본 것이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돌아가신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줄곧 생각을 하다보니, 그런 상상을 한것이다.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것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빛나는 푸른 눈이 두 번 다시 해리를 궤뚫듯이 바라보지 못하다는 사실이었다.

### 제 3 장 떠나는 더즐리 가족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계단 위까지 울려 퍼졌다. 곧이어 시끄러운 고함소리가 들렸다.

“야. 너!”

지난 16년 동안 항상 이런 식으로 불려 왔기 때문에, 해리는 이모부가 누구를 부르는지 뻔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해리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순간 덤블도어의 눈을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울 조각을 여전히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곧이어 이모부가 “이 녀석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해리는 비로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깨진 거울 조각을 배낭에 집어넣었다. 배낭 안에는 그가 가지고 갈 온갖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냐!”

해리가 계단 꼭대기에 모습을 나타내자, 버논 더즐리가 호통을 쳤다.

“당장 이리 내려와라! 할 말이 있다.”

해리는 청바지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채, 어슬렁어슬렁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로 들어서자, 더즐리 가족 세 명이 다 모여 있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는 옷차림이었다. 버논 이모부는 얇은 황갈색의 지퍼 달린 재킷을 입고, 페트니아 이모는 깔끔한 살구 빛 코트를 입고 있었다. 금발에 덩치 크고 근육질인 사촌 두들리는 가족 재킷을 입고 있었다.

“네?”

해리가 물었다.

“앉아!”

버논 이모부가 명령했다. 그러자 해리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여기 좀 앉으려무나.”

버논 이모부가 부드럽게 어조를 바꾸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시가 되어 목에 걸린듯 살짝 인상을 지푸렸다.

해리는 앉았다.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알 것 같았다. 이모부는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페트루니아 이모와 두들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마침내 너무 생각에 골똘한 나머지 불그죽죽한 그의 커다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질 지경이 되었을때, 버논 이모부는 해리 앞에 딱 멈춰 서더니 말했다.

“마음을 바꿨다.”

“그거 놀라운 일이군요.”

해리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란…….”

페트루니아 이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으려고 하는 순간, 버논 더즐리가 손을 흔들며 가로막았다.

“이건 전부 허튼수작이야.”

버논 이모부가 돼지 같은 작은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난 그 말을 한마디도 안 믿기로 결심했다. 우린 계속 이집에 있을 게다. 어디에도 가지 않겠단 말이다!”

해리는 이모부를 올려다보았다. 짜증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다. 버논 더즐리는 지난 4 주 동안 날마다 마음이 변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바뀔 때마다 차에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다시 싸곤 했다. 그러는 동안 해리가 제일 즐거웠던 순간은, 지난번 짐을 풀었을 때 두들리가 상자 속에 아령들을 넣어 둔 것을 모르고 버논 이모부가 상자를 번쩍 들어 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하다가 고통스런 신음소리와 더불어 욕설을 퍼부으며 텔썩 주저앉았을 때였다.

“네 말은 그러니까…….”

버논 더즐리가 다시 거실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 그러니까 페트루니아와 두들리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지? 그, 그…….”

“저랑 같은 ‘패거리’ 중 어떤 놈들 때문에 말이죠. 맞아요.”

해리가 말을 받았다.

“어쨌든 난 못 믿겠다.”

버논 이모부가 말을 되풀이하며 다시 해리 앞에와서 딱 멈춰섰다.

“밤을 반쯤 세우다시피 하며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집을 차지하려는 음모인 것 같다.”

“집이요?”

해리가 되물었다.

“무슨 집이요?”

“바로 이 집 말이다!”

버논 이모부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꽉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 이 동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단 말이다! 네 놈이 우리를 방해가 되지 않게 내몬 다음, 무슨 수리수리 마술을 부려서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집문서를 네녀석 이름으로 해 놓으려고 하는거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해리가 물었다.

“이 집을 차지하려는 음모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긴 것 만큼이나 멍청하신 건가요?”

“이 녀석이 감히!”

페트루니아 이모가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또다시 버논 이모부가 손을 흔들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자신의 생김새에 대한 조롱 따위는 자기가 발견한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이모부가 잊고 계실까 봐 하는 말인데요, 저에게는 이미 집이 한 채 있어요. 제 대부가 저에게 물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집을 원하겠어요? 무슨 행복한 추억이라도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해리는 이모부가 자기 말에 다소 납득을 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네 주장은 그 경인지 원지 하는 것이.....”

버논 이모부가 다시 서성거리며 말했다.

“볼드모트라니까요.”

해리가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벌써 그 이야기를 백 번쯤 했잖아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작년에 덤블도어 교수님도 이모부에게 말했잖아요. 킹슬리와 위즐리 아저씨도.....”

이 이름을 듣자, 버논 더즐리는 성난 듯이 어깨를 움츠렸다.

해리의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며칠 지났을 무렵에, 두 명의 어른 마법사가 불시에 방문했던 불쾌한 기억을 밀쳐 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더즐리 가족에게 킹슬리 샤클볼트와 아서 위즐리가 현관문 앞에 느닷없이 출현한 것은 참으로 불쾌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솔직히 위즐리 씨가 예전에 거실의 절반을 날려 버린 적이 있으니, 버논 이모부가 그의 재출현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킹슬리와 위즐리 아저씨도 모든 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해리는 가차 없이 돌아붙였다.

“제가 열일곱살이 되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보호 마법이 풀리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이모부네 가족도 위험에 노출된다고요. 기사단에서는 볼드모트가 틀림없이 이모부를 노릴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모부를 고문해서 제가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혹은 이모부를 인질로 잡고 있으면 제가 이모부를 구하기 위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버논 이모부와 해리의 눈이 마주쳤다. 해리는 이 순간 두사람 모두 똑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버논 이모부가 다시 서성거렸고, 해리는 말을 이었다.

“이모부네 가족은 은신처로 가야만 해요. 기사단은 돋고 싶어해요. 이모부네 가족은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될 거예요. 최고의 보호를 말이죠.”

버논 이모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했다. 밖에서는 태양이 쥐똥나무 산울타리 위로 낮게 걸려 있었다. 이웃집 잔디 깍는 기계도 다시 멈추었다.

“마법부라는 것이 있는 줄 아는데?”

버논 더즐리가 불쑥 물었다.

“있어요.”

해리가 깜짝 놀라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마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요주의 인물을 받아 준것 이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희생자들로서, 우리야말로 정부의 보호를 요청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나!”

해리가 큰 소리로 웃었다.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토록 경멸하고 불신하는 마법 세계 내에서조차 어쨌든 정부기관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태도가 너무나 버논 이모부다웠기 때문이었다.

“위즐리 아저씨와 킹슬리가 하는 말을 이모부도 들었잖아요.”

해리가 대답했다.

“저희 생각에는 마법부에 저쪽 세력이 침투한 것 같아요.”

버논 이모부는 벽난로 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는 검고 무성한 콧수염이 훌날릴 정도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머리를 쥐어짜느라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좋다.”

이모부가 다시 해리 앞에 우뚝 서서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논의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 보호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이 그 킹슬리인지 뭔지 하는 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해리는 가가스로 눈알을 굴리지 않고 참았으나, 무척 힘들었다. 이 문제 역시 이미 대여섯번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리는 이를 갈면서 대답했다.

“킹슬리는 머글..... 그러니까 당신들의 수상님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죠”

“바로 그 말이다! 그렇다면 그가 최고란 말 아니냐!”

버논 이모부가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더줄리 가족은 머글 수상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킹슬리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던 것이다. 이 사실과 더불어 킹슬리의 느리고 낮은 목소리가 웬지 신뢰감을 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머글처럼 옷 입는 요령을 완전히 터득했다는 것 때문에 더줄리 가족은 그를 여느 마법사들과는 다르게 생각했다. 물론 그들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킹슬리의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어쨌든 그는 다른 일을 맡았어요.”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헤스티아 존스와 데달루스 디글이 그런 일에는 훨씬 더 적.....”

“혹시 우리가 그자들 이력서라도 본다면 모를까.....”

버논 이모부가 다시 불평을 시작했다. 순간 해리는 참을성을 잊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모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TV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차량 충돌이니 폭파니 열차 탈선이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뉴스를 본 이후로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사고들이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거나 죽고 있어요. 그리고 배후에는 그자가 있다고요. 바로 볼드모트요! 제가 벌써 몇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자는 재미 삼아 머글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안개도 디멘터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디멘터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어디 당신 아드님께 물어보시고요!”

두들리가 발작을 일으키듯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부모님과 해리가 빤히 보고 있는 가운데, 천천히 손을 내리고 물었다.

“그..... 그런 것들이 더 있단 말이야?”

“더 있느냐고?”

해리가 웃음을 터트렸다.

“우리를 공격한 그 두 놈 말고 더 있느냐 뜻이야? 당연히 더 있고말고 수백 명, 아니 지금쯤은 수천명이 더 될 거야. 그놈들은 공포와 절망을 먹고 사니까....”

“알았다. 알았어.”

버논 더줄리가 호통을 쳤다.

“네 말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군요. 제가 일단 열일곱살이 되면, 그놈들, 그러니까 죽음을 먹는 자들과 디멘터들, 어쩌면 인페리우스들까지, 인페리우스가 뭐냐 하면요, 놈들은 어둠의 마법사에 의해서 마법에 걸린 송장들인데요, 그들 모두가 이모부 가족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분명히 공격을 할 테니까요. 지난번에 마법사들의 눈을 피해 달아나려 하셨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신다면, 이모부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하시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해그리드가 나무 현관문을 때려 부수던 요란한 소리가 오랜 시간의 간격을 건너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했다. 페트니아 이모는 버논 이모부만 바라보고 있었고, 두들리는 해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버논 이모부가 불쑥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내 직장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두들리의 학교는 또 어떻게 하고? 물론 땅돌이 마법사 놈들이야 그런 문제에 신경도 안쓰겠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해리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자들은 제 부모님에게 그랬듯이, 이모부네 가족도 고문하고 죽일 거라고요!”

“아빠!”

갑자기 두들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빠, 전 기사단 사람들이랑 갈래요.”

“두들리, 네 평생 처음으로 지각있는 말을 하는구나.”

해리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그는 드디어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알았다.

두들리가 겁에 질려서 기사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면, 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갈 것이다. 그들의 귀염둥이 자식과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해리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여행용 휴대시계를 훑듯 보았다.

“5분 후면 기사단 사람들이 도착할 거예요.”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방을 떠날 때까지 더즐리 식구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과 헤어진다는 것은-그것도 어쩌면 영원히-그로서는 무척 즐겁게 여길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도대체 16년 동안이나 지독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자기 방으로 돌아간 해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배낭 안을 뒤적였다. 그런 다음 헤드위그의 새장 창살 사이로 부엉이 먹이용 나무 열매 두 알을 집어넣어 주었다. 나무 열매는 새장 바닥에 톡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헤드위그는 모르는 척했다.

“우린 곧 떠날거야. 이제 곧 말이야.”

해리가 헤드위그를 달랬다.

“그럼 넌 다시 날아다닌 수 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해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헤스티아와 데달루스에게 더즐리 가족을 직접 상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해리 포터!”

해리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잔뜩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옆은 자주색 중산모를 쓴 자그마한 남자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변함없이 영광일세!”

“고맙습니다. 데달루스.”

해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검은 머리의 헤스티아를 향해서 쑥스러운 듯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이런 수고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모와 이모부, 사촌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리 포터의 친척 여러분!”

데달루스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면서 유쾌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더즐리 가족은 이런 인사를 받는 것이 전혀 유쾌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해리는 혹시 또다시 마음이 바뀌는게 아닐가 걱정했다. 두들리는 마녀와 마법사를 보더니 엄마곁으로 바싹 몸을 숨겼다.

“벌써 짐도 다 싸 놓고 떠날 준비가 되셨군요! 아주 출렁합니다! 해리가 벌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데달루스가 양복 조끼에서 커다란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다.

“우리는 해리보다 먼저 떠날 것입니다. 이 집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해리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까딱하면 마법부가 해리를 체포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동차를 타고 16킬로미터 정도 간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선정한 안전 지역으로 순간이동을 할 것입니다. 운전하는 법은 아시겠지요?”

데달루스가 버논 이모부에게 공손하게 물었다.

“뭐..... 뭘 아느냐고? 물론 운전하는 법이라면 꼼꼼하게 자알 알고 있소!”

버논 이모부가 침을 튀기며 대답했다.

“아주 똑똑하시군요. 정말 똑똑하십니다. 저라면 이 단추니 손잡이니 하는  
것이 완전히 혼이 빠져 버릴 텐데요.”

데달루스가 칭찬을 늘어 놓았다. 제 딴에는 버논 더즐리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버논 이모부는 데달루스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점점 신뢰를 잃어 가는 표정이 역력했다.

“운전도 못한다니.”

이모부가 들릴 듯 말 듯 낮은 소리로 투덜거렸다. 그의 콧수염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다행이 데달루스도 헤스티아도 그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해리, 너는.”

데달루스가 말을 이었다.

“여기서 호위대가 올 때 까지 기다려. 계획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해리가 곧바로 물었다.

“매드아이가 이곳으로 와서 저랑 동반 순간이동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럴 수가 없게 됐어. 설명은 매드아이가 할 거야.”

해스티아가 딱 잘라 말했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아 들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서  
있던 더즐리 가족은 갑자기 어디선가 “서둘러!” 하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해리도 어리둥절해서 방 안을 둘러보다가,  
뒤늦게 데달루스의 회중시계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알았어, 알았다고, 우린 지금 아주 빽빽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데달루스가 시계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조끼에 넣었다.

“해리, 우리는 너희 친척들이 순간이동을 하는 바로 그때, 너도 이 집을  
떠나는 걸로 시간을 맞출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은신처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 보호 마법도 깨지는 거지.”

“그럼 모두 짐을 싸고 떠날 준비가 되었겠지요?”

더즐리 가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버논 이모부는 아직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불룩 튀어나온 데달루스의 조끼 호주머니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잠깐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데달루스.”

헤스티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해리와 더즐리 가족이 애정 어린, 그리고  
어쩌면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에 두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은 눈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게 분명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해리가 중얼거렸다. 그러자 버논 이모부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딱 잘라 말했다.

“그래, 그럼 이걸로 작별이다, 애야.”

버논 이모부는 해리에게 악수를 청할 듯이 오른쪽 팔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자신이 없는 듯이 그저 주먹을 꼭 쥐더니 메트로늄처럼  
팔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디디, 준비됐지?”

페투니아 이모도 해리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괜히 부산스럽게  
핸드백이 꼭 잠겼는지 확인하면서 두들리에게 물었다.

두들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을 살짝 벌린 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해리는 웬지 거인 그룹이 떠올랐다.

“그럼, 어서 가자.”

버논 이모부가 재촉했다. 그리고 이모부가 벌서 거실 문 앞까지 다 갔을 때,  
갑자기 두들리가 중얼거렸다.

“이해가 안가요.”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니, 우리 아가?”

페투니아 이모가 아들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두들리가 커다란 행 덩어리 같은 손을 들어서 해리를 가리켰다.

“왜 해리는 우리랑 같이 안 가죠?”

그러자 버논 이모부와 페트루니아 이모가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두들리를 쳐다보았다. 마치 두들리가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고 말이라도 한 것 같았다.

“뭐라고?”

이모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해리는 함께 가지 않는 거죠?”

두들리가 물었다.

“글쎄, 그..... 그건 해리가 원하지 않아서다.”

버논 이모부는 시선을 돌려 해리를 무섭게 노려보며 덧붙였다.

“그러고 싶지 않지? 안그러냐?”

“전혀요.”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거봐라. 자, 이제 가자, 어서 떠나야지.”

버논 이모부가 두들리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먼저 방 밖으로 나갔다. 이후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두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페트루니아 이모도 머뭇머뭇 몇 발자국 움직이더니 역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번엔 또 뭐냐?”

버논 이모부가 문가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며 호통을 쳤다.

두들리는 마치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 어려운 생각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몇 분 동안 고통스럽게 머릿속으로 씨름을 하던 두들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면 해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페트루니아 이모와 버논 이모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두들리의 행동 때문에 분명 놀란 것 같았다. 그때 헤스티아 존스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렇지만..... 물론 조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계신 거죠?”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 알고말고.”

번논 더즐리가 대답했다.

“당신네 패거리 중 누군가와 떠나는 거잖소, 안 그렇소? 두들리, 어서 차에 타거라, 저 사람 말 못 들었느냐? 서둘러야 한단 말이다.”

버논 더즐리는 또다시 현관문까지 걸어갔다. 하지만 두들리는 따라가지 않았다.

“우리 패거리 중 누군가와 떠나는 거라고요?”

헤스티아가 성난 표정을 지었다. 해리는 전에도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있었다. 마녀들이나 마법사들은 해리의 살아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유명한 해리 포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해리가 헤스티아를 달랬다.

“솔직히 아무 상관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헤스티아가 그의 말을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험악하게 높아졌다.

“이 사람들은 네가 어떤 일을 겪어 왔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니? 네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반 볼드모트 운동의 중심에서 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도?”

“어..... 그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몰라요.”

해리가 대답했다.

“사실 저 사람들은 제가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그런 대접을 받는 데 익숙해서....”

“난 네가 자리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않아.”

만약 두들리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면 해리는 그 사실을 결코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촌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초 동안 멍하니 두들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게 확실한 한 가지 이유로, 두들리의 얼굴이 새빨갰던 것이다. 해리는 몹시 당황스럽고 놀라웠다.

“어....그래.....고마워, 두들리.”

또다시 두들리는 뭔가 좀처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듯 하더니 입속말로 웅얼거렸다.

“넌 내 목숨을 구해 주었어.”

“꼭 그런 건 아니야”

“디멘터들이 노렸던 건 네 목숨이 아니라 영혼이었으니까”

해리는 새삼스런 눈길로 사촌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이번 여름이나 지난여름 동안, 거의 마주친 일이 없었다. 해리가 너무 잠깐 프리벳가에 돌아왔다가 떠난 데다, 항상 자기 방에 쳐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날 아침에 밟았던 식은 찻잔이 함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쨋든 다소 감동을 받긴 했지만, 두들리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능력을 다 써 버린 듯 보이자 해리는 크게 안도 했다. 두들리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한두번 입을 벙끗거리더니 얼굴만 빨개진 채, 그만 입을 다물었다.

그때 페트루니아 이모가 왈칵 울음을 터트렸다. 헤스티아 존스는 비로소 만족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페트루니아 이모가 앞으로 달려 나가더니 해리가 아니라 두들리를 껴안는 걸 보고 금세 다시 성난 얼굴이 되었다.

“차..... 착하기도 하지, 우리 아가.”

이모는 두들리의 거대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출썩거렸다.

“이..... 이렇게 사..... 사랑스러울 수가..... 고맙다는 마..... 말도 다 하고.....”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마침내 헤스티아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단지 해리가 자리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만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두들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사랑해’란 말과 같은 거예요.”

해리가 말했다. 마치 방금 두들리가 불타는 건물에서 해리를 구해 내기라도 한 듯이 자기 아들을 꼭 붙잡고 있는 페트루니아 이모의 모습을 보자, 해리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도대체 갈 거야, 말 거야?”

버논 이모부가 또다시 거실 문 앞에 모습을 나타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일정이 아주 빽빽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뉘을 놓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데달루스 디글이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 말했다.

“이제 진짜로 떠나야겠군, 해리.....”

그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해리의 손을 감싸 쥐었다.

“행운을 빌겠어,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라네. 모든 마법 세계의 희망이 자네의 어깨에 달려 있어.”

“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안녕, 해리. 항상 너를 생각할게.”

헤스티아도 해리의 손을 꼭 잡으며 인사했다.

“모든 일이 잘되길 빌어요.”

해리가 페트루니아 이모와 두들리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오, 우리는 틀림없이 결국에는 제일 좋은 친구 사이가 될텐데 위.”

디글이 유쾌하게 말하더니 모자를 훤히며 방을 나섰다. 헤스티아가 그 뒤를 따랐다.

두들리는 자신을 꼭 붙들고 있던 엄마를 살짝 떼어 놓더니 해리를 향해 걸어왔다. 해리는 마법으로 그를 위협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려야만 했다. 그때 두들리가 커다란 분홍색 손을 불쑥 앞으로 내밀었다.

“이런 제기랄, 두들리.”

해리는 또다시 터져 나오는 페투니아 이모의 흐느낌을 무시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디멘터 놈들이 너에게 새로운 성격이라도 불어넣어 준거니?”

“나도 몰라.”

두들리가 웅얼거렸다.

“또 보자, 해리.”

“그래..... 어쩌면.”

해리는 두들리의 순을 잡고 흔들었다.

“몸조심해, 빅 D”

두들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킁킁거리며 방을 나가 버렸다.

해리는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걸어가는 그의 육중한 발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자동차 문이 광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있던 페투니아 이모는 그 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설마 해리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았다. 이모는 눈물에 젖은 손수건을 황급히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더니 말했다.

“그럼..... 잘 가거라.”

그리고는 해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안녕히 가세요.”

해리가 인사를 했다.

이모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잠깐 동안 해리는 이모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전전공공하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으며 당장이라도 말을 할 듯이 입술을 달싹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살짝 젓더니 남편과 아들의 뒤를 쫓아서 부산스럽게 방을 나가 버렸다.

#### 제 4 장 일곱 명의 포터

해리는 자기 방이 있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창가에 도착하자마자, 더즐리 가족의 자동차가 진입로를 막 벗어나서 도로로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다.

뒷자석에 앉은 페투니아 이모와 두들리 사이로 데달루스의 중산모가 보였다.

자동차가 프리벳가의 끝에서 우회전을 했다. 잠깐 동안 석양을 받아 자동차 유리창이 빨갛게 타오르는 듯하더니 자동차는 곧 사라졌다.

해리는 헤드위그가 든 새장과 파이어볼트, 배낭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말끔하게 정돈된 침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쭉 돌아보고는, 깅낑거리며 현관 복도까지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그는 계단 발치에 새장과 빗자루,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제 빠르게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 속에 현관 복도는 어둠으로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막한 집에 혼자 서 있으려니,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이상했다. 오래전, 더즐리 가족이 자기들끼리만 즐기기 위해 외출을 나가고 혼자 집에 남게 되면, 그 고독한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커하고 특별한 즐거움이었다. 잠깐씩 냉장고에서 뭔가 맛있는 걸 살짝 꺼내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줄곧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두들리의 컴퓨터를 가지고 놀거나, 혹은 텔레비전을 켜고 마음 내키는 대로 채널을 돌리곤 했었다. 그 시절을 생각하니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잊어버린 남동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심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래?”

해리가 헤드위그에게 물었다. 헤드위그는 아직도 셀쭉해서 날개 밑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우린 여기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 모든 즐거웠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 현관 매트를 좀 봐. 어떤 기억이 있었나..... 내가 두들리를 디멘터한테서 구한 뒤에 그 녀석은 여기다 토했었지..... 알고 보니 그 녀석도 그 일을 고마워하고 있었어. 넌 그게

믿어지니?..... 지난 여름에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이 현관문을 통해서 걸어 들어왔었는데.....

해리는 잠깐 동안 상념에 젖어 들었다. 하지만 헤드위그는 그가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도와줄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계속 날개 밑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 있었다. 해리는 현관문을 등지고 돌아섰다.

“그리고 여기 아래 좀 봐. 헤드위그”

해리는 계단 밑에 나 있는 벽장문을 당겨서 열었다.

“옛날에는 내가 여기서 잠을 잤는데! 그때 너는 나를 전혀 몰랐지. 아이고, 참 즐기도 하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해리는 높이 쌓여 있는 신발과 우산 더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 계단 밑바닥을 옮겨다보곤 했던 일을 떠올렸다. 대개는 거미 한두 마리가 밑바닥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런 시절에도 계속 그를 괴롭히던 꿈들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었다. 눈부신 초록 불빛이 등장하는 혼란스런 꿈이었다. 한번은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나왔는데, 해리가 그 꿈 이야기를 하자 버논 이모부는 거의 차를 들이박을 뻔했었다.

그때 갑자기 근처 어디선가 귀를 멍하게 할 정도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반사적으로 벌떡 몸을 일으키다가 낮은 문틀에 머리를 쾅 부딪쳤다. 그는 버논 이모부가 쓰는 가장 혐악한 욕설 몇 마디를 내뱉은 후에 머리를 감싸 친채,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그리고 창 너머로 뒷마당을 열심히 내다보았다.

어둠이 넘실거리고 공기조차 파르르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투명 마법이 사라지면서 한 사람씩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뛰는 것은 해그리드였다. 헬멧과 보안경까지 쓴 그는 검은색 사이드카가 옆에 달린 거대한 오토바이 위에 턱하니 올라타고 있었다. 한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빗자루에서 내렸고, 그중 두명은 검은 날개가 달린, 해골 같은 말에서 내렸다.

해리는 뒷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반가운 함성 속에서 헤르미온느가 두팔로 그를 끌어 안았다. 론은 그의 등을 탁탁 쳤다. 해그리드는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다.

“어이, 해리. 잘 지냈지? 떠날 준비는 됐나?”

“물론이죠.”

해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계획이 변경되었단다.”

매드아이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랗고 불룩한 자루가 두 개나 들려있었다. 그의 마법의 눈은 어둠에 물든 하늘과 집과 정원을 교대로 살피느라 정신없이 팽팽돌고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집으로 들어가자.”

해리는 사람들을 모두 부엌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왁자지껄 웃고 떠들면서 각자의자나 페트니아 이모가 번쩍번쩍하게 닦아 놓은 조리대 위에 앉거나, 얼룩 한 점 없는 가전제품에 몸을 기대고 섰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론, 부스스한 머리를 길게 땋아서 하나로 묶은 헤르미온느, 똑같이 썩 웃고 있는 프레드와 조지, 심한 흉터가 얼굴에 남은 긴 머리의 빌, 약한 휘어진 안경을 쓰고 머리가 벗겨진 선량한 얼굴의 위즐리 씨, 술한 전투를 치르고 외다리에 눈구멍에서는 빛나는 푸른 마법의 눈이 빙빙 돌고 있는 매드아이, 짧은 머리를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선명한 분홍색으로 물들인 통스, 머리가 더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더 많아진 루핀, 날씬하고 아름다운, 은빛나는 긴 금발의 플로르, 대머리에 얼굴이 검고 어깨가 떡 벌어진 킹슬리,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고 허리를 잔뜩 수그린, 수염과 머리카락이 덥수룩한 해그리드, 그리고 풀 죽은 바셋 하운드 사냥개 같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지닌, 왜소하고 지저분하고

비굴한 먼던구스 플레처. 이들의 모습을 보자 해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터질 듯이 부풀었다. 이들 모두에게 무한한 애정이 솟구치는 걸 느꼈다. 심지어 지난번에 만났을 때에는 목을 졸라 버리려고 했었던 먼던구스에 대해서 까지.

“킹슬리, 당신은 머글 수상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해리가 물었다.

“하룻밤쯤은 나 없이도 잘 지낼거야. 그보다는 네가 훨씬 더 중요하지.”

킹슬리가 대답했다.

“해리. 무슨 일이 있었게?”

세탁기 위에 떡하니 올라앉은 통스가 물었다. 그러면서 그의 눈앞에 왼쪽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 손에서는 반지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

“결혼했어요?”

해리가 통스와 루핀을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다.

“해리. 부르지 못해 미안해. 아주 조용한 결혼식이었어.”

“와, 멋지네요. 정말 축하.....”

“자, 자, 안부는 나중에 한가한 시간에 물도록 하지.”

왁자지껄한 가운데 무디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순식간에 부엌 안이 조용해졌다. 무디가 배낭을 발밑에 내려 놓더니 해리를 향해 돌아섰다.

“아마 데달루스가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획 A를 포기해야만 했다.

파이어스 씨크니스가 저편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처지가 아주 곤란해졌거든. 그자가 이 집을 플루가루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여기에 포트키를 설치하거나, 순간이동으로 드나드는 행위 모두를 감옥에 갈 만한 중죄로 만들어 버렸어. 그게 전부 널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취해진 조치란다. 그 사람이 너를 잡으러 들어오는 걸 막는답시고 말이지. 하지만 네 어머니의 마법이 벌써 이 집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완전히 쓸데없는 짓이거든. 그가 실제로 한 것은 네가 이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는 걸 막은 것이지. 두 번째 문제는 네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거야. 그 뜻은 네가 아직도 ‘추적 마법’에 걸려 있다는 거지.”

“하지만 전.....”

“추적, 추적 마법 말이다!”

매드아이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17 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마법 행위를 추적하는 마법이야. 그걸 통해서 마법부에서 미성년 마법 행위를 알아낸단 말이다! 만약 너나, 혹은 네 주위의 누군가가 마법을 써서 너를 이집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씨크니스는 당장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따라서 죽음을 먹는 자들도 알게 되지.

하지만 우린 추적 마법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네가 열일곱 살이 되는 그 순간, 네 어머니가 너에게 부여한 모든 보호의 힘도 사라질 테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파이어스 씨크니스는 너를 아주 제대로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할 게다.”

해리 역시 씨크니스라고 하는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이동 수단을 이용할 거야. 추적 마법이 알아챌 수 없는 유일한 수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걸 사용하는 데에는 굳이 마법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빗자루와 세스트랄, 그리고 해그리드의 오토바이란다.

해리는 단박에 이 계획이 허점투성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매드아이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네 어머니의 마법은 오직 두 가지 조건하에서 풀리게 되어있다. 하나는 네가 성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디가 청결한 부엌 안을 손짓으로 훑 가리켰다.

“네가 더 이상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이다. 오늘밤 너와 네 이모와 네 이모부는 각자 다른 길로 헤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번 다시 함께 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서로 충분히 알고 있겠지. 그렇지?”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가 네가 이 집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보호 마법은 깨어질 것이다. 우린 그 마법을 조금 일찍 깨뜨리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찾아와서 네가 열일곱살이 되는 순간에 너를 붙잡아 갈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우리 쪽에 유리한 한가지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밤 너를 이동시키기로 했다는 계획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법부에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단다. 그자들은 네가 30 일이 될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상대가 다름아닌 그 사람인 만큼, 그자가 잘못된 날짜를 믿고 있단 사실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어. 그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죽음을 먹는 자들 두 명에게 이 지역 전반의 하늘을 순찰하도록 지시를 내렸단다. 그래서 우리는 열두 채의 서로 다른 집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모든 보호 마법을 걸어 놓았어. 열두 채의 집들 모두 앞으로 우리가 너를 숨기려고 하는 장소처럼 보이도록 말이지. 그 집들 모두 불사조 기사단과 관련이 있거든. 한 채는 우리집이고 또 하나는 킹슬리네, 또 몰리의 뮤리엘 아주머니네..... 무슨 말인 줄 알겠지.”

“네.”

해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완전히 진심은 아니었다. 여전히 이 계획에는 커다란 허점이 보였던 것이다.

“너는 우선 통스의 부모님 댁으로 갈 거야. 일단 우리가 집에 걸어 놓은 보호 마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포트키를 사용해서 바로우까지 갈 수 있어. 질문 있니?”

“어.....있어요.”

해리가 입을 열었다.

“물론 제가 열두 채의 은신처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어느 집으로 갈지 저들이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리는 재빨리 머릿수를 헤아려 보았다.

“우리 열네명이 같이 통스의 부모님 댁으로 날아가면 당연히 눈에 띄지 않겠어요?”

“아 참.”

무디가 말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을 깜박 잊고 말하지 않았구나. 우리 열네명이 모두 통스의 부모님 댁으로 날아가지는 않을 게다. 그 대신 오늘 밤 일곱 명의 해리 포터가 하늘을 날게 될 거야. 각기 동료 한 사람씩과 함께 서로 다른 은신처로 향할 거란 말이다.”

무디가 망토 안에서 진흙처럼 보이는 것이 담긴 플라스크를 꺼냈다. 굳이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해리는 당장 어떤 계획인지 알아차렸다.

“안 돼요!”

해리는 부엌이 짜렁짜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

헤르미온느가 약간 우쭐하며 말했다.

“여섯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걸 제가 그냥 보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랬지.”

론이 얼른 말을 받았다.

“하지만 이건 달라. 나로 위장하는 건.....”

“그래, 사실 이 일을 정말로 달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해리”  
프레드가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다 뭔가 잘못되어, 영원히 이 비쩍 마르고 몰골사나운 꼬마의 몸으로 남아야만 한다고 생각해 봐.”

하지만 해리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을걸요. 제 머리카락이 필요하실 테니까 말이죠.”

“이런, 우리 계획이 말짱 도루묵이 되겠는걸.”  
조지가 말했다.

“네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여럿이서 네 머리카락 몇 가닥쯤 빼앗을 가망성이 전혀 없으니 말이야.”

“그래, 우리 열세 명이 마법조차 사용할 수 없는 꼬마 한 명을 상대한단 말이지. 아이쿠, 이걸 어떻게 이긴담?”

프레드가 말했다.

“퍽도 재밌군. 아주 재미있어요.”  
해리가 중얼거렸다.

“꼭 강제로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무디가 성난 어조로 말했다. 그가 해리를 노려보자. 그의 마법의 눈이 눈구멍 안에서 파르르 떨렸다.

무디가 말을 이었다.

“포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인이다. 게다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순간 먼던구스가 얼굴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자 무디의 마법의 눈이 머리 한쪽으로 쑥 튀어나오더니 그를 째려보았다.

“더 이상 괜한 입씨름은 하지 말자꾸나. 아까운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어.  
이제 그만 머리카락 몇 가닥만 내놓아라.”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  
“이럴 필요가 없다고!”

무디가 벼락 고함을 질렀다.

“그 사람이 저 바깥에 있고 마법부의 절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었는데도? 포터,  
혹시 우리가 운이 좋다면 그자가 거짓 미끼를 물어서 30 일에 너를 덮칠 계획을  
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먹는 자들 한두 명에게 감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만큼 정신 나간 작자는 결코 아니야. 나라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자들은 네 어머니의 마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너나 이집을 건드리지 못할  
게다. 하지만 곧 마법이 깨질 때가 되었고, 그 자들도 대충 이 집이  
어디쯤인지는 알고 있어. 우리의 유일한 기회는 적을 유인하는 것 뿐이야. 그  
사람도 자신을 일곱으로 쪼개진 못할 테니.”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러나 해리는 곧 시선을 돌렸다.  
“그러니 포터, 네 머리카락을 어서 내놓거라. 부탁이다.”

해리는 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냥 어서 해 버리란 식의 표정을 지었다.

“어서!”

무디가 호통을 쳤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해리는 머리를 향해 손을 올렸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확 잡아당겼다.

“잘했다.”

무디가 마법약이 담긴 플라스크의 마개를 뽑으면서 절룩절룩 다가왔다.

“여기다 바로 넣어라.”

해리는 진흙 같은 액체 속으로 머리카락을 떨어뜨렸다. 머리카락이 표면에  
닿자마자, 마법약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연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맑고 투명한 황금색 액체로 변했다.

“오우 해리, 넌 크레이브나 고일보단 훨씬 더 맛있게 생겼다.”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하지만 곧 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걸 알아채곤  
살짝 얼굴을 붉히며 덧붙였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 고일로 변신하는 약은 마치 말라붙은 코닥지  
같았거든.”

“좋아, 그럼 가짜 포터들은 이쪽으로 와서 한 줄로 서게나.”

무디가 지시했다.

론, 헤르미온느, 프레드, 조지, 그리고 플로르가 페트니아 이모의 반짝반짝 윤이 나는 싱크대 앞에 줄지어 섰다.

“한 사람이 부족한 걸”

루핀이 말했다.

“여기 있어.”

해그리드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더니 먼던구스의 목덜미를 잡고 번쩍 들어서 플로르의 옆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플로르는 대 놓고 코를 짹그리며 얼른 프레드와 조지 사이로 가서 섰다.

“말했잖아. 난 경호를 맡고 싶다고.”

“시끄러워.”

무디가 호통을 쳤다.

“이미 말하지 않았나, 이 비겁한 버리지 같은 놈아. 혹시라도 죽음을 먹는 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포터를 사로잡으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진 않을거야. 덤블도어가 항상 말했듯이, 그 사람은 포터를 직접 끝장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 제일 걱정스러운 건 오히려 경호원들이야. 죽음을 먹는 자들은 경호원을 죽이려고 할 테니까.”

이 말을 듣고도 먼던구스는 별로 안심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디는 이미 삶은 달걀 담는 컵 정도의 유리잔 여섯 개를 망토 속에서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준 다음, 폴리주스 마법약을 각기 조금씩 따라주었다.

“그럼, 다 함께.....”

론과 헤르미온느, 프레드, 조지, 플로르 그리고 먼던구스가 잔을 쭉 들이켰다. 마법약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모두 숨을 헐떡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즉시 그들의 얼굴이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뜨거운 촛농처럼 녹아내렸다.

헤르미온느와 먼던구스는 위로 쑥 커졌고, 론과 프레드, 조지는 키가 줄어들었다. 그들의 머리 색이 검어졌고, 헤르미온느와 플로르는 머리카락이 다시 머리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한편 무디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커다란 자루들의 끈을 풀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다시 허리를 펴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여섯 명의 해리 포터들이 헐떡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프레드와 조지는 서로를 돌아보더니 동시에 소리쳤다.

“우와, 우리가 똑같아졌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

프레드가 주전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빌, 쳐다보지 마. 내 모습이 너무 끔직해. ‘

플로르가 전자레인지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푸념을 했다.

“옷이 좀 헐렁하면, 여기 더 작은 것이 있다.”

무디가 첫 번째 자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면 옷이 좀 작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들 안경을 잊지 말도록. 옆 주머니에 안경 여섯개가 들었으니까. 옷을 다 입은 사람은 다른 자루에 있는 짐들을 챙겨라.”

한편 진짜 해리는 지금껏 참으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거야말로 가장 괴상한 광경일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와 똑같이 생긴 분신 여섯명이 자루를 뒤져서 옷을 꺼내 입고 안경을 쓰고 각자 입었던 옷을 자루 속에 쑤셔 넣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그들에게 부디 자신의 사생활을 좀 더 존중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 모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옷을 훌훌 벗어 던졌던 것이다. 자기들 몸이었다면 안 그랬을 것을, 그의 몸이기에 훨씬 더 쉽게 내보이는 것이 분명했다.

“지니가 문신 어쩌고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군.”

론이 벌거벗은 가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해리, 너 시력이 지독하게 나쁘구나.”

이번에는 헤르미온느가 안경을 쓰며 외쳤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나자, 가짜 해리들은 두 번째 자루에서 배낭과 박제된 하얀 부엉이 한 마리가 들어 있는 새장 하나씩을 꺼내 들었다.

“좋아.”

마침내 옷을 갈아입고 안경을 쓰고 가방을 짊어진 일곱명의 해리가 그의 앞에 우뚝 서자 무디가 말했다.

“다음과 같이 한 조를 이루도록. 먼던구스는 나와 함께 빗자루를 타고 간다.”

“왜 하필 나야?”

뒷문에 제일 가까이 서 있던 해리가 투덜거렸다.

“자네야말로 반드시 감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무디가 윽박질렀다.

과연 말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무디의 마법의 눈은 먼던구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서와 프레드”

“저는 조지인데요.”

무디가 지적한 쌍둥이 중 하나가 말했다.

“저희가 해리로 변신했을 때 조차도 저희를 구별하지 못한단 말인가요?”

“조지, 미안하네.”

“그저 장난 좀 쳤어요. 제가 프레드 맞아요.”

“쓸데없는 장난 좀 그만 쳐!”

무디가 호통을 쳤다.

“거리 자네는, 조지든 프레드든 누구든 간에 리무스랑 가도록, 그리고 델라쿠르 양은……”

“제가 플뢰르와 함께 새스트랄을 타고 가겠어요.”

빌이 얼른 앞으로 나섰다.

“플뢰르는 빗자루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플뢰르는 냉큼 걸어 나와 빌 옆에 바싹 붙었다. 그러더니 해리가 자기 얼굴에는 절대로 그런 표정이 떠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만큼, 느끼하고 비굴한 얼굴로 빌을 바라보았다.

“그레인저 양은 킹슬리와 가도록, 역시 세스트랄을 타고.”

헤르미온느는 크게 안도하는 표정으로 킹슬리의 미소에 웃음으로 답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도 빗자루 타는 데 별로 자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너와 나만 남는구나. 론!”

통스가 밝게 웃으며 론에게 손짓하다가 그만 머그컵 걸이를 쳐서 넘어뜨렸다. 하지만 론은 헤르미온느만큼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해리, 너는 나랑 가는 거야. 괜찮지?”

해그리드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린 오토바이를 타고 갈 거야. 빗자루나 세스트랄은 내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좌석이 나 혼자 앓기에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넌 사이드카에 타도록 해.”

“그거 아주 멋진데요.”

해리가 감탄했다. 하지만 전적으로 진심만은 아니었다.

“틀림없이 죽음을 먹는 자들은 네가 빗자루를 타고 갈 줄 알고 있을 게다.”

해리의 기분을 알아차린 듯이, 무디가 설명했다.

“이제 스네이프는 시간이 넉넉할 테니, 지금껏 너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모든 사실들을 그자들에게 낱낱이 알려 주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죽음을 먹는 자들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자들은 여러 포터들 중에서 분명 제일 능숙하게 빗자루를 타는 듯이 보이는 포터를 노릴 거라는 게 우리의 짐작이다. 자, 그럼…….”

무디가 가짜 포터들의 웃이 잔뜩 담긴 자루를 다시 옮라매며 제일 먼저 문으로 향했다.

“다들 떠날때까지 3분의 여유를 둘 것이다. 뒷문을 잠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죽음을 먹는 자들이 찾아오면 막지도 못할테니…… 자, 어서…….”

해리는 현관 복도로 황급히 돌아가서는 배낭과 파이어볼트, 그리고 해드위그의 새장을 챙겨 들고 나와 어두운 뒷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합세했다. 사방에서 빗자루들이 펼쳐 손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벌써 킹슬리의 부축을 받으며 검고 거대한 세스트랄 위로 올라타고 있었다. 한편, 플로르는 빌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세스트랄에 탔다. 해그리드는 땅을 채비를 마치고 보안경을 낀 채 오토바이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가요? 이게 시리우스의 오토바이인가요?”

“그래, 그렇단다.”

해그리드가 해리를 내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네가 지난번에 이걸 탔을 땐 말이다, 해리, 널 한 손으로도 안을 수 있었단다.”

해리는 사이드카에 올라타면서 다소 금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밑으로 쑥 내려간 낮은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론은 마치 범퍼 카를 탄 꼬마처럼 양전히 사이드카에 앉아 있는 그를 보고 싱글싱글 웃었다. 해리는 배낭과 빗자루를 발밑께에 쑤셔 넣고, 해드위그의 새장을 무릎사이에 끼고 앉았다. 굉장히 자세가 불편했다.

“아서가 약간 손을 봐 줬어.”

해그리드는 해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떠들어 댔다. 그가 오토바이 위에 턱하니 올라타자, 삐거덕 소리가 나면서 오토바이가 약간 주저앉았다.

“핸들에 약간 솜씨를 부려보았다. 여기 이건 내가 생각해 낸 거다.”

해드리드는 굵은 손가락으로 속도계 옆에 있는 보라색 단추를 가리켰다.

“제발 조심하게, 해그리드”

옆에 서 있던 위즐리 씨가 빗자루를 잡으며 말했다.

“난 아직도 과연 그게 권할 만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반드시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게.”

“좋아, 그럼.”

무디가 소리쳤다.

“모두 준비하시오. 다들 정확히 동시에 떠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의 주의를 땐 대로 돌리려는 우리의 의도가 허사가 되니까.”

모두 빗자루에 올라탔다.

“론, 꼭 붙잡아.”

통스가 주의를 주었다. 해리는 론이 양손으로 통스의 허리를 붙잡으면서 은근히 미안한 표정으로 루핀을 쳐다보는 걸 보았다. 해그리드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오토바이는 마치 용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사이드카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모두 행운을 빌겠네.”

무디가 외쳤다.

“다들 한 시간 후에 버로우에서 만나도록 하지. 셋을 세면 출발하세요.  
하나.....둘.....셋.”

오토바이가 봉하고 굉음을 냈다. 해리는 사이드카가 왼쪽으로 쓸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그는 빠른 속도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마구 뒤로 휘날리고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주위의 빗자루들도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세스트랄의 길고 검은 꼬리가 눈앞을 휙 지나갔다. 헤드위그의 새장과 배낭사이에 꼭 끼인 채, 사이드카에 얹지로 쑤셔 넣어진 해리의 다리가 벌써부터 육신육신 쑤시면서 감각이 무뎌졌다. 어찌나 자리가 불편했던지, 해리는 마지막으로 프리벳가 4 번지를 돌아보는 것조차 깜박 잊고 있었다.

결국 그가 사이드카 너머로 돌아보았을 때에는 이미 어디가 어디인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점점 더 높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런데 텅 빈 허공 어디선가, 그들은 난데없이 포위를 당했다. 최소한 서른 명쯤 되는 두건을 눌러쓴 자들이 불사조 기사단을 빙 둘러싸고 커다란 원을

그린채, 허공에 떠 있었다. 기사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들 한가운데로 곧장 솟아올랐던 것이다.

비명이 터져 나오고, 초록빛 불꽃이 사방에서 번쩍거렸다. 해그리드는 암하고 기합을 넣더니 오토바이를 빙글빙글 돌렸다. 해리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가로등 불빛이 머리위에 있었고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는 죽을힘을 다해 사이드카에 메달렸다. 순간 헤드위그의 새장과 파이어볼트, 그리고 배낭이 무릎아래에서 조금씩 미끄러져 나왔다.

“안 돼! 해드위그!”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며 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해리는 오토바이가 다시 똑바로 돌아서는 틈을 타서 가까스로 배낭의 끈과 새장의 꼭대기를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하는 것도 잠깐, 또다시 초록 불꽃이 터지더니 부엉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새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돼! 안 돼!”

오토바이는 봉하고 앞으로 날아갔다. 해그리드가 죽음을 먹는 자들의 포위를 뚫고 달아나는 순간, 해리는 두건을 쓴 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힐끗 보았다.

“헤드위그.....헤드위그.....”

하지만 부엉이는 마치 장난감처럼 새장 바닥에 애처로운 모습으로 꿈쩍 않고 쓰러져 있었다. 해리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수십 명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와중에 초록 불빛이 번쩍거리고 두 사람씩 올라탄 빗자루가 먼 곳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 할 수가 없었다.

“해그리드, 돌아가야 해요!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요!”

해리는 천둥처럼 우르릉거리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이기려고 목청껏 소리쳤다. 그러면서도 헤드위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팡이를 꺼내어 새장 바닥을 두들겨 보았다.

“해그리드, 방향을 돌려요!”

“내 임무는 너를 안전하게 그곳에 데려가는 거야, 해리!”

해그리드는 이렇게 외치더니 오히려 더욱 속도를 높였다.

“멈춰.....멈춰라고요!”

해리는 바らく바らく 악을 썼다. 하지만 다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초록 불꽃 두 방이 그의 왼쪽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네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대열에서 벗어나 그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해그리드의 넓적한 등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그리드는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은 끈질기게 오토바이를 쫓아오면서 더 많은 저주를 날렸다. 해리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사이드카 밑으로 납작 엎드려야만 했다.

그리고 간신히 몸을 비틀며 소리쳤다.

“스투페파이!”

지팡이 끝에서 붉은 불꽃이 발사되었다. 뒤를 쫓아오던 네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은 불꽃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흘어졌고, 불꽃은 허공을 갈랐다.

“해리, 꼭 잡아라. 이걸로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자.”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벽이, 진짜로 단단한 벽돌 벽이 배기관에서 발사되어 나왔다. 해리는 목을 길게 빼고 허공으로 한없이 뻗어 나가는 벽을 보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 중 세명은 얼른 방향을 돌려 피했다. 하지만 네 번째 사람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다. 잠깐 시야에서 사라지는 듯하더니, 다음 순간 빗자루가 산산조각나면서 벽 뒤로 돌멩이처럼 뚝 떨어졌다. 그의 동료들 중 하나가 그를 구하기 위해 속력을 늦추었다. 하지만 해그리드가 핸들위로 몸을 바싹 낮추고 속력을 높이자, 캄캄한 어둠이 그들과 공중의 벽을 삼켜 버렸다.

이제 남아 있는 두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의 지팡이에서 발사된 살인 저주들이 더욱 맹렬하게 해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해그리드를 노리고 있었다. 해리는 더 많은 기절 마법으로 응대했다. 붉은색과 초록색 불꽃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면서 오색찬란한 불똥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해리는

터무니 없게도 불꽃놀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지상의 머글들을.....

“해리, 또다시 간다, 꼭 잡아!”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그리고 두 번째 단추를 재빠르게 눌렀다. 이번에는 배기관에서 거대한 그물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 역시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물을 간단히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잊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속력을 늦추었던 또 한명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 잡았다. 그가 어둠 속에서 흙 나타나자, 이제 세명이 된 죽음을 먹는 자들은 합세하여 저주를 쏘아 대며 오토바이를 뒤쫓았다.

“이거면 될 거야. 해리, 꼭 잡아라!”

해그리드가 다시 소리쳤다. 해리는 그가 주먹으로 속도계옆에 있는 보라색 단추를 꽂 내려치는 걸 보았다.

그러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사나운 포효와 더불어, 배기관에서 하얗고 푸르스름하게 작렬하는 용의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오토바이는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를 내며 총알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해리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 무시무시한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썩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때 사이드카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엄청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연결된 금속 나사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괜찮다, 해리!”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하지만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 그 역시 몸이 뒤로 벌렁 젖혀진 상태였다. 이제 핸들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이드카가 날아가는 오토바이의 뒤로 생기는 거센 기류에 의해 격력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해리, 내가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

해그리드가 이렇게 외치며 외투 호주머니에서 꽃무늬의 분홍색 우산을 꺼내 들었다.

“해그리드 안 돼요! 제가 할게요!”

“레파로!”

순간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요란한 굉음과 함께 사이드카가 완전히 오토바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해리는 날아가던 오토바이의 추진력에 의해서 앞으로 승 날아갔다. 하지만 곧 사이드카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해리는 필사적으로 지팡이를 사이드카에 겨누고 소리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사이드카가 코르크처럼 허공에 봉 떠올랐다. 조종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욱더 맹렬하게 저주가 줄지어 발사되었다. 세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어느새 바싹 뒤따라 온 것이다.

“내가 간다. 해리!”

해그리드가 어둠 속 어디선가 소리쳤다. 하지만 해리는 또다시 사이드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최대한 몸을 낮게 움크린 채, 가가이 다가오고 있는 무리의 한가운데를 겨냥하며 소리쳤다.

“임페디멘타!”

주문은 가운데 있던 죽음을 먹는 자의 가슴에 명중했다. 그자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기라도 한 듯이, 잠간 동안 허공에서 우스꽝스럽게 큰 대자로 뻣어 버렸다. 그 바람에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그와 충돌 할 뻔 했다. 바로 그때 사이드카가 본격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아 있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어찌나 가깝게 저주를 쏘아 대는지, 해리는 사이드카의 가장자리 밑으로 고개를 숙이다가 그만 좌석 모서리에 이가 하나 부딪혀 빠져 버렸다.

“내가 간다, 해리, 내가 가!”

거대한 손이 해리의 망토 뒷자락을 덥석 움켜쥐더니, 곧장 추락하는 사이드카에서 끌어올렸다. 해리는 배낭을 꼭 붙잡은 채, 오토바이 좌석 위로 끌려 올라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해리그리드와 등을 마주대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남아 있는 두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을 피해서 계속 위로 솟아올랐다.

해리는 입 안에 고인 피를 턱 뺏으며, 떨어지는 사이드카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리고 외쳤다.

“콘프링고!”

사이드카가 폭파하는 순간, 해리는 헤드위그를 생각하며 창자가 비틀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한편 사이드카와 제일 가까이 있던 죽음을 먹는 자 한 명이 폭파 충격으로 빗자루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다. 그의 동료는 뒤로 후퇴하더니 모습을 감추었다.

“해리, 미안하다, 미안해.”

해그리드가 끙끙거리며 말했다.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리가 너무 좁지.....”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날아가기나 하세요!”

해리가 큰 소리로 대꾸했다. 또 다른 죽음을 먹는 자 두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나타내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다.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저주들이 날아오자, 해그리드는 요리저리 운전을 했다. 해그리드가 감히 용의 화염을 다시 쓸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걸 해리는 잘 알고 있었다. 해리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앓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추격자들을 향해서 기절 마법을 쏘고 또 쏘았지만, 좀처럼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해리는 그들을 향해 또 다른 장애 마법을 쏘았다. 제일 가까이 쫓아오던 죽음을 먹는 자가 그걸 피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다가 두건이 벗겨졌다. 그 순간 해리가 잇달아 발사한 기절 주문의 붉은 불빛에 반사되어, 스탠 션파이크의 이상하게 넋이 나간 듯한 얼굴이 드러났다. 스탠.....

“엑스펠리아르무스!”

해리가 외쳤다.

“그 녀석이다. 그 녀석이야. 저놈이 진짜다!”

천둥같이 시끄러운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에도 불구하고 두건을 쓴 죽음을 먹는자의 고함소리가 해리의 귀에까지 들렸다. 다음 순간 두 명의 추격자들이 뒤로 물려서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해리, 무슨 일이지?”

해그리드가 고함을 쳤다.

“그놈들, 어디로 간 거야?”

“저도 몰라요!”

해리는 웬지 두려웠다. 그 두건을 쓴 죽음을 먹는 자는 분명히 “저놈이 진짜다!”라고 소리쳤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해리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막막하게 펼쳐진 어둠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어디 있을까?

해리는 좌석에서 몸을 돌려 앞을 향해 앓았다. 그리고 해그리드의 등을 꼭 붙잡았다.

“해그리드, 용의 화염을 한 번 더 발사해요.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럼 꼭 잡아라, 해리!”

또다시 고막이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푸르스름한 하얀 화염이 배기관에서 뿜어져나왔다. 해리는 그 좁은 좌석에서 자신의 몸이 뒤로 쭉 미끄러지는 걸 느꼈다. 해그리드 역시 몸이 뒤로 벌렁 젖혀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손에서 핸들을 놓칠 뻔했다.

“해리, 그놈들을 따돌린 것 같구나. 드디어 우리가 해낸 것 같아!”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하지만 해리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리는 어디선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추격자들은 찾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왜 그놈들이 뒤로 물려선 걸까? 그들 중 한명은 여전히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다..... 저놈이 진짜다..... 내가 스탠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하자마자, 그들이 그렇게 말했지.....

“해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해그리드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오토바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저 아래 지상의 불빛은 아직도 별처럼 아득하기만 했다.

그때 이마의 흉터가 불에 덴 듯이 쑤시기 시작했다. 오토바이의 한쪽에서 죽음을 먹는 자가 나타나더니, 등 뒤에서 날아온 살인 저주 두 방이 해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나갔다.

그 순간, 해리는 그 자를 보았다. 볼드모트가 바람을 타고 흐르는 연기처럼, 빗자루도 세스트랄도 없이 맨몸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의 뱀 같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그의 하얀 손가락이 다시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해그리드는 공포의 비명을 지르더니 오토바이를 곧장 수직으로 낙하시켰다. 해리는 결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면서, 소용돌이치는 밤하늘을 향해 닥치는 대로 기절 마법을 쏘아 댔다. 누군가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해리는 그들 중 한명을 맞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곧 이어 꽁 소리가 나더니 엔진에서 불꽃이 일었다. 오토바이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떨어졌다.

또다시 초록 불꽃들이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다. 해리는 어느 쪽이 위이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마의 흉터는 아직도 타는 듯이 아팠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두건을 쓴 사람이 빗자루를 타고 불과 몇십 센티미터 거리까지 다가왔다. 해리는 그의 팔이 올라가는 걸 보았다.

“안 돼!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함께 해그리드가 오토바이 위에서 죽음을 먹는 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해리는 공포에 질린 채, 해그리드와 죽음을 먹는 자가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았다. 빗자루 하나가 지탱하기에는 두 사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수직으로 추락하는 오토바이를 무릎으로 간신히 붙잡고 있던 해리의 귀에 볼드모트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내가 맡겠다!”

끝장이었다. 해리는 볼드모트가 어디 있는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또 다른 죽음을 먹는자가 재빨리 옆으로 비켜나는 것이 힐끗 보이더니, 뒤이어 소리가 들렸다.

“아바다.....”

해리는 흉터의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순간 지팡이가 저절로 움직였다. 해리는 지팡이가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손을 잡아끄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반쯤 감긴 눈으로 지팡이가 눈부신 황금빛 불꽃을 분출하는 것을 보았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분노에 가득 찬 절규가 들렸다. 남아 있는 죽음을 먹는자가 악을 썻고, 볼드모트는 날카롭게 고함을 질렀다.

“안 돼!”

바로 그때 해리는 바로 코앞에 있는 용의 화염 발사 단추를 발견했다. 그는 재빨리 지팡이를 들지 않은 한 손으로 단추를 꾹 눌렀다. 오토바이가 더욱 강력한 불길을 내뿜으며 지상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돌진했다.

“해그리드!”

해리는 죽을 힘을 다해 오토바이에 매달리며 소리쳤다.

“해그리드! 아씨오 해그리드!”

오토바이가 더욱 속력을 높이더니 땅으로 빨려들듯이 떨어졌다. 해리는 핸들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있어서, 저 멀리서 반짝이던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머잖아 그는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날 테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등 뒤에서 또다시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네 지팡이를, 셀원, 네 지팡이를 이리 다오!”

해리는 볼드모트를 보기도 전에 느낄 수 있었다. 힐끗 옆을 바라보니, 새빨간 눈이 보였다. 분명, 저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광경이라.

볼드모트는 다시 한번 그에게 저주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볼드모트가 사라졌다. 해리가 밑을 내려다보니 해그리드가 큰대자로 쭉 뻗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다. 해리는 해그리드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당기며 황급히 브레이크를 더듬어

찾았다. 하지만 지축이 흔들리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해리는 진흙 연못에 그대로 처박혔다.

## 제 5 장 쓰러진 전사

“해그리드?”

해리는 자신을 둘러싼 쇠불이와 가죽의 잔해 더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두 손이 흙탕물 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는 볼드모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통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어둠속에서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뭔가 뜨뜻하고 축축한 것이 이마에서부터 훌러내려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다. 해리는 연못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 커다란 검은 덩어리처럼 땅바닥에 누워있는 해그리드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다.

“해그리드? 해그리드, 말 좀 해 봐요.”

하지만 검은 덩어리는 꿈짝도 하지 않았다.

“거기 누구요? 포터냐? 해리 포터?”

해리가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때 어떤 여자가 소리쳤다.

“테드, 그들이 추락했어요! 정원으로 떨어졌어요!”

해리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해그리드.”

해리는 얼이 빠져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무릎이 힘없이 꺽이며 쓰러졌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 보니, 그는 방석 같은 데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옆구리와 오른쪽 팔이 불에 덴 듯이 화끈거렸다. 빠진 이는 다시 자라났지만 이마의 흉터는 여전히 쿡쿡 쑤시고 아팠다.

“해그리드?”

해리가 눈을 떴다. 그는 등잔불이 밝혀진 낮선 거실의 소파에 누워 있었다. 조금 떨어진 마루 위에는 훌딱 젖고 진흙투성이가 된 그의 배낭이 놓여 있었다. 금발에 배가 불룩하게 나온 한 남자가 해리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괜찮다 애야.”

그 남자가 말했다.

“집사람이 지금 해그리드를 돌보는 중이야. 기분이 좀 어떠니? 또 어디 부러진 곳은 없니? 네 갈비뼈와 이와 팔은 내가 치료를 했단다. 그건 그렇고, 나는 테드란다. 테드 통스. 님파도라의 아버지이지.”

해리는 너무 성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순간 눈앞에 별이 보이면서 속이 뒤집히고 어질어질했다.

“볼드모트는.....”

“진정해라.”

테드 통스는 해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를 다시 방석위에 눕히면서 말했다.

“너는 방금 끔찍한 추락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오토바이에 무슨 고장이라도 났었니? 아서 위즐리가 또 너무 과욕을 부렸나? 그와 그의 머글 기계가?”

“아니에요.”

해리가 대답했다. 이마의 흉터가 터진 상처처럼 육신거렸다.

“죽음을 먹는 자들 한 무리가.....우리를 쫓아와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라고?”

테드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죽음을 먹는 자들이라니? 그들은 네가 오늘 밤 이동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해리가 말했다.

테드 통스는 마치 천장을 뚫고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더라도 한 듯, 고개를 쳐들고 한참 위를 보았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보호 마법이 걸려 있지 않느냐? 그자들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100 미터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을게다.”  
해리는 비로소 왜 볼드모트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불사조 기사단의 마법 장벽을 막 통과했던 것이다. 해리는 부디 보호 마법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들이 말한 대로 100 미터 바깥 상공에서 호시탐탐 이 거대한 투명 거품 같은 보호막을 뚫고 들어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을 볼드모트의 모습이 해리의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다.

해리는 쇼파에서 얼른 내려섰다. 해그리드를 그의 눈으로 직접 봐야만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간신히 서 있기도 힘들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해그리드가 힘들게 비집고 들어왔다. 얼굴은 온통 진흙과 피로 뒤덮여 있었고 약간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다.

“해리!”

해그리드는 우아한 탁자 두 개와 난초 화분 하나를 쓰러뜨리면서 단 두걸음에 거실을 건너왔다. 그리고 막 치료한 갈비뼈에 다시 금이 갈 뻔할 정도로 해리를 꽉 끌어 안았다.

“세상에, 해리.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니? 난 우리 둘 다 저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았다.”

“네, 저도 그랬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해리가 말을 뚝 끊었다. 해그리드의 등 뒤로 한 여자가 방에 막 들어서는 걸 보았던 것이다.

“아니, 너는!”

해리가 고함을 지르며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호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애야, 네 지팡이는 여기 있단다.”

테드가 지팡이로 해리의 팔을 톡톡 치며 말했다.

“바로 네 옆에 떨어져 있어서 내가 주웠지. 그리고 네가 소리 지른 저 사람은 내 아내란다.”

“오, 죄.....죄송해요.”

톰스 부인이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자 그녀의 언니인 벨라트릭스와 다른 점이 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부인의 머리 색은 좀 더 밝고 부드러운 갈색이었으며, 부인의 눈이 훨씬 크고 상냥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가 소리를 지른 후로는 웬지 약간 쌀쌀맞아진 것 같았다.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어났니?”

부인이 물었다.

“해그리드 말이 기습을 당했다고 하던데, 그럼 님파도라는 어디 있지?”

“저도 모릅니다.”

해리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인과 테드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자, 해리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죽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이었다. 전적으로 자기의 잘못이었다. 자기가 그 계획에 동의를 하고 머리카락을 내주었기 때문에.....

“포트키.”

해리는 갑자기 모든 걸 떠올리며 소리쳤다.

“저희는 버로우로 다시 가야만 해요. 가서 알아 볼께요. 그런 다음 두 분께 소식을 보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톰스가 보낼지도, 일단 그녀가.....”

“도라는 괜찮을 거요. 안드로메다. 도라는 그 방면에 전문가요. 게다가 오러들과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소.”

테드가 다독거렸다. 그러고는 해리에게 말했다.

“포트키는 이곳에 연결되어 있다. 네가 원한다면 3분 이내에 떠나야만 해.”

“네, 떠나겠습니다.”

해리가 대답했다. 그는 배낭을 집어 들고 어깨에 둘러맸다.

“저는……”

그는 통스 부인을 이런 불안한 상황에 남겨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사과의 말을 하고 싶었다. 이 상황에 대해 마음속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말이 그저 공허하고 겉치례인 양 느껴졌던 것이다.

“통스에게, 아니 도라에게 말하겠습니다. 어서 소식을 보내 드리라고…… 만나게 되면…… 저희를 돌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다 고맙습니다. 저는……”

해리는 그 방을 떠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그러므로 얼른 테드 통스의 뒤를 따라서 짧은 복도를 지나 침실로 들어갔다. 해그리드가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허리를 잔뜩 수그린 채 그들 뒤를 쫓아왔다.

“저기로 가라, 얘야. 저게 포트키란다.”

통스 씨가 화장대 위에 놓인, 뒷면이 은으로 된 작은 머리빗을 가리켰다.

“고맙습니다. ‘

해리가 손을 뻗어 머리빗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떠날 태세를 했다.

“잠깐만.”

해그리드가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해리, 해드위그는 어디 있니?”

“헤……헤드위그는 당했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갑작스럽게 그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해리는 그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 부엉이는 그의 소중한 친구였으며, 그가 어쩔 수 없이 더즐리네로 돌아가야 할 때마다, 마법 세계와 연결된 단 하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다.

해그리드가 솔뚜껑만한 손을 내밀더니 해리의 어깨를 아플정도로 탁탁 두드렸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해그리드가 목이 메어 깍깍거리며 말했다.

“마음 아파 하지 마. 헤드위그는 오랫동안 훌륭한 삶을 살다 갔……”

“해그리드!”

테드 통스가 다급하게 불렀다. 머리빗이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그리드는 늦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집게손가락 끝을 갖다 댈 수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갈고리와 끈이 앞으로 휙 잡아당기는 것처럼 배꼽 뒤에서 움찔하는 느낌이 들더니, 해리는 텅 빈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포트키에 손가락이 딱 달라붙은 채 정신없이 빙글빙글 돌며, 해그리드와 함께 통스씨로 부터 순식간에 멀어졌다. 잠시 후에 발이 단단한 땅에 닿는가 싶더니, 해리는 버로우의 앞마당에 손과 무릎을 짚은 채 고꾸라 졌다. 요란한 비명 소리가 컷전을 때렸다.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는 머리빗을 한쪽 옆으로 던져 버리고, 해리는 약간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위즐리 부인과 지니가 뒷문을 열고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역시 바닥에 쓰러졌던 해그리드도 힘들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해리? 네가 진짜 해리니? 무슨 일이니? 다른 사람들은 어디있지?”

위즐리 부인이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돌아왔나요?”

해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순간 새파랗게 변하는 위즐리 부인의 얼굴을 보니 대답은 듣지 않아도 뻔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리가 말을 이었다.

“우린 출발하자마자 그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자들은 오늘 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죽음을 먹는 자들 중에서 네명이 우리 뒤를 따라왔는데, 저희는 그저 도망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볼드모트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해리는 자기변명에 급급한 자신의 말투를 느낄 수 있었다.

아들들의 생사를 그가 왜 모르는지 그 이유를 부인에게 납득 시키기에 바빴던 것이다.

“네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위즐리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해리를 덥석 끌어안았다. 하지만 해리는 자신이 그런 포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몰리, 혹시 브랜디 좀 있나요? 네?”

해그리드가 몸을 살짝 떨면서 물었다.

“치료용으로 좀 갖고 있죠?”

위즐리 부인은 마법으로 브랜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을, 굳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집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슬픈 표정을 감추려고 그런다는 것을 해리는 알고 있었다. 해리는 지니를 향해 돌아섰다. 지니는 말하지 않아도 벌서 해리의 마음을 알아채고 즉시 자세한 소식을 알려 주었다.

“론과 통스가 제일 먼저 돌아왔어야 하는데, 포트키를 놓쳤나봐, 포트키만 그냥 돌아왔어.”

지니가 근처 바닥에서 헝겊고 있는 녹슨 기름통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건 아빠와 프레드의 포트키야.”

지니가 이번에는 낡아 빠진 운동화 한 짝을 가리켰다.

“그들은 두 번째로 도착할 예정이었어. 그리고 해리와 해그리드가 세번째였지.”  
지니가 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이 제대로 됐다면, 1분 이내에 조지와 루핀이 돌아와야만 해.”

위즐리 부인이 브랜디 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니 해그리드에게 건네주었다.

해그리드는 마개를 열고 병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엄마!”

지니가 몇 미터쯤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둠 속에서 파르스름한 빛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다. 이윽고 루핀과 조지가 나타나더니 빙글빙글 돌다가 콩 쓰러졌다.

해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즉시 알아차렸다. 루핀이 조지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조지는 의식이 없었다.

해리는 얼른 달려가 조지의 다리를 붙잡았다. 해리와 루핀은 힘을 모아 조지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부엌을 지나서 거실 쇼파에 눕혔다. 등잔 불빛이 조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지니는 헉 하고 입을 딱 벌렸고,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지의 한 쪽 귀가 떨어져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쪽 머리와 목이 깜짝 놀랄 만큼 새빨간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위즐리 부인이 아들 위로 허리를 숙이자마자, 루핀이 해리의 팔을 와락 잡아채더니 난폭하게 부엌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는 해그리드가 아직도 그 커다란 덩치로 좁은 뒷문을 통과 하느라 절절매고 있었다.

“어이!”

해그리드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 앤 놀아줘! 해리를 놀아주라고!”

루린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해리 포터가 호그와트의 내 방에 처음 찾아왔을 때, 구석에 어떤 생물이 앉아 있었지?”

루핀은 해리를 흔들며 따져 물었다.

“어서 대답해!”

“수조 안에 든 그..... 그라인딜로우가 아니었던가요?”

루핀이 해리의 팔을 높더니 쓰러지듯이 부엌 선반에 등을 기댔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해그리드가 언성을 높였다.

“미안하다, 해리, 하지만 확인을 해야만 했어.”

루핀이 냉정하게 말했다.

“우린 배신을 당했다. 볼드모트는 네가 오늘 밤에 이동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자에게 이 사실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뿐이지. 네가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째서 난 확인하지 않는 거요.”

해그리드가 아직도 문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말했다.

“당신은 거인 혼혈이잖소.”

루핀이 해그리드를 올려다보면서 대답했다.

“폴리주스 마법약은 오직 인간의 경우에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오.”

“불사조 기사단 사람들은 아무도 볼드모트에게 우리가 오늘밤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해리가 부르짖었다.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들 중 누군가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볼드모트는 겨우 끝에 가서야 저를 쫓아왔어요. 처음에는 누가 저인지도 몰랐던 거죠. 만약 그자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제가 해그리드와 떠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볼드모트가 널 쫓아왔다고?”

루핀이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떻게 도망쳤니?”

해리는 자기를 쫓아왔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진짜 해리인지 알아차린 것 같았는지, 어떻게 추격을 멈추고 볼드모트를 불러왔는지, 그리고 그와 해그리드가 은신처인 통스 부모님 댁에 도착하기 직전에 볼드모트가 나타났던 것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자들이 널 알아보았단 말이지? 하지만 어떻게? 네가 어떻게 했기에?”

“저는.....”

해리가 기억을 다시 떠올리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온통 공포와 혼란으로 얼룩진 것 같았다.

“스탠 션파이크를 보았어요..... 아시죠? 그 구조 버스의 차장이었던 친구요. 전 그사람에게 그냥 무장해제 마법을 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안그런가요? 그는 틀림없이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렸을 거예요!”

루핀이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었다.

“해리, 무장해제 마법 따위를 쓸 시기는 이미 지났어. 그자들은 널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설사 네가 사람을 죽일 준비까지는 안돼 있다고 해도, 최소한 기절 마법쯤은 썻어야지!”

“그때 우린 수백 미터 상공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스탠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기절 마법을 썼다면 그는 추락했을 테고 그럼 제가 아바다 캐다브라 저주를 쓴 것과 마찬가지로 죽고 말았겠죠! 더구나 엑스펠리아르무스 주문은 2년전에 저를 볼드모트로부터 구한 적도 있어요.”

해리는 대들듯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루핀을 보니 웬지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 후플푸프의 자카리아스 스미스가 연상되었던 것이다. 그는 해리가 던블도어의 군대에게 무장해제 마법을 가르치려고 하자, 마구 비웃었었다.

“그래, 해리.”

루핀이 간신히 화를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었지! 부디 나를 용서해 다오. 하지만 그렇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어. 그런데 그 첫 번째 상황을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이야기를 들었을 죽음을 먹는자들 앞에서 오늘 밤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다니, 그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그럼 제가 스탠 션파이크를 꼭 죽였어야만 했다고 생각하세요?”

해리가 화가 나서 따져 물었다.

“물론 그건 아니다.”

루핀이 대답했다.

“하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은,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맞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해리, 엑스펠리아르무스는 아주 유용한 주문이야, 하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은 그게 너의 특징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다. 그러니 부디 그러지 말라고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구나!”

루핀의 말을 들으니, 해리는 왠지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반항심이 남아있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앞을 방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치우지는 않을 거예요.”

해리가 쏘아붙였다.

“그건 볼드모트나 하는 짓이라구요.”

루핀은 뭐라고 대꾸할 말을 잃었다. 그때 마침내 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데 성공한 해그리드가 비틀비틀 의자로 가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자 의자가 우직끈하고 부서져 버렸다. 해리는 주절주절 욕설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해그리드는 무시하고, 다시 루핀에게 말을 걸었다.

“조지는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 질문에 해리에 대한 루핀의 짜증스런 마음이 싹 사라진 것 같았다.

“무사할 거야, 하지만 귀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구나. 저주에 당했을 때에는 회복이 안돼.....”

밖에서 뭔가 인기척이 났다. 루핀은 쓴살같이 뒷문으로 달려갔다. 해리도 해그리드의 다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뒷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두 사람이 마당에 모습을 나타냈다. 가까이 달려간 해리는 그들이 헤르미온느와 킹슬리라는 걸 알아차렸다. 원래 모습을 되찾은 헤르미온느와 킹슬리는 구부러진 옷걸이를 꼭 붙잡고 있었다. 킹슬리는 어느 누구를 보고도 기쁜 표정을 짓지 않았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어깨 너머로 킹슬리가 지팡이를 들어서 루핀의 가슴에 겨누는 것을 보았다.

“알버스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 두 사람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지?”

“해리는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다. 그를 믿어라.”

루핀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킹슬리가 이번에는 해리를 향해 지팡이를 돌렸다. 그러자 루핀이 나섰다.

“해리가 맞아, 내가 확인했지.”

“좋아! 그럼 됐어!”

킹슬리가 다시 망토 속에 지팡이를 넣으면서 말했다.

“누군가 우릴 배신했어. 그놈들이 알고 있었다고. 오늘 밤이 라는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 같더군”

루핀이 대답했다.

“하지만 해리가 일곱 명이라는 사실은 그자들도 몰랐던 건 이 분명해”

“그게 무슨 대수라고!”

킹슬리가 투덜거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누가 돌아왔나?”

“해리와 해그리드, 조지와 나 뿐이야.”

순간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손으로 신음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았다.

“자네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

루핀이 킹슬리에게 물었다.

“다섯 명에게 추격을 당했는데, 두 명은 부상을 당하고 아마 한 명은 죽은것 같아.”

킹슬리가 막힘없이 말을 이었다.

“우린 그 사람도 보았어. 그 사람도 함께 추격을 해오다가 도중에 갑자기 사라지더군. 리무스, 그자는 하늘을.....”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해리가 말을 받았다.

“저도 그 사람을 보았어요. 해그리드와 절 쫓아왔지요.”

“그래서 그자가 사라졌던 거로군. 널 쫓아가려고!”

킹슬리가 소리쳤다.

“그자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영문을 몰랐거든. 그런데 왜 도중에 목표물을 바꿨을까?”

“그건 해리가 스탠 션파이크에게 너무 친절하게 굴었기 때문이야.”

루핀이 설명했다.

“스탠이라고요?”

헤르미온느가 되풀이했다.

“하지만 스탠은 아즈카반에 있지 않나요?”

킹슬리가 우울한 미소를 지었다.

“헤르미온느, 마법부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분명히 집단 탈옥이 있었어. 내가 저주를 쏘았을 때, 트래버스의 두건이 벗겨졌었지. 그자도 역시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리무스, 자네는 어떻게 된 거지? 조지는 어디 있나?”

“조지는 한쪽 귀를 잃었나네.”

루핀이 대답했다.

“뭐..... 뭐를 잃었다고요?”

헤르미온느가 격앙된 소리로 물었다.

“스네이프의 솜씨지.”

루핀이 말했다.

“스네이프요?”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스네이프는 우리를 추격하다가 두건을 잃어버렸어. 섹툼셈프라는 언제나 스네이프의 특기였지. 내가 그놈에게 멋지게 갚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고작 부상을 입은 조지가 빗자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뿐이었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거든.”

네 사람은 할 말을 잊고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 보았다. 뭔가 움직이는 낌새라곤 전혀 없었다. 하늘을 날아오는 기사단 동료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깜박거리는 일도 없이, 별들만이 무심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론은 어디 있을까? 프레드와 위즐리씨는? 빌과 플뢰르, 통스 매드아이, 먼던구스는 또 어디로 간 걸까?

“해리, 나 좀 도와줘!”

문가에서 해그리드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그리드가 다시 문틈에 끈 것이다. 뭔가 할 일이 생긴 걸 기뻐하며, 해리는 그를 잡아당겨서 빼내 주었다. 그런 다음 텅 빈 부엌을 지나서 거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위즐리 부인과 지니가 아직도 조지를 간호하고 있었다. 위즐리 부인이 지혈을 한 덕분에, 해리는 등잔 불빛 아래로 조지의 귀가 있던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보았다.

“좀 어떤가요?”

위즐리 부인이 돌아보며 말했다.

“나로서는 귀를 다시 자라게 할 수가 없구나. 어둠의 마법으로 이렇게 된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꼼짝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걸.. 어쨌든 이렇게 살아 있잖니.”

“그건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해야죠.”

해리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누군가 마당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니가 물었다.

“헤르미온느와 킹슬리야.”

해리가 대답했다.

“오, 감사합니다.”

지니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해리는 지니를 와락 끌어당겨 품에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심지어 위즐리 부인이 옆에 있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 충동을 미쳐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부엌에서 우당탕하고 커다란 소리가 났다.

“킹슬리, 먼저 내 아들부터 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입증을 해도 할 걸세! 그러니 자네 몸이 성하려면 당장 물러서!”

해리는 위즐리 씨가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지금껏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그는 황급히 거실로 뛰어 들어왔다. 환하게 벗겨진 이마는 땀에

젖어 번들거리고 안경은 비스듬히 코에 걸려 있었다. 바로 뒤에 프레드가 따라왔다. 두 사람 모두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상처는 없었다.

“아서!”

위즐리 부인이 울먹거렸다.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조지는 어때?”

위즐리 씨는 조지 옆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한편 프레드는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해리가 그를 알아 온 이후로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기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소파 뒤에서 입을 딱 벌린 채, 쌍둥이 형제의 상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프레드와 아버지가 도착하는 소리에, 조지가 정신이 돌아온 듯이 약간 몸을 움직였다.

“기분이 좀 어떠니, 조지?”

위즐리 부인이 조용히 물었다.

조지는 손가락으로 머리 옆을 더듬었다.

“성자가 된 기분이군.”

조지가 웅얼거렸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정신이 나간 건가요?”

프레드가 더럭 겁이 난 듯이 잔뜩 목멘 소리로 물었다.

“성자가 된 것 같다고.”

조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 쌍둥이 형제를 바라보며 되풀이 했다.

“프레드, 모르겠어? 난 훌리, 훌리하잖아(조지는 ‘구멍 뚫린’ 이란 뜻의

‘holey’와 ‘성스럽다’는 뜻의 ‘holy’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역주).”  
위즐리 부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서럽게 흐느꼈다. 새파랗게 질렸던 프레드의 얼굴도 순식간에 빨개졌다.

“거참 딱하기도 하지! 딱하기도 해! 그 많고 많은 귀에 대한 농담중에 고작 훌리라고?”

프레드가 쏘아 붙였다.

“어쨌든 이젠 우리 둘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네요, 엄마.”

조지가 눈물에 흠뻑 적은 어머니를 보고 씩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주위를 들러보았다.

“안녕, 해리. 너 해리 맞지, 그렇지?”

“응, 나야.”

해리가 소파로 바싹 다가가며 말했다.

“그래, 어쨌든 우린 널 무사히 데려왔구나.”

조지가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론과 빌은 내 병상 옆에 없는거지?”

“두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단다, 조지.”

위즐리 부인이 알려주자, 조지의 미소가 썩 사라졌다. 해리는 지니를 슬쩍 바라보면서,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했다. 두 사람이 부엌을 지나갈 때, 지니가 소곤소곤 속삭였다.

“론과 통스는 지금쯤 돌아왔어야 해. 오래 걸리지 않는 데로 갔거든. 뮤리엘 할머니 댁은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버로우에 도착한 이후로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는 불안이 그를 엄습하여 살갗위로 스멀스멀 기어올라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숨통을 마구 조이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어두운 뒷 마당으로 나가는 계단을 내려갈 때, 지니가 슬며시 그의 손을 잡았다. 마당에서는 킹슬리가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있었다. 해리는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지는 옛날에 이모부가 거실을 서성거리던 생각이 났다. 해그리드와 헤르미온느, 루핀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와 지니가 이 고요한 불침번 대열에 끼어들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몇 분이 몇 년처럼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희미한 바람소리에도 모두 화들짝 놀라며 혹시나 사라진 기사단 사람들 중 하나가 저 속에서 멀쩡한 몸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부스럭거리는 덤불이나 나무 쪽으로 얼른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그들의 머리 위에 빗자루 하나가 나타나더니 지상을 향해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저기 온다!”

헤르미온느가 외쳤다.

통스가 빗자루를 땅에 길게 끌면서 착륙했다. 그 바람에 사방으로 흙과 자갈이 튀었다.

“리무스!”

통스는 이렇게 외치더니 비틀비틀 빗자루에서 내려와 루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목이 메어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한편 론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향해 쓰러지다시피 다가왔다.

“너희는 무사하구나.”

론이 가까스로 중얼거리자마자, 헤르미온느가 와락 그에게 달려들더니 꼭 끌어안았다.

“난 네가..... 난 네가.....”

“난 괜찮아.”

론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달랬다.

“괜찮다니까.”

“론이 정말 훌륭했어.”

통스가 루핀을 안고 있던 손을 놓으며 열렬히 칭찬을 했다.

“아주 굉장했지. 죽음을 먹는 자 한 놈의 머리에 정통으로 기절 마법을 쏘아 맞혔어. 날아가는 빗자루 위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겨냥한다는 건.....”

“네가 그랬어?”

헤르미온느가 여전히 그의 목에 팔을 두른 채, 론을 옮겨다 보며 물었다.

“항상 그렇게 놀랐단 식으로 말하는군.”

론이 그녀의 팔을 풀면서 약간 털털거렸다.

“우리가 마지막인가?”

“아니.”

지니가 말했다.

“아직도 빌과 플로르 그리고 매드아이와 먼던구스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엄마 아빠에게 론이 무사하다고 알려드릴게.”

지니가 다시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왜 이렇게 늦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루핀이 거의 화난 목소리로 통스에게 물었다.

“벨라트릭스였어요. 거의 해리를 잡듯이 날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리무스, 그 여자는 날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벨라트릭스에게 꼭 이 빛을 갚아야지.”

통스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로돌푸스에게 상처를 입힌 건 확실해요.....”

그런 다음 유리엘 할머님 댁에 도착했는데, 할머님이 너무 야단법석을 떠시는 바람에 그만 포트키를 놓쳤지 뭐예요. 그래서.....”

루핀이 기가 막힌 듯 입을 딱 벌리더니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 다들 무슨 일이 있었죠?”

통스가 해리와 헤르미온느, 킹슬리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빌과 플로르 그리고 매드아이와 먼던구스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싸늘한 서리처럼 그들의 마음에 내려앉아 점점 더 날카롭게 파고들어, 도저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만 다우닝가로 돌아가 봐야 겠어요. 벌써 한 시간 전에 돌아갔어야 하는 건데.”

마침내 킹슬리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번 살펴보더니 체념한 듯 말했다.

“사람들이 돌아오면 저에게도 연락 주세요.”

루핀이 고개를 끄덕였다. 킹슬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대문을 향하여 어둠속으로 걸어갔다. 이윽고 버로우의 경계선을 넘자마자, 킹슬리가 뽕하고 순간이동을 하는 소리가 해리의 귀에 희미하게 들리는것 같았다.

그때 위즐리 씨와 위즐리 부인이 뒷문 계단을 황급히 달려 내려왔다. 지니는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론을 먼저 와락 껴안고 난 후에, 비로소 루핀과 통스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들을 돌봐 줘서.”

위즐리 부인이 인사를 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몰리.”

통스가 즉시 대답했다.

“조지는 좀 어떤가요?”

루핀이 물었다.

“조지가 어떻게 됐나요?”

론이 소리 높여 물었다.

“조지가 귀를.....”

하지만 위즐리 부인의 두시말은 동시에 터져 나온 함성 소리에 그만 묻혀버렸다. 세스트랄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들로 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착륙했던 것이다. 빌과 플뢰르가 세스트랄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바람에 마구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다친 데는 없었다.

“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즐리 부인이 앞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빌은 힘없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매드아이가 죽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해리는 마음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무너져 내린 그것은 땅속으로 깨지더니 영원히 그를 떠나 버렸다.

“저희가 보았어요.”

빌이 말하자, 플뢰르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 창문을 통해 흘러나온 불빛을 받아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반짝거렸다.

“우리가 포위를 뚫고 나가는 순간, 바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매드아이와 먼던구스는 우리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었죠. 다 함께 북쪽을 향해서요. 그런데 볼드모트 그자가 곧장 그들을 공격했어요. 그자는 하늘을 날 수 있었어요. 먼던구스는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그자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매드아이가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먼던구스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볼드모트의 저주가 매드아이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는 그대로 빗자루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섯 명이나 되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저희 뒤를 바싹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당연히 너희는 어쩔 수 없었어.”

루핀이 다독거렸다.

그들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연자실 서 있었다. 해리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다.

매드아이가 죽다니. 그럴 수는 없어..... 그렇게 강인하고 용감하고 능력있는 매드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더 이상 마당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서히 떠오른 것 같았다. 그들은 말없이 위즐리 씨와 위즐리 부인의 뒤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프레드와 조지가 킬킬거리고 웃고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뭐가 잘못됬나요?”

프레드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매드아이가 죽었다는 구나.”

위즐리 씨가 대답했다. 쌍둥이 형제의 얼굴은 미소가 짙 사라지면서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 통스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매드아이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해리도 알고 있었다. 마법부 내에서도 가장 매드아이의 총애를 받는 부하 직원이었던 것이다. 한편 해그리드는 거실 안쪽 구석을 거의 다 차지하고 앉아서 식탁보만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빌은 찬장으로 걸어가더니 파이어위스키 한 병과 유리잔을 꺼냈다.

“자, 여기.”

빌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위스키가 가득 담긴 열두개의 유리잔이 방 안을 가로질러 사람들 앞으로 각기 날아갔다. 그는 남아 있는 열세 번째 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매드 아이를 위하여.”

“매드 아이를 위하여.”

다 함께 외치며 술잔을 비웠다.

“매드 아이를 위하여.”

해그리드가 약간 뒤늦게 따라 하더니 딸꾹질을 했다.

파이어위스키가 목을 넘어가자, 해리는 목구멍이 타는 듯했다. 술기운이 다시 감정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다. 무감각하고 비현실적인 느낌은 사라지고 용기 비슷한 원가가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그럼 먼던구스는 사라졌단 말인가?”

단숨에 술잔을 비운 루핀이 입을 열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 모두 바싹 긴장한 표정으로 루핀을 지켜보았다.

해리가 보기에, 다들 그가 하려는 말은 계속 듣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약간 겁먹는 표정들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도 알아요.”

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 이곳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죽음을 먹는 자들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것 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하지만 먼던구스가 우리를 배신했을 리는 없어요. 그자들은 해리가 일곱명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순간 몹시 당황하더군요. 혹시 잊으셨을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양심한 속임수를 제안한 자가 바로 먼던구스 였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전 먼던구스가 그냥 겁에 질렸다고 생각해요. 그자는 앞장서고 싶어하지 않았는데, 매드아이가 억지로 시켰죠. 결국 그 사람이 곧장 그들에게 덤벼들었고요. 그러니 어느 누군들 정신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과연 매드아이가 예상했던 그대로 행동했어요.”

통스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매드아이는 그 사람이 진짜 해리가 제일 강하고 실력이 좋은 오러와 함께 갈 걸로 생각할 거라고 말했었죠. 그 사람은 매드아이를 제일 먼저 쫓아갔어요. 그런데 먼던구스가 도망을 쳐 버리자 킹슬리에게로 방향을 돌렸던 거고요.”

“네, 전부 다 맞는 말이네용.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아리를 이동시킨다는 걸 저들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아용, 안 그런가용?”

플뢰르가 날카롭게 쏘이불였다.

“누궁가 실수를 한게 틀림없어용. 누궁가 외부인에게 날짜를 허린 거라고용. 그래야만 그자들이 날짜를 알았지만 정확한 계획을 몰랐다는게 설명될수 있다고용.”

플뢰르는 모든 사람들은 매섭게 노려보았다.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누구든 자신의 말에 맞설 테면 어디 한번 맞서 보란 표정이었다. 모두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오직 해그리드 만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이 침묵을 깨고 딸꾹질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해리는 해그리드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었던 해그리드.....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는 해그리드..... 한때 속임수에 빠져서 용의 알을 받고 결정적인 정보를 볼드모트에게 제공했던 해그리드....

“아니야.”

해리가 큰 소리로 불쑥 외쳤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파이어위스키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진 모양이었다.

“제 말은..... 만약 누군가 실수를 했다면.....”

해리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정보를 흘렸다면, 그렇다 해도 절대 고의는 아니었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란 말이죠.”

해리는 또다시 평상시 보다 약간 더 고조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서로를 믿어야만 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를 믿어요.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볼드모트에게 팔아넘기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 더욱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해리는 또다시 약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무 행동이라도 하기 위해 파이어위스키를 몇 모금 더 들이켰다. 그러면서 매드아이를 생각했다. 매드아이는 항상 사람들을 기꺼이 믿어주는 덤블도어를 비난해 왔던 것이다.

“말 한번 잘했다. 해리.”

갑자기 프레드가 입을 열었다.

“그래. 자알했어. 자알했어.”

조지가 프레드를 곁눈질하더니 입술 한쪽을 씰룩거리며 말했다.

한편 루핀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해리를 바라보았다. 거의 딱해서 못 봐 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세요?”

해리가 물었다.

“아니, 네가 제임스를 쑥 빼닮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다.”

루핀이 대답했다.

“제임스라면 친구들을 의심하는 걸 가장 치욕스런 불명예라고 여겼을 테니까 말이다.”

해리는 루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친구인 피터 페티그루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이다. 해리는 갑자기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마구 따지며 덤벼들고 싶었다. 하지만 루핀은 획 돌아서더니, 솔잔을 작은 탁자 위에 내려 놓고 빌에게 말을 걸었다.

“할 일이 있네, 킹슬리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빌이 당장 대답했다

“어딜 가는데?”

통스와 플뢰르가 동시에 물었다.

“매드아이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시신을 되찾아야 해.”

루핀이 대답했다.

“하지만.....”

위즐리 부인이 애절한 표정으로 빌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기다리자고요?”

빌이 반문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가져가질 원하시진 않겠죠?”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다. 루핀과 빌은 작별 인사를 하고 즉시 떠났다.

남은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직 해리만 그대로 서 있었다.

갑작스럽고 온전한 죽음이 유령처럼 그들 주위를 떠돌고 있었다.

“저도 가겠어요.”

해리가 중얼거렸다.

휘둥그레진 열 쌍의 눈동자가 동시에 그를 향했다.

“바보 같은 소리마라 해리.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거냐?”  
위즐리 부인이 가볍게 나무랐다.  
해리는 이마를 문질렀다. 이마의 흉터가 다시 쿡쿡 쑤시고 있었다. 거의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심한 통증은 느껴 본적이 없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모두 위험해요. 전 그렇게 되는 걸 원지 않.....”  
“어리석게 좀 굴지 마라!”

위즐리 부인이 야단을 쳤다.

“오늘 밤 모든 목적은 너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목적이 성사되어 감사할 따름이란다. 게다가 플뢰르도 프랑스가 아닌 이곳에서 결혼하는 데 동의했어. 우리는 다 함께 이 곳에 머물면서 너를 돌봐 줄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조정해 놓았단다.”

위즐리 부인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부인의 말은 그를 위로해 주긴 커녕 더욱더 우울하게 했다.

“만약 볼드모트가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되면.....”  
“하지만 어떻게 알겠니?”

위즐리 부인이 물었다.

“네가 있을 거라고 짐작될 만한 장소가 열두 곳이나 된단다. 해리. 그자는 네가 어느 은신처에 있는지 절대로 모를 거야.”

위즐리 씨가 말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저 자신이 아니에요!”  
해리가 소리쳤다.

“우리도 안다.”

위즐리 씨가 조용히 타일렀다.

“하지만 네가 이대로 떠나 버리면 오늘 밤 우리가 거울인 노력을 모두 허사가 되어 버리는 거야.”

“넌 아무 데도 못가.”

해그리드도 으름장을 놓았다.

“제기랄 해리.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며 널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어딜 간다고?”  
“맞아, 피가 철철 흐르는 내 귀는 어찌고?”

조지가 방석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나도 그건 알지만.....”

“매드아이도 원치 않을거야.....”

“나도 안다고요!”

해리가 빠르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해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자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제라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길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에도 이마의 흉터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쿡쿡 쑤시고 욱신거렸다. 마침내 위즐리 부인이 침묵을 깰다.

“그런데 헤드위그는 어디 있니, 해리?”  
부인이 달래듯이 말했다.

“피그위존과 함께 새장에 넣고 먹을 것을 좀 줄 수 도 있는데.”  
해리의 가슴속에 불끈 응어리가 쳤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대답을 피하기 위해 그는 남아있는 파이어위스키를 단숨에 들어켰다.

“해리, 넌 그자가 바로 네 위에 있었는데도 그자를 무찌르고 도망쳤잖아.  
어떻게 네가 그걸 또다시 해냈는지 알 수 있을때까지는 기다려 봐.”

해그리드가 화제를 돌렸다.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해리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제 지팡이 였어요. 제 지팡이가 저절로 움직인 거예요.”  
잠시 후에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해리. 네말은 미처 의도하기도 전에 마법을 썼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거야.”

“아니야.”

해리가 부정했다.

“오토바이가 추락하고 있었다. 볼드모트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내 지팡이가 손안에서 빙그르르 돌더니 그를 찾아내 주문을 쏘았어. 심지어 그건 나도 모르는 주문있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황금 불꽃을 만든 적이 없었거든.”

“가끔씩 그런 일이 있지.”

위즐리 씨가 끼어들었다.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이 꿈도 꾸지 못했던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종종, 어린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훈련도 받기 전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해리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그의 흉터가 확확 불타오르고 있었다. 해리는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 모두 자신이 볼드모트와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다.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그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 역시 지금껏 지팡이가 저절로 마법을 부린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흉터에서는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큰 소리로 신음 소리를 내지 않고 참는 것뿐이었다. 해리는 잠깐 시원한 바람을 뺄时候겠다고 중얼거리고는 술잔을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그가 어두운 마당을 지나가자, 해골 같은 거대한 세스트랄이 고개를 번쩍 들고 박쥐 날개 같이 생긴 커다란 날개를 퍼덕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풀을 뜯어먹었다. 해리는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무성하게 웃자란 풀들을 명하니 노려보았다. 그리고 격렬하게 쑤시는 이마를 문지르면서 덤블도어를 생각했다.

덤블도어라면 그의 말을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째서 해리의 지팡이가 저절로 움직였는지 알았을 것이다. 덤블도어는 항상 대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이미 두 지팡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해리의 지팡이와 볼드모트의 지팡이 사이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해리에게 설명해 주었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매드아이나 시리우스처럼, 부모님처럼, 그리고 그의 가엾은 부엉이처럼, 해리가 두 번 다시 말을 걸 수 없는 곳으로 떠나 버리고 말았다. 해리는 뭔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파이어위스키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바로 그때 느닷없이 이마에 느껴지던 통증이 극에 달했다. 해리는 이마를 부여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서 버럭버럭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사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네놈이 말하지 않았더냐!”

뒤이어 그의 머릿속에 바싹 여윈 노인이 누더기를 입고 돌바닥 위에서 웅굴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노인은 마구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길게 이어지는 그 끔찍한 비명소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살려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감히 볼드모트 경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올리벤더!”

“그렇지 않습니다. 맹세코 그렇지 않습니다.....”

“넌 포터를 도와준거야. 그놈이 나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어!”

“맹세코 그건 아닙니다..... 전 다른 지팡이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설명해 보아라. 도대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지? 어째서 루시우스의 지팡이가 파괴되었단 말이냐!”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결은..... 오직 그 두 지팡이 사이에만 있는 것인데.....”

“거짓말!”

“제발..... 부탁입니다.....”

해리는 새하얀 손이 지팡이를 치켜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볼드모트의 사악한 분노가 확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힘없는 노인이 돌바닥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

“해리!”

그 광경은 떠오를 때 처럼 사라질 때도 순식간이었다. 해리는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꼭 붙잡은 채, 어둠 속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흉터가 아직도 화끈거렸다. 한참 후에야 해리는 비로소 헤르미온느와 론이 자기 옆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해리,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직도 떠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그래, 넌 여기 있어야 해. 친구.” 론이 해리의 등을 톡톡 치며 말했다.

“그런데 너 괜찮니?”

해리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아주 안 좋아 보여!”

“글쎄.....”

해리가 부르르 몸을 떨며 말했다.

“올리밴더 보다야 낫겠지.”

해리가 방금 눈앞에 떠오른 광경을 그들에게 모두 이야기해주자, 론은 오싹 소름이 끼친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막았어야 하잖아! 네 흉터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또다시 그자와의 연결통로를 열어서는 안돼. 덤불도어 교수님도 네가 생각의 문을 닫기를 원하셨어!”

해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헤르미온느가 그의 팔을 덥석 잡았다.

“해리, 그 자는 이미 마법부와 신문, 그리고 마법사 세계의 절반을 자기 손에 넣었어! 네 머릿속까지 차지하게 내버려 두지마!”

## 제 6 장 파자마를 입은 굴 귀신

매드아이를 잃은 충격이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집 안을 떠나지 않았다. 해리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대로 이곳을 들락거리는 다른 기사단 단원들처럼, 지금이라도 매드아이가 의족을 뚜벅거리며 뒷문으로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이외에는 이 세상 무엇도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과 슬픔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호크룩스를 찾아서 파괴하는 임무에 착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네가 열일곱살이 될때 까지는 그.....”

론이 ‘호크룩스’란 말을 소리 내지 않고 입만 벙끗벙끗했다.

“.....에 대해서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잖아. 넌 아직도 추적 마법의 감시를 받고 있어. 게다가 다른 데서나 여기서나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니, 안 그래?”

갑자기 론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혹시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니?”

“아니야.”

해리가 부정했다.

“그동안 헤르미온느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네가 여기 도착할 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모아 놓았는데.”

론이 소곤거렸다.

그들은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다. 위즐리 씨와 빌은 방금 전에 출근을 했고, 위즐리 부인은 헤르미온느와 지니를 깨우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고 없었다. 한편 플리르는 목욕을 한다며 가 버렸다.

“추적 마법은 31일이 되면 효력이 사라져.”

해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난 이곳에 딱 4 일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5일이야.”

론이 해리의 말을 바로잡아 주었다.

“결혼식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빠지면, 그들이 우릴 가만두지 않을걸.”

해리는 당장 론의 말을 알아들었다. 여기서 ‘그들’ 이란 플로르와 위즐리 부인을 뜻했다.

“그래 봤자 딱 하루 더 있는 건데 뭐.”

론이 불만에 가득 찬 해리의 표정을 보자, 얼른 덧붙였다.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나 보지?”

“물론 이해하지 못하지.”

론이 말했다.

“그들은 전혀 사정을 모르니까 말이야. 기왕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그 일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론은 위즐리 부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복도로 난 문을 훨끔 쳐다봤다. 그런 다음 해리에게 몸을 바싹 기울였다.

“엄마가 헤르미온느랑 나한테서 이 일에 대해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계셔. 우리가 뭘 하려고 떠나는지 말이야. 잘 먹혀 들지 않으면, 그땐 널 노리실 거야. 그러니까 단단히 대비하라고. 아빠랑 루핀도 똑같이 물어보셨는데,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 두 사람 이외에는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너에게 당부하셨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만 포기하시더라. 하지만 엄마는 아니야. 아주 작정을 하셨더라고.”

론의 예언은 불과 몇시간 만에 실현되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직전, 위즐리 부인이 그의 배낭에서 나온 것 같은 남자 양말 한 짹이 있는데 확인해 달라면서 해리를 불러낸 것이다. 부인은 일단 그를 부엌 한쪽의 좁은 다용도실로 몰고 가더니, 심문을 시작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너희 세 사람이 호그와트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부인은 예사로운 일처럼 가벼운 어조로 말문을 뻬했다.

“아, 글쎄, 그래요, 그럴 거예요.”

해리가 대답했다. 순간 한쪽 구석에서 탈수기가 저절로 움직이더니 위즐리 씨의 조끼처럼 보이는 것을 사납게 쥐어짰다.

“어째서 공부를 그만두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니?”  
위즐리 부인이 물었다.

“그게..... 덤블도어 교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일이....”

해리가 우물거렸다.

“론과 헤르미온느도 그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일’ 이라는게 뭐냐?”

“죄송해요. 하지만 말씀 드릴 수가....”

“솔직히 아서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헤르미온느의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위즐리 부인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해리는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공격을 두려워했었다. 그는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무진장 애를 갚다. 그러면서 문득 부인의 눈 색깔이 지니와 똑같은 갈색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줌마. 덤블도어 교수님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죄송해요. 론과 헤르미온느는 꼭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 애들이 선택한.....”

“나는 너 역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위즐리 부인은 태연한 척 애쓰던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두 포기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넌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뿐이야. 너희 모두 다 말이야. 덤불도어 교수님이 설사 시킬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 분은 기사단 전체를 당신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는데,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해리, 넌 그분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게 틀림없어. 아마 그분은 당신이 원가 끝내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게다. 그런데 너는 네가 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은……”

“제가 잘못 알아들은게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위즐리 부인에게 그에게 확인해달라고 했던 양말 한 짝을 부인에게 돌려주었다. 그것은 황금 가시나무 무늬가 있는 양말이었다.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전 푸들미어 유나이티드팀(황금가시나무는 이 팀의 상징이다.<쿼디치의 역사>를 참조할것:역주)을 응원하지 않아요.”

“오,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위즐리 부인이 갑작스럽게 전의를 상실하고 평상시와 같은 말투로 돌아갔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어쨌든 해리. 여기 있는 동안은 말이다. 빌과 플리르의 결혼식 준비를 좀 도와줘야겠다. 해줄거지, 그렇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무…… 물론, 도와 드리죠.”

해리는 갑작스럽게 화제가 바뀌자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다.

“착하기도 하지.”

부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다용도실을 떠났다.

바로 그 순간부터 위즐리 부인이 결혼식 준비를 구실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어찌나 바쁘게 몰아치던지 세 사람은 제대로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이런 행동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해석은, 위즐리 부인이 그들의 정신을 온통 다른 곳으로 쓸리게 해서 매드아이에 대한 생각과 최근 여행에서 겪은 공포를 떨쳐 버리게끔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후로 이를 동안 술 새 없이 이어지는 나이프와 포크 쟁기, 선물 상자와 리본과 꽃의 색깔 맞추기, 정원의 땅 신령 제거하기, 카나페를 무지막지하게 몇 쟁반씩이나 만들어내는 위즐리 부인 도와주기 등등의 일을 하면서, 해리는 부인이 원가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게 되었다. 부인이 시키는 모든 일들이 그와 론, 헤르미온느를 서로 떼어 놓기 위한 방편인 듯이 보였던 것이다.

사실 해리는 볼드모트가 올리밴더를 고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첫날 밤 이후로, 두 사람과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내가 보기예, 엄마는 언니, 오빠 세사람이 함께 모여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오빠가 떠나는 걸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해리가 버로우에 머문지 3 일째 되는 날, 둘이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을때 지니가 잔뜩 목소리를 낮추고 해리에게 소곤거렸다.

“그럼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해리가 투덜 거렸다.

“아줌마가 우릴 여기 붙잡아 두고 볼로방(고기 파이의 일종:역주)이나 굽게 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볼드모트를 죽이기라도 할까 봐?”

해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불쑥 내뱉고 말았다. 그리고 지니를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게 정말이야?”

지니가 물었다.

“그게 오빠가 하려는 일이야?”

“난…… 난 그거…… 농담이야.”

해리가 황급히 얼버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지니의 얼굴에는 충격이상의 어떤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문득 해리는 호그와트 운동장의 호젓한 구석에서 은밀한 몇 시간을 보낸 이후로, 지니와 단둘이 있는 것이 처음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지니 역시 그 사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문이 활짝열리고 위즐리

씨와 킹슬리, 그리고 빌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을때,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요즘은 다른 불사조 기사단 단원들이 종종 저녁식사에 자리를 함께하곤 했다. 왜냐하면 그리볼드 광장 12 번지를 대신해서 버로우가 본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즐리 씨는 기사단의 비밀 파수꾼이었던 덤블도어가 죽은 이후로, 생전에 덤블도어가 그리볼드 광장의 위치를 알려 주었던 사람들이 교대로 비밀 파수꾼의 역할을 맡아 왔다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스무 명 정도나 되기 때문에 피델리우스 마법의 힘이 크게 약화 될 수 밖에 없어. 죽음을 먹는 자들이 누군가로부터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확률이 스무배나 커진 셈이니까. 그걸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

“지금쯤이면 스네이프가 분명히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그곳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해리가 물었다.

“글쎄, 스네이프가 그곳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매드아이가 한두 가지 저주를 걸어 놓기는 했단다. 부디 그 저주가 스네이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그자가 그 장소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면 그 입을 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했으면 싶지만 장당은 못하겠어. 어쨌든 그곳은 보호가 그토록 불안정하게 된 상황에서, 그곳을 계속 본부로 사용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이지.” 그날 저녁따라 부엌이 어찌나 사람들로 넘쳐 나는지, 나이프와 포크를 움직이기도 어려웠다. 해리는 지니 옆에 꼭 붙어 앉게 되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주고 받은 무언의 대화 때문에, 해리는 오히려 자신과 지니 사이에 몇 사람이 더 끼어 앉았으면 싶었다. 지니의 팔과 스치는 걸 피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 닭고기를 자르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매드아이에 관한 소식은 없나요?”

해리가 빌에게 물었다.

빌이 대답했다. 그들은 무디의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했다. 빌과 루핀이 무디의 시신을 찾아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깜깜한 어둠 속인데다가 혼란스런 싸움이 벌어지던 와중이어서 그가 어디쯤 떨어졌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예언자 일보>는 매드아이의 죽음이나 그의 시신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더군.”

빌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일도 아니야. 요즘은 온갖 것들을 다 감추고 있으니 말이야.”

“그럼 그들은 아직도 제가 죽음을 먹는 자들로부터 도망칠때 사용했던 모든 미성년자의 마법행위에 대해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나요?”

해리가 식탁 너머로 위즐리 씨에게 물었다. 위즐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제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그자들도 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볼드모트가 저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길 원치 않기 때문인가요?”

“후자인 것 같구나, 스크림지는 그 사람이 현재 자기 자신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아즈카반에서 대규모 탈옥이 있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그렇죠 뭐, 뭐 하러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겠어요?”

해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나 나이프를 세게 쥐었는지, 오른손 손등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흉터가 다시 하얗게 드러났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법부에는 그에게 대항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론이 화가 나서 따졌다.

“물론 있지, 론.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단다.”

위즐리 씨가 대답했다.

“다음번엔 자신이 실종되지 않을까. 자기 아이들이 공격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거야! 혐악한 소문들이 사방에 떠돌고 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나는 호그와트의 머글 연구 과목 교수가 사임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단다.

그 교수는 벌써 몇 주일째 행방이 묘연해. 그런데도 스크림저는 하루종일 자기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니..... 부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동안 위즐리 부인은 마법을 써서 빈 접시들을 싱크대로 보내고 디저트로 사과 타르트를 내놓았다.

“그런데 네가 어떻 변장을 할지 결정해야 해. 아리.”

모두 후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플뢰르가 불쑥 입을 열었다.

“결혼식을 위해서.”

해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플뢰르가 덧붙였다.

“물론 우리 손님들 중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있을리가 없겠지망, 샴페인이라도 한 잔씩 하고 나명, 무슨 말을 훑리고 나닐지 모르능 일이잖아.”

이 말을 듣고 해리는 그녀가 아직도 해그리드를 의심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그래, 좋은 지적이구나.”

식탁의 제일 상석에 앉아 있던 위즐리 부인이 찬성했다. 부인은 코끝에 안경을 걸친 채, 엄청나게 많은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 놓은 기나긴 양피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론, 네 방 청소를 이미 했겠지?”

“네예?”

론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어머니를 노려보면서 외쳤다.

“왜 제 방을 청소해야 하는데요? 해리랑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요!”

“며칠 있으면 이곳에서 네 형의 결혼식을 치를 거야. 그러니.....”

“그렇다고 제 침실에서 결혼식을 할 건 아니잖아요?”

론이 짜증을 부렸다.

“싫어요! 멀린의 처진 왼쪽 거시기에 대고 맹세코 도대체 왜.....”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말대답을 하면 못써.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라.”

위즐리 씨가 엄하게 야단쳤다.

론이 부모님을 보며 잔뜩 인상을 쓰더니, 숟가락을 다시 들고는 맹렬한 기세로 마지막 몇 입 남은 사과 타르트를 향해 덤벼들었다.

“내가 도와줄께, 내가 어지른 것도 있으니까.”

해리가 론에게 말했다. 하지만 위즐리 부인은 단박에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다 해리, 너는 아서 아저씨랑 닭장 청소를 해 주면 고맙겠구나. 그리고 헤르미온느, 너는 델라쿠르 부부를 위해서 침대 시트를 전부 갈아 주면 정말 고맙겠다. 내일 아침 열한시에 그들 부부가 온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하지만 결국 알고 보니, 닭장은 별로 치울 것도 없었다.

“몰리에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

위즐리 씨는 해리가 닭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황급히 막으면서 말했다.

“사실은 테드 톰스가 부서진 시리우스의 오토바이 잔해를 대부분 모아서 보내왔거든. 그래서 여기 이 안에다 감춰 놓고, 아니 보관해 놓고 있단다. 아주 환상적인 물건이야. 배기구인가, 뭐 그런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배터리도 있어.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야. 몰리가 없을..... 아니, 내 말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걸 전부 다시 조립해 볼 생각이란다.”

두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디에서도 위즐리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해리는 그 틈을 타서 위층에 있는 론의 다락방 침실로 슬며시 올라갔다.

“지금 치우고 있어요, 치우고 있다고요! 오, 너였구나!”

해리가 방에 들어가자, 론이 안심한 듯이 외쳤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 벌렁 누워 버렸다. 이제 막 침대 위를 겨우 지운것이 분명했다. 방 안은 몇주 동안 내내 그랬듯이 여전히 엉망이었다. 딱 한가지 변한 게 있다면 지금은 헤르미온느가 저 안쪽 구석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텸이 보풀보풀한 적갈색 고양이 크록생크가 있었다. 그녀는 책들을 두 개의 거대한

책 더미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해리가 보기에 자기 책인 듯 싶은 것도 있었다.

“안녕, 해리.”

헤르미온느가 인사를 했다. 해리는 자기가 쓰는 간이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어떻게 일을 안 하고 빠져나온거야?”

“오, 론의 어머니께서 어제 벌써 나랑 지니에게 시트를 갈라고 시키셨던 사실을 깜박 잊으신 거야.”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산술점>은 이쪽 더미로, <어둠의 마법의 변영과 몰락>은 다른 쪽 더미로 던졌다.

“우린 방금 매드아이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어.

론이 해리에게 말했다.

“어쩌면 매드아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살인 저주에 맞는 걸 빌이 보았다고 하잖아.”

해리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빌도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 그러니 빌이 제대로 보았는지 어떻게 알아?”

론이 반박했다.

“설사 살인 저주가 빗나갔다고 해도, 매드아이는 수백 미터 상공에서 추락했어.”

헤르미온느가 <영국과 아일랜드의 퀴디치 팀>이란 책을 손에 들고 고민하면서 말했다.

“방패 마법을 썼을 수도 있어.”

“매드아이의 지팡이가 손에서 날아가 버렸다고 플로르가 말했잖아.”

해리가 말했다.

“그래, 너희가 정 매드아이가 죽었길 바란다면 좋아.”

론이 베개를 턱탁 두들겨 더 편안한 모양을 만들면서 빼죽거렸다.

“물론 매드아이가 죽었길 바라는 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란 얼굴로 소리쳤다.

“그가 죽은 걸 정말 슬픈 일이지. 하지만 우린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해리는 처음으로 더블도어처럼 엉망으로 부서진, 그러나 한쪽 눈알만은 여전히 눈구멍 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 매드아이의 시신을 상상해 보았다. 갑자기 극도의 혐오감과 더불어 큰 소리로 웃고 싶은 기묘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어쩌면 나중에 시신을 치웠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매드아이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

론이 제법 그럴듯하게 추론했다.

“그래. 해그리드의 앞마당에 묻혔던 바티 크라우치처럼 말이지.”

해리가 말했다.

“어쩌면 무디의 모습을 변신시켜서 그를 박제.....”

“그만 해!”

헤르미온느가 꽉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란 해리가 고개를 돌리자 <주술사의 문자표>란 책 위에 엎드린 채 울고 있는 헤르미온느의 모습이 보였다.

“오, 이런..... 헤르미온느. 너를 자극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해리는 낡은 간이침대 위에서 허둥지둥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빼거덕하고 녹슨 스프링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론이 침대에서 튕기듯이 일어나 먼저 헤르미온느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한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다른 한 팔로는 청바지 주머니를 뒤져서 보기만 해도 비위가 상하는 손수건을 꺼냈다. 얼마 전에 오븐을 닦는 데 썼던 손수건이었다. 론은 황급히 지팡이를 꺼내어 그 걸레 조각을 향해 겨누고 주문을 외웠다.

“테르지오.”

지팡이는 그럭저럭 말끔하게 기름때를 빨아들였다. 론은 자신의 솜씨에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살짝 연기가 나는 손수건을 헤르미온느에게 건넸다.

“오..... 고마워, 론..... 미안해.....”

헤르미온느는 코를 팽 풀더니 딸꾹질을 했다.

“너무, 괴..... 끔찍한 일이지. 안 그래? 불과 어, 얼마전에 덤블도어 교수님이..... 난 매드아이가 주..... 죽었다는 걸 상상조차 하....할 수없어. 그렇게 강인해 보였는데!”

“그래, 나도 알아.”

론이 그녀를 꼭 껴안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그분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을지 너도 알잖아.”

“하..... 항상 주위를 경계할 것.”

헤르미온느가 눈물을 닦으며 더듬거렸다.

“맞았어.”

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은 그 비겁한 엉터리 놀마니, 먼던구스를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자 헤르미온느가 울음 섞인 웃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다시 책 두권을 집어 들었다. 론이 그녀의 어깨에 둘렀던 팔을 재빨리 뺐다. 그 순간 헤르미온느가 <괴물들에 관한 괴물책>을 그의 발등에 떨어뜨렸다. 책을 동여매고 있던 끈이 풀리면서 책이 사납게 론의 발목을 꽉 깨물었다.

“어머, 미안해! 미안해!”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해리는 론의 다리에서 책을 비틀어 잡아뗀 후에 다시 꽉 죄었다.

“그런데 이 책들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론이 절뚝거리며 자기 침대로 되돌아 가면서 물었다.

“그냥 가져갈 책을 고르고 있는 중이야.”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호크룩스를 찾으러 갈 때 말이야.”

“오, 어려하시겠어.”

론이 한 손으로 이마를 턱 치면서 빙정거렸다.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타고 볼드모트를 잡으러 간다는걸 깜박 잊고 있었네.”

“웃기기도 하겠다.”

헤르미온느가 <주술사의 문자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잘 모르겠어..... 우리가 룬 문자를 해석해야 할 일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만약을 위해서 이 책은 가져가는게 좋겠다.”

헤르미온느는 그 책을 두개의 책 더미 중에서 더 큰 쪽으로 던져 놓았다. 그리고 다시 <호그와트의 역사>란 책을 집어 들었다.

“내 말 좀 들어 봐.”

해리가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그러자 론과 헤르미온느가 체념과 반발심이 뒤섞인 그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덤블도어 교수님의 장례식 직후에 너희가 나와 함께 가겠다고 말한 건 알고 있어.”

해리가 말했다.

“드디어 그 말을 꺼내는군.”

론이 눈알을 굴리며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쟤가 저렇게 나올 줄 진작부터 알았지.”

헤르미온느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난 <호그와트의 역사>, 이 책도 가져갈 생각이야. 설사 우리가 두 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이 책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말 좀 들어!”

해리가 또다시 말했다.

“아니 해리, 너나 잘 들어.”

헤르미온느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린 너와 함께 갈 거야. 이미 몇 달 전에 결정된 일이야. 아니, 사실은 몇 년 전에 말이지.”

“하지만.....”

“그만 해.”

론이 해리에게 총고했다.

“너희가 이 일을 충분히 생각해 보았다고 확신하니?”

해리가 끈질기게 물었다.

“어디 보자.”

헤르미온느가 약간 사나운 표정으로 <트롤과의 여행>을 버리는 책 더미 위에 탁 내려놓더니 속사포처럼 쏘아 대기 시작했다.

“난 지난 며칠 동안 짐을 쌓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너에게 몇 가지 알려주자면, 그 준비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마법을 행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 몰리 아줌마의 코앞에서 매드아이의 폴리주스 마법약을 통째로 몰래 들여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난 심지어 우리 부모님의 기억조차 바꿔 놓았다고. 이제 그 분들은 자신들이 원델과 모니카 월킨스라고 굳게 믿고 계셔. 그리고 그들의 평생 소망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하는 것이고 이제 그 꿈을 이루셨다고 생각하지. 이게 모두 다 볼드모트가 그분들을 추적하여 나나 너에 대해서 심문하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야.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내가 부모님께 너에 대해서 약간 말했거든.

혹시 내가 호크룩스를 찾는 이 일에서 살아남는다면, 난 엄마 아빠를 찾아서 그 마법을 해제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난 그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충분히 마법을 걸어 놓았다고 생각해. 윈델과 모니카 월킨스는 자신들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몰라.”

헤르미온느의 두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론은 다시 침대에서 벌떡 달려 나오더니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마치 눈치없다고 비난 하듯이 해리를 향해 인상을 썼다. 해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론이 다른 사람에게 눈치 없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일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난 저..... 헤르미온느, 미..... 미안해. 난 미처.....”

“론과 내가 너와 함께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말하려는 거니? 그래, 우린 알고 있어. 론, 네가 한 일을 해리에게 보여줘.”

“아냐, 이제 막 밥먹었는데.”

론이 주저했다.

“어서! 해리도 알아야 해!”

“좋아, 해리 이쪽으로 와 봐.”

론은 두 번째로 헤르미온느의 어깨에 들렀던 팔을 빼더니 문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어서!”

“왜 그래?”

해리는 론의 뒤를 따라 방 밖으로 나가서 좁은 총계참에 섰다.

“디센도.”

론이 주문을 외우며 낮은 천장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러자 머리 위로 천장 뚜껑이 열리더니 사다리 하나가 발치까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다. 네모나게 뚫린 구멍 속에서는 원가를 빨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한 끔찍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뚜껑 열린 하수구처럼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저게 너희 집 굴 귀신이지, 맞니?”

해리가 물었다. 가끔씩 밤의 정적을 깨뜨리곤 하는 이 생물을 실제로 만나 본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

론이 사다리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너도 와서 한번 봐.”

해리는 론을 따라서 계단이 몇개 안 되는 짧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 밑 조그만 공간으로 올라갔다. 머리와 어깨까지 완전히 들이민 후에야 비로소 조금 떨어진 곳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는 굴 귀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 생물은 희미한 어둠속에서 커다란 입을 꽉 벌린 채,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그런데 저.....저건.....마치..... 굴 귀신들은 다들 파자마를 입니?”

“아니.”

론이 대답했다.

“그리고 대개는 빨간 머리카락도 없고 저렇게 많은 물집도 없어.”

해리는 약간 혐오감을 느끼며 그 생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모습이나 크기는 대충 인간과 비슷했는데, 눈이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고 보니 론의 옛날 파자마를 입고 있는게 분명하게 보였다. 게다가 보통 굴 귀신은 분명 끈적끈적하고 털도 없으며, 이렇게 눈에 뛸 정도로 무성한 털과 빨갛게 성난 물집으로 뒤덮여 있지도 않았다.

“저 녀석이 바로 나야. 알겠니?”

론이 물었다.

“아니, 모르겠는걸.”

해리가 대답했다.

“다시 내 방으로 가서 설명해 줄게. 냄새가 너무 지독하구나.”

론이 말했다. 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자. 론은 사다리를 다시 올려 보냈다. 그리고 아직까지 책을 분류하고 있는 헤르미온느 옆으로 돌아갔다.

“일단 우리가 떠나고 나면, 저 굴 귀신이 내 방으로 와서 살게 될 거야.”

론이 설명을 시작했다.

“저 녀석은 그 일을 무척 고대하고 있는 것 같아. 글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야. 사실 저 녀석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깅낑거리는 거랑 침을 질질 흘리는 것 뿐이니까. 하지만 그 얘기만 꺼내면 고개를 열심히 끄덕거리거든. 어쨌든 저 녀석은 앞으로 스팩터그로이트 병에 걸린 내가 될 거야. 훌륭하지. 응?”

해리는 그저 통 못알아듣겠다는 표정만 짓고 있었다.

“훌륭하잖아?”

론은 해리가 이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자, 몹시 짜증이 난 것이 분명했다.

“이거 봐, 우리 세 사람이 다시 호그와트에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나 헤르미온느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안그래? 그렇게 되면 죽음을 먹는 자들은 곧장 우리 가족들을 찾아와서 네가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겠지.”

“일이 잘되면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지금 많은 머글 태생들이 어딘가 숨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전부 숨을 수가 없어. 그럼 너무 수상하게 보일 거야. 게다가 전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론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린 내가 스팩터그로이트 병에 걸려서 심하게 앓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퍼뜨리기로 했어. 그 때문에 학교에도 못 돌아가는 걸로 말이야. 혹시 누군가 조사를 나오게 되면, 엄마 아빠는 내 침대에 누워있는 물집 난 굴 귀신을 보여주면 돼. 스팩터그로이트는 아주 감염성이 높은 병이니까 누구든 다가오길 원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굴 귀신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돼. 일단 균이 목젖에 퍼지면 절대 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럼 너희 엄마 아빠도 이 계획에 동참하셨단 말이니?”

해리가 물었다.

“아빠만. 사실은 프레드와 조지가 굴 귀신을 변장시키는 걸 아빠가 도와주셨어. 엄마는..... 글쎄, 너도 엄마의 태도를 보았잖아. 우리가 정말 떠날 때까지 엄마는 우리가 갈 거라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야.”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단지 헤르미온느가 계속해서 책들을 이쪽 저쪽으로 톡톡 던져 놓는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깼다. 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두커니 앉아 있었고, 해리는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한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 놓은 조치를 듣고 나니, 해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두 사람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갈 작정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빼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해리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 두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다만 그런 벅찬 감정을 표현해 줄 말을 찾을 수가 없을 뿐이었다.

그 때 이 침묵을 깨고, 위즐리 부인이 저 아래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지니가 하잘것없는 넙킨 고리에 먼지라도 남긴 모양이군.”

론이 중얼거렸다.

“도대체 멜라쿠르 가족은 왜 결혼식 이틀 전부터 여길 오고 난린지 모르겠어.”

“플뢰르의 여동생이 신부 들러리를 서기로 했는데, 예행연습 때문에 먼저 여길 와야만 했거든. 그런데 너무 어려서 혼자 올 수가 없었어.”

헤르미온느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밴시와 보내는 휴식 시간>이란 책을 골똘히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글쎄, 손님들은 엄마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거야.”

론이 말했다.

“우리가 진짜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헤르미온느가 <방어 마법 이론>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쓰레기통 속에 던져 넣으며 불쑥 말을 꺼냈다. 그러고는 <유럽의 마법 교육 평가서>란 책을 집어 들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갈 건지 하는 거야. 물론 너는 제일 먼저 고드릭 골짜기에 가 보자고 말했었지. 나도 알아. 그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글쎄.....호크룩스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거 아닐까?

“만약 호크룩스들 중에 하나라도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해리가 입을 열었다. 사실 헤르미온느가 고드릭 골짜기를 찾아가고 싶어 하는 자기의 심정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부모님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그가 가고 싶어 하는 이유의 일부일 뿐이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웬지 그곳에 가면 해답을 찾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어쩌면 단지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볼드모트의 살인 저주를 당하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인지도 몰랐다. 다시 똑같은 일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을 앞둔 지금, 해리는 바로 그 일이 벌어졌던 장소로 자연히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그곳을 알고 싶었다.

“볼드모트가 고드릭 골짜기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드니?”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자 역시 언젠가 네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때가 되면, 그곳에 돌아가서 네 부모님의 무덤을 방문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을까?”

해리는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가 반박할 말을 찾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는 동안, 론이 줄줄이 생각이 떠오를 대로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R.A.B.라고 하는 이 사람 말이야. 이자가 진짜 로켓을 훔친 사람이겠지?”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남긴 쪽지에 보면 그걸 파괴해 버릴 거라고 했잖아, 안그래?”

해리가 얼른 자기 배낭을 끌어당겨 가짜 호크룩스를 꺼냈다. 거기에는 아직도 R.A.B 의 쪽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진짜 호크룩스를 훔쳤고, 가능한 한 빨리 그걸 없애버릴 작정이네.”

해리가 소리 내어 읽었다.

“만약 그가 이미 그걸 없애 버렸다면?”

론이 물었다.

“그녀일 수도 있어.”

헤르미온느가 말꼬리를 잡았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없애야 할 게 하나 줄어드는 셈이잖아!”

론이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짜 로켓을 추적해 봐야만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말을 이었다.

“그게 진짜로 파괴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지.”

“일단 그걸 손에 넣는다고 해도, 어떻게 호크룩스를 없애 버릴 수가 있지?”  
론이 의문을 제기했다.

“글쎄, 안 그래도 내가 조사를 좀 해 봤어.”

“어떻게?”

해리가 물었다.

“도서관에는 호크룩스에 대한 책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물론 없었지.”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전부 치워 놓았거든. 하지만 없애버리지는 않으셨어.”  
론이 눈을 크게 뜨고 몸을 꿋꿋이 세웠다.

“세상에! 네가 무슨 수로 호크룩스에 관한 책들을 손에 넣었단 말이야?”

“하지만 후.....훔친 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다소 절망적인 눈길로 해리와 론을 번갈아 쳐다보며 부르짖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 책들을 서가에서 치웠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도서관 책인 건 맞잖아. 게다가 교수님이 정말로 그 책을 아무에게도 보여 주길 원하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이 훨씬 더 찾기 어렵게 해 놓으셨을.....”

“요점만 말해!”

론이 재촉했다.

“그러니까....아주 간단했어.”

헤르미온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냥 소환 마법을 썻을 뿐이야. 너희도 알잖아. 아씨오.... 그랬더니 그 책들이 덤블도어 교수님의 서재 창문에서부터 곧장 여학생 기숙사로 날아들어 오더라.”

“언제 그런 일을 한거야?”

해리가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러니까 바로....덤블도어 교수님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에.”

헤르미온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기어들었다.

“다 함께 학교를 떠나서 호크룩스를 찾으러 가자고 약속한 직후에 말이야. 내 물건을 챙기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문득 호크룩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면 알수록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떠오르잖아.....때마침 기숙사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서....그래서 시험 삼아 한번 해 봤더니....효과가 있었어. 책들이 열린 창문을 통해서 곧장 날아들어 오더라고.....그래서 그 책들을 가방에 쌌지 뭐.”

헤르미온느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애원하듯이 덧붙였다.

“덤블도어 교수님도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렇다고 이 정보를 가지고 호크룩스를 만드는 데 쓸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누가 너더러 뭐라고 했냐?”

론이 핀잔을 주었다.

“그건 그렇고 그 책들은 어디 있어?”

헤르미온느는 잠깐 뒤적거리더니 책 더미에서 색이 바랜 검은 가죽 장정의 커다란 책 한 권을 뽑았다. 그리고 토탈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몹시 조심스럽게 책을 들었다. 마치 그 책이 죽은 지 얼마 안되는 시체라고 되는 듯한 태도였다.

“이 책에는 호크룩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나와 있어. <가장 사악한 어둠의 마법의 비밀>이란 책이지. 아주 무시무시한 책이야. 정말로

몸서리치게 사악한 마법들이 가득 적혀 있어. 덤블도어 교수님이 이런 책들을 언제 도서관에서 옮겼을까 궁금하다니까. 만약 교수님이 교장선생님이 된 이후에야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볼드모트는 이 책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얻었을 거야.”

“만약 볼드모트가 이미 이 책을 읽었다면, 어째서 슬러그흔에게 호크룩스 만드는 방법을 물어봐야만 했을까?”  
론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자는 단지 영훈을 일곱 개로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내기 위해서 슬러그흔에게 접근했던 거야.”  
해리가 설명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리들이 슬러그흔에게 그것들에 대해 물었을 때, 벌써 호크룩스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셨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헤르미온느. 바로 이 책에서 그자는 쉽게 정보를 얻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호크룩스에 대해 읽어 볼수록, 점점 더 그것들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자가 실제로 호크룩스를 여섯개나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믿어지지 않아. 이 책을 보면 영훈을 쪼갬으로써 나머지 영훈이 얼마나 불안정해지는지 경고하고 있거든. 호크룩스를 딱 하나만 만들때도 그렇다고 하는데!”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는 문득 볼드모트가 ‘일반적인 사악함’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던 덤블도어의 말이 떠올랐다.

“그럼 다시 영훈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거니?”  
론이 물었다.

“있어.”

헤르미온느가 약간 맥빠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왜? 어떻게 하는 건데?”

해리가 물었다.

“양심의 가책이야.”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속 깊이 가책을 느껴야만 해. 그런데 거기엔 각주가 달려 있어. 가책의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야. 난 볼드모트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일을 시도할 거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어. 안그러니?”

“그건 그래.”

해리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룬이 먼저 대꾸했다.

“그 책에는 호크룩스를 파괴하는 방법도 나와 있니?”

“있어.”

헤르미온느는 마치 썩은 내장이라도 살피듯이 조심스럽게 낡은 양피지를 넘겼다.

“왜냐하면, 이 책은 어둠의 마법사들에게 호크룩스에 마법을 얼마나 강하게 걸어야 하는지 경고하고 있거든. 내가 읽은 걸 모두 종합해 보면, 해리가 리들의 일기장에 했던 일이 바로 호크룩스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몇가지 방법 중 하나였어.”

“뭐라고? 바실리스크의 송곳니로 찌르는 거 말이야?”

해리가 반문했다.

“글쎄.... 만약 아주 운이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바실리스크의 송곳니를 손에 넣었다고 쳐.”

룬이 말을 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걸 갖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 모르겠는걸.”

“꼭 바실리스크의 송곳니일 필요는 없어.”

헤르미온느가 인내심을 갖고 말했다.

“호크룩스가 스스로 재생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무엇이면 되는 거야. 바실리스크의 독은 해독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한 거라서....”

“불사조의 눈물이지.”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정확히 맞았어”

헤르미온느가 말을 받았다.

“우리의 문제는 바실리스크의 독만큼 파괴적인 것이 거의 없다는 거야. 게다가 갖고 다니기에는 전부 다 너무 위험하고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왜냐하면 호크룩스를 찢어 버리거나 부수거나 찌그러뜨리는 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마법으로 다시 복구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혀야만 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혼이 깃들어 있는 물건을 파괴했다 쳤을 때, 어째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그냥 그걸 빠져나가서 원가 다른 물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론이 물었다.

“왜냐하면 호크룩스는 인간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

해리와 론이 퉁 뜯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걸 보자,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다.

“잘 들어 봐.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칼을 들어서 너를 찔렀다고 하자, 론. 그렇지만 난 너의 영혼을 해칠 수는 없어.”

“정말이지, 그거 참, 나한테 진짜 위안이 되겠구나.”

론이 엉상을 떨자, 해리가 깔깔 웃었다.

“실제로 그렇잖아! 어쨌든 요점이 이거야. 네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네 영혼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살아남는다는 거지.”

헤르미온느가 설명을 계속했다.

“하지만 호크룩스의 경우에는 정반대야. 호크룩스에 깃든 영혼의 조각은 그걸 담고 있는 용기. 즉 마법에 걸린 육신 자체에 그 생존이 전적으로 달려 있어. 그게 없으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 일기장도 내가 찔렀을 때 일종의 죽음을 맞이했었어.”

해리는 구멍이 뚫린 종이에서 피처럼 잉크가 철철 흘러나왔으며, 일기장이 사라질 때 볼드모트의 찢어진 영혼이 비명을 질렀던 걸 떠올렸다.

“일단 일기장이 완전히 파괴되자 거기에 갇혀 있던 영혼의 조각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지. 해리 네가 그걸 없애기 전에, 지니는 일기장에 벗어나려고 그걸 변기 속에 넣어 쓸려 내려가게 했는데, 다시 새것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잖아.”

“잠깐만.”

론이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그 일기장에 깃들어 있던 영혼의 조각이 지니를 사로잡았었잖아, 안 그래? 그건 어떻게 한 거지?”

“영혼을 담은 마법의 용기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을 때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영혼의 조각이 누군가에게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 그것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야. 그렇다고 그걸 아주 오래 지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걸 만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론이 다시 입을 열기 전에 헤르미온느가 잽싸게 말을 이었다.

“여기서 가깝다는 건 정서적인 의미야. 지니는 그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넣었어. 결국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존재로 만든 거지. 만약 호크룩스를 너무 좋아하거나 거기에 의존한다면,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반지를 어떻게 피곤했을까?”  
해리가 물었다.

“왜 나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난 정말이지 한 번도.....”

해리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었다. 그는 덤불도어에게 진작 물어봤어야 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해리는 그가 살아 있었을 때 자신이 너무 많은 좋은 기회들을 날려 버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더 많은 걸 알아냈어야 하는데..... 모든 걸 전부 다..... 하지만 궁하고 벽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과 함께 침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침묵은 깨졌다. 헤르미온느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가장 사악한 어둠의 마법의 비밀>을 밑으로 떨어뜨렸다. 한편 크록생크는 화가 나서 쇳쇠거리며 침대 밑으로 번개처럼 달아났다. 론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버린 개구리 초콜릿 껌질에 미끄러져서 맞은편 벽에 머리를 짚고 말았다. 해리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잡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위즐리 부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인은 온통 산발을 한 채,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이 안락한 소모임을 방해해서 미안하구나.”

부인은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너희 모두 휴식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당장 정리해야 하는 결혼 선물들이 내 방에 잔뜩 쌓여 있단다. 그리고 내가 알기론 너희는 나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 같은데?”

“오, 그럼요.”

헤르미온느가 잔뜩 주눅 든 표정으로 별떡 일어났다. 그리고 책들을 사방으로 날려 보내면서 말했다.

“할게요.... 죄송해요....”

헤르미온느는 걱정스럽게 해리와 론을 한 번 바라보더니, 황급히 위즐리 부인의 뒤를 따라서 방을 나가 버렸다.

“완전 집요정이 된 기분이야.”

론은 해리를 뒤따라 방을 나서면서 머리를 슬슬 문지르며 낮은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직업에 대한 만족감만 없을 뿐이지, 이 결혼식이 어서 빨리 끝나야 나도 더 행복해질 텐데.”

“맞아, 그때는 호크룩스 찾는 일 이외에는 달리 해야 할 일도 없을 테니까, 마치 휴가 같을 거야, 안 그래?”

해리가 농담을 했다. 론이 킬킬대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즐리 부인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산더미 같은 결혼 선물들을 보자, 딱 멈춰 버렸다. 델라쿠르 부부는 다음 날 아침 열한 시에 도착했다. 그때쯤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그리고 지니는 이미 플뢰르 가족에 대해서 짜증이 날 대로 난 상태였다. 론은 짹이 맞는 양말을 찾아 신기 위해서 마지못해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야 했고, 해리는 자꾸 부스스 일어서는 머리를 가라앉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리고 간신히 모두 말끔한 차림새가 되자, 이번에는 줄지어 뛰약볕이 내리쬐는 뒷마당으로 나가서 손님들을 기다려야만 했다.

해리는 이렇게 말끔하게 치워진 뒷마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뒷문 계단 근처에서 퉁굴던 녹슨 냄비와 낡은 고무 장화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처음 보는 팔랑팔랑 나무 두 그루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데도 느릿느릿 잎사귀를 흔들며 매혹적인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닭들은 전부 닭장 안에 갇혀 있었고, 마당은 말끔히 쓸려 있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정원은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도 뽑아 말끔하게 손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정원을 더 좋아했던 해리는 평소처럼 불쑥불쑥 땅신령이들이 뛰어 나오지 않는 정원이 웬지 쓸쓸해보인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기사단과 마법부 양쪽에서 버로우에 얼마나 많은 보호 마법을 걸어 놓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이 라고는 더 이상 누구도 마법을 써서 이곳으로 곧장 들어 올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러므로 위즐리 씨는 근처 언덕 꼭대기로 델라쿠르 부부를 마중 나갔다. 그들은 그곳까지 포트키로 올 예정이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웃음소리였다. 결국 그 웃음소리는 위즐리 씨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잠시 후에 그가 짐을 잔뜩 들고 정문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 뒤로

진초록색의 긴 망토를 입은 아름다운 금발의 부인이 따라왔다. 플뢰르의 어머니가 틀림없었다.

“마망!”

플뢰르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쓴살같이 달려나가더니 부인을 껴안았다.

“파파!”

델라쿠르 씨는 매력이란 면에서는 그의 부인의 발뒤꿈치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 키도 머리 하나는 더 작을 뿐더러 유달리 뚱뚱했는데, 턱에는 짧고 뾰족한 수염이 나 있었다. 하지만 꽤 마음씨가 좋아 보였다. 그는 굽이 높은 장화를 신은 채, 위즐리 부인 쪽으로 통통 뛰어오더니 부인이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쪽 뺨에 두 번씩 입을 맞추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델라쿠르씨가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플뢰르 이야기를 들으니,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용.”

“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말씀을.”

위즐리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고생은 무슨 고생입니까!”

론은 새로 갖다 놓은 팔랑팔랑 나무 화분 뒤에서 빠끔히 내다보고 있던 땅신령 한 마리를 분풀이 삼아 힘껏 걷어찼다.

“오, 친애하는 부인!”

델라쿠르 씨는 통통한 두 손으로 위즐리 부인의 한 손을 여전히 꼭 붙잡은 채, 활짝 웃으며 인사를 재촉했다.

“앞으로 있을 우리 두 집앙의 결합을 저희는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아내님 아폴린을 소개하지요”

델라쿠르 부인이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오더니 허리를 숙이고 위즐리 부인에게 역시 입맞춤을 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남평께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위즐리 씨가 미친 사람처럼 웃어뗐다. 하지만 위즐리 부인이 남편을 한번 노려보다 당장 웃음을 멈추더니, 절친한 친구의 병상 옆에서나 어울릴 법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

“물론 제 막내딸은 한번 망나신 적이 있으시죠, 가브리엘”

델라쿠르 씨가 소리쳤다. 가브리엘은 정말이지 플뢰르의 축소판이었다. 은빛이 감도는 금발을 허리까지 기른 열 한살의 소녀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위즐리 부인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나선 속눈썹을 깜빡거리면서 해리에게 열정적인 시선을 던졌다. 옆에 있던 지니가 큰 소리로 흠哼 헛기침을 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위즐리 부인이 쾌활하게 외쳤다. 그리고 “아니요, 어서 가세요!” “먼저 가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따위의 말들을 술하게 쏟아내면서 델라쿠르 부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델라쿠르 부부는 대단히 유쾌하고 유익한 손님이란 사실이 곧 판명되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기뻐했으며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었다.

델라쿠르 씨는 좌석배치에서부터 신부 들러리의 구두에 이르기까지 뭐든 보기만 하면 “샤르망(멋져요)!”을 외쳐 댔고, 델라쿠르 부인은 집안일 처리 주문에 아주 능숙해서 순식간에 오븐을 말끔히 청소해 놓았다.

한편 가브리엘은 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한 뭐든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속사포 같은 프랑스어로 월 새 없이 나불거렸다.

나쁜 점이라면, 버로우 저택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즐리 부부가 이제는 거실에서 자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델라쿠르 부부의 거센 반대를 간신히 잠재우고 그들의 침실을 쓰도록 겨우 설득한 이후의 일이었다. 가브리엘은 예전에 퍼시가 썼던 방에서 플뢰르와 함께 잠을 잤고, 빌은 신랑 들러리 찰리가 루마니아에서 돌아오면 함께 방을 쓰기로 했다. 따라서 함께 모여 계획을 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절박한 심정으로 닭 모이 주는 일을 자원하고 나섰다. 그래서 겨우 사람들이 봄비는 집을 빠져 나올수 있었다.

“엄마는 아직도 우리끼리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군!”  
론이 버럭 신경질을 부렸다. 위즐리 부인이 커다란 세탁 바구니를 안고 등장함으로써, 마당에서 은밀히 모임을 가지려던 두 번째 시도가 또다시 좌절되었던 것이다.

“오, 그래 닭들에게 먹이를 주었구나.”

위즐리 부인이 그들 옆으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내일 결혼식에 사용할 천막을 설치하려 사람들이 올거야. 그 전에 닭들을 다시 닭장 안에 가두어 놓는 게 좋겠다.”

위즐리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닭장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며 설명했다. 아닌 게 아니라 부인은 봄시 피곤해 보였다.

“밀라만트의 마법 천막 회사..... 그 사람들은 아주 솜씨가 좋단다. 빌이 그들을 안내할 거야.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동안 너는 집안에만 있는 게 좋겠다. 해리. 정말이지 사방에 수많은 보호마법이 걸려 있는 와중에 결혼식 준비를 하려니 일이 꽤 복잡하구나.”

“죄송합니다.”

해리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오, 그런 소리 마라, 얘야!”

위즐리 부인이 즉시 소리쳤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단다. 당연히 너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사실은 네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고 싶은지 너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해리.  
열일곱 살 생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잖니.....”

“요란한 건 싫어요.”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생일 파티가 그들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정말이에요, 아줌마. 그냥 보통 때와 같은 저녁식사면 충분 할 것 같아요..... 게다가 바로 결혼식 전날이잖아요.”

“오, 네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알았다. 리무스와 통스를 초대 할 생각인데, 괜찮겠지? 해그리드는 어떠니?”

“그럼 정말 좋겠네요. 하지만 제발 수고스러운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럴리가 있니, 절대 아니야..... 전혀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란다.”

부인은 뭔가 탐색하는 눈길로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약간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쭉 펴고 걸어가 버렸다. 해리는 빨랫줄을 향해 지팡이를 흔드는 부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젖은 빨래들이 봉 떠올라 저절로 빨랫줄에 걸렸다. 갑자기 해리는 지금 자신이 부인에게 안겨주고 있는 고통과 부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 제 7 장 알버스 덤블도어의 유언

그는 새벽의 시원한 푸른빛 속의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저 아래로 안개에 둘러싸운 작은 마을이 뿌옇게 흐려 보였다. 그가 찾던 그 사람이 저 아래에 있는 걸까? 그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로 한 나머지, 다른 것은 거의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든 그 남자, 바로 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자가?

“어이, 일어나”  
해리는 눈을 떴다. 그는 다시 론의 우중충한 다락방의 간이침대에 누워있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방은 여전히 어둑어둑했다. 피그위존은 자그만 날개 밑에 머리를 묻은 채 잠들어 있었다. 해리의 이마에 난 흉터가 육신거렸다.

“너 잠꼬대하고 있었어.”  
“내가?”  
“그래, ‘그레고로비치’라고 너 계속 ‘그레고로비치’라는 말을 했어.”  
해리는 안경을 끼고 있지 않아서 론의 얼굴이 살짝 흐릿하게 보였다.  
“그레고로비치가 누구니?”  
“나야 모르지, 안 그래? 그 이름을 말한 건 너잖아.”

해리는 이마를 문지르면서 생각했다. 그 이름을 전에 들은 것 같다는 막연한 기분이 들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를 떠올릴 수가 없었다.

“볼드모트가 그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불쌍한 녀석.”

론이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해리는 계속 흉터를 문지르며 일어나 않았다. 이젠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꿈에서 보았던 장면을 분명하게 기억해 내려고 애썼지만, 떠오르는 것이라곤 첨첩이 늘어선 산들의 능선과 깊은 골짜기에 있는 자그만 마을의 윤곽뿐이었다.

“그가 다른 나리에 있는 것 같아.”

“누구? 그레고로비치?”

“볼드모트, 그가 그레고로비치를 찾으려고 외국 어딘가에 가있는 것 같아.  
거긴 전혀 영국같아 보이지 않았어.”

“너 또다시 그자의 머릿속을 들여다 본 거니?”

론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부탁이야 헤르미온느 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해리가 말했다.

“하긴 아무리 헤르미온느라도 나더러 꿈속에서 월 보는 것 까지 막으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그는 생각에 잠겨 잠시 피그위존의 새장을 올려다보았다. 왜

‘그레고로비치’라는 이름이 익숙한 걸까?

“내 생각엔.....”

해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뭔가 퀴디치와 관계가 있어. 분명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도저히  
그게 뭔지 생각나지 않아.”

“퀴디치?”

론이 물었다.

“설마 고르고비치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누구?”

“드래고미르 고르고비치. 2년 전에 기록적인 이적료를 받고 처들리 캐논  
팀으로 이적한 추격꾼 말이야. 그 사람은 한 시즌 최다 케이플 득점 기록  
보유자야.”

“아니야”

“분명 고르고비치는 아니야.”

“에이, 나도 모르겠다.”

론이 말했다.

“그나저나 생일 축하해.”

“와! 맞다! 깜빡했네. 난 이제 열입곱 살이야.”

해리는 간이침대 옆에 놓여있던 지팡이를 쥐고는 안경을 벗어 놓은 어질러진 책상을 가리키며. “아씨오 안경!”이라고 외쳤다. 안경까지 거리는 고작  
한걸음 정도였지만, 어쨌든 안경이 자신을 향해 곧장 날아오는 걸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흐뭇한 광경이었다. 적어도 안경이 눈을 지르기 전까진 말이다.

“솜씨 한번 좋네.”

론이 콧방귀를 뀌었다.

드디어 추적 마법으로부터 벗어났단 사실에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해리는 론의 물건들을 온 방 안으로 날려 보냈는데,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피그위존이 새장 안에서 미친듯이 날뛰었다. 해리는 또한 마법으로 운동화 끈 묶기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마법으로 묶인 매듭을 다시 손으로 푸는게 몇분이 걸렸다.),  
순전히 재미로 론의 처들리 캐논 팀 포스터의 오렌지색 망토를 파란색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했다.

“그래도 나라면 바지 지퍼는 손으로 옮리겠다.”

론이 해리에게 총고 했다. 그리고 허둥지둥 지퍼를 확인하는 해리를 보고 깔깔 웃었다.

“자, 여기 선물 잊어. 여기서 풀어 봐. 엄마 눈에 띄면 곤란하니까.”

“책이야?”

직사각형의 꾸러미를 집으며 해리가 물었다.

“이건 관례에서 약간 벗어난 일인데, 안 그래?”

“하지만 이건 보통 책이 아니야.”

론이 말했다.

“아주 귀한 거라고 <마녀를 유혹하는 열두 가지 확실한 방법>. 이 책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작년에 나에게 이 책만 있었어도, 라벤더를 어떻게 떨쳐 버릴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 테고.....또..... 누구누구랑 사귀는 방법도 알 수 있었을 텐데..... 프레드와 조지가 한권 주었는데, 덕분에 많은 걸 배웠지. 너도 아마 깜짝 놀랄 거야. 그건 지팡이 놀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부엌에 들어간 해리와 론은 식탁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무더기의 선물 꾸러미들을 발견했다. 빌과 델라쿠르 씨는 막 아침 식사를 끝마치려는 참이었고, 위즐리 부인은 프라이팬 너머로 그들에게 수다를 떨면서 서 있었다.

“아서가 너의 열일곱 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단다.”

위즐리 부인은 확짝 웃는 얼굴로 해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이는 직장에 일찍 나가봐야 했지만, 저녁 식사때까지는 돌아오실 거야. 맨 위에 있는 게 우리 선물이란다.”

해리는 자리에 앉아 위즐리 부인이 가리킨 네모난 꾸러미를 집어서 포장을 풀었다. 그 안에는 위즐리 부부가 론의 열일곱 번째 생일에 주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시계가 들어 있었다. 금으로 된 그 시계에는 시곗바늘 대신에 별들이 숫자판 위를 회전하고 있었다.

“성년이 되면 마법사에게 시계를 선물하는 것이 전통이란다.”

조리 기구옆에서 걱정스럽게 그를 지켜보던 위즐리 부인이 설명했다.

“미안하지만 그건 론의 것처럼 새것은 아니란다. 실은 나의 오빠 파비안의 것인데, 자기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뒷판에 약간 흠집이 있긴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뒷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해리가 벌떡 일어나서 그녀를 꽉 껴안았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미처 말하지 못한 많은 감정들을 그 포옹에 담고 싶었다. 어쩌면 부인도 그것을 이해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해리가 부인을 놓아주자, 부인이 해리의 볼을 어색하게 쓰다듬더니 지팡이를 허둥지둥 휘두르는 바람에, 베이컨이 절반쯤이나 프라이팬 밖으로 튀어나와 마룻바닥에 철퍼덕 떨어졌기 때문이다.

“생일 축하해, 해리!”

이때 허겁지겁 부엌으로 들어온 헤르미온느가 선물 더미 위에 자신의 선물을 올려 놓으며 말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넌 해리에게 뭘 줬니?”

헤르미온느가 물어보자, 론은 옷 들은 척했다. 그러고는 “자, 어서, 헤르미온느의 선물을 열어 봐!” 하고 딴청을 부렸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새 스니코스코프를 사 주었다. 다른 선물 꾸러미들 안에는 빌과 플뢰르가 주는 마법 면도기( “아 그래. 이거보당 더 부드럽게 깎이능 면도기능 없을 거당” 델라쿠르씨가 장담했다. “하지만 네가 원하능 바를 정확하게 말해야망해.....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아주 짧은 머리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와 델라쿠르 부부가 주는 초콜릿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프레드와 조지가 보낸 위즐리 형제의 신기한 장난감 가게의 최신 제품이 들어 있는 거대한 상자도 있었다.

마침내 델라쿠르 부인과 플뢰르, 가브리엘 까지 도착하여 부엌이 불편할 정도로 붐비게 되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더 이상 식탁 주위에서 서성대지 않았다.

“내가 이 선물들을 싸 줄게.”

셋이 위층으로 올라갈때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품에서 선물들을 받아 들면서 쾌활하게 말했다.

“난 거의 다 쌌어. 다만 너희 나머지 팬티만 세탁되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야 론....”

이 말에 론이 흥분해서 원가 말하려는 순간. 2층 총계참에 있는 문이 열리는 바람에 중단 되었다.

“해리 오빠. 잠깐만 이리 들어와 볼래?”

지니였다. 론이 덩달아 우뚝 걸음을 멈추자, 헤르미온느가 얼른 론의 팔을 잡아서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갔다. 해리는 바싹 긴장한 채 지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니의 방에 들어가 본적이 없었다. 방은 작지만 밝았다. 한쪽 벽에는 운명의 세 여신 밴드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다른 한쪽 벽면에는 오직 마녀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퀴디치 팀인 훌리헤드 하피스의 주장, 그웨녹 존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책상은 활짝 열린 창문을 마주 보고 놓여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는 전에 해리와 지니가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2인 1조 퀴디치 경기를 했던 과수원이 바라다보였다.

그곳에 지금은 진주 빛이 나는 하얗고 커다란 천막 한채가 세워져 있었다. 천막 꼭대기에 꽂혀있는 금색 깃발이 지니의 창문과 똑같은 높이에 있었다.

지니는 해리의 얼굴을 옮겨다보고 한 번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열일곱번째 생일 축하해.”

“그래.....고마워”

지니는 해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는 지니를 똑바로 바라보기 어려웠다. 그것은 마치 눈부신 빛을 응시하는 것과도 같았다.

“전망이 참 좋구나.”

창문을 가리키며 해리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니는 그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해리는 그녀를 나무랄 수 없었다.

“오빠한테 월 쥐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안났어.”

지니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쥐도 돼.”

지니는 이 말 역시 무시했다.

“무엇이 쓸모있을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큰 건 안돼고, 오빠가 가지고 갈 수 없을테니까.”

해리는 지니를 흘끔 쳐다보았다. 지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지니의 많은 놀라운 점들 중 하나였는데, 그녀는 징징거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여섯명이나 되는 오빠들 틈에서 자나다 보니 강해진 것이 틀림없다고 해리는 이따금 생각하곤 했다.

지니는 해리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래서 생각했어. 나를 기억하게 해 줄 무언가를 오빠에게 주고 싶다고, 이를테면 오빠가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을때 설사 벨라를 만난다고 해도 말이야.”

“솔직히 말해, 그 일을 하다가 누구랑 데이트할 가능성의 거의 없을거야.”

“그거야말로 내가 줄곧 찾고 있던 한 가닥 희망인걸.”

지니는 이렇게 속삭이더니, 마치 처음 하는 키스인 듯 해리에게 입을 맞추었다. 해리도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파이어위스키보다도 훨씬 더 황홀한 무아지경이었다. 그녀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단 한 가지 것이었다. 지니, 그녀의 감촉. 한손은 그녀의 등 위에 옮겨놓고, 또 다른 한 손은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문이 활짝 열렸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져 섰다.

“오, 미안.”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론!”

헤르미온느가 숨을 약간 헐떡이며 바로 론의 뒤에 나타났다.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고, 곧 지니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생일 축하해, 해리 오빠.”

론은 귀까지 새빨개져 있었고, 헤르미온느는 안절부절못했다. 해리는 그들의 면전에다 대고 문을 쾅 닫아 버리고 싶었지만,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방 아으로 찬바람이 훑 불어 들어와, 그의 찬란한 순간이 비누 거품처럼 터져 버린 것 같았다. 지니와의 관계를 끝내고, 지니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온갖 이유들이 론과 함께 방안으로 살그머니 기어들어왔고, 그 모든 행복한 망각은 사라져버렸다.

해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뭔가 말하고 싶은 마음에 지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니는 해리에게서 등을 돌렸다. 해리는 지니가 어쩌면 이번만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론이 보는 앞에서는 지니를 위로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럼 나중에 봐.”

해리는 인사를 한 뒤에 다른 두 사람을 따라 방에서 나왔다. 론은 말 한마디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는 부엌을 지나 마당으로 나갔다. 해리는 계속 그와 나란히 걸었다. 헤르미온느는 걱정스런 얼굴로 그들 뒤를 총총히 따라왔다.

새로 깍아 놓은 잔디밭의 외진 구석에 이르자, 론은 해리를 향해 훑 돌아섰다.

“넌 지니를 버렸어,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니한테 집적대는 거야?”

“집적대는 거 아니야.”

해리가 대답했다. 그때 헤르미온느가 두 사람을 따라잡았다.

“론!”

하지만 론은 한 손을 들어 헤르미온느의 말을 막았다.

“네가 지니랑 끝내 버렸을 때 개는 정말로 마음 아파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내가 왜 지니와 끝낼 수 밖에 없었는지 잘 알잖아.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었어.”

“그래, 하지만 네가 이제와서 지니한테 키스를 하고 그러면, 그 애는 또다시 희망을 갖게 된단 말이야.”

“지니는 바보가 아니야. 지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걸 알아.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결국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해리의 머릿속에 지니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키 크고 정체불명의 불쾌한 느낌을 주는 낯선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잠깐 동안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내려쳤다. 지니의 미래는 자유롭고 아무런 구속도 없지만, 반면 자신의 미래는..... 그의 앞에는 볼드모트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만일 네가 계속해서 걸핏하면 지니를 더듬는다면.....”

“다신 그런 일 없을거야.”

해리가 거칠게 말했다. 날씨는 구름 한점 없이 맑았지만, 해리는 마치 태양이 숨이 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된 거지?”

론은 여전히 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선 채로 잠깐 몸을 흔들더니 말했다.

“좋아, 그럼..... 알았어.”

그날 내내 지니는 해리와 또다시 단둘이 만나는 기회를 노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태도나 표정으로도 자신의 방에서 두 사람이 정중한 대화 이상의 것을 나누었다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가 도착하자, 해리는 마음이 놀였다. 위즐리 부인이 찰리를 억지로 의자에 앉힌 다음, 지팡이를 위협적으로 치켜들고 이제 곧 제대로 된 머리 모양을 하게 될 거라고 찰리에게 통고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한결 기분 전환이 되었던 것이다. 찰리와 루핀, 통스와 해그리드가 도착하기 전에도 버로우의 부엌은 해리의 생일 만찬으로 이미 미어터질 지경이었기 때문에, 결국 대여섯 개의 식탁이 정원 끝에서 끝까지 놓였다. 프레드와 조지가 수많은 보랄빛 등잔에 마법을 걸자, 그것들은 모두 커다랗게 17 이란 숫자 문양으로 장식되어, 손님들 머리 위를 둥둥 떠다녔다. 위즐리 부인의 보살핌 덕분에 조지의 상처는 덧난데 없이

깨끗하게 나았지만, 해리는 그들 쌍둥이가 늘어놓는 술한 농담에도 불구하고, 조지의 한쪽에 생긴 뻥 뚫린 구멍에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는 지팡이 끝에서 보라색과 황금색 장식 리본들을 불러내어 나무와 관목들 위에 예술적으로 걸쳐지도록 만들었다.

헤르미온느가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휘둘러 야생 능금나무의 잎사귀들을 금색으로 바꾸어 놓자, 론이 탄성을 질렀다.

“멋진데! 넌 이런 종류의 일에 정말 안목이 있다니까.”

“고마워, 론!”

헤르미온느가 기쁘기도 하고 약간 당혹스럽기도 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해리는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 혼자서 씩 웃었다. <마녀를 유혹하는 열두가지 확실한 방법>이라는 책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칭찬에 대해 써 놓은장을 발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왔던 것이다. 그 순간 지니와 눈이 마주치자,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씽긋 미소를 던졌다. 하지만 론과 한 약속이 떠올라서 허둥지둥 델라쿠르 씨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둘러서요, 둘러서!”

위즐리 부인이 커다란 비치볼 크기의 스니치처럼 생긴 것을 앞에 둉둥 띄운채, 문을 지나 다가오며 노래하듯이 소리쳤다.

해리는 곧 그것이 자신의 생일 케이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즐리 부인은 울퉁불퉁한 땅 위로 케이크를 들고 오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차라리 지팡이로 공중에 띄워서 나르기로 한 것이다. 케이크가 드디어 식탁 한복판에 내려앉자, 해리가 감탄했다.

“정말 근사한데요, 아줌마.”

“오, 아무것도 아니야, 얘야.”

위즐리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자 론이 부인의 어깨 너머로 양쪽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소리 없이 입을 벙긋 거렸다. 말 잘했어. 일곱시가 되자, 마침내 손님들이 모두 도착했다. 골목길 끝에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던 프레드와 조지가 그들을 집 안으로 인도했다. 해그리드는 자신의 옷 중 가장 좋고 또 가장 흉측한 털복숭이 갈색 외투를 입음으로서 축하의 뜻을 표했다. 루핀은 해리와 악수를 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해리는 웬지 그가 불행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루핀 곁에 있는 통스는 정말이지 눈부셨다.

“생일 축하한다, 해리.”

그녀는 해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열일곱이라!”

프레드로 부터 양동이만 한 와인 잔을 들고는 해그리드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지 꼭 6년이 되었구나. 해리, 요 녀석아, 기억나니?”

“대충요.”

해리가 해그리드를 향해 함빡 웃으며 대답했다.

“현관문을 때려 부수고 두들리의 엉덩이에 돼지 꼬리를 달아 놓고는 저에게 재가 마법사라는 얘기를 해 주지 않았나요?”

“시시콜콜한 일들은 다 잊었단다.”

해그리드는 깔깔거렸다.

“헤르미온느, 론, 너희는 잘지내고?”

“예, 잘지내요.”

헤르미온느가 답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에, 뭔 괜찮아. 좀 바쁘지. 갓 태어난 유니콘 새끼들을 얻었거든. 너희가 학교에 돌아오면 보여주마.”

해그리드가 주머니 속을 뒤적거리는 동안,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의 눈길을 슬쩍 피했다.

“받아라, 해리야 너한테 뭘 선물할지 모르겠더구나. 하지만 곧 이걸 생각해 냈지.”

그는 크기가 작고 털이 약간 붉은, 졸라매는 끈이 달린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기다란 끈이 달려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목에 거는 것 같았다.

“모크가죽(모크는 길이가 30 센티 정도 되고 은빛이 감도는 초독색 도마뱀,  
모크 가죽은 돈지갑이나 가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법사들 사이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 : 역주)이지, 이 속에다 뭐든 숨기면 주인 말고는 아무도 그  
속에 든 걸 깨낼 수 있단다. 무진장 구하기 힘든거야!”

“고마워요 해그리드!”

“천만에.”

해그리드는 양철 쓰레기통 뚜껑만 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기 찰리로구나. 난 언제나 저 녀석을 좋아했지. 이봐 찰리!”

찰리는 조금 애처처럼 새운 스타일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가왔다. 그의  
머리는 잔인할 정도로 짧았다. 그는 론보다 땅딸막했는데, 근육이 잘 발달된  
팔뚝에는 여기저기에 굵힌 자국과 화상이 남아있었다.

“해그리드, 잘 지냈어요?”

“줄곧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노버트는 잘 지내?”

“노버트요?”

찰리가 웃음을 터트렸다.

“노르웨이 리지백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녀석을 노버타라고 불러요.”

“뭐? 노버트가 암놈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찰리가 대답했다.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헤르미온느가 궁금해했다.

“암놈들이 훨씬 더 사납지.”

찰리가 말했다. 그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더니 소곤거렸다.

“아빠가 빨리 도착해야 할 텐데, 엄마가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어.”

그들은 일제히 위즐리 부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부인은 자꾸만 대문 쪽을  
곁눈질하면서, 한편으로는 델라쿠르 부인과 대화를 나눠 보려고 노력 중이었다.

“아서 없이 그냥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잠시 후 부인은 정원 쪽을 보고 외쳤다.

“아무래도 늦나 봐요. 오!”

그 순간 마당을 가로질러 식탁 위로 한 줄기 빛이 날아들어 오는 것을 모두  
보았다. 그것은 반짝이는 은빛 족제비로 변신하더니, 뒤다리로 일어서서 위즐리  
씨의 목소리로 말했다.

“마법부 장관님이 함께 오고 있소.”

패트로누스는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다. 플뢰르 가족은 그것이 사라진 자리를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우린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군. 해리, 미안하다.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마.  
루핀은 그렇게 말하더니 통스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끌어냈다. 두 사람은  
울타리 쪽으로 걸어가서 담을 넘었다. 그리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위즐리  
부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장관님이라니 대체 왜? 이해할 수가 없네.”

하지만 그런 문제를 따질 시간도 없었다. 잠시 후, 루퍼스 스크림저를 대동한  
위즐리 씨가 대문 앞에 훌연히 나타났다. 장관은 희끗희끗한 긴 머리털로 즉각  
알아볼 수 있었다.

새로 도착한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정원과 등잔이 밝혀진 식탁을 향해  
당당히 걸어왔다.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스크림저가 등잔 불빛 아래로 들어오자, 해리는  
그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늙고, 수척하고, 험상궂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보아하니 제가 파티에 불쑥 끼어들었군요.”

절뚝거리며 다가와 식탁 앞에 멍춰 선 스크림저가 말했다.

그의 두눈은 잠깐 동안 거대한 스니치 모양의 케이크 위에 머물렀다.

“생일 축하하네.”

“고맙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사실은 자네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스크림저가 말을 이었다.

“로날드 위즐리 군과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양도 함께.”

“저희랑요?”

깜짝 놀란듯이 론이 물었다.

“저희랑 왜요?”

“좀 더 은밀한 곳에서 자네들과 얘기하고 싶네.”

스크림저가 말했다.

“혹시 그럴 만한 장소가 있을까?”

그는 위즐리 씨에게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거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쓰시면 어떨까요?”

위즐리 씨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가 인도해 줄 수 있겠지?”

스크림저가 론에게 말했다.

“자네는 올 필요 없네, 아서.”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해리는 위즐리 씨가 위즐리 부인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묵묵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해리는 나머지 두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크림저는 어찌 된 영문인지 그들 세 사람이 호그와트를 중퇴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된 것이 틀림없었다.

스크림저는 어질러진 부엌을 지나서 바로우의 거실에 들어 갈 때까지 아무 말로 하지 않았다. 정원은 은은한 황금빛 석양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거실 안은 이미 어두웠다. 해리가 들어오며 기름 등잔들을 향해 지팡이를 가볍게 휘두르자, 초라하지만 안락한 거실이 금세 환해졌다. 스크림저는 평소에 위즐리 씨가 차지하는 푹 깨진 안락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소파에 나란히 끼어 앉도록 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스크림저는 설명을 시작했다.

“자네들 세 명에게 몇가지 질문할 게 있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네. 자네 두 사람은.....”

스크림저가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가리키며 말했다.

“위층으로 가서 기다리게나. 로날드 군과 먼저 이야기를 나눌테니.”

“저희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해리가 말하자, 헤르미온느도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저희 전부와 함께 이야기 하시든지, 아니면 아무와도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스크림저는 싸늘하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해리를 훑어보았다. 해리는 장관이 과연 이렇게나 일찍 적의를 드러낼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좋네, 그럼 다 같이 이야기하지.”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리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자네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믿네만, 나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유언 때문에 여기 온 것일세.”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마도 뜻밖의 소식인가 보군! 자네들은 덤블도어가 자네들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

“우리 모두에게요? 저와 헤르미온느 한테도요?”

론이 물었다.

“그래, 자네들 모두에게....”

해리가 끼어들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벌써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에게 남겨 주신 것을 왜 이렇게 뒤늦게야 전해 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않니?”

스크림저가 대답하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먼저 소리쳤다.

“그들은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걸 모조리 조사하려고 했던거야. 하지만 당신들은 그럴 권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나에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네.”

스크림저가 헤르미온느를 무시하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당한 압수를 위한 법령에 따르면, 마법부는 유언장의 내용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하지만 그 법은 마법사들이 어둠의 마법에 걸린 물건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따라서 마법부는 망자의 유물을 강탈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불법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요! 장관님은 지금 저희한테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저주 받은 원가를 물려주시려 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따졌다.

“마법 법조계에서 종사할 계획이라도 갖고 있나 보군, 그레인저 양?”  
스크림저가 물었다.

“아니에요.”

해리모온느가 받아쳤다.

“저는 다만 세상을 위해 원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론이 웃음을 터뜨렸다. 스크림저의 시선이 론을 향했다가 해리가 입을 열자 다시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면 왜 이제 저희에게 그 물건을 돌려주실 결정을 한거죠? 그것들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핑계는 생각해 내지 못하셨나 보죠?”

“천만에, 다만 이제 31일이 다 되었기 때문일 거야.”

헤르미온느가 냉큼 대답했다.

“그 유산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기간 이상은 그 물품들을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 그렇지요?”

“자네는 덤블도어와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할 수 있나, 로날드?”  
스크림저는 헤르미온느의 말을 무시하고 론에게 물었다. 론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저요? 전 그다지..... 언제나 해리가 더.....”

론이 해리와 헤르미온느 쪽을 돌아보았을 때, 헤르미온느는 그에게 ‘그만 말해!’ 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이미 치명적인 약점을 잡힐 다음이었다. 스크림저는 정확히 자신이 듣기를 기대하고 원했던 말을 들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론의 대답에, 먹이를 노리는 새처럼 달려들었다.

“자네가 덤블도어와 아주 가깝지 않았다면, 그가 자네에게 유산을 남긴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그는 예외적일 만큼 아주 소수에게만 개인적인 유산을 남겼다네, 개인 장서, 마법 두구들, 개인 소지품 등등, 대부분의 재산은 모두 호그와트에 기증했어. 그렇다면 자네가 특별히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야....모르죠. 제가 가깝지 않았다고 말한 건... 그러니까 제말은...  
그분이 저를 좋아하긴 하셨죠.....”

“그건 지나친 겸손이야 론. 덤블도어 교수님은 너를 무척이나 애지중지하셨어.”  
헤르미온느가 얼른 나섰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말이었다. 해리가 아는 한에서는 론과 덤블도어는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고, 그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대수롭지 않은 것들뿐이었다. 하지만 스크림저는 그녀의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한 손을 망토 속에 넣더니, 해그리드가 해리에게 준 것 보다 훨씬 더 커다란, 끈 달린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내더니 펼쳐서 소리내어 읽었다.

“‘알버스 퍼시발 울프릭 브라이언 덤블도어의 유언’..... 그래, 여기 있구나.  
‘로날드 빌리우스 위즐리에게. 이것을 사용하는 동안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나의 딜루미네이터를 남긴다.”

스크림저는 주머니에서 해리가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마치 은으로 된 라이터처럼 보였지만, 해리가 알기론, 찰칵 누르는 동작 한  
번으로 특정 공간의 모든 빛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스크림저가 허리를 숙이며 론에게 딜루미네이터를  
건네자, 론은 어안이벙벙한 표정을 지으며 그것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그것은 아주 값진 물건일세.”

론을 지켜보면서 스크림저가 말했다.

“심지어 독창적이기까지 하지, 분명 덤블도어 자신이 만들 물건일 거야.  
그런데 그처럼 진귀한 물건을 왜 자네에게 남기려 했을까?”

론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덤블도어는 분명 수 천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을 거야. 그런데 그가  
유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자네들 세 사람뿐일세, 왜 그렇지? 그는  
딜루미네이터를 자네가 무슨 용도로 쓸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위즐리 군”  
스크림저가 끈질기게 물었다.

“불을 끄라는 거겠죠, 아마.”

론이 웅얼거렸다.

“그걸로 달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스크림저는 아무 짐작도 하지 못하는게 분명했다. 그는 잠깐 동안 눈을 가늘게  
뜨고 론을 바라보더니, 다시 덤블도어의 유언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헤르미온느 진 그레인저 양에게, 이 책이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며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남긴다.’”

스크림저는 위층에 있는 <가장 사악한 어둠의 마법의 비밀>이라는 책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책자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표지는 더럽혀져 있었고,  
여기저기 낡아 벗겨진 책이었다. 헤르미온느는 스크림저로 부터 아무 말 없이  
책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무릎 위에 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해리는 책의  
제목이 룬 문자로 되어 있을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룬 문자를  
배운 적이 없었다. 그때 돌을새김을 한 글자들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덤블도어가 왜 자네에게 그 책을 남겼다고 생각하나, 그레인저 양?”

스크림저가 물었다.

“교수님께서는....교수님께서는 제가 책을 좋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헤르미온느는 소매로 두 눈을 훔치며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왜 특별히 그 책이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혹시 덤블도어와 암호라든가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따위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나?”

“아니요, 없어요.”

여전히 소매로 두 눈을 닦아 내며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마법부가 31일 동안에 이 책에서 숨겨진 암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면,  
과연 제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하지만 너무 꼭 불어 앓아  
있었기에, 론은 팔을 뻗어 헤르미온느의 어깨를 안아 줄 수가 없었다.

스크림저는 다시 유언장으로 돌아간다.

“‘해리 제임스 포터에게.’”

스크림저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자, 해리는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뱃속이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가 호그와트에서의 첫 번째 쿠디치 경기에서 불잡은 스니치를,  
인내와 기술에 대한 보상을 기리는 기념품으로서 그에게 남긴다.’”

스크림저는 작은 호두알만 한 금빛 공을 꺼냈다. 그러자 스니치의 은색 날개들이 아주 가늘게 퍼덕였다. 순간 해리는 크게 부풀었던 기대감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덤블도어가 자네에게 이 스니치를 남긴 거지?”

스크림저가 물었다.

“모르죠.”

해리가 대답했다.

“장관님이 방금 읽으신 이유대로라면, 아마도.... 인내한다면..... 원가를 얻게 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겠죠. 그게 뭐가 되었든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넨 이걸 단지 상징적인 유품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렇겠죠,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앉아 있던 의자를 소파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잡아끌며, 스크림저가 말했다. 이제 밖에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 울타리 저편에는 커다란 천막이 유령처럼 하얗게 솟아 있었다.

“아까 보니 자네의 생일 케이크가 스니치 모양이더군. 왜 그런 거지?”

스크림저가 해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헤르미온느가 비웃듯이 웃어댔다. “

“오, 해리가 훌륭한 수색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너무 지나치게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설탕 장식 속에 덤블도어 교수님의 비밀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는게 분명해요!”

헤르미온느가 빙정거렸다.

“설탕 장식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거 같진 않네. 하지만 스니치는 작은 물건을 숨기기에는 아주 훌륭한 장소겠지. 장담컨데, 그 이유를 자네는 알고 있지?”

해리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대신 헤르미온느가 끼어 들어 대답했다.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너무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라,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스니치는 피부 기억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해리와 론이 동시에 외쳤다. 두 사람은 헤르미온느가 퀴디치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맞았네.”

스크림저가 말했다.

“그래서 스니치는 출시될 때까지 맨살에 전혀 접촉되지 않는 다네, 심지어 제작자도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지지. 스니치에는 포획에 논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최초로 잡는 사람을 인식하는 마법이 걸려 있다네. 이 스니치는....”

스크림저는 조그만 금빛 공을 들어 올렸다.

“바로 자네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을 걸세, 포터.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다른 잘못들은 제쳐 두고라도 마법 능력만은 참으로 탁월했던 덤블도어가 오직 자네만이 이 스니치를 열 수 있도록 마법을 걸어 놓은 것 같네.”

해리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고동쳤다. 그는 스크림저의 말이 옳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장관 앞에서 맨손으로 스니치를 잡는 것을 모면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 말도 안 하는군.”

스크림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도 자네는 이미 스니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는가 보지?”

“아니요.”

해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스니치를 실제로 만지지 않으면서 만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대답했다. 만약 해리가 레질리먼시를 할 줄 안다면, 정말로 할 줄 안다면, 그래서 헤르미온느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좋았을 것을. 해리는 자기 옆에서 그녀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 했다.

“받게나.”

스크림저가 조용히 말했다.

해리는 장관의 노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리가 손을 내밀자, 스크림저는 다시 허리를 숙이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스니치를 해리의 손바닥 위에 놓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리의 손가락들이 스니치를 꽉쥐자, 지친 날개들은 파닥거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스크림저와 론,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스니치가 어떻게든 변신하기를 바라는 듯이, 이제 손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공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응시했다.

“이거 아주 극적이네요.”

해리가 침착하게 말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헤르미온느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아직 아닐세, 덤블도어는 자네에게 두 번째 유품을 남겼다네, 포터!”

스크림저는 기분이 상한 얼굴로 말했다.

“뭔데요?”

다시금 흥분으로 달아오르며, 해리가 물었다.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칼일 세.”

스크림저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헤르미온느와 론은 모두 굳어 버렸다.

해리는 루비가 박힌 칼자루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지만, 스크림저는 가죽 주머니로부터 칼을 꺼내지 않았다. 게다가 그 주머니는 칼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다.

“그렇다면 그건 어디 있죠?”

해리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칼은 덤블도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닐세,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칼은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지, 그러므로 그것은....”

“그건 해리 거예요!”

헤르미온느가 버럭 화를 냈다.

“그 칼이 그를 선택했다고요. 해리는 그 칼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마법의 모자가 그에게 주었다고요....”

“믿을 만한 역사적 자료들에 따르면, 그 칼은 누구든 자격이 있는 그리핀도르의 학생에게 스스로 나타난다고 하지. 덤블도어가 무슨 결정을 내렸든 간에, 그것은 포터군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될 수는 없어.”

스크림저는 엉망으로 면도된 뺨을 긁적거리며 해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자네 생각에는 왜....”

“.....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걸 저한테 주려고 하셨느냐고요?”

해리가 분을 참으려고 애쓰며 물었다.

“아마도 교수님은 그걸 제 방 벽에 걸면 근사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셨나보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닐세 포터군.”

스크림저가 으르렁거렸다.

“그건 바로 덤블도어가 오직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칼만이 슬리데린의 후계자를 무찌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자네에게 그 칼을 주려 한게 아닌가 말일세. 포터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덤블도어는 자네가 이름을 불러서는 알된 그 사람을 죽이도록 예정된 사람이라고 믿었던거지?”

“흥미로운 가설이군요. 하지만 어느 누가 볼드모트에게 칼을 꽂으려고 시도나 해 봤나요?”

해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마도 마법부는 그런 일에 인력들을 투입해야만 할 겁니다. 딜루미네이터를 분석하거나 아즈카반 탈옥사건을 감추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요. 당신이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해오던 일이 고작 이런 건가요, 장관님? 스니치를 얹지로

열어 보려고 용쓰는 거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역시 그 중의 한사람이 될 뻔했죠. 볼드모트는 세 개의 주를 가로질러 저를 추격해 왔고, 결국 매드아이를 죽였어요. 하지만 마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어요, 아닌가요? 그래 놓고도 저희가 당신에게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군요!”

“자네, 말이 너무 심하군!”

스크림저가 버럭 호통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리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스크림저는 해리 쪽으로 절뚝이며 다가가더니, 지팡의 뾰족한 끝으로 해리의 가슴팍을 힘껏 쿡 찔렀다. 그러자 해리의 티셔츠에 담뱃불로 지진 것 같은 구멍이 뚫렸다.

“이런!”

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치켜들고 벌떡 일어섰지만, 해리가 말렸다.

“안돼! 이 사람에게 우리를 체포할 구실을 만들어 주고 싶니?”

“잘 기억하게. 자네들은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알겠나?”

스크림저가 해리의 얼굴에 거친 숨결을 뿐어 대며 말했다.

“똑똑히 기억하라고. 나는 자네의 그 시건방지고 반항적인 행동을 용서해 주던 덤블도어가 아니란 말일세! 자네는 그 흉터를 마치 왕관처럼 달고 다닐 수도 있을 테지, 포터. 하지만 나에게 일 처리 하는 방법을 가르치려 드는 건 열일곱 살 꼬맹이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일세! 이젠 자네도 존경이라는 걸 배울 때야!”

“당신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겠죠.”

해리가 지지 않고 맞섰다. 이때 바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당탕탕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거실 문이 쾅하고 열렸다. 위즐리 부부가 뛰어 들어왔다.

“우리는.....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는 것을.....”

해리와 장관이 얼굴을 맞대다시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위즐리 씨는 완전히 놀라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 들은 것 같아서요.”

위즐리 부인이 헐떡이면서 대신 말을 받았다.

스크림저는 자신이 해리의 티셔츠에 낸 구멍을 힐끗 보고는, 해리로부터 몇 발짝 물러섰다. 분을 침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스크림저가 침통하게 말했다.

“나는.... 자네 행동이 무척 유감스럽네.”

스크림저는 다시 한 번 해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자네가, 그리고 덤블도어가 바랐던 것을 마법부가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하지만 우리는 다 함께 협력해야만 하네.”

“저는 장관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해리가 말했다.

해리는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리더니, 여전히 손등위에 하얗게 드러나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새겨진 흉터를 스크림저에게 보여 주었다. 스크림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더니 절뚝거리며 방에서 걸어 나갔다. 위즐리 부인이 허겁지겁 그를 쫓아갔다.

해리는 그녀가 뒷문에서 멍춰 서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외쳤다.

“그가 갔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온거지?”

위즐리 부인이 서둘러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위즐리씨가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남겨 준 것을 주려고요.”

해리가 말했다.

“그들이 이제 와서야 그분의 유품을 내주었어요.”

이윽고 바깥 정원에서는, 스크림저가 그들에게 준 세가지 물건이 저녁 식탁위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건네졌다. 모두가 딜루미네이터와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보며 감탄했고, 스크림저가 칼을 넘겨주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옛날 스니치를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위즐리 씨가 딜루미네이터를 세 번, 네 번씩 면밀히 조사하는 동안, 위즐리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해라, 모두 끔찍이 배가 고프단다. 너 없이 저녁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지금 식사를 내와도 되겠니?”

모두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황급히 <해피 버스데이>를 합창 한 다음, 케이크를 와구와구 집어삼켰다. 마침내 파티는 끝났다. 해그리드는 다음 날에 있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지만, 안그래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버우루에 목기에는 너무 덩치가 컸다. 그래서 결국 인근 들판에 직접 텐트를 세우기 위해 떠났다.

“위층에서 보자.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난 뒤에.”

위즐리 부인을 도와 정원을 평소의 상태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동안,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속삭였다.

다락방에 올라가자, 론은 딜루미네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리는 해그리드가 선물한 모크 가죽 주머니에 황금이 아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채워 넣었다. 곁으로 보기에 그 물건들은 전혀 무가치해 보였고, 개중 몇몇은 실제로 그랬지만 말이다.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 시리우스의 마법거울 조각, R.A.B 의 로켓등을 넣고, 해리는 줄을 바짝 잡아당긴 다음 주머니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옛날 스니치를 손에 쥐고 앉아서 날개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문을 톡톡 두드리더니 까지발을 하고 살금살금 걸어 들어왔다.

“머플리아토.”

헤르미온느가 지팡이를 계단이 있는 방향으로 휘저으며 속삭였다.

“난 네가 그 주문을 인정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론이 말했다.

“시대는 변하는 법이야. 자 이제 딜루미네이터를 보여 줘”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론은 즉시 요청에 따랐다. 그가 딜루미네이터를 높이 쥐고 찰칵 누르자, 방 안에 켜 둔 유일한 조명인 등잔이 즉각 꺼졌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은 페루산 즉석 암흑 가루로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어둠 속에서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다시 한 번 찰칵 소리가 나자, 램프에서 나온 공 모양의 빛이 천장으로 날아올라 다시 한 번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래도 멋진걸.”

론이 다소 변명하듯이 말했다.

‘게다가 사람들 말에 따르면, 덤블도어 교수님이 손수 이걸 발명하셨다잖아. “

“나도 알아,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이 단지 빛을 없애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유언장에 너를 골라 넣었을 리는 없어.”

“너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마법부가 자신의 유언장을 압수하고 우리에게 남긴 모든 물건들을 조사할 거란 걸 미리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해리가 물었다.

“당연하지, 교수님은 이 유품들을 우리에게 남기는 이유를 유언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헤르미온느가 중얼거렸다.

“.....왜 교수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없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

론이 얼른 그녀의 말을 이어서 물었다.

“바로 그거야.”

헤르미온느가 이제는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뒤적거리며 말했다.

“이 물건들이 바로 마법부의 코앞에서 전달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면, 교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 주시지 않았겠니? 그 이유가 아주 명백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상은 말이야.”

“그렇다면 교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지 뭐, 안 그래? 덤블도어 교수님이 약간 돈 것 같다고 내가 늘 말했잖아. 머리도 뛰나시고 모두 다 좋은데. 약간 맛이 갔다니까. 해리에게 옛날 스니치를 남기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도 몰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 스크림저 때문에 네가 그걸 어쩔 수 없이 잡았을때, 난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래.”

손으로 스니치를 집어 들자 맥박이 마구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스크림저 앞에서는 내가 그다지 노력했다곤 할 수 없겠지, 안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내가 생애 첫 퀸디치 경기에서 잡았던 스니치 말이야. 혹시 기억 안나?”

해리가 되물었다. 헤르미온느는 그저 어리벙벙한 표정이다. 하지만 론은 입을 딱 벌린채, 해리와 스니치를 번갈아 가면서 미친 듯이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간신히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건 네가 거의 삼킬 뻔 했던 거야!”

“맞아!”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입을 스니치에 갖다 댔다.

하지만 그것은 열리지 않았다. 좌절감과 쓰디쓴 실망감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해리를 금빛 공을 내려놓았다. 그때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글자야! 거기에 글자가 있어, 어서 봐!”

그는 경악과 흥분으로 스니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과연 헤르미온느 말이 맞았다. 몇 초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매끈한 금빛 표면위에 가늘고 비스듬한 글씨체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그것이 덤블도어의 글씨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나는 끝에서 열린다.

그가 읽자마자 글자들은 다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끝에서 열린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끝에서 열린다..... 끝에서.... 나는 끝에서 열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억양으로 아무리 여러번 그 단어들을 반복해 봐도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칼 말이야, 덤블도어교수님은 왜 해리가 그 칼을 갖길 바라신 걸까?”  
마침내 그들이 스니치에 새겨진 글귀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단념했을때 론이 말을 꺼냈다.

“그리고 왜 교수님께서는 그냥 나에게 말해 주실 수 없었던 걸까?”

해리가 조용히 물었다.

“그건 거기에 있었어. 그 칼은 작년에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내내 바로 거기, 그분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다고! 만약 교수님께서 내가 그 칼을 가지길 바라셨다면, 왜 그때 나에게 그것을 직접 주시지 않았을까?”

해리는 머리가 꽉 막히고 궁금하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마치 덤블도어 앞이라면 분명 대답할 수 있었을 문제를 놓고, 이제와서 시험치고 앓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혹시 작년에 덤블도어와 나눴던 긴 대화들에서 그가 놓친 것이라도 있었던걸까?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덤블도어는 그가 이해할 거라 기대한 걸까?

“게다가 이 책으로 말하자면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라니..... 난 그런건 들어 본 적조차 없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네가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농담하는 거지, 그렇지?”

론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아니, 농담 아냐, 넌 그러면 알고 있었니?”

헤르미온느가 놀라서 물었다.

“물론, 당연히 알지.”

해리는 바싹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헤르미온느가 읽지 않은 책을 론이 읽은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론은 놀라워하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어안이 벙벙해진 것 같았다.

“아, 왜 이래! 옛날 동화들은 전부 비들의 이야기잖아. 안그래? ‘황금의 샘’, ‘마법사와 깡총깡총 냄비’, ‘배비티 래비티와 꼬꼬 웃는 그루터기’ ……”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헤르미온느가 키득키득 웃으며 물었다.

“장난 집어치워!”

론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너희도 분명 들어 봤을 거야. ‘배비티 래비티와……’”

“론, 넌 해리와 내가 머글들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잘 알잖아!”

헤르미온느라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다고. 우리는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나 ‘신데렐라’…….”

“그게 뭐야? 무슨 병명인가?”

론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게 동화란 말이지?”

론 문자를 위로 다시 고개를 숙이며,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래.”

론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방금 들은 그대로,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모두 비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들의 원본이 어떤지는 몰라.”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은 왜 내가 그 이야기들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걸까?”

이때 아래층에서 뭔가 빼거덕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찰리일 거야. 이제 엄마가 잠드셨으니 머리칼을 다시 자라게 하려고 몰래 빼져나가는 게지.”

론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러나저러나 우리도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해. 내일은 늦잠자면 안되잖아.” 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따.

“안 되고 말고.”

론이 맞장구를 쳤다.

“신랑 측 어머니가 세 사람을 무참하게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결혼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테니까. 불빛은 내가 처리하지.”

헤르미온느가 방에서 나가자, 룬은 딜루미네이터를 한 번 더 찰칵 눌렀다.

## 제 8 장 결혼식

다음 날 오후 세시에 해리와 룬, 프레드와 조지는 과수원의 거대한 흰색 천막 밖에 서서 결혼식 손님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는 폴리주스 마법약을 큰잔으로 한 잔 마시고, 지금은 그 지역 마을인 오터리 성 캐치풀에 사는 빨간 머리 머글 소년의 분신이 되었다. 프레드가 소환 마법을 사용하여 그 아이의 머리칼을 훔쳤던 것이다. 해리를 ‘사촌 바니’로 소개하고 수 많은 위즐리네 친척들에게 해리의 정체를 숨기려는 계획이었다.

네 사람 모두 사람들을 정해진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좌석 배치표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하얀색 망토를 입은 한 무리의 웨이터들이 금색 재킷을 입은 밴드와 함께 한 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고, 이들 마법사들은 지금 근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해리는 그곳에서 푸른 파이프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리 뒤에 있는 천막 입구를 통해서 부서지기 쉬운 금빛 의자들이 긴 보라색 카펫의 양쪽에 줄지어 놓인 것이 보였다. 하얀 꽃과 금색 꽃이 천막 지지대를 휘감고 있었다. 프레드와 조지는 빌과 플뢰르가 곧 남편과 아내가 될 자리 바로 위에 엄청난 수의 금색 풍선을 메달아 놓았다. 밖에서는 잔디와 산울타리 위로 나비와 벌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녔다. 해리는 아주 불편했다. 해리가 변신한 머글 소년이 해리보다 약간 뚱뚱한데다가, 입고 있는 정장 망토가 여름 낮은 땅볕 아래서 후덥지근하고 꽉 끼엇기 때문이었다.

“내가 결혼할 때는, 성가시게 이런 쓸데없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거야. 누구든 자기 좋을 대로 입을 수 있게 할 거고, 결혼식이 모두 끝날 때 까지 엄마에겐 전신 둑기 저주를 걸어 놀을거야.”

프레드가 정장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엄마는 그렇게 고약하지 않았다.”

조지가 말했다.

“퍼시가 오지 않아서 조금 울긴 했지. 하지만 퍼시가 오기를 누가 바라겠어? 아, 젠장. 정신 똑바로 차려. 저기 온다. 봐.”

저 멀리 마당 울타리 근처에서 갑자기 밝은 색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한명씩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더니 불과 몇 분 만에 하나의 행렬을 이루어, 정원을 지나 천막 쪽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왔다. 마녀들의 모자위에서는 이국적인 꽃송이와 마법에 걸린 새들이 팔락거렸고, 많은 마법사들의 넥타이에서는 값비싼 보석이 번쩍거렸다. 멀리서 들려오던 흥분에 들뜬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져서, 사람들 무리가 천막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는 별의 윙윙대는 소리를 집어삼켜 버렸다.

“와, 끝내준다. 벨라 사촌들이 몇명 보여, 그 애들은 우리 영국식 관습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거야. 내가 보살펴 줘야 겠다…….”

조지가 더 잘보기 위해서 목을 쑥 빼며 말했다.

그러자 프레드는 “그렇게 서둘거 없잖아. 구멍 난 성자님.”이라고 말하고는 쓴살같이 행렬을 이끄는 시끄러운 중년의 마녀들 곁을 지나치더니 한 쌍의 어여쁜 프랑스 소녀들에게 다가갔다.

“Here permettez-moi to assister vous.(제가 당신들을 자리로 인도해 드려도 될까요?)”

소녀들은 키득거리더니 프레드가 자신들을 안으로 인도하도록 허락했다. 결국 조지는 남아서 아줌마 마녀들을 상대해야 했고, 혼은 위즐리 씨의 오랜 마법부 동료인 퍼킨스 씨를 책임졌다. 한편 거의 귀머거리나 다름 없는 늙은 부부는 해리 차지가 되었다.

“안녕!”

해리가 다시 천막 밖으로 나왔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통스와 루핀이 행렬의 제일 앞에 서 있었다. 통스는 이번 행사를 위해 머리를 금발로 바꾸었다.

“아서가 우리에게 곱슬머리 아이가 바로 너라고 얘기해줬어. 어젯밤 일은 미안해.”

해리가 그들을 통로로 인도하는 동안 통스가 속삭였다.

“마법부는 현재 매우 반 늑대인간적인 입장이라,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네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거든.”

“괜찮아요. 이해해요.”

통스보다는 루핀을 향해서 해리가 말했다. 루핀은 그에게 재빨리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들이 돌아설때, 해리는 루핀의 얼굴에 다시 고뇌에 찬 주름이 패는 것을 보았다. 도무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씨름할 시간이 없었다. 해그리드가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그리드를 위해서는 마법으로 더욱 크고 더욱 튼튼하게 보강한 의자를 뒷줄에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 해그리드가 프레드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고서 보통 의자 다섯개에 텔썩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이제 그 의자들은 한낱 한 무더기의 금빛 성냥개비들처럼 보였다.

위즐리 씨가 망가진 의자들을 고치고, 해그리드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소리로 사과의 말을 늘어놓는 동안 해리는 다시 서둘러서 입구 쪽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우 기이한 모습의 마법사와 마주 서 있는 혼을 발견했다. 그 마법사는 약간 사팔뜨기애, 솜사탕 같은 백발을 어깨까지 기르고, 술이 코앞에서 달랑거리는 모자를 쓴 채, 계란 노른자 같이 샷노란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한편 그의 목에는 삼각형의 눈처럼 생긴 기묘한 상징이 매달린 금 목걸이가 번쩍거렸다.

“제노필리우스 러브굿이네.”

그가 해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딸과 바로 저 언덕 너머에 사는데,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다니, 위즐리 가족은 참으로 친절도 하시지. 자네는 내 딸 루나를 알고 있겠지?” 그가 론에게 물었다.

“네, 루나는 함께 안 왔나요?”  
론이 물었다.

“그 애는 그 작고 멋진 정원에서 땅신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네. 정말 굉장한 떼거리더군! 그런데 우리가 그 작고 영리한 땅신령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있는 마법사는 얼마나 드문지 모른다네. 그게 안 되면 그들에게 저널블리 가르덴시아라는 정확한 이름이라도 붙여 주든지 말이야.”

“우리 집 땅신령은 정말 근사한 욕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프레드와 조지가 그것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론이 말했다.

론이 마법사 일행을 천막 안으로 인도하고 들어갔을때, 마침 루나가 부리나케 달려왔다.

“안녕. 해리!”  
그녀가 인사를 했다.

“어..... 내 이름은 바니야.”  
해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 이름도 바꿔니?”  
루나가 명랑하게 물었다.

“너 어떻게 그걸....?”  
“오, 그냥 네 표정을 보고 알았지.”

그녀가 말했다.  
루나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쟁노란색의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에 커다란 해바라기 한 송이를 꽂아 포인트를 주고 있었다. 그 모든 현란함을 견뎌 낼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인상은 제법 유쾌했다. 이번엔 적어도 양쪽 귀에 순무가 달려있지는 않았다.

제노필리우스는 때마침 아는 사람과 대화에 몰두한 나머지 루나와 해리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가 다른 마법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딸을 돌아보았을때 루나는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아빠, 보세요. 땅신령 한놈이 정말로 저를 물었어요!”  
“멋지구나! 땅신령의 침이 얼마나 좋은 건데!”

러브굿 씨가 루나의 통통 부은 손가락을 쥐고 피가 흐르는 이빨 자국을 살피며 말했다.

“루나, 우리 강아지. 오늘부터 혹시 어떤 재능이 막 짹트는 느낌이 든다면, 이를테면 오페라를 부르고 싶다거나, 인어들의 말로 연설을 하고 싶다는 식의 예기치 못한 충동 말이다. 절대로 억누르지 말거라! 너는 저널블리에게 재능을 선물 받았을지도 모른다!”

론은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지나치면서 큰 소리로 콧방귀를 뀌었다.

“론이 웃을 만도 해.”

해리가 루나와 제노필리우스를 자리로 안내하는 동안 루나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도 아빠는 저널블리 마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  
“정말이니?”

이미 오래전부터 루나나 그녀의 아버지가 가진 독특한 견해에 도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해리가 말했다.

“그래도, 너 정말 물린 데에 뭘 좀 안 발라도 되겠어?”  
“오, 괜찮아.”

루나가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물린 손가락을 빨다가, 문득 해리를 위아래로 보며 말했다.

“너 멋져 보인다. 나는 아빠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장 망토를 입고 올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결혼식 날은 태양의 색깔로 입어야 한다고 하셨어. 알다시피, 행운을 위해서 말이야.”

루나가 아빠를 쫓아 사라지자, 론이 늙은 마녀와 팔짱을 끼고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매부리코와 불그죽죽한 눈가와 깃털 달린 핑크색 모자 때문에 성질이 못된 흥학같이 보였다.

“..... 그리고 네 머리가 너무 길구나. 로날드. 난 잠시 동안 너를 지네브라(지니를 말함:역주)로 착각했지 뭐냐. 아이고 맘소사. 저기 제노필리우스 러브굿이 입고 있는게 도대체 뭐냐? 꼭 오믈렛 같아 보이는 구나. 그런데 넌 또 누구냐?”

늙은 마녀가 해리를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아, 예. 뮤리엘 할머니. 이 애는 저희 사촌 바니예요.”

“역시나 위즐리 집안이라고? 너희 집안은 정말이지 땅신령 처럼 새끼를 낳아 대는구나. 해리 포터는 여기 안 왔니? 나는 그 아이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아이가 네 친구인 줄 알았다. 로날드. 아니면 지금껏 허풍을 치고 다녔던 거니?”

“그런게 아니고요. 해리는 올 수가 없었어요....”

“흠..... 뭔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신문에 난 사진에서 보이는 것 만큼 아둔하지는 않나 보구나. 난 방금 전 까지 신부에게 내 티아라(보석이 달린 머리장식 관:역주)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단다.”

뮤리엘은 해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건 도깨비가 만든거지. 우리 가문에서 수 세기동안 이어져 내려 온 거란다. 신부는 아주 예쁘게 생겼더구나. 그래도 역시 프랑스인은 어쩔 수 없지. 자.자. 이제 내게 좋은 자리를 잡아주렴, 로날드. 나는 백일곱 살이고,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론은 지나가면서 해리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내더니,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입구에서 다시 만났을 때. 해리는 이미 열두명 남짓한 사람들을 자리로 안내하고 난 다음이었다. 천막 안은 이제 거의 다 찼고, 처음으로 천막 밖에 늘어선 사람들의 줄이 사라졌다.

“뮤리엘 할머니는 악몽 같아.”

론이 소매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찾아오시곤 했는데, 고맙게도 프레드와 조지가 저녁 식사때 할머니의 의자아래에 똥 폭탄을 터뜨렸지. 그것 때문에 크게 노발대발 하셨어. 아빠는 항상 할머니가 유언장에서 두사람을 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지. 뭐, 형들이 그런 위협을 신경쓰기나 하는 것 처럼 말이야. 형들은 아마 우리 가문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가 될거야. 추정하기로는..... 와! 정말 멋진데!” 헤르미온느가 그들을 향해 황급히 다가오자. 론이 빠르게 눈을 깜빡거리며 덧붙였다.

“언제나 아주 놀란 듯한 말투로구나.”

헤르미온느가 핀잔을 주었다. 그래도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어렸다. 그녀는 나풀거리는 라일락 색깔의 드레스를 입고, 거기에 맞춰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헤르미온느의 머리칼은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다.

“하지만 너희 뮤리엘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던걸, 방금 전에 할머니께서 플로이드에게 왕관을 주실 때 위층에서 봤거든. 그분은 ”오, 애야, 이 아이는 머글 태생이냐? “ 하시더니 ‘자세도 영 안 좋고, 발목도 앙상하구나’ 하시던데.”

“기분 나빠하지마,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셔.”

론이 변명했다.

“뮤리엘 할머니 말이지?”

프레드와 함께 천막에서 나오던 조지가 물었다.

“정말이야.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날 보더니 내 귀가 짹짹이라고 하시더라. 늙은 박쥐 같은 할망구. 빌리우스 삼촌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삼촌은 결혼식 분위기를 제대로 띄워 주셨는데.”

“그분이 혹시 죽음의 개를 보고서 스물네시간 후에 돌아가신 그분이야?”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래 맞아. 말년이 되면서 좀 이상해지셨지.”

조지가 수긍했다.

“하지만 머리가 좀 이상해지시기 전에는 파티의 주인공이고 왕이셨어.”

프레드가 말했다.

“파이어위스키를 병째로 들이켜고 댄스 플로어로 뛰어올라서는, 망토를  
치켜들고 삼촌의 거기서 꽃다발을 꺼냈.....”

“그래, 아주 대단한 매력남이셨던 것 같네.”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프레드의 말을 끊었다. 한편 해리는 큰 소리로 웃어 댔다.

“무슨 까닭인지 결혼은 한번도 안 하셨지.”

론이 말했다.

“참 놀랍기도 하겠다.”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다들 하도 정신없이 웃어대느라, 뒤늦게 도착한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커다란 매부리코에 짙고 까만 눈썹을 지닌, 검은 머리의 젊은이가 론에게  
자신의 초대장을 내밀며 헤르미온느에게 눈길을 고정한 채 말했다.

“아주 근사해 보인다.”

“빅터!”

헤르미온느가 깎 소리를 지르면서 구슬장식이 달린 작은 핸드백을 떨어뜨렸다.  
그 핸드백은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킁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헤르미온느는 얼굴을 붉히며 핸드백을 주우려고 허둥댔다.

“세상에 네가 여기에 오다니.. 다시 만서 정말 반가워, 잘 지내니?”

론의 귀가 또 새빨게졌다. 론은 도저히 믿을수 없다는 듯이 크롬의 초대장을  
훑어보더니,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엔 어쩐 일로 온 거지?”

“플뢰르가 날 초대했다.”

크롬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대답했다.

해리는 크롬에게 아무 원한도 없었기에,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크롬을 론의 주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롬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겠다고 나섰다.

“네 친구는 나를 보는게 하나도 반갑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손님으로 빽빽이 들어찬 천막안으로 들어서며 크롬이 말했다.

“아니면 론과 친척인가?”

크롬은 해리의 빨간 곱슬머리를 힐끗 쳐다보며 덧붙였다.

“사촌이야.”

해리가 중얼거렸지만, 크롬은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등장은  
커다란 동요를 일으켰다. 특히 벨라 사촌들 사이에서 심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유명한 퀴디치 선수였다. 사람들이 그를 잘 보기 위해서 목을 길게 빼고 있을  
때, 론과 헤르미온느, 프레드와 조지가 서둘러서 통로를 따라 쫓아왔다.

“이제 자리에 앉아야 해.”

프레드가 해리에게 말했다.

“안 그러면 신부에게 밟힐지도 몰라.”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프레드와 조지의 뒤쪽인 둘째 줄에 자리를 잡았다.

헤르미온느의 얼굴은 핑크빛으로 상기돼 보였고, 론의 귀는 여전히

진홍색이었다. 잠시 뒤 론이 해리에게 중얼거렸다.

“그자식, 머저리같이 조그맣게 턱수염 기른거 봤니?”

해리는 이렇다 할 대답없이 끙 소리만 냈다.

팽팽한 기대감이 후덥지근한 천막 안을 가득 매웠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흥분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을 깨트리곤 했다. 위즐리 부부는 미소  
띤 얼굴로 친척들에게 손을 흔들며 통로를 따라 입장했다. 위즐리 부인은 새로  
장만한 자수정 빛의 정장을 입고 그에 어울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잠시 후에 빌과 찰리가 천막 앞쪽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사람 모두 정장을  
하고 있었고, 단춧구멍에 커다란 흰 장미를 달고 있었다. 프레드가 휘파람을  
불자, 벨라 사촌들 쪽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윽고 금색  
풍선처럼 보이는 것으로부터 음악이 울려 퍼지자 군중은 조용해졌다.

“우와!”

헤르미온느가 입구 쪽을 보기 위해서 자리에서 고개를 돌리며 환호했다. 델라쿠르 씨와 플뢰르가 통로를 따라 입장하자(플뢰르는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고, 델라쿠르 씨는 환하게 웃으며 통통 튀어 오는 듯했다.), 모여 앉은 마녀들과 마법사들로 부터 일제히 커다란 탄성이 흘러나왔다. 단순한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플뢰르는 눈부신 은빛 광채를 마구 뿜어대는 듯 했다. 평소에 그녀가 발하는 광채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흐릿하게 했다면, 오늘은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릴 지경이었다. 한편 지니와 가브리엘은 모두 황금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예뻐 보였다. 플뢰르가 빌이 서 있는 곳에 도착하자, 빌은 언제 펠리 그레이백을 만난 적이라도 있었느냐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마치 노래라도 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덤블도어의 장례식 날 사회를 보았던 왜소하고 머리숱 많은 마법사가 이제 빌과 플뢰르 앞에 서 있는 것을 약간 충격을 받은 채 바라보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진실한 두 영혼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서....”

“역시, 내 티아라가 모든 걸 한결 돋보이게 하는구나.”

뮤리엘은 남들 귀에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에 속삭였다.

“하지만 지네브라의 드레스는 너무 깊이 파였다고밖에....”

지니는 시선을 돌려서 방긋 웃으며 해리에게 윙크를 하더니 다시 앞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해리의 마음은 천막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학교 운동장의 후미진 곳에서 지니와 함께 보냈던 오후 시간으로 되돌아갔다. 그 오후 시간들이 아주 오래전 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마에 번개 모양의 흉터를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누군가의 삶으로부터 찬란한 몇 시간을 훔쳐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순간들은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었다.

“윌리엄 아서, 당신은 플뢰르 이자벨을....”

제일 앞줄에서 위즐리 부인과 델라쿠르 부인은 레이스 조각으로 입을 가린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천막 뒤편에서 팽하고 들려오는 트렁펫 비슷한 소리에, 모두 해그리드가 식탁보만 한 손수건을 꼬집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고개를 돌리고 해리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두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 이로써 두 사람이 평생토록 결합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머리숱 많은 마법사가 지팡이를 빌과 플뢰르의 머리 위로 높이 휘두르자 수많은 은별이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고, 이제 꼭 꺼않은 두 사람 주위를 소용돌이쳤다. 프레드와 조지가 박수갈채를 이끌자, 머리 위의 금빛 풍선들이 일제히 터졌다. 그리고 풍선에서 낙원의 새 떼와 황금 종들이 쏟아져 나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소란한 결혼식장에 노랫소리와 종소리를 더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마법사가 외쳤다.

“부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뮤리엘은 주위 다 들리도록 툴툴거렸다. 진행자가 지팡이를 다시 휘젓자 캔버스 천으로 된 천막의 벽이 사라지고, 하객들이 앉아 있던 의자들이 허공으로 우아하게 떠올랐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과수원과 주위를 둘러싼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 채, 금빛 기둥으로 받쳐진 차양 아래 서 있었다. 곧이어 천막의 중앙에서부터 황금 웅덩이가 넓게 퍼지더니 반짝거리는 댄스 플로어를 만들었다. 그러자 허공에 떠 있는 모든 테이블들이 그 주위로 우아하게 내려앉았고, 둥둥 떠다니던 의자들도 하얀 천을 씌운 작은 테이블 둘레로 모여들었다. 이윽고 황금색 재킷을 입은 밴드가 단상을 향해 무리지어 등장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군.”

론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사방에서 웨이터들이 뽕뽀 튀어나왔다. 어떤 이는 호박주스와 버터맥주, 파이어워스키가 담긴 은 쟁반을 나르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파이와 샌드위치 더미를 든 채, 기우뚱거리며 돌아다녔다.

“우리도 가서 축하해 줘야 하는데!”

헤르미온느가 까치발을 하고 선 채, 축복을 빌어주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빌과 플뢰르 쪽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거야.”

론이 지나가는 쟁반에서 버터 맥주 세잔을 낚아채더니, 한잔을 해리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헤르미온느, 자 받아. 테이블을 잡자..... 거긴 안돼! 뮤리엘 할머니 옆에는 절대로....”

론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텅 빈 댄스 플로어를 가로질러 앞장서 갔다. 해리는 론이 크룸을 경계하고 있는 거라고 확신했다. 결국 그들이 천막의 반대편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테이블이 대부분 꽉 차 있었다. 가장 한산한 테이블은 루나 혼자 앉아 있는 자리 뿐이었다.

“같이 앉아도 될까?”

론이 물었다.

“오, 그럼”

루나가 기쁘게 말했다.

“아빠는 방금 전에 빌과 플뢰르에게 우리가 가져온 선물을 주려 가셨어”

“선물이 원대? 거디루트(마법 약초의 일종. 루나의 주장에 따르면 플럼피를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역주) 평생 제공권?”

론이 물었다.

순간 헤르미온느가 테이블 아래로 론을 힘껏 걷어찼지만, 엉뚱하게 해리가 대신 맞았다. 해리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 한동안 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밴드가 연주를 시작했다. 빌과 플뢰르가 먼저 댄스 플로어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잠시 후 위즐리 씨가 델라쿠르 부인을 무대로 이끌었고, 위즐리 부인과 델라쿠르 씨가 뒤를 이었다.

“나, 이 노래 좋아해.”

루나가 월츠풍의 곡조에 박자를 맞춰 몸을 흔들흔들하며 말했다. 그러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댄스 플로어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루나는 혼자 구석에 떨어져서 눈을 꼭 감은 채, 팔을 휘두르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쟤 대단하다. 안 그래? 항상 저렇다니까.”

론이 존경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론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빅터 크룸이 루나가 앉았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것이다. 헤르미온느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칭찬해 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크룸이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던 것이다.

“저기 노란 옷 입은 남자는 누구지?”

“저분은 제노필리우스 러브굿이야. 우리 친구의 아버님이셔.”

론이 말했다. 그의 꼬집는 듯한 말투는 명백히 시비조이긴 했지만, 그들이 제노필리우스를 비웃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쳤다.

“자, 춤추러 가자.”

론은 불쑥 헤르미온느에게 청했다.

헤르미온느는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동시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댄스 플로어 위에 점점 늘어나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저 두사람 요즘 사귄니?”

크룸이 순간 혼란스러워 하며 물었다.

“어..... 말하자면.”

해리가 말했다.

“넌 누구냐?”

크룸이 물었다.

“바니 위즐리.”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바니.... 저 러브굿이란 사람 잘 아나?”

“아니, 오늘 처음 만났어, 왜?”

크룸은 댄스 플로어 반대편에서 몇몇 마법사와 수다를 떨고 있는 제노필리우스를 술잔 너머로 노려보았다.

“왜냐하면 플로르의 하객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저자와 결투를 할 테니까. 저런 더러운 상징을 가슴에 달고 있다니.”

“상징?”

해리 역시 제노필리우스를 건너다보며 말했다. 기이한 삼각형의 눈이 그의 가슴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왜? 저게 어때서?”

“그린델왈드, 저건 그린델왈드의 상징이다.”

“그린델왈드.... 덤블도어가 무찌른 어둠의 마법사 말이야?”

“그렇다.”

크룸의 턱이 마치 무언가를 씹기라도 하는 듯이 썰룩거리더니, 크룸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린델왈드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내 할아버지도, 물론 그는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강력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덤블도어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덤블도어가 그자를 끝장 낸 걸 보면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저건.....”

크룸이 제노필리우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그의 상징이다. 난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린델왈드가 학생일 때, 저 상징을 덤스트랭의 벽에 새겨놓았다. 몇몇 얼간이들이 책이며 옷에 그 상징을 베껴 넣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멋지게 보이려고 그린델왈드에게 가족을 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손을 봐 주기 전까지는.”

크룸은 위협을 하듯이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 깍으며 제노필리우스를 노려보았다. 해리는 혼란스러웠다. 루나의 아버지가 어둠의 지지자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 천막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삼각형 모양의 룬 문자 같은 상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 그런데 확실하니? 그게 그린델왈드의....”

“잘못 본게 아니다.”

크룸이 싸늘하게 말했다.

“나는 몇년 동안이나 그 상징 앞을 지나다녔다. 그래서 잘 안다.”

“하지만 정작 제노필리우스 씨는 실제로 저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 러브굿 집안 사람들은.... 좀 특이하거든. 어디선가 아무 생각없이 저 상징을 골랐을 수도 있어.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의 머리 단면도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뭐의 단면도라고?”

“실은, 나도 그게 뭔지 몰라. 하지만 분명히 저 아저씨는 딸과 함께 그것을 찾으러 휴가 여행을 떠날 작정이야.”

해리는 자신이 루나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쟤가 딸이야.”

마치 작은 날벌레들을 쫓아내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머리 주위로 팔을 마구 휘저으며 여전히 혼자 춤을 추고 있는 루나를 가리키며, 해리가 말했다.

“쟤는 왜 저러고 있나?”

크룸이 물었다.

“아마도 렉스퍼트(루나의 설명에 따르면, 귀로 들어가서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눈에 안 보이는 마법 생물:역주)를 없애려나 보지.”

단박에 증상을 알아본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크룸은 해리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대신 그는 망토 속에서 지팡이를 꺼내더니 자신의 허벅지를 위협적으로 두드렸다. 지팡이 끝에서 파팍 불꽃이 튀었다.

“그레고로비치!”

불현듯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크룸이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해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런 것이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크룸의 지팡이를 본 순간,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트리위저드 경기 직전에, 올리밴더는 크룸의 지팡이를 쥐고 면밀히 관찰했었다.

“그 사람이 뭘?”

의심스러운 듯 크룸이 물었다.

“그는 지팡이 제작자였어!”

“나도 안다.”

크룸이 말했다.

“그 사람이 네 지팡이를 만들었지! 그래서 내가 큐디치를 떠올렸던거야.....”

크룸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치였다.

“네가 어떻게 아는가? 그레고로비치가 내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걸?”

“그..... 그러니까..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아.”

해리가 대답했다.

“어.... 너의 팬클럽 잡지에서.”

해리는 아무렇게나 들러댔다. 그러자 크룸의 의심이 한결 누그러진듯했다.

“팬들에게 내 지팡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지 나도 물었다.”

크룸이 말했다.

“어... 그런데... 요즘 그레고로비치는 어디에 있니?”

크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 사람은 몇년전에 은퇴했다. 나는 그레고로비치의 지팡이를 산 마지막 손님이었다. 그레고로비치의 지팡이는 정말 최고다. 물론 나도 안다. 너희 영국인들은 올리밴더를 훨씬 더 쳐준다는 거.”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크룸과 마찬가지로 춤추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척 하고 있었지만, 실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볼드모트는 유명한 지팡이 제작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었다. 볼드모트가 하늘을 가로질러 해리를 뒤쫓던 밤, 해리의 지팡이가 한 일 때문인 것이 분명했다. 서양호랑가시나무와 불사조 깃털로 된 지팡이가 그 빌린 지팡이를 이겼다. 올리밴더 조차 미처 예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레고로비치는 더 잘 알고 있을까? 그가 정말로 올리밴더보다 재주가 뛰어난 걸까? 그는 올리밴더가 알지 못하는 지팡이들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인가? “

“저 여자 애 아주 예쁘다.”

크룸의 말에 해리의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크룸은 방금 루나와 합세한 지니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저 애도 네 친척인가?”

“그래.”

해리는 갑작스레 부아가 치밀었다.

“하지만 저 앤 만나는 사람이 있어. 질투심이 아주 많고 덩치가 어마어마한 놈이야. 넌 그놈이랑 안 마주치는게 좋을 거야.”

크룸이 불평에 찬 신음 소리를 냈다.

“예쁜 여자 애들은 죄다 임자가 있으니, 도대체 세계적인 큐디치 선수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담?”

크룸은 술잔을 쭉 비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뒤에 남은 해리는 지나가던 웨이터로부터 샌드위치를 받아 들고, 봄비는 댄스 플로어 가장자리고 비집고 나아갔다. 당장 론을 찾아서 그레고로비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론은 플로어 한복판에서 헤르미온느와 춤을 추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해리는 금색 기둥에 기대서서, 이제는 프레드와 조지의 친구인 리 조던과 춤을 추고 있는 지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론에게 한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해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식에 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마법 세계의 결혼식이 머글 결혼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 할 수가 없었다. 물론 머글 결혼식에는 웨딩케이크에 장식으로 올린 두 마리 모형 불사조가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공중으로 날아오른다든지, 샴페인 병이 저 혼자 하객들 사이로 떠돌아다닌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저녁이 찾아오자, 둉동 떠 있는 금빛 등잔들로 불을 밝힌 천막 아래로 나방들이 날아들었다. 더불어 연회는 점점 더 썰렁해졌다. 프레드와 조지스 플리르의 사촌 두명과 함께 어둠속으로 사라진지 오래였고, 찰리와 해그리드, 그리고 보라색 펠트 모자를 쓴 땅딱막한 마법사는 구석에서 <영웅 오도>를 부르고 있었다.

한편 해리는 그가 자신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것 같은, 론의 술 취한 삼촌을 피해서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다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는 늙은 마법사를 발견했다. 구름처럼 하얀 머리칼 때문에 그는 마치 민들레 훌씨처럼 보였는데, 머리 위에는 좀먹은 터키모자를 쓰고 있었다. 해리는 막연히 그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 그리고 한참 머리를 쥐어짜다가, 문득 이 사람이 불사조 기사단의 일원이자, 덤블도어의 추모 기사를 쓴 엘피아스 도지라는 것을 생각해 냈다.

해리는 그에게 다가갔다.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앉아요 앉아.”

도지가 말했다. 아주 높고 뻬끈거리는 목소리였다.

해리는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도지 씨, 사실 저는 해리 포터예요.”

도지가 입을 딱 벌렸다.

“오, 자네로군! 안 그래도 아서한테 이야기 들었네. 자네가 여기에 변신을 하고 와 있다고 말이야. 만나서 정말 기쁘군. 이런 영광이 있나!”

도지는 약간 긴장한 듯이 반가운 인사를 늘어놓으며 해리에게 샴페인 한잔을 따라 주었다.

“자네에게 편지를 쓸까 했었네.”

그가 속삭였다.

“덤블도어가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충격이었지. 그리고 자네도 물론....”  
도지의 조그만 눈이 갑작스러운 눈물로 그렇거렸다.

“저도 <예언자 일보>에 쓰신 기사를 보았어요.”

해리가 말했다.

“도지 씨께서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래 봐야 다른 사람들이 아는 정도지.”

도지가 넥킨으로 눈가를 누르며 말했다.

“물론 내가 그를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내긴 했단다. 애버포스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어쩐 일인지, 사람들은 애버포스를 항상 빼놓는 것 같단 말이야.”

“<예언자 일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혹시 보셨나요, 도지 씨?”

“오, 제발 엘피아스라고 부르게나.”

“엘피아스 씨, 혹시 리타 스키터가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해 말 한 인터뷰 기사를 보셨나요?”

“물론이지, 해리. 보고 말고. 그 여자는, 그보다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뭔가 털어놓도록 나를 들볶았지. 말하기 부끄럽지만 결국 나는 아주 화가 나서, 참견쟁이 여편네라고 그 여자에게 욕을 하며 좀 무례하게 울었네. 아마 자네도 봤을 테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내 정신 상태에 대한 온갖 비방이 쏟아졌지.”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리타 스키터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짚었을때 어둠의 마법에 가담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해리가 말을 이었다.

“한마디도 믿지 말거라!”

도지가 죽각 대답했다.

“단 한마디도, 해리! 절대로 알버스 덤블도어에 대한 너의 기억을 더럽히지 말거라.”

하지는 해리는 괴로워하는 도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자, 안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이 났다. 정말로 도지는 해리가 그토록 쉽게 단순히 믿지 않는 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도지는 해리가 모든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져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아마도 도지는 해리의 생각을 짐작하는 듯했다. 왜냐하면 걱정스런 표정으로 황급히 말을 이었던 것이다.

“해리, 리타 스키터는 아주 무서운.....”

하지만 그때 날카롭게 떠들어 대는 수리가 그의 말을 끊어 놓았다.

“리타 스키터? 오, 난 그여자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녀의 글은 꼬박꼬박 챙져 읽지!”

해리와 도지가 고개를 들어 보니 뮤리엘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모자 위에서는 깃털이 춤을 추고 있었고,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여 있었다.

“당신도 알겠지만, 그녀가 덤블도어에 대한 책을 썼다더군!”

“안녕하시오, 뮤리엘.”

도지가 인사를 했다.

“그렇소, 우리도 지금 마침 그 이야기를 하던.....”

“거기 너! 냉큼 일어나지 못해! 나는 백일곱 살이나 먹었단 말이다!”

또 다른 빨간 머리 위즐리 사촌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뮤리엘은 의자를 깜짝 놀랄 정도로 힘차게 휙 돌리더니, 도지와 해리 사이에 의자를 놓고 풀썩 주저앉았다.

“또 만나는구나. 배리였던가? 네 이름이 뭐든지 간에.”

할머니가 해리에게 말했다.

“그런데 리타 스키터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엘피아스? 그 여자가 덤블도어에 대한 전기를 썼다는 건 알고 있겠지? 정말이지 읽고 싶어서 못 살겠다니까. 프러리시와 블러트 서점에 잊지 말고 주문해야지!”

도지는 딱딱하게 굳은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뮤리엘은 자신의 잔을 쭉 들이켜더니, 새로 한 잔 더 달라고 지나가던 웨이터를 향해 앙상한 손가락을 탁 튕겼다. 다시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켠 뮤리엘은 큰 소리로 트림을 한 뒤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한 쌍의 박제 개구리 같은 얼굴 할 건 없잖아! 사실이지 너무 존경스럽다느니 훌륭하다느니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듣기 전까지는 알버스에 대해 굉장히 재밌는 소문이 무성하지 않았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중상모략이었소.”

도지의 얼굴이 다시 순무 색깔로 변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엘피아스.”

뮤리엘이 깔깔댔다.

“당신이 그 추모기사에서 어떤 식으로 그 난처한 대목들을 슬며시 지나쳤는지 난 다 눈치 챘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이오”

도지가 더욱 차갑게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글을 썼소.”

“당신이 덤블도어의 송배자란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 그가 스水库여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를 성인이라고 생각할 게 뻔한 일이구먼!”

“뮤리엘!”

도지가 버럭소리쳤다.

순간 싸늘한 냉기가 해리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그것은 결코 얼음을 탄 샴페인 때문이 아니었다.

“무슨 말이죠?”

해리가 뮤리엘에게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의 여동생이 스水库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저는 그냥 아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고말고, 배리!”

유리엘은 자신이 불러일으킨 반응에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그나저나, 네 녀석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일들은 모두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아주 옛날 고릿적에 일어난 일인데 말이야. 사실인즉, 그 당시에 살아 있던 사람들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 스키타가 뭐라고 폭로했는지 알고 싶어 내가 안달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지. 덤블도어는 그 여동생에 관한 사실을 오랫동안 비밀에 부쳤거든!”

“그건 사실이 아니오!”

도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오!”

“그분은 한번도 저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스','=',\$ 말한 적이 없어요” 해리는 아무 생각없이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냉기가 흘렀다.

“아니, 대관절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너에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 해리를 똑바로 보기 위해 자리에서 몸을 약간 움직이며, 유리엘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가 아리애나에 대해 결코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감정에 북받쳐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엘피아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진작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주 뻔하단다. 여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졌기 때문....”

“그렇다면 왜 아무도 그녀를 본적조차 없는 거요. 엘피아스?”

유리엘이 연성을 높이며 반박했다.

“왜 우리중 절반은, 그 사람들이 집에서 관을 들고 나와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그녀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요? 아리애나가 지하실에 갇혀있는 동안, 덕망 높은 알버스는 도대체 어디 있었단 말이오? 멀리 호그와트에서 명석한 두뇌를 뿐내며, 바로 자기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지!”

“무슨 뜻이죠? 지하실에 갇히다니요?”

해리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지는 몹시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유리엘은 다시 짹짹거리며 해리의 물음에 대답했다.

“덤블도어의 어머니는 아주 끔찍한 여자였단다. 말 그대로 끔찍했지. 머글 태생이었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아닌 척하고 다녔다고.....”

“그분은 그런 적 없소! 켄드라는 좋은 분이었소”

도리는 애처롭게 중얼거렸지만, 유리엘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오만하고 몹시 도도한 성격이었지. 스','=',\$ 낳았다는 사실에 충분히 굴욕감을 느낄 만한 마녀였어....”

“아니애나는 스','=',\$ 아니었소!”

도지가 씨근거렸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엘피아스.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시우. 왜 그아이는 한번도 호그와트에 다니지 않았지?”

유리엘이 따졌다. 그러더니 다시 해리를 돌아보았다.

“우리 시대에는 종종 스','=',\$ 대해 쉬쉬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대도 어린 여자애를 집에다 감금하고, 아예 있지도 않은 것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하다니....”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오!”

도지가 말했지만, 유리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전히 해리를 향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났다.

“스','=',\$들은 대개 머글 학교로 보내졌고, 머글 사회에 통합되도록 권장되었단다. 물론 언제나 2등 시민이 되어야만 하는 마법세계에서 애써 그들의 자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려깊은 선택이었지. 하지만 켄드라 덤블도어는 당연히 자기 딸을 머글 학교에 보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겠지....”

“아리애나는 연약했어!”

도지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항상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애를.....”

“..... 집 밖에 나가게 할 수 없었던 말인가?”

뮤리엘이 깔깔거렸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성 뭉고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 게다가 어떤 치료사도 그 애를 진찰하기 위해 불려 간 적이 없었다고!”

“참말이지, 뮤리엘. 과연 당신이 무슨 수로 그런 것을 알 수.....”

“굳이 알려주자면, 엘피아스. 내 사촌 랜슬롯은 그 당시에 성 뭉고 병원의 치료사였어. 그가 우리 가족에게 극비로 이야기해 주었지. 아리애나는 그 병원에 코빼기도 비친 적이 없다고 말이야. 랜슬롯은 아주 의심스럽게 생각하더구먼!”

도지는 이제 울음을 터트리기 일보 직전처럼 보였고, 뮤리엘은 둡시 신이 나서 샴페인을 더 시키기 위해 손가락을 퉁겼다. 망연자실한 해리는 단지 그가 마법사라는 죄로, 더즐리 가족이 어떻게 자신을 배제하고 방에 가두고 눈앞에서 내쫓으려고 했는지를 떠올렸다. 덤블도어의 여동생은 그와 반대되는 이유로 똑같은 고초를 겪은 것이다. 마법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되었다고? 그렇다면 덤블도어는 정말로 그녀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던 걸까? 자신이 총명하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멀리 호그와트로 가 버린 동안?

“만약 켄드라가 먼저 죽지 않았다면....”

뮤리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리애나를 끌장냈을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여자였을걸.....”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소, 뮤리엘?”

도지가 신음 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제 딸을 죽이다니,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생각 좀 해보시오!”

“못할 것도 없지 않나? 그 문제의 어머니는 수년간 자기 딸을 감금하는 짓도 능히 해냈는걸!”

뮤리엘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앞뒤가 맞지않아. 켄드라가 아리애나 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오, 아리애나가 엄마를 살해했나 보군. 못할 것도 없지?”

도지는 대범하게 비웃어 줄 요량으로 말했다.

“맞아. 아리애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절망적인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싸우는 와중에 켄드라를 죽였겠지.”

뮤리엘은 곰곰이 생각하는 척하며 말했다.

“어디 실컷 고개를 저어보슈. 엘피아스! 하지만 당신도 아리애나의 장례식 날 왔었잖수, 안 그런가?”

“그랬소”

도지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보다 더 끔찍하고 슬픈 일은 없었소. 알버스의 마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그의 마음만이 아니지, 장례식 중에, 애버포스가 알버스의 코를 반쯤 부서뜨려 놓지 않았나?”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도 도지는 겁에 질린 것 처럼 보였었다. 그러니 지금 그의 몸골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뮤리엘은 완전히 도지의 급소를 찌른 듯했다. 그녀는 큰소리로 깔깔거리며 샴페인을 한 잔 더 벌컥벌컥 들이켰고, 샴페인이 턱 밑으로 출출 흘러내렸다.

“당신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도지가 목이 매어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늙은 바틸다와 친했어.”

뮤리엘이 신이 나서 대답했다.

“바틸다가 우리 어머니 한테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지. 나는 문가에서 엿듣고 있었고 말이야. 세상에 관을 사이에 두고 싸움박질이라니! 바틸다가 얘기해 준

바에 따르면 애어포스는 아리애나가 죽은 건 모두 알버스탓이라고 외치면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고 하더군. 또 바틸다가 따르면 알버스는 자신을 방어조차 하지 않았다더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괴이한 일이지. 알버스라면 등 뒤로 양손이 묶인 채라도 애버포스와 결투에서 능히 해치울 수 있었을 테니까.” 뮤리엘은 자꾸자꾸 샹페인을 들이켰다. 이 오래된 추문을 자세히 물어대는 것은, 도지를 소스라치게 하는 만큼이나 그녀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듯했다. 해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원했지만, 도지가 하는 일이라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계속 아리애나가 아팠었다고 울먹이는 게 전부였다. 해리는 덤블도어가 그토록 잔인한 일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엇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이야기에는 원가 수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또 다른 얘기를 해주마.”

뮤리엘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딸꾹질을 하더니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내 생각에 바틸다가 리타 스키터에게 그만 그 비밀을 누설 한 것 같거든. 스키터의 인터뷰에 나온, 덤블도어 일가와 가까이 지냈다던 중요한 소식통에 대한 그 모든 암시들 말이야. 정말이지 그여자는 아리애나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내내 거기 있었거든! 얘기가 어찌나 딱 맞아떨어지는지!”

“바틸다는 절대로 리타 스키터에게 말할 사람이 아니오!”  
도지가 순 목소리로 말했다.

“바틸다 백셨어요?”

해리가 물었다.

“<마법의 역사> 저자 말씀이신가요?”

비록 해리가 가장 열심히 읽었던 책들 중 하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 그의 교과서중 한권의 표지에 인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단다.”

도지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대에 매달리듯이 해리의 질문을 얼른 붙잡고 늘어졌다.

“대단히 뛰어난 마법 역사가이자 알버스의 오랜 친구란다.”

“내가 듣기론, 요즘엔 아주 망령이 들었다더군.”

뮤리엘이 활기차게 말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스키터가 그녀를 이용하는 것은 더욱더 치욕스러운 일이고.”

도지가 말했다.

“그리고 바틸다가 무슨 말을 했든 그 말을 신뢰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오!”

“오, 하지만 기억을 불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수? 리타 스키터라면 분명 그 모든 방법에 능통할 텐데 월. 게다가 설사 바틸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해도, 여전히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건 갖고 있겠지. 그토록 오랫동안 덤블도어 집안을 알아 왔으니 말이야... 내가 생각해 봐도 고드릭 골짜기에 한 번 다녀올 만 했더니까.....”

마침 버터 맥주를 한 모금 삼키고 있던 해리는 그만 사례가 들고 말았다. 해리가 기침을 하며 캙캑거리자, 도지는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눈으로 뮤리엘을 노려보면서, 해리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해리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바틸다 백성이 고드릭 골짜기에 산다고요?”

“오, 그렇단다. 그 여자는 평생 거기서 살았지! 그리고 덤블도어 가족은 퍼시발이 감옥에 간 뒤로 그 곳으로 이사했어. 바틸다는 그들과 바로 이웃해 살았다니까.”

“덤블도어 교수님의 가족이 고드릭 골짜기에 살았다고요?”

“그렇다니까. 배리, 내가 말했잖니!”

뮤리엘이 활짝 짜증을 부렸다.

해리는 기운이 쭉 빠지고 허탈한 기분이었다. 덤블도어는 지난 6년 동안 단 한번도 두 사람 모두 고드릭 골짜기에 살았었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는 말을 해리에게 해주지 않았다. 왜일까? 그렇다면 그의 부모님인

릴리와 제임스는 덤블도어의 어머니와 여동생 가까이에 묻혀 있을까?  
덤블도어는 그들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어쩌면 릴리와 제임스의 무덤을  
지나쳤을까?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해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단 한번 도.....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해리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그들이 같이 곳에 살았었고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마치 거짓말을 한거나 다름없이 느껴졌다. 해리는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의자를 끌어다가 옆에 앉을 때까지, 그녀가  
사람들 틈에서 나타난 사실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도저히 춤을 더 못추겠어.”

헤르미온느가 신발 한 짝을 벗더니 발바닥을 문지르며 숨을 헐떡거렸다.

“론은 버터 맥주를 좀더 가지려 갔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방금 빅터가 몹시  
화를 내면서 루나 아버지 곁을 떠나는걸 봤어. 두 사람이 꼭 말다툼을 한 것  
처럼 보이더라고.”

헤르미온느가 문득 해리를 빤히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데 해리, 너 괜찮니?”

해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았다. 그 순간 은빛 나는 커다란 무언가가 천막을  
뚫고 댄스 플로어 위로 떨어졌던 것이다. 우아하게 반짝거리는 살쾡이가 기절할  
듯이 놀란 춤꾼들 사이로 가볍게 내려 앉았다. 한총 춤을 추던 자세 그대로  
우스꽝스럽게 얼어붙어 버린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이윽고 패트로누스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낮고 우렁차고 느린 킹슬리  
샤클볼트의 목소리로 말했다.

“마법부가 무너졌다. 스크림저는 죽었다. 그들이 오고 있다.”

## 제 9 장 은신처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팡이를 꺼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겨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은색 살쾡이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살쾡이가 있던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패트로누스가 내려앉았던 곳에서부터 무거운 침묵이 싸늘한 물결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때 누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공포에 휩싸인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객들은  
사방으로 도망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간이동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버로우를 둘러싸고 있던 보호마법이 깨진 것이다.

“론!”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외쳤다.

“론, 어디 있는 거야?”

헤르미온느와 함께 댄스 플로어를 가로질러 사람들을 비집고 다닐 때, 해리는  
군중 속에서 망토를 쓰고 복면을 한 사람들이 뻥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곧이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루핀과 통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프로테고!” 하고 외치를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사방에서 되풀이  
되었다.....

“론! 론!”

해리와 함께 겁에 질린 하객들 틈을 헤쳐 나가면서 헤르미온느는 거의  
흐느끼다시피 하면서 론을 불렀다. 그때 한 줄기 빛이 그들의 머리위를 휙  
지나갔다. 해리는 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것이 보호 마법인지 아니면 더욱 불길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론이 나타났다. 론이 해리가 잡지 않은 헤르미온느의 나머지 한쪽  
팔을 잡았고,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그 자리에서 몸을 빙그르르 돌리는 것을  
느꼈다. 순간 캄캄한 어둠이 해리를 엄습했고, 모든 광경과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버로우로부터 멀리, 그곳을 덮친 죽음을 먹는 자들로부터 멀리, 그리고 어쩌면 볼드모트로부터도 멀리멀리 떨어져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걸잡을 수 없이 빨려들어가는 동안, 그가 느낄수 있는 거라곤 오직 헤르미온느의 손뿐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론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눈을 떴다. 한순간 그는 여전히 결혼식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처럼 보였던 것이다.

“토트넘 코트 로드(런던 중심가:역주)야”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걸어가, 그냥 걸어. 너희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해.”

해리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들은 반쯤은 걷고, 반쯤은 뛰다시피 하면서 심야의 술꾼들로 들끓는, 문 닫은 가게들이 일렬로 늘어선 어두침침한 큰 길을 지나갔다. 별이 그들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2층버스 한대가 덜컹거리며 지나갔고, 술집으로 향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해리와 론은 여전히 정장 망토차림이었다.

“헤르미온느, 우리는 갈아입을 게 아무것도 없어.”

웬 짧은 여자가 론을 보고 요란스럽게 웃음을 터트리자,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내가 왜 투명 망토를 확실히 챙겨두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해리가 한탄했다.

“작년에는 그걸 내내 끼고 다녔는데....”

“괜찮아. 내가 투명 망토를 챙겼어. 너희 둘이 갈아입을 옷도 있고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써 봐. 그럼 다 잘될 거야.”

헤르미온느는 그들을 이끌고 샷길을 따라 내려갔다. 이윽고 어두운 골목길로 숨어들어갔다.

“너에게 투명 망토랑 옷이 있단 말이지....”

해리는 잔뜩 얼굴을 찡그린 채, 구슬 장식이 달린 작은 핸드백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헤르미온느는 핸드백 안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자, 여기 있어.”

헤르미온느가 청바지와 스웨터 한 벌, 밤색 양말 몇 켤레. 그리고 마침내 은빛 투명망토까지 꺼내 놓자, 해리와 론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탐지 불능 늘이기 마법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꺄 까다롭더라. 그래도 그런대로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 속에 모두 넣어왔으니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찢어질 듯이 약해 보이는 핸드백을 살짝 흔들자, 마치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육중한 물건들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화물칸에서나 날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 젠장. 책들일 거야.”

헤르미온느가 핸드백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주제별로 분류해서 쌓아 놨는데.... 자, 해리 넌 투명 망토를 쓰는게 좋겠다. 론 어서 갈아입어....”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한 거야?”

론이 망토를 벗는 동안 해리가 물었다.

“버로우에서 내가 말했잖아. 며칠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을 쌌다고, 우리가 황급히 도망쳐야만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오늘 아침에 네 배낭도 쌌어. 해리, 넌 옷을 다 갈아입고 나면 그걸 여기 집어넣어.....왠지 깨새가 느껴지더라고.....”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이야.”

헤르미온느에게 돌돌 만 옷가지를 건네주며 론이 말했다.

“고마워.”

헤르미온느는 핸드백에 옷가지를 밀어 넣으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탁이야. 해리 어서 투명 망토 써!”

해리가 투명 망토를 어깨에 두르고 머리위까지 끌어당기자. 당장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는 지금 그런 걱정 할때가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그들이 쫓고 있는건 바로 너라고, 해리. 만약 지금 돌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훨씬 더한 위험에 빠드리게 될 거야.”

“헤르미온느의 말이 맞아.”

론은 해리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가 계속 따지려고 듣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다.

“대부분의 기사단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봐 줄거야.”  
비로소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론과 헤르미온느가 자신을 볼수 없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지니를 생각하자 두려움이 위산처럼 그의 뱃속에서 부글거렸다.

“어서!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할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들은 골목을 되돌아 나와서 다시 큰길 위에 섰다. 길 건너편에서 한무리의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보도를 누비고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필 토크트널 코트 로드에 온거야?”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그래도 머글 세계에 나와 있는게 더 안절할 것 같았어. 그들이 우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만한 곳은 아니잖아.”

“맞는 말이야.”

론이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째 조금…… 노출된 기분이지 않니?”

“그럼 달리 갈데라도 있니?”

길 건너편 남자들이 자신을 향해 휘파람을 불자, 헤르미온느가 움찔 놀라면서 말했다.

“그렇다고 리키 콜드런에 방을 예약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리고 스네이프가 그리볼드 광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도 안전하지 못해. 어저먼 우리 부모님의 집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거야. 물론 그들이 그곳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 저 사람들 입 좀 닦치게 하면 좋으련만.”

“어이, 아가씨?”

건너편 인도에 있던 남자들 중에서 제일 심하게 술이 취한 사람이 외쳤다.

“한잔 어때? 빨강 머리는 버려 두고, 이리 와서 맥주 한잔 하자고!”

“어디 좀 앉자.”

론이 길 건너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리자,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말했다.

“봐, 여기면 될거야. 여기!”

그곳은 작고 허름한 심야 영업 카페였다. 포마이카 칠을 한 모든 테이블 위에는 얇게 기름때가 끼어 있었지만, 최소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해리가 먼저 칸막이 자리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고, 론이 해리 옆자리에, 헤르미온느를 마주 보고 앉았다. 그녀는 입구를 등지고 앉아야만 했는데, 그 점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찌나 빈번하게 어깨 너머로 결눈질을 하던지, 마지 어깨가 결린 사람 같아 보였다. 해리는 한곳에 머무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걸기라도 하면, 웬지 목적지가 있는 것 같은 환상이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투명 망토 아래에서 해리는 마지막 넓은 폴리주스 마법약이 몸에서 빠져

나가면서, 두손이 평소와 같은 길이와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어 다시 썼다.

잠시 후에 론이 말했다.

“있잖아, 우리는 지금 리키 콜드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거긴 채링 크로스에 있잖아....”

“론, 그래선 안돼!”

헤르미온느가 즉각 반대했다.

“거기에 머물자는 게 아니야.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 블드모트가 마법부를 장악했어. 우리가 더 이상 월 알아야 하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그저 잠시 떠오른 생각이었어.”

그들은 다시 어색한 침묵 상태로 돌아갔다. 짹짝 껌을 씹는 여종업원이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고, 헤르미온느는 카푸치노 두잔을 시켰다. 해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를 위해 한잔 더 주문하는 것은 수상해 보일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때 두명의 건장한 노동자가 카페에 들어와 바로 옆칸에 비집고 앉았다. 헤르미온느는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순간이동을 할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시골로 가는 거야. 일단 거기에 가면, 기사단에 편지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너는 말하는 패트로누스 마법을 할 줄 안다는 거야?”

론이 물었다.

“그동안 쪽 연습을 해왔어. 아마도 할 수 있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래, 그 때문에 그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는 한 말이지. 물론 그들은 이미 체포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이거 아주 역한걸.”

론이 거품이 나는 희끄무레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에 말했다. 여종업원이 그 말을 들었다. 새로 온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 위해 신발을 질질끌고 다가오던 여종업원은 론을 험악한 얼굴로 쏘아보았다. 두 노동자 중에 더 덩치가 큰 쪽은 금발에 몸집이 아주 어마어마했다. 해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남자는 여종업원에게 일없다는 듯 손을 내젓고 있었다.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만 가자. 이 구정을 같은 걸 더는 못 마시겠어.”

론이 말했다.

“헤르미온느 너 혹시 이거 계산할 머글 돈 좀 있니?”

“응, 버로우에 오기 전에 주택 마련 저축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찾았어. 하지만 분명 잔돈이랑 잔돈은 다 맨 밑에 있을거야.”

구슬 백 안으로 손을 넣으며 헤르미온느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 두 노동자가 동시에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고, 해리는 반사적으로 그들을 따라했다. 결국 세사람 모두 지팡이를 뽑아들고 있었다. 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즉시 깨닫고는, 헤르미온느를 의자 옆으로 확 밀친 후에 테이블 너머로 돌진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날린 주문은 방금 전까지 론이 머리를 기대고 있던 타일 벽을 산산조각내 버렸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해리가 소리쳤다.

“스투페파이!”

뿜어져 나온 붉은 광선이 금발에 덩치가 집채만한 죽음을 먹는 자의 얼굴에 명중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옆으로 쿵 쓰러졌다. 그의 동료는 누가 마법을 걸었는지 보지 못한채, 다시 론을 향해 발사했다. 번쩍이는 검은 밧줄이 지팡이 끝에서 튀어나오더니 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꽁꽁 끊었다. 여종업원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아났다. 론을 포박한, 얼굴이 찌그러진 죽음을 먹는 자를 향해 해리는 다시 한번 기절 마법을 쏘았다. 그러나 주문은 빗나갔고, 창문에서 퉁겨나가 여종업원을 맞혔다. 그녀는 문 앞에서 풀썩 쓰러졌다.

“엑스펄소!”

죽음을 먹는자가 고함을 지르자, 해리앞에 있던 테이블이 폭발했다. 폭발의 위력으로 해리는 벽에 세게 내팽개쳐졌다. 해리는 망토가 스르륵 벗겨지며 손에서 지팡이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

헤르미온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쳤다. 죽음을 먹는 자는 우지끈 소리를 내며, 깨진 찻잔과 테이블, 커피가 어질러진 난장판 위로 동상처럼 앞으로 쓰러졌다. 헤르미온느는 의자 밑에서 기어나오더니, 머리를 훈들어 부서진 유리 재떨이 조각을 털어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디, 디핀도!”

지팡이로 론을 가리키며 헤르미온느가 외쳤다. 그러자 론의 청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지고 살이 깊이 패였다. 론이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오, 미안해 론, 손이 떨려서! 디핀도!”

밧줄이 잘려 나갔다. 론은 일어서서, 감각이 돌아오도록 팔을 이리저리 훈들었다. 해리는 지팡이를 주워 들고, 파편 더미위로 기어올라, 의자 위에 널브러져 있는, 금발에 덩치 큰 죽음을 먹는자에게 다가갔다.

“이놈을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덤불도어 교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도 거기 있었어.”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피부색이 좀 더 검은 죽음을 먹는자를 한 발로 뒤집었다. 그자의 눈이 재빨리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이자는 돌로호브야.”

론이 말했다.

“옛날 현상수배 전단지에서 본 적이 있어. 저 덩치 큰 놈은 토르핀 라울인 것 같아.”

“이놈들 이름따위는 신경 쓸 것오 없어!

헤르미온느가 약간 신경질 적으로 말했다. “이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지? 우리 이제 어쩌면 좋지?”

웬일인지 헤르미온느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자, 해리의 정신이 맑아졌다.

“문을 잠가.”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그리고 론, 너는 불을 깨.”

해리는 계속해서 궁리를 하며, 마비 상태에 빠진 돌로호브를 내려다보았다. 그사이 자율쇠가 찰칵소리를 내며 잠겼고, 론은 딜루미네이터를 써서 카페를 어둠으로 돌아넣었다. 해리는 저 멀리에서 아까 헤르미온느에게 농을 걸던 남자들이 또 다른 아가씨를 향해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놈들을 이제 어쩌지?”

론이 어둠 속에서 해리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훨씬 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죽여? 이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 이들은 방금전에 아주 제대로 공격했다고.”

헤르미온느는 몸서리를 치며 한 발짝 뒷걸음쳤다.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이들의 기억을 지우기만 하면 돼.”

해리가 많쓰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나아. 그래야 그들을 따돌릴 수 있어. 우리가 이놈들을 죽인다면,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게 너무 확실히 드러나잖아.”

“역시 넌 대장이야.”

론이 매우 안심했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난 한번도 기억력 마법을 써 본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하지만 원리는 알아.”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뒤, 지팡이를 돌로호브의 이마에 대고는 말했다.

“오블리비아테!”

그러자 즉시 돌로호브의 눈이 풀리더니 뚱뚱해졌다.

“대단해!”

해리가 헤르미온느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론이랑 내가 여길 치우는 동안, 나머지 녀석이랑 여종업원을 처리해 줘!”

“치운다고?”

일부가 부서져 내린 카페를 둘러보며 론이 물었다.

“뭐 하려?”

“저놈들이 깨어나서 방금 폭탄을 맞은 것 같은 이런 데에 자신들이 있는 걸 보면, 무슨일이 벌어졌던 건지 의심할거 아냐?”

“하긴 그래.....”

론은 지팡이를 주머니에서 꺼집어내기 위해 잠시 용을 썻다.

“지팡이가 안 꺼내지는게 당연하지. 헤르미온느, 네가 싸온건 내 옛날 청바지야. 너무 짹 낀다고.”

“오, 미안해.”

헤르미온느는 창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종업원을 질질 끌어내면서, 헉헉대며 말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지팡이를 대신 어디에 찔러넣으면 되는지 충고하는 소리를 들었다.

카페가 예전 상태로 회복되자, 그들은 죽음을 먹는 자들을 그들이 앓아있던 칸막이 자리에 도로 던져 놓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도록 기대어 놓았다.

“그나저나 이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낸거지?”

헤르미온느가 뺏뺏이 굳어 잇는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헤르미온느는 해리 쪽을 돌아보았다.

“너, 아직도 추적 마법에 걸려있는건 아니지? 그치, 해리?”

“그럴리가.”

론이 말했다.

“열입곱살이면 추적 마법은 풀리게 되 있어. 그게 마법 법률이야. 성인에게는 추적 마법을 쓸 수 없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하지만 혹시 죽음을 먹는 자들이 열입곱 살 먹은 성인한테 추적 마법을 쓰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하지만 지난 24 시간 동안 죽음을 먹는자 근처는 얼씬도 안했잖아. 누가 해리한테 추적 마법을 도로 걸 수가 있냐고!”

헤르미온느는 대답이 없었다. 해리는 자신이 오염되고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정말로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냈을까?

“만약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는, 내가 마법을 쓸 수 없고 너희도 내 곁에서 마법을 쓸 수 없다면 말이야....”

해리가 말을 꺼냈다.

“우리는 절대 헤어져서는 안돼!”

헤르미온느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우리는 안전하게 숨을 곳이 필요해.”

론이 말했다.

“천천히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는 곳말이야.”

“그리콜드 광장.”

해리가 말했다.

다른 두 사람이 입을 떡 벌렸다.

“농담하지마. 해리. 스네이프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위즐리 아저씨 말씀으로는, 기사단 사람들이 스네이프를 막는 저주를 걸어 놓았대. 게다가 설사 그 저주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해도....”

헤르미온느가 원가 반대를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해리가 서둘러서 말을 막았다.

“그게 뭐 어때서? 난 스네이프를 만날 생각만 하면 아주 좋아 죽겠구먼!”

“그래도.....”

“헤르미온느, 거기 말고 또 어디가 있겠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방법이야. 스네이프는 그저 죽음을 먹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이야. 내가

아직도 추격 마법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그 무리를 모두 달고 다니는 셈이야.”

헤르미온느의 표정은 아직도 반박하고 싶은 듯 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그녀가 잠겨 있던 카페의 문을 열자, 론은 딜루미네이터를 높려 카페를 불빛을 다시 풀어 놓았다. 그리고 해리가 셋을 세는 것에 맞춰 그들은 세명의 희생자에게 내려진 마법들을 풀었다. 여종업원이나 두명의 죽음을 먹는 자가 졸음에 겨워 움직거리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 전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몸을 돌렸다. 이윽고 그들은 또다시 몸을 짓누르는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해리는 반갑게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떴다. 그들은 이제 낯익은 작고 조라한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높고 황폐한 건물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2번지 건물은 곧 그들 눈에 띄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집의 비밀 파수꾼인 던블도어로 부터 직접 그 집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몇 미터마다 한번씩, 혹시 누가 뒤어서 쫓아오거나 감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피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셋은 단숨에 돌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해리는 지팡이로 현관문을 한 차례 가볍게 두드렸다.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깍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문턱을 넘었다. 해리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 구식 가스등이 일제히 되살아나 길게 뻗은 현관 복도에 일렁이는 불빛을 던졌다. 모든 것이 해리가 기억하고 있던 모습과 똑같았다. 여전히 섬뜩했고, 사방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벽에 걸린 집요정의 머리들이 계단을 따라 괴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의 긴 커튼이 시리우스 어머니의 초상화를 덮고 있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유일한 물건은 트롤의 다리 같은 우산꽂이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통스가 방금 쳐서 넘어뜨린 것처럼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누군가 여기 왔었나 봐.”

헤르미온느가 우산꽂이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기사단이 떠나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론이 웅얼거리며 대꾸했다.

“그런데 그들이 스네이프에게 걸었다는 저주는 어디 있는 거지?”

해리가 물었다.

“단지 그가 나타날 때에만 작동하는 것 아닐까?”

론이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집안으로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여전히 등을 문에 댄 채, 현관 매트앞에 꼭 붙어 있었다.

“자, 여기에 계속 이라고 있을 수는 없어.”

해리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말했다.

“세베루스 스네이프?”

그때 어둠 속에서 매드아이 무디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서 뒤로 펄쩍 물러섰다.

“저희는 스네이프가 아니예요!”

해리가 목이 메어서 외쳤지만, 이미 무언가가 찬 공기처럼 그를 휙 스쳐 지나가더니 그의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미처 입 안을 살펴볼 틈도 없이, 그의 혀는 도로 풀려 있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불쾌한 자극을 느낀 것 같았다. 론은 헛구역질 소리를 내고 있었고, 헤르미온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건.. 부.....분명 매.....매드아이가 스네이프에게 거.....걸어놓은 혀 끌기 저주였을 거야.”

매우 조심스럽게 해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러자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더니 그들이 말 한마디 할 틈도 없이, 키가 크고 뿐연 회색 빛깔을 띤 끔찍한 형상이 카펫에서 솟아올랐다. 헤르미온느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고, 블랙 부인의 초상화도 마찬가지였다. 그 와중에 커튼이 휙 열렸던 것이다. 뿐연 형상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허리까지 오는 머리털과 턱수염이 마구 휘날리고 있었고, 살점하나 없는 그것의 얼굴은

움푹 들어가고 눈구멍이 뻣 뚫려 있었다. 무섭고 혹 익숙하면서도 끔찍하게 변형된 그것은 죽은 팔을 들어 해리를 가리켰다.

“안돼!”

해리가 소리를 질렀다. 무작정 지팡이를 치켜들었지만, 아무런 주문도 떠오르지 않았다.

“안돼!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을 죽인 게 아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형상은 거대한 먼지구름으로 폭발해버렸다. 해리가 콜록거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헤르미온느는 팔로 머리를 감싼 채 문 옆의 마룻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턴 다음, 어색하게 헤르미온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푸른 가스등 불에 비춰진 먼지들이 해리 주위에서 안개처럼 소용돌이 쳤다. 블랙 부인은 계속해서 악을 썼다.

“우리 조상의 집에 이 잡종 쓰레기. 수치스런 오점. 치욕스런 얼룩이.....”

“닥쳐!”

해리가 버럭 호통을 치며 지팡이로 그녀를 가리켰다. 그러자 평 소리와 함께 빨간 불꽃이 터버 나왔고, 커튼이 펄럭이며 닫혔다. 비로소 블랙 부인도 조용해졌다.

“저건..... 저건.....”

헤르미온느가 울먹거렸다. 론은 헤르미온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부축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정말로 그가 아니었어. 단지 스네이프를 겁주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아.”

해리가 말했다.

해리는 궁금했다. 그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아니면 스네이프는 진짜 덤블도어를 죽였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무시무시한 형상을 해치웠을까? 여전히 신경을 바싹 곤두세운채, 뭔가 새로운 공포가 찾아올 것을 반쯤은 기대하며, 해리는 두 사람을 이끌고 복도를 걸어갔다. 하지만 벽 모서리를 따라 잡싸게 달아나는 쥐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좀 더 가기전에 점검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속삭이더니, 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웠다.

“호메눔 레벨리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너 방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구나.”

론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건 뭘 하려던 거였어?”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있었어!”

헤르미온느가 뿌루퉁하게 쏘이붙였다.

“이건 사람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마법이었다고. 그러니 여기엔 우리 말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늙은 먼지 인간도 있지.”

시체형상이 튀어나왔던 카펫 쪽을 힐끔거리며 론이 말했다.

“올라가자.”

헤르미온느도 똑같은 자리를 겁에 질린 얼굴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고는 삐거덕거리는 계단을 올라 응접실로 앞장서 갔다.

헤르미온느는 지팡이를 휘둘러 낡은 가스등을 켰다. 바람이 새어드는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파르르 떨면서 소파에 자리를 잡고는 양팔로 몸을 꼭 감쌌다. 론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무거운 벨벳 커튼을 옆으로 살짝 들어올렸다.

“밖에는 아무도 안 보여.”

론이 보고했다.

“하지만 네 생각대로, 해리가 여전히 추적 마법에 걸려있다면,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을 거 아야. 그들이 집 안 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무슨 일이야 해리?”

해리가 고통에 찬 외마디 비명을 질렀던 것이다. 수면 위의 섬광처럼 무언가가 그의 머릿속을 번쩍 스쳐 갔고, 그의 흉터가 다시 불에 타는 듯이 쑤셨다. 그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고, 자신의 심장 고동이 아닌 격렬한 분노가 온몸을 훑고 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전기 충격처럼 짧고 격렬했다.

“뭘 본거야?”

론이 해리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그를 본 거야?”

“아니, 그냥 분노를 느꼈어.... 그는 아주 화가 났어.”

“하지만 그게 바로우 일 수도 있어.”

론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건? 뭐 본 거 없어? 그자가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었어?”

“아니, 난 그저 분노를 느꼈을 뿐이야..... 나도 모르겠어.....”

해리는 추궁을 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혼란스러웠다. 뒤이어 헤르미온느가 소스라친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녀 역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네 흉터가 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의 연결이 차단된 줄 알았는데!”

“그랬었지, 한동안은”

해리가 중얼거렸다. 그의 흉터는 여전히 쿡쿡 쑤셨고, 그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내..... 내 생각에 그가 통제력을 잃을 때마다 다시 이어지는 거 같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면 네 정신을 차단해야만 해!”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해리, 덤블도어 교수님은 네가 그 연결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셨어. 네가 그걸 차단하길 원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는 오클러먼시를 사용해야 해! 안 그러면 볼드모트가 가짜 장면들을 네 머릿속에 심어 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기억나....”

“응, 기억하고 있어, 고마워.”

해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볼드모트가 한때 자신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바로 이런 그들 사이의 연결을 이용했었고, 그것이 곧 시리우스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굳이 헤르미온느가 다시 일깨워 줄 필요는 없었다. 해리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말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그것은 마치 볼드모트가 이 방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더라도 한 것처럼, 그를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게 할 뿐이었다. 흉터의 통증이 계속 심해졌고, 해리는 필사적으로 그것과 싸웠다. 그것은 마치 토하고 싶은 걸 억지로 억누르는 것과 같았다.

해리는 블랙 가문의 가계도가 그려진, 벽에 걸린 오래된 양탄자를 살펴보는 척하면서 론과 헤르미온느로부터 등을 돌렸다. 잠시 후 헤르미온느가 꽉 소리를 질렀다. 해리가 다시 지팡이를 뽑아 들고 획 돌아섰을 때, 은색 패트로누스가 응접실 창문을 통해 흘러 들어오더니, 그들 앞의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서서히 족제비 모양이 되더니, 론의 아버지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은 안전하다. 대답하지 마라.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패트로누스는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다. 론은 울음 섞인 신음 소리를 내뱉고는 소파 위로 주저앉았다. 헤르미온느도 론의 팔을 잡으며 옆에 앉았다.

“그분들은 무사해. 무사하다고!”

헤르미온느가 속삭이자, 론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해리....난.....”

론이 헤르미온느의 어깨 너머로 말했다.

“괜찮아.”

머리에서 느껴지는 통증때문에 욕지기를 느끼며 해리가 말했다.

“너희 가족이잖아.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 나였더라도 같은 기분이었을 거야.” 해리는 지니를 떠올렸다.

“사실은 나도 같은 기분이야.”

흉터의 통증은 절정에 이르렀고, 버로우의 정원에서 그랬던 만큼이나 타는 듯이 아팠다. 헤르미온느가 하는 말이 어렵잖이 들려왔다.

“난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내가 가져온 침낭을 사용해서, 오늘 밤엔 그냥 여기서 함께 자면 안될까?”

해리는 론이 그러자고 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을 이겨 낼 수 없었다. 그는 굴복해야만 했다.

“화장실 좀....”

그는 중얼거리고는, 뛰지 않으면서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방을 떠났다. “

그는 간신히 성공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에 빗장을 지르자마자, 그는 육신거리는 머리를 감싸 준 채 바닥에 쓰러져 거세게 몸부림을 쳤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분노가 자기영혼을 장악하는 것을 느꼈다. 오직 벽난로 불로만 밝혀진 길쭉한 방이 보였고, 덩치 큰 금발의 죽음을 먹는 자가 바닥에서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더 작은 형상이 곁에서 지켜보며 지팡이를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해리는 높고 차갑고 무자비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할까, 라울? 아니면 이건 그만하고, 내기니에게 먹이로 줄까? 나는 이번 일을 용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일로 나를 불러냈단 말이지? 내게 해리포터가 또다시 도망갔다는 말을 하려고? 드레이코, 라울에게 또 다른 우리의 분노의 맛을 보여 주어라..... 어서 해라. 그러지 않으면 바로 네 자신이 내 노여움을 느껴야 될 테니.”

통나무 하나가 불 속에 떨어졌다. 불길이 치솟으면서 겁에 질린 뾰족하고 하얀 얼굴을 비추고 지나갔다. 순간 해리는 깊은 물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가쁜 숨을 내쉬며 눈을 뜬다.

그는 차가운 검은색 대리석 바닥 위에 사지가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고, 코는 커다란 육조를 받치고 있는 은색 뱀의 꼬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었다. 해리는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말포이의 야위고 바짝 굳은 얼굴이 해리의 눈앞에 또렷이 남아있었다. 해리는 방금 본 광경에, 그리고 이제 드레이코가 볼드모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뒤흔들 것 같았다.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헤르미온느의 목소리가 들리가 해리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해리 칫솔 필요하니? 여기 있어.”

“응, 잘됐다. 고마워.”

해리는 평소 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며 대답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에게 문을 열어 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 제 10 장 크리처의 이야기

해리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응접실 바닥 위의 침낭 속에서 눈을 뜬다. 두꺼운 커튼 틈새로 하늘이 살짝 보였다. 밤과 새벽 사이의, 마치 물에 풀어 놓은 잉크 같은 서늘하고 선명한 푸른빛이었다. 론과 헤르미온느의 느리고 깊은 숨소리만 들려올 뿐, 사방은 고요했다. 해리는 바로 옆의 마룻바닥에 누워 있는 그들의 검은 형상을 힐끗 쳐다보았다. 기사도 정신이 발동한 론이 반드시 헤르미온느가 소파에서 내려놓은 쿠션 위에서 자야 한다고 박박 우겨 댔기 때문에, 그녀의 그림자가 론보다 약간 솟아올라 있었다. 헤르미온느의 팔은 마루위에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론의 손가락과 달을 듯이 살짝 떨어져 있었다. 해리는 두 사람이 손을 잡은채 잠든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러자 이상하리만치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해리는 어두운 천장과 거미줄이 대롱대롱 매달린 샹들리에를 옮겨다보았다. 불과 24 시간 전만 해도, 그는 결혼식 하객들을 안내하려고 햇빛이 쏟아지는 천막 입구에서 대기하고 서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마지 전생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리는 바닥에 누워 호크룩스에 대해, 그리고 덤블도어가 그에게 남긴 두렵고 어려운 임무에 대해 생각했다.....덤블도어.....

덤블도어의 죽음 이후로 줄곧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슬픔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결혼식에서 뮤리엘에게 들었던 비난이 해리의 머릿속에 질병처럼 단단히 자리를 잡아 버린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우상시했던 마법사에 대한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덤블도어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방치했다는게 사실일까? 만약 덤블도어가 두들리와 마찬가지였다면?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런 무관심과 학대를 그냥 방관하고 싶어 했다면? 덤블도어가 감금당한채 꿩꽁 숨겨진 여동생에게 들을 돌렸다는게 사실일까?

해리는 고드릭 골짜기에 대해서, 덤블도어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그곳에 잇는 무덤에 대해서 생각했다. 또한 덤블도어의 유언장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겨진 그 수수께끼 같은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갑작스레 어둠속에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밀려왔다.

왜 덤블도어는 해리에게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왜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덤블도어가 정말로 해리에게 신경을 쓰기는 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은 단지 연마하고 광을 내야 할 연장에 지나지 않았던 걸까? 절대로 신뢰하거나, 비밀을 털어 놓지 못하는?

해리는 벅 삼을 거라고는 그럼 비참한 생각들밖에 없는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뭔가 할 일을, 기분 전환이 될 만한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침낭에서 빠져나와 지팡이를 꺼내 들고 방에서 살금살금 걸어나왔다. 층계참에 서자, 그는 “루모스”라고 속삭였고, 지팡이의 빛에 의지하여 계단을 올랐다.

위층에는 해리와 론이 지난번에 이곳에 머물렀을 때 잠을 잤던 침실이 있었다. 해리는 그곳을 흘끗 들여다보았다. 옷장문은 열려 있었고, 침구들은 헝클어져 있었다. 해리는 아래층에 쓰러져 있던 트롤 다리 우산꽃이를 떠올렸다. 기사단이 떠나간 뒤에 누군가 집을 뒤진 것이다. 스네이프일까? 아니면 먼던구스일까? 그는 시리우스가 죽기 전에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이 집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좀도둑하지 않았던가? 해리의 시선은 시리우스의 고조부,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블랙이 들어가 있곤 했던 초상화를 더듬어 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텅 빈 채, 흐릿한 배경만 펼쳐져 있었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호드와트 교장의 사무실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게 분명했다.

해리는 제일 꼭대기 층까지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곳에는 오직 두개의 문만이 있었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문에는 시리우스라고 새겨진 명패가 붙어 있었다. 해리는 대부의 침실에 이제껏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가능한 한 불빛을 멀리까지 비추기 위해 지팡이를 높이 든 채, 해리는 문을 밀었다. 방은 깨 널찍했는데, 한때는 아주 근사했음에 틀림없었다. 조각을 아로새긴 나무 머리판이 붙은 커다란 침대와 긴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높은 유리창이 있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들리에의 초꽃이 속에는 타다 남은 양초 토막들이 있었으며, 굳어 버린 촛농이 녹아내린 고드름 모양으로 매달려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과 침대의 머리판은 뾰얀 먼지를 덮어쓰고 있었다. 그리고 상들리에와 커다란 나무 옷장 꼭대기 사이에는 거미줄이 걸쳐져 있었다. 방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놀란 생쥐들이 잽싸게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다. 십 대의 시리우스가 수많은 포스터로 사방을 도배해 놓는 바람에, 원래 벽에 발린 은빛이 도는 회색 비단 벽지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해리는 아마도 이 포스터들에 영구 부착 마법이 걸려 있어서 시리우스의 부모가 벽에서 떼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장남의 실내장식 취향을 높이 샀을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시리우스는 부모님을 약올리기 위해서 갈 데까지 간 듯했다. 나머지 모든 슬리데린 집안 사람들과 자신이 다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이 바랜 진홍색과 금색의 커다란 그리핀도르 깃발도 여러 개 가져다 놓았고, 머글 오토바이 사진들은 물론, 심지어 비키니 차림을 한 머글 아가씨들의 포스터(해리는 시리우스의 배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도 여러장 붙여 놓았던 것이다. 해리는 그 아가씨들이 머글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색 바랜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간직한 채, 사진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벽에 붙은 유일한

마법 사진이 이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서로 팔짱을 끈 채,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네명의 호그와트 학생들의 사진이었다.

해리는 아버지를 알아보고 뛸 듯이 기뻤다. 해리와 마찬가지로 그의 헝클어진 검은 머리는 뒤가 부스스 솟아 있었고, 그 역시 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전혀 꾸밈이 없이 잘생긴 시리우스가 있었다. 그의 약간 시건방져 보이는 얼굴은 해리가 살아생전에 보았던 것 보다 훨씬 더 젊고 행복해 보였다. 시리우스의 오른쪽에는 페티그루가 서 있었다. 그는 시리우스보다 머리 하나 이상 키가 작고 포동포동했으며, 눈물에 젖은 듯한 눈망울을 하고 있었다. 또한 제임스나 시리우스 같이 높이 추앙받는 반항아들과 더불어, 이렇듯 가장 멋진 무리에 자신이 끼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제임스의 왼쪽에는 루핀이 있었다. 그때에도 여전히 다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이 이 무리에 속해 있고 호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마찬가지로 기쁘고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해리가 이 사진에서 그러한 점들을 본 것은 단지 그가 자초지종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해리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려고 했다. 어쨌거나 시리우스는 해리에게 모든것을 물려주었고, 이 사진도 이제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사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리우스는 부모가 자신의 방을 다시 꾸미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했던 것이다.

해리는 바닥을 둘러보았다. 바깥 하늘이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한 줄기 빛이 카펫 위에 널브러진 종잇조각과 책들,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비추었다.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무가치하다고 판명된 듯하긴 했지만, 시리우스의 침실 역시 수색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몇몇 책은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종이가 찢겨 바닥에 흩어질 만큼, 거칠게 쥐고 흔든 것 같았다. 해리는 허리를 숙여 종이 몇장을 주워 들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중 한장은 바틸다 백성이 쓴 <마법의 역사>의 옛날 판본의 일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오토바이 정비 설명서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세 번째 종이는 손으로 쓴 것으로 꼬깃꼬깃 구겨져 있었다. 해리는 종이를 문질러 꿰다.

패드풋에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리의 생일 선물 말이야! 해리는 여태껏 받은 물건 중에서 그걸 제일 애지중지하고 있어. 한 살배기 주제에 벌써 장난감 빗자루를 타고 잼싸게 날아오르는 걸 봐서, 아주 맘에 든 모양이야. 네가 볼 수 있도록 사진 한장을 동봉할게. 너도 알다시피 그 빗자루는 지상에서 고작 60 센티미터 정도 밖에 떠오르지 않아. 하지만 해리는 하마타면 고양이를 치어 죽일뻔 했어. 게다가 페트니아가 성탄절 선물로 나에게 보낸 옷생긴 꽃병을 박살내 버렸지(물론 불평할 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제임스는 그 일을 매우 재밌어 했고, 해리가 분명 훌륭한 퀴디치 선수가 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는 집 안의 장식품들을 모조리 치워 놓고, 아이가 속도를 낼 때면 눈을 떼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해.

우리는 조용한 생일 축하 다과회를 가졌어. 우리 두 사람과 바틸다. 이렇게 셋이서 오붓하게 말이야. 바틸다는 늘 우리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시고, 해리를 아주 귀여워해 주셔. 네가 오지 못해서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물론 기사단 일이 우선이지. 게다가 해리가 자기 생일을 알 만큼 큰 건 아니니까! 제임스는 여기에 처박혀 지내며 조금씩 낙심하고 있어. 그이는 내색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알겠어. 덤블도어 교수님이 아직도 제임스의 투명망토를 갖고 있으니, 외출을 할 가망은 없는 셈이지. 만약 네가 올 수만 있다면, 제임스의 기분도 훨씬 나아질 텐데, 지난 주말에 위미가 여기 왔었어. 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 아마도 맥키논 부부에 대한 소식때문이겠지. 나도 그 소식을 듣고서, 저녁 내내 울었거든.

바틸다는 거의 매일 들러서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정말 멋진 할머니야! 물론 덤블도어 교수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달가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어야 할지모르겠어. 왜냐 하면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 덤블도어 교수님이.....

해리는 팔다리가 마비된 것 같았다. 무감각해진 손가락이 기적 같은 편지를 꼭 쥐고 한동안 끔찍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내부에서는 기쁨과 비통함이 똑같은 정도로 혈관을 따라 거세게 고동치며 일종의 소리 없는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처음 읽었던 것 이상의 의미를 캐낼 수는 없었다. 해리는 글씨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해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g'자를 썼다. 그는 'g'자가 든 글자들을 모두 찾아서 편지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그 글자들 하나하나가 베일 너머로 흘끗 보이는 친근한 작은 손짓처럼 느껴졌다. 이 편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잉크로 이 글자들을, 이 단어들을 해리, 즉 자기 아들에 대한 단어들을 새겨 넣으며 양피지 위로 움직였다는 증거였다.

해리는 눈가에 어린 물기를 서둘러 닦아내고, 이번에는 그 의미에 집중하며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것은 마치 어렴풋이 기억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은 고양이를 키웠었다. 아마 녀석은 고드릭 골짜기에서 죽었겠지. 우리 부모님처럼, 혹은 먹이를 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아 달아났을지도 모르고..... 시리우스는 해리에게 최초의 빗자루를 사주었었다..... 부모님은 바틸다 백섯을 알고 있었다. 덤블도어가 그들을 소개했던 걸까? 덤블도어 교수님이 아직도 제임스의 투명망토를 갖고 있다..... 거기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해리는 잠깐 멈춰서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왜 덤블도어는 제임스의 투명망토를 가져간 것일까? 해리는 교장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자신에게 “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망토가 필요치 않단다”라고 말했던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쩌면 능력이 모자라는 기사단원이 투명 망토의 도움을 필요로 했었고, 그래서 덤블도어는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을까? 해리는 일단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다.

위미가 여기 왔었어..... 페티그루, 그 배신자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정말일까? 그는 자신이 살아 있는 제임스와 릴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바틸다, 그녀는 덤블도어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 덤블도어 교수님이.....

덤블도어 무얼? 하지만 덤블도어에 대해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를테면, 언젠가 변신술 시험에서 꼴찌를 한 적이 있다든가, 애버포스와 마찬가지로 영소에게 마법을 건 적이 있다든가.....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을 훑어보았다. 아마도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 이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해리는 처음 이 방을 수색했던 사람만큼이나 예의라곤 전혀 없이, 닥치는 대로 종이들을 굽어모았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 보고, 책들을 훤히 보고, 의자위에 올라서서 손으로 옷장 꼭대기를 훑어 보고, 침대와 안락의자 밑까지 기어 들어가 보았다.

결국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을 때, 서랍장 밑에서 찢어진 종잇조각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해리는 그 종이를 끌어당겼다. 그것은 바로 릴리가 편지에서 언급했던 사진의 일부가 확실해 보였다. 검은 머리의 아기는 까르르 웃어 대며 작은 빗자루를 타고 사진 속을 빠르게 들락거렸고, 제임스의 것으로 보이는 한쌍의 다리가 아기를 뒤쫓고 있었다. 해리는 이 사진을 릴리의 편지와 함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편지의 뒷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15분이 흐른 뒤에, 해리는 어머니가 쓴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 사라졌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편지가 쓰인 그 이후로 16년이 지나는 동안 단순히 분실된 것일까? 아니면 이 방을 수색한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간 것일까? 해리는 첫 번째 장을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편지의 두번째 장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을지 모를 무언가에 대한 단서를 찾으면서 읽었다. 그의 장난감 빗자루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흥미 있었을리는 없다.... 첫 번째 장에서 잠재적으로 쓸모가 있다고 여겨진 것은 덤블도어에 대한 정보뿐이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 덤블도어 교수님이..... 무얼?

“해리? 해리! 해리!”

“나 여기 있어!”

해리가 외쳤다.

“무슨 일이야?”

문밖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다.

“일어나 보니까 네가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야!”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론! 해리를 찾았어!”

론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몇 층 아래서부터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다행이네! 나 대신 해리에게 멍텅구리 자식이라고 전해 줘!”

“해리. 아무 말 없이 사라지지 마, 제발 우리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나저나 여기는 왜 올라온 거야?”

헤르미온느는 완전히 엉망이 된 방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방금 찾아낸 걸 봐.”

해리는 어머니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헤르미온느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내려갔다. 해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 이르자, 헤르미온느는 해리를 옮려다 보았다.

“오오, 해리.....”

“그리고 이것도 봐.”

그는 찢어진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다. 헤르미온느는 장난감 빗자루를 타고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는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찾고 있었어.”

해리가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것 같아.”

헤르미온느는 훌끗 둘러보았다.

“네가 이걸 다 어질러 놓은거야, 아니면 네가 여기 왔을 때 이미 조금 어질러져 있던 거야?”

“누군가 나보다 먼저 이곳을 수색했어.”

해리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올라오는 길에 살펴보니 모든 방들이 어지럽혀져 있었어,  
그들은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지? 넌 알겠니?”

“기사단에 대한 정보겠지. 만약 스네이프가 그런 거라면.”

“하지만 스네이프는 이미 원하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내 말은, 그는  
기사단에 속해 있었잖아, 안 그래?”

“그렇다면.....”

해리는 자신의 짐작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닐까? 내 말은, 이 편지의 뒷장 말이야,  
우리 엄마가 언급하고 있는 바틸다가 누군지는 너도 알지?”

“누구?”

“바틸다 백섯.....그 저자 말이야.....”

“<마법의 역사>”

몹시 흥미롭다는 얼굴로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럼 네 부모님이 그분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야? 그분은 아주 출중한 마법  
역사가였어?”

“그리고 아직도 살아 있어.”

해리가 말했다.

“여전히 고드릭 골짜기에 살아. 결혼식에서 뮤리엘 할머니가 그분에 대해  
이야기 했어. 바틸다는 덤블도어 가족과도 알고 지냈나봐. 그분과 얘기해보면  
꽤 흥미로울 것 같아, 안그래?”

하지만 해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헤르미온느가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식의 미소를 좀 과하게 지었기 때문에, 해리는 기분이 상했다.  
그러므로 그녀를 마주하고 자신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위해, 편지와 사진을  
도로 뺏어서 목에 건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네가 왜 네 부모님과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해서 그분과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호크룩스를 찾는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거야. 그렇지 않니?”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헤르미온느는 서둘러서 다시 말을 이었다.

“해리, 나는 네가 정말 고드릭 골짜기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난 겁이나, 어제만 해도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찾아냈는지를 생각하면 무서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네 부모님이 묻힌 곳을 피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들은 네가 그곳을 찾아갈 거라 예상하고 있을 게 분명해.”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니야.”

여전히 헤르미온느에게 시선을 주리 않으며 해리가 말했다.

“뮤리엘 할머니가 결혼식에서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난 진실을 알고 싶어....”

그는 헤르미온느에게 뮤리엘이 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물론 그 얘기가 그토록 너를 화나게 했는지는 알겠어. 해리.....”

“화난 건 아니야.”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단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뿐이야.....”

“해리, 넌 정말로 뮤리엘 할머니 같은 고약한 할머니나 리타 스끼터로부터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니? 너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해리가 웅얼거렸다.

“게다가 리타가 너에 대해 썼던 그 모든 기사 중에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이 있는지는 네가 잘 알잖아! 도지 씨의 말이 옳아! 너는 어떻게 그따위 사람들이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한 네 기억을 더럽히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니?”

해리는 자신의 울분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돌렸다. 또다시 그 문제였다.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것. 그는 다만 진실을 원했다. 왜 모두 그토록 단호하게 해리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우리 부엌으로 내려가지 않을래?”

잠시 주저한 뒤 헤르미온느가 제안했다.

“아침거리가 있는지 찾아봐야지?”

해리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층계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이 층계참에 이어진 두 번째 문을 지날 때였다. 문득 도료를 입힌 작은 표지판 하단에 깊이 글씨를 새겨넣은 문패가 눈에 들어왔다. 아까는 어두워서 해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해리는 층계 맨 위에 멈춰 서서 그것을 읽어 보았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엎들어지게 새겨 넣은 다소 허세를 띠는 듯한 조그만 문패였는데, 퍼시 위즐리가 자신의 방문에다 붙여 놓을 법한 종류의 것이었다.

레귤러스 아크르투러스 블랙의 특별허가없을 시에는 출입을 금함.

당장 이유가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해리는 온몸에 강한 전율이 흘렀다. 다시 한 번 읽어 보았다. 헤르미온느는 이미 아래층 계단 중간에 서 있었다.

“헤르미온느”

해리가 불렀다. 자신의 목소리가 어찌나 침착하던지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이리 다시 올라와 봐”

“무슨 일인데?”

“R.A.B. 내가 그를 찾은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혁하고 숨을 쉬더니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네 어머니의 편지에서? 난 못봤는데?”

해리는 고개를 저으며 레귤러스의 문패를 가리켰다. 헤르미온느가 그것을 읽더니, 해리가 얼굴을 징그릴 정도로 그의 팔뚝을 꽉 붙잡았다.

“시리우스의 동생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죽음을 먹는 자였어.”

해리가 말했다.

“시리우스가 그에 대해 내게 얘기해 주었어. 그는 아주 어렸을 때 가담했는데, 머잖아 겁에 질려 탈퇴하려 했지..... 결국 그들이 그를 죽였어.”

“얘기가 딱 맞아 떨어져!”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만약에 그가 죽음을 먹는 자였다면, 그는 볼드모트와 접촉 할 수 있었을거야. 그리고 만약 그가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면, 볼드모트를 파멸시키고 싶어 했을 수도 있잖아!”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붙잡은 손을 놓더니 계단의 난간 쪽으로 허리를 숙이고 소리쳤다.

“론! 론! 여기로 올라와. 어서!”

잠시 후 론은 손에 지팡이를 쥐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채, 헐떡거리며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만약 이번에도 대형 거미라면, 난 그전에 아침이나 먹고.....”  
론은 헤르미온느가 말없이 가리키고 있는 레귤러스의 문패를 인상을 쓰며 바라보았다.

“뭐야? 시리우스의 동생이잖아. 아니야? 레귤러스  
아르크투러스.....레귤러스.....R.A.B.잖아! 그 로켓이.....혹시?”

“찾아보자”

해리가 말했다. 그는 문을 밀어 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가 지팡이로 손잡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알로호모라.”

찰칵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나란히 문턱을 넘어섰다. 레귤러스의 침실은 시리우스의 것보다 조금 작았지만, 그것과 똑같이 웅장한 분위기를 띠었다. 시리우스가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를 바랐던 반면, 레귤러스는 그 반대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았다. 침대 커튼이며, 벽, 창문까지 슬리데린의 색상인 에메랄드색과 은색으로 사방이 도배되어 있었다. 블랙 가문의 문장이, ‘TOUJOURS PUR(언제나 순수한)’라는 가훈과 함께, 정성스럽게 그의 침대 위에 그려져 있었다. 그 밑에는 노랗게 바랜, 신문에서 오려 낸 기사들이 한곳에 다닥다닥 붙어서 누덕누덕한 콜라주를 이루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방을 가로질러 다가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모두 볼드모트에 관한 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레귤러스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가담하기 전까지 몇 년간은 볼드모트의 팬이었던 것 같다.....”

헤르미온느가 기사들을 읽기 위해 침대에 앉자, 침대 커버에서 먼지가 풀썩 일었다. 한편 해리는 또 다른 사진 한장을 발견했다. 호그와트 큐디치 팀이 미소 지으며 액자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해리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의 가슴에 장식된 뱀 문양을 볼 수 있었다. 슬리데린 선수들이었다. 맨 앞줄 가운데에 앉아 있는 레귤러스는 죽시 알아볼 수 있었다. 형인 시리우스와 마찬가지로 검은 머리칼에 약간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리우스보다는 키도 더 작고 왜소했으며, 인물이 좀 떨어져 보였다.

“그는 수색꾼이었어.”

해리가 말했다.

“뭔?”

헤르미온느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년느 여전히 볼드모트에 관한 신문기사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앞줄 가운데에 앉았어. 그건 수색꾼 자리야..... 됐다. 신경 깨.” 해리는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론은 무릎을 끊고 바닥에 손을 짚은채, 옷장 밑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해리도 원가 숨길만한 곳이 어디일가 방을 둘러보면서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책상 역시 그들이 오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뒤져 본 후였다. 서랍의 내용물은 최근에 쓴아 놓은 흔적이 역력했고, 먼지가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쓸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오래된 깃펜, 험하게 다룬것이 분명한 옛날 교과서들, 그리고 최근에 깨진 잉크병과 그 안에 남아있던 끈끈한 잉크로 뒤덮인 서랍의 물건들 뿐이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해리가 잉크 묻은 손가락을 청바지에 쓱 닦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아씨오, 로켓!”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낡아 빠진 커튼의 주름 사이를 살피고 있던 론은 실망한 듯했다.

“정말 그런 거야? 여기엔 없는 거야?”

“오, 그래도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반대 마법에 걸려 있을 수도 있지.”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마법을 이용해서 소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마법 말이야.”

“볼드모트가 동굴 속의 돌 대야에다 걸었던 것처럼 말이지?”

자신이 어째서 소환 마법으로 가짜 로켓을 불러올 수 없었는지를 떠올리며 해리가 말했다. “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론이 물었다.

“우리가 직접 뒤져서 찾는 수밖에 없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론이 눈알을 굴리며 대답하고는 커튼 검사를 계속했다.

그들은 한 시간 넘게 방 전체를 살살이 수색했지만, 결국엔 로켓이 여기에 없다고 결론지을수 밖에 없었다.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다. 비록 더러운 층계참 유리창을 통해 흘러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강렬한 햇빛에 눈이 부셨다.

“어쩌면 이 집 안의 다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층계를 내려가는 동안 헤르미온느가 고집을 부리듯이 말했다. 해리와 론이 실망하면 할수록, 헤르미온느는 더욱 확신에 가득 차는 것 같았다.

“그가 그것을 파괴했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레귤러스는 그걸 볼드모트로부터 숨기고 싶어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치워야 했던 그 많은 끔직한 것들을 생각해봐. 시계는 아무한테나 추를 쌔 대고, 낡은 망토들은 론의 목을 조르려고 했지. 레귤러스는 로켓을 숨긴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법들을 걸어 놓았을지도 몰라. 비록 우리가 그걸....”

순간 해리와 론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는 마치 방금 기억력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 발을 허공에 든 채 서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다.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말이야.”

그녀가 속삭이며 말을 맺었다.

“뭐가 잘못됐어?”

론이 물었다.

“로켓이 있었어.”

“뭔?”

해리와 론이 동시에 외쳤다.

“응접실의 유리 진열장 속에 있었어. 아무도 그걸 열 수 없었지. 그리고 우리.....우리가.....”

해리는 마치 벽돌 하나가 가슴에서 뱃속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기억이 났다. 각자 한 번씩 그것을 열어 보려고 애쓰며 주거나 받거나 하는 와중에 해리는 심지어 그것을 직접 손에 쥐기까지 했었다. 결국 그것은 사마귀딱지 가루가 뿌려진 코담뱃갑과 모두를 꽂아떨어지게 했던 뮤직박스와 함께 쓰레기 봉투 속으로 내던져졌던 것이다.

“그때 크리쳐는 우리에게서 많은 물건을 빼돌렸어.”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그들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해리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에 매달릴 작정이었다.

“크리쳐는 이런 물건들을 모조리 부엌에 있는 자신의 벽장 속에 숨겨 놓곤 했어. 어서 가자.”

해리는 한 번에 두 칸씩 층계를 뛰어 내려갔다. 다른 두 사람도 해리를 쫓아 쿵쾅거리며 밑으로 내려갔다. 현관 복도를 지날 때, 그들이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바람에 시리우스 어머니의 초상화를 깨우고 말았다.

“지저분한 것들! 잡종! 인간쓰레기!”

그들이 지하 부엌으로 단숨에 뛰어 내려가 문을 쾅 닫아 버리자, 그녀는 그들 뒤에다 대고 악을 썼다.

해리는 부엌을 가로질려 달려갔다. 그리고 미끄러지다시피 하면서 크리쳐의 벽장문 앞에 멈춰 서서 그것을 비틀어 열었다. 거기엔 한때 집요정의 잠자리였던 더럽고 낡은 담요 웅치로 만든 보금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담요들은 더 이상 크리처가 다시 주원 온 자질구레한 장신구들로 반짝거리지 않았다. 거기에 남아 있는 거라고는 <타고난 고귀함:마법사들의 계보학>이라는 낡아 빠진 책 한권 뿐이었다. 해리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고, 담요들을 낚아챘다. 그리고 마구 흔들었다. 죽은 쥐 한마리가 톡 떨어지더니 음산하게 바닥 위를 데구루루 굴러갔다. 론은 꽁 소리를 내며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헤르미온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직 안 끝났어.”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크리쳐!”

커다란 평 소리와 함께, 싸늘하게 식은 텅 빈 벽난로 앞에 집요정이 출연해 나타났다. 해리가 매우 못마땅해하며 시리우스로부터 인계받았던 바로 그놈이었다. 사람의 반 정도 되는 자그만 몸집에 창백한 피부가 겹겹이 축 늘어져 있었으며, 박쥐 같은 양쪽 귀에는 하얀 털이 무성히 솟아나 있었다. 크리처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더러운 넝마 조각을 여전히 입고 있었고, 해리를 쏘이는 그의 경멸에 찬 표정은 소유권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걸모습만큼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주인님.”

크리처는 황소개구리같은 목소리로 깍깍거리면서 깊숙이 절을 했다. 그리고 자기 무릎에 얼굴을 댄 채 웅얼거렸다.

“저의 여주인님의 오래된 저택에 동족의 배신자 위즐리 집안 녀석과 잡종을 데리고 오셨군요.....”

“나는 너에게 누군가를 ‘동족의 배신자’ 나 ‘잡종’으로 부르는 것을 금한다.”

해리는 으르렁 거렸다. 이 집요정이 시리우스를 볼드모트에게 밀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리는 그의 돼지코와 핏 발 선 눈때문에 분명 그를 아주 불쾌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너에게 질문이 있다.”

해리가 말했다. 집요정을 내려다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네가 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기를 명령하는 바이다. 알았나?”

“네, 주인님.”

크리처는 다시 깊숙이 절을 하며 답했다. 하지만 해리는 그의 입술이 소리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크리처는 방금 전에 말하는 것이 금지된 욕설들을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2년 전에.....”

해리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심장은 이제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위층 응접실에 묵직한 목걸이 장식인 황금 로켓이 있었어. 우리는 그걸 봐렸지. 네가 그걸 다시 몰래 가져왔니?”

크리처가 해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몸을 일으키기까지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크리처는 답했다.

“예.”

“그건 지금 어디 있지?”

해리가 반색하며 물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도 얼굴이 환해졌다. 크리처는 자신의 다음 말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을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눈을 질끈 감았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해리가 따라 말했다. 순간 본노가 폭발했다.

“무슨 뜻이야? 없어졌다니?”

집요정이 덜덜 떨면서 몸을 세차게 흔들었다.

“크리처”

해리가 사납게 물었다.

“너에게 명령하노니.....”

“먼던구스 플레처.”

집요정은 여전히 눈을 질끈 감은 채, 순 목소리로 말했다.

“먼던구스 플레처가 그걸 모조리 훔쳐갔어요. 빨라 양의 사진과 씨시 양의 사진. 제 여주인님의 장갑, 멀린 1등급 훈장.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잔들.....그리고.....”

크리처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의 야원 가슴이 벌렁벌렁 움직이면서 두 눈이 파르르 떨리며 떠졌다. 그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 로켓. 레귤러스 주인님의 로켓도 가져갔어요. 크리처가 잘못했어요. 크리처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순간 크리처가 벽난로 쇠살대에 세워져 있는 부지깽이를 향해 돌진했고, 해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잽싸게 집요정을 덮쳐서 쓰러뜨린 것이다. 헤르미온느의 비명소리와 크리처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해리는 그들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크리처, 양전히 있으라고 명령한다!”

집요정이 동작을 딱 멈추는 걸 느끼자. 해리는 그를 놔주었다. 크리처는 차가운 돌바닥에 누운 채, 축 처진 눈으로 평평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해리, 크리처가 일어나도록 해줘!”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그래서 부지깽이로 자신을 때리게 하라고?”

해리가 콧방귀를 꺼었다. 그러고는 집요정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난 그럴 생각이 없어. 좋아, 크리처. 나는 진실을 원해. 네가 어떻게 먼던구스 플레처가 그 로켓을 훔쳐 갔다는 걸 알고 있지?”

“크리처가 그를 봤어요!”

크리처가 헐떡거리며 대답했다. 눈물이 그의 돼지코를 타고, 희뿌연 이빨이 가득 박힌 입속으로 흘러내렸다.

“그놈이 크리처의 보물들을 양손 가득 들고서 크리처의 벽장에서 나가는 것을 크리처가 봤어요. 크리처는 그 쥐새끼 같은 도둑에게 서라고 말했지만, 먼던구스 플레처는 비웃으며 달.....달아났어요.....”

“너는 로켓을 ‘레귤러스 주인님의 것’이라고 했지?”

해리가 말했다.

“왜 그랬지? 그건 어디서 난 거지? 레귤러스랑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크리처, 똑바로 앉아. 그리고 네가 로켓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레귤러스와  
관련된 모든 걸 내게 말해!”

집요정은 일어나 앉아서, 몸을 공처럼 움크린채, 젖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 그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이윽고 크리처가 입을 열었다.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소리가 울리는 고요한 부엌에서 제법 또렷하게 들렸다.

“시리우스 주인님이 달아났어요. 거참 시원하게 사라져 준 셈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악동이었고, 막돼먹은 행실로 나의 여주인님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으니까요. 하지만 레귤러스 주인님은 훌륭한 자부심을 지니고  
계셨지요. 그분은 블랙 가문의 이름과 순수혈통의 품위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수년간 그분은 어둠의 마왕에 대해 얘기하셨죠. 어둠의 마왕은  
머글과 머글 태생들을 통치하기 위해 숨어 있던 마법사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어요.... 레귤러스 주인님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어둠의 마왕의 편에  
가담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웠지요. 그분을 모신다는 게 매우  
행복했어요.... 그분이 가담한지 1년이 된 어느 날, 레귤러스 주인님은  
크리처를 보러 부엌에 내려오셨어요. 레귤러스 주인님은 항상 크리처를  
좋아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그분은.....”

늙은 집요정은 전보다 더 빨리 몸을 흔들었다.

“.....그분은 어둠의 마왕이 집요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볼드모트가 집요정을 필요로 했다고?”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 쪽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그들 역시 해리만큼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네, 그래요.”

크리처가 울먹거렸다.

“레귤러스 주인님은 자진해서 크리처를 제공했어요. 그것은 영예라고 레귤러스  
주인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분과 크리처에게 영예라고요. 크리처는 반드시  
어둠의 마왕이 명령한 일을 해야 하고.....그리고 집으로  
돌.....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크리처는 훨씬 더 빨리 몸을 흔들었고, 그의 숨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크리처는 어둠의 마왕에게 갔어요. 어둠의 마왕은 크리처에게 무슨  
일을 할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다만 크리처를 바다 옆의 동굴로 데리고  
갔어요. 동굴을 지나자 어두운방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하고 검은  
호수가 있었어요.....”

해리는 목 뒤에 난 솜털들이 바싹 곤두서는 걸 느꼈다. 크리처의 꺽꺽대는  
목소리가 마치 어두운 물을 가로질러 그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처럼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배가 한 척 있었어요.”

물론 거기엔 배가 한 척 있었다. 해리는 그 배를 알고 있었다. 한가운데 있는  
섬까지 마법사 한 명과 희생자 한 명을 태우고 가도록 주문이 걸린, 으스스한  
녹색의 작그마한 배를. 볼드모트는 이런 식으로 호크룩스를 둘러싸고 있는 방어  
마법을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생명체. 즉 집요정을  
빌려 옴으로써.....

“섬에는 마법약으로 가득 찬 대.....대야가 있었어요. 어.....어둠의  
마왕은 크리처에게 그것을 마시게 했어요.....”

집요정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르르 떨었다.

“크리처가 마셨어요..... 그걸 마시고 크리처는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았어요..... 크리처의 뱃속이 화끈거렸어요.....크리처는 구해달라고  
레귤러스 주인님을 큰 소리로 찾았어요. 블랙 마님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어둠의 마왕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그는 크리처가 마법약을 모두  
마시게 했어요.....그는 로켓을 빙 대야에 떨어뜨렸어요.....그는 대야에  
마법약을 다시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둠의 마왕은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크리처를 섬에 남겨놓고요.....”

해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볼드모트의 뱀 같은 새하얀 얼굴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의 새빨간 두 눈은 몸부림치는 집요정을 냉혹하게 지켜보았으리라. 타는 듯한 마법약이 불러일으킨 끔찍한 갈증에 굴복하는 순간, 머잖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집요정을. 하지만 해리의 상상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크리처가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크리처는 물을 원했어요. 크리처는 섬의 가장자리로 기어가서 검은 호수의 물을 마셨어요.....그러자 손이, 죽은 자들의 손이 물에서 튀어나왔고, 크리처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어떻게 도망쳤지?”

해리가 물었다. 어느새 속삭이고 있는 자신을 목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크리처는 흉측한 머리를 들어, 핏발 선 커다란 눈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레귤러스 주인님이 크리처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가 대답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인페리우스들로부터 탈출했지?”

크리처는 통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다.

“레귤러스 주인님이 크리처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가 되풀이했다.

“나도 안다고 하지만...”

“뻔한 일이잖아. 해리 그는 순간이동으로 탈출한 거야!”

론이 말했다.

“하지만.....순간이동으로 그 동굴을 들락거릴 수는 없어.”

해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덤블도어 교수님이.....”

“집요정의 마법은 마법사들의 마법과 같지않아. 그렇지 않아?”

론이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도 집요정들은 순간이동으로 호그와트를 들락날락할 수 있잖아.”

해리가 이 사실을 납득하기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볼드모트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가 단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때, 헤르미온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싸늘했다.

“물론 볼드모트는 집요정들의 능력을 하잘것없다고 여겼겠지. 모든 순수혈통들이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요정들이 자신이 갖지 못한 마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을 거야.....”

“집.....집요정들의 최고법은 주인님의 명령이에요.”

크리처가 깊어졌다.

“크리처는 집에 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크리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너는 명령대로 한거야, 그렇지?”

헤르미온느가 다정하게 말했다.

“너는 명령을 절대 거역하지 않았어!”

크리처는 변함없이 거세게 몸을 흔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네가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지?”

해리가 물었다.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에게 얘기했을 때, 레귤러스는 뭐라고 말했지?”

“레귤러스 주인님은 무척 걱정스러워했어요. 무척이나 걱정했어요.”

크리처가 깍깍대며 말했다.

“레귤러스 주인님은 크리처에게 숨어있으라고, 집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그리고 나서.....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레귤러스 주인님은 어느 날 밤에 벽장으로 크리처를 찾아오셨어요. 레귤러스 주인님은 평소와 달리 이상해 보였어요. 마음이 어지러운 듯했어요.....크리처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분은 크리처에게 그 동굴에, 크리처가 어둠의 마왕과 함께 갔었던 동굴에 데려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다. 해리는 그들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그려 볼 수 있었다. 겁에 질린 늙은 집요정과 시리우스를 무척이나 닮은, 호리호리한 검은 머리의 수색꾼의 모습을.....크리처는 지하 동굴로 내려가는 숨겨진 출입문을 어떻게 여는지, 그 조그만 배를 어떻게 떠오르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마법약이 담긴 대야가 있는 섬으로 향한 것은 바로 그의 소중한 레귤러스 주인님이었다.....

“그래서 그가 네게 그 마법약을 마시게 했니?”

해리가 난더리를 내며 물었다.

하지만 크리처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헤르미온느는 두손으로 재빨리 입을 가렸다. 순간 뭔가 깨달은 것 같았다.

“레....레귤러스 주인님은 주머니에서 어둠의 마왕이 갖고 있던 것과 비슷한 로켓을 꺼내셨어요.”

크리처가 말했다. 눈물이 그의 돼지코 양편으로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그분은 크리처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하셨고, 대야가 비면 로켓을 바꿔치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크리처의 흐느낌은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거의 깍깍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해리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신경을 집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분은.....명령하셨어요. 떠나라고.....그분을.....내버려 둔 채로요. 그분은 크리처에게.....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님에게 자신이 한 일을 절대로 이야기 하지말고.....첫 번째 로켓을 파괴하라고.....분부하셨어요. 그분은.....마법약을 모조리.....마셨고, 크리처는.....로켓을 맞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지켜봤어요....레귤러스 주인님이.....울밑으로 끌려.....내려가는걸.....”

“오오, 크리처!”

헤르미온느가 울면서 소리쳤다. 그러고는 집요정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껴안으려 했다. 집요정은 당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진저리를 치며 그녀로부터 물러섰다.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종이 크리처를 건드리다니! 크리처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마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녀를 ‘잠종’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명령했지!”

해리가 버럭 호통을 쳤다. 하지만 집요정은 이미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서 자신의 이마를 마룻바닥에 짚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두게 해!....못하게 해!”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너는 그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방식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모르겠니? “

“크리처.....그만! 그만 해!”

해리가 소리쳤다.

집요정은 바닥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덜덜 떨고 있었다. 초록색 콧물이 돼지코 언저리에서 번들거렸고, 그가 내리찧었던 창백한 이마는 이미 멍이들고 부어있었다. 한편 통통 부은 그의 눈은 뺨걸게 충혈되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해리는 이처럼 비참한 몰골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그래서 너는 그 로켓을 집으로 가져왔단 말이지?”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알아내기로 작심한 해리는 가차없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러면 너는 그걸 파괴하려고 했니?”

“크리처는 그것에 흡집조차 내지 못했어요”

집요정이 울부짖었다.

“크리처는 모든 것을 시도해 봤어요. 알고 있는 방법 모두를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그 로켓에는 강력한 주문이 너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걸 파괴하려면 우선 그걸 열어야 한다고 크리처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로 열리지 않았어요.....크리처는 스스로를 벌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도했고, 또 벌을 주었고, 또다시 시도했어요. 크리처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크리처는 로켓을 파괴하지 못했어요! 마님은 큰 슬픔에 빠져 정신이 나가셨어요. 레귤러스 주인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크리처는 마님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건 안되죠! 왜냐하면 레귤러스 주인님이 가....가족 누구에게도 동.....동굴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것을 금하셨으니까요.....”

크리처가 너무나도 심하게 흐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마디도 알아 들을수가 없었다. 크리처를 지쳐보는 헤르미온느의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크리처를 다시 만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크리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론조차 괴로운 표정이었다. 해리는 자기가 들은 사실들에 놀라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를 썼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크리처.”

마침내 해리가 말했다.

“볼드모트는 너를 죽이려고 했고, 레귤러스는 볼드모트를 파멸시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어.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시리우스를 볼드모트에게 밀고하고서 좋아했잖아. 나시사와 벨라트릭스를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 볼드모트에게 정보를 넘겨준걸 기뻐했단 말이지.....”

“해리, 크리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손등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크리처는 노예야. 집요정들은 나쁜, 심지어 야만적인 처우에 길들여져 있어. 볼드모트가 크리처에게 한 짓은 일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크리처 같은 일개 집요정에게 마법사들의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 충성할 따름이야. 블랙 부인은 친절했을 게 틀림없고, 레귤러스도 분명 그랬겠지.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그들의 생각을 앵무새처럼 쫓았던 거야. 그래. 나도 올라.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헤르미온느는 반박하려고 하는 해리의 말문을 막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결국 레귤러스는 마음을 바꿨다는 거지.....하지만 레귤러스는 크리처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렇지않니? 나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어. 레귤러스의 가족이 유서 깊은 순수혈통을 지킨다면, 크리처나 자기 가족 모두 훨씬 더 안전할 테니까. 레귤러스는 그들 모두를 보호하려고 애썼던거야.”

“시리우스는.....”

“시리우스는 크리처에게 잔인하게 대했지. 해리. 그런 짓은 절대 보기 좋은 일이 아니었어. 너도 그게 사실이란 걸 알잖아. 시리우스가 이곳에서 살기 위해 돌아왔을때. 크리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지내왔어. 크리처는 아마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간절히 바랐을 거야. 장담컨대 크리처가 나타났을때, ‘씨시 양’과 ‘벨라 양’은 그에데 더할나위 없이 상냥하게 대해 주었겠지. 그래서 크리처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 준거야. 나는 줄곧 언젠가 마법사들은 집요정들에게 한 짓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주장해 왔어. 보다시피 볼드모트도 그랬고.....시리우스도 마찬가지지.”

해리는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바닥에 누워 흐느끼는 크리처를 바라보며, 해리는 덤블도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것은 시리우스가 숨을 거둔지 불과 몇시간 뒤였다. 나는 시리우스가 크리처도 인간처럼 예민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크리처”

해리가 잠시 후 말했다.

“괜찮다면.....부탁인데.....일어나 앉아 주겠니?”

크리처가 땀꼭질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데 몇 분이 걸렸다.

힘겹게 다시 일어나 앉은 그는 어린아이처럼 주먹으로 두눈을 닦았다.

“크리처, 나는 너에게 월 좀 부탁하려고 해”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헤르미온느 쪽을 쳐다보았다.

부드럽게 명령을 내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명령이 아닌 척 꾸밀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도 해리의 말투가 변한 걸 인정하는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는 격려의 미소를 지어보였다.

“크리처. 나느 네가 부디 먼던구스 플레처를 찾으러 가 주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 로켓이 어디에 있는지.....레귤러스 주인님의 로켓이 어디에

잇는지를 알아야만 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우리는 레귤러스 주인님이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 짓기를 원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크리처는 주먹을 톡 떨어뜨리고 해리를 올려다보았다.

“먼던구스 플레처를 찾으라고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그를 이리로 데리고 와. 그리볼드 광장으로.”

해리가 말했다.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 줄수 있겠니?”

크리처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자, 해리에게 갑자기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해그리드가 준 주머니에서 가짜 호크룩스, 즉 레귤러스가 볼드모트에게 쓴 쪽지가 든 가짜 로켓을 꺼냈다.

“크리처, 나는 네가 이걸 가졌으면 좋겠어.”

해리가 로켓을 집요정의 손에 꼭 쥐어 주며 말했다.

“이것은 레귤러스의 것이야. 분명히 그분은 네가 해 준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네가 이걸 간직하길 바라실 거야!”

“너무 지나쳤나봐 친구.”

로켓을 한 번 바라본 집요정이 충격과 비탄의 비명을 내지르며 다시 바닥에 몸을 던지자, 론이 말했다.

그들이 크리처를 진정시키는 데는 거의 반시간이 걸렸다. 크리처는 자신의 소유물로 블랙 가문의 유품을 선사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복한 나머지, 무릎이 후들거려서 똑바로 일어설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내 그가 몇 발짝씩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되자, 모두 그를 벽장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리고 로켓을 자신의 저저분한 담요 속에 안전하게 감춰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한 그가 집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최우선으로 그것을 지켜 주겠노라고 크리처를 안심시켰다. 크리처는 해리와 론을 향해 두번 깊숙이 절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헤르미온느가 있는 방향 쪽으로도 정중한 인사를 하려는 듯 살짝 경련을 일으킨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취했다. 그러고는 그 커다란 평 소리를 내면서 사라졌다.

차례

제 11 장 뇌물

제 12 장 마법은 힘이다

제 13 장 머글 태생 등록 위원회

제 14 장 도둑

제 15 장 도깨비의 복수

제 16 장 고드릭 골짜기

제 17 장 바틸다의 비밀

제 18 장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

제 19 장 은빛 암사슴

제 11 장 뇌물

크리처가 인페리우스들로 가득한 호수에서 탈출할 수도 있었다면, 먼던구스를 잡아 오는 일쯤이야 길어도 몇 시간이면 족할 거라고 해리는 확신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잔뜩 기대에 들뜬 상태로 집안을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크리처는 그날 오전이 다 지나고, 심지어 오후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해 질 녘이 되자, 해리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헤르미온느 온갖 다양한 변신술을 시도해 보았으나 끝내 실패로 돌아간, 곰팡이가 잔뜩 핀 빵으로 때워야 했는데, 기운을 돋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크리처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망토를 두른 남자 두 명이 12 번지 광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집이 있는 쪽을 응시하며, 밤이 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보나마나 죽음을 먹는 자들이야.”

셋이서 응접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정찰하는 동안, 론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그들이 알고 있을까?”

“아닐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스네이프를 들여보내서 당장 우리를 잡았겠지, 안그래?”

“너는 스네이프가 이 집에 들어왔다가, 매드아이의 저주로 혀가 묶였을 거라고 생각하는거야? ”

“응”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면, 스네이프가 저놈들에게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었을 거 아냐, 안 그래? 하지만 저자들은 아마도 우리가 나타나지 않나 감시 중인 것 같아. 어쨌든 그들은 해리가 이 집의 주인이란 걸 알고 있어.”

“그들이 어떻게?”

해리가 물었다.

“마법 유언장은 마법부의 조사를 받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이곳을 너에게 물려준걸 놈들도 당연히 알았을 거야.”

죽음을 먹는 자들이 밖에 있다는 사실은 12 번지 안의 불길한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들은 위즐리 씨의 패트로누스 이후로 어느 누구로부터 바깥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다. 차츰 긴장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쩍 초조해하며 짜증이 많아진 론은 주머니 속에서 딜루미네이터를 가지고 노는 성가신 버릇이 생겨났다. 이것은 특히 헤르미온느의 화를 부채질했다. 그녀는 크리처를 기다리는 동안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연구하며 소일하고 있었는데, 불빛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전혀 달가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두지 못해!”

크리처가 나간 지 3 일째 되는 날 밤, 헤르미온느가 벼락 소리쳤다. 응접실의 모든 불빛이 또다시 사라진 찰나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론이 다시 딜루미네이터를 찰칵 눌러서 불빛을 돌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뭔가 좀 정신을 쓴을 만한 유용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니?”

“무슨 일? 동화책 읽기 같은거?”

“덤블도어 교수님이 내게 이 책을 남겨 주셨다고, 론.....”

“.....그리고 나한텐 딜루미네이터를 남겨 주셨지. 그러니까 난 이걸 써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두 사람의 말다툼을 참지 못한 해리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부엌을 향해서 총계를 내려갔다. 부엌이야말로 크리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출곧 들락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관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금속성의 딸깍거리는 소리와 문의 걸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해리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는 지팡이를 꺼낸 후 잘린 요정 머리 옆의 그늘진 구석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렸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가로등 불이 밝혀진 광장이 설핏 보이더니, 망토를 입은 한사람이 살며시 현관 복도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침입자는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고, 곧이어 질문을 던지는 무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베루스 스네이프?”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뿐연 형상이 부스스 솟아나더니, 손을 지켜들고 그를 향해 돌진했다.

“당신을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알버스”  
조용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순식간에 저주가 깨졌다. 뿐연 형상은 다시 평하고 터져 버렸고, 그로 인해 생긴 자옥한 회색 먼지구름 때문에 새로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해리는 지팡이로 그 사람의 한가운데를 겨냥했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해리는 블랙 부인의 초상화를 깜박 잊고 있었다. 그의 고향 소리에 부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활짝 열리면서 부인이 소리를 질러 댔다.

“잡종들, 내 집을 더럽히는 쓰레기들……”

해리의 등 뒤에서 론과 헤르미온느가 콩쾅거리며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두 사람은 해리와 마찬가지로 저 아래 현관 복도에서 이제 양팔을 들고 서 있는 정제불명의 남자를 향해 지팡이로 겨누고 있었다.

“쏘지 마! 나야, 리무스!”

“오, 세상에!”

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탄성을 내고는, 대신 지팡이를 블랙 부인에게 겨누었다.

쾅 소리와 함께 커튼이 휙 하고 다시 닫히자,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론도 지팡이를 내렸다. 하지만 해리는 그러지 않았다.

“모습을 드러내!”

해리가 소리쳤다.

루핀은 항복의 표시로 여전히 두손을 높이 치켜든 채, 등잔불빛 아래로 걸어 나왔다.

“나는 리무스 존 루핀, 늑대인간이다. 때로는 무니라고도 하지. 호그와트 비밀 지도를 발명한 네 명 중의 하나이며, 보통 통스라고 알려진 님파도라와 결혼했어. 그리고 너에게 패트로누스를 불러내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지, 해리. 그건 수사슴모양이야.”

“오, 됐어요.”

해리가 지팡이를 내리며 말했다.

“그래도 저는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렇지요?”

“너희의 전직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서 말하자면, 확인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론, 헤르미온느, 너희는 그렇게 성급히 방어 태세를 늦추면 안 돼.”

그들은 루핀을 향해 총계를 뛰어 내려갔다. 두꺼운 검은색 여행용 망토를 두른 루핀은 매우 지쳐 보였지만. 그들을 다시 보게 되어 무척 기쁜 듯했다.

“세베루스의 흔적은 없니?”

그가 물었다.

“없어요.”

해리가 말했다.

“밖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모두 괜찮나요?”

“그렇단다.”

루핀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감시당하고 있어. 바깥 광장에는 죽음을 먹는 자 두 명이 있더구나.”

“저희도 알아요……”

“나는 정확하게 바로 현관문 밖 계단 맨 꼭대기로 순간이동을 해야만 했다. 그자들이 나를 볼 수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들은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몰라.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저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았을거야. 놈들은 그냥 너와 관계된 곳은 어디든 감시하고 있는 거야, 해리. 어서 아래층으로 가자. 얘기할 게 많다. 그리고 너희가 버로우를 떠난 뒤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궁금하구나.”

그들은 부엌으로 내려갔다. 헤르미온느가 지팡이로 벽난로를 가리키자, 순식간에 불길이 일어났다. 따뜻한 불빛은 황량한 돌벽조차 아늑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긴 나무 식탁이 윤기를 내며 반짝거렸다. 루핀은 여행용 망토 속에서 버터 맥주 몇 병을 꺼냈고,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나는 3일 전에 이곳에 올 수도 있었지만, 나를 미행하는 죽음을 먹는 자를 떨쳐 내야 했단다.”

루핀이 말했다.

“그래, 너희는 결혼식 후에 곧장 이리로 온 거니?”

“아니요.”

해리가 말했다.

“토트넘 코트 로드에 있는 카페에서 죽음을 먹는 자 두 명과 맞닥뜨린 후에 왔어요.”

순간 루핀은 자산의 버터 맥주 대부분을 앞에다 엎지르고 말았다.

“뭐라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루핀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낼 수 있었다나 말이냐? 사라지는 순간에 꽉 붙들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순간이동을 하는 사람을 뒤쫓는 건 불가능해!”

“그런 데다 그자들이 그 시간에 토트넘 코트 로드를 거쳐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해리가 말했다.

“우리는 해리가 아직도 추적 마법에 걸려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헤르미온느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불가능해.”

루핀이 대답했다. 그러자 론은 우쭐한 표정이었고, 해리는 크게 안도했다.

“다른 건 몰라도, 만약 아직도 해리가 추적 마법에 걸려 있다면, 그자들이 해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잖아, 안 그러니? 그렇지만 그놈들이 어떻게 토트넘 코트 로드까지 너희를 쫓아올 수 있었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걱정이다 정말 걱정이야.”

루핀은 몹시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해리로서는 그건 나중 문제였다.

“이제 저희가 떠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해 주세요. 위즐리 아저씨가 가족이 안전하다고 알려 준 이후로 아무 소식도 못 들었어요.”

“그래, 킹슬리가 우리를 구했지.”

루핀이 말했다.

“그의 경고 때문에 대부분의 결혼식 하객들은 놈들이 도착하기 전에 순간이동으로 떠날 수 있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요, 아니면 마법부 사람들이요?”

헤르미온느가 끼어들었다.

“둘 다 섞여 있었지.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이제 한통속이야.”

루핀이 말했다.

“열두 명 정도였는데, 그놈들은 네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다, 해리. 아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놈들이 스크림저를 죽이기 전에 네 행방을 캐내기 위해 고문했다는구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너를 저버리지 않은 거지.”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도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충격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스크림저를 좋아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만약 루핀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해리를 지키려고 애쓴 것이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버로우를 삶살이 수색했어.”

루핀이 말을 이었다.

“굴 귀신을 발견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 그리고 우리 중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몇 시간 동안 심문했어. 그들은 너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했단다, 해리. 하지만 당연히 기사단 말고는 아무도 네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 그들이 결혼식장을 공격하는 동안에, 더 많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 전국에서 기사단과 관계된 모든 집에 침입했단다.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어.”

루핀이 다음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재빠르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놈들은 아주 거칠게 굴었단다. 데달루스 디글의 집을 완전히 불태웠어.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그는 거기에 없었지. 그리고 통스의 가족에게 쿠루시아투스 저주를 써서, 네가 그들의 집에 왔다가 그 후에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내려고 애썼단다. 그들 모두 무사해. 분명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 말고는 괜찮아.”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 모든 보호 마법들을 통과했단 말인가요?”

통스의 부모님 댁 정원으로 떨어졌던 그날 밤에 그 보호 마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떠올리며 해리가 물었다.

“네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해리, 이제 죽음을 먹는 자들이 마법부의 전권을 장악했다는 거야.”

루핀이 말했다.

“그놈들은 더 이상 신원확인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꼼짝한 저주들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야. 게다가 우리가 그들을 대비해서 걸어 놓은 모든 방어 마법을 뚫고 들어왔지. 일단 들어온 후에는, 자신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더구나.”

“그렇다면 해리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에 대해 그놈들이 무슨 구실이라도 대고 있는 건가요?”

헤르미온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말이지.....”

루핀이 주저하더니, 접힌 <예언자 일보> 한 부를 꺼내 놓았다.

“자.....”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해리에게 그것을 밀어 주며 루핀이 말했다.

“너도 결국 머잖아 알게 될 테니까. 그게 바로 너를 쪓는 구실이란다.”

해리는 신문을 짹 펼쳤다. 자신의 커다란 얼굴 사진이 신문의 1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그 위에 적힌 기사 제목을 읽었다.

알버스 덤블러도어의 죽음의 유력한 용의자

론과 헤르미온느는 분통을 터트리며 씩씩거렸지만,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치워 버렸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기사에 뭐라고 쓰여 있을지 뻔했다.

덤블도어가 죽었을 때 탑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덤블도어를 진짜로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리타 스키타가 마법 세계에 이미 떠들어 댄 것처럼, 덤블도어가 추락한 직후에 그곳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오는 해리의 모습이 목격되었던 것이다.

“유감이구나, 해리.”

루핀이 말했다.

“그렇다면 죽음을 먹는 자들이 <예언자 일보>도 접수한 건가요?”

헤르미온느가 잔뜩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루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겠죠?”

“쿠데타는 순조롭게, 사실상 소리 없이 이루어졌단다.”

루핀이 말했다.

“스크림저의 살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그가 사임했다는 거였어. 그리고 그 자리에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린 파이어스씨크니스가 앉혀졌지.”

“왜 볼드모트는 스스로 마법부 장관이 되지 않는 거죠?”

론이 물었다.

루핀이 웃음을 터트렸다.

“그럴 필요가 없단다. 론. 실질적으로 이미 장관이나 다름없는데 뭔 하러 마법부 책상 앞에 앉아 있겠니? 볼드모트가 자신의 권력을 마법부 너머로까지 자유롭게 펼치는 동안, 그의 꼭두각시인 씨크니스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차렸지. 지난 며칠 사이에 마법부 정책에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니까. 많은 이들이

볼드모트가 배후에 있는 게 틀림없다고 수군거리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건, 사람들이 수군대기만 할뿐이라는 거야.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을 엄두조차 못 내는 거란다. 자신들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자신들의 가족이 표적이 될 경우를 생각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 볼드모트는 아주 영리하게 게임을 하고 있단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공개적인 반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가면을 쓴채로 혼란과 불확실함,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거야.”

“마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 중에는 마법 세계에 볼드모트 대신 저에 대해 경고하는 게 포함되어 있군요.”

해리가 말했다.

“그것도 분명 그중 하나이지.”

루핀이 말했다.

“그것은 아주 절묘한 조치였지. 이제 덤블도어 교수님이 죽었으니, ‘살아남은 아이’인 너는 확실히 볼드모트에 대한 모든 저항의 상징이자 구심점인 셈이지. 하지만 네가 늙은 영웅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기함으로써 볼드모트는 네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을 뿐 아니라, 너를 옹호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의혹과 공포를 불어넣었단다. 그 사이에, 마법부는 머글 태생들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지.”

루핀은 <예언자 일보>를 가리켰다.

“2면을 봐라.”

헤르미온느는 <가장 사악한 어둠의 마법의 비밀> 책을 만질 때와 똑같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서 신문을 펼쳤다.

“머글 태생 등록.”

그녀가 소리 내어 읽었다.

“마법부는 소위 머글 태생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마법의 비밀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스터리 부서에 의해 실시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마법은 오직 마법사들이 출산을 할 때에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증명된 마법사 조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 소위 머글 태생은, 절도나 강탈에 의해서 마법 능력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법부는 그와 같은 마법 능력의 강탈자들을 뿌리뽑기로 결의했다. 이 때문에 소위 머글 태생이라 불리는 모든 이에게, 신설된 머글 태생 등록 위원회에서 행하는 심문에 응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론이 말했다.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단다, 론.”

루핀이 말했다.

“바로 지금 머글 태생들이 소집되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마법을 ‘훔쳤다’는 거죠?”

론이 물었다.

“그건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만약 마법이 훔칠 수 있는 거라면, 아마 스','=',\$존재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다.”

루핀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소한 한 명이라도 가까운 마법사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마법 능력을 불법적으로 획득했다고 간주될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론은 헤르미온느를 힐끗 곁눈질하더니 말했다.

“만약 순수혈통들과 혼혈들이 머글 태생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서약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헤르미온느가 제 사촌이라고 말하겠어요.....”

헤르미온느가 론의 손을 잡고는 깍 쥐었다.

“고마워, 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론은 다시 그녀의 손을 꼭 붙잡으며 열렬히 말했다.

“내가 너한테 우리 집 가계도를 가르쳐 줄게. 네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떨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론,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수배자인 해리 포터와 도주 중이야.

그런 건 문제도 아니라고, 만약에 내가 학교로 돌아간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볼드모트가 호그와트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죠?”

헤르미온느가 루핀에게 물었다.

“이제 모든 젊은 마녀와 마법사들에게 학교 출석이 강요되고 있다.”

그가 대답했다.

“어제 발표됐어. 그건 일대 변화지. 예전에는 한 번도 학교 출석이 의무였던 적이 없으니까. 물론 영국의 거의 모든 마녀와 마법사들이 호그와트에서 교육받아 왔지만, 부모에게는 선호에 따라 자식들을 집에서 가르치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낼 권리가 있었단다. 이런 식으로 볼드모트는 마법사 세계 전체를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감시하에 두려는 거야. 그것은 머글 태생들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단다. 왜냐하면 입학 허가를 받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혈통 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니까. 그건 곧 마법부에 자신이 마법사 후손임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뜻이지.”

해리는 메스껍고, 화가 났다. 지금 이 순간, 잔뜩 흥분한 열한 살짜리 꼬마들이 새로 구입한 마법 책 더미에 파묻혀 신나게 읽고 있을 것이다. 호그와트는 구경도 못하고, 어쩌면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건..... 그건.....”

해리는 이 끔찍한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 말을 더듬거렸다. 그러자 루핀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루핀은 잠시 말을 주저했다.

“네가 확실히 밝힐 수 없다고 해도 난 이해할 거야, 해리. 하지만 기사단은 덤블도어 교수님이 너에게 어떤 임무를 남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네, 남겼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론과 헤르미온느도 관련되어 있어요. 얘들은 저와 함께할 거예요.”

“그 임무가 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해리는 무성하지만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나이보다 너무 일찍 주름이 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다른 대답을 해 줄 수 없음을 애석해했다.

“그럴 수 없어요, 리무스. 죄송해요. 만약 덤블도어 교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 역시 말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루핀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쩌면 네게 조금은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 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지? 내가 함께 가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너희가 무슨 일을 할 건지 내게 정확히 알려 줄 필요도 없다.”

해리는 망설였다. 그것은 매우 솔깃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루핀이 그들과 줄곧 함께 지낸다면, 어떻게 그들의 임무를 비밀로 할 수 있을지 상상이 가질 않았다. 그런데 헤르미온느는 어리둥절한 기색이었다.

“통스는 어쩌고요?”

그녀가 물었다.

“통스가 어쨌단 말이냐?”

루핀이 말했다.

“그러니까.....”

헤르미온느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은 결혼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가 버린다면 통스 기분이 어떨겠어요?”

“통스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루핀이 말했다.

“처가에 있을 테니까.”

루핀의 말투가 웬지 수상했다. 그것은 거의 싸늘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통스를 친정에 숨겨 놓는다는 계획 역시 미심쩍은 데가 있었다. 어쨌거나 그녀 역시 기사단의 일원이며, 해리가 알기로는, 분면 이 싸움의 한복판에 끼기를 바랄 것이다.

“리무스.”

헤르미온느가 주저하며 말했다.

“다 괜찮은 거죠? 제 말은..... 당신과.....”

“고맙지만 아무 문제 없어.”

루핀이 매섭게 답했다.

헤르미온느가 얼굴을 붉혔다. 또 한 번의 어색하고 당혹스러운 침묵이 흐른 뒤, 루핀이 입을 열었다. 뭍시 불쾌한 일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통스는 아기를 낳을 거란다.”

“오오, 잘됐어요!”

헤르미온느가 깎 소리를 질렀다.

“굉장하군요!”

론도 신이 나서 외쳤다.

“축하해요.”

해리가 말했다.

루핀은 억지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그건 차라리 인상을 쓴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았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그래..... 너희는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니? 그럼 세 명이 네 명이 되는 건가? 내 생각에 덤블도어 교수님도 반대하지 않으셨을 게다. 뭐니 뭐니 해도, 그분은 나를 너희의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임명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우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맞닥뜨리거나 상상 조차 하지 못했던 마법을 상대하고 있는거야.”

론과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해리를 바라보았다.

“단지..... 단지 분명히 하려는 건데요.”

해리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로 통스를 친정에 남겨 두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바라는 건가요?”

“통스는 거기서 아주 안전할 거야. 장인 장모님이 보살펴 줄테니까.”

루핀은 거의 무관심하게 보일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다.

“해리, 제임스 역시 네 곁에 붙어 있기를 바랐을 거라고 장담한다.”

“저.....”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라면 오히려 왜 당신이 자기 아이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루핀의 얼굴에서 핏기가 썩 가셨다. 갑자기 부엌 안의 온도가 10 도쯤 떨어진 것 같았다. 론은 마치 부엌 구석구석을 머리에 담아 두라는 명령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척했다. 한편 헤르미온느의 눈은 연방 해리와 루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너는 이해를 못하는 구나.”

마침내 루핀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해리가 말했다.

루핀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난..... 난 통스와 결혼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었어. 그 후로 줄곧 아주 후회하고 있단다.”

“알았어요.”

해리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달아나려 하는군요?”

그러자 루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의자가 벌렁 뒤로 넘어졌다. 루핀이 그들을 어찌나 사납게 노려보았던지, 해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루핀의 얼굴 위에 드리워진 늑대의 그림자를 처음으로 목격했다.

“너희는 내가 아내와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니? 난 애초에 그녀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난 그녀를 추방자로 만들고 말았어!” 루핀은 자신이 쓰러뜨린 의자를 한쪽으로 걷어찼다.

“너희는 내가 기사단에 있을 때의 모습만을 봐 왔지. 혹은 호그와트에서 던블도어 교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나! 너희는 대부분의 마법 세계 사람들이나 같은 족속을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내 병을 알게 되면, 그들은 내게 말조차 걸려고 들지 않아! 너희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니? 심지어 통스의 가족조차 우리의 결혼을 싫어했지. 하긴 어느 부모가 자신의 외동딸을 늑대인간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하겠니? 그리고 그 그야이는.....그야이는.....”

루핀은 진짜로 자신의 머리 한 움큼을 쥐어뜯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나와 같은 종족은 보통 번식을 하지 않아! 그 아이도 나처럼 될 거야. 그건 확실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용서 할 수 있겠니? 뻔히 알면서도 내 병을 아무 죄 없는 아이한테 물려주었는데. 설사 어떤 기적에 의해서, 그 애가 나처럼 되지는 않는다 해도, 평생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훨씬 나을 거야! 백배는 더 낫겠지!”

“리무스!”

헤르미온느가 눈물을 글썽인 채, 목이 메어서 말했다.

“그런 말 마세요. 어느 아이가 당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오오, 난 모르겠어, 헤르미온느.”

해리가 불쑥 내뱉었다.

“나는 정말이지 그가 부끄러우니까.”

해리도 자신의 분노가 어디에서 솟아오르는 건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노에 못 이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루핀은 마치 해리에게 한 대 얹어맞기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 새로운 정권이 머글 태생을 나쁘게 생각한다면.”

해리가 소리쳤다.

“도대체 아버지가 기사단에 속해 있는 늑대인간 혼혈에게는 무슨 짓을 할까요? 제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당신에게 아이를 버리고 우리와 모험을 떠나라고 말할 것 같은가요?”

“어떻게.....어떻게 네가 감히 그런 말을?”

루핀이 말했다.

“이건 위험을趨向 좋고 싶다거나, 개인적인 영예를 얻으려는 욕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감히 그런.....”

“제 생각엔 당신이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요.”

해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리우스의 뒤를 이을 생각이신가 본데.....”

“해리, 그만 해.”

헤르미온느가 애원했지만, 해리는 납빛으로 변해 버린 루핀의 얼굴을 계속 노려보았다.

“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

해리가 쏘아붙였다.

“내게 디멘터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런 겁쟁이라니.”

루핀이 어찌나 빨리 지팡이를 뽑아 들었는지, 해리는 지팡이를 훨씬 끌어들여 없었다. 커다랗게 쾅 소리가 나면서 해리는 한방 맞은 사람처럼 몸이 뒤로 뿜날아가는 걸 느꼈다. 부엌 벽에 부딪힌 그가 바닥으로 주르르 미끄러졌을 때, 문가에서 획 사라지는 루핀의 망토 뒷자락이 훌끗 보였다.

“루핀! 루핀! 돌아와요!”

헤르미온느가 소리쳤지만, 루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울부짖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거야 쉽지”

해리는 이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벽에 부딪힌 자리에 흙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

해리는 헤르미온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헤르미온느한테 괜한 시비 걸지 마!”

론이 으르렁거렸다.

“안돼..... 안돼..... 우리는 절대 싸워선 안 돼!”

헤르미온느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루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론이 해리를 나무랐다.

“그가 그런 말을 들을 짓을 하잖아.”

해리가 대꾸했다. 어지러운 영상들이 잇달아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베일 너머로 떨어지는 시리우스..... 부상을 입은 채 허공에 매달려 있는 덤블도어..... 초록 불빛과 함께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부모란....”

해리가 입을 열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아니면, 결코 자기 자식을 떠나서는 안 돼.”

“해리.....”

헤르미온느가 위로의 손길을 뻗으며 말했지만, 그는 몸을 훡 빼고 물러섰다. 그의 눈은 헤르미온느가 불을 지펴 놓은 벽난로에 고정돼 있었다. 언젠가 해리는 저 벽난로에서 나온 루핀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해리는 아버지에 대해 확신을 얻고 싶어 했고, 루핀은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이다.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루핀의 창백한 얼굴이 해리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쓰라린 후회가 밀려왔다. 론과 헤르미온느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해리는 두 사람이 자신의 등 뒤에서 서로를 쳐다보며 말없이 의사를 나누고 있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해리가 획돌아서자, 두 사람이 황급히 서로에게 고개를 돌렸다.

“나도 알아. 그를 겁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래, 그러지 말아야 했어.”

론이 즉시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 겁쟁이처럼 행동했어.”

“설령 그렇다고 해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나도 알아.”

해리가 재빨리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가 통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안 그래?”

그는 더 이상 변명하는 듯한 어조를 숨길 수가 없었다. 헤르미온느는 참 딱하다는 표정이었고, 론은 잘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해리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라면 과연 그가 방금 루핀에게 한 말을 지지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분노했을까?

적막한 부엌 안이, 방금 벌어진 사건의 충격과 혼과 헤러미온느의 무언의 비난으로 인해서 웅성거리는 것만 같았다. 루핀이 가져온 <예언자 일보>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신문 1면에 실린 해리의 얼굴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해리는 신문을 향해 걸어가더니, 자리에 앉아 아무 면이나 펼쳐 들고 읽는 시늉을 했다. 하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루핀과의 말다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예언자 일보> 너머로 혼과 헤르미온느가 다시 말없이 눈길을 주고받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해리는 시끄럽게 신문을 넘겼다. 순간 덤블도어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사진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가족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덤블도어 일가. 원쪽부터 오른쪽으로, 알버스, 갓난아이, 아리애나를 안고 있는 퍼시발, 켄드라, 에버포스.

갑자기 흥미가 끌린 해리는 그 사진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 했다. 덤블도어의 아버지인 퍼시발은 빛바랜 옛날 사진 속에서 조차 반짝거리는 듯한 눈을 가진 미남이었다. 아기인 아리애나는 겨우 뺑 한 덩어리만 했고, 더 이상 생김새를 구별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인 켄드라는 칠흑 같은 머리를 높이 올려 쪽을 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조각 같은 데가 있었다. 해리는 그녀의 검은 눈과 높은 광대뼈, 곧은 콧날, 깃이 목까지 올라오는 비단 드레스를 정중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예전에 보았던 미국 원주민 사진을 떠올렸다. 알버스와 에버포스는 잘 어울리는 레이스 깃이 달린 재킷을 입고 있었고, 똑같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알버스가 몇 살 더 많아 보이긴 했지만, 그 외에는 두 소년이 너무나 비슷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알버스의 코가 부러지기 전이었고, 안경을 쓰지도 않았을 때이기 때문이다. 신문 밖으로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가족은 아주 행복하고 정상적으로 보였다. 아기인 아리애나는 솔 밖으로 살짝 팔을 휘젓고 있었다. 해리는 사진 위에 적힌 표제를 보았다.

곧 발간될 알버스 덤블도어의 전기로부터 독점 기재  
-리타 스키터

해리는 이 기사를 읽는다 해도, 지금보다 더 이상 불쾌하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읽기 시작했다.

콧대 높고 거만한 켄드라 덤블도어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남편 퍼시발의 체포와 아즈카반 구속 이후에, 더 이상 몰드온 더 울드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가족을 몽땅 데리고 고드릭 골짜기에 다시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고장은 훗날 그 사람으로부터 해리 포터가 괴이한 탈출을 해서 유명해진 바로 그곳이다.

몰드 온 더 울드와 마찬가지로 고드릭 골짜기 역시 수많은 마법사 가족들의 고향이었지만, 켄드라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전 고장에서처럼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호기심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마법사 이웃들의 친절한 접근을 거듭해서 거절한 끝에, 그녀는 곧 자기네 가족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안심하게 되었다.

“환영하는 의미로 집에서 만든 냄비 모양의 케이크를 한판 들고 갔더니, 면전에 대고 문을 쾅 닫아 버리더라고요.”

바틸다 백섯은 증언한다.

“그들이 그곳으로 온 첫해에 저는 남자 아이 두 명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사 온 그해 겨울에 제가 달밤에 플랜젠탠(겨울에 달빛 받을 때 따는 것으로 알려진 마법약 재료 : 역주)을 따고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켄드라가 아리애나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는 걸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집에 딸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잔디 위에서 그 아이를 한 바퀴 산책을 시키더군요. 계속 꼭 붙잡은 채 말이죠. 그러더니 다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전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했지요.”

켄드라는 고드릭 골짜기로의 이주가 아리애나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한,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수년간 계획해 온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시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했다. 아리애나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일곱 살이 채 되기 전이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마법 능력이 있다면, 그 나이쯤에 드러난다는 데 동의 한다. 하지만 현재 생존한 사람들 중에서, 아리애나가 아주 희미한 마법 능력의 기미라도 보여 주었음을 기억 하는 이는 한 명도 없다. 그러므로 캔드라가 자신이 스윕을 날았음을 인정하는 수모를 감내하기보다는, 차라리 딸의 존재를 숨기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한 듯하다. 아리애나를 알았던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멀리 이사하는 것은 당연히 그녀의 감금을 훨씬 더 쉽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리애나의 존재를 알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이후로 비밀을 지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지 모른다.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면,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제 여동생은 학교에 다니기엔 몸이 너무 허약해요”라고 둘러댔던 그녀의 두 오빠를 포함해서 말이다.

다음주 : 호그와트에서의 알버스 덤블도어 - 포상과 거짓

해리의 생각이 틀렸다. 방금 읽은 기사는 더욱더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해리는 분명 행복해 보이는 가족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비록 바틸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리는 고드릭 골짜기에 가고 싶었다. 자신과 덤블도어 두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은 바로 그 장소를 방문하고 싶었다. 그런데 론과 헤르미온느의 의견을 물기 위해 신문을 내려놓던 찰나, 귀가 멍멍할 정도로 요란하게 평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3일 만에 처음으로 해리는 크리처에 대해서 깨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루핀이 부엌으로 다시 뛰어든 줄 알았다. 잠깐 동안 해리는 자신이 앓은 의자 바로 옆에 난데없이 나타나 발버둥치고 있는 팔다리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가 황급히 일어났을 때, 크리처가 뒤엉킨 몸을 풀고 해리에게 깊숙이 절을 하며 말했다.

“크리처는 도둑 먼던구스 플레처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먼던구스는 급히 몸을 일으키더니 지팡이를 뽑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그보다 훨씬 빨랐다.

“엑스펠리아르무스!”

먼던구스의 지팡이가 허공으로 치솟자,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낚아챘다. 먼던구스는 핏발 선 눈을 이글거리며 총계를 향해 몸을 날렸다. 론이 럭비에서 태클을 걸듯 그를 막아섰다.

먼던구스는 둔탁한 우두둑 소리와 함께 돌바닥에 부딪혔다.

“뭐냐?”

그는 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고함을 쳤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저 염병할 집요정을 내게 불이다니, 뭔 장난을 치는 거야? 내가 월 어쨌다고? 풀어 줘, 풀어줘. 안 그러면.....”

“당신은 지금 협박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해리가 말했다. 그는 신문을 한쪽으로 훑 집어 던지고는, 성큼성큼 부엌을 가로질러 먼던구스 옆에 텔썩 무릎을 꽂고 앉았다. 먼던구스는 반항을 멈추었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선 론은 해리가 일부러 먼던구스의 코앞에 지팡이를 들이대는 것을 지켜보았다. 먼던구스의 퀴퀴한 땀내와 찌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머리는 마구 헝클어지고 옷은 꼬질꼬질했다.

“크리처는 도둑을 잡아 오는 게 늦어진 걸 사과드립니다, 주인님.”

집요정이 꽉꽉거리며 말했다.

“플레처는 체포를 피하는 법을 알고 있고, 여러 은신처와 공범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처는 결국 도둑을 궁지로 몰았어요.”

“정말 잘했구나, 크리처.”

해리가 칭찬했다. 그러자 집요정은 깊숙이 절을 했다.

“좋아. 당신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해리가 먼던구스에게 말을 걸었다. 먼던구스는 다짜고짜 소리쳤다.

“난 너무 무서웠어, 알아? 나는 결코 같이 가고 싶지 않았다고.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니야, 친구. 하지만 나는 결코 자네를 위해 죽겠다고 자원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 염병할 그 사람이 내게 달려들었단 말이야. 누구라도 그런 순간엔 도망치려 했을 거야. 계속 말했잖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잠깐 알려 주자면, 우리 중에 당신말고 그렇게 썩 사라진 사람은 한명도 없었어요.”

헤르미온느가 면박을 주었다.

“너희야 그 뭐냐, 빌어먹을 영웅들이니까 그렇지, 안 그래?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제 목숨을 끊겠다고 나서는 척한 적 없어.”

“우리는 당신이 왜 매드아이를 버리고 달아났는지 따위는 전혀 관심 없어.”

먼던구스의 불룩하고 충혈된 눈 쪽으로 지팡이를 조금 더 들이대며 해리가 말했다.

“네가 못 믿을 인간쓰레기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그래? 그러면 어쩌자고 저 망할 놈의 집요정이 날 쫓아다니는지 말해 주지 않겠어? 또 그 술잔들 때문이야? 나한텐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있으면 너희가 다 겨져도 돼.....”

“술잔 때문도 아니야. 물론 비슷하긴 했지만. 입 닥치고 내말이나 들어!”

해리가 말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약간의 진실이나마 캐물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끝내 주는 기분이었다. 해리의 지팡이는 이제 먼던구스의 코 끝에 바싹 붙다시피 해서, 먼던구스는 그것을 주시하느라 사팔뜨기가 될 지경이었다.

“네놈이 이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죄다 쓸어 갔을 때.....”

해리가 말문을 열었지만, 먼던구스가 다시 끼어들었다.

“시리우슨은 이런 허접스레기 따위에 신경도 쓰지 않았어.....”

바로 그 순간 후다닥 달리는 발소리와 더불어 원가 구릿빛이 반짝거리더니 ‘뗑’ 하는 소리가 나오 이어서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크리처가 먼던구스를 향해 냅다 달려와서는 머리를 냄비로 힘껏 내리친 것이다.

“이놈 좀 말려! 이놈 좀 말려! 저런 놈은 가둬야 해!”

먼던구스의 크리처가 또다시 바닥이 두꺼운 냄비를 치켜들자 몸을 움츠리며 소리쳤다.

“크리처, 안 돼!”

해리가 말했다.

크리처의 가느다란 두 팔은 냄비의 무게로 후들후들 떨렸지만, 여전히 높이 들려 있었다.

“제발 딱 한 번만 안 될까요, 해리 주인님? 행운을 위해서요.”

론이 웃음을 터트렸다.

“저자가 기절하면 안 돼, 크리처. 하지만 만약 그를 설득할 필요가 생기면, 너에게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 줄게.”

해리가 말했다.

“매우 감사합니다. 주인님.”

크리처가 꾸벅 절을 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몹시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그 커다랗고 파리한 눈을 먼던구스에게 고정한 채, 약간 물러섰다.

“당신이 이 집에서 눈에 띠는 귀중품이란 귀중품은 몽땅 털어 갔을 때 말이야.”

해리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부엌 벽장에서 물건을 한 보따리 가져갔어. 그리고 거기엔 로켓이 하나 있었지.”

해리는 갑자기 입 안이 바싹 마르는 것 걸았다. 론과 헤르미온느 역시 잔뜩 긴장하고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걸 어떻게 했지?”

“왜 그러지?”

먼던구스가 물었다.

“그게 값진 건가?”

“아직 갖고 있군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니야. 없어.”

론이 재빠르게 지적했다.

“저 작자는 지금 그 값을 더 많이 불렀어야 했나 의아해하고 있는 거야.”

“더 많이 부른다고?”

먼던구스가 투덜거렸다.

“제기랄, 그럼 고생이나 안 했게..... 젠장..... 그냥 쥐 벼렸어. 달리 도리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뜻이지?”

“다이애건 앤리에서 한창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여자가 다가와서는 마법 유물을 거래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는지 묻잖아. 망할 놈의 엉탐꾼 같으니라고. 나에게 벌금을 물리려고 하더니, 그 로켓이 맘에 든다면서 그걸 자기에게 주면 이번 한번만 눈감아 주겠다고 하더군. 나더러 운이 좋다면서 말이지.”

“그 여자가 누구였지?”

해리가 물었다.

“둘라, 웬 마법부 할망구였어.”

먼던구스는 눈썹을 찡그린 채, 잠시 생각을 했다.

“키가 아주 작았는데..... 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말이야.”

그는 인상을 쓰더니, 다시 덧붙였다.

“꼭 두꺼비처럼 생겼어.”

해리는 그만 지팡이를 떨어트리고 말았다. 지팡이가 먼던구스의 코에 부딪히자, 그의 눈썹을 향해 빨간 불꽃이 발사되었다. 순식간에 눈썹에 불이 붙었다.

“아구아멘티!”

헤르미온느가 외치자, 그녀의 지팡이 끝에서 물줄기가 콤비에 나와

먼던구스에게 물세례를 퍼부었다. 그는 숨이 막혀 꼴깍거렸다.

해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론과 헤르미온느의 얼굴에도 똑같은 충격이 어려 있음을 보았다. 해리는 오른쪽 손등 위의 흉터가 다시금 따끔거리는 것 같았다.

## 제 12 장 마법은 힘이다.

8 월이 지나면서, 그리볼드 광장 한가운데에 무성했던 네모난 잔디밭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들시들하다가 끝내 갈색으로 바싹 말라 버렸다. 12 번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12 번지 건물 자체나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결코 보지 못했다. 그리볼드 광장에 사는 머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13 번지 바로 옆에 11 번지가 있게 된 것이, 단지 번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광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원가를 발견한 듯한 방문자들이 드문드문 꼬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매일같이 한두 명씩 그리볼드 광장을 찾아와서는, 별다른 볼일도 없이 11 번지와 13 번지의 난간에 몸을 기대고 서서 두 건물 사이의 좁은 틈새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 잠복자들은 같은 사람이 이를 연속 찾아오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평범한 옷차림을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들 옆을 지나가는 런던 사람들은 대부분 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에 익숙해져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도대체 이 더운 날에 저렇게 긴 망토를 누가 입는 걸까 의아해하면서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는 행인이 이따금 있었지만 말이다. 이 파수꾼들은 그토록 열심히 보초를 서고도 별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가끔 그들 중 한 명이 마침내 흥미로운 원가를 발견한 듯이 몹시 흥분해서 냅다 달려가곤 했지만, 결국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9 월 1일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잠복하고 있었다. 긴 망토를 입은 여섯 명이 변함없이 11 번지와 13 번지 집들을 주의 깊게 응시하면서 말없이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전히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듯했다. 저녁이 가까워 오면서, 몇 주일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차가운 비가 한바탕 올아쳤다. 동시에 그자들이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또다시 찾아왔다. 얼굴이 쭈그러진 한 남자가 손가락질을 하자, 바로 옆에 있던 땅딸막하고 얼굴이 창백한 남자가 앞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들은 몹시 실망하고 짜증이 난 표정으로, 방금 전과 같이 맥 빠진 상태로 되돌아갔다.

한편 12 번지 건물 안에서는 해리가 막 현관 복도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아까 현관문 바깥 계단 꼭대기에 뽕 하고 나타났을 때, 해르는 하마터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래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어쩌면 순간적으로 드러난 그의 팔꿈치를 얼핏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은 해리는 투명 망토를 벗어서 팔에 걸쳤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은 해리는 투명 망토를 벗어서 팔에 걸쳤다. 그리고 어두침침한 복도를 재빨리 지나서 지하로 내려가는 문으로 다가갔다. 손에는 훔친 <예언자 일보> 한 부를 쥐고 있었다. “세베루스 스네이프?” 라고 낮게 중얼거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싸늘한 바람이 그를 훑쓸고 지나가며 잠깐동안 그의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당신을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대답을 하자, 해리의 혀가 풀렸다. 그런 다음 그는 먼지 형상이 평 터질 때가지 잠깐 숨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뒤이은 불랙 부인의 비명 소리와 뿐만 먼지구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부엌으로 가는 계단을 반쯤 내려간 후에야, 비로소 큰 소리로 외쳤다.

“소식을 가져왔어. 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을 거야.”

부엌은 너무 달라져서 몰라볼 정도였다. 사방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구리 주전자와 냄비들은 거의 장밋빛 광택이 감돌 정도로 윤이 났고, 반들반들한 나무 식탁 위에서는 저녁 식사를 위해 벌써부터 차려진 잔과 접시들이 즐겁게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그리고 벽난로 위에서는 커다란 솔이 쑥쑥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는 어떤것도 해리를 보고 황급히 달려오는 짐요정만큼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다. 이제 짐요정은 눈처럼 하얀 수건을 입고 있었는데, 귀에 난 털은 목화솜만큼이나 하얗고 보송보송했으며, 빈약한 가슴에는 레귤러스의 로켓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해리 주인님, 신발을 벗어 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손을 씻어 주세요.”

크리처가 깎깍 거렸다. 그리고 얼른 투명 망토를 받아서 벽의 옷걸이에 걸기 위해 구부정하게 걸어갔다. 옷걸이 옆에는 새로 세탁한 구식 스타일의 망토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무슨 일인데?”

론이 해리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휘갈겨 쓴 쪽지들과 손으로 그린 지도 뭉치를 긴 식탁 끝에 흩어 놓은 채 정신없이 살펴보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성큼성큼 다가와서 흩어진 양피지 위에 신문을 탁 던져 놓는 해리를 지켜보았다.

매부리코에 검은 머리의 낯익은 남자가 커다란 사진 속에서 그들 모두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가 붙어 있었다.

세베루스 스네이프, 호그와트 교장으로 임명

“안돼!”

론과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동작이 빨랐다. 재빨리 신문을 낚아챈 그녀는 큰소리로 밑에 실린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서 오랫동안 마법약 교수로 재직했던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오늘 이 유서 깊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교수진의 교체와 더불어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전 머글 연구 과목 교수의 사임에 따라, 알렉토 캐로우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으며, 그녀의 오빠인 아마커스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마법 세계의 전통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의 귀를 잘라 버리는 그런 일들 말이겠지! 스네이프가 교장이라니! 스네이프가 덤블도어 교수님의 사무실에! 멀린의 팬티에 맹세코 도대체 이런일이!”

헤르미온느는 해리와 론이 펄쩍 뛰어오를 정도로 꽉 비명을 질렀다. 그러고는 식탁 앞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금방 돌아올게” 하고 소리치고서 부엌을 뛰쳐나가 버렸다.

“멀린의 팬티라고?”

론이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말을 따라 했다.

“단단히 화가 났나 봐.”

론은 신문을 앞으로 끌어당기더니 스네이프에 관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다른 교수님들은 여기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맥고나걸과 플리트윅, 그리고 스프라우트 교수님 모두 진실을 알고 있잖아. 그분들은 덤블도어 교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있어. 그러니 스네이프를 교장으로 맞을 리가 없지. 그런데 이캐로우 남매는 누구지?”

“죽음을 먹는 자들이야.”

해리가 대답했다.

“거기에 그들의 사진도 실려 있어. 스네이프가 덤블도어 교수님을 죽일 때, 그자들도 탑 꼭대기에 있었어. 그러니 모두 한통속인 거지.”

해리는 의자 하나를 끌어당기면서 쓰쓸하게 말을 이었다.

“게다가 내 생각에 다른 교수님들은 학교에 그대로 남는 수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만약 마법부와 볼드모트가 스네이프의 배후에 있다면, 그냥 남아서 가르치느냐 아니면 아즈카반에서 멋지게 몇 년을 보내느냐,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지 뭐. 그것도 아주 운이 좋을 경우에 말이야. 아마 그분들은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실 거야.”

그때 크리처가 양손에 커다란 냄비를 들고 분주하게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연방 잇새로 휘파람을 불면서 깨끗한 그릇에 수프를 떠 주었다.

“고마워, 크리처.”

해리는 인사를 하며 스네이프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예언자 일보>를 훑더었다.

“이제 적어도 스네이프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게 되었군.”

해리는 수프를 떠서 먹기 시작했다. 레귤러스의 로켓을 받은 이후로 크리처의 요리 솜씨는

극적으로 좋아졌다. 오늘 만든 프랑스식 양파 수프는 해리가 여태껏 먹어 본 것 중에 최고였다.

“아직도 죽음을 먹는 자들 여러 명이 이 집을 감시하고 있어.”

해리가 수프를 먹으면서 론에게 말했다.

“평소보다 더 많던걸. 그자들은 우리가 학교 트렁크를 들고나와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려

가길 기다리는 모양이야.”

론이 자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열자는 여섯시간 전쯤에 떠났어. 거기에 타고 있지 않다니, 좀 이상하지? 안그래?”

해리는 한때 그와 론이 하늘에서 뒤쫓아 가던 자줏빛 증기 기관차가 눈앞에 선히 보이는 듯했다. 꾸불거리는 자줏빛 애벌레 같은 기차는 들판과 언덕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거렸다. 지금쯤 지니와 네빌, 루나는 다 함께 모여 앉아서 아마 그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스네이프의 새로운 통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무너뜨릴 수 있을지 한창 의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방금 돌아오다가, 하마터면 그들 눈에 뜨일 뻔했어.”

해리가 말했다.

“계단 꼭대기에 잘못 내리는 바람에 투명 망토가 약간 벗겨 졌거든.”

“나는 매번 그러는데. 오, 저기 온다.”

론이 자리에서 목을 길게 빼고는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는 헤르미온느를 보았다.

“멀린의 불룩한 Y자 바지 앞자락에 걸고 묻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이게 생각났어.”

헤르미온느가 숨을 헉헉거렸다.

그녀는 그림이 든 커다란 액자를 가져와서 마룻바닥에 내려 놓았다. 그러고는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은 작은 구슬 백을 들고 왔다. 백을 연 헤르미온느는 그림을 그 안에 밀어 넣었다. 그 조그만 백 안에 넣기에는 터무니없이 컷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물건들이 그랬듯이, 그림은 순식간에 널찍한 백의 밑바닥으로 쑥 사라져 버렸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야.”

헤르미온느가 백을 부엌 식탁 위에 휙 던지면서 설명했다. 백에서는 평소처럼 우당탕하고 원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뭐라고?”

론이 되물었다. 하지만 해리는 금방 알아들었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블랙의 그림은 호그와트의 교장실에 걸려 있는 초상화와 이곳 그리볼드 광장에 걸려 있는 초상화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 있었다. 지금쯤 둥근 탑 꼭대기의 그 방에는 틀림없이 스네이프가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섬세한 은 마법 도구들과 돌 펜시브, 마법의 모자, 또한 어딘가 다른 데로 옮겨 지지 않았다면 그리핀도르의 칼 같은 덤블도어의 수집품들을 의기양양하게 차지했을 것이다.

“스네이프가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를 보내서 이 집 안을 염탐할 수도 있잖아.” 헤르미온느가 자리에 다시 앉으며 론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얼마든지 시켜 보라지.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볼 수 있는 거라곤 내 핸드백의 안쪽뿐일 테니까.”

“훌륭한 생각이야!”

론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고마워.”

헤르미온느는 방긋 미소를 던지고, 수프를 자기 앞으로 끌어 당겼다.

“해리,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무 일도 없었어.”

해리가 대답했다.

“일곱 시간 동안이나 마법부 입구를 지켜보았지만, 그 여자는 그림자도 안 비치더라. 그리고 론, 너희 아버지를 봤어. 괜찮으신 것 같더라”

론이 이 소식에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즐리 씨가 마법부를 걸어 들어가고 나오는 동안,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짓이라는 데 세 사람 모두 동의했다.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다른 마법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즐리 씨의 모습을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위안이 되었다. 비록 몹시 긴장되고 불안해 보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아빠는 대부분의 마법부 사람들이 직장에 나올 때 플루 가루 네트워크를 이용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론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엉브릿지를 못 봤던 거야. 그 여자가 절대 걸어 다닐 리가 없지.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늙은 마녀와 남색 망토를 입은 조그만 마법사는 어떻게 됐어?”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아, 그래, 마법 관리부에서 나온 그 친구 말이지?”

론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마법 관리부 소속이란 건 어떻게 알아?”

헤르미온느가 수프를 떠먹던 손을 멈춘 채 물었다.

“아빠한테 들었지. 마법 관리부 사람들은 모두 남색 망토를 입는다고 말이야.”

“우리에게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잖아!”

헤르미온느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수북이 쌓인 쪽지와 지도 뭉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까 해리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그녀와 론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것들이었다.

“여기 남색 망토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 없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맹렬한 기세로 종잇장을 넘기며 비난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

“론, 모든 게 다 중요해! 우리가 마법부 안으로 침투한 후에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철저히 경계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 일을 몇 번이나 검토해 왔어. 그런데 네가 그런 말 한마디 우리에게 해주는 것도 귀찮아한다면, 도대체 골백번 정찰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제기랄. 헤르미온느, 난 그저 딱 한 가지 사소한 걸 깜박 잊었을 뿐인데.....”

“너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아마 이넓은 세상에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마법부보다 더 위험한 장소는 없을.....”

“내 생각에 내일은 이 일을 실행해야 할 것 같아.”

해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헤르미온느는 말문이 딱 막혀서 입만 꽉 벌렸고, 론은 수프를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려 캡캑거렸다.

“내일?”

헤르미온느가 되물었다.

“진심이니, 해리?”

“진심이야.”

해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달을 더 마법부 출입구를 기웃거리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준비를 잘할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날짜를 미루면 미룰수록, 오히려 로켓의 행방만 더 멀어질 수 있어.

벌써 엄브릿지는 그걸 내버렸을지도 몰라. 절대 안 열리니까 말이야.”

“아니면 그걸 여는 법을 알아내서 지금쯤 그 힘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  
론이 추측했다.

“어느 쪽이든 그 여자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을걸. 그 여자는 원래 지독하게 못됐잖아.”

해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헤리미온느는 입술을 깨물며 원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은 모두 알고 있어.”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보며 말을 이었다.

“마법부를 드나드는 순간이동이 금지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이제는 마법부의 최고 고의직 공무원들만이 자기 집을 풀루 가루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왜냐하면 미스터리 부서의 말할 수 없는 자들 두 명이 불평하는 소리를 론이 엿들었거든. 그리고 엄브릿지의 사무실이 어디있는지도 대충은 알아. 그 수염 난 사람이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를 네가 들었으니까.”

“‘난 1층으로 올라갈 걸세. 돌로레스가 나를 좀 보자고 하는군.’ ”

헤르미온느가 즉시 들었던 말을 되풀이했다.

“바로 그거야.”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이 웃기는 동전인지 토큰인지 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았어.  
왜냐하면 그 마녀가 한 친구에게 그걸 빌리는 걸 내가 보았거든.”

“하지만 우리에겐 그게 하나도 없어!”

“우리 계획대로라면, 곧 갖게 될 거야.”

해리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난 모르겠어, 해리, 글쎄..... 일이 잘못될 수 있는 점들이 너무 많아.  
우연에 의해 달라질 소지들도 너무 많고.....”

“설사 이 일을 준비하며 석 달을 더 보낸다고 해도 그건 결국 마찬가지일 거야. 이젠 행동에 나설 때야.”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와 론의 얼굴을 보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해리 자신도 딱히 자신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들은 지난 4 주일 동안 교대로 투명 망토를 쓰고 마법부로 들어가는 직원 출입구를 염탐해 왔다. 론은 위즐리 씨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법부로 들어가는 직원들의 뒤를 밟으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하고,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누가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혼자 그곳에 나타나는지도 알아냈다. 때로는 누군가의 서류 가방에서 <예언자 일보>를 슬쩍 빼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지금 헤르미온느의 앞에 수북이 쌓여 있는 그림지도들과 쪽지들을 점차 만들어 갔던 것이다.

“좋아.”

론이 천천히 말문을 뚫었다.

“내일 실행한다고 하자..... 하지만 나랑 해리만 가야 할 것 같아.”

“오, 제발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말자!”

헤르미온느가 한숨을 푹 쉬었다.

“이미 결정을 내린 걸로 아는데.”

“그거야 투명 망토를 입고 출입구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일에 대한 거였지. 이건 달라, 헤르미온느.”

론이 열흘 전 <예언자 일보>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말했다.

“너는 심문에 응하지 않은 머글 태생들 명단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러는 너는 지금 버로우에서 스팟터그로이트 병에 걸려서 죽어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 만약 우리 중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해리야. 그에게는 만 갈레온의현상금이 붙어 있다고.”

“좋아, 그럼 나는 여기 남을게. 너희끼리 볼드모트를 해치운 후에 나한테 연락해 줘, 그럴 거지?”

해리가 농담을 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트렸다. 바로 그때 해리의 이마에 난 흉터에서 격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해리의 손이 후다닥 이마로 올라갔다. 순간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눈앞으로 훌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척하면서 그 순간을 넘기려고 했다.

“글쎄, 만약에 우리 셋이 다 간다면, 각자 따로 순간이동을 해야 할 거야.”

론이 말했다.

“더 이상 투명 망토를 우리 셋이 함께 쓸 수가 없잖아.”

이마의 흉터가 점점 더 아파 왔다. 해리가 벌떡 일어서자, 크리처가 재빨리 달려왔다.

“주인님은 수프를 다 안 드셨네요. 세이보리 스튜나, 아니면 주인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당밀 타르트를 드시겠어요?”

“고마워, 크리처. 잠깐 나갔다가 올게. 어.....욕실에 좀.”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헤르미온느의 눈길을 의식하며, 해리는 황급히 현관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갔다. 1층에 도달하자마자, 쓴살같이 욕실로 뛰어들어 또다시 문을 걸어 잠갔다. 해리는 고통에 못 이겨 신음하면서, 입을 딱 벌린 뱀 형상의 수도꼭지가 달려 있는 검은 세면대 위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았다.....

해리는 어스름한 골목길을 미끄러지듯이 지나가고 있었다. 길 양편으로는 높은 목조 박공지붕의 건물들이 서 있었다. 마치 생강 과자 집들처럼 보였다. 그는 그중 한 집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문 위에 올려놓은 그의 길고 새하얀 손이 보였다. 똑똑 문을 두드렸다. 흥분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이 열렸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다. 해리의 얼굴을 보자, 여자의 표정이 싹 달라졌다.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포가 대신했다.

“그레고로비치는?”

높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하얀 손이 문을 꽉  
붙잡고 닫지 못하게 했다.

“그레고로비치를 만나러 왔다.”

“Er wohnt hier nicht mehr (그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요)!”

여자가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다.

“그는 여기 살지 않아요. 여기 살지 않는다고요! 전 그 사람을 몰라요!”

여자는 문을 닫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춤주춤 어두운 복도로 뒷걸음질 쳤다.  
해리는 스르르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긴 손가락 사이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디 있나?”

“Das weib ich nicht (전 몰라요)! 그는 이사 갔어요. 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해리가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들 두 명이 복도로  
달려 나왔다. 여자는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초록  
불빛이 번쩍하더니.....

“해리! 해리!”

해리는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헤르미온느가  
또다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다.

‘해리, 문 좀 열어! ’

해리는 방금 전에 자신이 큰 소리로 고향을 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일어서서 문을 열자마자, 헤르미온느가 쓰러질 듯이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으며 의심스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바로 뒤에서는  
론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싸늘한 욕실 구석구석을 지팡이로 겨누고 있었다.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추궁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해리가 괜한 허세를 부리며 반문했다.

“너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 대고 있었어!”

론이 말했다.

“아, 그래.....잠깐 줄았나 봐. 아니면.....”

“해리, 우리가 바보 멍청인 줄 아니?”

헤르미온느가 깊은 숨을 몰아쉬며 쏘아붙였다.

“아래층에 있을 때부터 네 흉터가 쑤시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  
게다가 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걸.”

해리는 욕조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맞아. 방금 볼드모트가 어떤 여자를 죽이는 광경을 보았어. 지금쯤이면 그  
여자의 가족을 전부 죽였을 거야.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캐드릭과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졌어. 그들은 단지 그곳에 있었을 뿐인데.....”

“해리,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돼!”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욕실 안에 짜렁짜렁 울렸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네가 오클러먼시를 사용하길 원하셨어! 교수님은 이런  
연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단 말이야! 볼드모트가 이 점을 이용할 수도 있어,  
해리! 그자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광경을 봄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니?  
무슨 도움이 되겠어?”

“왜냐하면 그자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야.”  
해리가 중얼거렸다.

“그럼 넌 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란 말이니?”

“그럴 수가 없어, 헤르미온느. 내가 오클러먼시를 잘 못한다는 걸 너도  
알잖아. 그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고.”

“넌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는구나!”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냈다.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해리. 넌 이 특별한 연결인지 관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좋아하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녀를 노려보는 해리의 표정을 보자, 헤르미온느는 슬그머니 말꼬리를 흐렸다.

“좋아한다고?”

해리가 조용하게 말했다.

“너라면 이걸 좋아하겠니?”

“나..... 나는 아니야. 미안해, 해리.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난 이걸 증오해. 그자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단 사실을, 그놈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때 내가 그걸 지켜봐야만 한다는 사실을 증오한단 말이야!

하지만 난 바로 그 점을 이용할 거야.”

“그렇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은.....”

“덤블도어 교수님은 잊어버려. 이건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그자가 왜 그레고로비치를 뒤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누구?”

“외국의 지팡이 제작자야.”

해리가 설명했다.

“크롬의 지팡이를 만든 사람이다. 크롬 말에 따르면 아주 솜씨가 뛰어나대.”

“하지만 네가 그랬잖아. 볼드모트는 어딘가에 올리밴더를 가두어 두었다고 말이야. 이미 지팡이 제작자가 한 명 있는데, 뭐 때문에 또 다른 제작자를 찾으려고 하지?”

론이 말했다.

“그자도 크롬과 같은 생각인가 보지. 어쩌면 그레고로비치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 그게 아니면 그자가 나를 추격할 때 내 지팡이가 한 일을 그레고로비치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가가하는 건지도..... 왜냐하면 올리밴더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거든.”

해리는 뾰얗게 먼지가 끼고 금이 간 거울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그의 등 너머에서 론과 헤르미온느가 의심에 찬 눈길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다.

“해리, 넌 계속 네 지팡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데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다.

“그건 바로 네가 한 일이야! 어째서 너는 자신이 지닌 능력을 자꾸 회피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니?”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야! 볼드모트도 그렇고 말이야, 헤르미온느! 우린 둘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한동안 노려보았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전혀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지팡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이 볼드모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사실 모두에 대해서 끝없는 반론을 늘어 놓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다행히도 론이 끼어들었다.

“그만 해.”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총고했다.

“그건 해리가 결정할 일이야. 게다가 우리, 내일 마법부로 들어갈 거면 계획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다른 두 사람 눈에 뻔히 보일 정도로 마지못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헤르미온느는 그 문제를 덮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녀가 언제든 기회만 잡으면 다시 공격해 오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럭저럭 그들은 지하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크리처가 그들 모두에게 스튜와 당밀 타르트를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셋은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서로에게 완전히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계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이제 잠을 자기 위해 시리우스의 방에 들어간 해리는 침대에 누워 지팡이에 불을 밝히고 아버지와 시리우스, 루핀 그리고 페티그루가 함께 있는 오래된 사진을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다시 10 분 동안 내일 계획을 혼자 중얼중얼 되뇌었다. 하지만 마침내 지팡이의 불을 껏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폴리주스 마법약도, 구역질 사탕도, 마법

관리부의 남색 망토도 아니었다. 볼드모트가 그토록 열심히 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과연 그자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자정이 지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새벽이 찾아왔다.

“네 꼴이 영망이야.”

해리를 깨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선 론이 던진 첫마디였다.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해리가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부엌에서 크리처가 차려 주는 커피와 뜨거운 류빵을 먹고 있었다. 약간 옆에 들뜬 듯한 표정을 보자, 해리는 한창 시험 공부할 때가 떠올랐다.

“망토.”

헤르미온느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초조한 듯이 그들을 향해 고개만 까딱하더니, 계속해서 그녀의 구슬 백 안을 손으로 뒤지고 있었다.

“폴리주스 마법약..... 투명 망토..... 위장용 폭음탄..... 이것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각각 한 쌍씩 가져가도록 하고..... 구역질 사탕, 코피 누가, 늘어나는 귀.....”

그들은 후딱 아침 식사를 끝낸 다음, 위층으로 올라갔다. 크리처는 그들에게 절을 꾸벅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면 스테이크와 키드니 파이를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에게 축복이 있기를.”

론이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때 저 집요정의 목을 베어서 벽에 걸어 놓고 싶어했었다니.”

그들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현관 계단으로 나갔다. 수면부족으로 눈이 통통 부은 죽음을 먹는 자들 두 명이 안개 낀 광장 너머에서 이 집을 열심히 감시하고 있는 게 보였다. 헤르미온느가 먼저 론과 함께 순간이동을 했다. 그런 다음 다시 해리를 데리러 왔다. 늘 그렇듯이 잠깐 동안 깜깜한 암흑과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질식을 겪은 후에, 해리는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하기로 한 장소였다. 아직은 커다란 쓰레기통 두 개만 뭉굴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대개 최소한 여덟 시는 되어야 가장 먼저 출근하는 마법부 직원들이 나타나곤 했다.

“좋아.”

헤르미온느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대략 5 분 후에는 그 여자가 여기 나타날 거야. 내가 기절마법을 쏘면.....”

“헤르미온느, 우리도 다 알아.”

론이 딱딱거렸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기 오기 전에 문부터 열어 놓기로 하지 않았어?”

헤르미온느가 꽉 비명을 질렀다.

“깜박할 뻔했어! 물러서!”

헤르미온느는 옆에 있는, 맹꽁이자물쇠가 달려 있고 낙서투성이인 방화문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텅 빈 극장으로 통하는 컴컴한 통로가 나타났다. 그들은 꼼꼼한 사전 정찰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다시 문을 닫고 원래대로 잠겨 있는 것처럼 해 놓았다.

“자, 이제.....”

헤르미온느가 골목길에 있는 다른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투명 망토를 쓰고.....”

“기다린다.”

론이 얼른 말을 받았다. 그는 마치 새장 위로 담요를 덮어씌우듯 헤르미온느의 머리 위로 망토를 휙 덮었다. 그리고 해리를 향해 눈알을 굴렸다.

불과 몇 분이 지났을까, 살짝 뽕 하는 소리가 나더니 키가 작은 마법부의 마녀가 회색 머리칼을 바람에 날리며 바로 그들 앞에 스르르 나타났다. 그 마녀는 갑작스런 빛에 눈이 부신듯 눈을 깜박거렸다. 방금 전에 태양이 구름

뒤에서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 뜻밖의 햇살을 즐길 틈도 없이, 그 마녀는 헤르미온느의 소리 없는 기절 마법을 가슴에 맞고 풀썩 쓰러져 버렸다.

“잘했다, 헤르미온느,”

해리가 투명 망토를 벗자, 론이 극장 문 옆에 있던 쓰레기통 뒤에서 걸어 나오면서 칭찬했다. 그들은 다 함께 이 작은 마녀를 들어서 무대 뒤편으로 통하는 어두운 통로 안으로 옮겼다. 헤르미온느는 마녀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더니, 구슬 백에서 깨낸 뿌연 폴리주스 마법약 병 안에 넣었다. 한편 론은 작은 마녀의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다.

“이 마녀는 마팔다 훌커크야.”

론이 작은 신분증을 읽으며 말했다. 거기에는 이 희생자가 마법 오남용 관리과 직원이라고  
신분이 밝혀져 있었다.

“헤르미온느, 네가 이걸 갖는 게 좋겠다. 여기 그 동전들이 있어.”

론은 마녀의 지갑에서 깨낸 작은 금화 몇 개를 헤르미온느에게 건네주었는데,  
금화에는

M.O.M. 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이제 예쁜 연보라색으로 변한 폴리주스 마법약을 들이켰다.  
그리고 순식간에 마팔다 훌커크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들 앞에 섰다. 그녀가  
마팔다의 안경을 벗겨서 쓰고나자, 해리가 시계를 보았다.

“좀 늦었는걸. 이제 금방 마법 관리부 친구가 여기에 나타날거야.”

그들은 서둘러서 진짜 마팔다가 쓰러져 있는 곳의 문을 닫았다. 해리와 론은 투명 망토를 뒤집어썼고, 헤르미온느만이 보이게 남아서 기다렸다. 곧이어  
또다시 뽕 소리가 나더니 왜소하고 족제비 같이 생긴 마법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오, 안녕하세요, 마팔다.”

“잘 있었나!” 헤르미온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오늘은 어떤가?”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왜소한 마법사는 완전히 풀 죽은 얼굴로 대답했다. 헤르미온느와 마법사가  
큰길을 향해 걸어가자, 해리와 론은 그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다.

“기분이 별로라니 거참 안됐구먼.”

헤르미온느는 고민거리를 털려놓으려고 하는 왜소한 마법사의 말문을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반드시 이자가 큰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던 것이다.

“여기 사탕 먹게나.”

“네에? 오, 고맙지만 됐습니다.”

“어서 먹어!”

헤르미온느가 그의 코앞에 대고 사탕 봉지를 흔들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소한 마법사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사탕 하나를 집어 들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사탕이 혀에 닿자마자, 왜소한 마법사는 웹웹거리며  
정신없이 토하기 시작했다. 헤르미온느가 그의 정수리에서 머리카락을 한 웅큼  
뽑아도 모를 정도였다.

“아니, 이런!” 마법사가 골목길에 토사물을 내뿜자, 헤르미온느가 호들갑을  
떨었다.

“아무래도 자네, 오늘 하루 쉬는 게 좋겠어!”

“아니.....아닙니다!”

그는 숨이 막혀 깍깍거리더니 헛구역질을 했다. 하지만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을 가려고 했다.

“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합니다.....”

“그건 명청한 짓이야!”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라서 다그쳤다.

“이런 상태로 일을 하려 갈 수는 없어. 내 생각에 자넨 성 뭉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네. 가서 자네 병을 고쳐 달라고 해!”

마법사는 털썩 쓰러지더니, 몸을 일으켜 기어코 큰길까지 기어서라도 가려고 기를 썼다.

“글세, 이런 꼴로 직장에 갈 수는 없다니까!”

헤르미온느가 소리를 빽 질렀다. 마침내 마법사도 그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다. 역겨워하는 헤르미온느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선 그는 그 자리에서 빙그르 돌더니 사라져 버렸다. 뒤에 남은 것이라곤 그가 사라지는 순간 론이 그의 손에서 낚아챈 가방과 토해 낸 음식 찌꺼기뿐이었다.

“이크.”

헤르미온느가 토사를 웅덩이에 달지 않도록 망토 자락을 재빨리 들어 올리며 말했다.

“차라리 그자에게 기절 마법을 쓰는 편이 훨씬 더 간단했을거야.”

“그래.”

론이 마법사의 가방을 손에 든 채, 투명 망토 밑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잔뜩 쌓여 있으면 훨씬 더 주의를 끌었을 거야. 어쨌거나 그 친구, 참 자기 직업에 대해 열성이더군. 안 그래? 이제 그 머리카락과 마법약을 우리에게 줘.”

2분 후에 론은 그 아픈 마법사와 똑같이 왜소하고 족제비 같은 모습이 되어 그의 가방 안에 접혀 있던 남색 망토를 입고서 그들 앞에 섰다.

“그 친구가 얼마나 직장에 가려고 기를 썼는지 봤지? 그런데 왜 오늘은 이 옷을 안 입고 있었는지 이상하단 말이야, 안 그래? 어쨌든 이 등에 불은 이름표에 따르면, 난 레그 캐터풀이야.”

“이제 여기서 기다려.”

헤르미온느가 아직도 투명 망토를 쓰고 있는 해리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구해 가지고 금방 돌아올게.”

해리는 10분쯤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토사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골목길에서, 기절 마법에 걸린 마팔다가 숨겨진 문 옆에 혼자 시무룩하게 서 있으려니,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론과 헤르미온느가 다시 나타났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넘겨주며 말했다.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코피를 쏟으며 집으로 가 벼렸어! 여기 있어. 이 사람은 꽤 키가 크던데. 더 큰 옷이 필요할 거야.”

헤르미온느는 크리처가 그들을 위해 세탁해 놓은 낡은 망토 한 벌을 꺼냈다. 해리는 뒤로 물러서서 마법약을 마셨고, 곧 모습이 변했다.

일단 고통스런 변신이 끝나자, 그는 180센티미터가 넘는 장신이 되었다.

게다가 근육이 잘 발달된 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몸이 아주 단단한 것 같았다. 심지어 얼굴에는 턱수염까지 났다. 새로 갈아입은 망토 속에 안경과 투명 망토를 쑤셔 넣고, 해리는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다.

“어이쿠, 이거 겁나는군.”

론이 그의 머리 위로 불쑥 솟은 해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마팔다의 동전 하나를 가져.”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리고 어서 가자. 아홉 시가 다 됐어.”

그들은 함께 골목길을 나섰다. 사람들로 붐비는 보도를 40~50 미터쯤 걸어가자, 쇠창살이 삐죽삐죽하고 검은 난간이 양쪽으로 둘러쳐져 있는 계단 두 개가 나왔다. 한쪽에는 ‘신사용’. 다른 한쪽에는 ‘숙녀용’ 이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럼 이따가 봐.”

헤르미온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기우뚱거리며 ‘숙녀용’ 계단으로 내려갔다. 해리와 론은 이상하게 옷을 입은 수많은 남자들 틈에 끼어서, 더러운 검은색과 하얀색

타일이 박힌, 평범한 지하 공중화장실 같은 곳으로 내려갔다.

“어이, 레그!”

남색 망토를 입은 또 다른 마법사가 인사를 했다. 그는 문에난 주화 구멍에 황금 동전을 넣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이거 정말 엉덩이가 아파 죽겠어, 그치? 우리 모두를 이런식으로 출근하게 하다니! 도대체 그 작자들은 누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야! 해리 포터라도 되나?”

그 마법사는 자기가 던진 농담에 신이 나서 깔깔 웃었다. 론은 억지로 킁킁 웃는 척했다.

“정말 멍청해, 그렇지?” 론이 말했다. 그러고는 해리와 함께 나란히 불은 칸막이 안으로 각기 들어갔다.

해리의 왼쪽과 오른쪽 편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웅크리고 앉아서 칸막이 밑으로 옆을 엿보았다. 바로 그때 옆 칸막이에서 부츠를 신은 두 발이 변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무심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보니, 론이 눈을 끔벅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변기 속으로 훌러 내려가야 하는 거야?”

론이 속삭였다.

“그런 것 같아.”

해리도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그의 입에서는 굵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사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멍청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해리는 변기 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즉시 제대로 해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물속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신발이며 발, 망토까지 물 한 방울 묻지 않았던 것이다. 해리는 손을 뻗어서 물 내리는 줄을 잡아당겼다. 다음 순간 승하고 짧은 변기관을 따라 내려가더니 마법부와 통하는 벽난로 밖으로 튕겨 나갔다.

해리는 어기적거리며 간신히 일어났다. 익숙해져 있던 자신의 몸에 비해 현재 그의 몸집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었다. 커다란 중앙 훌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이전에는 황금 분수가 중앙 훌 가운데를 차지하고선, 반들반들 윤이 나는 나무 마루와 벽 위로 눈부신 광채를 던져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검은 돌로 만든 거대한 석상 하나가 모든 걸 압도하고 있었다. 마녀 한 명과 마법사 한 명이 화려한 문양을 새긴 왕좌에 앉아 있는 그 거대한 석상은 웬지 스스로 분위기를 풍겼는데, 마치 벽난로에서 비틀거리며 튀어나오는 마법부 직원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석상 밑에는 ‘마법은 힘이다.’라는 구호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무엇인가가 해리의 다리 뒤를 세게 때렸다. 해리의 등 뒤에서 또 다른 마법사가 방금 벽난로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길 좀비켜, 당신은..... 오, 미안하네, 런콘!”

머리가 벗겨진 마법사는 완전히 겁먹은 얼굴로 허겁지겁 꼽무니를 뻤다.

해리가 변신한 런콘이라는 이 남자는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게 분명했다.

“여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돌아보니, 머리숱이 적은 자그마한 마녀와 마법 관리부의 족제비 같은 마법사가 석상 옆에서 그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얼른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사히 들어온 거지?”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속삭였다.

“아니야, 개는 아직도 뚱통에 빠져 있는걸.”

론이 농담을 했다.

“내 참, 웃기기도 하겠다..... 저거 너무 끔찍하지 않니?”

헤르미온느가 석상을 올려다보고 있는 해리에게 말했다.

“저 석상이 뭘 깔고 앉았는지 봤니?”

해리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에 정교한 장식 문양이 새겨진 왕좌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첨첩이 쌓여 있는 인간들을 조각해 놓은 것임을 깨달았다. 수백 명의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한결같이 멍청하고 추한 얼굴을 한 채, 멋지게 차려입은 마법사들을 다 함께 떠받드느라 심하게 짓눌리고 뒤틀린 자세를 하고 있었다.

“머글들이야.”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저게 머글들에게 걸맞는 자리라는 거지. 자, 어서 가지.”

두 사람은 중앙 홀의 끝에 있는 황금 문을 향해 가고 있는 마녀와 마법사들 틈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은밀히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돌로레스 엉브릿지처럼 유별나게 생긴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지나서 보다 더 작은 홀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스무 대의 승강기를 막고 있는 스무 개의 황금 창살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었다. 그들이 제일 가까운 줄에 끼어들려고 할 때, 누군가 소리쳤다.

“캐터롤!”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해리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덤블도어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죽음을 먹는 자들 중 한명이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 옆에 서 있던 마법부 직원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눈을 내리깔았다. 해리는 사람들 사이로 두려움이 파도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남자의 뜻마땅하고 다소 사나운 얼굴은,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위풍당당한 예복과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았다. 길게 늘어진 그의 망토에는 황금 실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승강기 주변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악슬리 씨!”

하지만 악슬리는 그들을 무시했다.

“캐터롤, 내 사무실을 좀 손보게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마법부 관리부에 요청했는데? 거긴 아직도 계속 비가 내기고 있단 말이야.”

론은 마치 누구 다른 사람이 대답하며 나서길 바라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비가 온다고요..... 사무실에요? 그..... 그럼 별로 안 좋겠네요, 그렇죠?”

론이 초조하게 웃음을 터트리자, 악슬리가 눈을 부릅떴다.

“자넨 그게 재밌나 보지, 캐터롤, 그런 건가?” 론의 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마녀 두 명이 줄을 벗어나 허둥지둥 가 버렸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론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자네 아내를 심문하려 아래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지, 캐터롤? 솔직히 자네가 저 밑에 내려가서 부인이 기다리는 동안 손이라도 잡아주질 않는 걸 보니 꽤 놀랍군. 벌써 부인이 글러 먹었다고 포기했는가 보지? 그런가? 그게 현명한 판단일 걸세. 다음번엔 반드시 순수혈통이랑 결혼하라고.” 헤르미온느가 혁하고 공포에 찬 짧은 신음 소리를 내고 말았다. 악슬리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약하게 기침을 하면서 고개를 돌렸다.

“저..... 저는.....”

론이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만약 내 마누라가 머글 태생이라고 고소를 당하고.....”

악슬리가 떠들어 댔다.

“물론 내가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든 그런 쓰레기로 오인 받을 일이야 절대 없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마법사 법률 강제 집행부의 부장님께서 어떤 일을 처리해 줄 일손을 필요로 하신다면, 난 그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둘 거란 말이지, 캐터롤. 내 이야기를 알아듣겠나?”

“네.”

론이 중얼거렸다.

“그럼 그 일을 잘 처리하게, 캐터롤. 만약 내 사무실의 날씨가 한 시간 이내에 완전히 개지 않으면, 자네 부인의 혈통 등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의심스런 지경이 될 테니까.”

그때 그들 앞에 있는 황금 창살이 덜커덕하고 열렸다. 악슬리는 해리를 향해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하더니, 다른 승강기 쪽으로 획 가 버렸다. 그자는 해리가 캐터볼에 대한 이런 처사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승강기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그들이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 같았다. 덜커덕하고 창살이 닫히자, 승강기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즉시 론이 다른 두 사람에게 물었다. 그는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아내는…… 그러니까 캐터볼의 아내는…….”

“우리도 너와 함께 갈게. 우린 꼭 같이 다녀야 해.”

해리가 말을 꺼내자, 론이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미친 짓이야.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 너희 두 사람은 엄브릿지를 찾아. 난 어서 가서 악슬리의 사무실을 고칠게. 그런데 비를 어떻게 멈추지?”

“피니트 인칸타템을 써 봐.”

헤르미온느가 즉시 알려 주었다.

“그 비가 무슨 주문이나 저주라면 그걸로 비를 멈출 수 있을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압 조절 마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건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우선 악슬리의 물건들이 젖지 않도록 임페르비우스 주문을 건 후에…….”

“다시 말해 봐, 천천히…….”

론은 황급히 깃펜을 찾으려고 호주머니를 뒤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승강기가 흔들리면서 멈춰 섰다. 뒤이어 모습은 보이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4층, 신비한 동물 및 관리부입니다. 동물, 인류, 영혼 부서와 도깨비 연락 사무소, 해충 대책 사무국이 있습니다.”

황금 창살들이 다시 열리면서, 마법사 두 사람과 연한 보라색 종이비행기 대여섯 대가 승강기 안으로 들어왔다. 비행기들은 승강기 천장에 달린 등잔 주위를 팔랑거리며 날아다녔다.

“잘 지내나, 알버트.”

구레나룻을 덤수룩하게 기른 남자가 해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론과 헤르미온느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승강기가 다시 꺽 소리를 내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헤르미온느는 속닥속닥 론에게 수리 방법을 알려 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법사가 해리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힐끗힐끗 결눈질을 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더크 크레스웰? 도깨비 연락 사무소의? 잘했어, 알버트. 장담하건대 이제 그 작자의 자리는 내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마법사는 눈을 징그렸다. 해리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부디 이걸로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랐다. 창살문이 다시 열렸다.

“2층, 마법사 법률 강제 집행부입니다. 마법 오남용 관리과, 오려 본부, 위증가모트 행정 사무국이 함께 있습니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 마녀의 목소리가 말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론을 살짝 떠미는 걸 보았다. 론은 다른 마법사들의 뒤를 따라서

허둥지둥 승강기에 내렸다. 이제 해리와 헤르미온느 두 사람만 남았다. 황금 창살문이 닫히자마자, 헤르미온느가 아주 빠르게 속삭였다.

“솔직히 해리, 내기 론의 뒤를 따라갈 걸 그랬나 봐. 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설사 그 모든 걸 알아들었다고해도…….”

“1층, 마법부 장관실과 보좌관실입니다.”

황금 창살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헤르미온느가 입을 딱 벌렸다. 네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정신없이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검은색과 황금색으로 된 위엄 있는 예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른

마법사 였으며, 또 한 사람은 짧은 머리에 벨벳 머리띠를 한, 땅딸막하고 두꺼비같이 생긴 마녀였다. 그 여자는 가슴에 필기판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 제 13 장 머글 태생 등록 위원회

“아, 마팔다!”

헤르미온느를 바라보며 엉브릿지가 말했다.

“트래버스가 당신을 보냈군요? 그렇죠?” “예.....에.”

헤르미온느가 깍깍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라면 아주 잘 해낼 겁니다.”

엉브릿지는 검은색과 황금색으로 된 옷을 입은 마법사에게 말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장관님. 마팔다가 기록 작성을 맡아 준다면, 우리는 곧장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엉브릿지는 필기판을 들여다보았다.

“오늘은 열 사람이고, 그중 한 사람은 마법부 직원의 아내로군요! 쯧쯧..... 심지어 마법부의 심장부인 이곳에조차!” 승강기에 올라탄 엉브릿지는 헤르미온느의 옆에 섰다. 엉브릿지와 장관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두 마법사도 함께 올라탔다.

“우리는 곧바로 내려갈 거예요, 마팔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모두 법정에 있을 겁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알버트. 안 내리나요?”

“아, 물론 내려야죠.”

해리가 런콘의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얼른 승강기에서 내렸다. 그의 뒤에서 황금 창살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어깨 너머로 돌아보니 헤르미온느의 초조한 얼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헤르미온느 양편에는 키 큰 마법사들이 한 사람씩 서 있었고, 엉브릿지의 벨벳 머리띠는 겨우 헤르미온느의 어깨와 같은 높이에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올라왔나, 런콘?”

새로 부임한 마법부 장관이 물었다. 그의 검은 긴 머리와 수염에는 희끗희끗한 은빛 가닥들이 섞여 있었고, 앞으로 툭 튀어나온 이마는 반짝이는 눈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해리는 바위 밑에 숨어서 밖을 내다보는 게가 연상되었다.

“급한 전갈이 있습니다. 그게.....”

해리는 한순간 주저했다.

“아서 위즐리 말입니다. 누군가 그가 1층에 있다고 하더군요.”

“아.....”

파이어스 씨크니스가 말했다.

“그자는 기피대상자와 접촉했다가 붙잡히지 않았던가?”

“아닙니다.”

해리는 목이 바싹 탔다.

“아, 괜찮아. 그건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니까.”

씨크니스가 말했다.

“내 견해를 말하자면, 동족의 배신자들은 잡종만큼이나 나쁘지. 좋은 하루 보내게, 런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장관님.”

해리는 씨크니스가 카펫이 두껍게 깔린 복도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장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해리는 두껍고 검은 망토 밑에서 투명 망토를 꺼내 그것을 뒤집어썼다. 그러고는 복도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런콘은 키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의 커다란 발까지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는 구부정하게 걸어야만 했다.

두려움으로 뱃속이 요동쳤다. 해리는 방 주인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작은 명판들이 각각 붙어 있는 매끄러운 나무 문들을 차례로 지나쳤다. 마법부의

권위와 복잡함,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체제가 해리를 짓누르는 듯했고, 지난 4주 동안 론과 헤르미온느와 힘을 모아 신중하게 세운 계획이 우스꽝스러울 만큼 유치해 보였다. 그들은 추적당하지 않고 마법부의 내부로 침투하는 데에만 골몰했지, 자신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쯤 헤르미온느는 법정 소송 절차에 붙잡혀 있을테고, 그 일은 분명 몇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게다가 론은, 해리가 확신하건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마법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것이다. 한 여자의 자유가 그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편 해리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의 사냥감이 방금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이 꼭대기층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서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 애를 썼다. 무거운 침묵이 그의 송통을 조여 왔다. 누군가 부스럭거리거나 두렵두렵 이야기하는 소리, 종종거리는 발소리조차 이곳에선 들리지 않았다. 보라색 카펫이 깔린 복도는 마치 머플리아토 주문에 걸려 있는 듯 고요하기만 했다.

그 여자의 사무실은 분명 여기에 있어. 해리는 생각했다.

정말이지 엉브릿지가 자신의 보석을 사무실에 보관해 둘 거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확인자 그곳을 한번 조사해 보지 않는 것 역시 맹청한 짓인 것 같았다. 해리는 다시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굴을 찌푸린 마법사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마법사는 자신 앞에서 둉둥 떠나니며, 길게 늘어진 양피지 두루마리 위에 글씨를 휘갈겨 쓰고 있는 깃펜에게 웅얼웅얼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제 해리는 문에 적힌 이름들을 눈여겨보면서 모퉁이를 돌았다. 다음번 복도를 중간쯤 지났을 때, 넓고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열두 명의 마녀와 마법사들이 작은 책상 앞에 줄을 지어 앉아 있었다. 학교 책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 책상들은 훨씬 더 번쩍번쩍하게 윤이 났고, 낙서 하나 없이 말끔했다. 해리는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그 광경에 그만 매혹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동작으로 지팡이를 빙빙 돌리고 있었고, 사각형의 색종이들이 조그만 핑크색 연처럼 사방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잠시 후 해리는 그 과정에 일정한 리듬이 있으며, 종이가 모두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뒤이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것이 팜플릿을 제작하는 광경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사각형의 종이들은 팜플릿의 날장들이었는데, 한곳에 모이고 접혀서 마법으로 제본된 뒤, 각 마법사나 마녀 옆에 차곡차곡 쌓였다.

해리는 살금살금 다가갔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신의 일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어서 소리를 죽여 카펫 위를 걷는 발소리를 알아차릴 것 같지도 않았다. 해리는 젊은 마녀 옆에 쌓인 더미에서 완성된 팜플릿 한 부를 슬쩍했다. 그리고 투명 망토 밑에서 꼼꼼히 살펴보았다. 팜플릿의 핑크색 표지는 금색 글씨의 제목으로 장식돼 있었다.

### 잡종들

그리고 평화로운 순수혈통 사회에 그들이 가하는 위험

제목 아래에는 꽃잎 한가운데에 얹지웃음을 짓고 있는 얼굴이 박힌 빨간 장미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송곳니를 드러낸 성난 얼굴을 한 녹색 잡초가 장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비록 팜플릿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해리는 그걸 읽는 동안 오른쪽 손등의 흉터가 따끔거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해리의 옆에 있던 젊은 마녀가 무심코 던진 말은 그의 의심을 확증해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지팡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그 할망구는 온종일 잡종들을 심문하고 있을 작정인가 보지? 누구 아는 사람 없어?”

“말조심해.” 그녀 옆에 있던 마법사가 불안한 듯 주의를 힐끗 돌아보며 대꾸했다. 그 바람에 그가 작업하던 종이 한 장이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왜? 이제 그 여자가 마법의 눈도 모자라서 마법의 귀까지 달았대?”

그러고는 그 마녀는 팜플릿 제작자들로 가득한 이곳을 마주하고 있는, 반짝이는 마호가니 문 쪽을 힐끗 쳐다봤다. 해리도 그곳을 바라보았다. 순간

분노가 뱀처럼 빛나고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머글 집의 현관문이라면 밖을 내다보는 구멍이 있을 자리에, 옆은 푸른색 눈동자의 커다랗고 동그란 눈알 하나가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 눈은 앤더슨 무디를 알았던 사람에게라면 충격적일 만큼 성숙했다.

잠깐 동안 해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잊어버렸다. 자신이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시살마저 잊고 있었다. 그는 그 눈을 자세히 보기 위해 문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눈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얼어붙은 듯 꼼짝 않고 위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밑에 붙은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돌로레스 엠브릿지

마법부 차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금 더 반짝거리는 새로운 명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머글 태생 등록 위원회 의장

해리는 열두 명의 팜플릿 제작자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아무리 일에 열중하고 있다 한들, 바로 코앞에서 빈 사무실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데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는 만무했다. 결국 그는 안주머니에서 원뿔 모양의 고무 몸통에 파닥이는 다리가 달린 요상한 물건을 꺼냈다. 그리고 투명망토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 그 위장용 폭음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즉시 해리 앞에 있는 마녀들과 마법사들의 다리 밑으로 종종 달아났다. 이윽고 해리가 한 손을 문손잡이에 올려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커다란 평소리가 나더니 엄청난 양의 시커멓고 매운 연기가 한구석에서 솟아올랐다. 앞줄에 있던 젊은 마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와 동료들은 깜짝 놀라 펄쩍뛰며 소동의 전원지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핑크색 팜플릿들은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해리는 재빨리 문손잡이를 돌려서 엠브릿지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해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그 방은 호그와트에 있던 엠브릿지의 사무실과 너무나 똑같았다. 레이스가 달린 커튼 천과 장식받침, 말린 꽃 등이 빈자리 하나 없이 방 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벽에는 장식용 접시들이 걸려 있었는데, 각각의 접시에는 알록달록한 색깔이 칠해진, 리본 맨새끼 고양이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고양이들은 역겨울 정도로 귀여운 척 애교를 떨며 깡충깡충 뛰놀고 있었다. 책상 역시 주름 잡힌 꽂무늬 테이블보가 덮여 있었다. 한편 매드아이의 눈 뒤에는 망원경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엠브릿지는 그것을 통해 문 반대편의 직원들이 아직도 위장용 폭음탄 주위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방 안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중얼거렸다.

“아씨오 로켓.”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해리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분명 엠브릿지는 보호 마법과 주문들을 훤히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다급하게 그녀의 책상 뒤로 가서 서랍들을 열어 보았다. 깃펜과 공책, 마법 테이프 등이 보였다. 하지만 마법에 걸린 종이 집게들이 서랍 속에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것들을 무찔러야만 했다. 요란하게 장식을 한, 레이스 달린 조그만 상자 속에는 여분의 머리띠와 머리핀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로켓이 있다는 흔적이 없었다.

해리는 책상 뒤에서 서류 정리함을 발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호그와트에 있는 필치의 서류 정리함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이름별로 꼬리표를 달아 분류해 놓은 파일이 가득했다. 맨 아래 서랍에 이르렀을 때, 해리는 자신의 주의를 끄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로 위즐리 씨의 파일이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펼쳐 보았다.

아서 위즐리

혈통 등급: 순수혈통. 하지만 구제불능의 머글 옹호자임.  
불사조 기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음.

가 족 : 아내(순수혈통)가 일곱 자녀. 가장 어린 두 자녀는  
호그와트 재학 중.

주 의: 막내아들 현재 자택 거주. 마법부 시찰자들이 확인  
한 바에 따르면, 중태.

보안 상태: 추정 중. 모든 움직임 감시 중. 기피대상자 1번(한때  
위즐리 가족과 함께 거주)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후함.

“기피대상자 1번이라니.”

해리는 위즐리 씨의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으면서 중얼거렸다. 그게  
누군지는 충분히 짐작이 갔다. 과연 해리가 다시 몸을 일으켜서 물건을 숨길  
만한 장소를 찾아 사무실을 둘러보았을 때, 가슴 위에 ‘기피대상자 1번’  
이라는 문구가 박힌 자신의 포스터를 발견했다. 포스터에는 한쪽 모퉁이에 새끼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조그만 핑크색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해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읽어 보니, 엉브릿지가 ‘처벌 대상’이라고 써 놓은 것이었다.

조금 전보다 더욱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해리는 말린 꽃이 꽂혀  
있는 꽃병과

꽃바구니 바닥을 더듬었다. 당연히 로켓은 거기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안을 쓰윽 훑어보던 해리는 한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책상 옆의 책꽂이  
위에 기대어 세워 놓은 작고 네모난 거울 속에서 덤블도어가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한걸음에 달려가서 거울을 집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을 잡는 순간,  
거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덤블도어가 반질반질한 책의 걸표지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리는 덤블도어의 모자 위로 인쇄된  
꼬불꼬불한 녹색 글씨-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는 물론, 그보다 약간  
작은 글자로 그의 가슴 위에 박힌 ‘리타 스키터 지음. 베스트셀러<아르만도  
디펫: 대가 혹은 바보?>의 저자’라는 글씨도 즉각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해리는 아무 데나 책을 펼쳤다. 책 한 면에 걸쳐 실려 있는 십 대 소년 두 명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정신없이 웃고  
있었다. 이 사진에서 덤블도어는 거의 팔꿈치까지 길게 머리를 기르고, 그토록  
론의 비위를 건드렸던 크롬의 턱수염을 연상시키는 짧고 드문드문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한편 덤블도어 곁에서 소리 없이 기쁨의 포효를 내지르고 있는  
소년은 명랑하면서도 제멋대로인 듯한 인상을 풍겼다. 곱슬곱슬한 그의 금빛  
머리칼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해리는 이 소년이 과연 젊은 시절의  
도지일까 아닐까 의아했다. 하지만 사진 밑에 붙은 설명을 확인할 틈도 없이,  
사무실 문이 왈칵 열렸다.

씨크니스가 안으로 들어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해리는 투명 망토를  
뒤집어쓸 겨를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순간 씨크니스가 뭔가 움직인 것을  
눈치 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 동안 가만히 서서  
해리가 방금 사라진 자리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씨크니스는 자신이 본 것이, 해리가 서둘러 다시 책꽂이 위에 올려놓은 책 표지  
안에서 코를 긁고 있던 덤블도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는 결국 책상 쪽으로 걸어가더니, 잉크병 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깃펜을  
지팡이로 가리켰다. 깃펜은 재빨리 튀어나와서 엉브릿지에게 남길 쪽지를  
갈겨썼다. 해리는 감히 숨 쉴 엄두도 못 내면서, 살금살금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팸플릿 제작자들은 여전히 위장용 폭음탄의 잔해를 둘러싸고 있었다. 폭음탄은  
아직도 계속해서 희미한 경적 소리를 내며 연기를 뿜고 있었다. 해리가  
서둘러서 복도를 빠져나오고 있을 때, 젊은 마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법 실험부에서 기어 들어온 게 분명해. 그 사람들은 정말 부주의하다니까.  
그 독가스 뿐던 오리 기억나?” 해리는 잽싸게 승강기를 향해 달려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몇 가지 선택들을 검토했다. 로켓은 도무지 이곳 마법부에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게다가 엉브릿지가 사람들로 봄비는 법정에 앉아 있는 한,  
그녀에게 마법을 걸어 로켓의 행방을 알아낼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은, 그들의 정체가 들통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마법부를 떠나 다른

날 다시 시도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론을 찾아야만 했다. 그런 다음에 법정에서 헤르미온느를 빼내 올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승강기가 도착했을 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해리는 재빨리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승강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투명 망토를 벗었다. 천만다행으로 승강기가 빼거덕거리며 2층에서 정지했을 때, 물에 흠뻑 젖은 론이 심란한 눈빛을 하고 올라탔다.

“조..... 좋은 아침입니다.”

승강기가 다시 출발하자, 론은 해리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론, 나야, 해리.”

“해리! 젠장, 난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깨먹었어. 그런데 왜 헤르미온느랑 같이 있지 않은 거야?”

“헤르미온느는 엉브릿지와 함께 법정에 내려가야만 했어.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해리가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승강기가 다시 섰다. 문이 열리자, 위즐리 씨가 어느 나이 든 마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왔다. 마녀는 금발을 너무 높이 올려 세워서, 마치 개미탑처럼 보였다.

“.....저도 당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와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거기에 개입할 수.....”

위즐리 씨는 말을 멈추었다. 해리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다. 위즐리 씨가 그토록 혐오에 찬 눈길로 자신을 노려보자, 해리는 매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승강기 문이 닫히고 네 사람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오, 잘 있었나, 레그?”

론이 망토에서 줄기차게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에, 위즐리 씨가 뒤를 돌아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다.

“자네 아내도 오늘 심문을 받으러 와 있지 않나? 어.....자네, 무슨 일 있었나? 왜 그리

흠뻑 젖었지? “

“악슬리의 사무실이 물바다가 됐어요.”

론은 위즐리 씨의 어깨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해리는 분명 론이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가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 도저히 멍추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저더러 버니.....필스워스를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들 말로는.....”

“그래, 최근 여러 사무실에서 비가 내리고 있지.”

위즐리 씨가 말했다.

“기상징크스 레칸토 주문을 써 봤나? 블레칠리 사무실에서는 효과가 있던데.”

“기상징크스 레칸토?”

론이 중얼거렸다.

“아니, 써 보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아버..... 아니, 아서.”

승강기 문이 열렸다. 개미탑 머리를 한 늙은 마녀가 나가자, 론은 쓴살같이 그녀를 뒤쫓아서 사라져 버렸다. 해리는 그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서류에 코를 박고 읽고 있는 퍼시 위즐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길이 가로막혔다.

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다시 닫히고 나서야, 퍼시는 아버지와 승강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훌끗 고개를 들었을 때 위즐리 씨를 발견한 퍼시는 얼굴이 순무처럼 새빨개지더니 문이 다시 열리자마자 승강기에서 내렸다. 해리는 또다시 승강기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위즐리 씨의 팔이 길을 막았다.

“잠깐만, 런콘.”

승강기 문이 닫히고, 그들은 덜컹거리며 한 층 더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위즐리 씨가 말을 꺼냈다.

“자네가 더크 크레스웰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네.”

해리는 퍼시와의 마주침 때문에 위즐리 씨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최고의 방책은 명청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뭐라고?”

해리가 물었다.

“아닌 척 말게, 런콘.”

위즐리 씨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자네는 가계도를 위조한 그 마법사를 추적하지 않았나?”

“그.....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가?”

해리가 대꾸했다.

“더크 크레스웰은 자네보다 열 배쯤은 더 진정한 마법사라는 걸세.”

위즐리 씨가 조용히 대꾸했고, 승강기는 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만약 그가 아즈카반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자네는 그에게 대가를 치러야 할 걸세.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서.”

해리가 말을 가로막았다.

“자네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모르고 있었나?”

“그거 위협인가, 런콘?”

위즐리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네.”

해리가 말했다.

“이건 사실이네! 그들은 자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때 다시 승강기 문이 열렸다. 중앙 출입구에 도착한 것이다. 위즐리 씨는 사나운 표정으로 해리를 노려보더니 승강기에서 훅 빠져나갔다. 해리는 얼떨떨한 상태로 멍하니 서 있었다.

런콘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변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승강기 문이 덜컹거덩 닫혔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꺼내어 다시 둘렀다. 론이 비 내리는 사무실을 처리하는 동안, 혼자서 헤르미온느를 구해 낼 작정이었다. 승강기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마룻바닥에 카펜이 깔린 위층 복도와는 전혀 다른, 횃불이 밝혀진 석조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승강기가 다시 덜컹거리며 가 버렸다. 해리는 저 멀리 보이는, 미스터리 부서 입구라고 표시된 검은 문을 바라보며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이윽고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저 검은 문이 아니라, 윈편에 있었다고 기억되는 출입구였다. 그 출입구는 법정으로 내려가는 층계와 이어져 있었다. 층계를 살금살금 내려가는 동안에도, 해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고민했다. 위장용 폭음탄이 아직 몇 개 남아 있긴 했지만, 어쩌면 그냥 런콘인 척하며 법정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다음, 마팔다에게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런콘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설령 용케 그 일을 해낸다 해도 헤르미온느가 다시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마법부에서 탈출하기도 전에 수색이 시작될지도 몰랐다.

해리는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마치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의 몸 위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이상한 한기를 즉시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해리가 한 발작씩 내디딜 때마다, 점점 더 차가워졌다. 곧장 목구멍 속까지 도달한 냉기는 폐를 찌르는 듯했다. 해리는 어느새 바싹 다가온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더니 서서히 커지는 것을 느꼈다.

디멘터로군. 그는 생각했다.

층계를 내려와 오른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법정 밖의 어두운 통로에는 검은 두건을 뒤집어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키 큰 형상들이 가득했다.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것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심문을 위해 소환된 머글 태생들은 바싹 얼어붙은 채, 딱딱한 나무 의자위에 서로 꼭 붙어서 덜덜 떨며 앉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디멘터들의 탐욕스러운 주둥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시도였을 것이다. 몇몇은 가족들을 대동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훌로 앉아 있었다. 디멘터들이 그들 앞에서 미끄러지듯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곳에 가득한 냉기와 무력감, 그리고 절망감이 저주처럼 해리를 짓눌렀다.....

싸워. 해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패트로누스를 불러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감각한 마비가 그의 두뇌를 덮치는 것만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헤르미온느와 론을 애써 떠올렸다.

우뚝 솟은 검은 형상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그가 옆을 지나가자, 두건 밑에 숨은, 눈알 없는 얼굴들이 고개를 돌렸다. 해리는 디멘터들이 그를 감지했다고, 어쩌면 여전히 약간의 희망과 회복력을 지닌 인간의 존재를 감지한 게 분명하다고 느꼈다.....

잠시 후, 싸늘하게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갑작스럽고도 경악스럽게 복도 왼편에 있는 지하 법정의 문들 중 하나가 활짝 열리더니 비명 소리가 메아리쳐 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혼혈이에요. 정말로, 저는 혼혈이라고요! 제 아버지는 마법사예요. 마법사였어요. 그를 찾아보세요. 아르키 앤더톤, 그분은 유명한 빛자루 디자이너였어요. 그를 찾아보세요. 정말이에요. 내 몸에서 그 손 떼! 손 치워.....”

“이게 마지막 경고다.”

엄브릿지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말했다. 마법을 이용해 크게 키워진 그녀의 목소리는 남자의 절망적인 비명 소리를 뚫고 또렷이 들려왔다.

“계속 반항하면, 디멘터의 입맞춤에 처해질 것이다.”

남자의 비명 소리는 잣아들었지만, 목멘 흐느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끌고 가.”

엄브릿지가 말했다.

두 명의 디멘터가 썩어 문드러진 딱지투성이의 손으로 의식을 잃어 가는 마법사의 어깻죽지를 붙든 채, 법정의 출입구에 나타났다. 그들은 남자를 끌고 미끄러지듯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곧이어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켜 버렸다.

“다음.....메리 캐터몰.”

엄브릿지가 호명했다.

자그마한 여자가 일어섰다. 그녀는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검은 머리칼을 매끈하게 쪽을 찌고 있었고, 소박한 긴 망토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완전히 백지장 같았다. 그녀가 디멘터들 앞을 지나갈 때, 해리는 그녀가 몸서리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었다. 해리는 그 여자가 혼자서 지하 법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 그는 그녀를 뛰쳐나 법정 안으로 슬쩍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곳은 그가 예전에 마법 오남용 죄로 심문당했던 방과는 달랐다. 비록 천장은 똑같이 높았지만, 크기가 더 작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방은 깊은 우물의 밑바닥에 갇힌 것 같은 밀실 공포증을 자아냈다.

이곳에는 더 많은 수의 디멘터들이 방 안 전체에 걸쳐 차가운 냉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들은 높게 솟아오른 연단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에, 얼굴 없는 보초들처럼 우뚝 서 있었다. 저기 연단 난간 뒤에는 엄브릿지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한쪽 옆에는 악슬리가,

다른 한쪽에는 캐터몰 부인만큼이나 얼굴이 하얗게 질린 헤르미온느가 앉아 있었다. 연단의 발치에서 빛나는 은색 털이 길게 난 고양이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어슬렁거렸다. 해리는 그 고양이가 디멘터들로부터 뿐어져 나오는 절망감으로부터 기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절망은 피고인들이 느껴야 하는 것이지, 원고인들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다.

“앉아요.”

엄브릿지가 나긋나긋하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캐터몰 부인은 높이 솟은 연단 아래 바닥 가운데에 딱 하나 놓여 있는 의자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의자 팔걸이에서 쇠사슬들이 철컹거리며 나와 그녀를 꽁꽁 묶었다.

“당신이 메리 엘리자베스 캐터볼인가요?”

엄브릿지가 물었다.

캐터볼 부인은 덜덜 떨며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마법 관리부의 레지널드 캐터볼과 결혼했고?” 캐터볼 부인은 울음을 터트렸다.

“저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저와 만나기로 했는데!”

엄브릿지는 그녀의 말을 묵살했다.

“메이지, 엘리, 알프레드 캐터볼의 어머니이고?”

캐터볼 부인은 훨씬 더 심하게 흐느꼈다.

“제 아이들은 겁에 질렸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만.”

악슬리가 내뱉듯이 말했다.

“잡종 애새끼들 따위로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할 순 없다!” 해리는 높이 솟은 연단으로 올라가는 충계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캐터볼 부인의 울음소리가 해리의 발소리를 숨겨주었다. 패트로누스 고양이가 정찰을 하고 있는 지점을 지나자마자, 해리는 분명한 기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쪽은 따뜻하고 안락했다. 그 패트로누스는 엄브릿지의 것이 분명했는데, 아주 환하게 광채를 뿜고 있었다. 왜냐하면 엄브릿지는 자신의 본성과 딱 맞는 이곳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왜곡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기 때문이다. 해리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연단을 따라 걸어가 엄브릿지와 악슬리 뒤를 지나서, 헤르미온느의 뒷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라 펄쩍 뛰거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엄브릿지와 악슬리에게 머플리아토 마법을 걸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으나, 주문을 웅얼거리는 소리에 헤르미온느가 놀랄지도 몰랐다. 그때 엄브릿지가 캐터볼 부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재빨리 그 기회를 잡았다.

“난 네 뒤에 있어.”

해리가 헤르미온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그 바람에 그녀가 심문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잉크병을 엎지를 뻔했다. 하지만 엄브릿지와 악슬리 모두 캐터볼 부인에 몰두해있어서, 들키지 않고 지나갔다.

“오늘 마법부에 도착하자마자 지팡이를 압수당했죠, 캐터볼 부인?”  
엄브릿지가 말했다.

“22 센티미터, 빛나무, 유니콘 털 심. 맞나요?”

캐터볼 부인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떤 마녀나 마법사로부터 이 지팡이를 빼앗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겠어요?”

“빼..... 빼앗았다고요?”

캐터볼 부인이 흐느끼며 물었다.

“저는 결코 누구에게서도 그것을 빼..... 빼앗지 않았어요. 열한 살 때 저는 그 지팡이를 샀습니다. 그..... 그..... 그..... 그 지팡이가 저를 선택했어요.”  
캐터볼 부인은 더욱 거세게 울었다.

엄브릿지는 마치 소녀처럼 자지러지게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듣자, 해리는 엄브릿지를 한 대 때려 주고 싶은 충동이 치솟았다. 그때 엄브릿지가 자신의 희생양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였고, 그와 동시에 금빛 나는 무언가가 흔들리며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것은 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바로 로켓이었다.

그것을 발견한 헤르미온느가 자신도 모르게 혁하고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엄브릿지와 악슬리는 여전히 그들의 먹잇감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소리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았다.

“아니지요.”

엄브릿지가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캐터롤 부인. 지팡이들은 오직 마녀와 마법사만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당신은 마녀가 아니에요. 여기 당신에게 발송했던 설문지에 대한 당신의 답변이 있어요. 마팔다, 그걸 제게 넘겨주세요.”

엄브릿지가 조그만 손을 내밀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두꺼비 같아 보이던지, 해리는 그녀의 둥툭한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없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헤르미온느는 당황해서 손을 덜덜 떨었다. 옆에 있는 의자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는 서류 더미를 더듬더듬 뒤적인 끝에, 헤르미온느는 마침내 캐터롤 부인의 이름이 적힌 양피지 한 웅치를 꺼냈다.

“그, 그거 참 예쁘네요, 돌로레스.”

헤르미온느는 겹겹이 주름이 잡힌 엄브릿지의 블라우스 속에서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뭐요?”

엄브릿지가 훌끗 내려다보며 날카롭게 되물었다. “아 예, 오래된 가보죠.”

그녀가 커다란 가슴에 드리워진 로켓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s는 셀윈 가를 상징하지요.....저는 셀윈 가문과 친척지간입니다.....실은 제가 친척 관계에 있지 않은 순수혈통 가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요.....안타깝군요.”

그녀는 캐터롤 부인의 설문지를 펼컥거리며, 더욱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부모님 직업, 채소장수.” 악슬리가 조롱하듯이 키득거렸다. 저 아래에서는, 북슬북슬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며 정찰 중이었고, 디멘터들은 구석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엄브릿지의 새빨간 거짓말을 듣는 순간, 해리는 피가 거꾸로 치솟으면서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엄브릿지는 한낱 비열한 범죄자로부터 뇌물로 받은 로켓을 마치 자신의 순수혈통 증명서라도 되는 양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투명 망토로 굳이 감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팡이를 그대로 치켜들고 “스투페파이!”를 외쳤다.

당장 붉은 광선이 뿜어져 나왔다. 엄브릿지는 바닥에 축 늘어지면서, 이마를 난간 모서리에 부딪혔다. 캐터롤 부인의 서류들이 그녀의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 아래에서 어슬렁 대던 은빛 고양이도 사라져 버렸다.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휙몰아치는 바람처럼 그들을 덮쳤다. 당황한 악슬리는 이 소동의 원인을 찾아 두리번거렸고, 몸도 없이 허공에 떠 있는 해리의 손과 자신을 겨누고 있는 지팡이를 발견했다. 그는 황급히 지팡이를 꺼내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스투페파이!”

악슬리는 바닥으로 미끄러지더니 몸을 꼬부린 채 드러눕고 말았다.

“해리!”

“헤르미온느, 내가 여기 가만 앉아서, 그 여자가 가식을 떨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다면.....”

“해리, 캐터롤 부인!”

해리는 투명 망토를 벗어 던지며 획 돌아섰다. 저 아래에서, 구석에 있던 디멘터들이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자에 쇠사슬로 묶인 여자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가고 있었다. 패트로누스가 사라져서인지, 아니면 주인들에게 더 이상 통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감지해서인지, 그들은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것 같았다. 끈적끈적한 딱지투성이 손이 그녀의 턱을 쥐고 얼굴을 뒤로 젖히자, 캐터롤 부인은 무시무시한 공포의 비명을 내질렀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은빛 수사슴이 해리의 지팡이 끝에서 튀어나와 디멘터들을 향해 뛰어들었다.

디멘터들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더니 다시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사슴은 계속해서 유유히 법정 안을 달렸다. 그러자 은빛 고양이의 보호막보다 더욱 강력하고 따뜻한 수사슴의 빛이 지하 법정 전체를 가득 채웠다.

“호크룩스를 쟁겨.”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그는 투명 망토를 다시 가방 속에 쑤셔 넣으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리고 캐터볼 부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해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하지만 레그는 심문 대상자로 내 이름을 넘긴게 바로 당신이라고 했는데!”

“제가요?” 그녀를 끌고 있던 쇠사슬을 힘껏 당기며 해리가 말했다.

“전 마음을 바꿨습니다. 디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 이 쇠사슬 어떻게 없애지? ”

“잠깐, 지금 나는 여기서 월 좀 하고 있어.....”

“헤르미온느, 디멘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나도 알아, 해리. 하지만 이 여자가 깨어나서 로켓이 없어진 걸 알면 안 되잖아. 나는 이걸 복제해야 해. 제미니오! 자.....이렇게 해 놀으면 이 여자도 깨맣게 속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왔다.

“어디 보자.....레라시오!”

쇠사슬들이 철컹거리며 의자 팔걸이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하지만 캐터볼 부인은 여전히 몹시 겁에 질린 듯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여기를 떠날 거예요.”

해리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집으로 가서 얼른 애들을 데리고 떠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를 떠나세요. 변신하고 도망치세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셨지요? 이곳에선 공정한 심사 따위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해리”

헤르미온느가 불렀다.

“문밖에 온통 디멘터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패트로누스들이 있잖아.”

해리가 지팡이로 자신의 패트로누스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수사슴이 속도를 늦추더니, 여전히 밝게 빛을 뿜으며 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가 불러낼 수 있는 한 전부 불러내야 해. 네 것도 불러줘. 헤르미온느.”

“익스팩.....익스팩토 패트로눔.”

헤르미온느가 외쳤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저 애가 잘 못하는 유일한 주문이에요.”

해리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캐터볼 부인에게 일러 주었다.

“좀 운이 없었던 거야, 정말이야. 자, 어서, 헤르미온느.....”

“익스팩토 패트로눔!”

은빛 수달이 헤르미온느의 지팡이 끄트머리에서 튀어나왔다. 수달은 허공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며 수사슴에 가세했다.

“자, 어서.”

해리가 헤르미온느와 캐터볼 부인을 문으로 인도했다.

패트로누스가 지하 법정에서 미끄러져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놀란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디멘터들은 양쪽으로 물러서더니, 은빛동물들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당신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은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해리는 대기 중이던 머글 태생들에게 명령했다. 그들은 패트로누스들의 강렬한 빛에 눈이 부셔 하며, 여전히 몸을 약간 움츠리고 있었다.

“가능하면 외국으로 나가세요. 어떻게든 마법부로부터 멀리 도망치세요. 그것이 새로운 공식적 입장입니다. 자, 저 패트로누스들을 쫓아가기만 하면, 중앙 홀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거예요.”

그들은 용케 잡히지 않고 돌층계를 올라갔다. 하지만 승강기가 있는 곳에 이르자, 해리는 슬슬 걱정이 되었다. 만약 그들이 은빛 수사슴과 그 옆을 나란히 떠 가는 수달과 그중 절반은 머글 태생으로 기소된 2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중앙 홀에 들어선다면, 원치 않는 주의를 끌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승강기가 그들 앞에 덜커덩거리며 멈춰 선 순간, 해리는 이 달갑지 않은 결론에 이르렀다.

“레그!”

캐터볼 부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론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런콘이 절 빼내 주었어요. 그리고 엉브릿지와 악슬리를 공격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나라를 떠나래요.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거 같아요. 레그, 정말이에요. 어서 집에가서 애들을 데리고..... 그런데 당신 몸이 왜 이렇게 젖었어요?”

“물 때문에.”

론이 몸을 빼내며 중얼거렸다.

“해리, 그들은 마법부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어. 뭐라더라, 엉브릿지의 사무실 문에 있는 무슨 구멍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이라던데. 내 생각에, 5분밖에 시간이 없어. 만약.....”

헤르미온느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해리 쪽을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패트로누스는 평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해리,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빨리 움직이면 안 잡힐 거야.”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하나같이 그를 명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누가 지팡이를 갖고 있죠?”

그들 중 약 절반가량이 손을 들었다.

“좋아요.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모두 지팡이를 가진 사람 곁에 붙으세요. 그들이 우리를 막기 전에 아주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어서요.”

그들은 두 대의 승강기에 꼭꼭 끼어서 전부 올라탔다. 해리의 패트로누스는 황금 창살문 앞에서 보초를 섰다. 이윽고 문이 닫히자 승강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8 층.”

냉랭한 마녀의 목소리가 외쳤다.

“중앙 홀입니다.”

해리는 그들이 대단히 커다란 난관에 처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중앙 홀은 벽난로를 폐쇄하기 위해서 이쪽저쪽 벽난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이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빽 소리를 질렀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멈춰요!” 해리가 소리를 냄새 지르자, 런콘의 박력 있는 목소리가 중앙 홀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벽난로들을 폐쇄하고 있던 마법사들은 행동을 멈췄다.

“나를 따라와요.”

해리는 겁에 질린 머글 태생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론과 헤르미온느의 인도를 받으며, 무리 지어 나아갔다.

“무슨 일인가, 알버트?”

아침에 해리의 뒤를 이어서 벽난로에서 나왔던 바로 그 대머리 마법사가 물었다. 그는 초조한 기색이었다.

“출구를 폐쇄하기 전에 먼저 이들을 내보내야 하네.”

해리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앞에 서 있던 마법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출구를 폐쇄하고 어느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

“자네, 나와 맞서려는 것인가?”

해리는 사납게 몰아붙였다.

“내가 자네의 가계도를 검사했으면 좋겠나? 더크 크레스웰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안하네!”

머리가 벗겨진 마법사가 단박에 꼬리를 내리며 뒤로 물러섰다.

“별 뜻은 없었네. 알버트. 하지만..... 저자들은 심문을 받기위해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의 혈통은 순수하네. 감히 말하건대, 자네들보다도 훨씬 순수하네.” 해리가 대꾸했다. 그의 낮고 굵은 음성은 훌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어서 떠나시오.”

해리는 머글 태생들에게 외쳤다. 그들은 허둥지둥 앞으로 나와 벽난로 속으로 들어갔고, 짹을 지어 사라져 갔다. 마법부의 마법사들은 어쩔 줄 모르고 머뭇거렸다. 몇몇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혹자는 겁에 질리고 분개하는 얼굴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메리!”

캐터롤 부인이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더 이상 토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하고 기진맥진한 진짜 레그 캐터롤이 승강기에서 달려 나왔다.

“레..... 레그?”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론은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한편 대머리 마법사는, 두 명의 레그 캐터롤을 우스꽝스럽게 번갈아 쳐다보면서, 입을 딱 벌렸다.

“이봐..... 무슨 일이지? 이게 다 뭔가?”

“출구를 폐쇄해! 폐쇄!”

이때 악슬리가 또 다른 승강기에서 뛰쳐나오더니 벽난로 옆에 서 있는 무리를 향해 달려왔다. 캐터롤 부인을 제외한 머글 태생들 전부가 벽난로 속으로 막 사라진 뒤였다. 대머리 마법사가 재빨리 지팡이를 들자, 해리는 거대한 주먹을 들어 그에게 한 방을 먹였다. 그는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렸다.

“저놈이 머글 태생들이 탈출하는 것을 돋고 있었네, 악슬리!”

해리가 소리쳤다.

단박에 대머리 마법사의 동료들이 시끄럽게 들고 일어났다. 그 틈을 타서 론은 캐터롤 부인을 붙잡아 여전히 열려 있는 벽난로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정신이 혼란스러워진 악슬리는 해리와 해리에게 한 방 맞은 마법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동안에 진짜 레그 캐터롤은 계속해서 악을 썼다.

“내 아내! 내 아내와 같이 있던 자는 누구요? 어떻게 된 거요?”

해리는 악슬리의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의 야비한 얼굴에 뭔가 깨달은 듯한 기색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어서!”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향해 외쳤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벽난로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악슬리의 저주가 해리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몇 초간 빙글빙글 회전을 한 끝에, 그들은 변기 속에서부터 솟아올라 다시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나왔다. 해리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론은 바로 세면대 옆에 서서 여전히 캐터롤 부인과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레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가세요. 저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서 집에 가야 해요!”

그때 그들 뒤편에 있는 칸막이 안에서 소음이 들렸다. 해리는 주위를 둘러봤다. 악슬리가

나타난 것이다.

“가자!”

해리가 외쳤다. 그는 헤르미온느의 손과 론의 팔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빙글 돌았다.

압박 붕대로 온몸을 꽉 조이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암흑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 헤르미온느의 손이 그의 손아귀에서 미끄러진 것 같았다.

그는 이대로 질식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숨을 쉴 수도 앞을 볼 수도 없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곤 론의 팔과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 헤르미온느의 손가락뿐이었다.....

이윽고 뱀 모양의 문고리가 달린, 그리몰드 광장 12 번지의 문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미처 숨을 들이쉬기도 전에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보라색 광선이 뻔적했다. 헤르미온느의 손이 갑자기 그의 손을 꽉 쥐었고, 모든 것이 다시 캄캄해졌다.

#### 제 14 장 도둑

해리는 눈을 떴다. 금색과 초록색이 눈앞에서 아른아른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이 낙엽과 나뭇가지 같은 데에 누워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꽉 짓눌린 듯한 가슴에 숨을 들이마시려고 애를 쓰면서, 해리는 눈을 몇 번 깜박거렸다.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광채가 바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무성한 나뭇잎들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때 뭔가가 얼굴 가까운 곳에서 썰룩 움직였다. 해리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두 손과 무릎을 땅에 짚은 채, 그 작고 사나운 생물과 맞설 태세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론의 발이었다. 주위를 돌아보니, 그들과 헤르미온느는 숲 속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단 세 사람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다.

해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금지된 숲에 왔다는 것이다. 비록 호그와트 학교 구내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살짝 빠져나가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에 몰래 숨어들 생각를 하니, 잠깐 동안 가슴이 마구 뛰었다. 하지만 곧이어 론의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려오자, 해리는 얼른 그를 향해 기어갔다. 그러면서 금방 이곳이 금지된 숲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무들은 훨씬 더 어려 보였고, 훨씬 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으며, 바닥도 더 말끔했던 것이다.

해리는 론의 머리맡에서 역시 두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헤르미온느를 만났다. 하지만 론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모든 걱정거리들은 해리의 머리에서 썩 달아나고 말았다. 론의 왼쪽 몸 전체가 피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이다. 나뭇잎이 무성하게 깔린 땅바닥에 잿빛이 되다시피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이제 폴리주스 마법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다. 론은 캐터볼과 원래 자기 모습의 중간 상태였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까지 점차 사라지는 동안, 그의 머리카락은 점점 더 붉은색으로 변해 갔다.

“론이 어떻게 된 거지?” “순간이동 중에 신체분리가 된 거야.”

헤르미온느가 손으로는 벌써 분주하게 론의 소매를 만지면서 대답했다. 그 부분이 검붉은 피로 가장 축축하게 물들어 있었다.

해리가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는 동안, 헤르미온느는 론의 셔츠를 찢었다. 해리는 항상 신체분리 사고가 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헤르미온느가 론의 소매를 벗겨 내자 해리는 뱃속이 마구 울렁거렸다. 마치 칼로 말끔하게 도려낸 듯이 커다란 살점이 뭉텅 떨어져 나간 자리가 드러났던 것이다.

“해리, 어서, 내 백에 보면 ‘디터니 원액’이라는 딱지가 붙은 작은 약병이 있어.”

“백..... 알았어.....”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쓰러져 있던 자리로 황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작은 구슬 백을 움켜쥐고 얼른 손을 집어넣었다. 즉시 수많은 물건들이 차례차례 손에 와 달았다. 해리는 정신없이 더듬었다. 가죽 표지를 써운 책들, 텸 달린 점퍼의 소맷자락, 구두 굽.....

“어서!”

해리는 땅에 떨어진 자기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마법백의 안쪽 깊숙한 곳을 향해 겨누었다.

“아씨오 디터니!” 작은 갈색 병이 백 속에서 승 날아왔다. 해리는 재빨리 병을 붙잡아서 헤르미온느와 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제 론은 눈을 절반쯤 감고 있었고, 눈꺼풀 사이로는 허연 흰자위만이 보였다.

“기절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 또한 론 못지않게 파리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직도 여기저기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은 더 이상 마팔다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것 좀 열어 줘, 해리. 손이 떨려서 안 되겠어.”

해리는 작은 병의 뚜껑을 비틀어 열었다. 헤르미온느는 그것을 받아 들더니 피가 철철 흐르는 상처 부위에 물약을 세 방울 떨어뜨렸다. 초록색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다. 연기가 가시고 나자 피가 멈추었다. 이제 상처는 벌써 며칠쯤 지난 것처럼 보였다. 방금 전까지 뺄건 살이 드러나 있던 자리에 새로운 살이 자라고 있었다.

“우와.”

해리가 감탄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았어.”

헤르미온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론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주문들도 있지만, 도저히 시도해 볼 엄두가 안 났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더 심한 부상을 입히기라도 한다면..... 론은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그런데 론이 어쩌다 부상을 입은 거지? 내 말은.....”

해리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리볼드 광장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헤르미온느가 한숨을 푹 쉬었다.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한 표정이었다.

“해리, 이제 우린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우리가 순간이동을 할 때, 악슬리가 나를 꽉 붙잡고 있었는데, 힘이 너무 세서 도저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볼드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자도 여전히 붙어 있었던 거야. 그래, 내 생각엔 그자가 분명히 그 문을 본 것 같아. 그런데 악슬리는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줄 알고, 잠깐 날 붙잡은 손의 힘을 뺏어. 그 틈을 타서 나는 간신히 그자를 떨쳐 버리고 너희를 데리고 여기로 온 거야!”

“그렇다면 그자는 어디 있어? 잠깐만..... 설마 그자가 그리볼드 광장에 있다는 뜻은 아니겠지? 그자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

헤르미온느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해리,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반동 주문으로 그자가 강제로 튕겨 나가도록 했어. 하지만 내가 이미 그자를 피델리우스 마법의 보호막 안쪽으로 넣어 주었던 거야. 덤불도어 교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가 바로 비밀 파수꾼이잖아. 그런데 내가 그에게 그 비밀을 알려 준 거지, 안 그래?”

아닌 척해 봐야 소용이 없었다. 해리는 그녀의 말이 맞는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타격이었다. 이제 악슬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슬리는 순간이동을 통해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을 얼마든지 그 집 안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집이 비록 울음하고 숨 막힐 듯 답답하기 하지만, 그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안전한 피신처였다. 게다가 크리처가 그토록 명랑하고 친절해진 요즘에는 거의 집처럼 여겨졌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영원히 먹지 못할 스테이크와 키드니 파이를 만드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집요정을 생각하자, 해리는 가슴이 빠근하며 아팠다. 그것은 결코 먹지 못하게 된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해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혹시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

해리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매드아이의 눈을 꺼냈다. 헤르미온느가 기겁을 하면서 몸을 움츠렸다.

“엄브릿지가 이걸 자기 사무실에 문에 붙여 두고 있었어. 사람들을 감시하려고 말이야. 난 도저히 이걸 거기에 두고 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자들이 침입자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야.”

헤르미온느가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론이 신음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아직도 잿빛인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좀 어때?”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불쾌해.”

론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더니 부상당한 팔의 통증을 느낀 듯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가 어디 있는 거지?”

“퀴디치 월드컵이 열렸던 그 숲 속에 있어.”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나는 어딘가 외지고 은밀한 곳을 원했는데 이곳이…….”

“제일 먼저 생각났구나.”

해리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확실히 적막하기 짹이 없는 숲속 공터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헤르미온느가 제일 먼저 떠올린 장소로 순간이동을 했다가 그들이 무슨 일을 당했었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금방 그들을 찾아냈을까? 레질리먼시였을까? 심지어 이번에도 볼드모트나 혹은 그의 심복 부하들이,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이제 그만 이동해야 하지 않니?”

론이 해리에게 물었다. 론의 얼굴에 떠오를 표정을 보니, 해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도 모르겠어.”

론은 여전히 창백하고 축 늘어져 있었다. 심지어 일어나 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그를 데리고 이동을 한다는 건 무리였다.

“지금은 여기 좀 있자.”

해리가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발딱 일어났다.

“어디 가는 거야?”

론이 물었다.

“여기 머물러 있을 거면, 이 주위에 보호 마법을 쳐 놓아야 만 해.”

헤르미온느는 이렇게 대답하더니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입으로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서, 해리와 론 주위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걸었다. 해리는 주위 공기가 파르르 진동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마치 헤르미온느가 이 숲 속 공터에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는 것 같았다.

“살비오 헥시아…… 프로테고 토탈룸…… 레펠로 머글레툼…… 머플리아토…… 해리, 텐트를 꺼내…….”

“텐트라고?”

“백 안에!”

“아, 그렇지…… 백 안에…….”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굳이 손을 넣어 백 안을 더듬어 보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소환 마법을 썼다. 거친 캔버스 천과 밧줄 그리고 폴대로 이루어진 텐트가 튀어나왔다. 해리는 그것이 퀴디치 월드컵 때 숙소로 사용했던 그 텐트라는 걸 바로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희미하게 풍기는 고양이 냄새 때문이기도 했다.

“이건 마법부에 근무하는 퍼킨스 아저씨 것인 줄 알았는데?”

해리가 텐트의 말뚝을 풀며 물었다.

“그 사람은 분명 이걸 돌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 유통이 너무 심해서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이제는 지팡이로 대단히 복잡한 여덟 가지 동작을 하면서 대답했다.

“그래서 위즐리 아저씨가 빌려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에렉토!”

헤르미온느는 마지막 주문을 던붙이며 모양이 엉망인 텐트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러자 텐트가 단번에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솟아오르더니 완전한 모양을 갖추고 해리 앞에 우뚝 섰다. 곧이어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는 해리의 손에서 말뚝이 뿅하고 떠오르더니 마지막으로 당김 밧줄 끝에 쾅 하고 박혔다.

“케이브 이니미컴.”

헤르미온느는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멋지게 휘두르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적어도 그자들이 다가온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걸로 다 막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순 없어. 볼드.....”

“그 이름을 말하지 마!”

론이 사납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미안해.”

그들을 쳐다보려고 몸을 일으키던 론이 희미하게 신음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저주나 뭐 그런 것같이 느껴져서..... 우리, 대신 그냥 그 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제발?” “덤블도어 교수님 말씀이 이름을 두려워하는 건.....”

해리가 말을 꺼냈다.

“이봐, 혹시 네가 모를까 봐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는 게 결국 덤블도어 교수님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잖아.”

론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냥..... 그냥 그 사람에게 약간의 존중을 보이자고, 알았어?”

“존중이라고?”

해리가 기가 막혀 되물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경고하듯이 그를 째려보았다. 허약한 상태인 론과 더 이상 말씨름을 하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론을 반쯤은 들고 반쯤은 끌다시피 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 안은 해리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욕실과 조그만 주방까지 완벽하게 갖춘 소형 아파트 같았다. 해리는 낡은 안락의자를 옆으로 치우고 론을 조심스럽게 2층 침대의 아래쪽 침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렇게 잠깐 움직인 것만으로도, 론은 더욱더 창백해졌다. 일단 침대 위에 눕자, 론은 다시 눈을 감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차를 준비할게.”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리고 백 안에서 주전자와 머그잔을 꺼내더니 부엌으로 갔다.

해리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매드아이가 죽던 날 밤에 마셨던 파이어위스키만큼이나 반갑게 느껴졌다.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두려움이 약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론이 침묵을 깼다.

“캐터볼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운이 좋다면, 도망쳤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위안 삼아 따뜻한 머그잔을 꼭 감싸 준 채 말했다.

“캐터볼 씨가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동반 순간이동으로 캐터볼 부인을 데리고 나왔을 거야. 그리고 당장 가족을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났겠지. 해리가 부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충고 했거든.”

“제기랄, 꼭 도망쳤어야 하는데.”

론이 베개에 등을 기댄 채 말했다. 따뜻한 차를 마신 덕분에 기운이 꽤 회복된 것 같았다. 얼굴에도 약간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느낌으로는 레트 캐터볼이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내가 그 사람이었을 때, 다들 나에게 하는 말투가 그랬거든.”

오, 제발 무사히 도망쳤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 아즈카반이라도 가게 된다면.....”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힐끗 건너다보았다. 그리고 지팡이도 없는 캐터를 부인이 과연 남편과 함께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냐고 물어보려다가, 그만 말을 꿀꺽 삼켜 버렸다. 캐터를 부부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는 론을 그윽이 바라보고 있는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어찌나 부드럽고 다정하던지, 마치 론과 키스를 하고 있는 헤르미온느를 기습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 그건 갖고 있니?”

해리가 자기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짐짓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갖고 있느냐고? 뭐..... 뭘?”

헤르미온느가 살짝 놀라며 말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모든 고생을 했는데? 로켓 말이야! 로켓은 어디 있어?”

“그걸 손에 넣었어?”

론이 베개에서 몸을 약간 일으키며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너희 둘 다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제기랄, 한마디쯤 해 줄 수도 있었잖아!”

“우린 죽음을 먹는 자들을 피해서 죽어라 도망치는 중이었잖아,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여기 있어.”

그녀는 망토 호주머니에서 로켓을 꺼내어 론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거의 달걀만 했다. 수많은 작은 초록색 보석으로 새겨 넣은, 화려한 문양의 s라는 글자가 텐트의 캔버스 지붕을 통해 새어 들어온 햇빛을 받아서 희미하게 반짝거렸다.

“크리처가 가져온 이후로 누군가 이걸 파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

론이 그러길 바라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아직도 호크룩스인 게 확실하냔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래.”

헤르미온느는 론에게서 그걸 다시 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만약 마법의 힘으로 파괴되었다면, 틀림없이 손상된 흔적이 남았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그걸 다시 해리에게 넘기자, 해리는 그걸 손에 쥐고 빙 돌려 보았다. 흠 하나 없이 완벽하고 말끔해 보였다. 해리는 손상된 일기장의 잔해를 떠올렸다. 그리고 덤블도어가 호크룩스 반지를 파괴했을 때, 반지의 돌이 딱 소리를 내며 금이 갔던 것을 기억했다.

“크리처 말이 맞는 것 같아.”

해리가 말했다.

“이걸 파괴하기 전에 먼저 이걸 어떻게 열지 그 방법부터 연구해 보야 할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 해리는 자신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이 작은 황금 문 뒤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갑작스럽게 깨달았다. 그러자 세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겨우 찾아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로켓을 내동댕이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손가락으로 로켓을 비틀어 열어 보려고 했다. 그런 다음에는 헤르미온느가 레귤러스의 침실 문을 열 때 사용했던 주문을 시도해 보았다. 어느쪽도 소용이 없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다시 로켓을 건네주었다. 두 사람이 제각기 최선을 다해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아무도 그걸 여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게 느껴지니?”

로켓을 손에 꼭 쥐고 있던 론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론이 호크룩스를 해리에게 돌려주었다. 잠시 후에 해리는 론의 말뜻을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느끼는 이게 과연 그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맥박일까? 아니면 이 로켓 안에 든 원가가 마치 조그만 금속 심장처럼 고동치고 있는 걸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어떻게 파괴하는지 방법을 알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해리가 대답했다. 그는 좀처럼 내키지는 않았지만, 로켓이 달린 줄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로켓은 해그리드가 준 주머니와 나란히 그의 가슴에 매달려 있었다.

“교대로 텐트 밖에서 망을 봐야 할 것 같아.”

해리는 별떡 일어나서 기지개를 쭉 펴며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그리고 먹을 걸 어디서 구할지도 좀 생각해야 해. 아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해리가 날카롭게 덧붙였다. 론이 일어나 앉으려고 하다가 새파랗게 안색이 변했던 것이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생일날 선물한 스니코스코프를 조심스럽게 텐트안의 탁자 위에 옮겨놓은 다음,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그 후로 내내 번걸아 망을 보았다. 하지만 스니코스코프는 온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주위에 둘러쳐 놓은 보호 마법과 머글들을 물리치는 마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람들이 좀처럼 이 길을 다니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있는 숲속 공터에는 이따금씩 찾아드는 새들과 다람쥐들 이외에는 개미새끼 한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열 시가 되자, 해리는 지팡이 끝에 불을 켜고 헤르미온느와 자리를 교대했다. 그리고 적막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박쥐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머리 위로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별이 총총히 박힌 손바닥만한 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해리는 약간 머리가 어찔어찔하면서 시장기를 느꼈다. 헤르미온느는 그들이 그날 밤에 바로 그리울드 광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법의 백 안에 음식을 전혀 챙겨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먹을 거라곤 헤르미온느가 가장 가까운 나무들 사이에서 따다가 양철 주전자에 삶은 야생 버섯밖에 없었다. 론은 겨우 한두 입 먹더니 토했을 것 같은 표정으로 자기 뒷의 버섯을 밀쳐 버렸다. 해리는 오직 헤르미온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꼭 참았다.

바로 그때 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나뭇가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주변의 적막을 깨뜨렸다. 해리는 아마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내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경계 태세를 했다. 질긴 버섯 때문에 이미 불편할대로 불편해진 뱃속이 바싹 긴장을 하자 콕콕 쑤셨다.

전에는 만약 호크룩스를 다시 훔쳐 내기만 한다면, 하늘을 날아갈 듯이 신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팡이 불빛으로 바로 앞만 간신히 밝힌 채 어둠을 노려보며 앓아 있는 그의 마음은 오직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마치 몇 주, 혹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 지점만을 향해서 죽을힘을 다해 뛰어왔는데, 갑자기 걸음을 탁 멈추고 길 밖으로 벗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저 바깥 어딘가에는 또 다른 호크룩스들이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전부 아는 것도 아니었다. 한편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호크룩스는 어떻게 파괴할지를 몰라서 쪄쩔매는 상황이었다. 지금 그의 맨가슴에 매달려 있는 호크룩스는 이상하게도 몸의 온기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채, 마치 얼음물에서 방금 깨낸 물건처럼 여전히 살에 달는 촉감이 너무나 싸늘했다. 상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따금 해리는 자신의 심장 옆에서 조그만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팔딱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둠 속에 그렇게 앓아 있다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해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 내려고, 떨쳐 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집요하게 밀려들었다. 다른 한쪽이 살아 있는 한은 어느 쪽도 살 수 없다. 지금 그의 등 뒤에 있는 텐트 안에서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론과 헤르미온느는 원한다면 언제든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다. 해리는 기운을 잃고 공포에 떠는 자기 자신을 추스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웬지 가슴에 매달린 호크룩스가 그에게 남은 이승에서의

시간을 똑딱똑딱 재고 있는 것 같았다. 멍청한 생각이야..... 해리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런 생각은 하지마.....

흉터가 또다시 쿡쿡 쑤셔 왔다. 해리는 자신이 괜히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겁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쪽으로 생각을 돌리려고 했다. 가엾은 크리처가 생각났다.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을 텐데, 대신 악슬리가 나타났으니..... 과연 크리처는 침묵을 지킬까? 아니면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자기가 아는 걸 전부 털어놓을까? 해리는 지난 한 달 사이에 크리처의 마음이 완전히 자기 쪽으로 돌아섰다고, 이제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만약 죽음을 먹는자들이 집요정을 고문이라도 한다면? 소름 끼치는 광경들이 해리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해리는 얼른 그 생각도 떨쳐 버리려고 애썼다. 지금은 크리처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와 헤르미온느는 이미 크리처를 집 밖으로 불러내겨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혹시 마법부 사람이 함께 따라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집요정의 순간이동 역시, 악슬리가 헤르미온느의 소맷자락을 붙잡고 그리울드 광장까지 따라온 것과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흉터는 볼로 지지는 듯이 아팠다. 해리는 자신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루핀의 말이 옳았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거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마법들이 있는 것이다. 덤블도어는 왜 더 많은 설명을 해 주지 않았을까? 시간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 몇 년은, 아니 어쩌면 몇 세기는 더 살거라고 생각했을까? 그의 친구였던 니콜라스 플라멜처럼?

만약 그랬다면, 덤블도어의 생각이 틀렸던 것이다..... 스네이프는 그걸 대비하고 있었다..... 스네이프, 잠자는 뱀 같은 인간..... 그자가 탑의 꼭대기에서 공격을 가했다.....

그리고 덤블도어는 쓰러졌다..... 영영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걸 내놓아라, 그레고로비치.”

해리의 목소리는 높고 카랑카랑하고 싸늘했다. 길고 새하얀 그의 손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가 지팡이를 겨누고 있는 사람은 밧줄에 묶이지도 않았는데,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그 남자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괴한 줄이라도 있는 듯 사지로 몸통을 감싼 채 흔들거리고 있었다. 바로 해리의 눈앞에 보이는, 잔뜩 겁에 질린 그의 얼굴은 머리로 피가 쏠려서 새빨갛게 변했다.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과 길고 무성한 수염 때문에, 그의 모습은 꼭 결박당한 산타클로스처럼 보였다.

“내게 없소! 이젠 갖고 있지 않소! 아주 오래전에 도둑맞았단 말이오!”

“볼트모트 경에게 거짓말 따위는 안 통한다, 그레고로비치. 나는 알고 있어..... 언제나 알고 있지.....”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검은 눈동자가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에는 그 어둠이 해리를 완전히 삼켜 버렸다.

이제 해리는 등잔을 높이 든, 땅딸막한 그레고로비치의 뒤를 따라서 어두운 복도를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레고로비치는 복도 끝에 있는 어느 방으로 들어갔다. 등잔불이 작업실처럼 보이는 그 방 안을 비추었다. 대패질한 부스러기와 흔들리는 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황금이 보였다. 다음 순간 침입자는 지팡이로 기절 마법을 쏘았고, 의기양양하게 까르르 웃으며 창밖으로 날렵하게 뛰어내렸다.

이제 해리는 동굴처럼 넓게 벌어졌던 그레고로비치의 눈동자에서 순식간에 다시 빠져나왔다. 그레고로비치의 얼굴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도둑이 누구지, 그레고로비치?”

높고 냉랭한 목소리가 물었다.

“나는 모르오. 정말 모르오. 어떤 짚은이였는데, 제발, 안 돼. 제발!”

비명 소리가 길게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곧이어 초록 불빛이 번쩍하더니.....

“해리!”

해리가 숨을 헉헉거리며 눈을 번쩍 떴다. 이마의 흉터가 육신육신 쑤셨다. 해리는 텐트의 옆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옆으로 쓰러져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바닥에 쭉 뻗어 있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부스스한 그녀의 머리카락이, 저 높이 검은 나뭇가지 사이로 손바닥만큼 보이는 하늘마저 가리고 있었다.

“꿈을 꿨어.”

해리가 발딱 일어나 앉으면서 변명을 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헤르미온느의 찡그린 얼굴을 바라보려고 했다.

“깜박 출았었나 봐. 미안.”

“네 흉터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네 얼굴에 다 써 있는걸! 너는 또 볼……”

“그 이름을 말하지 마!”

텐트 깊숙한 곳에서 성난 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헤르미온느가 쏘아붙였다.

“그럼,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해리가 말했다.

“그건 꿈이었다고! 너 같으면 네 꿈을 통제할 수가 있겠니, 헤르미온느?”

“오클러먼시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면……”

하지만 해르는 말다툼 따위에는 흥미가 없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자가 그레고로비치를 찾아냈어, 헤르미온느. 그리고 죽인 것 같아. 하지만 그레고로비치를 죽이기 전에, 그자가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았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하다면, 그만 나랑 교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헤르미온느가 쌀쌀맞게 말했다.

“난 보초를 마저 설 수 있어!”

“아니야, 넌 완전히 지쳤어. 어서 가서 누워.”

헤르미온느는 고집 센 표정으로 텐트의 입구에 텔썩 주저앉았다. 해리는 부아가 치밀었지만,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론은 아래쪽 침상 밖으로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내민 채, 누워 있었다. 해리는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침상으로 기어 들어가 누웠다. 그리고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에 론이 입구 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헤르미온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말을 걸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던?”

해리는 잔뜩 눈살을 찌푸리며 모든 걸 상세히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그자가 그레고로비치를 찾아냈어. 그를 끌어 놓고 고문을 하고 있었어.”

“그레고로비치를 끌어 놓으면, 어떻게 새 지팡이를 만들라는 거지?”

“나도 몰라…… 그거 참 이상하지, 그치?”

해리는 두 눈을 감고 방금 전에 그가 보고 들었던 모든 장면들을 다시 되새겨 보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볼드모트는 해리의 지팡이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팡이 심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레고로비치에게 해리의 지팡이를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새 지팡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레고로비치에게 뭔가 달라고 했어.”

해리가 여전히 눈을 꼭 감은 채 말했다.

“그걸 넘겨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레고로비치는 이미 그거 도둑맞았다고 말했어……그러고는…… 그려고는……”

해리는 어떻게 자신이 볼드모트처럼, 그레고로비치의 눈을 통해서 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는지를 떠올렸다………

“그자는 그레고로비치의 머릿속을 읽었어. 그리고 나는 한 젊은이가 창턱에 앉아 있는 걸 보았지. 그자는 그레고로비치에게 주문을 쓰고는 훌쩍 뛰어내려 사라져 버렸어. 그자가 훔친 거야. 그 사람이 쫓고 있는 게 뭐든, 그자가 그걸 훔쳤어. 그런데 웬지 그 젊은이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단 말이야.....”

해리는 웃고 있던 그 젊은이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레고로비치의 기억에 따르면, 그 도둑질은 벌써 오래전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왜 그 젊은도둑의 얼굴이 이토록 낯익은 것일까?

텐트 안에서는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이 술렁거리는 소리조차 아득하게 들렸다. 해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론의 숨 소리뿐이었다. 얼마 후에 론이 속삭였다.

“그 도둑이 뭘 들고 있는지 못 봤니?”

“아니..... 그냥 뭔가 작은 거였어.”

“해리?”

론이 몸을 뒤척이자, 침대의 널빤지가 삐거덕 소리를 냈다.

“해리, 넌 그 사람이 호크룩스로 만들 또 다른 뭔가를 쫓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니?”

“나도 모르겠어.”

해리가 천천히 대답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또 다른 호크룩스를 만든다면 그자에게도 위험하지 않을까? 헤르미온느가 그자의 영혼은 이미 한계까지 갔다고 말했잖아?”

“그래. 하지만 그자는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

“어쩌면..... 그럴지도.....”

해리가 중얼거렸다. 그는 지금까지 볼드모트가 이 똑같은 지팡이 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믿어 왔다. 그 늙은 지팡이 제작자로부터 해결책을 알아내려고 한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그를 죽였다. 분명 지팡이 제작 비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서.

도대체 볼드모트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법부와 마법 세계 전체가 그의 발밑에 놓여 있는 이 마당에, 그자는 어째서 그레고로비치가 한때 소유했다가 이름 모를 도둑에게 도난당한 그 뭔가를 쫓는 데 열중하는 것일까?

해리는 아직도 그 금발 젊은이의 얼굴을 눈앞에 떠올릴 수 있었다.

명랑하면서도 제멋대로인 듯한 인상이었다. 웬지 그 젊은이에게는 프레드와 조지 같은 무모한 장난기가 풍겼다.

그는 마치 새처럼 창턱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해리는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 보았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레고로비치의 죽음과 함께, 이제 위험에 처한 것은 다름아닌 그 명랑한 얼굴의 도둑이었다. 아래쪽 침상에서 론이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도, 그리고 자신 역시 서서히 잠으로 빠져드는 동안에도, 해리의 생각은 그 젊은이에게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 제 15 장 도깨비의 복수

다음 날 아침 일찍, 다른 두 사람이 아직 깨어나지도 전에 텐트를 나선 해리는 가능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옹이가 많이 지고 생기 있어 보이는 나무를 찾아 숲을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매드아이 무디의 눈을 묻은 다음, 지팡이로 나무껍질에 작은 십자가를 새겨서 그 장소를 표시해 두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매드아이는 돌로레스 엠브릿지의 문 위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분명 이곳을 훨씬 더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해리는 텐트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고는 앞으로 할 일을 의논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어디든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었다. 론도 이에 동의했다. 단 한 가지, 이번에는 베이컨 샌드위치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래서 헤르미온느는 숲 속 공터 주변에 걸어 놓았던 마법을 해제했다. 그동안 해리와 론은 그들이

여기에서 야영을 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들을 모두 지웠다. 그런 다음 시장이 서는 작은 도시의 외곽으로 순간이동을 했다.

일단 작은 잡목 숲을 피난처 삼아 텐트를 치고 주변에 새로 보호 마법을 두르고 나자, 해리는 투명 망토를 쓰고 식량을 구하러 모험을 나섰다. 하지만 이 모험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해리가 마을로 막 들어서려고 할 때, 이상한 냉기가 밀려오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까리고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꿈쩍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넌 멋진 패트로누스를 불러낼 수 있잖아!”

결국 빈손으로 텐트에 돌아온 해라가 숨이 턱에 차서 겨우 디멘터란 말 한마디만 내뱉자, 론이 버럭 화를 냈다.

“그…… 그럴 수가 없었어.”

해리가 쑤시는 옆구리를 움켜쥔 채 숨을 헐떡거렸다.

“나…… 나오질 않았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동시에 낙담하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자, 해리는 창피했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몸서리쳐지는 악몽 같은 경험이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스르르 다가오는 디멘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을 마비시키는 냉기가 숨통을 짓누르고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그의 귓가를 가득 메우면서, 해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자리에 뿐리박힌 듯 서 있는 두 발을 간신히 옮겨 달아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 힘을 다 끌어 모아야만 했다. 해리는 동공이 뻣뻣한 디멘터들이, 비록 그들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이 어딜 가나 퍼뜨리는 절망감은 분명 느낄 머글들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린 아직도 먹을 걸 못 구했잖아.”

“입 다물어, 론.”

헤르미온느가 구박을 했다.

“해리, 무슨 일이야? 어째서 패트로누스를 불러내지 못한 거 같으니? 어제만 해도 완벽하게 불러냈는데!” “나도 몰라.”

해리는 퍼킨스의 낡은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더욱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자기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어제가 아주 오래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오늘 그는 다시 열세 살짜리 꼬마가 되어 버린 것이다.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유일하게 힘없이 기절해 버렸던 바로 그 꼬마가.

론이 의자 다리를 톡톡 걷어찼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으르렁거렸다.

“난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피를 절반이나 흘리고 죽을 뻔 했는데 그 후로 내가 먹은 거라곤 달랑 독버섯 두 송이가 전부란 말이야!”

“그럼 어디 네가 가서 디멘터들과 맞서 싸워 보든가.”

해리가 쏘아붙였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아직 눈치 채지 못한 모양인데, 난 지금 팔에 붕대를 감고 있거든!”

“그게 참 편리한 구실이구나.”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그럼 그렇지!”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턱 때리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해리, 그 로켓을 이리 줘! 어서!”

해리가 멀뚱히 보고만 있자, 헤르미온느가 손가락을 딱딱 튕기면서 성화를 부렸다.

“호크룩스 말이야, 해리. 너 아직도 그걸 걸고 있잖아!” 헤르미온느가 손을 내밀었다. 해리는 황금 줄에 목에서 벗었다. 호크룩스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해리는 이상하게 몸이 가쁜하고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기분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몸이 찌뿌듯하다는가, 뭔가 움직한 것이 뱃속을 짓누르는 듯했다는 사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좀 낫니?”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응, 훨씬 좋아!”

“해리.”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그의 앞에 바싹 얼굴을 들이밀더니, 그 통증이 찾아올 때면 늘 하던 바로 그 목소리로 물었다.

“너 혹시 로켓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니지, 그렇지?”

“뭐라고? 아니야!”

해리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내가 그걸 걸고 있는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전부 다 기억하는걸? 만약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을 거야, 안 그래? 지니 말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

“흠.”

헤르미온느는 묵직한 황금 로켓을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이걸 걸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텐트 안에 보관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호크룩스를 그냥 텐트 안에 널브러져 있게 둘 수는 없어.”

해리가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러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누가 훔쳐 가기라도 한다면.....”

“좋아, 알았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러더니 로켓을 자신의 목에 걸고 눈에 띄지 않도록 셔츠 안으로 집어넣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걸도록 하자. 누구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걸고 있지 않도록 말이야.”

“아주 좋아. 이제 그 문제는 해결했으니, 어서 음식을 좀 구하면 안 될까?” 론이 안달이 나서 말했다.

“좋아, 하지만 음식을 찾아보려면 어디 다른 곳으로 기야겠다.”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힐끗 보며 말했다.

“디멘터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결국 그들은 어느 외딴 농장의 소유자인,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농가에서 계란과 빵을 간신히 구할 수 있었다.

“도둑질은 아니야, 그렇지?”

다 함께 스크램블드에그를 얹은 토스트를 와구와구 먹으면서, 헤르미온느가 양심에 찔리는 듯 물었다.

“닭장 밑에 돈을 좀 두고 왔으니 된 거지?”

그러자 두 볼이 터질듯이 불룩한 론이 눈알을 굴리며 구박을 했다.

“에르.....미....니, 거帐篷 많다. 마음 폭 놔.”

정말로 배불리 실컷 먹고 나니, 훨씬 쉽게 긴장이 풀렸다. 그날 밤 디멘터에 대한 논쟁 따위는 한바탕 웃음으로 깨맣게 잊어버리고, 해리는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샘솟는 걸 느끼면서 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망을 서기로 했다.

세 사람은 배가 부르면 기운이 솟는 반면, 배가 텅 비면 언성이 높아지고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다. 물론 해리는 이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더즐리 가족과 살면서 거의 굶어 죽을 뻔했던 시절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었다. 한 편 헤르미온느는 비록 평소보다 약간 더 성미가 날카로워지고 뚱하니 말수가 적어지긴 했지만, 산딸기나 상한 비스킷 말고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근래 며칠을 그런대로 잘 참아냈다. 하지만 어머니나 호그와트의 집요정들 덕분에 매일 맛있는 세끼 식사를 꼬박꼬박 쟁겨 먹는데 익숙해져 있던 론은 굶주리게 되자 그만 이성을 잃고 사나워졌다. 게다가 우연히도 먹을 게 뚝 떨어졌을 때마다 호크룩스를 목에 가는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론은 더욱더 기분이 나빠졌다.

“그럼 다음엔 어디로 가?”

론이 입버릇처럼 물었다. 그는 자기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저 부족한 음식 타령이나 하고 앉아서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계획을 세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어디서 또 다른 호크룩스를 찾을 수 있을지, 이미 손에 넣은 호크룩스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헛되이 시간만 보냈다.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자. 그들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똑같은 말의 반복이되어 버렸다.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볼드모트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장소에 호크룩스를 숨겼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볼드모트가 한때 살았거나 방문했던 장소들을 마치 일종의 사악한 기도문처럼 달달 외우고 있었다. 그자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고아원, 교육을 받았던 호그와트,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근무했던 보진과 버크가게, 그리고 유배의 세월을 보냈던 알바니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추론의 근거가 되었다.

"그래, 그럼 알바니아로 가자. 나라 전체를 살펴보는 데 고작해야 반나절밖에 더 걸리겠느냐고."

론이 빙정거렸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자는 추방당하기 전에 이미 다섯 개의 호크룩스를 만들었어.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뱀이 여섯 번째 호크룩스일 거라고 확신하셨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뱀은 알바니아에 없어. 그런 항상 볼드..."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니?"

"좋아! 그 뱀은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이제 됐니?"

"글쎄."

"그렇다고 보진과 버크 가게에 뭘 숨겼을 것 같지도 않아."

해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지적했던 사실을 재빨리 다시 꺼냈다. 단지 이 거북한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다.

"보진과 버크는 어둠의 마법 물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야. 호크룩스라면 당장 알아봤을 거야."

론이 길게 하품을 했다. 해리는 론에게 뭔가 던지고 싶은 강한 충동을 간신히 억누른 채, 겨우 말을 이었다.

"난 여전히 그 자가 호그와트에 뭔가를 숨겨 놓았을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휴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덤블도어 교수님이 벌써 찾아내셨겠지, 해리!"

해리는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다시 주장을 되풀이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직접 내 앞에서, 자신도 호그와트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계속 말해 왔듯이. 만약 딱 한 군데 볼드....."

"어이!"

"좋아 그 사람 말이야!"

해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장소가 딱 한군데 있다면, 그건 바로 호그와트라고!"

"오, 그만 해."

론이 코웃음을 쳤다.

"그자의 학교라서?"

"그래, 그의 학교라서! 그곳은 그자의 첫 번째 진정한 집이었고, 그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어! 거긴 그에겐 모든 걸 의미한다고, 심지어 호그와트를 떠난 후에도 딱 한 군데."

"우리가 지금 그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거 맞지, 그렇지? 네 이야기가 아니라?"

론이 떠졌다. 그러더니 자신의 목에 걸린 호크룩스 줄을 확 잡아당겼다. 해리는 호크룩스 줄을 잡고서 론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사람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덤블도어 교수님께 일자리를 달라고 했다는 말은 우리도 이미 들었어."

헤르미온느 얼른 나섰다.

"맞아."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자가 오직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오려고 한다고 생각하셨지. 어쩌면 또 다른 호크룩스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학교 창립자의 물건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해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자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잖아, 그치?"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러니 창립자의 물건을 찾아내서 학교 안에 숨길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

"좋아, 그렇다면 호그와트는 잊어버리자."

마침내 해리도 단념한 듯이 말했다.

더 이상의 아무런 실마리도 없이, 그들은 런던으로 갔다. 그리고 투명 망토를 뒤집어쓴 채, 볼드모트가 자랐던 고아원을 찾았다. 결국 헤르미온느가 도서관으로 몰래 잠입하여 그 고아원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훌렸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들은 고아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보았지만, 사무실로 가득한 높은 건물만이 서 있었다.

"저 건물 밑을 파헤쳐 봐야 하지 않을까?"

헤르미온느가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여기에는 호크룩스를 숨겨 놓지는 않았을 거야"

해리가 말했다. 사실 그는 줄곧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아원은 볼드모트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던 곳이었다. 그러니 그곳에 자기 영혼의 일부를 감출리는 만무했다. 덤블도어는 해리에게, 볼드모트가 아주 멋지고 신비스런 곳에 호크룩스를 감추고 싶어 했다는 걸 보여 주었다. 이 음울한 회색빛 런던의 외딴 동네는 황금 문이 있고 대리석 바닥이 깔린 호그와트라든가 마법부, 혹은 마법사 은행인 그린고트 같은 건물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결국 새로운 사실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그들은 안전을 위해 매일 밤마다 다른 장소에 텐트를 설치하며 계속해서 교외를 옮겨 다녔다. 아침마다 자신들이 남긴 모든 흔적들을 말끔히 지웠는지 확인했으며, 그런 다음 또다시 인적이 드물고 외진 장소를 찾아 떠났다. 때로는 숲 속이나, 어두운 벼랑 틈, 붉은 활무지, 혹은 가시덤불이 뒤덮인 산등성이로 순간이동을 했으며, 한번은 겨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갈투성이의 산골짜리에서 지내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꾸러미 돌리기 게임이라도 하듯이 열두 시간마다 교대로 호크룩스를 목에 걸었다. 이 게임에서는 모두 음악이 멈추는 순간을 두려워했는데(실제 꾸러미 돌리기 게임에서는 음악이 멈추면 선물을 받을 수 있기에 즐겁지만 여기에서는 반대임:역주), 왜냐하면 걸리는 사람은 순간순간 커지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가득 찬 열두 시간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해리의 흉터는 계속해서 쑤셨다. 해리는 특히 호크룩스를 목에 걸고 있을 때 더 자주 통증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때로는 그 통증에 반응하는 자신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

"또 뭔야? 뭘 봤어?"

론은 해리가 인상을 짹그릴 때마다 재빨리 물었다.

"얼굴이야"

해리는 매번 똑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바로 그 얼굴, 그레고로비치에게서 물건을 훔친 도둑."

그러면 론은 실망감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쌩하니 돌아서 버리곤 했다. 해리는 론이 자기 가족이나 다른 불사조 기사단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해리는 텔레비전 안테나가 아니었다. 그는 오직 지금 볼드모트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널을 돌릴 수는 없었다. 지금 볼드모트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의 그 정체 모를 젊은이에 대해 끊임없이 골몰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해리는 그 청년의 이름이나 행방에 대해서 볼드모트가 자기만큼이나 아는게 없다고 확신했다. 결국 해리는 그의 흉터가 계속해서 확확 타는 듯하고쾌활한 금발 청년이 그의 기억 속에서 감질나게 아른거리는 동안, 아프거나 불쾌한

내심을 전혀 내비치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그가 도둑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다른 두 친구는 짜증만 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필사적으로 호크룩스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마당에, 그들의 반응을 전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었다.

며칠이 다시 몇 주일이 되면서, 해리는 웬지 론과 헤르미온느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해리가 텐트로 들어서면 두 사람이 갑자기 하던 이야기를 중단하고 입을 다무는 일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 머리를 맞대고 원가 빠르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서 약간 멀리 걸어가는 모습도 우연히 두 번이나 목격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해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자, 두 사람은 허둥지둥 나뭇가지를 줍거나 물을 뜨는 척하면서 딴전을 피웠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이제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종잡을 수 없게 느껴지는 이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지 그가 어떤 비밀스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해진 때가 되면 자신들도 그 계획을 알게 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걱정하지 않 수 없었다. 요즘 론은 자신의 불쾌한 기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 조차 그의 형편없는 지도력에 실망하게 될까 두려워졌다. 그래서 호크룩스가 더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 내려고 머리를 쥐어짰지만, 그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장소는 오직 호그와트 뿐이었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이 그곳을 전혀 그럴듯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들이 계속 옮겨 다니는 동안, 교외 지역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지금 그들은 떨어진 낙엽더미위에 텐트를 세우고 있었다. 디멘터들이 몰고 다니는 안개에 자연적인 안개까지 더해지고 비바람까지 몰아쳐서 그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헤르미온느의 식용 버섯 감별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의 계속되는 고립감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결핍, 혹은 볼드모트와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답함을 보상해 줄수는 없었다.

"우리 엄마는 그냥 허공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도록 하실 수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론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웨일스의 어느 강둑에 텐트를 치고 앉아 있는 중이었다. 론은 시무룩하게 자신의 접시에 담긴, 숯 덩어리가 되어 버린 물고기를 쭉쭉 찌르고 있었다. 해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론의 목을 힐끗 쳐다보았고, 예상했던 대로 그의 목에는 호크룩스의 황금 줄이 반짝이고 있었다. 해리는 론에게 욕설을 퍼붓고 싶은 충동과 간신히 맞서 싸웠다. 그래도 로켓을 걸지 않고 있을 때면, 론의 태도가 약간은 나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너희 어머니라고 하셔도 허공에서 음식을 만들어 낼 수는 없어."

헤르미온느가 반박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는 못해. 음식은 원소 변신술에 대한 겸프 법령의 다섯 가지 주요 예외 사항 중 첫 번째에 해당된다고."

"오, 제발 우리말로 해 줄래, 응?"

론이 이 사이에서 생선 가시를 빼내면서 쏘아붙였다.

"아무것도 없는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원가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소환 마법을 할 수 있듯이, 이미 원가를 갖고 있을 때에만 그걸 변형시키거나 양을 늘리거나 할 수 있단..."

"그래, 부탁인데 이건 양을 늘리거나 하지 말아 줘, 토했 것 같으니까."

론이 핀잔을 주었다.

"해리는 물고기를 잡았고, 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야! 언제나 결국에 음식을 차리는 사람은 바로 나란 사실을 진작부터 난 알고 있었어!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겠지!"

"아니야, 그건 네가 마법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론이 지지 않고 받아쳤다.

헤르미온느는 발딱 일어났다. 그 바람에 그녀의 양철 접시에 담겼던 구운 물고기가 바닥으로 쓸어졌다.

"론, 내일은 네가 요리를 한번 해 봐. 어디 네가 직접 재료를 구해서 뭔가 먹을 만한 음식이 되도록 마술을 부려보라고. 그럼 난 인상을 쓰고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징징거리기나 할 테니까. 너도 알게 될 거야. 그게 얼마나....."

"그만 해!"

해리가 벌떡 일어나면서 두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제 그만 해!"

헤르미온느는 분을 못 이기는 표정이었다.

"네가 어떻게 론의 편을 들 수가 있니, 론은 생전 요리도 한번 안하면서...."

"헤르미온느, 조용히 좀 해. 말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해리는 여전히 손을 든 채, 그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하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때 그들 옆으로 세차게 흐르는 어두운 강물 소리 너머로 또다시 두련두련 말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스니코스코프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머플리아토 주문을 걸어 놓았지, 그렇지?"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속삭였다.

"모든 마법을 다 걸어 놓았어."

헤르미온느가 속삭이며 대답했다.

"머플리아토 주문, 머글들을 물리치는 마법, 투영 마법, 전부 다. 저들이 누구든 우리를 보거나 우리가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

발을 질질 끄는 무거운 발소리와 뭔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돌과 나뭇가지가 구르는 소리로 미루어 봐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이 좁은 강둑으로 이어지는, 가파르고 나무가 우거진 비탈길을 기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세 사람은 지팡이를 뽑아 들고 기다렸다.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사방에 둘러쳐 놓은 마법들만으로도, 머글이나 일반 마녀와 마법사들의 눈길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만약 저들이 죽음을 먹는 자들이라면, 이제 처음으로 어둠의 마법에 맞서는 그들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사람들이 강둑으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여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해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들이 불과 6 미터도 안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폭포처럼 흐르는 강물 때문에 확실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구슬 백을 집어 들더니 안을 마구 뒤졌다. 잠시 후에 그녀는 늘어나는 귀 세 개를 꺼내서 해리와 론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들은 얼른 그 살구색 끈의 한쪽 끝을 귀에 꽂고 다른 한쪽 끝은 텐트 입구 바깥으로 내보냈다.

곧 해리는 피곤에 지친 남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기쯤에 연어가 몇마리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아직 철이 너무 이른가?

아씨오 연어!"

저 멀리서 풍덩 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리더니 물고기가 철썩 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투덜거렸다. 해리는 늘어나는 귀를 더욱 깊이 꽂았다. 출렁거리는 강물 소리 사이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영어도, 그가 들어 본 그 어떤 인간의 언어도 아니었다. 그냥 거친 순 소리가 빠르게 이어지는 투박하고 단조로운 소음 같았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약간 더 말이 느리고 저음이었다. 그때 텐트 반대편에서 확하고 불꽃이 피어올랐다. 불빛과 텐트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들이 어른거리더니, 연어를 굽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솔솔 날아왔다. 곧이어 달그락달그락 접시에 나이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처음 목소리가 들렸던 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 드시오. 그립죽. 고르눅."

도깨비들이야!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향해 입을 벙끗벙끗하며 소리없이 말했다.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도깨비들이 동시에 영어로 대답했다.

"그래, 그쪽 세 사람은 도망을 다닌 지 얼마나 되었나?"

나긋나긋하고 쾌활한, 새로운 목소리가 울었다. 웬지 해리는 그 목소리가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눈앞에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유쾌한 인상을 한 남자가 그려졌다.

"6 주던가.....7 주던가.....잊어버렸어요."

피곤한 목소리의 남자가 대답했다.

"처음 며칠을 도망다니다가 우연히 그립죽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오래지 않아서 고르눅이 합세했죠. 함께 다니는 사람이 생기니 좋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이프로 점시 바닥을 긁는 소리와 양철 잔을 집었다가 내려놓는 소리만이 들렸다.

"당신은 어쩌다 떠나게 되었나요, 테드?"

그 남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자들이 날 찾아오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네."

상냥한 목소리의 테드가 대답했다. 해리는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다. 통스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지난주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도망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다네, 원칙적으로 머글 태생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에, 단지 시간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결국에는 떠나야만 한다는 걸 말야. 내 아내는 괜찮을 걸세. 그녀는 순수혈통이니까. 그러다가 며칠 전에 여기서 딘을 만났지. 안 그러니 얘야."

"네, 맞아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서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다들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그들의 그리핀도르 기숙사 친구인 딘 토마스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었던 것이다.

"머글 태생인가 보지? 그런가?"

첫 번째 남자가 물었다.

"확실하지 않아요."

딘이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법사란 증거가 전혀 없어요."

침묵이 찾아오고 한동안 우적우적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이어졌다. 테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더크, 난 자네를 만나서 깜짝 놀랐다네, 물론 기쁘긴 했지만, 그래도 놀랐어. 자네가 잡혀갔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그랬었죠."

더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즈카반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도망쳐 나왔어요. 도울리쉬에게 기절 마법을 쏘고 그의 빗자루를 훔쳤죠. 생각보다 쉬웠어요. 당시에 도울리쉬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혼동 마법에 걸려 있었는지도 모르죠. 만약 그랬다면, 마녀인지 마법사인지 모르지만 혼동 마법을 건 그 사람과 악수라도 나누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 사람이 내 목숨을 살린 셈이니까 말이죠" 또다시 침묵이 흐르고 딱딱 불꽃이 튀는 소리와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만이 들렸다. 이윽고 테드가 말을 꺼냈다.

"그런데 거기 두 양반은 어느편이오? 내가 알기론 도깨비들은 모두 그 사람의 편인 것 같던데."

"당신이 잘못 알았소"

좀 더 목소리가 날카로운 도깨비가 대답했다.

"우린 아무 편도 아니오. 이건 마법사들의 전쟁이니까."

"그럼 어쩌다 숨어 다니게 된 거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요."

좀 더 목소리가 긁은 도깨비가 대답했다.

"내 보기엔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거절하고 났더니,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소."

"그자들이 당신에게 무슨 요구를 했소?"

테드가 물었다.

“우리 동족의 체통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시켰소!”

이 말을 할때 그 도깨비의 목소리는 훨씬 더 거칠고 사납게 변했다.

“난 집요정이 아니오”

“그립죽, 당신은 어떻게 된거요?”

“비슷한 이유였소”

좀 더 목소리가 날카로운 도깨비가 말했다.

“그린고트는 더 이상 우리 동족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마법사 주인을 인정하지 않소.”

그는 도깨비 말로 중얼거리며 몇 마디 덧붙였다. 그러자 고르눅이 깔깔 웃었다.

“무슨 농담이지요?”

딘이 물었다.

“저 도깨비 말이, 마법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구나”

더크가 설명해 주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전 못 알아 듣겠어요.”

딘이 말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살짝 복수를 해 주고 왔소.”

그립죽이 영어로 말했다.

“거참, 훌륭한 사람이구먼. 아니, 도깨비라고 해야겠군.”

테드가 황급히 고쳐 말했다.

“죽음을 먹는자 한 놈을 최고 보안 시설이 되어 있는 오래된 지하 금고에 처넣고 온 건 아닌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칼은 그놈이 그곳을 탈출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진 않을 거요.”

그립죽이 대답했다. 그러자 고르눅이 다시 깔깔거렸다. 더크 조차 킬킬거리며 메메른 웃음소리를 냈다.

“딘과 나는 아직도 잘 못알아 듣겠소.”

테드가 말했다.

“세베루스 스네이프도 그럴 거요. 비록 그자는 까맣게 모르지만.”

그립죽이 말했다. 그러자 도깨비 두명이 큰소리로 악의에 찬 웃음을 터트렸다.

한편 텐트 안에서는 해리의 숨소리가 흥분으로 가빠졌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서로 빤히 바라보면서, 최대한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

“테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더크가 물었다.

“호그와트에서 학생 몇명이 스네이프 사무실에 있던 그리핀도르의 칼을 훔쳐내려고 했다는 소식 말이에요.”

순간 해리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온 신경이 바싹 곤두선채, 해리는 그 자리에 뿌리박힌 듯 우뚝 서 있었다.

“금시초문인걸. <예언자 일보>에는 그런 기사가 없었는데, 안 그런가?”

테드가 말했다.

“나올리가 없죠.”

더크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여기 그립죽이 나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는 은행에서 일하는 빌 위즐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칼을 훔쳐 내려고 했던 학생 중 한명이 빌의 여동생이었데요.”

해리는 헤르미온느와 론을 힐끗 쳐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이 늘어나는 귀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 여자 애와 다른 친구 두 명이 스네이프의 사무실로 들어갔다더군요.

그러고는 스네이프가 칼을 보관하는 유리 상자를 깨뜨렸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걸 몰래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할때, 스네이프가 불잡은 모양이에요.”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테드가 안타까워했다.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자기들이 그 칼을 가지고 그사람한테 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 아니면 스네이프에게 써먹으려고 했을까?”

“글쎄,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려는 생각이었던 간에, 스네이프는 그 칼이 거기 있는게 더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데요.”

더크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를 뒤에, 내 생각에는 일단 그 사람으로 부터 승낙을 얻었겠지만, 그걸 런던으로 보내어 그린고트에 보관하도록 했다는 군요.”

도깨비들이 또다시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그게 왜 웃기는지 모르겠는걸.”

테드가 말했다.

“그건 가짜요.”

그립죽이 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핀도르의 칼이!”

“오, 그러소 그건 복제품이요. 사실 아주 잘 만든 복제품이긴 하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마법사가 만든 거요. 진짜 칼은 수 세기 전에 도깨비들이 만들었고, 그러므로 오직 도깨비들이 만든 무기만이 지닐수 있는 특별한 특성들이 깃들어 있소, 진짜 그리핀도르의 칼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린고트 지하 금고에 있는 건 아니오.”

“그렇군”

테드가 말했다.

“물론 그 사실을 괜히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테지?”

“내가 그런 걸 알려서 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할 이유가 뭐가 있소”

그립죽이 점잔을 빼며 말했다. 이번에는 테드와 딘까지 고르녹과 더크와 함께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렸다.

한편 텐트 안에서는 해리가 눈을 질끈 감은 채, 누군가 자신이 묻고 싶은 질문을 제발 대신 물어주길 바라고 있었다. 10분처럼 길게 느껴지는 한 순간이 지난후, 마침내 딘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역시(해리는 불현듯 그 사실이 떠올랐다.)한때는 지니의 남자 친구였던 것이다.

“지니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칼을 훔치려고 했던 아이들 말이에요.”

“오, 그 아이들은 벌을 받았지. 그것도 잔인하게.”

그립죽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하지만 무사하겠지, 안 그렇소?”

테드가 재빨리 물었다.

“위즐리 집안의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하지는 말아야 할 텐데, 안 그렇소?”

“내가 아는 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하지는 않았소.”

그립죽이 대답했다.

“천만다행이구먼.”

테드가 말했다.

“스네이프의 과거 행적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할 일이지”

“그럼 당신은 그 이야기를 믿는가 보군요, 테드?”

더크가 물었다.

“스네이프가 덤블도어를 죽였다고 믿는 건가요?”

“당연히 믿고 말고”

테드가 대답했다.

“설마 자네, 사실은 포터가 그 일에 연루된게 아니냐고 말할 작정은 아니겠지?”

“요즘은 뭘 믿어야 할지 통 알 수가 없어서 말이죠”

더크가 중얼거렸다.

“저는 해리 포터를 알아요”

딘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그거라고 생각해요. 선택받은 자 말이에요. 아니,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요.”

“그래, 그 아이가 바로 그거라고 믿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얘야.” 더크가 말했다.

“나도 그중 하나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지? 상황을 보건데, 달아났어. 만약 그 아이가 우리는 모르는 원가를 알고 있거나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지금쯤은 나와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숨어 있는 대신, 저항 세력을 다시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냔 말이다. 게다가 너도 알겠지만 <예언자 일보>는 그 아이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꽤 많이 . . . . .”

“<예언자 일보>라고?”

테드가 비웃었다.

“아직도 그런 쓰레기를 알고 있다면, 자넨 거짓말을 들어도 싸네, 진짜 사실을 알려거든 <이러쿵 저러쿵>을 읽어보게나”

그때 갑자기 컹하고 숨이 막히는 소리가 나더니, 탁탁 등을 치는 소리와 더불어 웹웨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로 미루어 보아. 더크가 생선 가시를 삼킨 모양이었다. 마침내 더크가 마구 침을 튀기고 따지고 들었다.

“<이러쿵 저러쿵>이라고요? 제노 러브굿의 그 정신 나간 헛소리 말인가요?”

“요즘엔 그렇게 헛소리만은 아니라네.”

테드가 대답했다.

“자네도 그걸 한번 읽어 보게나. 제노는 <예언자 일보>에서 무시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사화하고 있어. 지난 호에는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네. 사실 그자들이 제노를 얼마나 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지 모르겠어. 하지만 제노는 매번 잡지를 낼때마다 1면에다가 그 사람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마법사는 누구든 최고 우선순위로 해리 포터를 도와야만 한다고 쓰고 있네”

“도무지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를 도와줄 재간이 있어야 말이죠”

더크가 투덜거렸다.

“내 말좀 들어 보게나, 그자들이 아직까지 그 아이를 붙잡지 못하는 것만도 정말이지 대단한 일 아닌가.”

테드가 말했다.

“난 기꺼이 그 아이에게 한 수 배울걸세. 그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아닌가? 자유로운 몸으로 지내는 것 말일세!”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더크가 우울하게 말했다.

“마법부 전체와 모든 정보원들이 그 아이를 찾고 있으니, 나도 지금쯤이면 붙잡힐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말이죠. 그자들이 벌써 그 아이를 붙잡아 죽이고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 그런 소리 말게나 더크”

테드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나이프와 포크가 달그락 거리는 소리만 들릴뿐,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들이 다시 대화를 시작한 것은, 강둑에서 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무가 우거진 산비탈로 돌아가는게 좋은지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숲속이 몸을 숨기기에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모닥불을 끈 후에 비탈길을 기어 올라갔다. 그와 더불어 그들의 목소리도 점차 멀어졌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늘어나는 귀를 되감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입을 다물고 있기가 괴로웠던 해리는 막상 지금은 말문이 턱 막혀서, 겨우 “지니. . . . . 그 칼. . . . .” 이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그렇지!”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러고는 잽싸게 달려가 작은 구슬 백을 집어 들더니 곧장 겨드랑이까지 팔을 쑥 집어넣었다.

“여기. . . . . 어디. . . . . 있는데. . . . .”

헤르미온느는 이를 악문 채 중얼거렸다. 이윽고 백의 제일 깊숙한 곳에서 뭔가는 꺼냈다. 화려하게 장식이 된 액자의 모서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해리는 얼른 뛰어가서 헤르미온느를 도와 주었다. 둘이 그녀의 백에서 피니어스 나이젤러스의 빈 초상화를 꺼내고 나자, 헤르미온느는 지팡이를 겨누고 당장 주문을 걸 자세를 취했다.

“만약 그 칼이 던블도어 교수님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누군가 진짜 칼을 가짜와 바꿔치기 했다면.”

해리와 함께 초상화를 텐트 벽에 기대어 세워 놓으면서 헤르미온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분명히 보았을 거야! 그는 바로 그 유리상자 옆에 걸려있었으니까.”

“자고 있지만 않았다면 말이지”

해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텅 빈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해리 역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지팡이로 캔버스의 한가운데를 겨누고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 말했다.

“어.....피니어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헤르미온느가 또다시 물었다.

“블랙 교수님, 잠깐 저희랑 말씀 좀 나주실 수 있나요?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란 말은 항상 효과가 있지”

싸늘하고 심술궂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초상화 속에 나타났다. 그 즉시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웁스큐로!”

검은 눈가리개가 피니어스 나이젤러스의 날카롭고 까만 눈을 훑 덮어버렸다.

피니어스는 액자에 쿵 하고 부딪히면서 고통스런 비명을 질렀다.

“가.....감히 이런 짓을.....이.....이게 무슨짓?”

“정말 죄송합니다. 블랙 교수님.”

헤르미온느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이럴 수 밖에 없어요.”

“당장 이 더러운 물건을 치우지 못해! 당장 치우라고 했어! 넌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희가 어디 있는지는 전혀 신경쓰지 마세요”

해리가 말했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순간 얼어붙어 그림 위로 칠해진 눈가리개를 벗겨 내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이건 그 미꾸라지 같은 포터 군의 목소리가 아닌가?”

“어쩌면요”

해리는 이렇게 하면 피니어스 나이젤러스의 호기심을 계속 끌 수 있다는 걸 알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교수님께 여쭤 볼 게 좀 있어요. 그리핀도르의 칼에 대해서 말이죠.”

“아하”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어떻게든 해리의 모습을 보려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래, 그 명청한 여학생이 정말 현명하지 못한 짓을 했지.”

“내 동생에 대해 그따위로 말하지 말아요.”

론이 사납게 소리쳤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거만하게 눈썹을 치켜세웠다.

“여기 또 누가 있는거지?”

그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네 녀석의 말투가 아주 못마땅하구나! 그 여학생이랑 그친구들은 참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말이다. 감히 교장 선생님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니!”

“훔치려고 한게 아니에요”

해리가 반박했다.

“그 칼은 스네이프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 칼은 스네이프 교수님의 학교 물건이야”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흥분해서 말했다.  
“더구나 위즐리 집안의 계집애가 그 칼에 대해 무슨 권한이 있단 말이냐? 그 계집애는 벌을 받아 마땅해. 그 천치 같은 롱바텀과 괴짜 러브굿도 마찬가지야!”  
“네빌은 천치가 아니고 루나도 괴짜가 아니예요!”  
헤르미온느가 분개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게냐?”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또다시 눈가리개를 벗겨 내려고 기를 쓰면서 물었다.  
“날 어디로 데려온 거야? 어째서 나를 우리 조상님들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거냐?”  
“그런 건 신경쓰지 마세요! 스네이프가 지니와 네빌, 그리고 루나에게 어떤 벌을 주었죠?”  
해리가 다급하게 물었다.  
“스네이프 교수님은 그 아이들을 금지된 숲으로 보냈다. 그 저능아 해그리드 밑에서 일을 하라고 말이다.”  
“해그리드는 저능아가 아니예요!”  
헤르미온느가 꽉 소리쳤다.  
“스네이프야 그걸 별이라고 생각하겠죠.”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지니와 네빌, 그리고 루나는 아마 해그리드와 배꼽을 잡고 웃엇을 걸요. 금지된 숲이라니..... 그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련도 많이 겪었다고요! 훨씬 더 많이!”  
해리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최소한 크루시아투스 저주와 같은 아주 끔직하고 무시무시한 것을 줄곧 상상했던 것이다.  
“블랙 교수님, 저희가 진짜 알고 싶은 건요. 혹시 다른 누군가가 그 칼을 벌써 가지고 나간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혹시 청소나 위 다른걸 하기 위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눈가리개를 풀려는 몸부림을 잠시 멈추더니 킬킬거리고 웃었다.  
“역시 머글 태생들이란.....”  
그는 말을 이었다.  
“도깨비가 만든 무기는 청소따윈 필요없어. 이 무식한 아가씨야. 도깨비들이 만든 은 제품은 원래 세속의 더러운 것들은 밀어내고 오직 자신의 힘을 더욱 강하게 해 주는 것만 빨아들인단 말이다.”  
“헤르미온느를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해리가 발끈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듣는 것도 이젠 신물이 난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말했다.  
“그만 나는 교장실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눈가리개를 한 채, 그는 호그와트의 초상화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액자를 더듬었다. 문든 해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덤블도어 교수님! 덤틀도어 교수님을 이리로 불러 주실 수는 없나요?”  
“뭐라고 말했느냐?”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의 초상화 말이에요. 그분을 이쪽으로 모시고 오실 수는 없나요?”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해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봤더니 머글 태생들만 무식한게 아니로군. 포터, 호그와트 안에 있는 초상화들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딘가에 자신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그와트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덤틀도어를 이리로 데리고 올 수는 없다. 게다가 네 녀석들로부터 이런 몹쓸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여길 두 번 다시 찾아 올것 같으냐?”

해리는 약간 풀이 죽어서 다시 액자를 떠나려고 시도하는 피니어스를 지켜보았다.

“블랙 교수님”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다.

“제발 부탁인데 그 칼이 언제 마지막으로 상자에서 나왔는지 그것만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말은 지니가 꺼내기 전에 말이죠”  
피니어스가 신경질적으로 흥하고 콧방귀를 끄었다.

“그리핀도르의 칼이 그 상자에서 나오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것은 덤블도어 교수가 그걸로 반지를 깨뜨려 열려고 할때였을 게다.”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휙 돌려서 해리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피니어스 나이젤러스 앞에서 더 이상 자세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지만, 드디어 그가 돌파구를 찾아 준 것이다.

“그럼, 어디 너희끼리 잘 지내려무나.”

그는 약간 비꼬는 어조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액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의 모자챙만 겨우 보일락 말락 하는 순간, 해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만요! 저희를 봤다고 스네이프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눈가리개를 한 얼굴을 다시 초상화 속으로 빠죽 내밀었다.

“스네이프 교수님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수많은 엉뚱한 짓거리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 잘 잊어라, 포터!”

그 말을 남기도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음산한 배경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나도 알아.”

해리도 소리쳤다. 그러고는 도저히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허공으로 주먹을 날렸다.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수확을 거둔 것이다. 해리는 텐트 안을 이리저리 성큼성큼 돌아다녔다. 몇 킬로미터라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헤르미온느는 피니어스 나이젤러스의 초상화를 다시 구슬 백 안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백의 걸쇠를 딱 잠그고 나자, 얼른 한쪽으로 백을 던져 놓고는 환한 얼굴로 해리를 올려다보았다.

“그 칼로 호크룩스를 파괴할 수 있어! 도깨비가 만든 칼은 오직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것만 빨아들인다고 했더. 해리, 그 칼에는 바실리스크의 독이 스며들어 갔잖아.”

“그래서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칼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던 거야. 아직 필요하셨기 때문에 말이지. 그 로켓을 없애는 데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리고 설령 유언장에 그 칼에 대한 내용을 써 놓아도 그들이 너에게 그 칼을 주지않으리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복제품을 만들고.....”

“.....가짜 칼을 유리 상자에 넣으신 다음.....”

“.....진짜 칼을 옮기셨어, 그런데 어디로?”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마주 보았다. 해리는 웬지 그 대답이 바로 손을 뻗으면 달을 듯이 가까운 곳에서 보이지 않게 알짱알짱거리고 있는것 같았다. 왜 덤블도어는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실은 이미 말해주었는데, 단지 해리가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한 것일까?

“생각해 봐! 생각해 보라고!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 칼을 어디에 두셨을까?”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호그와트는 아니야”

해리가 다시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

“호그스미드 어딘가에 두신 건 아닐까?”

헤르미온느가 추측했다.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집? 거긴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거길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 그러니 그건 좀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

“덤블도어 교수님은 스네이프를 믿고 계셨어.”

해리가 그녀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스네이프에게 그 칼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 주실 정도는 아니었어.”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해리가 소리쳤다. 덤블도어가 스네이프의 신뢰성에 대해서 아주 약간이나마 의혹을 가졌었다는 생각을 하자,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다면 호그스미드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칼을 숨기셨을까? 론, 네 생각은 어떠니? 론? 론? ‘

해리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잠깐 동안 론이 텐트 밖으로 나간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론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아래쪽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 이제 내 생각이 났니? 그래?”

론이 빙정거렸다.

“무슨 소리야?”

론은 콧방귀를 뀌며 위쪽 침상의 밑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너희 둘이 계속 잘해봐, 괜히 내가 끼어서 너희의 흥을 깔 필요가 없지.”

해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움을 바라듯이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해리만큼이나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뭐 때문에 그러니?”

해리가 물었다.

“뭐 때문이냐고? 물론 아무것도 아니야”

론이 대꾸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리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어쨌든 너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

텐트 지붕에 후드득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야,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

해리가 말했다.

“어서 솔직히 털어놔.”

론이 긴 다리를 훑하고 침대에서 내려놓으면서 벌떡 일어나 않았다. 평소의 론답지 않게 몹시 야비해 보였다.

“좋아, 그럼 솔직히 말하지. 우리가 찾아내야 할 빌어먹을 또 다른 원가가 생겨다고 해서, 내가 좋아서 텐트 안을 경중경중 뛰어다닐 거라고 기대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그냥 네가 모르는 물건의 목록이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라고.”

“내가 모른다고?”

해리가 되풀이 했다.

“내가 모른다고?”

후드득, 후드득.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고 짖어졌다. 나뭇잎이 수북이 쌓인 강둑 위를 두들기던 빗줄기는 어둠 속을 활활 거리며 흘러가는 강물로 흘러 들어갔다. 기쁨에 들떴던 해리의 마음은 갑자기 두려움으로 어두워졌다. 지금 론은 그가 줄곧 걱정해 왔지만 무서워서 회피했던 사실을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고 있었다.

“난 여기서 난생처음으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군.”

론이 말을 이었다.

“팔은 절단나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밤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자느라 등은 뺏祓해 죽을 지경으로 말이야. 사실 난 우리가 몇 주일 정도만 열심히 돌아다니면 원가를 해낼 거라고 기대했어.”

“론”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론은 이제 사나운 기세로 텐트를 두드리는 빗소리에 파묻혀서 그 조용한 목소리를 못 들은 척 했다.

“난 네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리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럼, 도대체 네 기대에 그토록 못 미치는 게 뭐야?”

해리가 따졌다. 이제 슬슬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우리가 별 다섯개짜리 호텔에라도 둑을 줄 알았니? 이틀에 한번씩 호크룩스를 찾아낼 줄 알았어? 크리스마스쯤에는 엄마 곁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야?”

“우리는 네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론이 벌떡 일어서면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해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린 덤블도어 교수님이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모두 일러주신 줄 알았단 말이야. 너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줄 알았다고!”

“론!”

헤르미온느가 부르짖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텐트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렸지만 또다시 론은 못 들은 척 했다.

“그래, 실망시켜 미안하다.”

해리가 말했다. 비록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무기력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다.

“난 처음부터 줄곧 너에게 솔직했어. 덤블도어 교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건 모두 너에게 말해주었고 말이야. 혹시 네가 모를까봐 하는 말인데, 우리는 호크룩스를 하나 찾아냈고.....”

“그래, 그 밖의 나머지 호크룩스들을 찾아내는 일만큼이나, 그 하나를 없애는 일에도 굉장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린 그 근처도 못 가고 있잖아!”

“론, 그 로켓을 벗어.”

헤르미온느가 평소와 다르게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어서 벗어. 그걸 하루종일 걸고 다니지 않았다면, 그럼 말은 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 그래도 했을 거야.”

해리는 론을 위해 애써 변명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다.

“너희 두 사람이 내 뒤에서 속닥거리는 걸 내가 눈치 못 챘을 것 같아? 너희 둘이서 줄곧 이런 생각을 해 왔다는 걸 내가 짐작 못했을 것 같으냐고!”

“해리, 우린 절대.....”

“거짓말 할 것 없어!”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소리쳤다.

“너도 그렇게 말했잖아. 너도 실망스럽다고. 해리에게 뭔가 계획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이야.”

“해리,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부르짖었다.

이제 빗줄기는 텐트를 마구 두들기고 있었고, 헤르미온느의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불과 몇분전에 느꼈던 흥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잠깐 동안 환하게 타오른 불꽃은 어둡고 축축하고 싸늘한 것만 뒤에 남긴 채 꺼져 버렸다. 그리핀도르의 칼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그들은 텐트안에 갇힌 세명의 심대 아이들일 뿐이었다. 여태껏 이룬 업적이라고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 뿐인.

“그런데 왜 넌 아직 여기 있는 거니?”

해리가 론에게 물었다.

“나도 몰라!”

론이 대답했다.

“그럼 집으로나 가 버려”

해리가 쏘아붙였다.

“그래, 그럴거야!”

론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리고 해리를 향해 몇 발자국 다가갔다. 하지만 해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내 동생에 대해서 하는 말을 너는 못들었어? 그런데도 넌 개똥만큼도 신경 쓰질 않는군, 고작 금지된 숲이라고? 그래, 그보다 더 심한 시련을 겪은 해리 포터께서는 거기서 내 동생이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겠지, 그래 대왕 거미들이나 그 정신 나간 것들이 뭘 하든.....”

“난 단지 ..... 지니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을 뿐이야.  
해그리드 함께 있다고..”

“그래, 알겠어. 넌 아무 관심도 없겠지! 게다가 나머지 우리 식구들에 대해선 뭐라고 했지? ‘위즐리 집안의 아이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너도 그말 들었지?”

“그래, 나도.....”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신경 쓸 생각도 안 했지?”

“론!”

헤르미온느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서 소리쳤다.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뜻은 아닐거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말이지. 생각해 봐. 론, 빌은 벌써 상처를 입었고, 지금쯤이면 조지의 귀 한쪽이 없어진 걸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거야. 그런 데다 너까지 스팟터그로이트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된 줄 알것 아니야. 그러니 그 사람이 한 말은 분명히 그런 뜻이...”

“분명히 그렇다고 네가 장담할 수 있어? 좋아, 그렇다면 나도 괜히 가족 걱정을 하며 속 끓이지 않을게, 너희 둘이야 아무렇지도 않겠지. 너희 부모님은 안전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잖아!”

해리가 꽉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역시 그렇게 될지도 몰라!”

론이 맞받아쳤다.

“그럼 가 버려!”

해리가 호통을 쳤다.

“당장 그분들께 돌아가라고! 그래서 스팟터그로이트 병이 나온 척해, 그럼 엄마가 해 주는 음식도 실컷 먹을 수 있을 테고.....”

론이 갑자기 획 동작을 취했다. 해리가 재빨리 움직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미처 지팡이를 뽑기 전에 헤르미온느가 먼저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다.

“프로테고!”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그러자 그녀와 해리, 두 사람이 서 있는 쪽과 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방어벽이 펼쳐졌다. 동시에 마법의 힘 때문에 세 사람 모두 뒤로 조금씩 밀렸다. 해리와 론은 마치 생전 처음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투명한 장벽을 사이에 두고 무섭게 노려보고 서 있었다. 해리는 론에 대해 타오르는 증오심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호크룩스는 두고가!”

해리가 명령했다.

론은 머리 위로 줄을 벗더니 가까운 의자 위에 로켓을 획 던졌다. 그러고는 헤르미온느를 향해 돌아섰다.

“넌 어떻게 할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여기 남을 거야 아니면?”

“나, 나는.....”

헤르미온느는 괴로운 얼굴로 말했다.

“그.....그래, 난 남을 거야. 론, 우린 해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 우린 그를 도와서.....”

“알겠어. 넌 해리를 선택했다 이거지.”

“론, 제발 그려지마.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자신이 쳐 놓은 방패 마법에 가로막혔다. 그리고 그 주문을 해체했을 때쯤에는 이미 론이 어두운 밤 속으로 폭풍처럼 사납게 뛰쳐나간 뒤였다. 해리는 꼼짝 않고 조용히 서서, 헤르미온느가 흐느끼며 숲을 향해 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잠시 후에 헤르미온느가 돌아왔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론…… 론이 가버렸어! 순간이동으로 사라졌어.”

헤르미온느는 의자에 몸을 던지더니, 잔뜩 웅크린 채 큰 소리로 울었다.

해리는 머리가 멍했다. 이윽고 그는 허리를 숙여서 호크룩스를 집어 들고 자신의 목에 걸었다. 그리고 론의 침대엣 담요를 가져다가 헤르미온느를 덮어주었다. 침대로 기어 올라간 해리는 요란한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두운 텐트의 지붕을 명하니 올려다 보았다.

### 제 16 장 고드릭 골짜기

다음 날 눈을 뜯 해리는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 어제 일을 떠올렸다. 그는 어린애처럼 그 일이 꿈이기를, 론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배게 위에서 머리를 돌리자, 론의 텅 빈 침대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시신인 양 그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해리는 론의 침대로부터 애써 눈길을 돌리며,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헤르미온느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에게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옆을 지나가자, 잽싸게 얼굴을 돌렸다.

정말 떠났구나. 해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론은 떠났어. 마치 반복해서 곱씹으면 그 충격이 무뎌지기라도 할 것처럼, 해리는 몸을 씻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줄곧 그 생각만 했다. 론은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거야.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해리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보호 마법이 걸려있는 이상, 머잖아 그들이 이것을 떠나고 나면 론이 그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헤르미온느의 눈은 퉁퉁 붓고 새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다. 짐을 꾸릴 때에도 헤르미온느는 자꾸 웅그적거렸다. 해리는 왜 그녀가 이 강둑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지 충분히 짐작했다. 몇 번이나 번쩍 고개를 치켜드는 헤르미온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폭우 속에서 발소리라도 들은 줄로 착각 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무 사이로 빨간 머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역시 한 가닥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따라서 덩달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끝내 비가 할퀴고 간 숲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또다시 작은 분노가 마음속에서 폭발했다. “우리는 네가 무었을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라고 외치는 론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해리는 명치가 깎 막힌듯한 기분을 느끼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들 옆으로 탁한 강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고, 머잖아 강둑 위로 훌러넘칠 기세였다. 평소 같으면 이미 야영지를 떠난을 시간을 넘긴 후에도, 그들은 한 시간은 족히 더 서성거렸다. 구슬 백을 세 번이나 정리한 헤르미온느는 마침내 더 이상 머뭇거릴 구실을 찾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그녀와 해리는 손을 잡고 뽕 하고 사라졌다가, 히스로 뒤덮인 바람 부는 산중턱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손을 탁 놓아 버리더니 멀리 걸리 걸어가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파르르 몸을 떨었다. 아마도 흐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자신이 가서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꼼짝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 빠져 두고 있었다. 마음속이 온통 차갑고 답답하기만 했다. 또다시 론의 얼굴에 떠올랐던 경멸스런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해리는 괴로워하는 헤르미온느를 중심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히스를 헤치고 성큼성큼 걸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헤르미온느가 그들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행했을 주문들을 외웠다.

그 후로 며칠동안 그들은 론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해리는 그의 이름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을 작정이었고, 헤르미온느 역시 억지로 결론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듯 했다. 하지만 밤이면 이따금 해리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한 헤르미온느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한편 해리는 새삼스럽게 호그와트 비밀 지도를 다시 꺼내어, 지팡이 불빛 아래에서 살펴보는 일을 시작했다. 론의 이름이 표시된 점이 호그와트의 복도에 다시 나타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순수혈통이란 신분 덕분에 보호받은 론이 무사하게 안락한 성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하지만 론의 이름은 끝내 지도에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후 해리는 지도를 꺼내 놓고 여학생 기숙사에 있는 지니의 이름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자신의 강렬한 시선이 잠을 자고 있는 지니에게 전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신이 그녀를 생각하고 있으며, 무사하기만을 바란다는 걸 어떻게든 알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낮이 되면 그들은 그리핀도르의 칼이 있을 만한 곳을 생각 해 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그것을 숨겼을지 모를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결론은 점점 더 무모하고 황당해졌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해리는 덤블도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길 만한 장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론에게 더 화가 난 건지, 덤블도어에게 더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우리는 네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우린 덤블도어 교수님이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모두 일러 주신 줄 알았단 말이야. 너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속일 수는 없었다. 론의 말이 옳았다. 덤블도어는 그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남겨 주지 않았다. 그들은 호크룩스를 단 한개 발견했지만, 그것을 파괴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호크룩스들은 여전히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태였다. 절망감이 그를 짊어시키려 했다. 이제야 그는 이 정처없고 무의미한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친구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자신이 너무 몰염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몹시 심란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 묘안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헤르미온느마저 완전히 질렸다고 그만 떠날 거라고 통고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계속해서 초조하게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한마디 말도 없이 며칠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마치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론이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메워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의 초상화를 꺼내어 의자위에 세워 놓았다. 한편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해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좀 더 알아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듯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눈이 가려진채 다시 나타나는데에 동의했다. 해리 역시 그를 보는 것이 심지어 기쁘기까지 했는데, 비록 거만하고 빙정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을 찾아오는 유일한 방문자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딱 맘에 드는 정보 제공자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호그와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기뻐하며 들었다. 나이젤러스는 자신이 학교를 운영했던 이후로, 처음 임명된 슬리데린 출신 교장인 스네이프를 존경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스네이프를 비판하거나, 그에 대해 부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다. 그러지 않으면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즉시 자신의 그림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분명 어떤 실마리들을 훔치고 갔다. 스네이프는 골수분자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경미한 수준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지니는 호그스미드 출입이 금지되었고, 스네이프는 세명 이상의 학생들의 모임 및 비공식적인 학생 모임을 금하는 엄브릿지의 낡은 포고령을 복원시켰다. 그 모든 소식들을 통해서, 해리는 지니가 아마도 네빌과 루나와 함께, 덤블도어의 군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간간이 들리는 이런 불충분한 소식 때문에 해리는 지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복통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은 해리로 하여금 또다시 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덤블도어에 대해 그리고 거의 옛 여자친구만큼이나 그리운 호그와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스네이프의 엄격한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해리는 그저 학교로 돌아가서 스네이프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가세하는 장면을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한순간 미칠 듯한 광기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에는 잘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인 듯이 그껴졌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이 기피대상자 1번이고, 그의 머리에 만 갈레온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호그와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마법부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었다. 실제로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소재에 대해서 은근슬쩍 유도심문을 함으로써, 무심코 이 사실을 강조하곤 했다. 그가 그럴 때마다, 헤르미온느는 황급히 구슬 백 속에 그를 도로 쑤셔 넣었다.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이러한 불쾌한 작별이 있은 뒤에는 항상 며칠씩 다시 나타나기를 거부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다. 그들은 한 지역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된서리가 가장 큰 걱정거리인 영국의 남부지방에 머무는 대신, 나라 안 여기저기를 정처없이 떠돌아 다녔다. 진눈깨비가 몰아치는 산중턱도, 텐트에 차가운 물이 들이치는 드넓고 편평한 능지대도, 밤에 눈이 텐트를 반쯤 파묻어 버리는 스코틀랜드의 호수 한가운데의 작은 섬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벌써 몇몇 응접실 창문에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날 저녁, 해리는 자신들이 아직 탐색해 보지 않은 유일한 길을 다시 한 번 제안해 보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방금 평소와 다르게 푸짐한 식사를 마쳤다. 헤르미온느가 투명 망토를 입고 슈퍼마켓에 다녀왔던 것이다.(물론 가게를 나오면서 양심적으로 열려 있는 서랍에 돈을 징어넣었다.)해리는 볼로냐 스파게티와 배 통조림으로 잔뜩 배를 채웠으니, 어쩌면 헤르미온느를 설득하는것이 평소보다 좀 더 쉬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몇 시간 동안 호크룩스를 걸지 말고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하는 선견지명까지 발휘했던 것이다. 지금 그 로켓은 해리 옆의 침대 가장자리 위에 메달려 있었다.

“헤르미온느?”

“어?”

그녀는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손에 든 채, 푹 깨진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해리는 과연 그녀가 그 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어쨋거나 그것은 별로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책에서 무언가를 해독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주술사의 문자표>가 의자 팔걸이 위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해리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몇 년 전, 허가서에 서명해 달라고 이모와 이모부를 설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맥고나걸 교수에게 호그스미드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와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

“헤르미온느, 생각해 봤는데...”

“해리, 나좀 도와줄래?”

헤르미온느는 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내밀었다.

“이 상징을 봐.”

그녀가 어느 페이지의 윗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야기의 제목이라고 짐작되는 것(해리는 룬 문자를 읽을 줄 몰랐으므로, 확인 할 수는 없었지만) 위에 삼각형 모양의 눈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었다. 그 눈의 눈동자에는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난 고대 룬 문자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헤르미온느”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것은 룬 문자가 아니야. 문자표에도 없어. 난 출곧 눈을 그린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아닌것 같아.! 이건 잉크로 그려져

있어. 봐 누군가 거기에 그려넣은 거야. 이건 원래 책애 인쇄된 게 아니라고. 잘 생각해봐. 너 이거 본 적 있지 않니?”

“아니..아냐. 잠깐만.”

“이거 혹시 루나의 아버지가 목에 걸고 있던 것과 똑같은 상징 아니니?”

“맞아,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다면 그건 그린델왈드의 상징이야”

헤르미온느는 입을 딱 벌린채, 해리를 바라보았다.

“뭐?”

“크룸이 얘기해 줬어...”

그는 빅터 크룸이 결혼식장에서 해 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헤르미온느는 경악한 듯했다.

“그린델왈드의 상징이라고?”

그녀는 해리와 괴상한 상징을 번갈아 가면서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린델왈드가 상징 같은 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 내가 그에 대해 읽었던 어느 책에도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크룸은 그 상징이 덤스트랭 벽에 새겨져 있었고, 그린델왈드가 거기에 그것을 새긴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낡은 안락의자에 도로 주저앉았다.

“그것 참 이상하네, 만약 그게 어둠의 마법의 상징이라면 동화책에 그게 왜 있지?”

“그러게, 이상하네!”

해리가 맞장구 쳤다.

“게다가 스크림저도 그걸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는 장관이었고, 분명 어둠의 마법쪽으로 전문가였을 텐데 말이야.”

“그래... 아마도 그는 나처럼 그게 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책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제목위에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헤르미온느는 말없이 괴상한 상징에 대한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었다. 이후고, 해리가 다시 말을 꺼냈다.

“헤르미온느?”

“어?”

“줄곧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나....난 고드릭 골짜기에 가고싶어.”

헤르미온느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이 흐릿했다. 해리는 그녀가 아직도 책에 나온 그 수수께끼 같은 상징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나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해 왔어. 정말로 그래야 할 것 같아.”

“너, 내말 제대로 알아들은 거니?”

해리가 물었다.

“물론이야. 고드릭 골짜기에 가고 싶다는 거잖아. 나도 동의해. 사실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내 말은, 거기 이외에는 달리 우리가 갈 곳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 위험하긴 하겠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어...뭔가 거기에 있는다는 거지?”

해리가 물었다.

그러자 헤르미온느는 그만큼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칼 말이야. 해리! 덤블도어교수님은 네가 그곳에 가 보고 싶어 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야. 게다가 고드릭 골짜기는 고드릭 그리핀도르가 태어난 곳이자나.”

“정말이야? 그리핀도르가 고드릭 골짜기 출신이라고?”

“해리 넌 도대체 <마법의 역사>를 펼쳐 보기는 한거니?”

“음”

해리는 거의 몇 달 만에 처음인 듯한 기분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얼굴 근육이 이상하게 뻣뻣한 것 같았다.

“그책을 처음 샀을 때 아마 펼쳐 보기는 했던 것 같은데.... 딱 한번.....”

“그 마을 이름이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라서, 나는 네가 그 연관성을 알았나 보다 생각했지.”

헤르미온느가 딱딱거렸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근래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예전 그녀의 말투에 가까웠다. 해리는 지금이라도 헤르미온느의 입에서 당장 도서관에 가 보겠다는 말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마법의 역사>에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었어. 잠깐만....”

헤르미온느는 구슬 백을 열고 잠시 동안 뒤적이더니, 마침내 바틸다 백션이 쓴 <마법의 역사>라는 예전 교과서를 뽑아 들었다. 그러고는 책을 다급히 훑어보더니 마침내 원하던 대목을 찾았다.

“‘1689년 국제 비밀 법령에 서명한 후, 마법사들은 머글 세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마법사들이 그들만의 소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여러 마을들과 작은 촌락들에는 상호 협력과 보호를 위해 서로 단합한 몇몇 마법사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콘월의 틴워스, 요크셔의 어퍼 플래즐리, 영국 남해안의 오터리 성 캐치풀 마을 등은 너그럽거나 혹은 때로 혼동 마법에 걸린 머글들과 더불어 살았던 마법사 가족 집단의 주요 본거지였다. 이런한 준마법사 거주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위대한 마법사 고드릭 그리핀도르가 태어났고, 마법사 대장장이인 바우만 라이트가 최초의 골든 스니치를 만들었던 서부의 시골마을, 고드릭 골짜기일 것이다. 그곳은 공동묘지에는 고대 마법사 가문들의 이름이 즐비하게 새겨져 있는데, 수 세기 동안 묘지 옆은 작은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유령 이야기들은 분명 그 때문일 것이다. ‘

물론 너와 너의 부모님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

책을 덮으며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백션은 19세기 말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알겠니? 고드릭 골짜기, 고드릭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의 칼, 덤블도어 교수님은 네가 그 연관성을 발견할 거라 기대하지 않을셨을까?”

“오, 그래.....”

해리는 자신이 고드릭 골짜기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부모님의 무덤과 그가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던 집, 그리고 바틸다 백션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 마을에 마음이 이끌렸던 것이다.

“뮤리엘 할머니가 했던 말 기억나?”

그가 마침내 물었다.

“누구?”

“알잖아.”

그는 잠시 주저했다. 론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지니의 할머니 말이야. 결혼식 때 너한테 발목이 앙상하고 말한 사람.”

“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었다. 해리는 그녀가 곧 튀어나올지 모를 론의 이름을 감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다급히 말을 이었다.

“그 할머니는 바틸다 백션이 아직도 고드릭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말했어.”

“바틸다 백션.”

헤르미온느는 <마법의 역사>의 표지에 돌을새김된 바틸다의 이름을 집게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글쎄, 내 생각엔....:”

다음 순간 헤르미온느가 어찌나 헉하고 놀라던지, 해리는 가슴이 덜컹했다. 그리고 텐트의 출입구를 막고 있는 덮개를 강제로 걷어 올리며 들어오는 손을 반쯤은 예상하며, 얼른 지팡이를 뽑아들고 입구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왜?”

해리는 화도 나고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물었다.

“왜 그런 건데? 난 네가 죽음을 먹는 자가 텐트를 열고 들어 오는 걸 보기라도 한 줄 알았잖아.”

“해리, 바틸다가 그 칼을 갖고 있다면? 만약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걸 그녀에게 맡겼다면?”

해리는 가능성은 점쳐 보았다. 바틸다는 지금쯤은 이미 아주 늙은 여자일 것이고, 뮤리엘에 따르면 그녀는 ‘망령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덤블도어가 그리핀도르의 칼을 그녀에게 숨겼다는게 가능한 일일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리는 덤블도어가 너무 많은 걸 운에 맡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덤블도어는 자신이 칼을 몰래 가짜와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았고, 바틸다와의 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헤르미온느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설 때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해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에 아주 놀랄 만큼 기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그랬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 고드릭 골짜기로 가는 거지?”

“응, 하지만 거기에 대해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해야 할거야, 해리.”

이제 헤르미온느는 똑바로 몸을 세우고 앉았다. 해리는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자, 자신만큼이나 그녀도 기운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선 우리는 함께 투명 망토를 쓴 채 순간이동으로 사라지는 법을 연습해야 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폴리주스 마법약을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투명 마법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폴리주스 마법약을 쓸 경우를 대비해서,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모아 두기는 해야 할 거야, 해리, 사실 나는 폴리주스 마법약이 더 나을 거 같아. 변장이 철저할수록 더 잘.....”

해리는 말이 중단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면서, 헤르미온느가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린고트에 보관된 칼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낸 이후 처음으로 해리의 가슴을 설렘으로 가득 찼다.

드디어 고향에 가는 것이다. 그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볼드모트만 아니었다면 그는 그 고드릭 골짜기에서 성장하고 해마다 방학을 보냈을 것이다. 어쩌면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동생들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열입곱번째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삶이 지금 이 순간만큼 실감나게 피부로 와 닿은 적이 없었다. 지금 해리는 그런 삶을 승두리째 빼았겼던 바로 그 장소를 보러 갈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헤르미온느가 잠자리에 든 뒤, 해리는 조용히 헤르미온느의 구슬 백에서 자신의 배낭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그리드가 아주 오래전에 그에게 주었던 사진첩을 꺼냈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부모님의 낡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부모님과 관계된 것 중 남은 것이라곤 이 사진들이 전부였다.

해리는 바로 다음 날이라도 당장 고드릭 골짜기를 향해 출발하고 싶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생각은 달랐다. 볼드모트는 분명 해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현장으로 돌아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녀는 반드시 최대한 철저하게 변장을 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리스마스 장을 보고 있는 무고한 머글들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았고, 투명 망토를 함께 쓰고 순간이동하는 법을 연습했다.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여행을 떠나자고 동의한 것은 꼭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순간이동으로 마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므로 늦은 오후 시간에 두 사람은 드디어 폴리주스 마법약을 마셨다. 그리고 해리는 머리가 벗겨진 중년의 머글남자로, 헤르미온느는 왜소하고 생쥐를 닮은 그의 아내로 변신했다. 해리의 목에 걸려있는 호크룩스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이 들어 있는 구슬 백은 헤르미온느의 말쑥한 코트 안주머니 속에 꽂혀 있었다. 해리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투명망토를 덮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숨막히는 어둠속으로 빨려들어갔다.

해리는 심장이 터질듯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다. 그들은 검푸른 하늘 아래의 눈쌓인 골목길에 손을 맞잡고 서있었다. 하늘에는 초저녁 별들이 벌써부터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좁은 골목 양편에는 창가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거리는 작은 시골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들 앞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금빛 가로등의 휘황한 불빛이 마을의 중심가를 알려주고 있었다.

“온통 눈이야!”

헤르미온느가 망토 아래에서 속삭였다.

“왜 우리가 눈 생각을 못했지? 아무리 주의를 해도 발자국이 남고 말거야! 우린 그것들을 지워야 해..... 네가 앞서가. 내가 해볼게....”  
하지만 해리는 그들의 자취를 마법으로 지워 가면서 모습을 숨긴 채, 말의 탈을 쓰고 무언극을 하는 사람들처럼 마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망토를 벗자.”

해리가 제안하자 헤르미온느는 겁먹은 얼굴이 되었다.

“제발 부탁이야. 아무도 우리를 못 알아볼 텐데 뭐, 게다가 근처에는 아무도 없잖아.”

그는 곁곳 속에 투명 망토를 집어넣고 헤르미온느와 함께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집들을 좀 더 지나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에는 듯 했다. 그 집들 중 하나가 한때 제임스와 릴리가 살았던 곳일수도, 혹은 현재 바틸다가 살고 있는 곳일 수도 있었다. 해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이곳을 영영 떠났을때 그는 겨우 한 살을 조금 넘겼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무언가 기억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현관문들과 눈 쌓인 지붕들 그리고 앞쪽 베란다들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신이 살았던 집을 과연 볼 수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피델리우스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머잖아 그들이 따라 걷고 있던 좁은 골목길이 왼쪽으로 휘어졌고, 마을의 중심인 조그만 광장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색색의 전구들이 사방에 둘러쳐진 광장 한가운데에는 전쟁 기념비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바람에 날려 휘어진 크리스마스트리가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가게와 우체국, 술집이 있었고, 광장 너머에는 작은 교회가 서 있었는데. 스테인드글拉斯로 된 교회 창문들이 보석처럼 밝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광장의 눈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사람들이 온종이 밟고 지나간 자리는 딱딱하고 미끄러웠다. 마을 주민들이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앞을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이 잠깐씩 가로등 불에 환히 비쳤다. 술집 문이 열리고 닫힐때마다,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유행가 소리가 흘러나왔다. 곧이어 작은 교회안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었다.

“해리 오늘이 크리스마스인가 봐!”

헤르미온느가 외쳤다.

“그런가?”

그는 날짜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몇 주 동안 신문 한장 읽지 못했던 것이다.

“분명히 오늘이야!”

헤르미온느가 교회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들은..... 그분들은 저 안에 계실거야 그렇지 않니? 너희 엄마와 아빠 말이야. 교회 뒤에 묘지가 보여”

해리는 흥분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다. 막상 코앞에 닥치고 보니, 정말 그 무덤을 보고 싶은 건지 의심스러워졌다. 헤르미온느도 그의 기분을 알아챈 것 같았다. 왜냐하면 해리에게 손을 뻗더니, 그를 앞으로 잡아끌며 처음으로 앞장을 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광장을 반쯤 가로질렀을때, 그녀는 딱 멈춰섰다.

“해리, 저것봐”

헤르미온느가 전쟁 기념비를 가리켰다. 그들이 그 앞을 지나는 순간 모양이 바뀌었던 것이다. 전사자들의 이름으로 뒤덮인 오벨리스크 대신, 그 자리에는 세사람의 동상이 서 있었다. 형글어진 머리에 안경을 낀 남자와 긴 머리에

다정하고 예쁘장한 얼굴의 여자,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조그만 사내아기였다. 솜털이 달린 하얀 모자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다. 해리는 부모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오려다보며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에 동상이 있다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돌로 형상화된 자신을, 이마의 흉터가 없는 행복한 아기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만 가자.”

원 없이 동상을 바라보고 나서 해리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교회로 향했다. 하지만 해리가 길을 건너면서 어깨 너머로 힐끗 돌아보자, 그 동상은 다시 전쟁 기념비로 바뀌어 있었다.

교회에 다가갈수록, 노랫소리는 더욱 커졌다. 해리는 목이 메었다.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 강렬하게 호그와트를 상기시켰기 때문이었다. 갑옷 속에서 야한 내용의 캐럴을 고래고래 불러 대번 피브스, 대연회장에 세워졌던 열두 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 마법사 폭죽에서 나온 여자 모자를 쓴 덤블도어, 그리고 손으로 뜯 스웨터를 입은 론.....

묘지의 입구에는 좁은 문이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가능한 한 소리 안나게 문을 밀어서 열었고, 두 사람은 그것을 통과했다. 교회 문 앞까지 이어지는 미끄러운 오솔길의 양옆으로는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빛나는 유리창 아래에 드리워진 그늘을 따라 교회 건물을 빙 돌아갔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 뒤로 눈이 파헤쳐진 깊은 도랑이 생겼다.

교회 뒤에는 눈 덮인 묘비들이 줄을 지어 푸르스름한 눈 더미 밖으로 솟아 있었다. 스테인드글라스의 눈부신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눈 더미는 빨간색과 금색, 초록색으로 현란하게 물들었다. 해리는 곁옷 주머니 속으로 지팡이를 꽉 움켜지고 가장 가까운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

“이것 봐, 아보트 집안 사람이야. 오래전에 돌아가신, 한나의 친척일지도 몰라.”

“목소리 좀 낮춰.”

헤르미온느가 애걸하듯이 말했다.

그들은 오래된 묘비에 적힌 묘비명을 자세히 보기 위해 연방 허리를 굽히면서, 혹시 미행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따금 사방을 둘러싼 어둠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눈밭에 깊은 구덩이를 만들면서, 그들은 점점 더 묘지 안쪽으로 깊숙이 헤치고 들어갔다.

“해리, 여기야!”

헤르미온느가 묘비 두줄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해리는 터질 듯이 고동치는 심장을 느끼며, 그녀에게로 힘겹게 돌아가야만 했다.

“이게.....?”

“아니, 하지만 이것 봐!”

그녀는 어두운 빛깔의 돌을 가리켰다. 해리는 몸을 숙이고 바라보았다. 얼어붙고 이끼가 낀 화강암 위에 ‘켄드라 덤블도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녀의 출생일, 사망일과 더불어 ‘딸 아리애나와 함께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비문도 있었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도 머물리라.

그렇다면 리타 스키터와 뮤리엘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셈이다. 덤블도어 가족은 실제로 이곳에 살았으며, 그중 일부는 이곳에서 죽었다.

그 묘를 직접 보자, 해리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때보다 더욱 기분이 나빴다. 자신과 덤블도어 두 사람 모두 이 공동묘지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덤블도어는 그 사실을 말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한 연관성을 알려주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이곳을 찾아올 수도 있었다. 잠시 동안 해리는 덤블도어와 나란히 이곳에 오는 상상을 하면서, 그것이 두 사람에게 어떤 결속감을 주었을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뜻 깊은 일이 되었을지 생각했다. 하지만 덤블도어에게게는 그들의 가족이 같은 묘지에 나란히 묻혀 있다는 사실이 전혀 중요치 않은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해리가 해 주길 바랐던 임무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보였다.

헤르미온느는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어둠에 가려져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문을 다시 읽어 보았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도 머물리라.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의 최고 연장자였던 덤블도어가 그 문장을 골랐을 것이다.

“너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게 확실.....?”

헤르미온느가 말문을 열었다.

“안 하셨어.”

해리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계속 둘러보자.”

해리는 차라리 그 비석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등을 돌렸다. 잔뜩 기대에 들떠 있는 마음을 괜한 원망으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야!”

잠시 후 헤르미온느가 어둠 속에서 외쳤다.

“오 아니야, 미안해! 포터라고 쓰여있는 줄 알았어.”

헤르미온느는 어느 무너져 가는 이끼 낀 묘비를 문질러 닦더니, 약간 인상을 찡그린 채 골똘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리, 잠깐 다시 와 봐.”

해리는 다시 괜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에 툴툴거리며 눈을 해치고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왜?”

“이것 봐!”

그 무덤은 아주 오래된 데다. 심하게 손상되어, 이름조차 알아볼수 없었다.

헤르미온느는 이름 아래에 새겨진 상징을 가리켰다.

“해리, 이건 책에 있던 그 상징이야.”

해리는 그녀가 지목한 곳을 자세히 관찰했다. 하지만 그 묘비는 너무나 닳아 있어서, 거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거의 읽기조차 어려운 이름 아래에 삼각형 모양의 상지잉 겨우 있는 듯할 뿐이었다.

“그래..... 그런 것도 같네.....”

헤르미온느는 지팡이에 불을 밝히더니, 그것으로 묘비의 이름을 가리켰다.

“이그.....이그노투스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

“난 계속 우리 부모님을 찾아볼께, 알았지?”

해리는 조금 짜증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오래된 무덤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헤르미온느는 내려버둔채, 다시 무덤을 찾기 시작했다.

이따금 아보트처럼 호그와트에서 만난 적이 있는 집안의 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때로는 한 마법사 가문의 여러 세대가 묘지에 묻혀있기도 했다. 해리는 묘비에

적힌 날짜들을 통해서 그 가문의 맥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후손들이 고드락

골짜기에서 먼 곳으로 이주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무덤들 한 가운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묘비를 발견할 때마다 기대와 두려움으로 눈앞이 아찔했다.

갑작스레 어둠과 침묵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다. 해리는 디멘터를 떠올리며 걱정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캐럴이 끝나고 교회 신자들이 다시 광장으로 돌아감에 따라, 재잘거리는 소리와 시끌벅적한 소음이 사라지고 있을 뿐이란 걸 깨달았다. 그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막 등불을 껏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헤르미온느의 목소리가 세번째로 들려왔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해리, 그분들이 여기 계셔....바로 여기.”

해리는 그녀의 어조를 통해서 이번에는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는

헤르미온느를 향해 다가갔다. 그것은 덤블도어가 죽은 직후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기분이었는데, 비통함이 그의 심장과 폐를 실제로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 묘비는 켄드라와 아리애나의 묘비 바로 두 줄 위에 있었다. 덤블도어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있었고,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듯했기 때문에, 글씨를 읽기가 쉬웠다. 그 위에 새겨진 글자를 읽기 위해, 무릎을 끊거나 가까이 다가갈 필요조차 없었다.

제임스 포터

1960년 3월 27일 출생

1981년 10월 31일 사망

릴리 포터

1960년 1월 30일 출생

1981년 10월 31일 사망

파괴되어야 할 최후의 적은 죽음이다.

해리는 마치 그것의 의미를 이해할 기회가 단 한번 밖에 없는 것처럼, 그 비문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소리내어 읽었다.

“‘파괴되어야 할 최후의 적은 죽음이다.....’”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저건 죽음을 먹는 자들 생각 아니야? 왜 그게 저기 있지?”

“저건 죽음을 먹는 자들이 의미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격퇴한다는 뜻이 아니야, 해리.”

헤르미온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너도 알다시피...죽음 너머의 생을 말하는 거야. 죽음 이후의 삶.”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지 않아. 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그분들은 떠나 버린 것이다. 그런 공허한 말로는, 부모님의 시신이 눈과 둘 밑에 누워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심히 썩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미처 참을 겨를도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 순식간에 얼굴 위에서 얼어붙었다. 황급히 눈물을 닦아낸들, 혹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척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는 입을 꾹 다문채,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도 뼈나 먼지로 변해 버렸을 부모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무덤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그토록 가까이에 서 있다는 것을, 그들의 희생 덕분에 여전히 살아서 심장이 뛰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는 차라리 저 눈밭 아래에 그들과 함께 잠들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 한채,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헤르미온느가 다시 그의 손을 잡더니 꼭 쥐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역시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차가운 밤공기를 몇 번이고 깊숙이 들이마셨다. 부모님에게 바칠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야만 했다는 생각이 비로소 떠올랐다. 하지만 묘지 근처의 모든 식물들은 잎이 떨어진 채, 꿩꽁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헤르미온느가 지팡이를 들어서 허공에 원을 그리자, 크리스마스 장미화환이 그들 앞에 활짝 피어났다. 해리는 그것을 집어서 부모님의 무덤 위에 놓았다.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어서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더 이상 한순간도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헤르미온느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러자 그녀 역시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들은 말없이 방향을 돌려, 덤불도어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묘지를 지나서 불 꺼진 교회와 저 너머의 좁은 문을 향해 눈을 헤치며 걸어갔다.

제 17 장 바틸다의 비밀

“해리 멈춰”

“왜 그래?”

그들이 그 익명의 아보트 집안 사람의 무덤 앞에 막 도착한 참이었다.

“저기 누군가 있어. 누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분명해. 저기, 저 덤불 너머에서.”

그들은 서로를 꼭 붙잡은 채, 꼼짝 않고 서서 시커먼 묘지 주변을 응시했다.

해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확실해?”

"뭔가 움직이는 걸 봤어. 맹세할 수도 있어..."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손에서 지팡이를 쥔 자신의 손을 빼냈다.

"우리는 머글처럼 보일거야."

해리가 지적했다.

"그래, 하필이면 방금 해리포터의 부모님 묘에 꽃을 놓고간 머글이지! 해리, 분명히 저기에 누군가 있다고!"

해리는 <마법의 역사>를 떠올렸다. 이 묘지에는 유령이 출몰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시....? 바로 그때 해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가리킨 덤불 쪽에서 쌓여 있던 눈이 가볍게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다. 유령들은 눈보라를 일으킬 수 없다.

"저건 고양이야."

잠시 후 해리가 말했다.

"아니면 새든가. 만약 죽음을 먹는 자라면 우린 지금쯤 벌써 죽은 목숨이겠지. 어쨌든 여기서 나가자. 그럼 다시 투명 망토를 쓸 수 있어."

그들은 묘지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훑어 돌아보았다.

헤르미온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만만한 척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해리는 입구까지 와서 눈 때문에 미끄러운 포장도로에 이르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그들은 다시 투명 망토를 썼다.

술집은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술집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 쪽으로 다가갈 때 들었던 캐럴을 부르고 있었다. 잠시 동안 해리는 술집 안으로 피신하자고 제안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미처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이쪽으로 가자"고 속삭였다.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온 길과 반대 방향으로 난 컴컴한 거리로 그를 잡아끌었다.

해리는 도대체 어디쯤에서 집들이 끝나고, 다시 탁 트인 들판이 나올지 통 가늠할 수 없었다. 그들은 색색깔의 전구가 반짝이는 창문과 커튼에 가려서 검은 윤곽만 보이는 크리스마스트리들을 지나, 최대한 빨리 걸었다.

"바틸다의 집을 어떻게 찾지?"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녀는 몸을 살짝 떨면서 어깨 너머로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해리? 어떻게 생각해, 해리?"

헤르미온느가 팔을 잡아당겼지만, 해리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집들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 끝에서 있는 커다랗고 검은 형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손을 잡아당기며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 바람에 그녀는 얼음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해리...."

"봐...저걸 봐, 헤르미온느....."

"난 안 보여....오!"

그는 볼 수 있었다. 피델리우스 마법은 제임스와 릴리의 죽음과 함께 소멸해 버린 게 분명했다. 해그리드가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해리를 구해 낸 이래, 16년 동안 산울타리는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허리 높이까지 자라난 수풀 사이에는 그때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다. 비록 검은 담쟁이와 눈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긴 했지만, 집은 대부분 여전히 건재했다. 제일 꼭대기 층의 오른쪽 부분만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저주가 되쏘아진 장소가 바로 저기일 거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대문 앞에 서서 한때는 이웃한 집들과 똑같은 모양의 집이었을 것이 분명한 폐허 더미를 올려다보았다.

"왜 아무도 다시 지을 생각를 하지 않았을까?"

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다시 지을 수가 없었을 거야."

해리가 대꾸했다.

"어둠의 마법으로 인해서 입은 부상과 마찬가지겠지. 그 손상은 고칠 수가 없잖아?"

해리는 망토 아래로 슬며시 손을 뻗어 녹이 잔뜩 슨, 눈 덮인 대문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다낮 그 집의 일부를 만져 보고 싶었을 뿐, 그것을 열고 싶지는 않았다.

"집 안에 들어가진 않을거지? 위험해 보여, 어쩌면.....해리, 저기봐!"

그가 대문을 만진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웬 표지판이 땅에서부터, 마치 빠르게 자라나는 괴상한 꽃처럼, 뒤엉킨 뼈기풀과 잡초를 뚫고 나타난 것이다. 황금색 글자들이 나무판 위에 나타났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981년 10월 31일 밤 이곳에서

릴리 포터와 제임스 포터가 목숨을 잃다.

그들의 아들 해리는 살인 저주로부터 살아남은 유일한 마법사이다.

머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집은 포터 일가에 대한 기념비로서.

그리고 그 가족을 짓밟은 폭력에 대한 경고로서.

훼손된 상태로 보존되었다.

깔끔한 글씨로 새겨진 이 문장 주변에는, '살아남은 아니'가 탈출한 장소를 보기 위해 방문한 마녀와 마법사들이 써놓고 간 낙서들이 가득했다. 어떤 이들은 영구 보존 잉크로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해 놓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기 이름의 머리글자를 새겨 놓기도 했으며, 메시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쓴 낙서들은 16년에 걸친 마법 낙서 위로 환하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운을 빌어요. 해리.

해리,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 우리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해리 포터 만세!

"표지판 위에 이런 걸 쓰면 안 되잖아!"

헤르미온느가 몹시 분개했다. 하지만 해리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멋지잖아!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써 놓아서 난 기뻐. 난....."

해리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겹겹이 옷으로 몸을 감싼 사람의 그림자가 저 멀리 광장의 밝은 불빛에 윤곽을 드러낸 채, 골목길을 따라 그들을 향해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판별하기는 어려웠지만, 여자인 것 같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그녀는 눈 쌓인 땅에 미끄러질까 봐 겁이 났는지,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꼬부라진 허리와 평퍼짐한 몸, 발을 질질 끌며 걷는 걸음걸이 등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굉장히 나이가 많은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녀가 다가오는 동안, 돌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리는 과연 그녀가 계속 지나치고 있는 저 집들 중 하나로 들어가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가 그러지 않을 것이란 걸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들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얼어붙은 길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가 굳이 그의 팔을 꼬집을 필요도 없었다. 이 여인이 머글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거기에 서서, 마녀가 아니라면 결코 눈에 보이지 않을 집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설사 마녀라고 해도, 다만 오래된 폐허를 보기 위해 이 추운 밤에 외출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이었다. 게다가 일반적인 마법의 법칙에 의하면 그 노파는 헤르미온느와 해리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그 노파가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물론,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이러한 걱정스러운 결론에 막 도달했을 때, 그 노파가 장갑 낀 손을 들더니 손짓을 했다.

그러자 헤르미온느가 투명 망토 아래에서 팔짱을 꼭 끼면서 그에게 더욱 바싹 달라붙었다.

"어떻게 아는 거지?"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 노파는 다시, 더 기운차게 손을 흔들었다. 해리는 저 부름에 따르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인적 끊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동안, 노파의 정체에 대한 해리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요 몇 달 동안 저 노파가 그들을 기다려 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덤블도어가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했던 걸까? 결국은 해리가 올 것이라고? 묘지의 어둠 속에서 얼씬거렸던 사람도, 그리고 이곳까지 그들을 쫓아온 사람도 바로 저 노파였다면 당치도 않은 얘기일까?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노파의 능력은, 그가 이전에는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덤블도어에게나 있을 법한 능력을 암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해리가 입을 열자, 헤르미온느는 혁 소리를 내며 화들짝 놀랐다.

"당신이 바틸다인가요?"

옷을 겹겹이 입은 형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손짓을 했다.

투명 망토 아래에서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해리가 눈썹을 치켜세우자, 헤르미온느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들은 노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즉각 노파는 돌아서더니,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서 절뚝절뚝 걸어갔다. 그들을 이끌고 몇 집을 그냥 지나친 노파는 어느 집의 대문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노파를 쫓아서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떠나온 집만큼이나 무성하게 풀이 자란 정원을 지났다. 노파는 잠시 동안 현관문에서 주섬주섬 열쇠를 찾더니, 곧 문을 열고는 그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러섰다.

노파에게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어쩌면 집에서 나는 냄새였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옆을 지나서 투명 망토를 벗는 동안 해리는 계속 콧등을 찌푸렸다. 이제 그 곁에 서자 노파가 얼마나 왜소한지를 알 수 있었다. 나이를 먹어 등이 굽은 그녀는 그의 가슴 높이에도 오지 않았다. 이윽고 노파는 그들 등 뒤에서 문을 닫았다. 벗겨진 칠에 닿는 그녀의 손마디는 푸르스름하고 얼룩얼룩 반점이 있었다. 노파는 돌아서서 해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백내장으로 훤히 흐릿했고, 늘어진 투명한 피부 속으로 움푹 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터진 실핏줄과 기미로 점점이 뒤덮여 있었다. 해리는 노파가 과연 그를 알아볼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파의 눈에는 그가 신원을 도용한, 머리가 벗겨진 머글만 보일 것이다.

노파가 좀이 슨 검은 술을 풀자, 술이 적은 흰머리가 드러났는데, 틈틈틈틈 흰머리 사이로 두피가 훤히 보였다. 동시에 노쇠한 몸과 먼지, 빨지 않은 옷, 그리고 썩어 가는 음식물에서 비롯된 악취는 더욱 심해졌다.

"바틸다?"

해리가 되풀이해서 물었다.

노파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는 살갗에 와 닿는 로켓의 감촉을 느꼈다. 가끔씩 그 속에서 파닥거리거나 두근거리던 그것이 깨어났다. 그는 그것이 차가운 황금 속에서 고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파괴할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걸까? 감지할 수 있었던 걸까?

바틸다는 마치 헤르미온느를 보지 못한 것처럼, 그녀를 옆으로 밀치고 발을 질질 끌며 그들 곁을 지나, 응접실처럼 보이는 곳으로 사라졌다.

"해리, 난 이게 잘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

헤르미온느가 한숨을 쉬었다.

"저 노파의 몸집을 좀 봐, 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저 노파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야."

해리가 대답했다.

"내 말 좀 들어봐. 진작 말해 주었어야 했는데, 난 저 노파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 뮤리엘 할머니가 '망령이 들었다'고 했거든."

"오너라!"

바틸다가 건넛방에서 소리쳤다.

그러자 헤르미온느가 소스라치며 해리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괜찮아"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안심시키며 응접실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바틸다는 초에 불을 불이면서, 방 안을 뒤통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곳은 몹시 더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촛불을 켰는데도 여전히 아주 어두웠다. 발밑에서는 두껍게 쌓인 먼지가 벼석거렸고, 놋눅하고 곰팡이 핀 냄새와 더불어 고기가 썩는 듯한 더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 노파가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려 이 집에 누군가 왔던 게 언제쯤일까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왜냐하면 서툴게 손으로 일일이 초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촉 늘어진 레이스 소매는 언제든 불이 옮겨 불을 위험성이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리가 앞으로 나섰다. 해리는 노파에게 성냥을 건네받아 방안 곳곳에 놓여 있는 촛대의 양초 토막들에 불을 붙였고, 노파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촛대들은 책 더미 위나 깨지고 곰팡이 슨 컵들이 가득한 보조 탁자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해리가 마지막으로 양초를 발견한 곳은, 수많은 사진들이 세워져 있는, 앞부분이 둥근 서랍장 위였다. 불꽃이 살아나 춤을 추자, 반사된 빛이 먼지 낀 유리와 은 액자 위로 일렁였다. 그는 사진들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걸 보았다. 바틸다가 불을 지피기 위해 주섬주섬 장작을 주워 모으는 동안, 그는 "테르지오"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사진들을 뒤덮고 있던 먼지가 썩 사라졌다. 해리는 즉시 가장 커다랗고 정식이 화려한 액자들에 끼워져 있던 예닐곱 장의 사진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연 바틸다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없앴을까 의아해하고 있을 때, 뒤쪽에 있는 사진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해리는 재빨리 그것을 잡아챘다.

그레고로비치의 창턱 위에 도사리고 앉아 있었던 그 젊은이, 그 금발에 유쾌한 얼굴을 한 도둑이 바로 은 액자 안에서 해리를 향해 나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이 젊은이를 전에 어디서 보았는지 퍼뜩 생각났다.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에서 이 젊은이는 십 대 소년이었던 덤블도어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라진 사진들이 모두 어디 있는지 이제 명확해졌다. 바로 리타의 책에 실린 것이다.

"백셋 부인.....아니, 백셋 선생님!"

해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 사람은 누구죠?"

바틸다는 자기 대신 불을 지피고 있는 헤르미온느를 바라보며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백셋 선생님?"

해리가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손에 든 채 다가갔다. 그 순간 벽난로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바틸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올려다보자, 그의 가슴 위에 걸린 호크록스가 더욱 빠르게 고동쳤다.

"이 사람은 누구죠?"

해리가 사진을 앞으로 내밀며 그녀에게 물었다.

바틸다는 그것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더니 다시 해리를 올려다 봤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해리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커다란 목소리로 질문을 되풀이했다.

"이 사람 말이에요, 그를 아세요? 이름이 뭐죠?"

하지만 바틸다는 얼빠진 표정이었다. 해리는 끔찍한 절망감을 느꼈다. 도대체 어떻게 리타 스키터는 바틸다의 기억을 풀어냈단 말인가?

"이 남자가 누구지요?"

그가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해리, 뭐 하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이 사진 말이야, 헤르미온느 이 사람이 바로 그레고로비치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야!"

해리는 바틸다에게 애원했다.

"제발요! 이 사람은 누구죠?"

그러나 바틸다는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죠? 백섯 부인..... 아니 백섯 선생님?"

헤르미온느도 나름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혹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하지만 바틸다는 헤르미온느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해리에게 몇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비틀며 거실 안쪽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떠나길 바라세요?"

해리가 물었다.

바틸다는 아까와 같은 동작을 되풀이 했는데, 이번에는 우선 해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다음엔 자기 자신을, 그리고나서는 천장을 가리켰다.

"아아, 알았어요..... 헤르미온느 이분은 내가 자기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길 바라는 것 같아."

"알았어. 가 보자."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 바틸다는 갑자기 힘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처음에는 해리,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

'이분은 나와 단둘이 가길 바라시나 봐.."

"왜?"

헤르미온느가 따지듯이 물었다. 또렷하고 카랑카랑한 그녀의 목소리는 촛불 커진 방 안에 짜령짜령 울려 퍼졌다. 노파는 이 시끄러운 소리에 머리를 몇 번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쩌면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칼을 내게 주라고 했을지도 몰라. 오직 나한테만!"

"넌 정말로 저 노파가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런 거 같아."

해리는 그의 눈을 빤히 보고 있는 뿐연 눈동자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알았어. 하지만 서둘러. 해리!"

"앞장서세요."

해리가 바틸다에게 말했다.

바틸다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비틀거리며 그의 옆을 빙 돌더니 문을 향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 모습을 보았는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촛불이 밝혀진 난장판 속에서 두 팔로 자기 몸을 감싸 안은 채 서서, 책장 쪽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방을 나가면서, 헤르미온느와 바틸다 모르게 정체 모를 도둑의 사진이 들어 있는 은 액자를 걸웃 속에 슬쩍 집어 넣었다.

총계는 좁고 가팔랐다. 혹시라도 바틸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를 덮칠까 봐, 해리는 바틸다의 평퍼짐한 엉덩이를 손으로 받쳐 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바틸다는 느릿느릿, 씩씩거리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곧장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를 천장이 낮은 침실로 인도했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너무나 끔찍한 냄새가 났다. 바틸다가 문을 닫기 직전에 해리는 침대 밑으로 삐죽 튀어나온 요강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내 어둠이 모든 걸 집어삼켜 버렸다.

"루모스"

해리가 주문을 외우자, 그의 지팡이에 불이 켜졌다. 순간 해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불과 몇초도 안되는 사이에 바틸다가 어둠을 틈타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다가오는 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았다.

"네가 포터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예, 그렇습니다."

바틸다는 천천히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는 호크룩스가 아주 빠르게, 그의 심장보다 더 빠르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불쾌하고 자극적인 느낌이었다.

"제게 줄 것이 있으신가요?"

해리가 물었지만, 그녀는 불 켜진 지팡이 끝에 정신이 팔린 듯 했다.

"제게 줄 것이 있으신가요?"

그가 다시 재촉했다.

그러자 바틸다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동시에 몇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 해리의 흉터가 고통스럽게 쿡쿡 쑤시면서 호크룩스가 꿈틀 움직였던 것이다. 스웨터의 앞부분이 불룩 들릴 정도였다. 어둡고 악취가 나는 방이 한순간 사라져 버렸다. 그는 갑작스러운 희열을 느꼈고, 높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석을 잡아!

해리는 서 있던 자리에서 휘청했다. 어둡고 구린내 나는 방이 다시 그의 주위를 에워싸는 듯했다. 그는 방금 무슨일이 벌어진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제게 줄 것이 있으신가요?"

해리가 훨씬 큰 소리로 세 번째로 질문했다.

"여기 이쪽으로."

바틸다가 구석을 가리키며 조그만 목소리 말했다. 해리는 지팡이를 치켜들었고,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아래에서 마구 어지럽혀진 화장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바틸다가 먼저 그를 인도하지 않았다. 해리는 지팡이를 치켜든 채, 그녀와 형클어진 침대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하지만 바틸다로부터 한시라도 시선을 떼고 싶지 않았다.

"이게 뭐죠?"

화장대에 이르렀을 때, 그가 물었다. 화장대에는 더러운 세탁물처럼 보이는, 냄새 나는 원가가 높이 쌓여 있었다.

"거기."

되는데로 쌓아 올려진 무더기를 가리키며 바틸다가 말했다.

해리가 칼자루나 루비를 찾아보려고 뒤죽박죽 엉켜 있는 더미로 눈길을 돌린 그 순간, 바틸다가 이상한 몸짓을 했다. 해리는 곁눈으로 힐끗 보았다. 노쇠한 몸뚱이가 스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그녀의 목이 있던 자리에서 거대한 뱀이 기어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해리는 경악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다.

해리가 지팡이를 치켜들자, 뱀이 공격했다. 팔뚝을 덥석 물어뜯는 뱀의 위력에 지팡이가 빙글빙글 돌면서 천장 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지팡이의 불빛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방안을 빙빙 돌더니, 그만 깨져 버렸다. 해리는 강력한 꼬리의 일격을 맞고 숨이 끊어질 듯했다. 그리고 화장대 위 더러운 옷 더미 속으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옆으로 몸을 굴려서 가까스로 뱀의 꼬리를 피했다. 뱀의 꼬리는 그가 1초 전까지 있었던 화장대 위를 후려쳤다. 화장대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쓰러진 해리 위로 비처럼 쏟아졌다. 아래층에서 헤르미온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

하지만 해리는 숨이 막혀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곧 육중하고 미끈한 덩어리가 그를 바닥에 패대기 쳤고, 그것이 그의 몸위로 미끄러져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아주 힘이 세고 억센.....

"안돼!"

그가 바닥에 꼼짝없이 짓눌린 채,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돼."

그 목소리가 속삭였다.

"되고말고... 너를 잡을 거야. 너를 잡아....."

"아씨오....아씨오 지팡이....."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는 뱀을 떼어 내기 위해 두 손을 써야했다. 뱀은 그의 몸통을 청청 감고 숨통을 조이면서 호크룩스를 그의 가슴으로 세게 내리눌렀다. 살아서 고동치는 싸늘한 얼음 덩어리가 미친 듯이

퍼덕거리는 그의 심장으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의 머리는 차갑고 새하얀 빛으로 넘쳐흐르고 있었다. 모든 생각이 백지장처럼 사라지고, 숨이 막혀 질식할 지경이었다. 아득한 발소리. 모든 것이 사라진다.....

금속 심장이 그의 가슴 밖에서 쾅쾅거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하늘을 날고 있었다. 의기양양한 승리감으로 한껏 부풀어서. 빗자루도, 세스트랄도 필요 없이....

갑자기 해리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내기니가 그를 풀어 준 것이다. 그는 버둥대며 황급히 일어났다. 층계참에서 훌러 들어온 불빛에 뱀의 윤곽이 드러났다. 뱀이 공격을 가하자, 헤르미온느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커튼이 쳐진 창문이 그녀의 빗나간 주문에 맞아서 산산조각났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해리가 쓴아지는 유리 조각들을 피해서 머리를 헥 숙였을 때, 그의 발이 원가 연필 같은 것을 밟고 미끄러졌다. 그의 지팡이였다.

그는 몸을 숙여 지팡이를 잡싸게 움켜쥐었다. 이제 뱀은 꼬리를 휘두르며 방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다. 헤르미온느의 모습은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다. 한순간 해리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 쿵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번쩍였다. 곧이어 허공을 봉 날아온 뱀이 해리의 얼굴을 정통으로 철썩 때리고 달아났다. 뱀은 묵직한 끼리를 칭칭 틀면서 천장으로 기어 올라갔다. 해리는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흉터가 불로 지지는 듯 더욱 고통스럽게 쑤셨다.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가 다가오고 있어!" 헤르미온느, 그가 오고 있어!"

그가 소리치자, 뱀이 거칠게 쉬쉬 소리를 내며 기어 내려왔다. 아주 라장 그 자체였다. 뱀은 벽에 걸린 선반들을 부숴버렸고, 깨진 도자기들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해리는 침대 위로 뛰어 올라, 헤르미온느 같이 보이는 검은 형상을 불들었다.

그가 침대 위로 그녀의 등을 잡아당기자, 헤르미온느 고통스런 비명을 내질렀다. 뱀은 또다시 몸을 곧추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뱀보다 더 나쁜 게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것은 아마 이미 현관문께에 있을 것이다. 그의 머리는 흉터의 고통으로 쪼개지려고 했다.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잡아끌며 펄쩍 뛰어오르자, 뱀이 돌진했다. 하지만 뱀이 공격을 가하는 순간, 헤르미온느가 "콘프링고!"하고 소리쳤다. 주문은 방을 가로질러 옷장 거울을 폭파한 후에 바닥과 천장에 부딪히며 다시 그들을 향해 퉁겨 나왔다. 해리는 주문의 열기가 손등을 뜨겁게 지지는 것을 느꼈다. 유리 조각이 그의 뺨을 스쳤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잡아당기면서 침대에서 부서진 화장대 위로 펄쩍 뛰었다. 그리고 곧장 깨진 유리창을 통해 텅 빈 허공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이 공중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헤르미온느의 비명 소리가 어둠을 뚫고 메아리쳤다.

그때 그의 흉터가 터져 버렸다. 이제 그는 볼드모트가 되어 지저분한 침실을 가로질러 뛰고 있었다. 그의 길고 하얀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고, 그는 대머리 남자와 조그만 여자가 몸부림치며 사라지는 것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절규를 토했고, 그 절규 소리는 그 여자의 비명 소리와 뒤섞여,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를 뚫고 어두운 정원에까지 울려퍼졌다.....

그의 절규는 해리의 절규였고, 그의 고통은 해리의 고통이었다.... 그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미 전에 한 번 일어났었던

이곳에서....이곳,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깨달을 뻔했던 바로 그 집이 빤히 보이는 이 자리에서.....죽는다는 것.....그 고통은 너무나 끔찍했다..... 몸에서 찢겨 나가는 고통..하지만 육체가 없다면 머리는 왜 이토록 지독하게 아픈 걸까? 만약 죽은 거라면, 어떻게 이토록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고통이 죽음과 함께 멈추지 않았단 말인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습하고 바람이 불던 그날 밤, 호박 분장을 한 두 아이가 뒤뚱거리며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가게 유리창들은 종이 거미들과, 그들이 믿지도 않는

세계에 대한 모든 조잡한 머글 장식품들로 가득했다..... 그는 스르르 미끄러져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면 언제나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확고한 목적의식 힘과 정당성을 알고 있었다.....분노는 아니었다.....분노는 약한 자들의 것이다.....하지만 승리, 그래.... 그는 이것을 기다렸고, 그리고 갈망했다.

"훌륭한 분장이네요, 아저씨!"

소년이 망토의 두건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그 조그만 아이의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분장한 아이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아이는 뒤돌아 도망쳤다..... 그는 망토 아래로 지팡이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한번의 간단한 동작이면 그 아이는 영영 엄마에게로 돌아갈 수 없을것이다..... 하지만 쓸데없는, 아주 쓸데없는 짓이었다....

더 어두운 새로운 거리를 따라서 그는 움직였고, 이제 마침내 목적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비록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피델리우스 마법은 깨졌다.... 그는 보도위를 구르는 낙엽보다도 더 조용히, 어두운 산울타리와 같은 높이로 몸을 숙인 채, 그 너머를 응시했다.

그들은 커튼을 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작은 응접실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안경을 쓴, 키가 큰 검은 머리의 남자는 파란 잠옷을 입은 검은 머리의 조그만 남자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지팡이에서 색색의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그 연기를 잡으려고, 조그만 손으로 그것을 움켜지려고 하고 있었다.

이때 문이 열리고, 엄마가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어떤 말을 하며 들어왔다. 짙은 붉은색의 긴 머리가 그녀의 얼굴 위로 훌러내렸다. 이제 아빠는 아이를 들어 올려 엄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소파위에 던져 놓고 몸을 쭉 뻗으며 하품을 했다....

그대 대문을 미는 순간, 그것은 희미하게 깍 소리를 냈지만, 제임스 포터는 듣지 못했다. 그의 하얀 손이 망토 아래에서 지팡이를 꺼내 문을 가리키자 문이 활짝 열렸다.

제임스가 현관 복도로 잽싸게 뛰어왔을 때, 그는 이미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쉬운 일이었다. 너무 쉬웠다. 제임스는 심지어 지팡이조차 들고 나오지 않았다....

"릴리, 해리를 데리고 가! 그자야! 어서 가! 뛰어! 내가 막을게!"

나를 막는다고, 지팡이도 없이!..... 그는 저주를 내리기 전에 웃어 댔다.... "아바다 케다브라!"

초록 불빛이 비좁은 현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벽에 기대 놓은 유모차에 불이 붙었고, 피뢰침에 번개가 떨어진 것처럼 계단 난간이 불타올랐다. 제임스 포터는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그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비록 뒷에 걸리긴 했지만, 분별력만 있다면, 적어도 그 여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기 주위에 바리케이드를 치려고 시도하는 소리를 듣고 희미한 기쁨을 느끼며 충계를 올라갔다. 그 여자 역시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자들은 어찌나 어리석고, 어찌나 사람을 쉽게 믿는지, 자신들의 안전은 친구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무기는 잠시 동안 놓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강제로 문을 열었다. 단 한번 지팡이를 느긋하게 놀리자, 다급히 문 앞에 쌓아 놓은 의자와 상자들은 옆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가 그 아이를 품에 안은채, 서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는 뒤에 있는 아기 침대 속에 아들을 내려놓고 두 팔을 활짝 펼쳤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라도 된다는 듯이, 아이를 가림으로써 그녀가 대신 선택되기를 바란다는 듯이....

"해리는 안 돼요. 해리는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물러서라, 이 바보같은 계집... 물러나 당장."

"해리는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날 데려가요. 대신 날 죽여요."

"마지막 경고다."

"해리는 안돼요! 제발.....자비를 베푸세요....제발요....해리는 안돼요!"

해리는 안돼요! 제발,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물러서라, 물러서라니까."

그는 그녀를 강제로 아기 침대 앞에서 끌어낼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를 끝장내는 것이 더욱 현명한 행동인 듯 싶었다.

초록 불빛이 방 안에서 번쩍하더니, 그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쓰러졌다.

아이는 그동안에도 줄곧 울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아기 침대의 가로대를 붙잡고 일어서더니, 환하게 웃으며 침입자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아마도 망토 속에 숨은 사람은 더 예쁜 불꽃들을 쏘고 있는 아빠라고, 그리고 엄마는 언제라도 웃으면서 벌떡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남자 아이의 얼굴에 겨누었다. 그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싶었다. 이해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인 바로 이 아이의 파멸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녀석은 그가 제임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는 녀석이 울어대는 것이 달갑지 않았다. 고아원에서도 징징대는 녀석들을 도저히 참아 낼 수 없었다.

"아바다 케다브라!"

그리고 그가 쓰러졌다. 오직 고통과 두려움 말고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숨어야만 했다. 이 아이가 침대에 갇힌채 악을 쓰고 있는 이곳, 폐허가 된 이 집이 아닌, 어딘가 멀리..... 저 멀리로...

"안돼."

그는 신음했다.

뱀이 난장판이 된 더러운 바닥 위로 와삭와삭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는 그 남자 아이를 죽였었다. 하지만 그가 그 남자 아이였다....

"안돼....."

이제 그는 바틸다 집의 부서진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자신의 가장 커다란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힌 채, 그의 발치에서는 거대한 뱀이 깨진 도자기와 유리 위로 미끄러져 갔다. 그때 그가 바닥을 내려다봤고, 무언가를 발견했다.... 무언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안돼."

"해리, 괜찮아, 넌 괜찮다고!"

그는 몸을 숙여 떨어진 사진을 집어 들었다. 사진 속에 그 자가 있었다.

정체불명의 도둑,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도둑이.....

"안돼..... 내가 그걸 떨어뜨렸어.... 내가 떨어뜨렸어....."

"해리,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그는 해리였다..... 볼드모트가 아닌 해리..... 그리고巴斯락거리고 있는 것은 뱀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번쩍 뜻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괜.....괜찮은 거야?"

"응"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텐트 안에 있었다. 담요를 겹겹이 덮은 채, 아래쪽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텐트 지붕 너머로 보이는 차갑고 희미한 빛과 사방을 감싼 정적으로 미루어 보아, 이제 거의 새벽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침대 시트와 담요가 축축했다.

"우리는 도망쳤구나."

"그래"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널 침대에 눕히기 위해서 난 공중 부양 마법을 써야했어. 널 들어 올릴 수가 없더라고, 넌.....그러니까... 넌 아주....."

그녀의 갈색 눈 밑에는 검푸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해리는 그녀가 쥐고 있는 조그만 스펜지를 보았다. 헤르미온느는 지금까지 그의 얼굴을 닦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넌 아팠어."

그녀가 말을 맺었다.

"많이 아팠어."

"우리가 떠난 지 얼마나 됐지."

"몇 시간쯤. 이제 거의 아침이야."

"그리고 그동안 난.....뭐야 의식이 없었다고?"

"정확히 그런 건 아니고"

헤르미온느가 주저하며 말했다.

"넌 마구 소리를 지르고 신음하고....뭐 그랬어."

헤르미온느는 웬지 해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조로 덧붙였다. 그가 무슨 짓을 했던 걸까? 볼드모트처럼 저주를 퍼붓고, 아기 침대 속의 아기처럼 울어 댔을까?

"난 도저히 호크룩스를 네게서 벗길 수가 없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는 그녀가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게 달라붙었어. 네 가슴에 말이야. 그 바람에 흉터가 생겼어. 미안하지만, 그걸 떼어 내기 위해서 잘라 내기 마법을 써야 했거든. 그리고 넌 뱀에게 물리기도 했어. 하지만 내가 상처를 소독했고, 거기에 디터니 원액을 발라 줬어....."

해리는 입고 있던 땀에 젖은 티셔츠를 벗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로켓이 불로 지진 듯이 달라붙었던 곳, 바로 그의 심장 위쪽에 새빨간 타원형의 흉터가 보였다. 팔뚝에서는 반쯤 치유된 물린 자국도 볼수 있었다.

"호크룩스는 어디에 뒀어?"

"내 백 속에 잠시 동안 그걸 따로 보관해야 할 것 같아."

그는 배개 위에 드러누워, 수척하고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리는 고드릭 골짜기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헤르미온느,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도 가고싶어 했잖아. 난 정말로 덤블도어 교수님이 널 위해 그곳에 칼을 남겨 두었으려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 그렇다면....우리가 잘못 짚은 거구나, 그렇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해리? 바틸다가 널 위층에 데리고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뱀이 어딘가에 숨어있었니? 그게 그냥 튀어 나와서 그녀를 죽이고 널 공격했니?"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그녀가 뱀이었어..... 아니면 뱀이 그녀였든가.....애초부터 말이야."

"뭐.....뭐라고?"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직도 자신의 몸에서 바틸다 집의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모든 일들이 꿈쩍할 만큼 생생하게 떠올랐다.

"바틸다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게 분명해. 그 뱀은.....그녀의 몸속에 있었어. 그 사람이 그 뱀을 고드릭 골짜기에 두었던 거야. 기다리도록 한 거지. 네가 맞았어. 그는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거란 걸 알았던 거야."

"뱀이 바틸다의 몸속에 있었다고?"

해리는 다시 눈을 뜻다. 헤르미온느는 불쾌하고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루핀은 우리가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마법이 존재할 거라고 했잖아."

해리가 입을 열었다.

"바틸다는 네가 있는 앞에서는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건 파셀통그였기 때문이야. 전부 파셀통그였어. 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 물론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 일단 우리가 그 방에 올라가자, 뱀은 그 사람에게 전갈을 보냈던 거야. 난 내 머릿속에서 그일이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그자가 흥분하는 것도 느꼈어. 그자는 나를 거기에 잡아두라고 말했어.....그리고....."

그는 뱀이 바틸다의 목에서 기어 나오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변했어. 뱀으로 변하더니, 공격했지."

해리는 물린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 녀석은 날 죽이려던게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이 올때까지 날 붙잡고 있으려던 거였어."

어떻게 해서든 뱀이라도 죽였더라면, 그만한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고생들이.... 해리는 낙심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를 밀쳤다.

"해리, 안돼. 넌 충분히 쉬어야 한단 말이야."

"잠이 필요한 건 너야.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하지만 지금 네 모습은 정말 형편없어. 난 괜찮아. 내가 잠깐 망을 보고 있을게, 내 지팡이 어디 있어?"

헤르미온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내 지팡이 어디 있어,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그녀의 두눈에서 눈물이 흘러넘쳤다.

"해리....."

"내 지팡이 어디 있냐고!"

헤르미온느는 침대 옆으로 손을 뻗더니, 그것을 그에게 내놓았다.

서양호랑가시나무와 불사조 깃털 지팡이는 두 조각이 나 있었다. 연약한 불사조 깃털 한 가닥만이 부러진 두 조각을 간신히 이어 놓고 있었다. 지팡이는 완전히 부러진 것이다. 해리는 마치 그것이 끔찍한 부상을 당한 생명체인 양. 두 손에 올려놓았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경악과 공포로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잠시 후 그는 지팡이를 헤르미온느에게 내밀었다.

"고쳐 봐, 부탁이야."

"해리, 내 생각에, 이렇게 부서졌을 때엔....."

"제발, 헤르미온느, 시도라도 해봐"

"레....레파로."

덜렁거리는 지팡이 반쪽이 다시 붙었다. 해리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

"루모스!"

지팡이에서 약하게 불꽃이 튀더니, 곧 꺼져 버렸다. 해리는 그것으로 헤르미온느를 가리켰다.

"엑스펠리아르무스!"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는 약간 움찔했지만,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법을 부리려던 그 미약한 시도조차 해리의 지팡이에게는 무리였는지, 그것은 다시 두 조각이 나버렸다. 해리는 자신의 지팡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토록 많은 일들을 격고도 무사했던 이 지팡이가.....

"해리"

헤르미온느가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조용히 속삭였다.

"너무, 너무 미안해. 아마 내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거길 떠 날 때. 너도 알다시피 뱀이 쫓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폭발 저주를 썼는데, 그게 사방으로 튕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그게 맞은 게 분명해...."

"그건 사고였어."

해리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너무나 공허하고 온몸이 마비 된 것만 같았다.

"아..... 아마 고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해리, 그럴 수 있을 거 같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기억나니? 론 말이야. 론이 차와 부딪혀서 지팡이를 부러뜨렸을 때 기억나? 그 지팡이는 두 번 다시 예전처럼 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결국 론은 새걸 사야만 했어."

해리는 볼드모트에게 유괴되어 인질로 잡혀 있는 올리밴더를 떠올렸다. 그리고 죽어 버린 그레고로비치를 기억했다. 이제 무슨 수로 새 지팡이를 장만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해리가 억지로 덤덤한 목소리를 지어내며 말했다.

"그럼, 지금은 잠시 네 걸 빌리지 뭐, 내가 보초를 서는 동안."

헤르미온느는 눈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지팡이를 해리에게 건넸다. 해리는 오직 그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의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그녀를 두고 자리를 떴다.

### 제 18 장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해리의 머리위로 구름한점 없이 맑고 광대한 하늘이, 그와 그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해리는 텐트 입구에 앉아서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죽지 않고 살아서 반짝이는 눈이 쓰인 언덕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도무지 그것을 감사할 수 없었다. 지팡이를 잃은 엄청난 재난이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 놓은 것이다. 해리는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에서 교회 종소리가 반짝이는 침묵을 뚫고 전해졌다.

해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육체적인 고통에 저항하듯이, 손가락으로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여러번 피를 흘렸고, 오른팔의 뼈를 몽땅 잊어버린 적도 있었다. 게다가 손등과 이마의 흉터 이외에,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미 가슴과 팔뚝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는 단 한번도, 이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자신이 나약하고 헐벗은 듯한 느낌이 든 적이 없었다. 마치 그의 마법 능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해리는 만약 자신이 이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털어놓는다면, 헤르미온느가 뭐라고 말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팡이는 오직 마법사만큼의 힘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옳지 않았다. 그는 경우가 달랐던 것이다. 헤르미온느는 지팡이가 마치 나침반의 바늘처럼 저절로 빙그르 돌면서 적을 향해 황금 불꽃을 내뿜는 경험을 결코 해 보지 못했다. 이제 그는 똑같은 지팡이 심의 보호를 잃은 것이다. 지팡이가 사라진 지금에서야, 해리는 자신이 얼마나 그 지팡이에 의존해 왔는가를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다.

해리는 호주머니에서 부서진 지팡이 조각들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목에 건 해그리드의 주머니 속에 몽땅 쓸어 넣었다. 이제 주머니는 망가지고 쓸모없게 된 물건들로 가득차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었다. 모크 가죽을 통해서 옛날 스니치가 해리의 손끝에 달았다. 잠깐 동안 해리는 당장 그걸 꺼내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만 했다. 덤블도어가 남기고 간 다른 모든 것들 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것을.....

덤블도어에 대한 분노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리하여 그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면서 다른 모든 감정들을 집어삼켜 버렸다. 지금껏 그들은 정말 필사적인 마음으로, 고드릭 골짜기에는 뭔가 해답이 있을거라는 믿을 스스로에게 되뇌어 왔다. 그곳에 돌아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이건 모두 덤블도어가 그들을 위해 짜 놓은 비밀스런 계획의 일부라고 확신하면서. 하지만 결국 어떤 지도도, 계획도 없었다. 덤블도어는 그들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훌륭 속을 헤매며 더듬거리도록, 알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공포와 맞서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된 것도 없었고, 거저 주어진 것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칼이 없었고, 이제 해리에겐 지팡이조차 없었다. 게다가 그 도둑의 사진마저 떨어뜨리고 왔다. 이제 볼드모트가 그 도둑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드디어 볼드모트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해리?”

헤르미온느는 해리가 지팡이로 저주를 퍼부을까 봐 완전히 겁먹은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떨리는 그녀의 두손에는 차 두잔이 들려있었고, 옆구리에는 뭔가 불룩한 것을 끼고 있었다.

“고마워”

해리가 잔 하나를 받아 들며 말했다.

“내가 잠깐 말 좀 해도 되겠니?”

“그래”

해리는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대답했다.

“해리, 너는 그 사진 속의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지. 음.....  
여기 책을 가져왔어.”

헤르미온느는 조심스럽게 책을 그의 무릎위에 올려놓았다. “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의 초판본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이 책을?”

“바틸다의 응접실에 있었어. 그냥 놓여 있더라. 책에 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

헤르미온느는 선명한 잉크에 신경질적인 글씨체로 쓰인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친애하는 바틸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기 책을 한 부 보내요. 부디 마음에 드시길 바라오. 비록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으니까요. 리타.’ 내 생각에 진짜 바틸다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이 책이 도착했을 거야. 하지만 아마 바틸다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지?”

“그래, 아마 아니었을 거야.”

해리는 덤블도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잔인한 쾌감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덤블도어가 그에게 말해 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될 것 이다. 덤블도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났니, 응?”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고개를 든 해리는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분노가 역력히 드러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야.”

해리는 조용히 말했다. “

“아니야 헤르미온느, 그건 사고였어. 나도 알아. 넌 우리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던 거야. 그리고 넌 정말 굉장했어. 만약 네가 거기 없었던더라면, 그래서 네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난 분명 목숨을 잃고 말았을 거야.”

해리는 눈물 젖은 얼굴로 웃고 있는 헤르미온느를 보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책표지가 아직도 뺏겻했다.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것이 확실했다. 해리는 사진을 찾기 위해 책장을 훑어 넘겼다. 거의 단박에 그가 찾고 있던 그 사진이 딱 눈에 들어왔다. 짧은 덤블도어와 잘생긴 친구가 뭔가 오래전에 잊힌 농담같은 것에 신이 나서 깔깔거리며 한바탕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해리는 재빨리 사진 밑에 실린 설명을 보았다.

어머니의 죽음 직후의 알버스 덤블도어

그의 친구인 갤러트 그린델왈드와 함께

해리는 몇 분 동안이나 입을 딱 벌린채, 마지막 글자를 명하니 들여다보았다. 그린델왈드. 그의 친구 그린델왈드. 해리는 옆에 있는 헤르미온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 이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후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해리를 쳐다보았다.

“그린델왈드라고?”

나머지 사진들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해리는 그 종대한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대목을 찾기 위해 사진 앞뒤 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발견하고 다급히 읽어 보았지만, 내용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 모든 사연을 이해하려면 훨씬 앞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해리는 어느새 ‘더 커다란 선’ 이란 제목이 붙은 장의 첫머리를 펼쳐들고 있었다. 헤르미온느와 그는 머리를 맞대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18 세 생일이 다가올 무렵에 덤블도어는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신 영예를 안고 호그와트를 떠났다. 그는 수석 학생이자 반장이며, 희귀 주문 걸기 대회

바르나바 핀클리 상의 수상자, 위즌가르트의 영국 청소년 대표,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연금술 회의의 혁신적인 공헌 부문 금메달 수상자였다. 이제 덤블도어는 ‘개입 냄새’ 엘피아스 도지와 함께 대장정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제 도지는 그가 호그와트에서 선택한 얼간이었지만 혼신적인 짹꿍이었다.

두 젊은이는 런던의 리키 콜드런에 머물면서 다음 날 아침에 그리스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부엉이 한마리가 도착해서, 덤블도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책을 위한 인터뷰를 거절했던 ‘개입 냄새’ 도지는 그 후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 대단히 감성적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그는 켄트라의 죽음이 비극적인 타격이었던 것처럼 묘사하며, 여행을 포기하기로 한 덤블도어의 결정 또한 고귀한 자기희생인 양 포장했따.

분명히 덤블도어는 즉기 고드릭 골짜기로 돌아갔다. 소문에 따르면 그의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을 ‘돌봐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과연 그는 두 동생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을까?

“그 애는 골칫거리였죠. 애버포스 말입니다.”

당시 가족이 고드릭 골짜기 외곽 지역에 살았던 에니드 스미크는 말한다.

“완전 망나니 였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났으니 가엾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애는 계속해서 내 머리에 염소 똥을 던졌어요. 알버스가 그 애 때문에 안달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쨋든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걸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말썽쟁이 남동생을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알버스는 월하고 있었을까? 그 대답은 그의 여동생이 계속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처음 그녀를 가두었던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가엾은 아리애나 덤블도어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존재는 ‘개입 냄새’ 도지처럼 ‘그녀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만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 집안의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바틸다 백셋이었다. 이 저명한 마법 역사가는 오랫동안 고드릭 골짜기에서 살았다. 물론 처음에 바틸다가 덤블도어의 집안이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해 주려고 했을 때, 켄드라는 거절했다. 하지만 몇 해가 흐른 후에 이 작가는 호그와트에 있는 덤블도어에게 부엉이를 보낸다. <오늘날의 변신술>에 실린 이종간의 변신술에 관한 그의 논문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첫번째 교류는 이후고 덤블도어 가족 전체와의 친분으로 이어진다. 켄드라가 사망할 무렵 고드릭 골짜기 전체에서 덤블도어의 어머니와 말을 나누며 지는 사람은 오직 바틸다 한 사람 뿐이었다.

불행하게도 바틸다가 젊은 시절에 보여 주었던 놀라운 명석함은 이제 희미해졌다. 이에 대해 “불은 불었지만, 냄비는 식었다”라고 이보르 딜론스비는 표현했다. 혹은 에니드 스미크의 좀 더 속된 말로, 하자면 “그녀는 다람쥐 응가만큼이나 완전히 맛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고 검증된 여러 가지 취재 기술의 결합 덕분에 나는 이 추잡스런 이야기의 전말을 밝혀내기에 충분한 진짜 사실들을 캐낼 수가 있었다.

마법사 세계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틸다는 켄드라의 때 이른 죽음이 되쏘아진 주문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알버스와 애버포스가 몇 년 동안 되풀이 해 온 이야기였다. 바틸다는 또한 아리애나가 ‘연약하다’ 느니 ‘예민하다’ 느니 하고 떠드는, 그 집안의 대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 읊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제에 있어서, 바틸다는 베리타세룸을 손에 넣기 위해 기울인 나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 오직 그녀만이 알버스 덤블도어의 생애에서 가장 은밀하게 감춰 온 비밀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처음으로 그 비밀이 밝혀지고 나면, 덤블도어의 주종자들이 그에 대해 믿어 왔던 모든 사실들이 의심스러워질 것이다. 당연시되었던 어둠의 마법에 대한 그의 적개심과 머글 억압에 대한 반대, 심지어 그의 가족에 대한 혼신까지도.

덤블도어가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고아 신세가 되어 고드릭 골짜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해 여름에, 바틸다 백섯은 조카의 아들인 갤러트 그린델왈드를 집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린델왈드라는 이름은 당연히 유명하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어둠의 마법사 순위에서 그린델왈드는 단지 한 세대 후에 출현한 그 사람이 왕좌를 빼앗은 탓에, 1위 자리를 높쳤을 뿐이다. 하지만 그린델왈드의 테러 활동이 영국에까지 확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그가 세력을 얻기까지의 자세한 내막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에도 이미 어둠의 마법에 대한 잘못된 관용으로 유명했던 학교인 덤스트랭에서 교육을 받은 그린델왈드는 덤블도어만큼이나 일찍부러 자신의 명석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갤러트 그린델왈드는 각종 대회의 상을 훔쓰는데 능력을 쓴지 않고, 다른 방면에 몰두했다. 결국 그가 열여섯살이 되었을 때, 덤스트랭조차 더 이상 갤러트 그린델왈드의 비뚤어진 마법 실험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내쫓았다.

지금까지 그린델왈드의 그 후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바라고는 ‘몇 달 동안 해외를 떠돌았다.’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린델왈드가 고드릭 골짜기에 사는 대고모를 찾아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겠지만, 그곳에서 다름아닌 알버스 덤블도어와 깊은 우정을 맺게 된다.

“내게는 아주 사랑스런 아이였다오.”

바틸다는 중얼거렸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 말이오. 당연히 나는 그 아이를 가엾은 알버스에게 소개해 주었소. 또래의 남자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오. 그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좋아했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바틸다는 자신이 보관해 왔던 편지 한 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밤중에 알버스 덤블도어가 갤러트 그린델왈드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렇다오, 온종이 둘이 붙어서 토론을 하고 난 후였는데도 말이오. 둘 다 그토록 똑똑한 아이들이었으니, 마치 펄펄 끊는 가마솥 같았지. 나는 가끔씩 알버스의 편지를 가져온 부엉이가 갤러트의 침실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를 듣곤했다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알버스는 당장 갤러트에게 알려야만 직성이 풀렸지!”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알버스 덤블도어의 추종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충격이 되겠지만, 여기 그들의 영웅이 열입곱 살 때 가졌던 생각들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덤블도어가 새로 사귄 절친한 친구에게 쓴 것이다.

갤러트.

머글 자신들을 위해서도 마법사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너의 지적말이야. 참으로 중대한 지적이란 생각이 들어. 그래. 우리에겐 능력이 주어졌지.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지배받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안겨 주었어.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해야만 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설하려는 것의 초석이 될 거야. 어디서든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될텐데. 바로 이런 생각이 모든 우리의 반박의 근거가 돼야만 해. 우리는 ‘더 커다란 선’을 위해서 권력을 잡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오직 꼭 필요한 무력만 사용하고 더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이것이 바로 네가 덤스트랭에서 저리른 실수였어! 하지만 난 불평하지 않아. 네가 그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우린 결코 만나지 못했을테니까).

알버스

수 많은 덤블도어의 숭배자들은 경악하며 떨게 되겠지만, 이 편지는 한때 알버스 덤블도어가 비밀 법령을 뒤엎고 머글들을 지배하는 마법사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언제나 덤블도어를 머글 태생들의 가장 위대한 보호자라고 여겨왔던 이들에게는 이 얼마나 엄청난

타격인가! 이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보면, 머글들의 권리 증진이니 하고 떠들어 대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가! 한창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여동생을 돌봐야 할 시기에 권력을 차지할 음모를 꾸미느라 정신없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경멸스러운가!

의심할 바 없이 그래도 굳건하게 덤블도어를 무너진 제단 위에 세워 놓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분명 고통스런 심경의 변화를 겪었을 것이며, 끝내 이성을 되찾았노라고 말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다. 위 위대한 우정이 싹튼지 불과 두 달만에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는 서로 갈라섰다. 그리고 그 전설적인 결투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두 번 다시 서로를 보지 못한다. 이 갑작스런 결별은 무엇 때문일까? 덤블도어가 정신을 차렸던 것일까? 그린델왈드에게 더 이상 그의 계획에 동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일까? 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된 건 그 불쌍한 아리애나의 죽음 때문이었을 거요.”  
바틸다의 말이다.

“굉장한 충격이었거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갤러트는 그 집에 있었다오. 그런데 벌벌 떨며 돌아와서는 다음 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 차마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낙심해서 말이오. 그래서 나는 포트키를 준비했고, 내가 그애를 본건 그때가 마지막이었다오. 알버스는 아리애나의 죽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오. 그 두 형제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었지. 그 애들 서로밖에 남은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말이오. 그러니 약간 분노가 치밀었다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오. 애버포스는 알버스를 비난했지.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말이오. 사실 애버포스는 항상 말을 좀 생각없이 했다오. 가엾은 것 같으니, 어쨌든간에 장례식에서 알버스의 코를 부려뜨려 놓은 건 경솔한 짓이었지. 만약 켄드라가 딸의 시신을 사이에 두고 두 아들들이 그렇게 싸우는 꼴을 보았다면, 아마 미쳐 버렸을 거요. 유감스럽게도 갤러트는 장례식 때까지 머무를 수가 없었다오... 분명히 알버스에게 위로가 되었을 텐데...”

오직 아리애나 덤블도어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던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이 관 옆에서의 참혹한 싸움은 여러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애버포스 덤블도어는 왜 여동생의 죽음이 알버스의 탓이라고 비난했을까? 그 ‘망령 든’ 노파의 주장처럼, 단지 비통한 마음의 분출일 뿐일까? 아니면 그가 분노할 만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동료 학생들에게 거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덤스트랭에서 퇴학당한 그린델왈드는 그 소녀의 죽음 직후에 나라를 떠났다. 그리고 덤블도어는 (수치심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두 번 다시 그를 만나지 않았다. 마법사 세계의 간청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 후로 덤블도어나 그린델왈드나 이 어린 시절의 짧은 우정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5년 동안에 걸친 혼란과 재난, 실종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린델왈드에 대한 공격을 계속 미뤄 왔던 것은 분명하다. 덤블도어를 주저하게 만든 것은 그린델왈드에 대한 미련일까? 아니면 한때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 폭로되리라는 두려움일까? 덤블도어는 마지못해서 한때 그토록 좋아하며 만났던 사람을 붙잡으러 간 것뿐일까? 한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인 아리애나는 어떻게 죽었을까? 그 어떤 어둠의 의식의 우연한 희생자였을까? 두 짧은이가 영광과 권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원가를 행하고 있을 때, 아리애나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을 우연히 저지른 것은 아닐까? 과연 아리애나가 ‘더 커다란 선’을 위해 목숨을 잃은 첫 번째 희생자였을까?

그 장은 여기서 끝났다. 해리는 고개를 들었다. 헤르미온느는 그보다 앞서 그 페이지의 마지막 줄까지 읽었다. 그녀는 얼른 해리의 손에서 그 책을 빼앗아 들었다. 해리의 표정을 보고 약간 놀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원가 불결한 것을 감추듯이 그 책을 보지도 않고 탁 덮어 버렸다.

“해리.....”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견고한 것이 무너져 내렸다. 론이 떠났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덤블도어를 신뢰했고, 그를 선과 지혜의 화신이라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낱 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할까? 론, 덤블도어, 불사조의 깃털이 든 지팡이.....

“해리.”

헤르미온느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것 같았다.

“내 말 좀 들어 봐. 이건.... 별로 유쾌한 읽을거리는 아니야.”

“그래, 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잊지마 해리. 이 책은 리타 스끼터가 썼다는 사실을.”

“너도 그린델왈드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읽었잖아. 안 그래?”

“그래, 그.....그랬어”

헤르미온느가 얼어붙은 손으로 찻잔을 감싼 채,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주저하며 말했다.

“난 그게 아마 제일 나쁜 증거였을 거라고 생각해. 바틸다는 분명 그 모든 게 그냥 한번 해 본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더 큰 선을 위하여’는 그린델왈드의 선전 문구가 되었고, 그가 나중에 저지른 모든 잔악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되었지. 그래.....그걸 보면.....덤블도어가 그에게 아이디어를 준것 같아. 심지어 ‘더 커다란 선을 위하여’란 문구를 누엔가드로 들어가는 입구에 새겨 놓기까지 했대.”

“누엔가드가 뭐지?”

“그린델왈드가 자신의 반대자들을 가두어 놓기 위해 세운 감옥이야. 덤블도어 교수님에게 붙잡힌 이후에 끝내는 자신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말이야. 어쨌든 그린델왈드가 세력을 일으키려고 할 때 덤블도어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지어 리타 조차도 두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여름 몇 달 동안 잠깐 서로 알고 지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

해리가 말을 끊었다. 애꿎은 헤르미온느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고 싶진 않았지만, 침착하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네가 ‘그들이 아주 어렸다’고 말할 줄 알았어. 하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나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마법과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그는 새로 사귀 절친한 친구와 몰려다니면서 머글들을 지배할 계획이나 짜고 있었던 거야.”

해리는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주변을 서성거렸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쓴 내용을 변명하려는게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배할 권리’ 운운하는 건 모두 쓰레기야. ‘마법은 힘이다’ 와 똑같은 소리지. 하지만 해리..... 그는 불과 얼마전에 어머니를 잃고 그 집에 혼자 남겨져서.....”

“혼자라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 남동생과 여동생이 옆에 있었다고. 그가 계속 가두어 놓은 그 스夸 여동생이.....”

“난 그 말은 안 믿어.”

헤르미온느가 딱 잘라 말하며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다.

“그 소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스夸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덤블도어 교수님은 절대로, 단 한번이라도 그런 일을 허용했을리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덤블도어 교수님은 무력으로 머글들을 정복하길 원하지 않았어!”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가 탁 트인 언덕 꼭대기에 울려 퍼졌다. 대여섯 마리의 검은 새들이 깍깍거리며 날아오르더니 진주 빛 하늘에서 맴돌았다.

“그는 변했어. 해리. 변했다니까! 단지 그 뿐이야! 열일곱살때에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믿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머지 생애는 전부 어둠의 마법과 싸우는데 헌신하셨어! 그린델왈드를 막은 사람도 덤블도어 교수님이었고, 언제나 머글 보호와 머글 태생들의 권리를 옹호한 사람도 덤블도어 교수님이었어. 처음부터 그 사람과 맞서 싸운 사람이 누구였지? 그를 몰락시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누구냐고?”

리타의 책은 그들 사이의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었다. 마치 덤블도어의 초상이 두 사람을 향해 서글픈 미소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 미안해. 하지만 네가 그토록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일거야.”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해리는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는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려고 해야할지. 아니면 자신을 짓누르는 이 환멸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야할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가 나에게 요구했던 것을 좀 봐, 헤르미온느! 네 목숨을 걸어라 해리! 그리고 또다시! 또다시! 그렇지만 내가 모든걸 설명해 주길 기대하지는 마라. 그냥 맹목적으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심지어 내가 널 믿지 못할때에도 너는 나를 믿어야! 절대로 모든 진실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절대로!”

너무 핏대를 세운 나머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두 사람은 하얗고 드넓은 이곳에서 서로를 마주 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해리는 자신들이 이 막막한 하늘 아래에서 벌레만큼이나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너를 사랑하셨어.”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난 알아. 그분은 너를 사랑했어.”

해리가 두 팔을 떨어뜨렸다.

“헤르미온느, 그분이 누굴 사랑했었는지 난 모르겠어. 하지만 결코 나는 아니었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는 나를 혼란과 곤경속에 빠뜨리고 갔어. 그리고 나보다는 겔러트 그린델왈드와 자신의 진정한 생각한 훨씬 더 많이 나누었던 거야.”

해리는 눈속에 던져버렸던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다시 집어 들었다. 그리고 텐트 입구에 주저앉았다.

“차 잘 마셨어. 보초를 서는 일은 내가 먼저 끝낼게. 난 따뜻한데 좀 들어가 있어.”

헤르미온느는 잠시 망설였지만, 완강한 거절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책을 집어들고 그의 곁을 지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러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살짝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을 느낀 해리는 눈을 꼭 감으면서, 내심 그녀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자신을 증오했다. 덤블도어가 정말로 사랑했다는 그 말이.

### 제 19 장 은빛 암사슴

자정이 되어 헤르미온느가 망보는 일을 넘겨받았을 무렵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해리는 뒤송송하고 심란한 꿈에 시달렸다. 내기니가 계속 꿈속에 등장했다 사라지곤 했는데, 처음에는 금이 간 커다란 반지 사이로 기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장미 화환 사이로 기어나왔다. 그때마다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난 해리는 웬지 저 멀리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텐트를 내려치듯이 부는 바람 소리가 누군가의 발소리나 목소리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결국 해리는 어둠 속에 일어나서 헤르미온느 옆으로 갔다. 그녀는 텐트 입구에 웅크리고 앉은 채, 지팡이 불빛에 의지하여 <마법의 역사>를 읽고 있었다. 눈은 아직도 평평 쏟아지고 있었다. 해리가 일찍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제안하자. 헤르미온느도 크게 안도하며 기뻐했다.

“좀 더 은폐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헤르미온느는 파자마 위로 스웨터를 걸쳐 입으면서 부르르 몸을 떨었다.

“계속 밖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 심지어 누군가 얼씬거리는 걸 한두번 본듯한 생각도 들어.”

해리가 점퍼를 입다 말고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 식탁위에서 미동도 없이 조용한 스니코스코프를 한 번 쳐다보았다.

“분명히 내가 괜한 상상을 한 걸 거야.”

헤르미온느가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눈까지 내리면 헛것을 보기 쉽거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투명 망토를 쓰고 순간이동을 하는게 좋겠지?”

30 분 후, 텐트를 접고 나자, 해리는 호크룩스를 목에 걸고 헤르미온느는 구슬 백을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순간이동을 했다. 늘 그렇듯이 온몸을 꽉 조이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해리의 두 발이 눈 덮인 땅에서 떨어지는 듯 하더니 금방 낙엽으로 뒤덮인 얼어붙은 땅 위에 킁하고 내려섰다.

“여기가 어디야?”

해리가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주위를 돌아보며 물었다.

“딘의 숲(영국 서부에 있는 왕실 소유 국유림:역주)이야.”

헤르미온느가 구슬 백을 열어서 텐트 폴대를 꺼내며 말했다.

“언젠가 한 번 엄마 아빠랑 이곳으로 캠핑을 온 적이 있어.”

이곳 역시 주변의 모든 나무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추웠지만, 적어도 바람은 불지 않았다. 그들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푸르게 빛나는 불꽃 앞에 웅크리고 앉은 채, 거의 온종일 텐트 안에서 지냈다. 이제 헤르미온느는 이 유용한 불꽃을 척척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퍼서 단지에 담아 들고 다닐 수도 있었다. 해리는 마치 잠깐동안 심한 병을 앓고 나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옆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는 헤르미온느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새로운 눈발이 텐트 위로 훌날렸다. 그들이 있는 감추어진 곳에도 방금 내린 눈이 먼지처럼 곱게 내려앉았다.

이틀 밤이나 제대로 자지 못한 해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이 곤두선 것 같았다. 고드릭 골짜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도망쳐 나온 후로는, 볼드모트가 전보다 더 위협적으로 바싹 다가와 있는 느낌이었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해리는 계속 망을 보겠다는 헤르미온느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녀에게 그만 잠자리에 들라고 말했다.

해리는 낡은 방석을 텐트 입구로 가져가서 깔고 앉았다. 갖고 있는 스웨터를 몽땅 껴입었지만, 여전히 몸이 덜덜 떨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둠이 점점 깊어 가더니, 마침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해리는 잠깐 호그와트 비밀지도를 꺼내어 지니의 점이나 지켜볼까 하다가, 문득 지금이 크리스마스 방학 기간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지니는 버로우로 돌아갔을 것이다.

광막한 숲 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 숲에서 살아있는 생물들이 가득차 있다는 걸 해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부디 모두 꿈쩍말고 조용히 있어 주길 바랬다. 그래야만 총총걸음으로 달리거나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애꿎은 동물들의 소리와 불길한 움직임을 암시하는 또 다른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해리는 몇 해전, 긴 망토 자락이 사락사락 낙엽 위를 쓸고 지나가며 냈던 소리를 떠올렸다. 그러자 당장 그 소리를 또다시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들의 보호마법은 몇 주일 동안 별 탈 없이 효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깨지겠는가? 하지만 오늘 밤은 원가 다르다는 기분을 좀처럼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해리는 몇번이고 퍼뜩 놀라서 몸을 꼿꼿이 세웠다. 텐트에 비스듬이 몸을 기댄 채 깜빡 잠이 든 탓에 목덜미가 빠근했다. 밤은 이제 까만 벨벳 같은 완전한 어둠에 도달해 있었다. 마치 순간이동 도중의 중간 지대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해리는 과연 자기 손가락은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한 손을 코앞으로 들어 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눈부신 은색 빛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빛은 나무들 사이로 움직이고 있었다.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였다. 그 빛은 그가 있는 쪽으로 둉뚱 떠오는 것 같았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치켜든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혀가 굳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가까이 다가오자, 해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앞에 서 있는 나무들이 칠흑같이 새까만 윤곽을 드러냈다. 여전히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빛을 발하는 그것이 떡갈나무 뒤에서 걸어나왔다. 그것은 달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은백색의 암사슴이었다. 암사슴은 소리없이 땅 위로 천천히 걸어왔는데, 곱게 쌓인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암사슴은 긴 속눈썹이 난 커다란 눈을 깜박이며 아름다운 머리를 높이 쳐들고서, 곧장 해리를 향해 다가왔다.

해리는 경이로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짐승을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암사슴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마치 그동안 출곧 이 사슴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다만 이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만날 거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큰 소리로 헤르미온느를 부르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전까지 그토록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해리는 알았다. 이것만은 목숨을 걸고 장담할 수도 있었다. 이 사슴은 그를 찾아온 것이다. 오직 해리 혼자만을.

사슴과 해리는 몇 분 동안 서로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윽고 사슴이 돌아섯 걷기 시작했다.

“안돼”

해리가 외쳤다.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다.

“돌아와”

사슴은 계속해서 나무 사이를 유유히 걸어갔다. 곧 검고 굵은 나무들이 은빛 나는 사슴을 몸통을 가리며 줄무늬를 만들어 냈다. 떨리는 짧은 순간 동안 해리는 망설였다. 이건 분명 함정일거야, 속임수이고 미끼일 거야. 마음속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이 강력한 본능은 그에게 이것은 어둠의 마법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마침내 해리는 사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의 발밑에서 뾰드득 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사슴은 여전히 소리없이 나무사이를 미끄러져 나갔다. 단지 빛 덩어리였기 때문이다. 사슴은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그를 인도했다. 해리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조만간 사슴이 멈춰 서면, 그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용해 주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그 목소리는 그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해 주리라.

마침내 사슴이 멈춰섰다. 사슴은 아름다운 머리를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돌렸다.

해리는 재빨리 뛰었다.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터질듯이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물어보려고 말문을 빼려는 순간 사슴은 사라졌다.

어둠이 사슴을 완전히 삼켜버린 후에도, 광채를 발하던 그 모습은 여전히 그의 눈앞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가 눈을 감았을 때, 잔영은 환하게 빛나면서 그의 시야를 흐리게 했다. 그는 방향감각을 잃었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사슴의 존재가 그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했던 것이다.

“루모스!”

해리가 중얼거렸다. 동시에 지팡이 끝에서 불이 밝혀졌다.

그가 눈을 깜박거릴때마다. 환한 사슴의 잔영은 점차 사라졌다. 해리는 그곳에 가만히 서서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잔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부드럽게 눈이 휘날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뭔가가 공격을 해 올까? 사슴이 그를 매복 장소로 꼬여 낸 것일까? 지팡이 불빛이 달지 않는 저 너머에 누군가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리는 지팡이를 좀 더 높이 치켜들었다. 아무도 그를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나무 뒤에서 초록 불빛이 뿜어져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왜 사슴은 그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일까?

그때 지팡이의 빛을 받아 원가가 번쩍거렸다. 해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있는 것이라곤 얼어붙은 작은 연못뿐이었다. 해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갈라진 검은 수면이 반짝반짝 빛났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연못을 내려다보았다. 빙판 위에는 일그러진 그의 영상과 지팡이의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두껍고 뿐연 회색 빙판 저 아래로 원가 다른 것이 번뜩였다. 커다란 은색 십자가 같은 것이..... 해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능한 한 바닥까지 잘 비치도록 지팡이의 각도를 조절했다. 진한 붉은색 섬광이 반짝했다..... 그것은 손잡이에 빛나는 붉은 루비들이 박힌 칼이었다..... 그리핀도르의 칼이 이 숲속 연못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숨을 죽인 채, 그것을 정신없이 내려다 보았다. 어떻게 이런일이? 어떻게 저 칼이 이 숲 속 연못에 놓여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그들이 야영을 하고 있는 바로 근처에? 어떤 알 수 없는 마법의 힘이 헤르미온느를 이 장소로 이끌었을까? 아니면 그가 패트로누스라고 생각했던 그 암사슴이 이 연못을 지키는 일종의 수호 정령이었을까? 이 칼은 오직 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한 후에 이 연못에 놓이게 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칼을 해리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사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해리는 사람의 그림자라든가 혹은 반짝 스치는 눈빛이라도 발견하려고, 다시 한 번 지팡이로 주변의 나무와 덤불을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가 다시 얼어붙은 연못 바닥에 놓여 있는 칼로 관심을 돌렸을 때, 약간의 공포심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더 크게 해 줄 뿐이었다. 해리는 그 은빛 형상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고 주문을 외웠다.

“아씨오 칼!”

그것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해리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만약 그 일이 그렇게 쉬웠다면, 칼은 진작부터 그가 그냥 줍기만 하면 되도록, 저 얼어붙은 연못속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해리는 꿩꼿 언 연못 주위를 빙 돌면서, 저 칼이 저절로 찾아왔었던 때를 열심히 떠올렸다. 그때 그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었고, 도움을 요청했었다.

“도와줘”

해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칼은 무심하게 연못 바닥에 누워서 전혀 꼼짝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번에 그가 이 칼을 다시 돌려주었을 때, 덤불도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해리는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정한 그리핀도르만이 이 마법의 모자에서 이 칼을 뽑아 낼 수 있단다. 그렇다면 그리핀도르 임을 보여주는 자질들이 무었이었지? 해리의 머릿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에대 답을 들려주었다. 용기와 대담성 그리고 기사도 정신은 그리핀도르의 특징이죠. 해리는 걸음을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얀 입김이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에 달자,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다. 해리는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더라면 해리는 얼음 밑으로 그 칼을 처음 본 순간에 벌써 깨달았을 것이다.

해리는 다시 한 번 주위에 빙 둘러선 나무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덮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가 혼자 숲 속을 걸어올 때 벌써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아니면 연못 속을 살펴보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공격을 망설인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해리는 뻣뻣하게 얼어붙은 손으로 겹겹이 껴입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헤르미온느를 불러서 대신 이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것이 기사도 정신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놈의 ‘기사도’ 란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절대 모를 거라고 씹쓸하게 생각했다.

그가 옷을 벗고 있을 때, 어디선가 부엉이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냈다. 해리는 해드위그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다. 이제 온몸이 덜덜 떨리고 이빨이 딱딱 부딪쳤다. 하지만 해리는 계속해서 옷을 벗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눈 속에서

속옷만 입은 채, 맨발로 서 있게 되었다. 해리는 부서진 그의 지팡이와 어머니의 편지, 시리우스의 거울조각, 그리고 옛날 스니치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벗어서 옷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얼음위로 겨누었다.

“디핀도”

총소리 같은 요란한 소음이 정적을 깨면서 얼음이 짹 갈라졌다. 연못의 수면은 부서지고, 출렁거리는 물 위에 검은 얼음 덩어리가 둉둥 떠다녔다. 해리가 판단하기로는, 연못은 별로 깊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칼을 집어내려면 완전히 물속으로 잠수해야만 했다.

앞으로 할 일을 자꾸 이리재고 저리 재봐야, 일이 더 쉬워지거나 물이 더 따듯해질것도 아니었다. 해리는 연못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직도 불이 밝혀진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앞으로 얼마나 더 추워 질지, 또 얼마나 격렬하게 몸을 떨게 될지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몸의 모든 숨구멍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얼음 같은 물속으로 어깨까지 들어가자, 폐 속의 공기 방울하나까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어찌나 삼하게 몸이 떨리는지 연못 가장자리로 물살이 찰랑거렸다. 해리는 마비된 발에 칼날이 와 달는 것을 느꼈다. 오직 단 한번의 잠수로 성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해리는 숨을 헐떡거리고 몸을 덜덜 떨면서, 어떻게든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을 조금씩 미루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이른 후에 모든 용기를 다 끌어모아서 물속으로 잠수했다.

그 차가움은 고통 그 자체였다. 냉기가 불길처럼 그를 공격했다. 연못 바닥을 향해서 커컹한 물속을 지날 때에는 머릿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해리는 손을 뻗어서 칼을 찾아 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칼자루가 달았다. 해리는 칼을 위로 끌어올렸다.

바로 그때 뭔가 그의 목을 팽팽하게 조여 왔다. 해리는 잠수 할때에는 아무것도 몸에 스치는 걸 못 느꼈지만, 아마 해초가 걸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잡지 않은 손을 들어서 풀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해초가 아니었다.

호크룩스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하면서, 물 밖으로 나오려고 기를 썼다. 하지만 바위가 울퉁불퉁한 연못 가장자리에 몸을 부딪히기만 할 뿐이었다. 그는 숨이 막혀 켕켁거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목을 조르는 줄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은 줄을 풀지 못했다. 이제 머릿속에서 작은 전구 같은 것이 팡팡 터졌다. 해리는 익사하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가슴을 껴안는 이 팔은 분명 죽음의 손길이라.....

숨이 막혀 웨웩 헛구역질을 하고 물에 흠뻑 젖은 채,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추위를 느끼며, 해리는 눈밭에 얼굴을 묻고 누워 있었다.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는 또 한명이 숨을 헐떡이고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 뱀이 공격했을때 헤르미온느가 나타났던 것처럼 또다시 그녀가 왔구나.... 하지만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굵은 기침소리도, 육직한 발소리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해리는 고개를 들어서 자신을 구해 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볼 기력 조차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들어서 로켓이 팽팽하게 그의 살 속으로 파고들었던 목덜미를 어루만져 보는 것이 전부였다. 로켓은 사라지고 없었다. 누군가 그의 목에서 줄을 끊은 것이다. 그때 그의 머리맡에서 숨 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지금.....제정신이니?”

그 목소리를 듣고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해리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해리는 격렬하게 몸을 떨면서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의 앞에는 속속들이 흠뻑 젖은 옷을 입고 머리칼이 얼굴에 착 달라붙은 롤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그리핀도르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끊어진 호크룩스의 줄을 쥐고 있었다. 줄에는 호크룩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런 망할! 어째서 물에 뛰어들기 전에 이걸 벗지 않은거야?”

론이 호크룩스를 번쩍 들어보이면서 말했다. 그것은 마치 최면술을 흉내 내듯이, 짧아진 줄에 매달려 앞뒤로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빛 암사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론이 다시 나타난 것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일도 아니었다. 해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한동안 주위에 덜덜 떨고 서 있던 해리는, 문득 연못 가장자리에 여전히 놀여 있는 옷가지들을 보고는 재빨리 주워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머리위로 스웨터들을 연방 끼어 입으면서도, 해리의 눈길은 론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그를 보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진짜 론이 분명했다. 방금 연못으로 뛰어들어 그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던가.

“너... 너였니?”

마침내 해리가 이빨을 딱딱 부딪히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거의 목이 졸려 죽을 뻔한 지경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늘고 힘이 없었다.

“응, 그래.”

론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너..... 네가 그 암사슴을 보낸거야?”

“뭐라고? 당연히 아니지! 난 네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패트로누스는 수사슴이야”

“아, 그렇지. 어쩐지 어딘가 달라 보인다 했어. 뿔이 없었구나.”

해그리드의 주머니를 목에 건 해리는 마지막 남은 스웨터까지 걸치고 허리를 숙여 의 지팡이를 집어 든 다음 다시 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길 어떻게 왔니?”

분명히 론은 이런 순간이, 어쨌든 오긴 온다 해도, 좀 더 나중에 찾아오기를 바랐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너도 알잖아..... 그냥 돌아왔어. 그러니까.....”  
론이 목청을 가다듬었다.

“아직도 너희가 나를 원한다면 말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론이 떠나 버렸던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그들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 있다.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방금 해리의 목숨을 구했다.

론은 문득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는 것들을 보자. 부르르 떨었다.

“오, 그래 내가 이걸 꺼냈어.”

론은 해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칼을 높이 들었다.

“이것 때문에 물속에 뛰어 들었건 거니?”

“그래”

해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어떻게 우리를 찾아낸 거야?”

“말하자면 길어.”

론이 말했다.

“나는 몇시간동안이나 너희를 찾아 해맸어. 여긴 아주 큰 숲이잖아, 안 그래?  
이제 그만 나무아래에서 잠을 자며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슴이 다가오는게 보였어. 그리고 네가 그 뒤를 따라오더라.”

“다른 사람은 못 봤니?”

“아니, 나는.....”

론이 주저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싹 붙어 자라고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힐끗 쳐다보았다.

“저기 너머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기도 해. 하지만 그때 나는 연못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어. 네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거길 가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이봐!”

해리는 벌써 론이 가리켰던 방향으로 쓴살같이 뛰어가는 중 이었다. 두 그루의 떡갈나무가 바싹 붙어서 자라고 있었다. 두 몸통사이에는 딱 눈높이 쯤에 몇 센티미터 정도의 틈새가 벌어져 있을 뿐이었다. 몸을 숨긴 채 밖을 살펴보기에는 대단히 이상적인 장소였다. 하지만 나무뿌리 근처의 땅에는 눈이 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는 아무런 발자국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아직도 칼과 호크룩스를 들고 서 있는 론의 곁으로 돌아왔다.

“뭔가 있니?”

론이 물었다.

“아니”

해리가 대답했다.

“그런데 이 칼은 어떻게 저 연못에 들어가게 되었지?”

“누군진 롤라도 패트로누스를 불러낸 사람이 이 칼도 거기다 갖다 놓았을 거야.”

그들은 장식 문양이 새겨진 은빛 칼을 내려다보았다. 손잡이에 박힌 루비들이 헤르미온느의 지팡이 불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넌 이 칼이 진짜라고 생각하니?”

론이 물었다.

“그걸 알아낼 방법은 딱 하나야.”

해리가 말했다.

호크룩스는 아직도 론의 손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로켓이 요동쳤다. 해리는 그 안에 든 무언가가 또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칼의 존재를 느끼고서 해리가 그걸 손에 넣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길게 토론을 할때가 아니었다. 지금이야말로 이 호크룩스를 영원히 파괴할 순간이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했다. 단풍나무 아래에 평평한 바위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리로 와”

해리가 이렇게 말하며 앞장을 섰다. 그리고 바위 위에 놓인 눈을 쓸어 낸 다음, 호크룩스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막상 론이 칼을 건네주려고 하자,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네가 해야 해.”

“내가?”

론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다.

“어째서?”

“네가 연못에서 그 칼을 깨냈으니까, 내 생각에 이건 네가 해야만 해.”

결코 해리가 친절한 마음을 가졌거나, 너그러워서가 아니었다. 다만 암사슴이 좋은 편이라는 걸 알았듯이, 그 칼은 반드시 론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덤불도어는 해리에게 적어도 특정 종류의 마법에 대해서, 어떤 행위의 측량할 수 없는 힘에 대해서는 약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내가 이걸 열게.”

해리가 말했다.

“그럼 네가 그걸 찔러. 곧장 말이야. 알았지?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싸우려고 할 테니까. 일기장에 깃든 리들의 일부도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

“그걸 어떻게 열려고?”

론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다.

“파셀통그를 사용해서 열리라고 명령할 거야.”

해리가 말했다. 그 대답이 어찌나 입에서 솔솔 흘러나왔는지, 해리는 자신이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쩌면 최근에 내기니와 마주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답을 깨닫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해리는 반짝이는 초록색 보석을 박아 새긴, 뱀 모양은 S 자를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바위 위에 뾰리를 틀고 있는 작은 뱀이 금방 연상되었다.

“안돼!”

론이 다급하게 외쳤다.

“안돼, 열지마! 진심이야!”

“왜 그래?”

해리가 물었다.

“빨리 이 망할 놈의 것을 없애 버리자고, 몇 달 동안이나.....”

“난 못해. 해리. 진짜 못하겠어. 네가 해.”

“하지만 왜?”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너무 나쁘기 때문이야!”

론이 바위 위에 놓인 로켓으로부터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난 저걸 다룰수가 없어! 지난 번 내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이러는게 아니야! 해리! 하지만 저건 너나 헤르미온느 보다 나에게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쳤어. 나로 하여금 온갖 생각을 하게 했다고. 물론 내가 줄곧 생각해 오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훨씬 더 나쁘게 만들었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저걸 벗으면 다시 곧장 제정신이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저 빌어먹을 것을 목에 걸어야만 할때면..... 난 못하겠어, 해리!”

론은 칼을 옆에 늘어뜨린 채,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넌 할 수 있어.”

해리가 말했다.

“할 수 있다고! 네가 방금 그 칼을 꺼냈잖아. 그러니까 그건 네가 사용해야만 하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어서 이걸 없애자, 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강장제 역할을 한 모양이었다. 론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여전히 긴 코로 거센 콧김을 내뿜으면서 다시 바위를 향해 돌아왔다.

“그럼 언제 열지 말해 줘!”

론이 목이 멘 소리로 말했다.

“셋을 셸게”

해리는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가늘게 뜨며 로켓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S 자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며 뱀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한편 로켓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마치 뒷에 걸린 바퀴벌레처럼 덜컥덜컥 움직였다. 해리의 목덜미에 아직도 뻘겋게 남아있는 상처 자국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걸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둘.....셋.....열려라”

마지막 말은 속삭 위협을 가하는 소리가 되어 흘러나왔다.

그러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로켓은 황금 뚜껑이 확짝 열렸다.

두 개의 유리창 뒤에 살아 있는 눈알이 하나씩 깜박거리고 있었다. 뱀처럼 동공이 쭉 찢어지고 새빨갛게 변하기 전에 톰리들의 눈이 그랬던 것처럼 깨맣고 잘생긴 눈이었다.

“찔러”

해리가 바위 위의 로켓을 꽉 붙잡고서 말했다.

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을 높이 들었다.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도는 눈동자 위로 칼끝이 다가갔다. 해리는 벌써부터 텅 빈 유리창 뒤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로켓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때 호크룩스에서 속삭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난 네 마음속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저 말 듣지마!”

해리가 순 목소리로 외쳤다.

“그냥 찔러!”

“난 네꿈을 보았다. 로날드 위즐리. 그리고 너의 두려움도 보았다. 네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네가 두려워하는 일 또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찔러!”

해리가 부르짖었다.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칼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론이 리들의 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딸을 애지중지하는 어머니 밑에서 언제나 제일 사랑을 못 받았지..... 그리고 이제는 네 친구를 더 좋아하는 여자 친구에게 제일 사랑을 못 받고 있군..... 항상 기껏해야 2인자일 뿐.... 영원히 그늘에 가려진 채....”

“론, 지금 찔러.”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손 안에 든 로켓이 몸부림 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다. 론이 더 높이 칼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 리들의 눈동자가 빨갛게 빛을 발했다.

로켓의 양쪽 유리창 밖으로, 그리고 두 개의 눈알 밖으로 기괴하게 생긴 두 방울의 거품 같은 것이 부풀어 올랐다. 그것은 이상하게 일그러진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머리였다.

로켓 밖으로 사람의 형상이 부풀어 오르자, 론은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처음에는 가슴, 허리, 그 다음에는 다리가 생겨나더니, 마침내 그것들은 한 뿌리에서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처럼 나란히 로켓 안에 우뚝 서서, 론과 진짜 해리의 머리 위에서 흔들거렸다. 한편 해리는 로켓이 갑자기 하얗게 달아오르며 뜨거워지자 황급히 손가락을 뗐다.

“론!”

해리가 외쳤다. 하지만 리들-해리가 볼드모트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론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넉을 잃고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

“왜 돌아온 거니? 우린 네가 없어서 훨씬 더 좋았어. 네가 없어서 훨씬 기쁘고 행복했다고. 우린 멍청한 너를 비웃었어. 겁쟁이에다 철면피인 너를....”

“철면피!”

리들-헤르미온느가 그의 말을 따라했다. 그녀는 진짜 헤르미온느보다 아름다웠지만, 훨씬 더 무시무시했다. 그리고 론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깔깔 웃어댔다. 론은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리핀도르의 칼은 맥없이 그의 옆에 매달려 있었다.

“누가 너를 볼 수 있겠어? 누가 너를 쳐다보기나 하겠느냐 말이야. 해리 포터가 옆에 있는데? 그 선택받은 자에 비하면,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그 살아 남은 아이에 비하면 도대체 넌 뭐냔 말이야?”

“론, 어서 찔러, 찌르라고!”

해리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하지만 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활짝 떠져 있었고, 리들-해리와 리들-헤르미온느의 모습이 눈동자에 비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마치 불길처럼 나부끼고, 그들의 눈동자는 빨갛게 타올랐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사악한 이중주를 한껏 불러 대고 있었다.

“네 엄마는 고약했어.”

리들-헤르미온느가 히죽히죽 웃고 있는 옆에서 리들-해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차라리 내가 아들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말이야. 바忤으면 좋겠다고.....”

“누군들 그를 더 좋아하지 않겠어? 어떤 여자가 너를 선택하겠냐고? 그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리들-헤르미온느가 깐죽거렸다. 그리고 뱀처럼 몸을 길게 늘이더니 리들-해리의 몸을 칭칭 감고 바싹 껴안았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론의 얼굴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어서 해, 론!”

해리가 소리쳤다.

론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해리는 론의 누동자에 붉은 기가 감돈다는 생각을 했다.

“론?”

칼이 번쩍하면서 휘둘러졌다. 해리는 가까스로 몸을 던져 피했다. 짹그랑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길게 내지르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자신을 방어할 태세로 지팡이를 손에 든 채 황급히 몸을 돌리다가 눈에 미끄러졌다. 하지만 맞서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괴물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론 만이 손에 칼을 느슨하게 움켜쥔 채 서 있었다. 그는 평평한 바위 위에 산산이 부서진 로켓 조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리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론은 세차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붉게 충혈되지 않았고, 평소와 같은 푸른색이었다. 그리고 눈물에 젖어 있었다.

해리는 못 본 척하면서 허리를 숙여 부서진 호크룩스를 집어 들었다. 론이 양쪽 유리창을 깨뚫었다. 리들의 눈알은 사라지고, 로켓은 얼룩진 비단 안감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호크룩스 안에 살고 있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론을 괴롭힌 것은 그것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론이 짹그랑하며 바위에 칼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두 팔로 머리를 깜싼 채,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구 떨고 있었는데, 해리는 그게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황급히 호주머니 속으로 부서진 로켓을 쑤셔 넣은 해리는 론의 옆에 가서 같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놓았다. 론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이 좋은 징조인 것 같았다.

“네가 떠난 후에 헤르미온느는 일주일 내내 울었어.”

해리는 론의 얼굴이 가려진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더 오래 울었는지도 몰라. 다만 내게 그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낸 밤도 수없이 많았지. 네가 가버린 후에.....”

해리는 말을 끝낼 수가 없었다. 론이 이곳에 다시 돌아온 지금에야. 비로소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그녀는 여동생과 마찬가지야.”

해리가 말을 이었다.

“난 그녀를 동생처럼 사랑해. 그녀도 나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을 테고, 언제나 늘 그랬어. 난 네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해리로부터 고개를 돌리더니 소매 끝으로 소리내어 코를 닦았다. 해리는 다시 일어나서, 론의 커다란 배낭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론은 물에 빠진 해리를 구하기 위해서 배낭을 내동댕이치고 연못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던 것이다. 해리는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론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해리가 다가오자, 힘들게 일어섰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을 뿐 차분했다.

“미안해.”

론이 목이 매어 말했다.

“그렇게 떠나서 미안해 나도 알아...난.....난.....정말.....”

론은 어둠 속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뭔가 아주 심한 욕이라도 날아와서 자신을 비난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았다.

“오늘 밤에 넌 그걸 만회했어.”

해리가 위로했다.

“이 칼도 꺼내고, 호크룩스도 파괴하고, 내 목숨도 구했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실제보다 내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처럼 들리잖아.”

론이 우물거렸다.

“원래 그런 일들은 항상 실제보다 훨씬 더 멋있게 들리는 법이니까.”

해리가 말했다

“그걸 너에게 알려 주려고 내가 몇 년동안 얼마나 애를 써왔는데.”

동시에 두 사람은 앞으로 걸어 나와 덥석 서로를 껴안았다.

해리는 여전히 흠뻑 젖은 론의 등을 꼭 잡았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텐트를 찾는 것 뿐이야.”

포옹을 풀고 떨어지면서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암사슴을 쫓아서 어두운 숲을 헤치고 걸어올때에는 꽤 멀게 느껴졌지만, 이제 론과 나란히 돌아가는 길은 깜짝 놀랄만큼 짧게 느껴졌던 것이다.

해리는 한시라도 빨리 헤르미온느를 깨우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성급하고 들뜬 마음으로 텐트 안에 들어갔다. 한 편 론은 약간 머뭇거리며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연못과 숲에 있다가 들어오니, 텐트 안은 천국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텐트를 밝히는 유일한 빛인 초롱꽃 모양의 불꽃이 아직도 마루 위에 놓인 접시 안에서 깜박거리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몸을 꼬부린채, 담요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다. 해리가 몇 번이나 이름을 불러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

마침내 그녀가 몸을 움찔하더니, 재빨리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얼굴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무슨 일이야, 해리? 무사한 거니?”

“괜찮아. 모든 일이 다 잘됐어. 아니, 그 이상이야. 난 너무 신나. 여기 누가 왔거든.”

“그게 무슨 소리니? 누가 왔.....?”

헤르미온느가 론을 보았다. 그는 칼을 손에 든채, 낡아 빠진 카펫 위로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해리는 슬그머니 어두운 구석으로 가서 론의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텐트에 착 붙어 있으려고 했다.

헤르미온느는 미끄러지듯이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마치 동유병자처럼 론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파리하게 질린 론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론의 앞에 딱 멈춰 섰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벌어졌고,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다. 론은 희미하게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두 팔을 들어 올리려고 했다.

헤르미온느가 앞으로 돌진하더니 닥치는 대로 마구 론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이쿠....아이고머니나! 도대채...? 헤르미온느.....으윽!”

“이.....천하에.....멍텅구리.....로날드.....위즐리!”

헤르미온느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주먹을 날렸다. 론은 머리를 막으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지만, 헤르미온느는 계속 앞으로 다가갔다.

“몇 주일이.....지나고.....또

지나서....이제야.....여길.....기어들어 .....오다니! 이런 내 지팡이 어디있지?”

헤르미온느는 당장이라도 해리의 손에서 지팡이를 빼앗으려 달려들 기세였다. 해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를 했다.

“프로테고!”

보이지 않는 방어벽이 론과 헤르미온느 사이에 드리워졌다. 그 힘에 떠밀려서 헤르미온느가 바닥으로 나자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입에 들어간 머리카락을 뱉으며 다시 발딱 일어났다.

“헤르미온느! 그만 진정....”

해리가 소리쳤다.

“난 절대 진정할 수 없어!”

헤르미온느가 핏대를 세우며 외쳤다. 이렇게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마치 정신착란이라도 일으킨 것 같았다.

“내 지팡이를 돌려줘! 어서 돌려 달란 말이야!”

“헤르미온느, 제발 부탁인데...”

“나더러 아래라저래라 하지마. 해리 포터!”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고함을 질렀다.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당장 그거나 돌려줘! 그리고 너!”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힐난에 가득 찬 손가락질을 했다. 무슨 악랄한 저주라도 퍼부을 기세였다. 해리는 론이 얼른 몇 발자국 물러서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난 네 뒤를 쫓아서 달려갔었어! 너를 애타게 불렀단 말이야! 돌아와 달라고 사정했다고!”

“나도 알아”

론이 빌었다.

“헤르미온느, 미안해, 정말로....”

“오, 미안하단 말이지!”

헤르미온느가 날카로운 소리로 미친듯이 웃어 댔다. 론은 도움을 청하듯이 해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해리는 그저 인상만 찡그릴 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

“몇 주일 동안이나 지난 이제야 돌아와 놀고, 그저 미안하고 말만 하면 모든 게 괜찮아 질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론이 맞받아쳤다. 해리는 론이 맞서 싸우는 걸 보니 기뻤다.

“오, 난 모르지”

헤르미온느는 지독하게 빙정대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네 머리나 쥐어짜 봐, 론. 그래 봤자 몇 초도 안 걸리겠지만...”

“헤르미온느”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해리가 끼어들었다.

“론은 방금 내 목숨을 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헤르미온느가 소리높여 대들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든 난 관심 없다고! 몇 주일이나 지났어! 그동안 우리가 죽었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아는 거라곤....”

“난 너희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론이 벌컥 호통을 쳤다. 처음으로 헤르미온느의 목소리가 그의 기세에 놀렸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둘러처진 방패 마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바싹 다가갔다.

“해리의 기사가 <예언자 일보>전체를 도배하고 모든 라디오마다 해리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 그자들은 지금 사방에서 너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야. 온갖 소문들과 정신 나간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지. 만약 너희가 죽었다면 나는 곧장 그 소식을 들었을 거야. 너희는 바깥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몰라서....”

“넌 어땠는데!”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이제 너무 날카롭고 높아서 겨우 박쥐 귀에나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다다라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 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변명을 늘어놓았다.

“순간이동을 하자마자 나도 당장 돌아오고 싶었어. 그런데 그만 곧장 인간 사냥꾼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헤르미온느, 그래서 나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

“무슨 무리라고?”

해리가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의자에 몸을 던지더니, 팔과 다리를 단단히 꼬고 앉았다. 몇 년간은 그걸 풀지 않을 태세였다.

“인간 사냥꾼.”

론이 말했다.

“어디나 그자들이 쪽 깔려있어. 머글 태생이나 동족의 배신자들을 체포해서 황금을 타 내려고 하는 무리들이지. 한 사람 잡아갈때마다 마법부에서 포상금을 주거든. 나는 혼자인 데다가 아직 학교에 다닐 나이로 보였기 때문에, 그자들은 신나서 어쩔 줄 몰랐어. 내가 도망 다니는 머글 태생이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마법부로 끌려가기 전에 그자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얼른 아무 말이나 둘러대야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스탠 션파이크라고 했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그거 뿐이더라고”

“그자들이 그 말을 믿던?”

“별로 영리한 놈들이 아니었어. 사실 그중 하나는 거의 트롤 수준이더라고, 그 역겨운 냄새하며....”

론은 헤르미온느를 슬쩍 곁눈질했다. 이 약간의 유머가 그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지 않았을까 기대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팔다리를 단단하게 꼬고 앉아 있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돌처럼 딱딱 하게 굳어 있었다.

“어쨌든 그자들은 내가 과연 스탠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한바탕 분쟁을 일으켰어. 솔직히 딱한 마음까지 들더라면.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다섯이었고, 나는 혼자뿐이었어. 그들은 내 지팡이를 빼았았지. 그런데 그중 두명이 싸움을 일으킨 거야. 다른 놈들이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나는 날 불잡고 있던 놈의 배를 때리고, 그의 지팡이를 간신히 빼았았지. 그걸로 내 지팡이를 갖고 있던 놈에게 무장해제 마법을 날렸고, 그런 다음 순간이동을 해버렸지. 사실 별로 잘하지는 못했어. 또다시 신체 일부가 날아갔거든.”

론이 오른손을 들어서 손톱 두개가 없어져 버린 자리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싸늘하게 눈썹을 치켜세울 뿐이었다.

“난 너희가 있는 장소에서 몇 킬로 밖에 도착했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있었던 그 강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벌써 아무도 없더라.”

“아이고, 참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헤르미온느가 잔뜩 거드름을 피우는 말투로 말했다.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을 때면 늘 그런 식이었다.

“너는 단지 겁에 질렸겠지. 그동안 우린 고드릭 골짜기에 갔었는데. 해리, 생각 좀 해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오, 그래 그 사람의 뱀이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 둘다 거의 죽을 뻔했었지.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람이 쫓아왔고, 우린 간발의 차이로 도망쳤었지.”

“뭐라고?”

론은 입을 딱 벌린채, 그녀와 해리를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해리, 손톱이 없어지다니, 상상 좀 해봐! 그 이야기 들으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니? 안그래?”

“헤르미온느, 론은 방금 전에 내 목숨을 구해 주었어.”

해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전혀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어쨌든 내가 궁금한 게 딱 한가지 있어.”

헤르미온느가 시선을 론의 머리 머리 한 곳에 고정한채, 말했다.

“오늘 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냈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걸 알게되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우릴 찾아오는 걸 확실히 막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론이 헤르미온느를 잠깐 노려보더니, 청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물건을 꺼냈다.

“이거야.”

헤르미온느는 론이 꺼낸 물건이 뭔지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야했다.

“딜루미네이터 말이야? ‘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순간적으로 어찌나 놀랐는지, 쌀쌀맞고 사나운 표정을 짓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건 단지 불만 꺼다 캇다 하는게 아니었어.”

론이 설명했다.

“나도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어째서 다른 때는 아니고 하필 그때에 그런 작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떠난 뒤로 줄곧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었거든. 어쨌든 나는 크리스마스에 아주 이른 새벽부터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 그런데 들렸어.....네 목소리가 말이야.”

론이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들었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듯이 되물었다.

“아니, 내 호주머니에서 네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들었어. 바로, 여기서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니까”

론은 또다시 딜루미네이터를 들어 올렸다.

“정확히 내가 뭐라고 했는데?”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 반, 호기심 반이었다.

“내 이름. 론이라고, 그리고 또.... 지팡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해리도 기억이 났다. 론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론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한 날이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지팡이를 고치는 문제를 의논하다가 그 이름을 언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난 이걸 꺼냈지.”

론이 딜루미네이터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별로 특별히 달라 보이는 점은 없었어. 하지만 난 분명히 네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걸 켰지. 내 방의 불이 전부사라지더니, 바로 창문 바깥에 또 다른 빛이 나타나는 거야.”

론은 다른 한 손을 들어서 자기 앞쪽을 가리켰다. 그의 눈은 해리도 헤르미온느도 볼 수 없는 원가를 열심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둥근 빛 덩어리 였는데, 파닥파닥 고동치고 있었고, 푸르스름한 빛을 발했어. 마치 포트키 주위에서 발산되는 빛처럼 말이야, 너희도 알지?”

“그래”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입에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게 뭔지 단박에 알아보았어.”

론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얼른 내 물건을 끌어모아 짐을 쌓아. 그런 다음 배낭을 매고 정원으로 나갔지. 그 작은 빛 덩어리는 거기에 둉둥 떠 있었어. 나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내가 짐 밖으로 나가자. 그 빛은 살짝살짝 흔들리며 움직였어. 나는 그걸 따라서 창고 뒤로 갔지. 그러고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왔어.”

“뭐라고?”

해리는 자신이 잘못들었다고 생각하고 되물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흘러 들어왔다고 해야 할까”

론이 집게 손가락으로 그 움직임을 그려 보이며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다.

“바로 내 가슴으로 말이야. 그러더니 쑥 지나가 버렸어. 바로 여길 말이야.”

론은 심장 가까이의 한 지점을 짚었다.

“난 느낄수 있었어. 아주 뜨거웠거든. 일단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자.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 내가 가야만 하는 곳으로 그게 날 데려가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 그래서 난 순간이동을 했고, 어느 언덕 한켠에 도착한 거야. 사방에 눈이 쓰여 있었어...”

“우리가 거기 있었지.”

해리가 말했다.

“우린 거기서 이틀을 보냈어. 두 번째 날 밤에 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소리쳐 부르는 것을 들은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

“그래, 그게 아마 나였을 거야.”

론이 말했다.

“하지만 너희의 보호마법이 작동하고 있어서, 난 너희가 어디 있는지 보거나 들을 수도 없었어. 그래도 너희가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 결국 나는 침낭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 텐트를 접으려면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그렇지 않았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우린 좀 더 조심하기 위해서 출곧 투명 망토를 쓰고 순간 이동을 했거든. 게다가 우린 아주 일찍 떠났어. 왜냐하면 해리가 말한대로 근처에서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야.”

“그래, 난 그 언덕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 너희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다시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너희를 놓쳐 버릴 게 틀림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난 다시 달루미네이터를 켰어. 또 푸른빛이 나오고 내 안으로 들어왔어. 난 순간이동을 했고, 바로 이 숲으로 온 거야. 그래도 여전히 너희 모습을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난 그저 너희 중 하나라도 언젠가는 모습을 보이겠지 하고 기대하는 수 밖에 없었어. 그런데 해리가 나타났지. 아니, 사실은 그 암사승을 먼저 봤어.”

“네가 뭘 봤다고?”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자 론과 해리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은빛 암사승과 연못 속에 놓여 있던 칼 이야기를 들려주자. 헤르미온느는 심각하게 인상을 쓰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찌나 그 이야기에 열중했는지, 계속 팔다리를 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런 패트로누스가 틀림없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불러냈는지 못 봤단 말이야? 아무도 못 봤어? 그런데 그 암사승이 너를 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구나!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니?”

론은 자신이 어떻게 해리가 연못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물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는지 말해 주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해리를 구하고 칼을 되찾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하지만 로켓을 여는 대목에 이르자, 론은 주저하며 말을 망설였다. 그래서 결국 해리가 대신 말을 받았다.

“그래서 론이 칼로, 그걸 찔러 버렸어.”

“그리고.....그건 어떻게 됐어? 그때랑 똑같았니?”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어, 그러니까....비명을 지르더라.”

해리가 론을 힐끗 쳐다보면서 말을 맺었다.

“여기 있어.”

해리가 그녀의 무릎 위로 로켓을 던졌다. 헤르미온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들더니 깨진 유리창을 살펴보았다.

한편 해리는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헤르미온느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방패 마법을 해제했다. 그리고 론을 향해 돌아섰다.

“그런데, 네가 그 인간 사냥꾼들로 부터 지팡이 하나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지 않았니?”

“뭐라고?”

로켓을 살펴보고 있는 헤르미온느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던 론이 말했다.

“어, 어 그래”

론은 배낭의 걸쇠를 열고 그 주머니에서 짧고 검은 지팡이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어.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거라고 생각했지.”

“네 생각이 맞았어.”

해리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내 지팡이가 부러졌거든.”

“농담이지?”

론이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헤르미온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자 론은 다시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헤르미온느는 망가진 호크룩스를 구슬 백 안에 넣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침대로 다시 기어 올라가 누워 버렸다.

론은 해리에게 새 지팡이를 건네주었다.

“이만한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해리가 소곤거렸다.

“그래”

론도 동의했다.

“훨씬 더 끔찍 했을 수도 있어. 쟤가 나한테 새들을 날려 보냈던거 기억나지?”

“난 아직도 그 마법을 할 수 있어.”

담요 밑에서 헤르미온느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해리는 론이 배낭에서 밤색 파자마를 꺼내며 씩 웃는걸 보았다.

## 차례

제 20 장 제노필리우스 러브굿

제 21 장 삼 형제 이야기

제 22 장 죽음의 성물

제 23 장 말포이 저택

제 24 장 지팡이 제작자

제 25 장 조개껍데기 오두막집

제 26 장 그린고트

제 27 장 마지막 은닉처

제 28 장 잃어버린 거울

## 제 20 장 제노필리우스 러브굿

해리는 하룻밤 사이에 헤르미온느의 화가 누그러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헤르미온느가 험상궂은 표정과 쓸쓸맞은 침묵으로 일관해도 전혀 놀라울 게 없었다. 론은 계속 뉘우치고 있다는 표시로, 그녀 앞에서는 부자연스러울 만큼 침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응대했다. 사실 세 사람이 모두 한자리에 있을 때면, 해리는 꼭 자기만 썰렁한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는 유일한 조문객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잠깐잠깐 물을 떠 오거나 버섯을 찾아 덤불숲을 뒤지느라 해리와 단둘이 있게 되면, 론은 뻔뻔스러울 만큼 명랑해졌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 거야”

론은 계속해서 떠들었다.

“누군가 그 암사슴을 보내 줬어. 누군가 우리 편을 들고 있어. 호크룩스 하나는 없어졌다고 친구!”

로켓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해진 그들은 또 다른 호크룩스가 있을 만한 후보지에 대해서 열심히 의논했다. 비록 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 그토록 자주 의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낙관적이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이어 더 많은 돌파구가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뿐로통해 있는 헤르미온느도 한껏 부푼 그의 기분을 망쳐 놓지는 못했다. 갑작스런 행운들, 이를테면 신비로운 암사슴이라든가, 그리핀도르의 칼, 그리고 무엇보다도 론의 귀환으로 해리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계속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기란 아주 어려웠다.

오후 늦게 해리와 론은 헤르미온느의 사나운 눈길을 피해 도망쳤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블랙베리를 찾는다는 구실로 헐벗은 산울타리를 뒤지는 척하며, 틈틈이 계속해 왔던 소식교환을 다시 이어 갔다. 그동안에 해리는 고드릭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일들의 전모를 포함해, 자신과 헤르미온느의 파란만장한 방랑기를 론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서 겨우 이야기를 끝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론이 그들과 떨어져 지낸 몇 주 동안, 바깥 마법사 세계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해리에게 자세히 전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 금기에 대해서 알아냈니?”

마법부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머글 태생들의 수많은 필사적인 시도에 대해 설명한 뒤에, 론이 해리에게 물었다.

“뭐라고?”

“너랑 헤르미온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걸 그만뒀잖아!”

“오오, 그거 말이지. 어,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도 그런 나쁜 습관에 빠져들게 되었어.”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난 여전히 그자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는 아무 문제없어. 볼.....”

“안돼!”

론이 꽉 고함을 치는 바람에, 해리는 산울타리 속으로 별령 자빠졌다. 텐트 입구에 앉아 책에 코를 박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그들을 노려보았다.

“미안.”

가시나무 속에서 해리를 끌어내며 론이 말했다.

“하지만 그 이름에는 저주가 걸려있어. 해리, 그게 바로 그들이 사람들을 추적하는 방법이라고! 그자의 이름을 부르면 보호마법이 파괴된단 말이야. 일종의 마법 장애를 일으키는 거지. 바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리가 토크넘 코트 로드에 있는 걸 찾아낸 거야!”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야! 너도 그자들의 방법을 인정해 줘야 해. 일리가 있잖아. 감히 그 이름을 사용했던 건 오직 덤블도어 교수님처럼 그자에게 대항하는데에 열성이었던 사람들 뿐이었어. 이제 그자들이 그 이름에 금기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든 그 이름을 말한 사람은 추적을 당하게 된 거야. 기사단 단원들을 찾아내는 쉽고 간편한 방법이지! 하마터면 킹슬리도 잡힐 뻔 했....”

“정말이야?”

“그래. 빌 얘기로는 죽음을 먹는 자 일당이 그를 궁지로 몰았데. 하지만 간신히 싸워서 빠져나왔다더라고, 지금 킹슬리는 도망 중이야. 꼭 우리처럼 말이지”

론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채 지팡이 끄트머리로 턱을 긁었다.

“혹시 킹슬리가 그 암사슴을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패트로누스는 살쾡이야. 결혼식 때 봤잖아. 기억나지?”

“아, 맞다.”

그들은 텐트와 헤르미온느로부터 벗어나서, 산울타리를 따라 더 멀리 나아갔다.

“해리.....넌 혹시 그게 덤블도어 교수님이었을 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드니?”

“덤블도어 교수님이라니, 무슨?”

론은 조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 말은 혹시 덤블도어 교수님이.....그 암사슴을.....”

론이 계속 해리를 곁눈질하며 말했다.

“교수님이 마지막까지 진짜 칼을 갖고 계셨잖아, 안 그래?”

해리는 론을 비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질문 뒤에 숨겨진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덤블도어가 어떻게든 그들 곁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고 있다는 상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돌아가셨어. 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았어. 그분의 시신도 보았고.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셨어. 더구나 교수님의 패트로누스는 불사조야, 암사슴이 아니고”

“그래도 패트로누스는 변할 수 있잖아. 안 그래?”

론이 말했다.

“통스의 패트로누스도 바뀌었잖아?”

“그건 그래. 하지만 만약 덤블도어 교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타나지 않는 거지? 왜 그냥 우리에게 칼을 건네주시지 않느냐는 말이야.”

“나야 모르지”

론이 말했다.

“어쩌면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그걸 너에게 주지 않으셨던 것과 똑같은 이유가 아닐까? 너에게 옛날 스니치를 주시고 헤르미온느에게 동화책을 주신 것과 똑같은 이유 말이야”

“뭐가 어떻게?”

해리는 고개를 돌려, 어떻게든 대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잘 모르겠어”

론이 말을 이었다.

“가끔씩 난 그런 생각을 했어. 특히 내가 좀 화가 났을때면, 교수님이 우릴 비웃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야. 하지만 난 더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교수님은 내게 딜루미네이터를 주시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던 거야, 그렇지 않니? 그분은 그러니까……”

론은 귀까지 새빨개졌다. 그는 발끝으로 발치에 있는 풀을 톡톡 걷어차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척 했다.

“내가 너희로부터 달아날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던게 분명해.”

“아니야.”

해리가 정정했다.

“교수님은 네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할 거란 걸 아셨던게 분명해.”

론은 몹시 고마워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눈치였다. 해리가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얼른 말을 꺼냈다.

“덤블도어 교수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 혹시 스키터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썻는지 들었니?”

“오오 그럼”

론이 즉각 대답했다.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린델왈드와 친구였다니! 물론 상황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정말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덤블도어 교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거 비웃을 농담거리가 생긴 셈이고, 덤블도어 교수님을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뺨을 한 대 맞은 기분이야. 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잘 모르겠어. 그때 그분은 아주 어렸잖아. 그들 두 사람이……”

“우리 나이였지.”

해리는 헤르미온느에게 반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대꾸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뭔가가 론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았다.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덤블 속에 걸쳐진, 서리 맞은 거미줄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해리는 전날 밤 론에게서 받은 지팡이로 거미를 겨냥했다. 그 지팡이는 헤르미온느가 활공하게도 손수 시험해 보고서 블랙손 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판정해 주었다.

“잉그로지오.”

거미는 거미줄에서 살짝 튕어 오르며 몸을 약간 떨었다. 해리는 다시 시도해 보았다. 이번에는 거미가 약간 커졌다.

“그만 해.”

론이 매섭게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어렸다고 말한 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됐니?”

해리는 론이 거미를 끔찍이 싫어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리듀시오.”

하지만 거미는 작아지지 않았다. 해리는 블랙손 지팡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지팡이로 시도해 본 간단한 주문들은 아무래도 불사조 지팡이로 했을 때보다 훨씬 힘이 약한 것 같았다. 새 지팡이는 마치 팔에다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여 놓은 것처럼 거추장스럽게 낯설게 느껴졌다.

“넌 단지 연습이 필요한 것 뿐이야.”

헤르미온느가 불쑥 끼어들었다. 어느새 소리없이 등 뒤로 다가와서, 거미의 크기를 늘였다 줄였다 해 보려는 해리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

“그건 순전히 자신감의 문제야 해리”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의 지팡이를 부러뜨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그렇게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이 지팡이를 갖고 대신 네 지팡이를 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튀어 올라왔지만, 간신히 삼켰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가 다시 친구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론이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를 보이자 발끈하며 가 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책 뒤로 숨어버렸다.

어둠이 내리자 세 사람은 텐트로 돌아갔다. 해리는 첫 번째로 망을 보았다. 그는 입구에 앉아서 블랙손 지팡이로 발치에 있는 작은 돌들을 공중에 띄우려고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마법은 여전히 예전보다 더 서툴고 힘이 약한 것 같았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자기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고, 론은 초조하게 그녀를 힐끔힐끔 올려다보다가 결국에는 배낭에서 나무로 된 조그만 라디오를 꺼냈다. 그리고 그걸 켜더니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사실대로 뉴스를 전해 주는 거라곤 이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어.”

론이 해리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방송들은 죄다 그 사람편이고, 마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어. 하지만, 이건... 잠깐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 봐, 정말 끝내 준다니까. 비록 매일 밤 방송을 하진 못하지만 말이야. 기습에 대비해서 장소를 계속 옮겨야 하거든.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려면 암호가 필요해..... 문제는, 내가 지난번 방송을 놓쳤다는 거야....”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아무 단어나 중얼거리며, 라디오 윗부분을 지팡이로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자꾸만 헤르미온느의 눈치를 살폈다. 언제 분노가 폭발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단지 론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굴 뿐이었다. 10분 가량 론은 라디오를 탁탁 두드리며 암호를 중얼거렸고, 헤르미온느는 책을 몇 장 넘겼으며, 해리는 블랙손 지팡이로 연습을 계속했다.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침대에서 내려왔다. 론은 두드리는 것을 멈추었다.

“성가시면 그만 할게.”

론은 안절부절하며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그에게 대답을 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는 않고, 대신 해리에게 다가갔다.

“우리 얘기 좀 해.”

그녀가 말했다.

해리는 그녀가 들고 있는 책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이었다.

“뭔데?”

해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책에는 자신에 관한 내용도 한 장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리타 식으로 지어낸 자신과 덤블도어의 관계를 과연 참고 들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대답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난 제노필리우스 러브굿 씨를 만나러 가고 싶어.”

해리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뭐라고?”

“제노필리우스 러브굿 씨 말야. 루나 아버지. 난 가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해야겠어!”

“어.....왜?”

헤르미온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말했다.

“이건 바로 그 상징이야. <방랑시인 비둘의 이야기>에 있는 상징이라고, 이것 봐!”

헤르미온느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말>을 썩 내키지 않아 하는 해리의 눈앞에 펼쳐 놓았다. 그는 가느다랗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친숙한 글씨체로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에게 쓴 편지의 ‘원본 사진’을 보았다. 그는 덤블도어가 정말로 그런 말들을 썼으며, 그것이 리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서명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서명을 좀 봐, 해리!”

해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잠시 동안 그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팡이 끝에 밝힌 불빛 아래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덤블도어가 알버스의 A 자리에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삼각형 모양을 조그맣게 그려넣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 너희, 무슨……?”

론이 주저하며 말을 붙여보려고 했지만, 헤르미온느는 눈총 한 번으로 단박에 그의 입을 막아 버렸다. 그리고 해리 쪽으로 휙 몸을 돌렸다.

“그게 계속 등장하고 있어, 그렇지 않니?”

그녀가 말을 이었다.

“빅터가 그게 그린델왈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분명히 고드릭 골짜기의 그 오래된 묘에도 있었어. 그런데 비석에 적힌 날짜는 그린델왈드가 등장하기 훨씬 전이라고! 게다가 이제 이것까지! 물론 우린 그게 무얼 뜻하는지 덤블도어 교수님이나 그린델왈드에게 물어볼 수는 없어.

그린델왈드가 과연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러브굿 씨한테는 물어볼 수 있어. 그는 결혼식때 그 상징을 걸고 왔었잖아. 이건 중요한 일이야, 해리!”

해리는 당장 뭐라고 대답하지는 않았다. 다만 긴장되고 열의에 찬 헤르미온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다시 생각에 잠겨 사방에 둘러싼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해리가 입을 열었다.

“헤르미온느, 또다시 고드릭 골짜기에서와 같은 일을 겪을 필요는 없잖아. 우리는 그곳으로 가자고 말했지, 그리고……”

“하지만 그 상징이 계속 나타나잖아. 해리! 덤블도어 교수님은 내게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남겨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그 상징에 대해 알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또 그 문제로구나!”

해리는 슬며시 화가 치밀었다.

“우리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증거들과 단서들을 남겨 주셨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계속 애써 왔지……”

“딜루미네이터는 아주 유용한 것으로 판명됐어.”

론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난 헤르미온느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우리가 러브굿씨를 보러가야 한다고 생각해.”

해리는 론에게 침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가 확신하건데, 론이 무조건 헤르미온느의 편을 들며 나서는 것은, 이 삼각형 모양 룬 문자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바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고드릭 골짜기에서와 같지는 않을거야. 러브굿 씨는 네 편이야, 해리. <이러쿵 저러쿵>은 출곧 널 지지해 왔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론이 덧붙였다.

“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해!”

헤르미온느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덤블도어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드니?”

“어쩌면…… 어쩌면 그런 네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헤르미온느는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실낱같은 희망을 비치며 말했다.

“맞아. 그거 일리있네.”

론이 알랑거렸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면박을 주었다.

“하지만, 난 그래도 러브굿 씨와 얘기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건 덤블도어 교수님과 그린델왈드, 고드릭 골짜기를 이어 주는 상징이잖아? 해리, 난 우리가 반드시 이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론이 제안했다.

“러브굿 씨를 만나러 가는데 찬성하는 사람.....”

헤르미온느의 손이 미쳐 올라가기도 전에, 론의 손이 먼저 번쩍 올라갔다.

헤르미온느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입술을 빼죽이며 손을 들었다.

“네가 졌다. 해리. 미안하다.”

론이 해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해리는 한편으로 짜증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했다.

“단, 러브굿 시를 만난 다음에는 호크룩스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자. 알았지?

그나저나 러브굿 가족은 어디에 살지? 너희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응, 루나네 집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

론이 대답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루나네 이야기를 할때면 언제나 언덕 쪽을 가리키곤 했거든,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야.”

헤르미온느가 침대로 돌아가자, 해리는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거렸다.

“넌 그저 재 마음에 들려고 찬성했지?”

“사랑과 전쟁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법이지.”

론이 명랑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건 사랑과 전쟁, 모두와 관련이 있잖아. 기운 내. 크리스마스 방학이잖아. 루나도 집에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 그들은 순간이동으로 산들바람이 부는 언덕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터리 성 캐치풀 마을의 빼어난 풍경을 바라보았다. 전망이 좋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마을이 마치 구름 사이를 비집고 대지를 향해 비스듬이 내리쬐는 햇빛에 감싸인 한 무리의 장난감 집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손으로 햇빛을 막으며 잠시 동안 버로우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곤 과수원의 높은 산울타리와 나무들뿐이었다. 그것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조그만 집을 머글들의 눈에 안 띄게 보호해 주고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 들르지도 않다니, 기분이 이상하네.”

론이 말했다.

“참 내, 불과 얼마 전에 식구들을 만났으면서 꼭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네. 넌 크리스마스 때 저기 있었잖아.”

헤르미온느가 쌀쌀맞게 쏘아붙였다.

“난 버로우에 있지 않았어!”

론이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트리며 대꾸했다.

“너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고 돌아왔다고 말했을 것 같니? 그랬으면 프레드와 조지가 잘도 나를 반겨주었겠다. 그리고 지니, 그 애가 참으로 잘도 이해해 주었겠어.”

“그러면 어디에 있었던 거야?”

“빌과 플뢰르의 신혼집에 있었어.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곳이야. 빌은 언제나 나한테 잘해줬어. 물론 내가 한 일을 듣고 감동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왈가왈부하지도 않았어. 형은 내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나머지 식구들은 아무도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걸 모르고 있어. 빌은 엄마에게 자기랑 플뢰르는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크리스마스에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 너도 알다시피,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잖아. 플뢰르 역시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 그녀가 셀레스티나 와베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희도 알지?”

론은 버로우를 등지고 돌아섰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로 앞장서서 걸어가며 말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보자”

그들은 몇 시간을 걸어갔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고집에 못이겨 투명 망토로 몸을 숨겨야만 했다. 그 낮은 언덕들에는 작은 오두막집 한 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 오두막집 역시 마치 버려진 듯 했다.

“너희 생각에 이게 그들의 집인 것 같니? 크리스마스라 어딜 간 걸까?”

헤르미온느가 유리창 너머로, 창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는 작고 깨끗한 부엌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론은 콧방귀를 꾸었다.

“이봐, 난 네가 러브굿네 집을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면 누가 거기 사는지 딱 알아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만 다른 언덕으로 가 보자.”

그리하여 그들은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순간이동을 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세 사람의 머리칼과 옷을 마구 날렸다. 그때 론이 소리쳤다.

“아하!”

론은 그들이 순간이동으로 도착한 언덕의 꼭대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집 한채가 하늘을 향해 곧장 솟아 있었다. 커다랗고 검은 원기둥이 오후의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고, 그 뒤에는 희미한 달이 걸려 있었다.

“저건 루나의 집이 분명해. 저런 곳에 달리 누가 살겠어? 꼭 거대한 루크 같군!”

“내 눈엔 전혀 새(‘루크[rook]’는 체스에서 성 모양을 한 말을 가리키지만 ‘까마귀’란 뜻도 있음:역주)처럼 보이지 않는 걸.”

탑을 향해 얼굴을 찌푸리며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난 체스의 루크를 말한거야.”

론이 대꾸했다.

“너한테는 성 모양이라고 해야 알아듣겠군.”

다리가 가장 긴 론이 언덕 꼭대기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이면서 쿡쿡 쑤시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간신히 그를 따라잡았을때, 론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고 있었다.

“러브굿네 집이야”

론이 말했다.

손으로 직접 쓴 세 개의 표지만이 다 부서진 대문에 붙어 있었다.

첫 번째는,

<이러쿵 저러쿵>의 편집자, x 러브굿.

두 번째는,

겨우살이를 깍어 가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날아다니는 자두에 접근하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이 대문을 밀자, 끼익 소리가 났다. 현관문까지 이어진 꼬불꼬불한 오솔길은, 루나가 이따금 귀걸이로 달고 다녔던 순무 모양의 주홍색 열매로 뒤덮인 덤불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묘한 식물들이 잔뜩 우거져 있었다. 해리는 스네어갈러프를 발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들어 빠진 그루터기를 얼른 피해 갔다. 또한 바람에 휘어진 오래된 야생 능금나무 두 그루가 현관문 양편에 보초처럼 서 있었는데, 비록 잎사귀는 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딸기만 한 붉은 열매가 달려있었고, 하얀 구슬 같은 열매가 달린 겨우살이가 화관처럼 둘러져 있었다. 약간 납작하고 매 같은 머리를 한 조그만 부엉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투명 망토를 벗는게 좋겠어. 해리. 러브굿 씨가 돋고 싶어하는 건 바로 너지, 우리가 아니니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는 그 말대로 했다. 그리고 구슬 백에 집어놓도록 망토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이윽고 헤르미온느가 육중한 검은 문을 세번 두드렸다. 문에는 장식 쇠못이 박혀 있었고, 독수리 모양의 문 두드리는 고리쇠가 달려 있었다.

10초도 지나지 않아 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 제노필리우스 러브굿이 지저분한 잠옷처럼 보이는 것을 입고 맨발로 서 있었다. 하얀 솜사탕 같은 그의 긴 머리는 더럽고 마구 엉클어져 있었다. 이에 비하면 빌과 플뢰르의 결혼식에서는 그나마 말쑥한 차림이었던 것이 분명했다.

“뭐야? 뭐냐고! 너희는 누구냐? 무슨 일이냐?”

제노필리우스가 처음에는 헤르미온느를, 그 다음에는 론을 바라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성마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마침내 시선이 해리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입이 우스꽝스럽게 딱 벌어지면서 완변한 0 자를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러브굿씨?”

해리가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다.

“전 해리입니다. 해리 포터.”

비록 제노필리우스의 두 눈 중에서 사팔이 아닌 정상인 쪽이 해리의 이마 위에 난 흉터로 곧장 향하긴 했지만, 그는 해리의 손을 잡지 않았다.

“좀 들어가도 될까요?”

해리가 물었다.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그게 현명한 일인지는 모르겠구나.”

제노필리우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러더니 침을 꿀꺽 삼키고 정원을 잽싸게 들러보았다.

“이거 좀 놀라운 일이라..... 내 말은..... 나..... 난 미안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해리가 미적지근한 환영에 조금 실망하면서 말했다.

“난..... 오오, 그래. 그러면 좋다. 들어오너라. 어서, 어서!”

제노필리우스는 그들이 문지방을 넘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문을 쾅 닫았다. 그들은 이제껏 해리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기묘한 부엌 안에 서 있었다. 방은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어서, 마치 거대한 후추 병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벽난로, 싱크대, 찬장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벽면에 꼭 맞도록 둥글게 휘어 있었고, 사방에는 꽃과 곤충, 새 등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그려져 있었다. 해리는 제노필리우스가 루나의 취향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 효과가 조금 감당하기 버거웠다.

마루 한 복판에는 세공한 철제 나선형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달가닥거리는 소리와 쿵쾅거리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려왔다.

해리는 루나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올라오게.”

제노필리우스가 여전히 극히 불편한 표정으로 길을 안내했다.

위층은 거실과 작업실을 합쳐놓은 곳 처럼 보였는데, 부엌보다도 훨씬 더 어수선했다. 이 방이 훨씬 더 작고 동그만 모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수세기에 걸쳐 감춰 놓은 물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로 변했던, 그 잊을 수 없는 그때의 필요의 방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사방에 발 디딜 틈 없이 책들과 서류 더미가 험첨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해리는 뭔지 알아볼 수 없는 정교하게 제작된 생물 모형들이 저마다 날개를 파닥거리거나 턱을 딱딱거리며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루나는 그곳에 없었다. 엄청난 소란을 피우고 있던 것은 마법으로 돌아가는 텁니바퀴가 가득 달린 나무로 된 물체였다. 그것은 작업대와 낡은 선반이 날은 요상한 후예처럼 보였는데, 잠시 후에 해리는 그 물건이 <이러쿵 저러쿵>을 잇달아 찍어 내고 있는 걸로 이루어 보아 구식 인쇄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잠깐 실례하겠네.”

제노필리우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기계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수북이 쌓인 책과 서류 더미 아래에서 더러운 식탁보를 잡아 뺏다. 그러자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모조리 바닥으로 널브러졌다. 그가 식탁보를 인쇄기 위에 엎어씌우자, 시끄러운 철컥거림과 쿵쾅 소리가 다소 가라앉았다. 제노필리우스는 해리를 바라보았다.

“여기에 왜 온건가?”

하지만 해리가 말도 꺼내기 전에, 헤르미온느가 깜짝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질렀다.

“러브굿 씨..... 저게 뭐죠?”

그녀는 유니콘의 뿔과 비슷한, 회색의 거대한 나선형 뿔을 가리켰다. 그것은 방  
안쪽으로 돌출 된 채, 벽에 붙어있었다.

“저건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의 뿔이라네.”

제노필리우스가 말했다.

“아니에요!”

헤르미온느가 받아쳤다.

“헤르미온느”

해리가 당황해서 말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하지만 해리. 저건 에럼펀트 뿔이라고! B 등급 거래 금지 품목인 데다가,  
집에 두기엔 너무 위험한 거란 말이야!”

“저게 에럼펀트 뿔이란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룬이 안 그래도 시끄러운 방에 요란한 소음을 더하며 최대한 빨리 그 뿔에서  
비켜서면서 물었다.

“<신비한 동물 사전>에 설명이 나와 있어! 러브굿 씨, 당장 저걸 치워야 해요.  
저건 아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세요?”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는 수줍음이 많은, 고귀한 마법생물이지. 그  
뿔은.....”

제노필리우스가 얼굴에 고집스러운 표정을 띠고는 또박또박 말했다.

“러브굿 씨. 저 아래쪽 둘레에 흙이 패어 있단 말이에요. 저건 에럼펀트  
뿔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위험해요. 저걸,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샀다.”

제노필리우스가 독단적인 태도로 말했다.

“두 주 전에, 고상한 스놀랙스에 대한 나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어느 유쾌한  
젊은 마법사에게서 샀지. 루나를 위한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이야. 자.....”  
해리 쪽을 돌아보며, 그가 물었다.

“정확히 여기에 온 이유가 뭔가, 포터군?”

“저희는 도움이 필요해요.”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다시 달려들기 전에 재빨리 입을 열었다.

“아.....”

제노필리우스가 말했다.

“도움이라....흐....”

그의 성한 쪽 눈이 다시 해리의 흉터를 향해 움직였다. 그는 겁에 질리면서도  
매혹된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그게 말이지.....해리 포터를 돋는다는 게..... 좀 위험한  
일이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리 포터를 돋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의무라고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저씨 아닌가요? 아저씨의 잡지가 아니던가요?”  
룬이 떠져 물었다.

제노필리우스는 식탁보 아래에서 여전히 쿵쾅대며 철컥거리고 있는 인쇄기를  
돌아보았다.

“어.....그래. 나는 그러한 견해를 표명했지.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저씨가 몸소 할 일은  
아니라는 거군요?”

룬이 비꼬았다.

제노필리우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세 사람을 쏘아보며 계속해서  
마른침을 삼키고 있었다. 해리는 웬지 그가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루나는 어디 있나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루나의 생각을 들어 보죠.”

제노필리우스가 침을 끌꺽 삼켰다.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 듯 했다. 마침내 그는 인쇄기 소음에 묻혀 알아듣기 힘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루나는 지금 낫가에 내려가 있단다. 민물 플림피를 낚으러 갔지.....그.....그애도 너희를 보고 싶어 할 게다. 내가 그애를 부르러 갔다 오마. 그리고 나서.....좋다. 내가 너를 도와주도록 애써 보지.”

제노필리우스는 나선형 계단 아래로 사라졌고, 그들은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겁쟁이 영감탱이 같으니, 루나가 열배는 더 배짱이 좋겠다.”  
론이 빙정댔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해리가 말했다.

“실은 나도 혼이랑 동감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는 꿈쩍스러운 늙은 위선자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를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슬슬 꽁무니를 빼려고 들잖아.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저 뿔에서 멀리 떨어져.”

해리는 방 저쪽 편에 있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반짝이는 가느다란 리본 같은 시냇물이 저 아래쪽 멀리 언덕 기슭까지 뻗어 있었다. 그들은 아주 높은 곳에 있었다. 해리가 이제는 다른 언덕 너머에 있어 보이지 않는 버로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새 한 마리가 퍼덕이며 창문을 지나쳤다. 저 너머 어딘가에 지니가 있었다. 빌과 플뢰르의 결혼식 이후로, 그와 지니가 오늘만큼 가까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니는, 해리가 그녀를 생각하며 그녀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해리는 차라리 그 사실에 기뻐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제노필리우스의 태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등지고 돌아섰다. 순간 그의 시선이 어수선한 둥근 찬장 위에 서 있는 또 하나의 기묘한 물건에 달았다. 그것은 몹시 괴상하게 생긴 머리장식을 한, 아름답지만 엄격해 보이는 마녀의 돌 흉상이었다. 머리장식의 양옆으로 금빛 나팔형 보청기처럼 생긴 물체 두개가 튀어나와 있었다. 마녀의 정수리에 둘러진 가죽 머리띠에는 반짝이는 자그마한 파란 날개 한 쌍이 붙어 있었고, 이마에 둘러진 또 다른 띠에는 주홍색 순무 한개가 붙어 있었다.

“이것 봐.”

해리가 말했다.

“끝내 주네.”

론이 말했다.

“그가 결혼식 날 저걸 하지 않고 나타났다니, 놀라운걸.”

이윽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제노필리우스가 나선형 계단을 지나 방으로 돌아왔는데, 앙상한 다리에는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찻잔들과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찻주전자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아, 자네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발명품을 발견했군.”

그는 헤르미온느의 품에 쟁반을 떠밀다시피 안기고서, 동상옆에 서 있는 해리에게 다가갔다.

“아름다운 로웨나 래번클로의 머리에 딱 맞게 만들었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지혜는 인간의 가장 큰 보물이다!’”

그는 나팔형 보청기 같은 물체들을 가리켰다.

“이것들은 렉스퍼트 빨대라네. 생각하는 사람의 당면한 영역에서부터 온갖 잡념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지. 여기 이건.....”

그는 작은 날개들을 가리켰다.

“빌리위그(사파이어 색의 벨레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신비한 동물 사전>참조:역주)의 날개라네, 고양된 정신 상태를 불러일으켜 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주홍색 순무를 가리켰다.

“날아다니는 자두는 비범한 것들을 수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지”  
제노필리우스는 차 쟁반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돌아갔다.

헤르미온느는 용케도 그 쟁반을 어수선한 보조 탁자위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춰 올려놓았던 것이다.

“내가 자네들에게 거디루트 우려낸 차를 한 잔 대접해도 되겠나?”  
제노필리우스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든 거라네.”

그는 비트 뿌리 주스처럼 짙은 자주색 음료를 따르며 덧붙였다.

“루나는 바텀 다리 너머 저 밑에 있어. 너희가 왔다니까 아주 신이 났더구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 애는 우리 모두가 먹을 수프를 만들기에도  
충분할 만큼의 플링피를 거의 낚았더구나. 자리에 앉고, 설탕도 넣게나.”

“자, 이제.”

그는 안락의자에서 쓰러질 듯이 흔들거리는 서류 더미를 치우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은 다리를 꼬았다.

“어떻게 도와 드릴까, 포터 군?”

“그러니까.....”

해리는 말을 시작하며 헤르미온느를 슬쩍 곁눈질했다.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빌과 플로르의 결혼식 때 목에 걸고 오셨던 그 상징에 대한 겁니다.  
려브굿 씨. 우리는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노필리우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네 지금 죽음의 성물의 상징을 말하는 건가?”

## 제 21 장 삼 형제 이야기.

해리는 고개를 돌려 론과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제노필리우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죽음의 성물이라고요?”

“그렇다네.”

제노필리우스가 말을 이었다.

“자네들은 한 번도 그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인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군. 아주, 아주 극소수의 마법사만이 그걸 믿고 있으니까. 자네 형의  
결혼식에 왔던 그 돌대가리 짚은 녀석이 그 증거지.”

그는 론을 향해 고개를 까닥했다.

“그 애송이는 내가 널리 알려진 어둠의 마법사의 상징을 자랑삼아 달고  
다닌다고 날 비난했었지! 그 무식함이라니. 이 성물은 어둠의 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적어도 원래 의미에 있어서는 말이야. 다만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 상징을 사용하는 것  
뿐이지. 혹시 성물을 찾아 원정 중인 자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이지.”

제노필리우스는 거디루트 차에 각설탕 대여섯 개를 넣고 휘젓더니 꿀꺽  
들이켰다.

“죄송한데요. 전혀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해리가 말했다. 그러고는 예의상 찻잔을 들어서 한 모금 마셨다가 토했을 뻔 했다.  
그건 마치 코딱지 맛 강낭콩 젤리를 녹여 놓은 것처럼 역겹기 짹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성물을 찾아다닌다는 말일세.”

제노필리우스는 거디루트 차의 맛을 음미하는 듯 쪽쪽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죽음의 성물이라는게 뭐죠?”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제노필리우스는 다 마신 잔을 옆으로 내려놓았다.

“물론 ‘삼 형제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있지?”

해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론과 헤르미온느는 동시에 ‘네’라고  
말했다. 제노필리우스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이런, 포터군. 이 모든 건 바로 ‘삼 형제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되었지……여기 어딘가 책이 한 권 있을 텐데……”  
제노필리우스는 막연하게 양피지와 책 더미가 쌓여있는 방안을 훨씬 둘러보았다.  
그러자 헤르미온느가 얼른 나섰다.

“제게 한 권 있어요. 바로 여기 갖고 왔어요.”  
헤르미온느는 조그만 구슬 백에서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원본이로군?”  
제노필리우스가 날카롭게 물었다.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했다.  
“이런, 그렇다면 아가씨가 이걸 큰 소리로 읽어 주지 않겠나? 우리 모두가 확실히 이해하는 데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야.”

“어……좋아요.”  
헤르미온느가 다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책을 펼쳤다. 해리는 페이지의 꼭대기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바로 그 상징이 찍혀 있는 걸 보았다.  
헤르미온느는 조그맣게 헛기침을 하더니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 삼 형제가 해 질 녘에 으슥한 꼬부랑길을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한밤중’이라고 하셨는데.”

몸을 쭉 뻗고 팔을 머리 뒤로 하여 깍지를 낀 채 이야기를 듣고 있던 론이

말참견을 했다. 헤르미온느는 짜증스런 표정으로 그를 째려보았다.

“미안, 난 그저 한밤중인 게 더 무시무시할 것 같아서 그런거야!”

론이 변명했다.

“그래, 참 잘했구나. 정말이지 지금 우리 생활에서 부족한 게 공포심이니까 말이야.”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농담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제노필리우스는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창문 밖으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계속해, 헤르미온느.”  
“‘이윽고 형제들은 어느 강가에 도달했습니다. 강은 너무 깊어서 걸어서 건너갈 수도 없었고, 너무 위험해서 헤엄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은 마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볍게 지팡이를 흔들자, 사나운 강물 위로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반쯤 건넜을 때, 두건을 쓴 어떤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죽음이 말을 걸었다고?”

해리가 끼어들었다.

“이건 동화야. 해리!”

“그렇지. 미안해. 계속해.”  
“‘죽음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죽음은 세 명의 새로운 희생자들이 용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여행자들은 대개 이 강에 빠져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대단히 교활했습니다. 그는 세 형제의 마법을 칭찬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피해 갈 만큼 영리했으니, 그들 각자에게 상을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유달리 경쟁심이 강했던 첫째는 이 세상 어떤 지팡이보다도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닌 지팡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투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지팡이, 죽음을 정복한 마법사에게 어울릴 만한 지팡이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강둑에서 있는 딱총나무로 다가가서 늘어진 가지를 꺾어 지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째에게 주었습니다.

한편 거만하기 짝이 없는 둘째는 죽음에게 더 큰 굴욕감을 안겨 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죽음은 강둑에 있는 돌맹이 하나를 집어서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죽은 자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죽음은 막내인 셋째에게 그대는 뭘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막내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또한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게 추적을 당하지 않고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몹시 마지못해하면서, 자신의 투명 망토를 넘겨주었습니다. ‘

“죽음이 투명 망토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해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몰래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야.”

론이 얼른 말을 받았다.

“가끔 소맷자락을 펄럭이고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달려드는게

지루해지면....미안, 헤르미온느”

“‘그런 다음 죽음은 옆으로 비켜서서 삼 형제가 길을 계속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겪은 이 놀라운 모험과 신기한 죽음의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 길을 갔습니다. 머지않아 세 형제는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헤어졌습니다.

첫째는 일주일 이상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먼 마을에 도착하자 결투를 할 마법사를 찾았습니다. 딱총나무 지팡이를 지닌 그는 당연히 결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목숨을 잃고 마루에 쓰러진 적을 남겨 둔 채, 첫째는 어느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자신이 죽음에게서 빼앗은 강력한 지팡이를 자랑하며, 천하무적이 되었노라고 떠들어 댔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또 다른 마법사가 술에 흠뻑 취해서 침대에 끌어떨어진 첫째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 도둑은 지팡이를 훔친 다음, 첫째의 목을 깊숙이 베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첫째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둘째는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은자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돌을 꺼내어 손안에서 세 번 돌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고 기쁘게도, 예전에 그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때 이른 죽음을 맞았던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 보이고 차가웠으며, 베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비록 산 자들의 세계로 돌아왔지만, 진정으로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침내 둘째는 채울수 없는 갈망에 미쳐서, 진정으로 그녀와 하나가 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둘째를 차지했습니다.

죽음은 몇 해 동안이나 셋째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을때, 셋째는 비로소 투명 망토를 벗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죽음을 오랜 친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음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나란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

헤르미온느가 책을 덮었다. 제노필리우스는 조금 지나서야 그녀가 책을 다 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는 창문에서 시선을 떼더니 입을 열었다.

“그래, 그렇게 된 거지.”

“뭐라고요?”

헤르미온느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것들이 바로 죽음의 성물이란 말이야.”

제노필리우스가 설명했다. 그러고는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 잔뜩 쌓인 탁자에서 깃펜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책들 사이에서 쫓어진 양피지 조각을 잡아당겼다.

“딱총나무 지팡이.”

그는 양피지 위에 직선 하나를 수직으로 그렸다.

“부활의 돌”

그는 그 선의 중간을 지나는 원을 그려 넣었다.

“투명 망토”

마지막으로 직선과 원을 에워싸는 삼각형을 그렸다. 그러자 그토록 헤르미온느의 호기심을 끌었던 그 상징이 완성되었다.

“이 모두를 합해서 죽음의 성물이라고 하지.”

제노필리우스가 말을 맺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죽음의 성물’ 이란 말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물론 안 나오지.”

제노필리우스가 입술스러울 정도로 점잔을 빼며 대답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란다. 교훈을 주기보다는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지. 하지만 이 문제를 이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옛날이야기가 바로 그 세가지 물건, 즉 성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린다고. 그 세 가지 성물이 합쳐지게 되면 그 소유자는 죽음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제노필리우스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태양은 이미 낮게 기울어 있었다.

“루나가 어서 플림피를 넉넉히 잡아와야 할텐데.”

제노필리우스가 중얼거렸다.

“‘죽음의 지배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룬이 다시 말을 꺼냈다.

“지배자지”

제노필리우스가 가볍게 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정복자, 승리자. 뭐든 자네를 마음대로 부르게나.”

“그렇다면.....”

헤르미온느가 머뭇거렸다. 해리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말투로 들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그러니까 성물이 진짜로 있다고 믿으세요?”

제노필리우스는 다시 눈썹을 치켜세웠다.

“당연하지.”

“하지만....”

헤르미온느 다시 입을 열었다. 해리는 그녀의 자제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믿으실 수가....?”

“젊은 아가씨, 난 루나에게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들었어.”

제노필리우스가 말했다.

“아가씨는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답답할 만큼 꽉 막혔군. 편협하고 생각이 좁아.”

“헤르미온느, 어쩌면 넌 저 머리장식을 한번 써 봄야겠는걸.”

룬이 우스꽝스런 머리장식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러브굿 씨.”

헤르미온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투명 망토 같은 물건이 있다는 건 우리도 다 알아요. 극히 드물지만 있긴 있죠. 하지만...”

“아, 하지만 세 번째 성물은 진짜 투명 망토일세. 그레인저양!. 그러니까 투영 마법이나 현혹 주문에 걸린 여행용 망토라든가. 데미가이즈(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초식동물.<신비한 동물 사전>참조:역주)의 털로 짠 망토따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몸을 숨겨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져서 나중에는 불투명하게 변해버리지. 하지만 우린 지금, 그걸 입으면 진짜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망토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어떤 주문을 쓰더라도 결코 깨뚫어 볼 수 없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그런 망토 말일세. 자네는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본적이 있나, 그레인저 양?”

헤르미온느는 뭔가 대답을 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얼굴의 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와 해리, 룬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해리는 그들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너무나 우연히도 제노필리우스가 방금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망토가 바로 그 순간 그 방 안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제노필리우스는 마치 합리적인 주장으로 그들 세 사람의 말문을 막아 버린듯이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자네들은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겠지. 아마 그 망토의 소유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일 걸세. 왜 안 그렇겠나?”

그는 다시 창밖을 힐끗 내려다 보았다. 하늘은 이제 희미한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좋아요”

헤르미온느가 약간 당황해서 말했다.

“투명 망토는 존재한다고 치죠. 하지만 그 돌은요? 소위 부활의 돌이라고 부르는 그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실제로 있을 수 있죠?”

“그럼 없다는 걸 증명해 보게나.”

헤르미온느가 발끈했다.

“하지만 그런 대답은.....죄송해요. 하지만 그런 대답은 정말이지 완전 엉터리에요! 제가 어떻게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저더러 세상의 모든 돌멩이를 가져다가 하나씩 실험이라도 해 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아무도 그게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게 유일한 믿음의 근거일 때, 어떤 것이든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로군요!”

“그래, 그렇지.”

제노필리우스가 말했다.

“자네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 가는 걸 보니 흐뭇하군”

“그렇다면 그 딱총나무 지팡이 말인데요.”

헤르미온느가 다시 반격을 시작하기 전에, 해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 지팡이도 진짜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 그 지팡이의 경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지.”

제노필리우스가 말했다.

“딱총나무 지팡이는 가장 쉽게 추적이 되는 성물이거든. 그 지팡이가 손에서 손으로 전혀지는 방식 때문에 그렇지.”

“그 방식이 원데요?”

해리가 물었다.

“그 방식이란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전 소유자로부터 그걸 빼앗아야만 한다는 거야.”

제노필리우스가 말했다.

“사악한 자 에머릭을 죽인 후에, 그 지팡이가 어떻게 악명 높은자 에그베르트의 손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들어 본 적이 있겠지? 고데롯이 어떻게 아들 히어워드에게 지팡이를 빼앗긴 후에 바로 자신의 지하실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무시무시한 로지어스가 바르나바 데버릴을 죽이고 지팡이를 빼앗았단 이야기도? 딱총나무 지팡이의 피비린내 나는 자취는 마법 역사의 곳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힐끗 곁눈질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노필리우스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럼 지금은 그 딱총나무 지팡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론이 물었다.

“유감스럽지만, 그걸 누가 알겠니?”

제노필리우스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딱총나무 지팡이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느 누가 알겠느냐? 그 훈적은 아르쿠스와 리비우스에서 끝나 버렸어. 그들 중에서 어느 쪽이 진짜로 로지어스를 이기고 그 지팡이를 가져갔는지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이긴 사람이 누군지 또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이냐? 아, 안타깝게도 역사는 말이 없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딱딱한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러브굿 씨, 피브렐 가문은 죽음의 성물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건가요?”

순간 제노필리우스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해리 역시 기억 속에서  
뭔가가 떠올랐다. 하지만 도무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피브렐...전에 그 이름을 들었는데.....

“이제 보니 날 계속 속여 왔군. 젊은 아가씨!”

제노필리우스는 의자에서 몸을 좀 더 꽂꽂이 일으켜 세우더니, 눈을 크게 뜨고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며 말했다.

“난 자네들이 성물 원정에 대해 완전 초짜들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원정자들  
중 많은 이들은 피브렐 가문이 그 모든 걸 갖고 있다고 믿지. 그 성물과 관계된  
모든 걸 말이야! 모두다!”

“피브렐 가문이 누구지?”

론이 물었다.

“고드릭 골짜기에서 저 상징이 새겨진 무덤에 그 이름이 있었어.”

헤르미온느가 여전히 제노필리우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채 설명했다.

“이그노투스 피브렐.”

“바로 그거야!”

제노필리우스가 아는 척하며 집게 손가락을 들어올렸다.

“이그노투스의 무덤 위에 새겨진 죽음의 성물의 상징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뭐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론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삼형제는 사실상 피브렐 삼형제였던 거야.

안티오크, 카드모스, 그리고 이그노투스 말이야! 그들이 그 성물의 최초  
소유자들이었던 거야!”

제노필리우스는 또다시 창밖을 살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쟁반을  
집어 들더니 나선형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자네들은 저녁 식사 때까지 있을 건가?”

제노필리우스가 또다시 아래층 계단으로 모습을 감추며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민물 플립피 수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며 우리 집  
요리법을 묻는단 말이야.”

“아마 성 뭉고 병원의 마법약 부서에 보여 주려고 그랬을걸.”

론이 안들리게 소곤거렸다.

해리는 제노필리우스가 아래층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 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네 생각은 어때?”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오, 해리!”

헤르미온느가 피곤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순전히 헛소리일 뿐이야. 그 상징이 정말로 그런 뜻일리가 없어. 러브굿  
씨가 그 상징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한게 분명해. 완전 시간 낭비라고.”

“우리에게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를 가져다준 사람이 바로 러브굿 씨 아니었어?”

론이 빙정거렸다.

“그럼 너도 이 말을 안 믿는 거니?”

해리가 론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그 이야기는 그냥 아이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들려주는  
것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안 그래? ‘말썽거리를 찾아다니지 마라.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인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괜한 문제를  
일으키지마라.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네 일에나 신경 써라. 그럼 무사할  
것이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

론이 한마디 덧붙였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왜 딱총나무 지팡이들이 불길한 것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설명인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술한 미신들 중에 하나잖아, 안 그래? 5 월에 태어난 마녀는 머글과 결혼한다. 해 질 녘에 건 주문은 자정에 풀린다. 딱총나무 지팡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너도 그런 말들을 들어 봤을 텐데. 우리 엄마는 그런 미신을 환히 꿰고 있어.”

“해리와 나는 머글들 틈에서 자랐잖아.”

헤르미온느가 다시 한 번 론을 일깨워 주었다.

“우린 전혀 다른 미신들을 배우고 자랐어.”

그때 부엌 쪽에서 상당히 매운 냄새가 풍겨 나오자. 헤르미온느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제노필리우스에 대해 단단히 짜증이 나는 바람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론에게 화를 내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야. 어떤 선물이 가장 훌륭한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하잖아.”

동시에 세 사람의 입에서 대답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투명망토’라고 대답한 사람은 헤르미온느, ‘지팡이’는 론, 그리고 ‘돌’은 해리였다.

세사람은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다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당연히 너는 투명 망토라고 말할 줄 알았어.”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하지만 만약 지팡이가 있다면 굳이 투명 망토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건 무적의 지팡이란 말이야, 헤르미온느!”

“개다가 우리에겐 이미 투명 망토가 있잖아”

해리가 한 마디 거들었다.

“혹시 너희가 모를까 봐 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데!”

헤르미온느가 쏘아붙였다.

“반면 그 지팡이는 말썽만 불러일으킬 게 뻔해.”

“그건 그 지팡이에 대해서 마구 나발을 불고 다녔을 경우에만 그렇지.”

론이 지지 않고 반박했다.

“그건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천하의 명청이라서 그걸 머리위로 휘두르면서 사방팔방 설치고 다녔을 때에나 그런거야! ‘난 무적의 지팡이를 갖고 잇지롱. 어디 자신있으면 이리와 한번 덤벼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입만 꼭 다물고 있으면.....”

“맞아, 하지만 과연 네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

헤르미온느가 몹시 의심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러브굿 씨가 우리에게 말해 준 단 한가지 진실은, 지난 수 백년 동안 초강력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는 것 뿐이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해리가 물었다.

그러자 헤르미온느는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사랑스러울 만큼 친숙하게 느껴지던지, 해리와 론은 서로 마주 보며 씩 웃었다.

“그것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죽음의 지팡이니 운명의 지팡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출현하곤 했어. 대개는 그런 지팡이를 가졌다고 허풍을 떠는 어둠의 마법사가 소유한 것들이었지. 빈스 교수님이 그런 지팡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 그런 전부 말도 안되는 소리야. 지팡이는 오직 그걸 사용하는 마법사의 능력만큼의 힘만 발휘하게 되어 있다고. 그저 일부 마법사들이 자기 지팡이가 다른 사람들 것 보다 더 크다느니, 더 훌륭하다느니 하고 허풍 치길 좋아하는 거라고.”

“하지만 네가 어떻게 알아?”

해리가 말했다.

“이 지팡이들, 그러니까 죽음의 지팡이나 운명의 지팡이 같은 것들이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라고 말이야. 다른 이름을 가지고 몇 세기 동안 등장한 게 아닐까?”

“원라고? 그럼 그게 전부 다 죽음이 만든 딱총나무 지팡이란 말이야?”

론이 말했다.

그때 해리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렸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너무 황당했던 것이다. 볼드모트가 하늘을 가로질러 그를 추격해 왔던 그날 밤에 그의 지팡이가 뭘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은 딱총나무가 아니라 서양호랑가시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은 올리밴더였다. 해리는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웠다. 게다가 만약 그것이 무적의 지팡이였다면, 어떻게 부러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넌 왜 돌을 선택한거야?”

론이 해리에게 물었다.

“어, 그러니까, 만약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면, 시리우스랑.....매드아이랑.....덤블도어 교수님.....우리 부모님도 불러올 수 있잖아....”

이번에는 론도 헤르미온느도 웃지 않았다.

“하지만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다시 불려 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안 그래?”

해리는 방금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죽은 자들을 되살릴 수 있는 돌에 관해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 그래?”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맞아.”

헤르미온느가 유감스러운 듯이 대답했다.

“러브굿 씨 이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게 가능하다는 망상에 빠지진 않을거야. 비들은 아마 마법사의 돌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같아. 너희도 알다시피, 영생을 주는 돌 대신 죽음을 되돌리는 돌이라고 바꿔서”

부엌에서 풍기는 냄새가 점점 더 지독해지고 있었다. 마치 팬티라도 태우고 있는 듯한 냄새였다. 해리는 제노필리우스가 무슨 요리를 해 오든, 과연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만큼 먹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투명 망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건데?”

론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도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잖아? 나는 해리의 투명 망토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훌륭한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한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질 않았어. 하지만 난 해리의 망토 같은 그런 물건 얘기는 평생 들어 본 적이 없어. 그건 절대 실패하지 않잖아. 그걸 쓰고 있을 때 우린 결코 눈에 띠는 적이 없.....”

“당연히 없지. 우리가 그걸 쓰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되니까 말이야. 론!”

“하지만 러브굿 씨가 다른 망토들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은 말이야.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사실이야! 지금까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언젠가 오래되면 마법이 사라지는 망토라든가, 주문에 맞아 찢어져서 구멍이 난 망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 해리의 투명 망토는 원래 해리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꼭 새것은 아니잖아.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완벽해!”

“그래, 좋아. 하지만, 론. 그 돌은.....”

두 사람이 소곤거리며 아웅다웅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해리는 건성으로 그 말을 흘려들으며 방 안을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선형 계단 앞에 이르렀을 때, 무심코 눈을 들어 위층을 올려다보고는 당장 눈길을 빼앗기고 말았다. 바로 그의 얼굴이 그 방 천장에서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 동안 어리둥절하던 해리는 그것이 거울이 아니라 그림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호기심에 이끌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리, 너 뭐하는 거야? 러브굿 씨가 여기 안 계신데, 그렇게 마구 돌아다니면 안되잖아!”

하지만 해리는 이미 위층에 올라가 버렸다.

루나는 다섯 명의 얼굴을 멋지게 그려서 침실 천장을 장식해 놓고 있었다. 바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지니 그리고 네빌의 얼굴이었다. 그것들은 호그와트의 초상화들이 움직이듯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마법에 걸려 있었다. 해리는 그 그림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들의

둘레에는 마치 황금 사슬처럼 보이는 것이 빙 둘러져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1분정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슬들은 사실상 황금색 잉크로 한 단어를 수천 번 되풀이해서 써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친구들...친구들.....친구들.....

해리는 불현듯 루나에 대한 애정이 활짝 치솟는 걸 느꼈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에는 어린 루나와, 그녀와 무척이나 닮은 한 부인을 찍은 커다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꼭 껴안고 있었다. 사진 속의 루나는, 해리가 지금까지 보아 왔던 루나의 그 어떤 모습보다 훨씬 더 매무새가 단정해 보였다. 사진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걸 보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해리는 주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았다.

뭔가가 이상했다. 연한 푸른색 카펫 역시 두껍게 먼지가 앉아 있었고, 문이 조금 열려 있는 옷장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마치 지난 몇 주일 동안 아무도 자지 않은 듯, 차갑고 냉랭해 보였다. 제일 가까운 창문에는, 피처럼 붉은 하늘을 가로질러 거미줄 하나가 길게 매달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해리가 계단을 내려오자,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하지만 그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제노필리우스가 부엌에서 나와 계단 위로 올라왔다. 그는 두 손에 그릇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러브굿 씨. 루나는 어디 있죠?”

해리가 물었다.

“뭐라고?”

“루나는 어디 있어요?”

제노필리우스는 계단 꼭대기에 우뚝 멈춰 섰다.

“버.....벌써 말했잖니. 루나는 플림피를 잡으려 바كم 다리에 갔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째서 그 쟁반에는 네 사람분의 식사만 가져오셨죠?”

제노필리우스는 대답을 하려고 애를 썻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끊임없이 찰칵거리는 인쇄기 소리와 덜덜 떨리는 제노필리우스의 손에 들린 쟁반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제 생각에 루나는 몇 주 동안 계속 여기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해리가 말했다.

“루나의 옷가지도 없고, 침대에는 아무도 잠을 잔 흔적이 없어요. 루나는 어디 있죠? 왜 자꾸 창밖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제노필리우스가 그만 쟁반을 떨어뜨렸다. 그릇들이 부딪히면서 와�장창 깨져 버렸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지팡이를 뽑아 들었다.

제노필리우스는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에 인쇄기가 꽝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러쿵 저러쿵>이 식탁보 밑에서 나와 마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윽고 인쇄기는 조용해졌다.

헤르미온느가 여전히 지팡이로 제노필리우스를 겨냥한 채, 허리를 숙여서 잠지 한 부를 집어 들었다.

“해리, 이것 좀 봐.”

해리가 그 어수선한 난장판 속을 헤치며, 최대한 빨리 헤르미온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이러쿵 저러쿵>의 1면에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기피대상자 1호’라는 제목과 함께 포상금이 적혀 있었다.

“<이러쿵 저러쿵>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나 보군요?”

해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러브굿 씨, 아까 정원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나요?  
마법부로 부엉이를 보내는 일?”

제노필리우스가 초조하게 입술을 훑었다.

“그자들이 우리 루나를 데려갔어”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쓰고 있는 기사를 때문이야. 그자들이 우리 루나를 데려갔고. 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자들이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자들이 루나를 돌려줄지도 몰라. 만약 내가.....내가.....”

“해리를 넘겨준다면 말이죠?”

헤르미온느가 대신 말을 끝내 주었다.

“그건 안 되지. 어서 비켜요. 우린 떠날 거예요.”

론이 냉담하게 말했다.

제노필리우스는 완전히 얼이 빠진 표정이었다. 갑자기 백 살은 되어 보였다. 그는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무시무시한 눈초리를 했다.

“조만간 그자들이 여기로 올거야. 난 반드시 루나를 구해야 만 해. 루나를 잃을 수는 없어. 너희는 절대 못 떠나.”

제노필리우스는 두 팔을 벌리고서 계단을 막아섰다. 해리는 갑자기 아기 침대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저씨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서 비켜 주세요.”

해리가 말했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다.

빗자루를 탄 사람 몇 명이 창문 앞을 횡 지나갔다. 그들 세 사람이 잠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제노필리우스가 지팡이를 뽑았다. 하지만 때마침 해리가 자신들의 실수를 알아차렸다. 그가 헤르미온느와 론을 사정거리 밖으로 밀쳐 내면서 옆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제노필리우스의 기절 마법이 방안을 가로질러 날아오더니 에럼펀트의 뿔을 맞혔다.

뒤이어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 소리만 들으면, 방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뭇조각과 종잇조각, 벽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와 더불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하얀 먼지구름들이 두껍게 일었다. 봉하고 허공으로 날아간 해리는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쳐졌다. 파편들이 두 팔로 머리를 감싼 그의 위로 비처럼 쏟아졌고, 해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헤르미온느의 비명소리와 론의 고함소리, 그리고 쿵 하는 기분나쁜 금속성의 충돌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해리는, 폭발로 날아간 제노필리우스가 나선형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걸 짐작했다.

해리는 잔해 더미에 반쯤 파묻힌 채,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 먼지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천장이 절반쯤 무너져 내리고, 루나의 침대 모서리가 뻥 뚫린 구멍 밖으로 걸쳐져 있었다. 얼굴 반쪽이 날아가 버린 로웨나 래번클로의 흉상이 해리 옆에서 나뒹굴고 있었고, 갈기갈기 찢긴 양피지 조각들이 공중에 휘날리고 있었다. 인쇄기는 옆으로 거의 쓰러진 채,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하얀 형상이 가까이다가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흉상처럼 뾰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헤르미온느가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래층 현관문이 우당탕 요란하게 열렸다.

“트래버스,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

거친 목소리가 말했다.

“이 미치광이가 평소처럼 그냥 헛소리를 지껄이는 거라고 말했잖아?”

이윽고 광 하는 소리와 함께, 제노필리우스가 고통에 웃이겨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아닙니다.....위총에 포터가.....”

“러브굿,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지. 아주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우린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지난주 기억나나? 그땐 네놈이 저 한심하고 끔찍한 머리장식과 네 딸년을 교환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바로 그 전주에는.....” 또다시 광 하는 소리에 뒤이어 깍깍거리는 비명 소리가 났다.

“네놈이 크럼플(광) 헤디드(광) 스놀액스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우리가 딸년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었지?”

“아니, 아닙니다.....제발 부탁입니다.”

제노필리우스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번에는 진짜 포터입니다. 정말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지 우릴 여기로 불러 놓고 한 방에 날려 버릴 수작이었다 이거지!”

죽음을 먹는 자가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불꽃이 일제히 발사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간간히 제노필리우스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셀윈, 이집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군”

냉정한 어조의 또 다른 목소리가 무너진 계단을 통해 들려왔다.

“계단이 완전히 막혀 버렸어. 저걸 치울 수 있을까? 어쩌면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겠는걸.”

“이 더러운 거짓말쟁이 놈아!”

셀윈이라고 불린 마법사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놈은 평생 한 번도 포터를 본적이 없지! 안그래? 우릴 이곳으로 유인해서 없애 버리려는 수작이었어! 이런 식으로 딸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맹세해요.....맹세합니다..... 포터가 위층에 있다니까요!”

“호메눔 레벨리오”

계단 밑에서 그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순간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놀라서 혁하고 숨을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뒤이어 원가가 내려와 와락 덮치더니 그의 몸이 그 그림자 속에 푹 잠기는 듯한 이상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셀위. 저위에 분명히 누군가 있긴 있어.”

도 다른 남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포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터라니까요!”

제노필리우스가 흐느꼈다.

“제발.....제발.....루나를 돌려주십시오. 제게 루나만 돌려주십시오....”

“러브굿, 네놈이 이 계단을 올라가서 해리 포터를 내 앞으로 끌고오기만 한다면, 네 어린 딸년을 돌려줄 수도 있지.”

셀윈이 말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어떤 음모거나 속임수라면, 저 위에서 공범이 우릴 기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그땐 네놈이 장례식이나 치를 수 있게 네 딸년의 일부를 남겨줄지 말지나 생각해 보겠어.”

그러자 제노필리우스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윽고 종종거리는 발소리와 원가 부스럭부스럭 치우는 소리가 들렸다. 제노필리우스가 계단에 쌓인 잔해더미를 헤치고 올라오려하고 있었다.

“이봐, 우린 여길 빠져나가야 해.”

해리가 속삭였다.

해리는 제노필리우스가 계단에서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틈을 타서 몸을 빼내기 시작했다. 론이 제일 깊이 파묻혀 있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가능한 조용하게 론이 파묻혀 있는 파편 더위미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육중한 서랍장을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썼다.

제노필리우스의 광 하는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동안, 헤르미온느는 공중부양 마법을 써서 론을 간신히 빼낼 수 있었다.

“좋아”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그때 계단 입구를 막고 있던 부서진 인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제노필리우스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 거리에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먼지를 뿐얗게 뒤집어쓰고 있었다.

“날 믿지, 해리?”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나에게 투명 망토를 줘.”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론, 네가 이걸 쓰도록 해.”

“내가? 하지만 해리가.....”

“어서, 론! 해리, 내손을 꼭 잡아. 론, 너는 내 어깨를 잡아.”

해리가 원손을 내밀었다. 론은 투명 망토 아래로 모습을 감추었다. 계단을 막고 있던 인쇄기가 덜덜 진동하고 있었다. 제노필리우스가 공중부양 마법을 써서 그걸 옮기려고 하는 것이다. 해리는 도대체 헤르미온느가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꼭 잡아.”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꼭 잡고 있어.....언제라도....”

찬장 위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제노필리우스의 얼굴이 나타났다.

“오블리비아테!”

헤르미온느가 먼저 그의 얼굴을 향해 지팡이를 겨우면서 소리쳤다. 그런 다음 그들 발밑의 마루로 지팡이를 돌렸다.

“데프리모!”

헤르미온느는 거실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돌덩이처럼 곧장 밑으로 떨어졌다. 해리는 여전히 죽음힘을 다해 헤르미온느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 밑에서 고함소리가 들렸다. 할짓 내려다보니, 두 남자가 부서진 천장에서부터 사방팔방으로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는 조각난 가구들과 잔해들을 피하려고 야단법석이었다. 헤르미온느가 공중에서 빙그르 몸을 돌렸다. 우르릉 쾅 하며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해리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헤르미온느는 또다시 그를 암흑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 제 22 장 죽음의 성물

해리는 숨을 헉헉거리며 풀밭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어느 들판 한구석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는 어느새 지팡이를 흔들며 그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프로테고 토탈룸.....살비오....헥시아.....”

“간사스러운 늙은 사기꾼 같으니라고!”

투명 망토 밑에서 나온 론이 그것을 해리에게 던져주며 씩씩거렸다.

“헤르미온느, 넌 천재야. 진짜 천재라니까. 우리가 거길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난 믿기지가 않아!”

“케이브 이니미컴..... 그러게 내가 진작 말하지 않았니? 그건 에럼펀트의 별이라니까! 이제 러브굿 씨 집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

“그렇게 당해도 싸.”

론이 찢어진 청바지와 다리에 난 상처를 살펴보면서 말했다.

“그런데 이제 그놈들이 그를 어떻게 할까?”

“오, 제발 죽이지나 말았으면 좋겠어!”

헤르미온느가 탄식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떠나기전에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해리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러브굿씨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그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말이야!”

“그럼 난 왜 숨긴거야?”

론이 물었다.

“넌 지금 스팟터그로이트 병에 걸려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 론! 그자들은 루나의 아버지가 해리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루나를 납치해갔어! 그런데 네가 해리와 함께 다닌다는걸 그자들이 알면, 너희 가족은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분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계셔, 그러니 무사하실 거야.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넌 정말 천재야.”

론이 탄복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말했다.

“그래, 정말이야. 헤르미온느.”

해리도 열렬히 동의했다.

“네가 없었다면 우린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헤르미온느는 활짝 웃었다. 하지만 금방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루나는 어떻게 됐을까?”

“글쎄, 만약 그자들의 말이 사실이고 루나가 아직 살아 있다면....”

론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절대 하지 마!”

헤르미온느가 꽉 소리를 질렀다.

“루나는 분명 살아 있어! 틀림없다고!”

“그렇다면 아즈카반에 있을 거야.”

론이 말했다.

“하지만 루나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정신적 부담이....”

“루나는 살아남을 거야.”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다른 대답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루나는 아주 강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루나는 아마 동료 죄수들을 모두 모아 놓고 렉스퍼트와 나글스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을 거야.”

“나도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말하며 한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난 러브굿 씨한테 너무 미안할 거야. 만약....”

“그래. 만약 그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우리를 팔아넘기려는 짓만 하지 않았어도, 그랬겠지.”

론이 냉큼 말을 받았다.

그들은 텐트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론이 차를 끓여 주었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벗어나고 나자, 이 으슬으슬하고 곰팡이 나는 낡은 텐트가 마치 집처럼 안전하고 친숙하고 다정하게 느껴졌다.

“오, 어째서 우리가 거길 갔을까?”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헤르미온느가 한탄했다.

“해리, 네 말이 맞았어. 이건 고드릭 골짜기가 또 한번 되풀이된 셈이야.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죽음의 성물이라니..... 그런 헛소리를.....설사 실제로....”

문득 어떤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다.

“러브굿 씨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을지도 몰라. 안그래? 어쩌면 러브굿 씨도 죽음의 성물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데, 다만 죽음을 먹는 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난 그렇게 생각 안해.”

론이 말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뭔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 인간 사냥꾼들에게 잡혔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생각해 내는 것 보다, 스탠인 척하는게 그나마 훨씬 쉬웠는데. 그건 내가 그자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 러브굿 노인네는 우리를 계속 불잡아 두려고 애를 쓰느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 난 그가 우리와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해. 아니면 적어도 자신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걸 말이야.”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설사 러브굿 씨가 정직했다고 해도, 난 내 평생 그렇게 엄청난 헛소리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잠깐만.”

론이 말했다.

“비밀의 방도 한때는 그저 전설이라고 여겨졌었잖아. 안 그래?”

“하지만 죽음의 성물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 론!”

“넌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그중의 하나는 존재할 수 있어.”

론이 맞섰다.

“해리의 투명 망토는.....”

“‘삼 형제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헤르미온느가 단호하게 말했다.

“인간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만약 단순히 투명 망토 밑으로 숨기만 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린 이미 필요한 걸 전부 가진 셈이야.”

“난 모르겠어. 무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

해리는 그토록 싫어하는 블랙손 지팡이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빙글빙글돌리며 말했다.

“그런 건 없다니까, 해리!”

“수많은 지팡이들이 있었다고 네가 말했잖아. 죽음의 지팡이니 뭐니 하고 말이야.”

“좋아. 설령 네가 딱총나무 지팡이를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 해도, 부활의 돌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건데?”

헤르미온느가 ‘부활의 돌’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인용부호를 그렸다. 그 이름을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냉소적으로 변했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 낼 수 있는 마법은 없어. 그게 사실이야!”

“하지만 내 지팡이가 그 사람의 지팡이와 연결되었을 때, 우리 엄마와 아빠가 다시 나타났었어.....그리고 캐드릭도.....”

“하지만 그들은 진짜로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온 게 아니었잖아! 안그래?”

헤르미온느가 따졌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건 일종의 희미한 그림자였고, 진짜로 누군가를 되살려내는 것과는 달라.”

“하지만 그 여자.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아가씨도 진짜로 되살아난 것은 아니었잖아, 안그래?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죽은 사람은 끝까지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한다고 했어. 하지만 둘째는 그래도 그 아가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잖아? 심지어 한동안 그 아가씨와 함께 살기도 했어.....”

순간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얼굴에 걱정스런 표정과 함께, 뭐라고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떠오르는 걸 보았다. 그리고 뒤이어 그녀가 론을 향해 힐끗 시선을 돌렸을 때, 해리는 비로소 그것이 공포였다는 걸 깨달았다.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그의 말에 헤르미온느가 겁에 질린 것이었다.

“그런데 고드릭 골짜기에 묻혀 있는 그 피브렐이란 작자 말이야.”

해리는 대단히 이성적인 어조로 들리게 말하려고 애를 쓰면서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몰라.”

헤르미온느가 화제가 바뀌어 다행이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무덤에서 그 상징을 발견한 이후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어. 만약 그 자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혹은 뭔가 중요한 업적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가진 책들 중 하나에 나왔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가 피브렐이란 이름을 겨우 찾아낼 수 있었던 곳은 딱 한 군데, <타고난 고귀함: 마법사들의 계보학>뿐이었어. 그 책은 크리처에게 빌린 거야.”

론이 눈썹을 치켜뜨는 걸 보자, 헤르미온느가 얼른 설명을 덧붙였다.

“그 책에는 남자 후손의 대가 끊겨 버린 순수혈통 가문의 명단이 실려 있었어. 피브렐 가문은 가장 일찍 사라진 가문들 중 하나가 분명해.”

“남자 후손의 대가 끊겼다고?”

롬이 되물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뜻이야.”

헤르미온느가 설명했다.

“피브렐 가문의 경우에는 벌써 수 세기 전에 대가 끊겼어. 하지만 물론 아직도 피브렐 가문의 후손들은 남아 있을 수 있어. 다만 뭔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겠지.”

바로 그때 해리의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피브렐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잠깐 떠오를 듯했던 바로 그 기억이었다. 마법부 직원의 면전에 대고 흉측하게 생긴 반지를 마구 흔들어 대던 추례한 늙은이.

그 순간 해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마볼로 곤트!”

“뭐라고?”

론과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물었다.

“마볼로 곤트 말이야! 그 사람의 할아버지! 펜시브에서! 덤블도어 교수님과 함께! 마볼로 곤트는 자신이 피브렐 가문의 후손이라고 말했어!”

론과 헤르미온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 반지 말이야. 호크룩스가 된 그 반지! 마볼로 곤트는 그 위에 피브렐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 난 그자가 그 반지를 마법부에서 나온 사람에게 마구 들이대는 광경을 직접 보았어. 그자는 그걸 상대방의 콧구멍 속으로 쑤셔넣기라도 할 기세였지!”

“피브렐 가문의 문장이라고?”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었니?”

“아니.”

해리는 지난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를 쓰면서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문양 같은 건 없었어. 약간 흥집 같은게 나 있었던 같아. 내가 그걸 진짜로 가까이에서 보게 된 것은, 그 반지가 깨지고 난 다음이었어.”

해리는 갑자기 헤르미온느의 눈이 커지면서 뭔가 알았다는 표정이 떠오르는 걸 보았다. 한편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던 론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기랄.....너희는 또다시 거기에 이 표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물의 상징이?”

“그렇잖아?”

해리가 흥분에 들떠 말했다.

“마볼로 곤트는 돼지처럼 사는 무식한 늙은이였어. 그자가 관심 갖는 거라곤 오직 자기 조상밖에 없었지. 만약 그 반지가 수 세기 동안 대대로 전해 내려 온 것이라면, 그자는 그 반지의 진짜 정체를 몰랐을 수도 있어. 그 집에는 책이라곤 단 한권도 없었거든. 게다가 장담하는데, 그자는 자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할 위인이 절대 아니었어. 그래서 돌 위에 있는 긁힌 자국 같은 것을 가문의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자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순수한 혈통이야 말로, 자신을 진짜 고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니까.”

“그래.....모두 다 아주 흥미로운 소리이긴 한데. 하지만 해리. 만약 네 생각이 지금 내가 짐작하는 대로라면 말이지.....”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 그게 어째서? 왜 안 된다는 거지?”

해리는 이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한 채 따져 물었다.

“그건 돌이었어, 안 그래?”

해리는 한마디 거들어 주길 바라며 론을 쳐다보았다.

“만약 그게 부활의 돌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론의 입이 떡 벌어졌다.

“맙소사!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걸 깨뜨렸는데도 여전히 효력이 있을까?”

“효력? 효력이라고? 론, 그건 아무런 효력도 없어! 부활의 돌 같은 그런 물건은 없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짜증과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발딱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리, 넌 모든 걸 그 성물 이야기에다 짜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짜 맞추려고 한다고?”

해리가 되물었다.

“헤르미온느, 이건 저절로 맞아 들어가는 거라고! 그 돌 위에 죽음의 성물의 상징이 있다는 걸 난 알아! 그리고 곤트는 자신의 피브렐 가문의 후손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넌 우리한테 돌 위에 어떤 문양이 있었는지 제대로 못 봤다고 말했잖아!”

“지금 그 반지는 어디 있을까?”

론이 해리에게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 반지를 깨뜨려 여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지만 해리의 상상력은 이미 론과 헤르미온느를 훨씬 앞질러서 저 멀리까지 내달리고 있었다.

세 가지 물건, 즉 성물.....그 세가지 성물들이 합쳐지게 되면 그 소유자는 죽음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지배자...정복자.....승리자.....파괴되어야 할 최후의 적은 죽음이다....

해리는 성물의 소유자가 되어서 볼드모트와 맞서는 자신의 모습을 눈앞에 떠올렸다.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쪽이 살아 있는 한은 어느 쪽도 살 수 없으리라..... 이것이 답이었을까? 죽음의 성물 대 호크룩스? 자신이 반드시 승리자가 될 방법이 있었던 것일까? 만약 죽음의 성물의 지배자가 된다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리?”

하지만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 그는 투명 망토를 꺼내어 손가락으로 매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망토는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공기처럼 가벼웠다. 마법사 세계에서 거의 7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이것에 필적할 만한 물건은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망토는 제노필리우스가 묘사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걸 입으면 진짜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망토를 말하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어떤 주문을 쏘더라도 언제나 결코 깨뚫어 볼 수 없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그런 망토 말일세.....

바로 그때, 해리는 혁 소리를 내며 원가를 떠올렸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에 내 투명 망토를 갖고 계셨어!”

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자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엄마는 시리우스에게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 투명 망토를 빌려 갔다고 말했어!  
그게 이유였어! 교수님은 그걸 조사해 보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세 번째 성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지! 이그노투스 피브렐은 고드릭 골짜기에 묻혀있어.....”

해리는 무턱대고 텐트 안을 맴돌았다. 마치 새롭고 위대한 진실의 전망이 눈앞에 드넓게 펼쳐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조상이었어! 나는 셋째의 후손인 거야! 이제 모든 게 들어맞아!”  
해리는 그 성물에 대한 자신의 믿음, 확신으로 단단히 무장을 한 듯한 느낌이었다. 단지 성물을 소유한다는 생각만 해도 벌써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환희에 넘쳐서 다른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또다시 불렀다. 하지만 해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고 있던 주머니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걸 읽어 봐”

해리가 어머니의 편지를 헤르미온느의 손에 쥐어 주며 말했다.

“읽어 보라고!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 투명 망토를 가져갔어. 헤르미온느! 달리 무슨 이유 때문에 교수님이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 교수님은 투명 망토가 필요 없으셨어! 교수님은 그게 없어도 완전히 모습을 감출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투영 마법을 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원가가 톡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반짝반짝 빛을 내며 의자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편지를 꺼낼 때 스니치가 함께 따라 나온 것이다. 해리는 허리를 숙여서 스니치를 집어 들었다. 바로 그때 새롭게 터진 엄청난 발견의 샘이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던져 주었다. 놀라운 충격과 경이가 갑작스럽게 그를 덮쳤고, 해리는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이 안에 있어! 교수님은 나에게 그 반지를 남겨주신거야! 그건 여기 이 스니치 안에 있어!”

“너.....대체 무슨 생각을?”

해리는 왜 론이 한대 얹어맞은 듯한 표정을 짓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해리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해 보였던 것이다. 모든 게 딱 들어맞아. 모든게.....투명 망토는 세번째 성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스니치를 여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면, 그는 두 번째 성물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첫 번째 성물, 바로 딱총나무 지팡이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치 불이 밝혀진 무대에 불현듯 커튼이 내려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잔뜩 부풀어 올랐던 모든 흥분과 희망과 행복감이 일순간에 확 사그려졌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훌러 서 있었다. 눈이 부시게 찬란했던 마법이 깨진 것이다.

“그가 쫓고 있는 게 그거였어.”

갑자기 그의 어조가 바뀌자, 론과 헤르미온느는 더욱더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그 사람은 딱총나무 지팡이를 쫓고 있는 거야.”

해리는 잔뜩 긴장한 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두 사람으로부터 돌아섰다. 그것이 진실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볼드모트는 새로운 지팡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지팡이, 정말로 아주 오래된 지팡이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의 존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텐트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깜깜한 어둠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볼드모트는 머글 고아원에서 자랐다. 해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그에게 <방랑시인 비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죽음의 성물을 믿는 마법사들도 거의 없다. 그런데 볼드모트가 과연 성물에 대해서 알았을까?

해리는 어둠을 가만히 응시했다...만약 볼드모트가 죽음의 성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분명 그는 그것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걸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것이다. 죽음의 지배자가 되게 해 주는 세 개의 물건이라니! 만약 그가 죽음의 성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애당초 호크룩스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가 이미 성물을 하나 손에 넣었음에도 그걸 호크룩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간단한 사실만 봐도, 그자가 이 마법 세계의 위대한 최후의 비밀을 몰랐다고 단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볼드모트는 딱총나무 지팡이의 완전한 힘을 깨닫지 못한 채, 그걸 쫓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것이 세 가지 성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못한채.....왜냐하면 지팡이는 숨겨질 수 없는 성물이었기 때문이다.

지팡이의 존재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었다.....딱총나무 지팡이의 피비린내 나는 자취는 마법 역사의 곳곳에 흩어져 있단 말이다.....

해리는 잔뜩 구름 낀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불구불한 은회색의 연기구름들이 하얀 달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에 대한 놀라움으로 머리가 둥롱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 그가 나갈 때와 똑같은 자리에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헤르미온느는 아직도 릴리의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 있는 론은 약간 불안한 표정이었다. 저들은 이 짧은 몇분 동안에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달려왔는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거였어.”

해리는 자신의 이 뜨거운 확신 속으로 두 친구도 끌어들이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다.

“이걸로 모든 게 설명이 돼. 죽음의 성물은 진짜야. 그리고 난 벌써 하나.....어쩌면 두 개를 갖고 있어.....”

해리는 스니치를 높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머지 성물을 쫓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자는 알지 못하지. 그냥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닌 지팡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해리.”

헤르미온느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릴리의 편지를 돌려주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네가 틀렸다고 생각해. 완전히 틀렸어.”

“넌 모르겠니? 모든 게 들어맞....”

“아니 그렇지 않아.”

해리가 뭔가 말하려는 것을 가로막으며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고, 해리. 넌 너무 멀리 빛나가고 있어. 제발 부탁인데, 그럼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봐. 만약 죽음의 성물이 진짜로 존재하고,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이 세 가지 물건을 전부 소유하는 사람이 죽음의 지배자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면 말이야, 해리. 그렇다면 왜 교수님은 너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니? 어째서?”

해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 너도 말했잖아. 그것들은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거라고! 이건 원정이라고!”

“난 단지 러브굿 씨 댁으로 가 보자고 널 설득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거야!” 헤르미온느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정말로 그걸 믿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항상 내가 스스로 뭔가 알아내도록 하셨어. 내 능력을 시험해 보고 위험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지. 이번 일도 교수님이 하실 법한 그런 종류의 일 같아.”

“해리, 이건 게임이 아니야. 훈련이 아니라고! 이건 진짜 현실이야.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님은 너에게 아주 분명하게 지시를 내리셨어. 호크룩스를 찾아서 파괴하라고 말이야! 이 상징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죽음의 성물 따위는 잊어버려. 지금 우린 결길로 빠지고 할 여력이 없단 말이야!”

해리는 그녀의 말을 거의 흘려듣고 있었다. 그는 스니치를 손에 쥐고 계속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당장이라고 그게 열려서 부활의 돌을 보여 주기를, 그래서 헤르미온느에게 그의 말이 맞았음을, 죽음의 성물이 진짜임을 증명해주기를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호소했다.

“넌 이 이야기를 안 믿지, 그렇지?”

해리가 고개를 들었다. 론은 잠시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내 말은...약간 서로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하고.....”

론이 어색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론은 크게 심호흡을 했다.

“먼저 호크룩스를 없애야만 할 것 같아. 해리.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바로 그거잖아. 어쩌면.....어쩌면 말이지, 우린 성물에 관한 일을 그만 잊어버려야만 할 것 같아.”

“고마워 론. 내가 제일 먼저 망을 보도록 할께.”

헤르미온느는 성큼성큼 해리의 앞을 지나더니, 천막입구에 텔썩 앉음으로써, 모든 동작을 단박에 완전히 정지시켜 버렸다.

그날 밤에 해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죽음의 성물에 관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온갖 혼란스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바람에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지팡이, 돌, 그리고 투명 망토. 그것들 모두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끝에서 열린다.....하지만 ‘끝’이 뭐지? 어째서 지금 그 돌을 가질 수 없는 걸까? 만약 그 돌을 갖고 있다면, 덤블도어 교수님에게 직접 이 모든 것을 물어볼수 있을 텐데.....

해리는 어둠 속에서 스니치에게 온갖 말들을 다 중얼거려 보았다. 심지어 파셀통그까지 써 보았지만, 황금 공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지팡이, 딱총나무 지팡이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지금 볼드모트는 어디를 수색하고 있을까? 해리는 흉터가 다시 타는 듯이 아파 와서 볼드모트의 머릿속을 보여 주길 바랐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으로 그와 볼드모트는 똑같은 것을 원한다는 점에서 일치했던 것이다.. 물론 헤르미온느는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그녀는 믿지 않는다.....제노필리우스가 어떤 면에서는 옳았다.....깍 막혔군. 편협하고 생각이 좁아. 그녀가 죽음의 성물이란 생각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특히 부활의 돌을...해리는 또다시 스니치에 입술을 갖다댔다. 그리고 거의 삼킬 듯이 입맞춤을 했다. 하지만 싸늘한 금속 물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득 루나를 떠올린 것은 새벽이 다 될 무렵이었다. 아즈카반의 감옥에서 출로 디멘터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루나를 생각하니, 해리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성물에 대한 생각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루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루나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나 많은 디멘터들을 물리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한번도 블랙손 지팡이로 패트로누스를 불러내려고 해 본 적이 없었다. 날이 밝으면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이보다 더 좋은 지팡이를 구할 방법만 있다면.....

천하무적, 난공불락이라는 죽음의 지팡이, 딱총나무 지팡이에 대한 욕망이 또다시 그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텐트를 접고 무섭게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이동했다. 폭우는 그날 밤에 그들이 텐트를 친 해안까지 뒤쫓아 왔다. 그리고 모든 걸 흠뻑 적시며 일주일 내내 쏟아졌다. 해리는 그 풍경을 보면서 쓸쓸하고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죽음의 성물 이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마음속에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의 노골적인 불신이나 론의 끈질긴 의심으로도 끌 수 없는. 하지만 성물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오를 수록, 해리는 점점 활기를 잃었다. 그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비난했다. 두 사람의 확고한 무관심은 끈질긴 폭우만큼이나 그의 기분을 축 처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느것도 그의 확신을 손상시킬 수는 없었다. 그것은 변함없이 절대적이었다. 해리는 성물에 대한 믿음과 갈망에 어찌나 깊이 사로잡혔던지, 다른 두 사람과 그들의 호크룩스에 대한 집착에 커단란 소외감을 느꼈다.

“집착이라고?”

어느 날 저녁, 해리가 무심코 그 말을 내뱉자 헤르미온느는 낮고 사나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로부터 또 다른 호크룩스의 위치를 찾는 일에 관심이 부족하다며 이미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 난 직후였다.

“집착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해리! 우린 단지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해리는 이 은근한 비난에도 전혀 무감각했다. 덤블도어는 헤르미온느가 해독하도록 성물의 상징을 남겨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골든 스니치 속에 감추어진 부활의 돌을 남겨 주었다. 해리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다른 한쪽이 살아 있는 한은 어느 쪽도 살 수 없으리라....죽음의 지배자....어째서 론과 헤르미온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파괴되어야 할 최후의 적은 죽음이다.’”

해리는 조용히 그 구절을 외워 보았다.

“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해리는 그만 설득을 단념했다.

심지어 다른 두 사람이 아직까지 끈질기게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은빛 암사슴의 수수께끼조차 지금의 해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저 약간

흥미로운 소소한 사건일 뿐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은 흉터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사실을 다른 두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서, 해리는 온갖 짓을 다 해야만 했다. 흉터에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얼른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정작 그가 본 것은 실망스러웠다. 그가 볼드모트와 공유하는 장면의 질이 달라졌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흐릿하고 흔들렸다. 해리는 해골처럼 보이는 어떤 물건의 흐릿한 형체와, 실물보다는 그림자에 더 가까운 산 같은 원가를 겨우 파악할 수 있었다. 늘 현실처럼 또렷한 광경에 익숙해져 있던 해리는 이런 변화에 몹시 당황했다. 그리고 은근히 볼드모트와 자신 사이의 연결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걱정되었다. 헤르미온느에게는 뭐라고 말했던 간에, 사실 이런 연결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중했던 것이다. 해리는 이 흐릿하고 불안스런 영상을 자신의 지팡이가 파괴된 것과 연관시켰다. 마치 더 이상 예전처럼 볼드모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된 것이 이 블랙손 지팡이의 탄인 양 말이다.

천천히 몇 주일이 흐르면서, 아무리 새로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던 해리라 해도 이제는 론이 책임을 맡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을 두고 혼자 떠났던 일을 보상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은 탓인지, 아니면 해리가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든 것이 잠재되어 있던 그의 지도자적 자질을 일깨운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이제 다른 두 사람을 격려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사람은 바로 론이었다.

“아직 세 개의 호크룩스가 남았어.”

론은 끊임없이 떠들었다.

“우린 행동 계획을 짜야만 해. 어서! 우리가 찾아보지 않은 데가 어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고아원.....”

론과 헤르미온느는 다이애건 앤리, 호그와트, 리들 하우스, 보진과 버크 가게, 알바니아 등. 톰 리들이 한때 살았거나 근무했거나 방문했거나, 혹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장소를 또 한 번 살살이 훑었다. 해리는 오직 헤르미온느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낄 뿐이었다. 차라리 말없이 혼자 앉아서 볼드모트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거나 딱총나무 지팡이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내는 편이 훨씬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론은 점점 더 가당치도 않은 장소로 계속 이동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해리는 깨달았다.

“그건 결코 모르는 일이야.”

이것이 론의 상투어였다.

“어퍼 플래즐리는 마법사 마을이라고, 그자가 거기서 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지. 그냥 가서 한번 둘러보기나 하자.”

이렇게 자주 마법사들의 영역에 출몰하다 보니, 이따금 인간사냥꾼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저자들 중 일부는 죽음을 먹는 자들 만큼이나 지독한 것 같아.”

론이 말했다.

“나를 붙잡았던 놈은 약간 불쌍했어. 하지만 빌이 그러는데 어떤 놈들은 진짜로 위험하대. <포터워치>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해리가 물었다.

“<포터워치> 말이야. 그게 뭔지 너한테 얘기 안했나? 내가 라디오에서 들으려고 계속 애를 쓰는 프로그램인데, 요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진실을 전해 주는 프로그램이야! <포터워치>만 빼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사람의 노선을 따르고 있거든. 너에게도 꼭 한번 들려주고 싶어. 하지만 주파수를 맞추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론은 저녁마다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동시에 온갖 다양한 리듬에 맞춰 지팡이로 라디오 위를 두들기고 있었다. 이따금 드래곤 수두의 치료법에 관한 조언이라든가, <강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찬 냄비> 몇 소절이 흘러나오는

걸 얼핏 듣기도 했다. 론은 지팡이를 톡톡 두드리는 한편, 입으로는 온갖 단어들을 연달아 중얼중얼 외우면서 정확한 암호를 맞히려고 노력했다.

“암호들은 대개 기사단과 관련된 것들이야.”

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빌은 암호 맞히는 재주가 정말 비상했는데. 나도 결국에는 하나쯤 맞히게 되겠지.”

하지만 3월이 되어서야 마침내 론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해리는 보초를 설 차례가 되어, 천막 입구에 멍하니 앉아 차가운 대지를 뚫고 올라온 무스카리 싹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텐트 안에서 잔뜩 흥분한 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맞혔어. 내가 맞혔다고! ‘알버스’ 가 암호였어. 어서 들어와 해리!”

해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죽음의 성물에 대한 생각에서 깨어나 황급히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은 라디오 옆에 무릎을 끊고 앉아 있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발견했다. 소일거리 삼아 그리핀도르의 칼을 닦고 있던 헤르미온느는 입을 딱 벌린 채, 조그만 스피커를 열심히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무척이나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일시적으로 방송이 중단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저 멋진 죽음을 먹는 자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집들을 방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 조던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나도 알아!”

론이 환하게 웃었다.

“멋지지, 그치?”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안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리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우리의 고정 출연자 두 분이 함께 자리하셨음을 알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리버.”

“‘리버’ 가 바로 리야.”

론이 설명을 해 주었다.

“모두 가명을 갖고 있거든. 하지만 대개는 너희도 알아차릴 수 있을....”

“쉬잇!”

헤르미온느가 입을 다물게 했다.

“하지만 로열과 로울루스로부터 소식을 듣기 전에, 잠시 <마법 라디오 네트워크 뉴스>와 <예언자 일보>에서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망 기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테드 통스와 더크 크레스웰의 죽음을 알리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순간 해리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경악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르눅이라는 이름의 도깨비 역시 살해됐습니다. 통스와 크레스웰, 고르눅과 함께 다녔던 것으로 추정되는 머글 태생의 딘 토마스와 또 다른 도깨비는 간신히 도망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만약 딘이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혹은 그의 소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의 부모님과 누이들이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가들리에서는 다섯 명의 머글 가족이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머글 당국에서는 이 죽음을 가스 누출 때문인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불사조 기사단 단원들이 저희에게 알려 온 바에 따르면 살인 저주에 당한 거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정권하에서 머글 살육이 단순한 유통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바틸다 백셋의 유해가 고드릭 골짜기에서 발견되었음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에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불사조 기사단에서 저희에게 알려 온 바에 따르면, 그녀의 시신에는 어둠의 마법에 의한 것이 분명한 상해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부터 테드 톰스와 더크 크레스웰, 바틸다 백챗, 노르눅 그리고 비록 이름은 모르겠지만 역시 안타깝기 짹이 없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살해당한 머글들을 위해서 1분간의 묵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침묵이 이어졌다.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입을 열지 못했다. 해리는 한편으로는 계속 더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뒤이어 어떤 소식이 전해질까 두렵기도 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든 것이 실로 오랜만이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 고정 출연자 로열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새로운 마법 세계의 질서가 머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소식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버”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깊고 신중하고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킹슬리야!”

론이 소리쳤다.

“우리도 알아!”

헤르미온느가 론을 조용히 시켰다.

“머글들은 계속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킹슬리가 말했다.

“하지만 머글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종 머글들도 모르게 위험을 무릅쓰는 마녀와 마법사들의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디 그분들을 본받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거리에 있는 머글들의 집에 보호 마법을 걸어 주거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단한 조처만 취해도 수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마법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취자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 하실 건가요, 로열?”

리가 물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법사 우선’은 ‘순수혈통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먹는자’로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입니다.”

킹슬리가 대답했다.

“우린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의 생명은 똑같이 고귀한 것이며 구해 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지적입니다. 로열. 만약 언젠가 우리가 이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전 당신을 마법부 장관으로 찍겠습니다.”

리가 말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인 ‘포터의 친구들’을 위해서 로울루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버.”

또 다른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론이 얼른 입을 열었지만, 헤르미온느가 먼저 선수를 치고 속삭였다.

“우리도 안다니까, 루핀이잖아!”

“로울루스, 당신은 우리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해리 포터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주장해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루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죽음을 먹는 자들이 최대한 대대적으로 그의 죽음을 선전하고 다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이 새로운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테니까요.

‘살아남은 아이’는 선의 승리, 순수의 힘, 저항을 계속하려는 요구 등 우리가 싸워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해리의 마음속에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뜨거운 감정이 활짝 복받쳐 올랐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해리가 퍼부었던 그 꿈쩍한 폭언들은, 루핀은 이미 용서했던 말인가?

“만약 해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고 싶으신가요, 로울루스?”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와 함께 있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루핀이 말했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더니 다시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자신의 본능을 따라가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선하며 거의 언제나 옳다고 말입니다.”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거의 언제나 옳지.”

헤르미온느가 루핀의 말을 되풀이했다.

“오, 내가 너희한테 말 안 했니?”

론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빌이 그러는데, 루핀이 다시 톰스와 살고 있대! 그리고 이제 톰스는 상당히 배가 불렀나 봐.....”

“.....그리고 우리의 고정 코너인, 해리 포터에 대한 신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의 친구들의 최근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고정 청취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공공연히 해리 포터를 지지한 사람들 중 몇 명이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러쿵 저러쿵>의 전 편집장인 제노필리우스 러브굿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쨋든 아직 살아있긴 하구나!”

론이 중얼거렸다.

“또한 불과 몇 시간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호그와트의 유명한 사냥터지기인 루베우스 해그리드가.....”

세 사람 모두 혁하고 놀라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놓칠 뻔했다.

“호그와트 운동장에서 체포될 뻔했으나 아슬아슬하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해리 포터 지지자’ 모임을 열어 왔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붙잡히지 않았고, 우리는 그가 현재 도망 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키가 5 미터나 되는 형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서 도망칠 때 도움이 되겠죠?”

리가 물었다.

“유리한점은 있을 겁니다.”

루핀이 진지하게 동의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포터워치>는 해그리드의 용기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지만, 동시에 아무리 헌신적인 해리 포터의 지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해그리드의 전철을 밟지는 말라고 강력히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해리 포터 지지자’ 모임은 별로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로울루스.”

리가 동의했다.

“저희는 여러분께 <포터워치>를 청취함으로써 번개 모양 흉터를 가진 그 소년에 대한 헌신을 계속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해리포터만큼이나 교묘히 잘 피해 다닌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그 마법사에 관한 소식으로 옮겨 가도록 하지요. 저희는 그자를 죽음을 먹는 자들의 두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여기 그자를 둘러싼 온갖 정신 나간 소문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 나오신 새로운 통신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던트.”

“‘로던트(쥐, 토끼 따위의 설치류:역주)’라고요?”

또 다른 낯익은 목소리가 반문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동시에 소리쳤다.

“프레드야!”

“아니, 조지인가?”

“내 생각에 프레드인것 같아.”

론이 이렇게 말하며 더욱 바싹 귀를 기울였다. 그때 쌍둥이 중 하나가 말했다.

“전 ‘로던트’로 불리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저를 ‘레피어(가늘고 긴 쌍날칼:역주)’로 불러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그럼 좋아요. ‘레피어’ 그렇다면 죽음을 먹는 자들의 두목에 관해 들려오는 갖가지 소문들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들려주시겠어요?”

“네, 리버. 그러지요.”

프레드가 말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아시게 되겠지만, 가령 그자들이 정원 연못 바닥이나 어디 비슷한 곳에 숨어 있는게 아니라면, 계속 그늘에 숨어있으려는 그 사람의 전략은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만약 그자를 보았다고 하는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주위에는 지금 분명 열아홉 명은 족히 되는 ‘그 사람들’이 날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킹슬리가 말했다.

“자기 모습을 실제로 드러내기보다는 신비감을 갖게 하는 편이 훨씬 더 공포심을 자아낼 테니까요.”

“맞습니다.”

프레드가 말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진정하도록 합시다. 굳이 허튼 소문을 꾸며내지 않아도 이미 나쁜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번 노려보기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새로운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실리스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노려보고 있는 그것이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다리가 있다면, 그것의 눈을 쳐다보는건 안전합니다. 설령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여전히 거의 없을 것 같지만요.” 참으로 오랜만에 해리는 큰 소리로 깔깔 웃었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긴장감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자가 해외에서 계속 목격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리가 물었다.

“글쎄요. 그자처럼 그토록 힘든 일을 하고 난 후에, 누군들 잠깐 동안 멋진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프레드가 되물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자가 해외에 나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전할 거라고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어쩌면 그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드디어 마음이 내켜서 샴푸 병을 집어 드는 것보다 더 빨리 그 사람은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안전이 첫째입니다!”

“현명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레피어.”  
리가 말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으로 <포터워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이얼을 계속 돌려주십시오. 다음번 암호는 ‘매드아이’가 될 것입니다. 서로서로 안전을 지켜줍시다. 신의를 지킵시다. 좋은 밤 되십시오.”

라디오의 다이얼이 빙그르르 돌더니 주파수 계기판의 불이 깨져 버렸다. 하지만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낯익고 반가운 목소리들은 아주 특별한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해리는 세 사람만 따로 떨어져

지내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볼드모트에게 맞서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훌륭하지, 응?”

론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굉장해.”

해리가 말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용감하구나.”

헤르미온느가 감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저러다 발각이라도 되는 날이면.....”

“하지만 계속 돌아다니잖아, 안 그래?”

론이 말했다.

“우리처럼 말이야.”

“하지만 프레드가 하는말 너도 들었지?”

해리가 흥분에 들떠서 물었다.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니, 다시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문제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자가 외국에 있어! 그자는 아직도 그 지팡이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해리.....”

“이봐, 헤르미온느,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완강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볼.....”

“해리, 안 돼!”

“.....드모트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쫓고 있다고!”

“그 이름은 금기란 말이야!”

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때 텐트 바깥에서 뭔가 요란하게 딱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말했잖아, 해리!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이야. 어서 주위에 보호막을 다시 쳐야 해, 서둘러. 그자들은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데.....”

론이 갑자기 말을 딱 멈추었다. 해리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 탁자위에 놓인 스니코스코프가 빛을 발하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거칠고 몹시 흥분한 목소리였다.론은 호주머니에서 딜루미네이터를 꺼내어 찰칵 켰다. 등잔불이 꺼졌다.

“두 손 들고 당장 거기서 나와!”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외쳤다.

“너희가 거기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여섯 개의 지팡이가 너희를 겨냥하고 있다. 우린 너희가 누군든 상관없이 저주를 쓸 것이다!”

### 제 23 장 말포이 저택

해리는 다른 두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저 윤곽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 헤르미온느가 지팡이를, 바깥쪽이 아니라 해리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평 소리와 함께 하얀 불꽃이 터졌고, 고통이 온몸을 죄었다.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무거운 발소리가 주위를 에워싸는 동안, 해리는 두 손으로 가리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어나, 이 벌레 같은 놈.”

정체불명의 손들이 해리를 거칠게 바닥에서 잡아끌었다. 그리고 그가 미처 제지할 틈도 없어. 누군가 그의 주머니들을 살살이 뒤지더니 블랙손 지팡이를 가져가 버렸다. 해리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쑤시는 얼굴을 움켜쥐었다. 마치 심각한 일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처럼, 살갗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통통부어 올라서 알아볼 수 조차 없게 된 자신의 얼굴이 손가락 밑으로 느껴졌다. 눈은

완전히 감기다시피 해서 거의 앞이 안보일 지경이었다. 게다가 텐트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 안경까지 벗겨져 버렸다. 이제 해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곤, 역시 텐트 밖으로 나온 론과 헤르미온느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네다섯 명의 흐릿한 형체가 전부였다.

“그녀에게서 떨어져!”

론이 소리쳤다. 분명히 주먹으로 몸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론은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헤르미온느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를 내버려 둬. 내버려 두라고!”

“만약 이 녀석이 내 명단에 있는 놈이라면, 네 남자 친구는 지금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꼴을 당하게 될거야.”

섬뜩할 만큼 친숙하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말했다.

“먹음직스러운 계집이로군..... 이게 웬 잔칫상이야..... 나는 정말이지 부드러운 살이 좋단 말이야.....”

해리는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이자가 누군지 깨달은 것이다. 야만적인 살육을 해 주는 대가로 죽음을 먹는 자의 망토를 쓰도록 허락받은 늑대인간, 펜리 그레이백이었다.

“텐트를 수색해!”

또 다른 목소리가 외쳤다.

해리는 얼굴을 땅바닥에 처박고 엎어져 있었다. 쿵 소리를 듣고, 그의 옆에 론이 내던져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발소리와 우당탕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자들이 텐트 안을 수색하면서 의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있었다.

“자 어떤 놈이 잡혔는지 한 번 볼까?”

머리 위에서 그레이백의 흡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의 몸이 굴려져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가 되었다. 지팡이 불빛의 광선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레이백이 깔깔 웃음을 터트렸다.

“이 녀석을 꼴깍 삼키려면 버터맥주가 필요하겠는 걸, 무슨 일을 당한 거냐, 이 뜻생긴 놈아?”

해리는 즉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가 물었잖아.”

그레이백이 다시 한 번 물으면서 해리의 옆구리를 한 방 걷어찼다. 해리는 고통을 뜯이기고 몸을 잔뜩 구부렸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쏘였어요.”

해리가 웅얼거렸다.

“벌에 쏘였어요.”

“그래, 그런 것 같군.”

두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이름이 뭐냐?”

그레이백이 으르렁거렸다.

“버논”

해리가 대답했다.

“성은?”

“저..... 두들리, 버논 두들리.”

“명단을 체크해 봐, 스캐비어.”

그레이백이 명령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론을 내려다보기 위해 옆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해리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네놈은, 빨간 머리?”

“스탠 션파이크.”

론이 대답했다.

“개수작 부리지마.”

스캐비어라고 불리는 남자가 말했다.

“우리는 스탠 션파이크를 알아. 우리 편에서 일을 좀 봐주고 있거든.”

또 한 번 퍽하고 내려치는 소리가 났다.

“난 버디예요, 바디 위들리.”

론이 대답했다. 해리는 론의 입속이 피로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위즐리라고?”

그레이백이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다면 네놈은 비록 잡종은 아니더라도, 동족의 배신자들과 친척사이로군. 마지막으로 네놈의 어여쁜 꼬마친구……”

입맛을 다시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 해리는 소름이 끼쳤다.

“진정해, 그레이백”

다른 자들이 조롱하며 야유를 던지는 와중에 스캐비어가 말했다.

“오오, 아직은 물지 않을 거야. 어디 이 계집이 바니보다 좀 더 빨리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지 한 번 볼까? 이름이 뭐지, 아가씨?”

“페넬로페 클리어워터”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당당했다.

“헬통 등급은?”

“훈혈.”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확인하기 아주 쉽군.”

스캐비어가 말했다.

“하지만 이 녀석들 죄다 아직 호그와트에 다닐 나이처럼 보인단 말이야……”

“우린 간더싸요.”

론이 대답했다.

“관뒀다고? 그 말인가, 빨간 머리?”

스캐비어가 말했다.

“그러고는 야영을 가기로 했다는 말이지? 그리고 농담 삼아 어둠의 마왕님의 존함을 불렀고?”

“논담은 아니고……”

론이 대답했다.

“싯수로.”

“실수라고?”

한바탕 비웃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

“네놈은 어떤 녀석들이 어둠의 마왕님의 존함을 부르기를 즐겼었는지 알고 있나, 위즐리?”

그레이백이 으르렁거렸다.

“불사조 기사단 놈들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라.”

“그러니까 그놈들은 어둠의 마왕님께 정중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존함에 금기를 걸어 놓았지. 그런식으로 해서 몇몇 기사단원 놈들이 추적을 당했어. 어디 두고 보자고, 다른 두 명의 포로와 함께 이놈들을 묶어라!” 누군가 해리의 머리채를 훑 잡아채더니 조금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억지로 그를 주저앉힌 다음, 다른 사람들과 등을 맞댄 자세로 묶기 시작했다. 해리는 아직도 통통 부은 눈으로 거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그들을 포박하던 남자가 떠나자, 해리는 다른 포로들에게 속삭였다.

“아직 지팡이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의 양편에서 동시에 대답했다.

“이건 순전히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이름을 말했어. 미안해”

“해리?”

새로운, 하지만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해리의 등 뒤, 죽 헤르미온느의 원편에 묶여 있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딘?”

“정말 너로구나! 만약 저자들이 지금 누굴 잡았는지 안다면 .....! 저들은 인간 사냥꾼이야. 단지 금화를 받고 팔아먹으려고 무단 결석생들을 찾고 있어.....”

“하룻밤치곤 벌이가 나쁘지 않군”

그레이백이 징을 박은 부츠 소리를 내며 해리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텐트 안에서는 쿵쾅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잡종 하나, 도망 중인 도깨비 하나, 무단 결석생 셋이라. 아직도 명단에서 이놈들 이름을 찾고 있나, 스캐비어?”

“그래. 버논 두들리는 명단에 없군. 그레이백”

“재미있구먼”

“그레이백이 말했다.

“그거 재밋어.”

그가 해리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해리는 통통 부어오른 눈꺼풀의 실낱같은 틈새로 엉클어진 회색 머리털과 구倫나룻으로 덮인 얼굴과 뾰족하고 누런 이빨과 입가의 상처를 보았다. 그레이백은 덤불도어가 죽을 때 그 탑 위에서 와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먼지와 땀, 그리고 피 냄새.

“그러면 네 녀석은 수배자가 아니로군, 버논?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냐? 네놈은 호그와트 어느 기숙사 소속이었지?”

“슬리데린”

해리가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우습게도 이놈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꼭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스캐비어가 그림자 속에서 나오며 빙정거렸다.

“하지만 그런 놈들 중에 학생 휴게실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대답하는 놈은 하나도 없었어.”

“그건 지하 감옥에 있어요.”

해리가 또박또박 말했다.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거긴 해골이랑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호수 밑에 있어요. 불빛은 온통 초록색이구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런, 이런. 이번에는 정말로 슬리데린 꼬마 한 놈을 잡은 것 같군.”

스캐비어가 말했다.

“다행인 줄 알아, 버논. 잡종 슬리데린은 많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누구지?”

“마법부에서 일하세요.”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물론 이런 모든 이야기가 아주 조금만 조사해 봐도 금방 탄로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지 그의 얼굴이 평상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뿐이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 게임은 끝날 것이다.

“마법 사고와 재난부요.”

“자네 그거 아나, 그레이백?”

스캐비어가 말했다.

“거기에는 정말로 두들리가 한 명 있는 것 같네”

해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행운이, 이런 순전한 행운이 그들을 여기서 무사히 구해 줄 수 있을까?

“그래, 그렇군.”

그레이백이 말했다. 해리는 그 냉담한 목소리에 아주 희미한 동요의 낌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레이백이 자신이 정말로 마법부 직원의 아들을 기습해서 잡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비뼈 둘레를 꽁꽁 묶은 밧줄 속에서 해리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설령 그레이백이 그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을 알아챈다고 해도 해리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 못생긴 놈아, 설령 마법부에 간다고 해도 전혀 무서울 게 없겠구나. 내 생각에, 널 데려다 주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보답을 해 줄것 같은데.”

“하지만.....”

해리가 말했다. 입 안이 바싹바싹 타들어 갔다.

“그냥 우리를 풀어 주시면.....”

“이봐!”

그때 텐트 안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이것 봐. 그레이백!”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그들 쪽으로 부산스레 달려왔다. 해리는 그들의 지팡이 불빛을 받아 번뜩이는 은빛 섬광을 보았다. 그리핀도르의 칼을 발견한 것이다.

“아.....주.좋아.”

동료로부터 그것을 받아 들고, 그레이백이 감탄하며 말했다.

“오오, 아주 훌륭하군. 도깨비가 만든 것 같은데..이런게 어디서 났지?”

“그건 저희 아버지 거예요.”

해리는 부디 너무 어두워서 그레이백이 칼자루 바로 아래에 새겨진 이름을 보지 못하기만을 바라며 거짓말을 했다.

“장작을 패는데 쓰려고 좀 빌렸던 거.....”

“잠깐 기다려. 그레이백! 이것 봐<예언자 일보>에 말이야!”

스캐비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부푼 이마 위에 팽팽하게 펴진 해리의 흉터가 불로 지지듯이 아파왔다. 그리고 그가 인식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 선명하게, 우뚝 솟은 건물 한채와 칠흑같이 까맣고 무시무시하고 음산한 요새가 눈앞에 보였다. 갑자기 볼드모트의 생각이 다시 또렷하게 전해졌다. 그는 침착하고 희열에 찬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대한 건물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아주 가까워.....아주 가까워.....

해리는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서 간신히 볼드모트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정신을 차단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론, 헤르미온느, 딘, 그립훅과 함께 둑인 채 앉아 있는 자신의 처지로 다시 생각을 집중하며 그레이백과 스캐비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스캐비어가 말했다.

“‘해리 포터와 함께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잡종’”

정적 속에서 해리의 흉터가 확확 달아오랐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볼드모트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레이백이 헤르미온느 앞에 쭈그리고 앉자, 해리의 귀에 그의 부초가 삐걱삐걱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거 알아, 꼬마 아가씨? 이 사진은 네년이랑 아주 닮았는 걸!”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겁에 질린 발악은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해리 포터와 함께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레이백이 조용히 되뇌였다.

한순간 그곳에 정적이 감돌았다. 해리의 흉터는 이제 견딜 수 없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그를 끌어당기는 볼드모트의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웠다.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순간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군, 안그래?”

그레이백이 속삭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해리는 인간 사냥꾼 일당이 꼼짝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이 달아 있는 헤르미온느의 팔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레이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해리가 있는 곳으로 몇 발짝 다가와 다시 쭈그리고 앉더니, 그의 흉측한 몸꼴을 면밀히 관찰했다.

“네 이마에 그건 뭐지, 버논?”

그레이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더러운 손가락으로 잔뜩 성이 난 흉터를 꼭눌렀을 때, 그의 불쾌한 숨결이 해리의 콧구멍 속으로 전해졌다.

“만지지 마!”

해리가 소리쳤다. 도저히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흉터의 통증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았다.

“난 네놈이 안경을 끼는 줄 알았는데, 포터?”

그레이백이 숨을 내뿜었다.

“내가 안경을 찾았어요!”

뒤쪽에 슬그머니 숨어있던 인간 사냥꾼 중 하나가 소리쳤다.

“텐트 안에 안경이 있었어요. 그레이백 잠깐만요.....”

잠시 후, 해리의 얼굴에 억지로 안경을 씌운 인간 사냥꾼들은 그를 에워싼 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맞아! 우리가 해리를 잡았다.! ”

그레이백이 소리쳤다.

모두 자신이 한 일에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해리는 여전히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통증 속에서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아무런 변명도 생각할 수 없었다. 조각난 영상들이 그의 의식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검은 요새의 높은 벽 주위를 미끄러지듯 맴돌고 있었다. 아니, 그는 해리였다. 지팡이도 없이 포박당한 채,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저 위쪽 제일 높은 탑, 제일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올려다 보고 있다.

그는 해리였다. 그리고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그의 운명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었다....

날아가야 할 때군.....

“.....마법부로?”

“그 망할 놈의 마법부에?”

그레이백이 으르렁거렸다.

“그놈들은 우리의 공로를 가로챌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볼걸. 이봐, 저놈을 곧장 그분에게 데리고 가자고.”

“여기로 그분을 불러온다고?”

스캐비어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레이백이 으르렁거렸다.

“나한텐 그게 없어. 그자들 말이, 그분이 말포이의 집을 본부로 쓰고 있다는 군. 우린 저 애를 거기로 데리고 가는 거야.”

해리는 그레이백이 왜 볼드모트를 부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 늑대인간은, 그자들이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 한해 죽음을 먹는 자의 망토를 입는 것은 허락받았을지 몰라도, 어둠의 표식만큼은 오직 볼드모트의 측근들에게만 새겨 준 것이었고, 따라서 그레이백은 그러한 최고의 영예를 하사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리의 흉터가 다시 화끈거렸다.

그는 어둠 속으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탑의 제일 꼭대기에 난 창문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

“정말로 그놈이라는 게 확실한가? 만약 아니라면 그레이백, 우린 죽은 목숨이야.”

“여기 책임자가 누구지?”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려는 순간을 무마하기 위해, 그레이백은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내가 말했지, 저 녀석은 포터라고, 포터와 그의 지팡이, 그거라면 당장 그자리에서 20 만 갈레온을 받는다고! 하지만 너희 중 누구라도 날 따라올 만큼 배짱이 두둑치 못하다면, 그건 다 내 거야. 게다가 운이 좋으면 덤으로 저 계집까지 갖게 되겠지!”

창문이라고 해야 시커먼 돌 사이에 난 가느다란 틈새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 하나가 들어가기에도 작았다.....그 틈새로 해골 같은 형상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담요를 쓰고 웅크리고 있었다.....죽은 걸까..아니면 자고 있나.....?

“좋아!”

스캐비어가 말했다.

“좋아. 우리는 찬성이야! 그러면 나머지 녀석들은 어떻게 하지? 그레이백, 그들을 어쩔 셈인가?”

“저놈들도 데려가는 게 좋겠어. 잡종 두 명을 잡았으니, 10 갈레온을 더 받겠지. 그 칼도 나한테 줘. 이게 다 루비라면 그것 또한 얼마간 돈이 되겠군.” 그들은 포로들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갔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겁에 질린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단단히 불들어라. 내가 포터를 맡겠다.!”

그레이백이 해리의 머리채를 휘어 잡으며 외쳤다. 해리는 길고 누런 손톱이 두피를 할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셋에 출발한다! 하나.....둘.....셋.....”

그들은 포로를 불든 채로 순간이동을 했다. 해리는 그레이백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의 양편에 바짝 둑여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숨통이 꽉 막혀오자, 흉처는 더욱 고통스럽게 확확 쑤셨다.

그가 창문 틈으로 뱀처럼 비집고 들어가더니, 감방처럼 보이는 방안에 연기처럼 사뿐히 내렸다.

그들이 시골길에 내려서는 순간, 포로들은 서로를 향해 곤두박질쳤다. 여전히 통통 부은 해리의 눈이 잠시 후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자, 긴 차도처럼 보이는 길 끝에 장식이 된 철 대문이 보였다. 그는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최악의 사태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볼드모트는 이곳에 없었다. 눈앞에 떠오르는 영상에 저항하려고 애를 써 왔던 만큼, 해리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어떤 괴이한 요새 같은 곳의 탑 꼭대기에 있었다. 해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과연 볼드모트가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것은 나중 문제였다....

인간 사냥꾼 한명이 대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그것을 흔들었다.

“어떻게 들어가지? 잠겼어요, 그레이백. 문을 열 수가 없.....젠장!”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훑 치웠다. 기묘한 모양으로 돌돌 말려 있던 철 대문의 문양이 몸을 비비꼬며 구부러졌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얼굴 형상으로 바뀌더니, 뻥그렁거리며 짜렁짜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온 목적을 말하시오!”

“포터를 잡았다!”

그레이백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우리는 해리 포터를 잡아왔다!”

문이 활짝 열렸다.

“가자!”

그레이백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포로들은 그들 손에 끌려서 대문을 지나 진입로에 들어섰다. 양옆으로 산울타리가 있어 그들의 발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다. 해리는 머리 위로 유령같은 하얀 형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하얀 공작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그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그레이백은 그를 질질 끌고 갔다. 이제 해리는 다른 네 명의 포로들과 등을 맞대고 둑인 채, 비틀거리며 옆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해리는 지금 볼드모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통통 부은 눈을 감고 흉터의 통증에 잠시 자신을 맡겼다.....

앙상하게 마른 그 사람이 얇은 담요 아래서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해골바가지 같은 얼굴에 두 눈을 확싹 뜯 채, 그를 향해 굴러왔다.....부서질 듯 허약한 그 남자는 푹 깨진 커다란 눈을 그에게, 볼드모트에게 고정한 채,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가 거의 다 빠지고 없었다.

“그래, 네가 왔구나. 올 줄 알고 있었지...언젠가는 말이야. 하지만 헛걸음했구먼. 난 결코 그걸 가진 적이 없었다.”

“거짓말!”

볼드모트의 분노가 해리의 안에서 요동쳤고, 이마의 흉터는 고통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다. 포로들이 자갈 위로 떠밀려 가는 동안, 해리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다시 정신을 자신의 몸에 꽉 붙들어 맸다.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더니 그들 위를 비추었다.

“무슨 일이냐?”

한 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여기에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분을 만나러 왔다.”

그레이백이 순 목소리로 대꾸했다.

“넌 누구냐?”

“날 알 텐데!”

늑대인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펜리 그레이백이다! 우리는 해리 포터를 잡았다!”

그레이백은 해리를 움켜쥐더니 불빛 앞으로 끌고 갔다. 그 바람에 나머지 포로들도 덩달아 질질 끌려갔다.

“잔뜩 부어오르긴 했지만, 그놈입니다. 부인!”

스캐비어가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흉터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자 애 보이시죠? 그와 함께 도망 다니던 잡종입니다요 부인. 확실히 그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팡이도 찾았습니다! 여기요, 부인.....”

해리는 통통 부은 눈꺼풀 사이로, 나시사 말포이가 부어오른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보았다. 스캐비어는 블랙손 지팡이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다.

“저들을 데리고 들어오너라.”

나시사가 말했다.

해리와 나머지 포로들은 마구 떠밀리고 걷어차이며, 널찍한 돌계단을 올라가서 초상화들이 줄지어 걸린 현관 복도로 들어갔다.

“따라와.”

복도를 가로질러 앞장서 가며, 나시사가 말했다.

“내 아들 드레이코가 부활절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다. 만약 저 아이가 해리 포터라면 그 애가 알아볼 것이다.”

캄캄한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응접실은 너무 환해서 눈이 부실 정도였다. 거의 감긴거나 다름 없는 눈으로도, 해리는 그 널찍한 규모를 가능할 수 있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짙은 자주색 벽에는 더 많은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인간 사냥꾼들 손에 떠밀린 포로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화려하게 장식된 대리석 벽난로 앞에 있는 의자에서 두 사람이 일어섰다.

“무슨 일이오?”

끔찍하게 익숙한, 잔뜩 거드름을 피우는 루시우스 말포이의 목소리가 해리의 귓전에 들려왔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없었다. 두려움이 절정에 이르자, 흉터가 여전히 타는 듯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볼드모트의 생각을 차단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이자들 말로는 해리 포터를 잡았다는 군요.”

나시사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드레이코 이리 오렴.”

해리는 감히 드레이코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의 드레이코보다 약간 더 키가 큰 누군가가 안락의자에서 일어섰다. 백색에 가까운 금발 아래로 창백하고 뾰족한 얼굴이 흐릿한 얼룩처럼 보였다.

그레이백은 포로들을 다시 강제로 돌려서, 해리를 샹들리에 바로 밑에 세워 놓았다.

“자, 꼬마야?”

늑대인간이 순 목소리로 물었다.

해리는 벽난로 위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테두리에 정교하게 소용돌이 무늬가 새겨지고 금으로 도금된 커다란 물건이었다. 해리는 가늘게 뜯 눈으로, 그리올드 광장을 떠난 아래 처음으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주 커다랗고 번들거렸으며 분홍색이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의 주문을 맞아 모든 이목구비가 뒤틀려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고, 턱 주위에는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해리는 도대체 누가 자신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발각될 게 분명했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드레이코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해리는 여전히 그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자, 드레이코?”

루시우스 말포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스러웠다.

“맞니? 이놈이 해리 포터니?”

“저..... 저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드레이코가 대답했다. 그는 그레이백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해리가 그를 바라보는 걸 겁내는 만큼이나, 그 역시 해리를 보기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잘 들여다보렴, 봐! 가까이 오너라.”

해리는 그 처럼 흥분한 루시우스 말포이의 목소리를 지금껏 들어 본 적이 없었다.

“드레이코, 만약 우리가 어둠의 마왕님께 포터를 넘겨주게 된다면, 모든 것이 용서.....”

“실제로 그를 잡은 게 누구인지 잊진 않으셨겠지, 말포이씨?”

그레이백이 위협적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물론 잊지 않았지, 물론이야!”

루시우스 말포이가 성마르게 대답했다. 그러더니 직접 해리에게 다가갔다. 그가 어찌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해리는 통통 부어오른 눈으로도 평소처럼 맥없고 창백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해리는 잔뜩 부푼 가면을 쓴 채, 마치 새장의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루시우스가 그레이백에게 물었다.

“어쩌다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우리가 그런 게 아니오.”

“내 눈에는 아무래도 쏘기 주문에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루시우스가 말했다.

순간 그의 회색 눈동자가 해리의 이마 위를 꼼꼼하게 살폈다.

“여기 뭔가 있군.”

루시우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흉터일지도 몰라. 팽팽히 펴져서 그렇지..... 드레이코 이리 오렴. 제대로 봐! 네 생각은 어떠냐?”

이제 해리의 눈에 그의 아버지의 얼굴 바로 옆으로 바싹 다가온 드레이코의 얼굴이 보였다. 그 둘은 유별난 만큼 닮은꼴이었다. 단지 그의 아버지는 잔뜩 흥분한 표정인 반면, 드레이코는 내키지 않아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기색까지 보였다는 점만 제외하면 말이다.

“전 모르겠어요.”

드레이코는 재빨리 대답하고는, 어머니가 서서 지켜보고 있는 벽난로 쪽으로 가버렸다.

“확실히 하는 편이 좋겠어요, 루시우스”

나시사가 냉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어둠의 마왕님을 부르기 전에, 저놈이 포터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야 해요..... 그들은 이 지팡이가 그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블랙손 지팡이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하지만 이건 올리밴더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착각한 거라면..... 만약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어둠의 마왕님을 이곳으로 부른다면..... 그분이 라울과 돌로호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잡종은 어떻게?”

그레이백이 으르렁거렸다. 인간 사냥꾼들이 다시 포로들을 강제로 빙빙 돌리자, 해리는 거의 발이 봉 떠서 던져지다시피했다. 이제는 불빛이 헤르미온느를 비추고 있었다.

“잠깐.”

나시사가 매섭게 말했다.

“그래.....그래. 이 애는 말킨 부인의 망토 가게에서 포터와 함께 있었어! 나는 이 계집의 사진을 <예언자 일보>에서 봤어! 자, 보렴. 드레이코, 그레인저란 여자 애가 아니니?”

“아마.....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애는 위즐리네 아들이군!”

포박된 포로들 주위를 돌고 있던 루시우스가 론을 바라보며 외쳤다.

“그놈들이 맞아. 포터의 친구들 말이야.... 드레이코, 저놈을 봐라. 아서 위즐리의 아들 맞지? 이름이 뭐였더라.....?”

“예, 그런 것 같아요.”

드레이코가 포로들에게서 등을 돌리며 다시 대답했다.

해리의 등 뒤에서 응접실 문이 열렸다. 뒤이어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해리를 더욱더 커다란 공포에 빼뜨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씨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포로들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그리고 해리의 오른편에서 걸음을 딱 멈추더니 두꺼운 눈꺼풀 아래로 헤르미온느를 빤히쳐다보았다.

“그런데 확실한 거야? 이 애가 그 잡종 계집이란 말이지? 그레인저라고?”  
벨라트릭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소. 이 애가 그레인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놈은 포터인 것 같소! 포터와 그의 친구녀석들이 결국엔 잡힌 거요!”

루시우스가 외쳤다.

“포터라고요?”

벨라트릭스가 날카롭게 소리치더니, 해리를 더 잘 살펴보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확실한가요? 좋아, 그렇다면 즉시 어둠의 마왕님께 알려 드려야지!”

벨라트릭스가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해리는 그녀의 팔에 빨갛게 달아오른 어둠의 표식을 보고서, 그녀가 사랑하는 주인님을 부르기 위해 그 표식을 막 만지려고 하는 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분을 부르려던 참이었소!”

루시우스가 외쳤다. 실제로 그의 손은 벨라트릭스의 손목을 단단히 쥐고서 그녀가 표식을 만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내가 그분을 불러야 하오, 벨라. 포터는 내 집에 끌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 권한....”

“당신 권한이라고!”

벨라트릭스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빙정거렸다.

“당신은 지팡이를 잃어버리는 순간 권한을 잃었어, 루시우스! 감히! 내 몸에서 손 떼!”

“이건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오. 당신이 그 아이를 잡은 것도 아니잖소....”

“방금 뭐라고 했소, 말포이 씨?”

그레이백이 끼어들었다.

“포터를 잡은 건 바로 우리요. 그리고 금화를 가질 사람도 바로 우리.....”

“금화라!”

벨라트릭스가 비웃었다. 그리고 한손으로는 여전히 루시우스를 뿌리치려고 애쓰는 한편, 자유로운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지팡이를 더듬어 찾고 있었다.

“네 금화를 가져가라. 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놈. 내가 금화 따위를 바랄 성 싶으냐? 난 오직 그분의 영예만을.....”

그때 벨라트릭스가 용쓰던 것을 멈추었다. 그녀의 새까만 눈동자는 해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편 루시우스는 마침내 그녀가 행복한 것을 기뻐하며 그녀의 손을 얼른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멈춰!”

벨라트릭스가 악을 썻다.

“만지지 마! 어둠의 마왕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 모두 끝장난단 말이야!”  
루시우스는 집게손가락을 자신의 표시 위로 향한 채, 행동을 멈추었다.

벨라트릭스는 해리의 제한된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그게 뭐지?”

해리의 귀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칼이오”

시야 밖에 있는 인간 사냥꾼이 불평스레 대답했다.

“이리 줘”

“이건 댁의 것이 아니지. 내 거라고. 내가 찾았어.”

쾅 소리와 함께 붉은 광선이 뿜어 나왔다. 해리는 인간 사냥꾼이 기절 마법에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동료들로 부터 분노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스캐비어가 자신의 지팡이를 뽑아 들었다.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줄 아나, 이 여자가?”

“스투페파이!”

벨라트릭스가 소리쳤다.

“스투페파이!”

혼자서 네 명을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녀의 맞수가 되지 못했다. 해리가 아는 대로, 벨라트릭스는 솔씨가 비상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마녀였다. 그레이백을 제외한 인간 사냥꾼 모두가 서 있던 자리에 쓰러졌다. 그레이백은 양팔을 쭉 뻗은 채, 억지로 무릎을 꿇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해리는 곁눈질로 벨라트릭스가 늑대인간 쪽으로 몸을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핀도르의 칼은 그녀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칼을 어디서 찾았지?”

벨라트릭스는 저항할 수 없는 그레이백의 손에서 지팡이를 빼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감히 네가 이런 짓을?”

그레이백이 마법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녀를 옮겨다보며 으르렁거렸다. 이제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입뿐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다.

“당장 풀어 줘, 이 여자야!”

“어디서 이 칼을 찾았느냐니까?”

벨라트릭스는 칼을 그의 면전에 대고 휘두르며 다시 물었다.

“스네이프가 이 칼을 그린고트에 있는 내 금고로 보냈는데!”

“그들의 텐트 속에 있었다!”

그레이백이 소리쳤다.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풀어 줘!”

벨라트릭스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늑대인간은 펄쩍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몹시 경계를 한 나머지 그녀에게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레이백은 안락의자 뒤로 어슬렁거리며 물러나더니 구부러진 더러운 손톱으로 의자의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다.

“드레이코, 이 더러운 놈들을 밖으로 옮겨라.”

벨라트릭스가 의식을 잃은 인간 사냥꾼들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네가 이놈들을 끝장낼 배짱이 없다면, 내가 할 테나 마땅에 그냥 내버려 둬.”

“드레이코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나시사가 미친 듯이 노하여 쏘아붙이자 벨라트릭스가 버럭 악을 썼다.

“조용히 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이라고, 씨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벨라트릭스는 숨을 헐떡거리며 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칼자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포로들을 바라보았다.

“만약 이놈이 진짜 포터라면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

벨라트릭스는 딱히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혼자서 중얼거렸다.

“어둠의 마왕님께서는 손수 포터를 처리하고 싶어 하시니까.....하지만 만약 그분이 발견하신다면.....나는 반드시.....나는 반드시 알아야.....”

벨라트릭스는 다시 동생 쪽을 돌아봤다.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동안, 포로들을 지하실에 가둬야겠어!”

“여긴 우리집이야 벨라. 언니는 우리 집에서 명령을 내릴 수.....”

“어서 해! 너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잇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벨라트릭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너무나 무시무시해 보였다. 그녀의 지팡이에서 가느다란 불꽃이 발사되어 카펫에 구멍을 냈다.

나시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늑대인간에게 말했다.

“이 포로들을 지하실로 끌고 가시오, 그레이백.”

“잠깐만.”

벨라트릭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데려가.....이 잡종만 빼고.”

그레이백은 기뻐서 그르렁댔다.

“안 돼!”

론이 소리쳤다.

“차라리 날 잡고 있어! 날 데리고 있으라고!”

벨라트릭스가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철썩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심문을 받다가 이 계집이 죽으면, 그 다음엔 널 데려오지.”

그녀가 말했다.

“내 사전에는 잡종 다음이 바로 동족의 배신자 놈이니까. 이 놈들을 아래층으로 끌고 가라, 그레이백. 확실히 가둬 놀도록 해. 하지만 아직 그놈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마라..... 아직은.”

벨라트릭스는 그레이백에게 지팡이를 돌려준 후에, 망토 아래에서 은 단도를 꺼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를 다른 포로들로부터 풀어 주더니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방 한복판으로 끌고 갔다. 한편 그레이백은 지팡이를 앞으로 내민 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항할 수 없는 마력을 써서 나머지 포로들을 아까와 다른 문을 통해 어두운 복도로 질질 끌고 갔다.

“저 여자가 저 계집애와 볼일을 끝낸 다음에는, 내게도 맛을 좀 보게 해 줄 것 같지?”

그레이백은 복도를 따라 그들을 끌고 가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마도 한두 입 정도는 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나, 빨간 머리?”

해리는 론의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가파른 층계를 따라 밑으로 끌려 내려갔다. 여전히 등과 등을 맞댄 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끄러져 목이 부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계단 아래에는 육중한 문이 있었다. 그레이백은 지팡이로 톡 쳐서 자물쇠를 연 다음, 그들을 축축하고 곰팡이 핀 방 안에 강제로 몰아넣더니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그들을 남겨 놓고 떠났다. 지하실 문이 꽉 닫히고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서 꼼짝하고 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헤르미온느!”

론이 부르짖었다. 그가 몸을 마구 비틀며 다 함께 묶여 있는 밧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해리까지 비틀거렸다.

“헤르미온느!”

“조용히 해!”

해리가 말했다.

“입 닥쳐 론!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

“우린 작전이 필요해, 소리 그만 질러……. 이놈의 밧줄부터 풀어야 해…….”  
“해리?”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론? 너희 맞니?”

론이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다. 그들 가까운 곳에서 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해리는 그림자 하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해리? 룬?”

“루나!”

“그래, 냐야! 오오, 안 돼. 난 너희가 잡히지 않기를 바랐는데!”

“루나, 이 밧줄 좀 벗길 수 있게 도와줄래?”

“오오,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원가를 부술 때는 오래된 옷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이때 헤르미온느가 다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벨라트릭스가 악을 쓰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룬이 다시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었다.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

“올리밴더 씨?”

해리는 루나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리밴더 씨, 그 옷 갖고 계세요? 조금만 저 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으면……. 그게 물병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루나가 되돌아왔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

루나가 말했다.

해리는 질긴 밧줄의 매듭을 풀기 위해 애쓰는 루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위층에서는 벨라트릭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둘겠다! 이 칼이 어디서 났지? 어디서 났느냐?”

“우리는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걸……. 제발!”

헤르미온느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룬은 어느 때보다 더욱 거세게 몸부림을 쳤고, 그 바람에 녹슨 옷이 해리의 손목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론, 제발 양전히 있어!”

루나가 속삭였다.

“내 손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내 주머니!”

론이 말했다.

“내 주머니 속에 딜루미네이터가 있어. 그 속엔 빛이 잔뜩 들어 있어!”

잠시 후에 찰칵 소리와 더불어 딜루미네이터가 텐트의 전등에서 빛아들였던 빛 덩어리들이 지하실 안으로 흘러나왔다. 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그 빛 덩어리들은 마치 조그만 태양처럼, 지하실 안을 빛으로 가득 채우면서 허공을 둥둥 떠다녔다. 해리는 루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새하얀 얼굴에는 온통 눈 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쪽 구석에는 지팡이 제작자 올리밴더가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해리는 목을 길게 빼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동료 수감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딘과 도깨비 그림족이었는데, 거의 의식을 잃은 듯한 도깨비는 인간들과 함께 둑어 놓은 밧줄에 의지해 겨우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다.

“오오, 이제 훌씬 쉬워졌어. 고마워 룬. 안녕, 딘!”

루나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밧줄을 잘라 내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서 또다시 벨라트릭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더러운 잡종. 난 알고 있다고! 그린고트에 있는 내 금고속에 들어갔었지?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시 한 번 소름끼치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헤르미온느!”

“다른 건 또 뭘 가져갔지? 다른 건 뭘 훔쳐 갔냐고! 사실대로 말해, 그러지 않으면 이 칼로 베어 버릴 테다!”

“됐다!”

해리는 밧줄이 끊어져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손목을 문지르며 돌아보니, 론이 낮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뚜껑문을 찾아 지하실 안을 우왕좌왕 뛰어다니고 있었다. 한편 얼굴에 온통 맹이 들고 피투성이가 된 딘은 루나에게

“고마워”라고 말하고서 그대로 떨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립죽은 지하실 바닥에 그만 주저앉았다. 그의 거무튀튀한 얼굴에는 수많은 채찍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몹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듯이 보였다.

론은 지팡이도 없이 순간이동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론.”

그의 헛된 노력을 지켜보며 루나가 말했다.

“이 지하실에는 완벽한 탈출 방지 장치가 되어 있거든. 우리도 시도해 봤지, 처음에는 말이야. 올리밴더 씨는 여기 오래 계셨고, 안 해 본 게 없으셔.”

헤르미온느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마치 육체적 고통처럼 해리를 관통했다. 해리는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흉터의 고통은 거의 잊어버린 채, 론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뭔가를 찾아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지하실 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쓸데없는 집이란 걸 알고 있었다.

“무얼 또 가져갔느냐고, 뭘? 대답해! 크루시오!”

헤르미온느의 비명 소리가 위층의 벽들을 통해서 울려 퍼졌다. 이제 론은 주먹으로 벽을 쾅쾅 치며 반쯤 흐느끼고 있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해리는 목에 걸린 해그리드의 주머니를 움켜쥐고 닥치는 대로 그 속을 더듬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길 바라며 던블도어의 스니치를 꺼내 흔들어 보기도 하고-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반으로 부러진 불사조 지팡이를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지팡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때 부서진 거울 조각이 반짝거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해리는 순간 더할 나위 없이 투명한 푸른 색을 얻듯 보았다.

던블도어의 눈이 거울 안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해리는 미칠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혀 외쳤다.

“우리는 말포이 저택의 지하실에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 눈은 깜빡이더니 사라져 버렸다.

해리는 정말로 거울에 눈동자가 나타났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거울 조각을 이리저리 기울여 보았지만, 거울 안에 반사되어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갇힌 감옥의 벽과 천장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위층에서는 헤르미온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끔찍하게 비명을 질러 대고 있었고, 그의 옆에서 론은 울부짖고 있었다.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

“어떻게 내 금고 안에 들어갔지?”

그들은 벨라트릭스가 악쓰는 소리를 들었다.

“지하실에 있는 그 조그맣고 더러운 도깨비가 널 도와줬나?”

“우리는 그 도깨비를 오늘 밤 처음 만났어요!”

헤르미온느가 흐느꼈다.

“우린 결코 당신의 금고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건 진짜 칼이 아니에요. 모조품이에요. 단지 모조품이라고요!”

“모조품이라고?”

벨라트릭스가 소리를 질렀다.

“오오, 그럴듯한 이야기로군!”

“하지만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지!”

루시우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레이코, 그 도깨비를 데려오너라. 그 녀석이라면 이 칼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해 줄 수 있을 테니!”

해리는 얼른 지하실을 가로질러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립죽에게로 갔다.

“그립훅”

해리가 도깨비의 뾰족한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반드시 저들에게 그 칼이 가짜라고 말해 줘요. 저자들이 그 칼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립훅. 부탁이에요.....”

그때 누군가 지하실 계단으로 황급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문 뒤에서 드레이코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러서. 뒤쪽 벽에 등을 대고 일렬로 서. 아무 짓 하지마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어!”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순간, 론은 딜루미네이터를 찰칵 눌렀다. 그러자 빛 덩어리들이 다시 그의 주머니 속으로 흑 사라지면서, 지하실은 깜깜한 암흑이 되었다. 문이 확짝 열렸다. 말포이는 창백하고 결연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앞으로 내민 채 걸어 들어왔다. 그는 왜소한 도깨비의 팔을 불잡더니, 질질 끌고 다시 나갔다. 문이 괭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평하고 커다란 소리가 지하실 안에 울려 퍼졌다.

론이 딜루미네이터를 찰칵 눌렀다. 세 개의 빛 덩어리들이 그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와 다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집요정 도비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지금 막 순간이동으로 그들 한가운데에 나타난 것이다.

“도.....!”

해리는 론이 소리치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탁 쳤다. 론은 자신의 실수에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이윽고 머리위의 천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드레이코가 벨라트릭스 앞으로 그립훅을 끌고 가는 소리였다.

테니스공처럼 둥글고 커다란 도비의 눈이 휙휙그래졌다. 도비는 귀 끄트머리에서 발끝까지 덜덜 떨고 있었다. 다시 옛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겁에 질린 것이 분명했다.

“해리 포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도비가 깽깽거렸다.

“도비가 당신을 구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네가 어떻게.....?”

그때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가 해리의 말을 삼켜 버렸다. 헤르미온느가 다시 고문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넌 이 지하실에서 순간이동으로 나갈 수 있지?”

해리가 묻자, 도비는 귀를 펄럭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니?”

도비가 다시 끄덕였다.

“좋아, 도비, 나는 네가 루나, 딘, 그리고 올리밴더 씨를 데리고, 그들을.....그들을.....”

“빌과 플뢰르네 집.”

론이 얼른 말을 받았다.

“틴워스 교외에 있는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가길 원해!”

집요정은 세 번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

해리가 말했다.

“할 수 있겠어, 도비?”

“물론이죠, 해리 포터”

조그만 집요정이 소곤거렸다. 그러고는 서둘러서 거의 의식이 없어 보이는 올리밴더에게 다가갔다. 도비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 제작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루나와 딘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리, 우리는 널 돋고 싶어!”

루나가 속삭였다.

“우리는 너희를 여기에 남겨 두고 갈 수 없어.”

딘이 맞장구 쳤다.

“가, 너희 둘 다! 우리는 빌과 플뢰르의 집에서 다시 만날거야.”

해리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의 흉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불로 지지는 듯이 아팠다. 그리고 잠깐 동안 그는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팡이 제작자가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그는 올리밴더 만큼이나 늙고 바싹 야위었지만, 조롱하듯이 웃고 있었다.

“어서 나를 죽여, 볼드모트. 난 기꺼이 죽음을 맞이 할 테니! 하지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네가 찾는 것을 얻지는 못할 걸.....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해리는 볼드모트의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다시 비명을 내지르는 순간 그 분노를 차단하고, 이 지하실과 자신이 직면한 두려운 현실로 되돌아왔다.

“어서 가!”

해리는 루나와 딘에게 간청했다.

“가라고! 우리가 뒤쫓아 갈게, 그냥 가!”

두 사람이 집요정이 내민 손가락을 꼭 붙잡았다. 또 한번 평 소리가 나더니, 도비와 루나, 딘, 그리고 올리밴더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지?”

루시우스 말포이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쳤다.

“지금 이 소리 들었나? 지하실에서 무슨 소리가 난 거지?”

해리와 론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드레이코.....아니지, 웜테일을 불러! 그에게 얼른 가서 살펴보라고 해!” 머리 위로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 침묵이 이어졌다. 해리는 응접실에 잇는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지 않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그를 해치워야만 해.”

해리가 론에게 속삭였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누군가 감옥에 들어와 세 명의 포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끝장이었다.

“불을 켜 둬.”

해리가 덧붙여 말했다. 문밖에서 누군가 총계를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문 양쪽 벽에 등을 대고 물러섰다.

“물러서라.”

웜테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에서 멀리 떨어져 서, 내가 들어 간다.”

문이 활짝 열렸다. 잠시 동안 웜테일은 공중에 떠 있는 세개의 작은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얼핏 보기에 텅 빈 지하실 안을 명하니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해리와 론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론은 웜테일의 지팡이를 붙잡고 강제로 위로 잡아당겼다. 한편 해리는 그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그의 입을 꽉 막았다. 그들은 침묵속에서 격투를 벌였다. 웜테일의 지팡이가 불꽃을 뿜었다. 은으로 된 웜테일의 손이 해리의 목을 움켜쥐었다.

“무슨 일이냐, 웜테일?”

위에서 루시우스 말포이가 외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론은 짹 짹거리는 웜테일의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흉내 내며 소리쳐 대답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해리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날 죽일 셈인가요?”

해리는 금속 손가락들을 떼어 내려고 애를 쓰면서 간신히 말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당신은 나한테 빛진게 있어요 웜테일!” 순간 은으로 된 손가락들이 느슨해졌다. 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었다. 그러므로 깜짝 놀라면서 여전히 손으로는 웜테일의 입을 막은 채,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다. 해리는 그 쥐새끼 같은 남자의 축축하고 조그만 눈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휙동그레진 것을 보았다. 웜테일도 자기 손이 한 일에, 그것이 무심결에 보여 준 눈곱만 한 자비심의 충동에, 해리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리고 그 약해진 순간을 만회하려는 듯이 계속해서 더욱 거세게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갖겠어.”

웜테일의 손에서 지팡이를 힘껏 잡아채며 론이 속삭였다.

지팡이를 빼앗기고 속수무책이 된 페티그루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커졌다.

순간 그의 눈길이 해리의 얼굴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의 은으로 된 손가락들이 가차 없이 자기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 돼.....”

해리는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손을 잡아당기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기란 불가능 했다. 볼드모트가 그의 가장 겁이 많은 종에게 준, 은으로 된 그 연장은 지팡이를 빼앗긴 무능한 주인을 공격했다. 페티그루는 잠깐 동안 망설이며 연민을 느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목이 졸려 죽어갔다.

“안 돼!”

론도 웜테일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해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웜테일의 목을 조르는 금속 손가락들을 떼어 내려고 용을 썻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페티그루는 점점 창백해졌다.

“레라시오!”

론이 지팡이로 은 손을 가리키며 외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페티그루는 털썩 무릎을 꿇었고, 동시에 헤르미온느가 머리 위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을 내질렀다. 웜테일의 시뻘건 얼굴에서 눈동자가 휘딱 뒤집어 졌다. 그는 최후의 경련을 일으키더니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었다.

해리와 론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러고는 즉시 웜테일의 시신을 뒤쪽 바닥으로 옮겨 놓은 다음, 총계를 뛰어올라 응접실로 이어진 어두운 복도로 다시 들어섰다. 그들은 살짝 열려있는 응접실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움직였다. 이제 벨라트릭스가 그립죽을 내려다보고 있는 광경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립죽은 그리핀도르의 칼을 기다란 손에 쥐고 있었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벨라트릭스의 발치에 쓰러진 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

“어떠냐?”

벨라트릭스가 그립죽에게 물었다.

“그것이 진짜 칼이냐?”

해리는 칼로 찌르는 듯한 흉터의 통증과 싸우며 숨을 죽인채 기다렸다.

“아니요”

그립죽이 대답했다.

“가짜입니다.”

“확실하냐?”

벨라트릭스가 헐떡거리며 물었다.

“정말로 확실해?”

“예.”

도깨비가 대답했다.

별안간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치면서 모든 긴장이 싹 사라졌다.

“좋아.”

벨라트릭스는 지팡이를 아무렇지 않게 휙휙 휘둘러서 도깨비의 얼굴을 또 한 번 깊게 베어 버렸다. 도깨비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발밑에 푹 쓰러졌다. 그녀를 그를 옆으로 가차없이 걷어찼다.

“그러면, 이제.....”

벨라트릭스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둠의 마왕님을 부르겠다.”

벨라트릭스는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검지로 어둠의 표식을 만졌다.

즉시 해리의 흉터가 다시 찍 갈라지는 듯이 느껴졌다. 그를 둘러싼 현실이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는 볼드모트가 되었고, 그의 앞에 있는 피골이 상점한 마법사는 이빨이 몽땅 빠진 채 그를 비웃고 있었다. 볼드모트는 자신을 부르는

신호를 느끼고 몹시 분통이 터졌다. 이미 그들에게 경고했었다. 포터에 관한 일이 아니면 그를 부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만약 그들이 실수를 하는 거라면.....

“나를 죽여, 어서!”

노인이 다그쳤다.

“넌 이기지 못할 거야. 넌 이길 수 없어! 그 지팡이는 결코, 결코 네것이 될.....”

그 순간 볼드모트의 분노가 폭발했다. 초록 불빛이 분출하면서 감방을 가득 채웠고, 연약하고 늙은 몸뚱이는 딱딱한 침대에서 봉 들어 올려졌다가, 숨을 거둔 채로 곤두박질쳤다. 볼드모트는 다시 창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솟구쳤다..... 만약 이놈들이 합당한 사유없이 나를 불러들인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응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엔.....”

벨라트릭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잡종은 그만 처분해도 될 것 같군. 그레이백, 원한다면 저 계집을 가져가시오.”

“안~~~돼!”

갑자기 론이 응접실로 다짜고자 뛰어들었다. 벨라트릭스는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론을 향해 정면으로 지팡이를 겨누었다.

“엑스펠리아르무스!”

론은 웜테일의 지팡이로 벨라트릭스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의 지팡이가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론을 쫓아 뛰어 들어온 해리의 손에 잡혔다. 루시우스, 나시사, 드레이코, 그리고 그레이백은 우왕좌왕하며 날뛰었다. 해리가

“스투페파이!” 하고 외치자, 루시우스 말포이가 벽난로 위로 쓰러졌다.

동시에 드레이코와 나시사, 그레이백의 지팡이에서 빛이 뿜어 나왔다. 해리는 저주를 피해서 재빨리 바닥으로 몸을 던져 소파 뒤로 굴러갔다.

“멈추지 않으면 이 계집은 끝장이야!”

해리가 숨을 헐떡이며 소파 너머로 주위를 둘러봤다. 벨라트릭스는 의식불명인 듯한 헤르미온느를 일으켜 세운 채, 은 단도를 헤르미온느의 목에 들이대고 있었다.

“네놈들의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벨라트릭스가 속삭였다.

“내려놔! 그러지 않으면 이 계집의 피가 얼마나 더러운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론은 웜테일의 지팡이를 움켜진 채 우뚝 서 있었다. 해리 역시 여전히 벨라트릭스의 지팡이를 손에 쥔 채 몸을 일으켰다.

“말했지, 내려놓으라고!”

벨라트릭스는 칼끝으로 헤르미온느의 목을 누르며 소리쳤다. 해리는 그녀의 목에 핏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좋다!”

해리가 외쳤다. 그리고 벨라트릭스의 지팡이를 발밑의 바닥에 떨어뜨렸다. 론도 마찬가지로 웜테일의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두 사람 모두 어깨 높이로 양손을 들었다.

“좋아!”

벨라트릭스가 곁눈질을 했다.

“드레이코, 저것들을 주워 와! 어둠의 마왕님이 오고 계신다. 해리 포터! 네놈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해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흉터는 지독한 통증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볼드모트가 어둡고 사나운 바다를 건너, 먼 곳으로부터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머잖아 그는 순간이동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올 것이다. 해리는 더 이상 빠져나갈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드레이코가 황급히 지팡이들을 챙겨서 돌아오자, 벨라트릭스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씨시, 그레이백이 잡종 계집을 처리하는 동안, 우리는 이 꼬마 영웅들을 다시 룩어야만 하겠어. 장담하건데 오늘 밤 당신이 한 일이 있으니, 어둠의 마왕님께서도 그 계집애를 당신에게 주는 걸 아까워하시지는 않을 거요, 그레이백.”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떨어진 순간, 머리 위에서 기묘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 위를 올려다보았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마구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곧이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하게 절그렁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샹들리에가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벨라트릭스는 바로 그 밑에 있었다. 그녀는 헤르미온느를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몸을 날렸다. 샹들리에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크리스털과 사슬들이 폭발하듯 튀어 오르더니, 헤르미온느와 아직도 그리핀도르의 칼을 꼭 쥐고 있던 도깨비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반짝거리는 크리스털 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드레이코는 피범벅이 된 얼굴을 양손으로 가린 채 몸을 숙이고 있었다. 론이 달려가서 헤르미온느를 그 잔해 속에서 끌어내는 동안, 해리는 재빨리 기회를 잡았다. 그는 안락의자를 뛰어넘어 드레이코의 손아귀에서 세 개의 지팡이를 강제로 빼았았다. 그리고 지팡이 세개를 모두 그레이백에게 겨누었다.

“스투페파이!”

늑대인간은 세 개의 지팡이에서 발사된 주문에 맞아 발이 들린 채로 붕 떠서 천장까지 날아오르더니, 바닥에 텔썩 떨어졌다.

나시사는 아들 드레이코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끌어내고 있었고, 벨라트릭스는 별떡 일어서더니 머리칼을 휘날리며 은 단도를 휘둘렀다. 나시사가 지팡이로 문가를 겨누었다.

“도비!”

나시사가 소리를 질렀고, 벨라트릭스 조차 동작을 멈췄다.

“너! 네 녀석이 샹들리에를 떨어뜨렸.......?”

조그만 집요정을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옛날 여주인을 가리키며 방 안으로 종종 들어왔다.

“당신은 해리 포터를 해쳐서는 안 돼요.”

도비가 깽깽거리며 말했다.

“그놈을 죽여 버려, 씨시!”

벨라트릭스가 악을 썻다. 하지만 또다시 요란하게 평 소리가 나더니, 나시사의 지팡이 역시 허공으로 날아가 방의 반대편에 떨어졌다.

“이 더러운 새끼 원숭이 놈이! 네가 감히 마녀의 지팡이를 가져가? 네놈이 감히 네 주인들을 무시해?”

벨라트릭스가 소리쳤다.

“도비에겐 주인이 없어요!”

집요정이 깽깽거렸다.

“도비는 자유로운 집요정이에요. 그리고 도비는 해리 포터와 그의 친구들을 구하러 온 거예요!”

해리는 흉터에서 전해지는 고통으로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들에게 때가 왔다는 것을, 볼드모트가 그들 앞에 나타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론, 잡아..... 그리고 떠나!”

해리는 지팡이 중 하나를 론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그리고 몸을 숙여서 그림\_hooks을 샹들리에 밑에서 끌어냈다. 그는 여전히 칼을 꼭 쥐고 꿩꽁대는 도깨비를 한쪽 어깨에 들쳐 멘 채, 도비의 손을 꽉 쥐고 순간이동을 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빙글 돌았다.

그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응접실의 마지막 풍경이 힐끗 보였다. 새파랗게 질린 채 굳어버린 나시사와 드레이코의 모습, 붉은 선처럼 보이는 론의 머리카락, 날아오는 흐릿한 은빛 물체, 벨라트릭스의 단도가 방을 가로질러서 그가 사라지고 있는 지점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빌과 플뢰르의 집.....조개껍데기 오두막집.....빌과 플뢰르의 집.....

그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부디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면서 목적지의 이름을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것뿐이었다. 이마의 통증이 그를 꿰뚫었고, 도깨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그리핀도르의 칼날이 등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도비의 손이 그의 손안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집요정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리고 손을 꽉 움켜쥐면서, 그가 함께 있으니 괜찮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

그때 그들은 단단한 땅에 부딪혔다. 짠 바닷내음이 맡아졌다. 해리는 도비의 손을 놓고 털썩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그립죽을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으려 했다.

“괜찮아요?”

도깨비가 몸을 꿈틀하자, 해리가 물었다. 하지만 그립죽은 그저 흐느끼 뿐이었다.

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속을 둘러보았다. 별이 총총한 드넓은 하늘 아래로 멀지 않은 곳에 오두막집 한 채가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오두막집 밖에서 원가 움직이를 걸 본 것 같았다.

“도비, 이게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이니?”

해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와 동시에 말포이에게 빼앗은 지팡이 두 개를 움켜쥐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싸울 준비를 했다.

“우리가 제대로 도착한 거야, 도비?”

해리가 돌아보았다. 조그만 집요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도비!”

집요정이 휙청거렸다. 별들이 그의 커다랗고 빛나는 눈 속에 비쳤다. 동시에 도비와 해리는 집요정의 헐떡이는 가슴에 은으로 된 칼자루가 꽂혀 있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도비.....안돼.....도와줘요!”

해리는 오두막집을 향해,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도와줘요!”

해리는 그들이 마법사인지 머글인지,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짙은 얼룩이 도비의 가슴 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비가 애원하는 얼굴로 해리를 향해 가느다란 두 팔을 뻗었다는 생각뿐이었다. 해리는 도비를 붙잡아서 차가운 풀위에 비스듬히 눕었다.

“도비,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집요정의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원가 말을 하려고 애를 쓰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해리.....포터.....”

이윽고 집요정은 부르르 몸서리를 치더니 고요해졌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그의 두 눈은 별빛을 받아 반짝이는 커다란 유리 공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 제 24 장 지팡이 제작자

그것은 마치 오랜 악몽 속으로 한없이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일순간 해리는 또다시 호그와트의 가장 높은 탑 밑에 놓인 덤블도어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벨라트릭스의 은 단도에 찔려서 풀밭에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조그만 몸뚱이를 명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집요정이 두 번 다시 불러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여전히 “도비.....도비.....”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이윽고 해리는 결국 그들이 목적지에 제대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빌과 플뢰르, 딘과 루나가 집요정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를 빙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헤르미온느?”

해리가 갑자기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어디 있지?”

“론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헤르미온느는 괜찮아.”

빌이 대답했다.

해리는 다시 도비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한 손을 뻗어서 집요정의 몸에 박힌 날카로운 칼을 뽑았다. 그런 다음 걸옷을 벗어서 담요처럼 도비를 덮어주었다.

근처 어디선가 파도가 밀려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의논을 하며 결정을 내리는 동안, 해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해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딘이 부상당한 그립훅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플뢰르는 그들을 황급히 따라갔다. 빌은 집요정을 땅에 묻어 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동의했다. 그러면서 조그만 몸뚱이를 내려다 보았다. 순간 흉터가 쿡쿡 쑤시면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머릿속 한편에서 마치 긴 망원경을 거꾸로 들여다보듯이, 볼드모트가 말포이 저택에 남겨진 자들을 징벌하는 광경이 떠올랐다. 볼드모트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도비에 대한 해리의 비통한 마음은 그 분노조차 압도하는 듯 했다. 그것은 광대하고 고요한 바다를 지나서 비로소 해리에게 도달한, 머나먼 곳에서 부는 폭풍우 같았다.

“난 제대로 해 주고 싶어요.”

해리가 완전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서 한 말은 이게 처음이었다.

“마법을 쓰지 않고요, 혹시 여기 삽이 있나요?”

잠시 후에 해리는 빌이 지정해 준 대로, 정원의 제일 가장자리 덤불 사이에 혼자서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를 가슴에 담은 채, 몸의 움직임을 음미하며 윽록히 땅을 팠다. 마법을 쓰지 않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떨어지는 땅방울 하나하나가, 손에 잡히는 물집 하나하나가 그들의 목숨을 구해 준 집요정에게 바치는 선물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이마의 흉터가 확확 타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통증을 지배했다. 통증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었다. 마침내 볼드모트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차단하는 법을, 통제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해리가 스네이프로부터 배우기를, 덤블도어가 원했던 바로 그것을. 마치 시리우스의 죽음으로 완전히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볼드모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도비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지금은 그자의 생각이 해리의 머릿속에 침투할 수가 없었다. 슬픔이 볼드모트를 몰아낸 것이다..... 물론 덤블도어라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해리는 흉터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무시한 채, 흐르는 땅에 슬픈 마음을 담으며 꽁꽁 얼어붙은 땅을 점점 더 깊이 파 내려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이 친구가 되어 주었다. 말포이 저택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들었던 말들도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서서히 펼쳐졌다.

규칙적인 팔의 흔들림에 맞추어 그의 생각도 움직였다.

성물.....호크룩스.....성물.....호크룩스.....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마음에 들려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그 기괴한 갈망에 불타오르지 않았다. 상실감과 두려움이 그것을 깨 버린 것이다. 그는 마치 뺨을 한대 찰싹 얹어맞고 잠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해리는 점점 더 깊이 무덤을 파 내려갔다. 그는 오늘 밤 볼드모트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자가 누엔가드의 제일 높은 감옥에서 누굴 죽였는지, 그리고 왜 죽였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는 웜테일을 생각했다.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베푼, 단 한 번의 아주 작은 자비심 때문에 목숨을 잃은.....덤불도어는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알고 있었을까?

해리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다만 론과 딘이 그를 다시 찾아왔을 때, 어둠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뿐이었다.

“헤르미온느는 어때?”

“훨씬 나아졌어. 플로르가 간호를 해주고 있어.”

해리는 그들이 간단하게 지팡이를 휘둘러서 완벽한 무덤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고 물어 오면, 통명스럽게 쏘아붙여 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 삽을 들고 대뜸 그가 파 놓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충분한 깊이가 될 때까지 묵묵히 작업을 함께 했다.

해리는 겉옷으로 집요정을 좀 더 포근하게 싸 주었다. 론은 무덤 가장자리에 앉아서 신발과 양말을 벗더니 집요정의 맨발에 신겨 주었다. 딘은 양털 모자를 내놓았다. 해리는 그 모자를 도비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씌워 주고 박쥐 같은 두 귀를 덮어 주었다.

“눈을 감겨 줘야지.”

해리는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빌은 여행용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플로르는 하얗고 커다란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앞치마 호주머니 밖으로 병이 하나 비죽 튀어나와 있었는데, 해리는 그것이 스켈레 그로라는 걸 알아차렸다. 한편 창백한 얼굴의 헤르미온느는 빌려 입은 실내가운으로 몸을 감싼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론이 한 팔로 어깨를 감싸 주었다. 플로르의 외투 하나를 대충 걸친 루나는 몸을 웅크리고 앉더니, 집요정의 양쪽 눈꺼풀 위에 살짝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유리처럼 반들거리는 집요정의 눈동자 위로 스르르 눈꺼풀이 감겼다.

“자,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루나가 조용히 말했다.

해리는 집요정을 무덤 속에 넣고 가느다란 팔다리를 편안한 자세로 놓아 주었다. 그리고 다시 무덤 밖으로 기어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 조그만 동동이를 내려다보았다. 문득 황금 의자가 몇 줄씩 늘어서고 제일 앞자리에는 마법부장관이 앉아 있고 덤플도어의 업적을 찬양하는 추도문과 웅장한 하얀 대리석 무덤이 있었던 덤플도어의 장례식 장면을 떠올리며, 해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도비야말로 그런 장엄한 장례식을 치를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여기 덤플 사이에 대충 파 놓은 구덩이 속에 누워 있는 것이다.

“뭔가 한마디씩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먼저 할까?”

루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리자, 루나는 무덤 바닥에 누워있는 죽은 집요정에게 추모의 말을 건넸다.

“그 지하실에서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도비. 그토록 착하고 용감한 네가 목숨을 잃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네가 우리를 위해 해 준 일들을 언제까지나 기억할거야. 이젠 부디 행복하게 잠들기를 빌어.”

루나는 고개를 돌려, 다음 말을 기대하며 론을 쳐다보았다. 론은 목청을 가다듬더니, 잔뜩 목이 메어 중얼거렸다.

“그래.....고마워, 도비.”

“고마워.”

딘도 중얼거렸다.

해리는 침을 끌꺽 삼켰다.

“잘 가, 도비”

해리는 단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루나가 그를 대신해서 할 말을 모두 해 주었다. 빌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무덤가에 쌓여 있던 흙더미가 스르르 떠오르더니 무덤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그리고 작고 붉은 봉분이 만들어졌다.

“잠깐 나 좀 여기 있다 가면 안 될까?”

해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그들은 몇 마디 말을 중얼거렸지만, 해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등을 부드럽게 턱탁 두드리는 손길들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모두 천천히 오두막집으로 돌아갔고, 해리 혼자 집요정 곁에 남았다.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파도에 씻겨 매끈매끈해진 크고 흰 돌들이 꽃밭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었다. 해리는 그중에서 가장 큰 돌을 하나 집어다가 도비의 머리가 놓여 있는 자리에 배개처럼 옮겨놓았다. 그리고 지팡이를 찾으려고 호주머니 속을 뒤졌다.

호주머니 속에는 모두 두 개의 지팡이가 있었다. 해리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느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다만 누군가의 손에서 그 지팡이들을 빼앗은 기억만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았다.

해리는 그중에서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짧은 지팡이를 골랐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돌을 겨냥했다.

그가 중얼거리는 주문에 따라서, 돌 표면에 깊이 새긴 자국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헤르미온느라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아마 좀 더 빨리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란걸 해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손수 무덤을 파고 싶어했던 것처럼, 묘비도 자신이 새기고 싶었다. 해라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을때, 돌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 자유로운 집요정 도비가 잠들다.

해리는 잠깐 동안 자신의 작품을 내려다본 후에, 발길을 옮겼다. 흉터는 아직까지 약간씩 쑤시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무덤을 파면서 떠올랐던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생각들로.

그가 작은 현관 복도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빌에게 쏠려 있었다. 환한 색깔의 거실은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바닷가에 흘러온 나무토막들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해리는 카펫에 진흙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문가에 가만히 서서 듣기만 했다.

“..... 다행히 그때 지니는 방학 중이었어. 만약 호그와트에 있었다면, 우리가 지니를 찾기 전에 그자들이 먼저 데려가 버렸을 거야. 하지만 이제 지니도 안전해.”

주위를 둘러보면 빌은 문가에 서 있는 해리를 발견했다.

“나는 식구들을 모두 버로우 밖으로 피신시키고 있는 중이었어.”

빌이 설명했다.

“식구들은 뮤리엘 할머니 댁으로 옮겼어. 이젠 죽음을 먹는 자들도 론이 나와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 가족을 노릴거야, 하지만 미안해하지는 마.”

빌이 해리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고 황급히 덧붙였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단지 시간문제였으니까. 아버지는 몇 달 동안 줄곧 그런 말씀을 해 오셨어. 우린 가장 악명 높은 동족의 배신자 가족이잖아.”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죠?”

해리가 물었다.

“피델리우스 마법이야. 아빠가 비밀 파수꾼이지. 이 오두막집에도 똑같은 마법을 걸어 놓았어. 이곳은 내가 비밀 파수꾼이야. 우리 가족은 아무도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지. 일단 올리밴더 씨와 그립죽이 어느정도 회복되면, 우리는 그들도 뮤리엘 할머니 댁으로 옮길 생각이야. 여긴 방이 몇개 없지만, 할머니 댁에는 많거든, 그립죽의 다리는 낫는 중이야. 플뢰르가 그에게 스켈레 그로를 주었거든. 아마 한시간 이내에 그들을 이동시킬 수 있을 거야.”

“안 돼요.”

해리가 반대하자, 빌은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둘 다 여기 있어야 해요.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해리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권위를 느꼈다. 도비의 무덤을 파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목표에 대한 확신과 직감이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씻으러 갈게요.”

해리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빌에게 말했다. 그의 손은 아직도 도비의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었다.

“그런 다음에 곧장 그들을 만나 봐야겠어요.”

해리는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세면대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창문 밑에 있었다. 연한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수평선 위로 새벽이 밝아 오고 있었다. 해리가 손을 씻고 있을 때, 도다시 어두운 정원에서 떠올랐던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도비는 자신을 그 지하실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결코 말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자신이 무었을 보았는지 알고 있었다. 마음을 깨뚫는 듯한 푸른 눈 하나가 부서진 거울 조각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 후에 도움이 찾아왔다. 호그와트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해리는 손을 닦았다.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도,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도 전혀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해리는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새벽에, 모든 사건의 핵심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여전히 흉터는 쑤시고 아팠다. 해리는 볼드모트 역시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해리는 이해했지만, 또한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본능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머리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의 머릿속에서는 덤블도어가 마치 기도를 하듯이 합장한 손가락 너머로 해리를 유심히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은 론에게 딜루미네이터를 주셨습니다. 그를 잘 알고 계셨죠.....그래서 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웜테일 역시 잘 알고 계셨죠.....그의 마음 속 어딘가에 약간의 후회가 남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 그 두 사람에 대해 그토록 잘 알고 계셨다면.....그럼 저에 대해서는 뭘 알고 계셨나요, 덤블도어 교수님?

저는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걸 알아낼지 당신은 아셨나요? 그 때문에 당신은 이 일을 이토록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도록? 해리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눈부신 태양의 환한 황금빛 테두리가 수평선 위로 서서히 떠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는 깨끗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수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해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현관 복도로 돌아갔다. 그러는 동안 흉터가 성이 나서 고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면을 스치는 잠자리의 그림자처럼 재빠르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물의 윤곽이었다.

빌과 플뢰르가 계단 발치에 서 있었다.

“저는 그립죽과 올리밴더 씨와 이야기를 해야해요”

해리가 말했다.

“안 돼.”

플뢰르가 입을 열었다.

“너능 기다려야 해. 아리. 두사람 다 아프고 피곤해.”

“미안해요.”

해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들과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말이죠. 아주 급한 일이에요.”

“해리,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빌이 따져 물었다.

“넌 별안간 죽은 집요정과 반쯤 의식을 잃은 도깨비를 데리고 나타나질 않나, 헤르미온느는 마치 고문이라도 당한 꼴이고, 론 너서근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질 않으려고 하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형에게 말해 줄 수가 없어요.”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형은 기사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덤블도어 교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남기셨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플뢰르가 짜증스러운 듯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하지만 빌은 그녀를 무시한 채, 해리만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깊은 흉터로 일그러진 빌의 얼굴은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다. 마침내 빌이 입을 열었다.

“좋아, 누구랑 먼저 이야기 하고 싶니?”  
해리는 잠시 망설였다. 모든 게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다.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다. 호크룩스나 성물이냐?

“그립죽이요.”  
해리가 말했다.

“그립죽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치 전력질주하다가 방금 커다란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처럼 그의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다.

“그럼 위로 올라가자.”  
빌이 앞장을 서며 말했다.

해리는 몇 계단을 올라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너희 둘도 함께 가야 해!”

해리는 거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반쯤 몸을 숨긴 채 잠복해 있던 론과 헤르미온느를 불렀다.

두 사람 모두 묘하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얼른 불빛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

“몸은 좀 어때?”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너 정말 굉장했어. 그 여자가 널 그렇게 고문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다니.....”

헤르미온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론은 한 팔로 그녀를 꼭 껴안았다.  
“이제 뭘 할 건데, 해리?”

론이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어서 와”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빌의 뒤를 따라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 작은 총계참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문 세 개가 출지어 나 있었다.

“이 방이야.”  
빌이 그들 부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며 말했다. 이 방 역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였는데, 지금은 일출 때문에 황금빛 점들이 훌뿌려져 있었다.  
해리는 창가로 걸어가서 이 멋진 풍경을 등지고 돌아섰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흉터의 통증을 느끼며 기다렸다. 헤르미온느는 화장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론은 그 의자의 팔걸이에 걸터앉았다.

빌이 왜소한 도깨비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침대위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립죽은 거친 목소리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이윽고 빌이 그들만 남겨 둔 채 방문을 닫고 가버렸다.

“누워 있는데 나오게 해서 미안해요.”  
해리가 인사를 건넸다.

“다리는 좀 어떤가요?”  
“아파, 하지만 낫는 중이야.”

도깨비가 대답했다. 그는 아직도 그리핀도르의 칼을 꼭 움켜쥔 채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적대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끌리는 듯 했다. 해리는

누르스름한 도깨비의 피부와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새까만 눈동자를 유심히 보았다. 플뢰르가 도깨비의 신발을 벗겨 주었었는데, 그의 긴 발은 더러웠다. 집요정보다는 덩치가 컷지만, 그렇다고 썩 큰 편은 아니었다. 반면 둥근 머리는 인간보다 훨씬 더 컸다.

“당신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해리가 말을 꺼냈다.

“너에게 네 금고를 보여 준 도깨비가 바로 나였다고? 네가 그린고트를 난생처음 방문 했을 때 말이야.”  
그립훅이 얼른 말을 가로챘다.

“난 기억하고 있다. 해리 포터. 도깨비들 사이에서도 넌 아주 유명하니까.”  
해리와 도깨비는 상대방을 살피며 서로 마주 보았다. 해리의 흉터는 아직도 쿡쿡 쑤시고 있었다. 해리는 그립훅과의 만남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할까 봐 두렵기도 했다. 해리가 어떤 식으로 부탁하는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도깨비가 먼저 침묵을 깼다.

“집요정을 땅에 묻어 주더군.”  
도깨비가 뜻밖에도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로 말했다.

“옆방 침실의 창문을 통해서 널 봤지.”  
“그래요.”

해리가 말했다.

그립훅은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까만 눈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넌 아주 이상한 마법사다. 해리 포터.”

“어떤 점에서요?”

해리가 무심결에 흉터를 문지르며 물었다.

“넌 무덤을 팔아.”

“그래서요?”

그립훅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해리가 머글처럼 행동했다고 비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립훅이 도비의 무덤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그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해리는 공격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립훅, 부탁할 게 있는데요.”

“그리고 넌 도깨비도 구했어.”

“뭐라고요?”

“날 여기로 데려왔잖아. 내 목숨을 구했어.”

“그래서 설마 기분이 나쁜 건 아니죠?”

해리가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니다. 해리 포터.”

그립훅은 한 손가락으로 턱 밑에 난 가느다란 검은 수염을 비비 꼬며 말했다.

“하지만 넌 아주 이상한 마법사다.”

“맞아요.”

해리가 말했다.

“어쨌든 난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립훅,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도깨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런 사람은 생전 처음 보았다는 듯이, 잔뜩 눈살을 찌푸린 채 계속 해리를 노려보기만 했다.

“그린고트 금고에 들어가야만 해요.”

해리는 이렇게 다짜고짜 말을 꺼낼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번개 모양의 흉터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서 또다시 호그와트의 형상이 눈앞을 스치는 순간, 그 말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해리는 머릿속을 단단히 차단시켜 버렸다. 먼저 그립훅과 거래를 해야만 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미친 사람 보듯 해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지만, 그립훅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린고트 금고에 들어가겠다고?”

도깨비가 물었다. 그리고 약간 얼굴을 징그리며 침대 위에서 몸의 위치를 바꿔 앉았다.

“그건 불가능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벌써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론이 반박하고 나섰다.

“맞아요.”

해리도 말했다.

“그립죽,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이었죠. 7년전 제 생일날 말이에요.”

“그때 문제의 금고는 비어 있었어.”

도깨비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해리는 비록 그립죽이 그린고트를 떠나긴 했지만, 은행의 보안이 깨질 수 있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보안이 극히 취약했던 거야.”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금고는 빙계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보안도 꽤 철저할 것 같고요. 그 금고는 레스트랭 가문의 것이거든요.”

해리가 말했다.

헤르미온느와 론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일단 그립죽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 줄 시간은 충분했다.

“꿈도 꾸지마.”

그립죽이 딱 잘라 말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만일 우리의 마룻바닥 밑에서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닌 보물을 찾게 된다면.....”

“도둑이여, 경고하노니, 주의하시오.....네, 나도 알아요. 기억하고 있죠.”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난 보물을 노리는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뭔가 훔치려는게 아니라고요. 내 말 믿을 수 있겠어요?”

도깨비가 뻐딱하게 해리를 쳐다보았다.

이마에 난 번개 모양 흉터가 쿡쿡 쑤셨지만, 해리는 무시했다. 그리고 그 통증이나, 통증의 유혹을 인정하길 거부했다.

“만약 개인적인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마법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너일 거다, 해리 포터.”

그립죽이 마침내 말했다.

“도깨비와 요정들은 네가 오늘 밤에 보여 준 것과 같은, 그런 존중과 보호에는 익숙하지 않아. 지팡이 소지자들로부터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지팡이 소지자라고요?”

해리가 그의 말을 되풀이 했다. 상처가 찌르는 듯이 아파 오면서 볼드모트가 그의 생각을 북쪽으로 돌려 놓는 순간, 그리고 해리가 옆방에 잇는 올리밴더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순간, 그 말이 묘하게도 그의 귓가에 와 달았던 것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권리는 오랫동안 마법사들과 도깨비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다.”

도깨비가 조용히 말했다.

“도깨비들은 지팡이가 없어도 마법을 쓸 수 있잖아요.”

론이 말했다.

“그건 하찮은 거야! 마법사들은 다른 마법 생물들과 지팡이학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다! 우리 도깨비들이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거지!”

“글쎄요, 도깨비들도 자신들의 마법을 절대 알려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론이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칼이나 무기 제조법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아요. 도깨비들은 마법사들이 절대 모르는 금속 제련법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야 아니야.”

해리는 그립죽의 얼굴이 점점 더 붉으락푸르락해지는 걸 보고 재빨리 론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건 마법사 대 도깨비나 혹은 다른 어떤 마법 생물들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립죽이 심술궂은 웃음소리를 냈다.

“그렇지 않아. 이건 바로 그 문제야! 어둠의 마왕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자, 너희 마법사들은 우리 동족들을 훨씬 더 혹독하게 지배하고 있어! 그린고트는 마법사들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집요정들은 살육을 당하고 있지. 그렇지만 지팡이 소지자들 중 누구 하나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나?”

“우리들이요!”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그녀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허리를 꽂꽂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우리들이 반대해요! 게다가 저 역시 그 어떤 도깨비나 집요정 못지않게 쫓기는 몸이라고요, 그립죽! 나는 잡종이거든요!”

“자신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마.”

론이 투덜거렸다.

“왜 그렇게 부르면 안돼는데?”

헤르미온느가 따져 물었다.

“잡종이라는게 나는 자랑스러워! 그립죽, 이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 나는 당신보다 나을 게 전혀 없어요! 말포이 저택에서 그자들이 고문 상대로 고른 것도 바로 나였다고요!”

헤르미온느는 이렇게 말하면서, 실내 가문의 옷깃을 옆으로 젖혔다. 그러자 목에 벨라트릭스가 남긴 가느다란 칼자국이 빨갛게 드러났다.

“도비를 해방시킨 사람이 바로 해리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나요?”

헤르미온느가 마구 쏘아댔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집요정을 해방시키고 싶어 했다는 걸 당신이 아느냐고요!”

이 말에 론은 마음이 불편한 듯 헤르미온느의 의자 팔걸이 위에서 안절부절못했다.

“그립죽, 당신도 우리만큼 그 사람을 무찌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도깨비는 해리를 볼 때 만큼이나 신기한 눈으로 헤르미온느를 빤히 쳐다보았다.

“레스트랭 가문의 금고 안에서 네가 찾는 게 뭐냐?”

도깨비가 불쑥 물었다.

“그 안에 있는 칼은 가짜다. 이게 진짜야.”

도깨비는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보아하니 너희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양이군.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하지만 그 금고 안에는 가짜 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리가 물었다.

“혹시 거기서 다른 것들도 보지 않았나요?”

해리의 심장이 전보다도 훨씬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해리는 흉터의 통증을 무시하기 위해서 두 배는 더 애를 써야 했다.

도깨비가 또다시 손가락으로 수염을 비비 꼬기 시작했다.

“그린고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우리 도깨비들의 규범에 어긋나는 짓이야. 우린 전설적인 보물들의 수호자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그리고 종종 그 물건들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기도 하지.”

도깨비가 칼을 어루만졌다. 그의 새까만 눈동자가 또다시 해리와 헤르미온느, 그리고 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무 어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많은 상대와 싸우기에는.”

“우리를 도와줄 건가요?”

해리가 말했다.

“도깨비의 도움 없이 금고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어디.....한번 생각은 해 보지.”

그립죽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론이 발끈해서 입을 여는 순간, 헤르미온느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고맙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도깨비는 답례로 커다랗고 동그란 머리를 꼬덕이더니, 짧은 다리를 구부렸다.

그리고 빌과 플리르의 침대 위에 여봐란듯이 당당하게 드러누우며 말했다.

“그런데 스켈레 그로가 이제 제 일을 다 한 것 같군, 드디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네, 알겠어요.”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방을 나오기 전에 그는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도깨비 옆에 있던 그리핀도르의 칼을 집어 들었다. 그립죽은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리는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도깨비의 눈에서 원한의 눈빛을 본 것 같았다.

“쥐새끼 같은놈.”

론이 속삭였다.

“저놈은 계속 우리가 매달리는 걸 즐기고 있어.”

“해리.”

헤르미온느가 두 사람을 문가에서부터 여전히 어두운 충계참 한가운데로 끌어내며 속삭였다.

“네가 한 말이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니? 레스트랭 가문의 금고에 호크룩스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

해리가 대답했다.

“벨라트릭스는 우리가 거기에 갔다 온 줄 알았을때, 완전히 겁에 질렸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왜 그랬겠어? 우리가 월 보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가져갔을 거리고 그 여자가 생각할 만한 물건이 또 뭐가 있겠니? 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그 여자가 망연자실한 게 될까?”

“하지만 우린 그 사람이 한때 있었던 장소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자가 뭔가 중요한 일을 했던 곳 말이야.”

론이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레스트랭의 금고 안에도 들어간 적이 있을까?”

“그자가 그린고트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몰라.”

해리가 말했다.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은 금이라곤 전혀 갖지 못했어. 아무도 그에게 물려준 게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바깥에서 그린고트를 본 적은 있었겠지. 다이애건 앤리에 처음 갔을 때 말이야.”

흉터가 계속 욱신욱신 쑤셨지만 해리는 무시했다. 올리밴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린고트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길 바랐던 것이다.

“내 생각에 그자는 그린고트 금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무척 부러워했을 것 같아. 그거야말로 마법사 세계에 속해 있다는 진정한 상징처럼 보였겠지. 게다가 이 점도 잊어서는 안돼. 그자는 벨라트릭스와 그녀의 남편을 무척 신뢰했어. 그들은 그가 몰락하기 전에도 가장 헌신적인 종이었고, 그가 종적을 감춘 후에도 줄곧 그를 찾았다는 사람들이야. 그자가 부활했던 그날 밤에, 나는 그자가 하는 말을 직접들었어.”

해리가 흉터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벨라트릭스에게 그게 호크룩스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루시우스 말포이에게도 그 일기장의 진실을 절대 말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대단히 소중한 보물이니까 그녀의 금고 안에 잘 넣어 두라고 말했을 테지. 뭔가를

감추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해그리드가 나에게 말해줬어.....호그와트를 제외하면 말이지.”

해리가 말을 끝내자, 론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넌 진짜로 그자를 파악하고 있구나.”

“그자의 일부만.”

해리가 말했다.

“아주 일부분이지.....내가 덤블도어 교수님을 그만큼이라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어디 두고 보자고. 자, 이제 올리밴더 씨에게 가자.”

론과 헤르미온느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감탄하는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라서 작은 충계참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빌과 플로르의 방 맞은편에 있는 방문을 두드렸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어오게!”라고 대답했다.

지팡이 제작자는 두 개의 침대 중 창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그는 1년 넘게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서, 해리가 알기로 최소한 한번은 고문을 당했다. 바싹 마른 그는 누렇게 뜯 피부 밑으로 얼굴의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움푹 깨진 눈구멍 속에서 그의 커다란 은빛 눈동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다. 담요 위에 놓여 있는 두 손은 뼈다귀나 다름없었다. 해리는 빈 침대에 론과 헤르미온느와 나란히 앉았다. 이곳에서는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지 않았다. 이 방은 절벽 꼭대기에 있는 정원과 새로 만든 무덤을 마주하고 있었다.

“올리밴더 씨, 이렇게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리가 입을 열었다.

“이보게나.”

올리밴더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자네는 우리 목숨을 구해 주었네. 우리는 그 안에서 꿈짝없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러니 내가 무엇으로 자네에게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게야.”

“저희도 기쁩니다.”

해리의 흉터가 쿡쿡 쑤셨다. 해리는 알고 있었다. 볼드모트보다 앞서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혹은 그를 막으려고 시도할 시간조차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숨막히는 공포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하지만 그립혹과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해리는 목에 걸고 있던 주머니 속을 뒤져서 반으로 부러진 지팡이를 꺼냈다.

“올리밴더 씨, 전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뭐든지, 뭐든지 말만 하게.”

지팡이 제작자가 힘없이 말했다.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올리밴더는 떨리는 한 손을 내밀었다. 해리는 끊어질 듯이 겨우 이어져 있는, 두 동강이 난 지팡이를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서양호랑가시나무와 불사조의 깃털.”

올리밴더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8 센티미터, 부드럽고 유연하지.”

“그렇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이걸 고칠 수가.....”

“없네.”

올리밴더가 속삭였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지팡이는 내가 아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어.”

해리는 이런 대답을 들을 거라고 미리 단단히 각오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덜컹했다. 그는 두 동강이 난 지팡이를 집어 들어 다시 목에

건 주머니 속에 넣었다. 올리밴더는 부러진 지팡이가 있던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다. 그리고 해리가 말포이 저택에서 가져온 두 개의 지팡이를 호주머니에서 꺼낼 때 까지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이 지팡이들을 알아보시겠어요?”

해리가 물었다.

지팡이 제작자는 첫 번째 지팡이를 집어 들더니 흐릿한 눈앞으로 바싹 갖다 댔다. 그리고 손마디가 튀어나온 손가락 사이에 지팡이를 넣고 살짝 구부리면서 돌려 보았다.

“호두나무와 용의 심장이로군.”

그가 말했다.

“32 센티미터, 견고함. 이 지팡이는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의 것이었어.”

“그리고 이것은요?”

올리밴더가 똑같은 시험을 했다.

“산사나무와 유니콘의 털. 25 센티미터. 적당한 탄력성. 이건 드레이코 말포이의 지팡이였는데.”

“였다고요?”

해리가 되물었다.

“지금도 그의 것이 아닌가요?”

“아닐 걸세, 혹시 자네가 이걸 빼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자네 것일세. 물론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중요하지. 또한 많은 부분이 지팡이 자체에 달려 있기도 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팡이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면, 지팡이의 충성심도 변하게 되어 있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마치 지팡이에게 감정이 있더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지팡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더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해리가 말했다.

“지팡이는 마법사를 선택한다네.”

올리밴더가 말했다.

“그것만큼은 지팡이학을 연구한 우리들에게는 항상 자명한 일이었지.”

“하지만 지팡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오, 그럼. 자네가 어떤 마법사든 마법사이기만 하면, 거의 모든 도구를 통해서도 마법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지. 하지만 제일 좋은 결과는 언제나 마법사와 지팡이 사이에 가장 강한 유대감이 있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네. 그 둘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기 짝이 없어. 최초의 끌림. 그 다음에는 함께 겪은 경험의 여정. 지팡이는 마법사로부터 배우고, 마법사는 지팡이로부터 배우지.”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곤 했다. 그 소리가 몹시 구슬프게 들렸다.

“저는 이 지팡이를 드레이코 말포이로부터 강제로 빼았았어요.”

해리가 말했다.

“그럼 제가 이걸 써도 안전할까요?”

“내 생각에는 그걸 것 같네. 원래 지팡이의 소유권은 미묘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를 받지. 하지만 빼앗은 지팡이는 대개 새로운 주인에게 복종하기 마련이라네.”

“그럼 저도 이 지팡이를 써야 할까요?”

론이 호주머니에서 웰테일의 지팡이를 꺼내 올리밴더에게 건네며 물었다.

“밤나무와 용의 심장. 23 센티미터. 부서지기 쉬움. 나는 납치당한 직후에 피터 페티그루를 위해 강제로 이걸 만들어야 했지. 그래, 자네가 이걸 빼앗았다면, 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보다 자네의 명령에 더 기꺼이 따르고 잘할 걸세.”

“그렇다면 모든 지팡이가 다 그런가요?”

해리가 물었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네.”

올리밴더가 대답했다. 불룩 튀어나온 그의 눈이 한동안 해리의 얼굴에 머물렀다.

“자넨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는군, 포터군. 지팡이학은 아주 복잡하고도 신비한 마법의 한 갈래라네.”

“그렇다면 지팡이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전 주인을 반드시 죽여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해리가 물었다.

올리밴더가 침을 꿀꺽 삼켰다.

“죽여야 한다고? 아니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네.”

“하지만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해리가 말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더욱 빨라지면서, 동시에 흉터의 통증도 점점 더 격렬해졌다.

해리는 볼드모트가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어느 한 지팡이에 대한 전설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 지팡이들일지도 모르지만. 살인에 의해서 손으로 손으로 전혀 내려온다는…….”

올리밴더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눈처럼 하얀 배개위에 누운 그는 연한 잿빛이었다. 핏줄이 서고 커다란 그의 두 눈은 공포 비슷한 것으로 인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런 지팡이는 딱 하나뿐이야. 내가 알기로는.”

올리밴더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팡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해리가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올리밴더가 순 익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듯이 론과 해르미온느를 애태개 쳐다보았다.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알지?”

“그자는 아저씨에게 우리 지팡이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해리가 말을 이었다.

올리밴더는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그자가 나를 고문했어. 자넨 그걸 이해해 줘야만 해! 크루시아투스 저주였어. 나…… 나는 알고 있는 사실을 그자에게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네. 짐작하는 사실까지 모두 다!”

“저도 이해해요.”

해리가 말했다.

“아저씨는 그자에게 똑같은 지팡이 심에 대해서 말해주었지요? 그리고 다른 마법사의 지팡이를 빌려야만 한다고 알려주었고요.”

올리밴더는 해리가 이토록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해리가 말을 이었다.

“제 지팡이는 여전히 빌린 지팡이를 이겼지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나요?”

올리밴더는 방금 고개를 끄덕였을 때만큼이나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런 일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네. 그날 밤에 자네 지팡이는 참으로 특이한 일을 한 걸세. 똑같은 지팡이심의 연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문 경우지. 하지만 어째서 자네 지팡이가 빌린 지팡이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살인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는 지팡이 말이에요. 제 지팡이가 뭔가 이상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사람은 돌아와서 바로 그 지팡이에 대해 물었죠, 그렇지 않나요?”

“자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지?”

해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 물었지.”

울리밴더가 속삭였다.

“그자는 죽음의 지팡이니, 운명의 지팡이니, 혹은 딱총나무 지팡이니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그 지팡이에 대해서 내가 말해 줄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알고 싶어 했네.”

해리는 곁눈질로 힐끗 헤르미온느를 보았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이었다.

“어둠의 마왕은..”

울리밴더는 겁에 질려서 한껏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다.

“내가 만들어준 지팡이-주목나무와 불사조의 깃털. 34 센티미터-에 항상 만족해했지. 그 똑같은 지팡이 심의 연결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야. 이제 그자는 좀 더 강력한 다른 지팡이를 찾고 있어. 자네의 지팡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말이야.”

“하지만 제 지팡이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단 사실을 그자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벌써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냐!”

헤르미온느가 두려움이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해리. 그자가 어떻게 그걸.”

“프리오리 인칸타템 때문이야.”

해리가 설명했다.

“우린 말포이의 집에 네 지팡이와 블랙손 지팡이를 두고 왔어. 헤르미온느, 만약 그자들이 그 지팡이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최근에 사용한 주문들을 다시 되풀이하게 한다면, 네 지팡이가 내 지팡이를 부러뜨렸고, 네가 그 지팡이를 고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사실도 알게 될거야. 그리고 내가 그 후로 줄곧 블랙손 지팡이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겠지.”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약간 혈색이 돌아왔던 헤르미온느의 얼굴에서 핏기가 썩 가졌다. 론은 나무라는 표정으로 해리를 한 번 쳐다보고는 입을 열었다.

“지금은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울리밴더가 끼어들었다.

“어둠의 마왕은 더 이상 단지 자네를 없애기 위해서 딱총나무 지팡이를 찾고 있는게 아니라네, 포터 군. 그자는 그 지팡이가 자신을 천하무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손에 넣겠다고 결심한 걸세.”

“과연 그럴까요?”

“딱총나무 지팡이의 주인은 언제나 공격을 당할 걸 두려워 해야만 했지.”

울리밴더가 말했다.

“하지만 죽음의 지팡이를 손에 넣은 어둠의 마왕을 생각해 보면.....솔직히 말해서 정말이지 아주 굉장한 일이야.”

해리는 문득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울리밴더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볼드모트에게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난 마당에도, 울리밴더는 그 지팡이를 손에 넣은 어둠의 마왕을 생각하자, 혐오감에 몸서리치는 만큼이나 흥분에 떨며 전율하는 것 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정말로 그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오, 그럼.”

울리밴더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역사를 통해서 그 지팡이의 행로를 추적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네. 물론 공백들이 있지. 그리고 지팡이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나 숨겨져서 오랫동안 모습을 감춘 시기도 있었지. 하지만 그것은 항상 다시 나타나곤 했어. 그 지팡이는 지팡이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성질들을 갖고 있거든. 비록 일부 내용이 모호하긴 하지만, 글로 쓰인 문헌들도 있다네. 나와 다른 지팡이 제작자들은 그 문헌을 연구하는 걸 업으로 삼고있지. 그것들은 분명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네.”

“그렇다면…… 그게 옛날 이야기나 전설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헤르미온느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물었다.

“아니.”

올리밴더가 말했다.

“과연 그 지팡이가 반드시 살인에 의해서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네. 지팡이의 역사가 피로 얼룩져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쩌면 단지 그 지팡이가 너무도 탐나는 물건이라서 마법사들에게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지팡이의 능력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인 물건이라네.”

“올리밴더 씨.”

해리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에게 그레고로비치가 그 딱총나무 지팡이를 갖고 있다고 말하셨죠, 그렇죠?”

올리밴더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지만, 더욱 안색이 창백해졌다. 침을 꿀꺽 삼키는 그의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자네가 어떻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상관하지 마세요.”

해리가 말했다. 그 순간 흉터가 화끈 불타올랐고, 해리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동안 호그스미드의 대로가 눈앞에 떠올랐다. 그곳은 훨씬 더 북쪽이기 때문에 아직도 동이 트지 않았다.

“그레고로비치가 그 지팡이를 갖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셨죠?”

“그런 소문이 있었어.”

올리밴더가 속삭였다.

“옛날, 아주 옛날에, 자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소문이 떠돌았지! 난 그레고로비치 자신이 그 소문을 냈을 거라고 믿네. 그런 소문이 사업에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될지는 자네도 잘 알 걸세. 그자가 딱총나무 지팡이의 특성들을 연구해서 더욱 향상시켰다는 등 하는 그런 소문 말일세!”

“예, 알겠어요.”

해리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올리밴더 씨,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요. 그런 다음에 좀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죽음의 성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게 있나요?”

“뭐, 뭐라고?”

지팡지 제작자가 전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죽음의 성물이요.”

“미안하지만 난 자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모르겠네. 그것도 여전히 지팡이와 관계된 것인가?”

해리는 움푹 파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올리밴더가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죽음의 성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만 갈 테니, 좀 쉬도록 하세요.”

올리밴더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자가 나를 고문했어!”

그는 숨을 헐떡거렸다.

“크루시아투스 저주…… 자네는 짐작도 못할거야…….”

“저도 충분히 알아요.”

해리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이제 그만 쉬세요. 모든 걸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빌과 플뢰르, 루나 그리고 딘이 앞에 찻잔을 하나씩 두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해리가 문가에 나타나자, 그들은 일제히 해리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는 정원으로 나갔다. 론와 헤르미온느는 그 뒤를 따랐다. 도비를 덮고 있는 붉은 봉분이 저 앞에 있었다. 해리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머리의 통증이 점점 더 강렬해졌다. 이제 강제로 마구 밀려드는 장면들을 차단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하지만 해리는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머잖아 그는 그 통증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참아야만 했다.

“그레고로비치는 아주 오래전에 그 딱총나무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  
해리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를 찾으려고 애쓰는 광경을 보았어. 그리고 그레고로비치를 찾아냈을 때, 그자는 그가 더 이상 그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지. 그린델왈드가 그에게서 지팡이를 훔쳐 간거야. 그레고로비치가 그 지팡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린델왈드가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레고로비치가 스스로 소문을 퍼뜨릴 만큼 어리석은 작자였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지.”

볼드모트는 호그와트의 정문에 있었다. 해리는 그곳에서 있는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막 동이 트기 직전에 어둠 속에서 깜박거리는 등잔불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도 보았다.

“그린델왈드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사용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의 힘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걸 알고서 그린델왈드와 결투를 벌이신 거야. 그리고 그자를 이겨서 딱총나무 지팡이를 손에 넣으셨어.”

“덤블도어 교수님이 딱총나무 지팡이를 갖고 계셨다고?”  
론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그 지팡이는 어디 있는 거지?”  
“호그와트에.”

해리는 그들 두 사람과 함께, 이 절벽 꼭대기의 정원에 남아 있을려고 기를 썼다.

“그렇다면 어서 가자!”  
론이 다급하게 외쳤다.

“해리, 어서 가서 그자보다 먼저 그걸 손에 넣는 거야.”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어.”

해리가 말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머리를 움켜쥔 채, 밀려드는 생각에 저항하려고 애를 썼다.

“그자는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거기에 있어.”  
“해리!”

론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지? 어째서 그립죽과 먼저 이야기를 한 거야? 진작 떠날 수도 있었잖아.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어.....”

“아니야.”

해리가 풀밭에 텀썩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헤르미온느 말이 맞아. 덤블도어 교수님은 내가 그걸 갖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내가 그걸 차지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교수님은 내가 호크룩스를 찾길 원하셨어.”

“천하무적의 지팡이란 말이야, 해리!”  
론이 신음했다.

“난 그러면 안 돼..... 난 호크룩스를 찾아야만 해.....”  
이제 사방이 어둡고 쓸쓸해졌다.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보일락 말락 했다. 그는 스네이프와 나란히 호수를 향해서 운동장을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다.

“곧 성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는 높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그만 가거라.”

스네이프는 꾸벅 절을 하고 다시 길을 되돌아갔다. 검은 망토가 그의 등 뒤에서 펄럭거렸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려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스네이프도 다른 어느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되었다. 성의 창문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어서 그는 쉽게 모습을 감출 수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자신에게 투영 마법을 걸었고, 스스로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사랑하는 성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호수를 따라 걸었다. 그의 최초의 왕국이자 그의 타고난 고향인 그곳.....

그리고 여기, 호수 옆에 그것이 있었다. 검은 수면에 모습을 비춘채, 이 낯익은 풍경에 쓸데없는 오점인 하얀 대리석 무덤이.

그는 억누르고 있던 환희가, 그리고 파괴를 향한 짜릿한 목적의식이 또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래된 주목나무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이것이 이 지팡이의 마지막 위대한 행위라니 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무덤이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갈라졌다. 수의에 감싸인 형상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길고 출쭉했다. 그는 또다시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시체를 감싸고 있던 천이 활짝 열렸다. 그 얼굴은 비록 약간 투명해지고 창백하고 움푹 깨져 있었지만,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구부러진 그의 코 위에는 여전히 안경이 남아 있었다. 그는 실컷 조롱하는 기분이었다.

덤불도어의 두 손은 가슴 위에 놓여 있었고, 그와 함께 묻힌 그것은 움켜쥔 두 손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 늙은 명청이는 대리석 무덤이나 죽음 따위가 이 지팡이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단 말인가? 어둠의 마왕이 그의 무덤을 훼손하는 일 따위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거미 같은 손이 쑥 튀어나오더니 덤플도어의 손아귀에서 지팡이를 잡아챘다. 그가 지팡이를 움켜쥐는 순간 지팡이 끝에서 붉은 불꽃이 소나기처럼 뿜어 나왔다. 그 불꽃은 이전 주인의 시체 위로 반짝이며 떨어졌고, 마침내 지팡이는 새로운 주인을 섬길 태세를 갖추었다.

## 제 25 장 조개껍데기 오두막집

빌과 플뢰르의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훌로 서 있었다. 그 집의 벽에는 온통 조개껍데기가 박혀 있었고, 하얗게 회칠이 되어 있었다. 참으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해리가 그 아담한 오두막집이나 정원 안의 어디를 가든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의 숨소리와도 같은, 밑물과 썰물의 끊임없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북적대는 오두막집을 빠져나와서, 얼굴에 와 닿는 시원하고 짭조름한 바람을 느끼며, 탁 트인 하늘과 넓고 텅 빈 바다가 바라보이는 절벽 위 풍경을 만끽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지팡이를 두고 볼드모트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어마어마한 결정이 여전히 해리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가 기억하기론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적이 없었다. 그는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함께 있을 때면 론은 언제나 그런 의혹을 소리 높여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덤플도어 교수님이 원하셨던게, 우리가 그 상징을 제 때 풀어서 지팡이를 찾는 거였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내는 것이, 너를 성물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면 어떻게 하지?”

“해리, 만약 그게 정말로 딱총나무 지팡이라면, 대관절 무슨 수로 우리가 그 사람을 끝장낼 수 있겠어?”

해리는 아무 해답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따금 볼드모트가 무덤을 열지 못하게 막지 않은 것이 정녕 미친 짓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순간들이 있었다. 왜 자신이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는지, 해리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머릿속으로 벌여 온 논쟁들을 재구성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들은 그에게 더욱 설득력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묘하게도, 헤르미온느의 지지는 론의 의심만큼이나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딱총나무 지팡이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헤르미온느는 그 지팡이야말로 참으로 사악한 물건이며, 볼드모트가 그것을 손에 넣은 방법 또한 혐오스럽기 짹이 없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넌 결코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어. 해리”  
헤르미온느는 거듭 말했다.

“넌 던블도어 교수님의 무덤을 침범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던블도어의 시신에 대한 생각보다도, 어쩌면 그가 생전의 던블도어의 의도를 오해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그를 두렵게 했다. 그는 여전히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길을 택했지만, 혹시 자신이 징표들을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다른 길을 택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이따금 던블도어에 대한 분노가 다시 그를 덮쳐 오곤 했다. 던블도어가 죽기 전에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오두막집 아래 절벽에 부서지는 파도만큼이나 강렬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돌아가신 거니?”  
그들이 오두막집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론이 물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를 찾아냈을 때, 해리는 오두막집의 정원과 절벽 사이에 세워진 담 너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또다시 논쟁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차라리 그들이 자신을 찾지 못했으면 싶었다.

“그래, 그렇다니까, 론. 제발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마!”  
“몇 가지 사실을 좀 봐, 헤르미온느.”  
줄곧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는 해리를 가운데 놓고 론이 말했다.  
“은빛 암사슴. 그 칼. 해리가 거울에서 본 눈.....”

“해리는 자기가 헛것을 본 건지도 모른다고 시인했어! 안 그래, 해리?”  
“그랬을 수도 있어.”  
해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헛것을 봤다고는 생각 안 하지, 안 그래?”

론이 물었다.  
“응, 생각 안 해.”  
해리가 말했다.  
“그거 봐!”  
헤르미온느가 끼어들 틈도 없이 론이 잽싸게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지하실에 있다는 걸 도비가 알았는지 설명해 봐, 헤르미온느.”

“나도 몰라. 어쩌면 그분의 유령이 그랬을지도 몰라!”  
“덤블도어 교수님은 유령이 되어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야.”  
해리가 말했다. 이제는 던블도어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교수님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셨을 거야.”

“무슨 뜻이야?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니?”

론이 물었지만, 해리가 더 말할 겨를도 없이, 그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리?”

어느새 플뢰르가 긴 은발을 산들바람에 휘날리며 오두막집 밖으로 나와있었다.

“아리, 그립죽이 너와 이야기 하고 싶어 행, 그능 제일 작은 침실에 있엉.

누궁가 엿듣능 걸 원치 않능대.”

도깨비가 자신에게 전갈을 전하게 했다는 사실에 플뢰르는 놉시 기분이 상한 게 분명했다. 그녀는 짜증스런 표정으로 집을 향해 다시 돌아갔다.

플뢰르가 말한 대로, 그립죽은 밤에 헤르미온느와 루나가 잠을 자는, 이 오두막집의 세 침실중 가장 작은 방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빨간색 면 커튼을 당겨 구름이 떠 있는 빛나는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그 때문에

상쾌하고 밝은 오두막집의 다른 방과는 달리, 이 방은 타는 듯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난 결정을 내렸다. 해리 포터.”

도깨비는 낮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자신의 팔을 톡톡 두드리고 있다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린고트의 도깨비들은 이걸 근본적인 반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너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 . . .”

“훌륭해요!”

해리가 탄성을 질렀다.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립죽, 고마워요. 우린 정말로. . . . .”

“. . . . 그 대신!”

도깨비가 결연하게 말했다.

“보수를 달라.”

해리가 조금 당황하여 주저하며 물었다.

“얼마를 원하시죠? 제게 금화가 있어요.”

“금화 말고.”

그립죽이 대답했다.

“나도 금은 있다.”

그의 검은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의 눈에는 흰자위라고는 전혀 없었다.

“나는 칼을 원해,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칼을.”

해리는 기가 확 꺾였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곤란하군.”

도깨비가 조용히 말했다.

“다른 걸 드릴 수 있어요.”

론이 애절하게 말했다.

“장담하는데, 레스트랭 가문은 재산이 많을 거예요. 일단 금고 안에만 들어가면, 당신은 뭐든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어요.”

론의 말은 완전히 실수였다. 그립죽은 화가 나서 낯을 붉혔다.

“이 꼬마야. 난 도둑이 아니라고! 나는 내게 권한이 없는 보물들을 갈취하지 않아!”

“하지만 그 칼은 우리 건데. . . . .”

“그렇지 않아.”

도깨비가 말을 막았다.

“우리는 그리핀도르 학생이고, 그건 그리핀도르의 것. . . . .”

“그러면 그것이 그리핀도르의 것이 되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지?”

도깨비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누구 것도 아니죠.”

론이 답했다.

“그건 그리핀도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야!”

도깨비는 기다란 손가락으로 론을 가리치며, 분노로 가득 차서 호통을 쳤다.

“역시나 마법사들의 오만함이란! 그 칼은 래그눅 1 세의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고드릭 그리핀도르에게 빼앗긴 것이지! 그것은 잊어버린 보물이야.

도깨비가 만든 걸작이란 말이다! 그건 원래 도깨비들 소유야! 그 칼이 나를 고용하는 대가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양자택일해!”

그립죽은 그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다. 해리는 나머지 두 사람을 힐끗 쳐다본 후에 말했다.

“의논을 좀 해 봐야겠어요. 그립죽, 괜찮으면 우리에게 잠시 시간을 주겠어요?”

도깨비는 골이 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텅 빈 아래층 거실로 내려간 해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론이 말했다.

“그놈은 지금쯤 신나게 웃고 있을걸. 그 칼을 그놈에게 줘서는 안 돼.”

“그게 정말이니?”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그리핀도르가 그 칼을 훔친거야?”

“나도 모르겠어.”

헤르미온느가 낙심한 듯 말했다.

“마법의 역사는 종종 마법사들이 다른 마법 종족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 버리곤 하거든. 그래도 내가 알기론 그리핀도르가 그 칼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없었어.”

“그건 저 도깨비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일 거야.”

론이 말했다.

“어떻게 마법사들이 항상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야. 우리는 운이 좋은 줄 알아야 해. 저 도깨비가 우리 지팡이 중 하나를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

“도깨비들이 마법사들을 싫어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론.”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과거에 도깨비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거든.”

“그렇다고 도깨비들이 복슬복슬한 새끼 토키들도 아니잖아, 안 그래?”

론이 받아쳤다.

“도깨비들은 마법사들을 많이 죽였어. 그들 역시 비열하게 싸웠다고.”

“하지만 어느 종족이 가장 비열하고 포악스러운가에 대해 그림훅과 논쟁하는 건, 그가 우리를 돋도록 만드는 데 득이 되지 않을 거야. 안 그래?”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내려고 애를 쓰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해리는 창문 너머로 도비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루나가 묘비 옆에 갯질경이 꽃이 담긴 잠병을 놓고 있었다.

“좋아.”

론이 말했다. 해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림훅에게 우리가 금고 안에 들어 갈 때까지만 그 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가 가져도 된다고 하는 거지. 물론 금고 안에는 가짜가 있을 거야, 안 그래? 그럼 그것들을 바꿔치기해서 그에게 가짜 칼을 주면 되잖아.”

“론, 도깨비는 그 차이를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볼 수 있어!”

헤르미온느가 구박했다.

“그림훅만이 유일하게 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알아채기 전에 달아날 수 있.....”

론은 자신을 바라보는 헤르미온느의 표정을 보자, 그만 주눅이 들어 말을 흐렸다.

“그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비열한 짓이야. 그에게 도움을 청해 놓고서, 그를 배신하자고? 왜 도깨비들이 마법사들을 좋아하지 않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론?”

론의 귀가 새빨게졌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었어! 그러면 네 해결책은 뭔데?”

“우리는 그에게 다른 무언가를 제시해야 해, 정확히 그 칼만큼이나 가치 있는 걸로 말이야.”

“아주 훌륭해, 내가 얼른 가서 도깨비들이 만든 다른 골동품 칼을 하나 찾아볼게. 네가 선물 포장을 하면 되겠다.”

또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설령 그들이 그림훅에게 제공할 만한, 그만큼 값진 무언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도깨비는 그 칼이 아니면 그 무엇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칼은 그들의 것이었고, 호크룩스를 없애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였다.

해리는 잠시 눈을 감고 바다의 거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핀도르가 칼을 훔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쾌했다. 그는 언제나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학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리핀도르는 머글 태생들의 영웅이었고, 순수혈통만을 사랑하는 슬리데린과 충돌했었다.....

“어쩌면 그가 거짓말하는 걸지도 몰라.”

다시 눈을 뜨며 해리가 말했다.

“그립훅 말이야. 어쩌면 그리핀도르가 칼을 훔치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  
도깨비 식으로 본 역사가 반드시 옳은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거기에 대한 내 기분이 달라지지.”

해리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립훅에게 일단 우리가 금고 안에 들어가는 걸 도와주면, 그 다음에 그 칼을 주겠다고 말하자.....하지만 정확히 언제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론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높시 놀란 기색이었다.

“해리, 우리는 그래선 안돼.....”

“그립훅은 그걸 가질 수 있어.”

해리가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모든 호크룩스를 없애고 난 다음에는 말이야. 그때가 되면 나는 틀림없이 그립훅에게 그 칼을 줄거야.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어.”

“하지만 여러 해가 걸릴지도 몰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가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난 그를 정말로 속이는 건 아니라고.....”

해리의 눈이 반발심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헤르미온느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누엔가드로 들어가는 입구에 새겨져 있던 말을 떠올렸다. 더 커다란 선을 위하여,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들에게 달리 무슨 선택이 남아 있단 말인가.

“난 그건 싫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실은 나도 싫어, 지독하게.”

해리가 수긍했다.

“난 그게 묘안인 것 같아.”

론이 다시 일어서며 말했다.

“가서 그에게 얘기해 보자.”

다시 제일 작은 침실로 돌아온 해리는, 칼을 언제 주겠다고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도록 단어 선택에 유의하면서 제안을 했다. 해리가 말하는 동안, 헤르미온느는 내내 인상을 찡그린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리는 그녀 때문에 계획이 탄로나지는 않을까 두려웠고, 그녀의 행동에 짜증이 났다. 하지만 그립훅은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해리만을 바라보았다.

“해리 포터, 이제 내가 자네를 도와주면 그리핀도르의 칼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해리가 대답했다.

“그러면 악수하지.”

도깨비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해리는 악수를 했다. 그리고 저 새까만 눈이 혹시나 자신의 눈에서 어떤 불안한 기색이라도 읽어 내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립훅은 그의 손을 놓고, 손뼉을 짹 치더니 말했다.

“그럼, 시작하세요!”

그것은 마법부에 침투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은 제일 작은 침실에서 작업에 착수했다. 그 방은 그립훅의 취향에 맞게 어두침침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나는 레스트랭 가문의 금고에 딱 한 번 들어가 봤다.”

그립훅이 말했다.

“그 안에 가짜 칼을 넣어 두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였지. 그 금고는 가장 오래된 방 가운데 하나야. 가장 유서 깊은 마법사 가문들은 으례 그들의 보물을 제일 깊은 층에 보관해 놓지. 그곳의 금고들이 가장 크고 보안이 가장 잘 되어 있거든…….”

그들은 찬장처럼 좁은 그 방 안에 한 번 들어가면 몇시간씩 쳐박혀 있곤 했다. 서서히 시간이 흘러서 몇 주가 지났다. 뛰어 넘어야 할 난관이 첨첨산중이었다. 그들이 비축해 놓은 폴리주스 마법약이 아주 많이 없어졌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였다.

“이제 딱 한 명이 쓸 수 있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헤르미온느가 등잔불에 진흙처럼 걸쭉한 마법약을 기울여 보면서 말했다.

“그거면 충분할 거야.”  
그립훅이 손으로 그린 맨 아래층 통로들의 지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던 해리가 대답했다.

이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오로지 식사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다. 해리는 식사 중에 종종 그들 세 사람을 바라보는 빌의 사려 깊고 걱정스런 눈길을 느끼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해리는 자신이 이 도깨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립훅은 예상외로 피에 굽주려 있었고 열등한 생물들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웃음을 터트렸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레스트랭 가문의 금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마법사들을 헤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해리는 나머지 두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굳이 그 사실을 터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립훅이 필요했던 것이다. 도깨비는 투덜대며 마지못해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 심지어 다리가 다 나은 후에도 여전히 쇠약한 올리밴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신의 방으로 음식 쟁반을 대령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결국 플뢰르의 분노가 폭발하여, 빌이 위층으로 올라가 더 이상 이런 대우는 계속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그립훅은 몹시 북적대는 식탁에 동참했다. 비록 같은 음식을 거부하고 대신에 날고기 덩어리와 풀뿌리, 다양한 종류의 버섯만을 고집하긴 했지만 말이다.

해리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다. 도깨비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에 그를 계속 남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위즐리 가족이 전부 숨어 살 수 밖에 없게 된 것도, 빌, 프레드, 조지, 그리고 위즐리 씨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모두 그의 탓이었다.

“미안해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4월의 어느 저녁, 해리는 플뢰르의 저녁 준비를 도와주면서 말했다.

“당신이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플뢰르는 그레이백에게 공격을 당한 이후 피가 흐르는 고기를 좋아하게 된 빌, 그리고 그립훅을 위해서 스테이크용 고기를 썰려고 칼 몇 자루에 막 마법을 걸어 놓은 참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칼들이 고기를 썰고 있는 동안 그녀의 다소 신경질적인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리, 넌 내 여동생의 생명을 구했엉. 난 잊지 않고 있엉.”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실이 아니었지만, 해리는 가브리엘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굳이 상기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무통.”  
플뢰르가 다시 말을 이으면서 지팡이로 화덕 위에 놓인 소스 냄비를 가리키자, 즉시 냄비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올리밴더 씨능 오늘 저녁에 뮤리엘 할머니 댁으로 떠나성. 그러명 좀 편해지겠징. 이제 도깨비능…….”

도깨비 얘기를 하면서 그녀는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아래층으로 옮겨 올 수 있고. 너랑 론, 딘은 저 방을 쓰면 돼.”

“우리는 거실에서 자도 상관없어요.”

해리가 얼른 대답했다. 소파에서 자라고 하면 그립죽이 기분 나빠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립죽의 비위를 계속 맞춰 주는 것은 그들의 작전에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저희 걱정은 마세요.”

플뢰르가 반박하려고 들자. 해리는 재빨리 말을 막았다.

“우리도 머잖아 이곳을 떠날 거예요. 론이랑 헤르미온느, 저요.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를 향해 인상을 쓰며, 플뢰르가 물었다. 동시에 그녀의 지팡이는 공중에 떠 있는 캐서를 그릇을 겨누고 있었다.

“절대 너희는 여기를 떠나서는 안돼. 너희는 이곳에 있어야 앙정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플뢰르는 영락없는 위줄리 부인이었다. 바로 그 순간 뒷문이 열렸고, 해리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루나와 딘이 비를 맞아 머리가 흠뻑 젖은 채, 물에 떠내려 온 나무토막들을 품에 가득 안고 들어왔다.

“.....그리고 조그만 귀가 있어.”

루나가 말했다.

“약간 하마 귀같이 생겼대. 아빠 말로는 온통 자주색이고 털이 나 있지.

그리고 만약 그들을 부르고 싶으면, 넌 노래를 흥얼거리야 해. 그들은 월츠를 좋아하지. 너무 빠르지 않은 걸로.....”

어색한 표정을 한 딘이 해리를 향해 어깨를 으쓱하고는 지나갔다. 그리고 루나의 뒤를 따라서 론과 헤르미온느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식당 경 거실로 들어갔다. 플뢰르의 질문공세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은 해리는 얼른 호박 주스 병 두개를 들고 그들을 쫓아갔다.

“.....만일 네가 우리집에 놀러 오면, 그 뿔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편지에 그것에 대해서 쓰셨지만 난 아직 보지 못했어. 왜냐하면 죽음을 먹는 자들이 호그와트 급행열차안에서 나를 잡아가는 바람에, 난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지 못했거든.”

딘과 함께 불을 다시 지피며, 루나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

“루나, 우리가 벌써 말했잖아.”

헤르미온느가 루나에게 소리쳤다.

“그 뿔은 폭발했어. 그건 에럼펀트의 뿔이야. 크럼플 혼드 스놀랙스가 아니고.....”

“아니야. 그건 분명히 스놀랙스의 뿔이었어.”

루나가 침착하게 말했다.

“아빠가 그랬어. 지금쯤이면 그건 분명 재생되었을 거야. 그것들은 자가 치유력이 있거든. 너도 알다시피.”

헤르미온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계속해서 포크를 놓았다. 그때 빌이 올리밴더를 부축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여전히 몹시 쇠약해 보이는 지팡이 제작자는 커다란 옷가방을 든 채 빌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올리밴더 씨.”

루나가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도 보고 싶을 거다. 얘야.”

루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올리밴더가 말했다.

“그 꿈쩍한 곳에서 너는 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돼 주었지.”

“그러면, au revoir(불어로 ‘또 만나요’라는 뜻:역주), 올리밴더 씨.”

그의 양쪽 뺨에 입을 맞추며 플뢰르가 말했다.

“뮤리엘 할머니에게 꾸러미를 하나 전해 주시겠어용? 그분의 티아라를 아직 못 돌려드렸거든요.”

“그거야 영광이지.”

올리밴더가 살짝 절을 하며 말했다.

“이런 융숭한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그 정도도 못할까.”

플뢰르는 낡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지팡이 제작자에게 보여 주었다. 티아라는 낮게 메달린 등잔 불 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월장석과 다이아몬드군.”

해리가 눈치 채지 못한 사이에 거실 안으로 살며시 들어와있던 그립훅이 말했다.

“도깨비들이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마법사들이 값을 치렀지요.”

빌이 조용히 대꾸했고, 도깨비는 도전적이면서 동시에 수상쩍은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이윽고 빌과 올리밴더가 어둠 속으로 길을 나섰다. 갑자기 오두막집 창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나머지 사람들은 식탁에 빽빽이 둘러앉았다. 그리고 서로 팔꿈치를 맞댄채, 움짝달싹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벽난로 안에서 불꽃이 딱딱 소리를 내며 튀고 있었다. 해리는 플뢰르가 그저 음식을 깨작거리고만 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몇분마다 한 번씩 창문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다행이 그들이 첫 순서로 나온 요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빌이 긴 머리가 바람에 헝클어진 채 돌아왔다.

“아무 문제 없었어.”

빌이 플뢰르에게 말했다.

“올리밴더 씨도 잘 도착했고, 엄마 아빠가 안부를 전하더군. 지니는 너희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전해 달라고 하더구나. 프레드와 조지는 뮤리엘 할머니의 성질을 제대로 굵어 놓고 있는 모양이야. 그 애들은 아직도 그 집 뒷방에서 부엉이 우편 주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도 할머니는 티아라를 돌려받으시더니 기운이 나시나 보더라고,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그걸 흥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더군.”

“아이고 참 상냥하시기도 하지. 당신 할머니용.”

플뢰르가 지팡이를 휘둘러 다 비운 접시들을 공중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뿌루퉁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접시들을 들고 방에서 나갔다.

“우리 아빠도 티아라를 만드셨는데.”

루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음, 사실 그건 왕관에 더 가깝긴 해.”

론은 해리에게 눈짓을 하면서 씨익 웃었다. 해리는 론이 제노필리우스를 만나러 갔을 때 보았던 그 우스꽝스러운 머리장식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사라진 래번클로의 보관을 재창조하고 계셔. 이제 그 왕관의 주요한 특징들을 대부분 똑같이 복원하셨다나 봐. 거기에 빌리위그 날개를 붙였다는 점이 아주 다르긴 하지만....”

이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동시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플뢰르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빌은 벌떡 일어나서 지팡이로 문을 겨누었다. 해리,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도 마찬가지였다. 그립훅은 소리 없이 식탁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모습을 감추었다.

“누구냐?”

빌이 외쳤다.

“나요. 리무스 존 루핀!”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공포의 전율을 느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는 님파도라 통스와 결혼한 늑대인간이오. 그리고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의 비밀 파수꾼인 당신이 나에게 이곳 주소를 알려 주었고, 비상시에 오라고 명했소!”

“루핀이로군.”

빌이 중얼거리고는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열었다.

루핀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여행용 망토로 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하얗게 세어가는 머리카락은 바람에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운 루핀은 방을 둘러보며 누가 그곳에 있는지를 확인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아들이야! 장인어른의 이름을 본따서, 우린 그 얘 이름을 테드로 정했어!” 헤르미온느가 깍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통스가.....통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아기를 낳았어!”

루핀이 외쳤다.

식탁 주위에서 기쁨의 함성과 안도의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

헤르미온느와 플뢰르는 동시에 “축하해요!” 하고 소리쳤다. 한편 혼은 마치 그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듣는다는 듯이, “아기라니, 세상에!”라고 중얼거렸다.

“그래.....그래.....아들이야.”

루핀의 자신의 행복에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또다시 말했다. 그리고 식탁을 돌아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해리를 꽉 꿀어안았다. 그리몰드 광장 12 번지 지하 부엌에서의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만 같았다.

“대부가 되어 줄 거지?”

루핀이 해리를 놀아주며 말했다.

“제.....제가요?”

해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럼. 당연히 너지. 도라도 대찬성이야. 너만 한 적임자는 없어.”

“제가.....그럼요.....세상에.....”

해리는 당황스럽고 놀란 동시에 기뻤다. 빌은 서둘러 포도주를 내왔고, 플뢰르는 루핀에게 함께 한잔하자고 권했다.

“하지만 난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곧 돌아가야만 해.”

루핀이 모두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해리가 보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몇년은 더 젊어보였다. “

“고마워, 고맙네, 빌.”

빌은 곧 모든 사람들의 술잔을 가득 채웠고, 그들은 일어서서 잔을 높이 들었다.

“테디 리무스 루핀을 위해.”

루핀이 외쳤다.

“미래의 위대한 마법사를 위해!”

“누구를 닮았지용?”

플뢰르가 물었다.

“내가 보기엔 도라를 닮은 것 같은데, 도라는 날 닮았다고 하네. 머리털이 별로 없어. 태어났을 땐 검은색인 것 같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 시간 사이에 빨간 머리로 바뀌었어. 아마도 내가 돌아갈 때쯤엔 금발이 돼 있을 거야. 장모님 말씀으로는 통스의 머리칼도 태어난 날부터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다.”

루핀은 잔을 쭉 비웠다.

“오오, 그럼 더 할까? 딱 한 잔만.”

빌이 다시 잔을 가득 채우자,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바람이 오두막집을 거세게 때렸고, 벽난로 불이 갑자기 타닥거리며 타올랐다.

빌은 포도주를 한 병 더 따고 있었다. 루핀의 소식은 잠시 동안이나마 쪓기고 있는 그들의 처지로부터 벗어나서 근심을 잊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기분을 들뜨게 했다. 오직 도깨비만이 갑작스러운 축제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듯 했다. 잠시 후 그는 슬며시 이제 자기 혼자 차지하게 된 침실로 되돌아 갔다. 빌의 시선이 총계를 올라가는 도깨비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해리는 자신만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 돼.....안 돼.....정말로 돌아가야 해.”

마침내 루핀이 또다시 따라 준 포도주를 사양하며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용 망토를 다시 둘러쌌다.

“잘 있게. 잘 있어라. 며칠 내에 사진을 몇장 가져오도록 하지. 내가 너희를 만난 걸 알면 다들 아주 기뻐할 거야.....”

루핀은 망토를 단단히 여민 후에, 여자들과는 포옹을 하고 남자들과는 악수를 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는 여전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황량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대부라니, 해리!”

식탁 치우는 것을 돋기 위해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빌이 말했다.

“대단한 영예야! 축하해!”

하지만 해리가 들고 온 빈 술잔들을 내려놓자마자, 빌은 얼른 등 뒤로 문을 닫았다. 그러자 루핀이 떠난 후에도 계속 축하를 하면서 여전히 신이 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사실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로 꽉 찬 오두막집에서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

빌은 망설였다.

“해리, 넌 지금 그립훅과 무언가를 계획 중이지.”

그것은 설명이었지, 질문이 아니었다. 해리는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잠자코 빌을 바라보았다.

“나는 도깨비들을 잘 안다.”

빌이 말했다.

“난 호그와트를 떠난 아래로 쭉 그린고트에서 일해 왔어. 만약 마법사와 도깨비 사이에 우정이 존재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도깨비 친구들이 있는 셈이지. 아니 적어도 잘 아는 도깨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

빌은 또다시 망설였다.

“해리, 네가 그립훅에게 바라는 게 뭐니? 그리고 대가로 그에게 무얼 약속했니?”

“말할 수 없어요.”

해리가 말했다.

“미안해요, 빌.”

그때 부엌문이 그들 뒤에서 열렸다. 플뢰르가 남아 있던 빈잔들을 가지고 들어오려 했다.

“잠깐만 기다려 줘.”

빌이 그녀에게 부탁했다.

플뢰르가 물러나자 그는 문을 다시 닫았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빌이 계속 말을 이었다.

“네가 그립훅과 어떤 협상을 맺든, 그중에서도 특히 보물에 관해 협상할 때에는 아주 조심해야 해. 소유권, 지불, 상환에 대한 도깨비들의 관념의 인간 사회의 것과 같지 않다.”

해리는 마치 실뱀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약간 거북하게 매슥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무슨 뜻이죠?”

해리가 물었다.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종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란다.”

빌이 대답했다.

“마법사와 도깨비 사이의 거래는 지난 수 세기 동안 난처한 문제였지.....하지만 그런 건 전부 마법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거야. 양편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 나는 결코 마법사들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어떤 도깨비들 사이에는, 황금과 보물 문제에 있어서는 마법사들을 절대 믿을 수 없으며, 마법사들은 도깨비들의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존재한단다. 특히 그린고트에 있는 도깨비들에게 그런 경향이 강하지.”

“하지만 전 존중....”

해리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빌이 고개를 저었다.

“넌 이해하지 못해, 해리. 도깨비들과 생활해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도깨비에게 있어서, 어떤 물건의 정당하고 참된 주인은 그것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도깨비들의 눈에는 도깨비가 만든 모든 물건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야.”

“하지만 만약 그게 팔릴 경우에는.....”

“.....그때는 그 물건이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잠시 대여된 거라고 생각하지. 그들은 도깨비들이 만든 물건이 마법사에게서 마법사에게로 전해진다는 생각 자체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해. 티아라가 그림축의 눈앞에서 전달될 때, 너도 그의 얼굴을 보았지? 그는 그것을 읊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깨비 종족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부류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림축 역시 최초의 구매자가 죽으면 그 물건은 도깨비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분명해. 그들은 도깨비가 만든 물건들을 돈을 더 내지 않고서 마법사들 사이에서 물려주거나 간직하는 우리의 관습을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단다.”

이제 해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웬지 빌이 그가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짐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내가 하려는 얘기는....”

빌이 거실로 들어가는 문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도깨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때에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거란다, 해리. 도깨비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린고트에 침입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할지도 모른다.”

“알았어요.”

빌이 문을 열자, 해리가 말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꼭 명심할게요.”

빌의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잇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문득 해리의 머릿속에 빼딱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까 마신 포도주 탓인 게 분명했다. 웬지 시리우스 블랙이 그에게 그랬던 것과 똑같이, 자신 역시 테디 루핀의 무모한 대부가 되는 노정에 오른 것만 같았던 것이다.

## 제 26 장 그린고트

드디어 작전이 세워지고 모든 준비도 끝났다. 가장 작은 침실의 벽난로 선반 위에는, 헤르미온느가 말포이 저택에서 입고 있던 스웨터에서 떼어 낸, 길고 거친 검은색 머리카락 한 가닥이 작은 유리병 속에 꼬불꼬불 말려 있었다.

“너는 실제로 그 여자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야.”

호두나무 지팡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해리가 말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럴듯 해 보일 것 같아.”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혹시라도 그 지팡이를 쥐었다가 찔리거나 물리지는 않을까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다.

“난 이 물건이 맘에 안 들어.”

헤르미온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게 정말 싫어. 나랑은 완전히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쓰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다고.....그건 마치 그 여자의 일부 같아.”

해리는 예전에 자기가 블랙손 지팡이를 싫어했을 때, 헤르미온느가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렸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블랙손 지팡이가 원래 해리의 지팡이만큼 잘 작동하지 않자. 그건 단지 해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저 연습이나 열심히 하라고 충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그때 자신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충고를 헤르미온느에게 되돌려 주지는 않기로 했다. 그린고트 습격을 하루 앞둔 날 밤에 헤르미온느와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한 일인 것 같았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네가 그 여자인 척하는 데 도움이 될거야.”

론이 말했다.

“그 지팡이가 한 짓을 생각해 보라고!”

“내 말이 그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이건 네빌의 부모님을 고문한 지팡이야.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더 고문했는지 누가 알겠어? 시리우스를 죽인 것도 바로 이 지팡이야!”

해리는 그 생각은 미쳐 하지 못했다. 지팡이를 내려다보자, 순간 그것을 낚아채 옆쪽 벽에 기대어 세워 놓은 그리핀도르의 칼로 당장 두 동강을 내고 싶은 사나운 충동을 느꼈다.

“내 지팡이가 그리워.”

헤르미온느가 징징거렸다.

“올리밴더 씨가 나에게도 지팡이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아침에 올리밴더가 루나에게 새 지팡이를 보내 주었던 것이다. 지금 루나는 뒤틀 잔디밭으로 나가 늦은 오후의 햇볕을 받으며 지팡이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역시 인간 사냥꾼들에게 지팡이를 뺏긴 딘은 다소 침울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리는 한때 드레이코 말포이의 것이었던 산사나무 지팡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지팡이가 최소한 헤르미온느의 것만큼 잘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올리밴더가 이야기해 준 지팡이의 비밀스러운 작동에 대해 생각해 보니,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벨라트릭스에게 직접 빼았아서 그 호두나무 지팡이의 충성심을 획득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더니 그립죽이 들어왔다. 해리는 본능적으로 칼자루를 향해 손을 뻗어, 칼을 자기 옆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즉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도깨비가 그 사실을 알아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처한 순간을 얼버무리려고 해리가 얼른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지금 막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립죽. 빌과 플로르에게는 내일 떠난다고 말했고요. 괜히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일러뒀어요.”

그들은 특히 이 점을 단단히 못 박아 두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기 전에 헤르미온느는 벨라트릭스로 변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서 빌과 플로르가 알거나 짐작하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았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설명했다. 인간 사냥꾼들이 그들을 잡아간 날 밤에 퍼킨스의 낡은 텐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빌은 그들에게 다른 텐트를 빌려 주었고, 그것은 이제 구슬 백 속에 들어 있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그 구슬 백을 양말 밑에 쑤셔 넣는 단순한 방법으로, 인간 사냥꾼들에게 뺏기지 않고 지켜 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비록 지난 몇주간 만끽했던 가정의 안락함은 말할 것도 없고, 빌과 플로르, 루나와 딘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하루속히 이 답답한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들을 엿듣는 것은 아닌지 계속 주의해야 하는 것에도 신물이 났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립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린핀도르의 칼을 넘겨주지 않고 도깨비와 헤어질 것인가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리는 아무런 해답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도깨비가 5분 이상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세사람만 함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놈이라면 우리 엄마에게 한 수 가르쳐도 되겠어.”

도깨비의 긴 손가락이 끈질기에 문가에 나타나자, 론이 툤틀거렸다. 한편 빌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해리는 그립죽이 혹시 있을지 모를 배신에 대비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헤르미온느는 계획적인 배신에 대해서 너무나 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해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녀의 조언을 얻으려는 시도는 이미 포기했다. 한편 론은, 어쩌다 그립죽이 없는 짧은 틈을 타서 힘들게 만날 때면,

“그냥 즉석에서 해치우면 되는 거야, 친구”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묵안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그날 밤에 해리는 잠을 설쳤다. 일찍부터 눈을 뜯 그는 자리에 누운 채 마법부에 잠입하기 전날 밤의 기분을 회상하면서, 거의 흥분에 가까웠던 당시의

결의를 떠올렸다. 지금 그는 흔들리는 불안감과 끈질긴 의혹을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낼 수가 없었다. 해리는 그들의 계획이 훌륭하고, 그립죽은 앞으로 당면 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를 모든 난관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다. 한두 차례 론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론 역시 깨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거실을 딘과 함께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여섯 시 정각이 되자 차라리 훌가분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침낭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어스름한 어둠속에서 옷을 입은 뒤, 헤르미온느와 그립죽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 정원으로 몰래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지금은 5월이라 바람은 거의 없었다. 해리는 어두운 하늘에서 여전히 창백하게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옮겨다보았다. 그리고 절벽을 향해 밀려왔다 물러나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 소리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제 작고 푸른 새싹들이 도비의 무덤을 덮은 붉은 흙을 비집고 솟아오르고 있었다. 1년 이내에 그 둔덕은 꽃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집요정의 이름이 새겨진 하얀 비석은 벌써 풍상에 시달린 듯이 보였따. 그는 이제야 도비를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묻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대로 도비를 남겨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무덤을 굽어보며, 어떻게 집요정이 어디로 그들을 구하려 가야 할지를 알았을까 또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무심결에 여전히 목에 걸고 있는 조그만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그가 덤불도어의 눈을 보았다고 확신했던 날카로운 거울 조각이 만져졌다. 잠시 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해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그립죽을 대동한 채, 그들 쪽으로 잔디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리볼드 광장 12번지에서 가져온 여벌의 넓은 망토 안주머니에 구슬 백을 쑤셔넣고 있었다. 해리는 그 사람이 헤르미온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감으로 몸이 떨리는 것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녀는 그보다 키가 컷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등에서 넘실거렸으며, 눈꺼풀이 두둑한 두 눈은 경멸스런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말을 하자, 그는 벨라트릭스의 낮은 목소리를 통해 헤르미온느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지독하게 맛이 없었어. 거디루트보다도 더 고약해! 좋아, 론. 이리 와 봐. 내가 해줄게.....”

“알았어, 하지만 명심해. 난 턱수염이 너무 긴 건 싫다고.....”

“오오, 정말이지, 이건 잘생겨 보이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단.....”

“그게 아니야.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하지만 코는 좀더 짧은 게 좋겠어. 네가 지난번에 해 줬던 것처럼 해줘.”

헤르미온느는 한숨을 내쉰 뒤,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며 론의 여러가지 생김새를 변형시켜 나갔다. 그는 완전히 허구의 인물로 변장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벨라트릭스가 내뿜는 사악한 분위기가 분명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해리과 그립죽은 투명 망토 속에 숨을 계획이었다.

“자..... 얘 어때 보이니, 해리?”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변장을 한 론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것은 단지 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제 론의 머리는 길게 늘어져서 굽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빽빽한 갈색 콧우염과 턱수염이 나 있었고, 주근깨는 없었으며, 짧고 넓적한 코와 짙은 눈썹을 하고 있었다.

“흠흠..... 내 타입은 아니지만, 그만하면 됐어.”

해리가 대답했다.

“그럼 이제 가 볼까?”

그들 세 사람은 희미해지는 별들 아래에 검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을 힐끗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바로 경계가 되는 담장 너머, 더 이상 피델리우스 마법이 작동하지 않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다. 입구를 나서자마자 그립죽이 말했다.

“이제 난 올라타야 할 것 같다. 해리 포터, 안 그래?”

해리가 허리를 굽히자 도깨비가 그의 등으로 기어 올랐다. 그리고 해리의 목 앞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별로 무겁지는 않았지만, 해리는 도깨비의 감촉과 자신에게 매달리는 그 놀라운 힘이 혐오스러웠다. 헤르미온느는 구슬 백에서 투명 망토를 꺼내 두 사람 위로 덮어씌웠다.

“완벽해.”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발을 점검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더니 말했다.

“하나도 안보여. 이제 가자.”

해리는 그립훅을 업은 채, 온 힘을 다해 다이애건 앤리로 가는 입구인 리키 콜드런 술집에 정신을 집중하며, 그 자리에서 빙그르 돌아왔다. 그들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도깨비는 더욱 단단히 매달렸다. 잠시 후 해리의 두 발은 인도에 달았고, 눈을 떠 보니 채팅 크로스가였다.

머글들은 그 자그만 술집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른 아침의 풀 죽은 표정을 하고서 부산스레 지나갔다.

리키 콜드런의 바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구부정하고 이가 빠진 주인장 톰은 카운터 뒤에서 잔을 닦고 있었다. 멀리 구석에서 중얼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마법사 두 명이 헤르미온느를 훑듯 바라보더니, 어둠 속으로 뒷걸음쳤다.

“레스트랭 부인.”

톰이 웅얼거렸고, 헤르미온느가 지나가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안녕하세요.”

헤르미온느가 인사를 했다. 해리는 여전히 투명 망토 속에서 그립훅을 등에 업은 채 살금살금 지나갔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톰의 표정을 보았다.

“너무 공손하잖아.”

술집을 빠져나와 좁은 뒷마당으로 들어서며, 해리가 헤르미온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넌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해야 한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헤르미온느는 벨라트릭스의 지팡이를 꺼내더니, 그들 앞에 있는 평범한 벽의 어느 벽돌을 톡톡 두드렸다. 즉시 벽돌들이 소용돌이치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벽 한가운데에 구멍이 나타나더니, 차츰 넓어져서 마침내 아치 모양의 통로를 이루었다. 그 통로는 자갈이 깔린 좁다란 거리, 즉 다이애건 앤리로 이어져 있었다.

가게들이 거의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돌아다니는 쇼핑객도 거의 없었다. 이제 자갈이 깔린 구불구불한 거리는, 해리가 여러 해 전에 호그와트의 첫 학기를 앞두고 찾아왔을 때의 그 혼잡했던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아래로 어둠의 마법에 현납된 몇몇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판자로 막아 놓은 상점들이 많았다. 그리고 여러 유리창에 나붙은 포스터에서는 해리의 얼굴이 자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언제나 ‘기피대상자 1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수 많은 남루한 사람들이 건물 입구에 모여 앉아 있었다. 해리는 그들이 몇몇 행인에게 자신들은 진짜 마법사라고 호소하며 처량하게 금화를 구걸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남자는 한쪽 눈에 피 묻은 안대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길을 나서자, 거지들이 헤르미온느를 훑끔거렸다. 그들은 그녀 앞에서 마치 녹아 없어지듯,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가능한 잽싸게 달아나 버렸다. 피로 얼룩진 안대를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앞길을 가로막을 때까지, 헤르미온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자식들!”

그 남자는 헤르미온느를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날카로웠다. 마치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우리 애들은 다 어디 있어? 그놈이 그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거지? 넌 알지? 넌 알고 있잖아!”

“난.....난 정말....”

헤르미온느가 말을 더듬었다.

남자가 그녀의 목으로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다. 그 순간 평 소리와 함께 붉은 광선이 발사되었고, 남자는 의식을 잃은채 바닥에 벌렁 내동댕이쳐졌다. 론은 여전히 자신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민 채, 턱수염 뒤로 경악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우뚝 서 있었다. 거리 양편에 있는 창문 너머로 얼굴들이 나타났고, 몇 안 되는 부유해 보이는 행인들의 무리는 어서 이 현장을 떠나려고 망토를 단단히 여민 채 잔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이보다 더 요란하게 다이애건 앤리에 입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잠깐 동안 해리는 당장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자리를 피하거나 서로 의논할 겨를도 없이,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레스트랭 부인!”

해리는 훅 몸을 돌렸고, 그립죽은 해리의 목을 감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무성한 반백의 머리에 길고 뾰족한 코를 가진, 키가 크고 훌쭉한 마법사가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트래버스야.”

도깨비가 해리의 귀에 속삭였지만, 그 순간 해리는 트래버스가 누구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는 몸을 꿋꿋이 세운 채, 할 수 있는 한 가장 거만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지?”

트래버스는 확실히 기분이 상한 듯, 오던 걸음을 멈추었다.

“저자도 죽음을 먹는 자야.”

그립죽이 속삭였다. 해리는 살그머니 헤르미온느 옆으로 다가가서 그 정보를 귀에 대고 알려 주었다.

“전 단지 인사를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트래버스는 싸늘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를 마주하는 게 달갑지 않으시다면.....”

해리는 이제야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트래버스는 제노필리우스의 집으로 불려왔던 죽음을 먹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트래버스.”

헤르미온느가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재빨리 대답했다.

“어떻게 지내시지요?”

“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놀랍군요, 벨라트릭스.”

“정말이요? 어째서 그런가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저.....”

트래버스가 헛기침을 했다.

“제가 듣기론, 말포이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감금되었다고, 그..... 탈출 이후로요.”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냉정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벨라트릭스는 공공연히 밖에 나와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어둠의 마왕님께서는 과거에 그분을 가장 충성스럽게 섬겼던 이들을 용서해 주시지요.”

헤르미온느는 벨라트릭스의 시건방진 말투를 멋지게 흉내내며 말했다.

“아마도 당신의 신임은 저만큼 좋지 못한 모양이죠, 트래버스.”

죽음을 먹는 자는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한결 의심이 사라진 듯했다. 그는 론이 방금 기절 마법으로 공격한 남자를 훌끗 내려다보았다.

“저놈이 당신의 신경을 건드리기라도 했나요?”

“괜찮아요. 다시는 그러지 못할 테니까요.”

헤르미온느가 싸늘하게 말했다.

“몇몇 지팡이 없는 놈들이 말썽입니다.”

트래버스가 말했다.

“다른 짓은 하지 않고 구걸이나 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그중 한 명이 실제로 제게 이 사건을 마법부에 청원해 달라고 부탁하지 뭡니까. ‘저는 마녀예요, 선생님. 저는 마녀라고요. 제발 그걸 선생님께 증명하게 해 주세요!’”

트래버스가 여자 흉내를 내며 깍깍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그런다고 제가 제 지팡이를 그 여자에게 주기라도 할듯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 지팡이를.....”

트래버스가 잔뜩 호기심을 보이며 말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벨라트릭스? 제가 듣기로는 당신 것은.....”

“제 지팡이는 여기 있어요.”

헤르미온느가 벨라트릭스의 지팡이를 치켜들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 같군요, 트래버스.”

트래버스는 그 말에 약간 당황한 것 같았다. 그리고 대신 론을 돌아봤다.

“당신의 친구 분의 낙신지요? 전 잘 모르겠군요.”

“이분은 드래고미르 데스파드예요.”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그들은 론이 차라리 가상의 외국인인 척하는 편이 가장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분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지만, 어둠의 마왕님의 뜻에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체제를 구경하기 위해 트란실바니아에서 이곳까지 여행을 오셨어요.”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드래고미르?”

“안녕하세요?”

론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자 트래버스는 손가락 두 개를 내밀면서, 마치 손이 더럽혀질까 두렵다는 듯 론과 마지못해 악수를 했다.

“당신과 당신의.....아.....공감하는 친구 분은 어쩐 일로 이렇게 이쁜 시각에 다이애건 앤리에 나오셨나요?”

트래버스가 물었다.

“그린고트에 들러야 해서요.”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저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래버스가 말했다.

“황금, 더러운 황금!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지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손가락 긴 친구들과 반드시 어울려야 한다는 사실이 저는 꼭 유감스럽습니다.”

해리는 그립죽의 깍지 낀 손이 순간적으로 그의 목을 더욱 세게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럼 함께 갈까요?”

헤르미온느에게 앞서 가라는 손짓을 하며 트래버스가 말했다.

결국 헤르미온느는 그와 나란히 자갈이 깔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길 앞에는 눈처럼 새하얀 그린고트가 다른 조그만 가게들 위로 우뚝 서 있었다. 론은 그들과 함께 걸어갔고, 해리와 그립죽도 그 뒤를 따라갔다.

의심 많은 죽음을 먹는 자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벨라트릭스가 곁에 있다고 믿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트래버스 때문에 무엇보다 난처한 점은, 해리가 헤르미온느나 론과 대화를 나눌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애석하게도 그들은 너무나 빨리 거대한 청동 문으로 들어가는 대리석 충계 밑에 도착했다. 그립죽이 이미 그들에게 경고한 바와 같이, 평상시에 입구의 양옆을 지키던 제복을 입은 도깨비들은 두 명의 마법사로 교체되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길고 가느다란 황금 막대를 꼭 쥐고 있었다.

“아, 거짓말 탐지기로군요.”

트래버스가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었다.

“몹시 야만적이지만.....효과적이죠!”

트래버스는 양쪽 마법사들에게 좌우로 고개를 끄덕이며 층계를 올라갔다. 그들은 황금막대를 들어서 그의 몸을 위아래로 훔었다. 해리가 알기로는 그 탐지기는 은신 마법과 숨겨진 마법 물건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겨우 몇 초의 여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해리는 드레이코의 지팡이로 보초들을 차례차례 겨누면서, “콘펀도”라고 두번 중얼거렸다. 주문에 맞은 두 명의 보초는 살짝 소스라쳤다. 하지만 청동 문 너머로 흘 안쪽을 바라보고 있던 트래버스는 눈치 채지 못했다.

헤르미온느가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를 등 뒤로 찰랑거리며 층계를 올라갔다.

“잠깐만요, 부인.”

보초가 탐지기를 치켜들며 말했다.

“방금 했잖아!”

헤르미온느가 벨라트릭스의 거만한 명령조로 말했다. 트래버스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 보초는 당황했다. 그리고 가느다란 황금 탐지기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동료의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그 동료는 약간 얼빠진 목소리로 “그래, 네가 저분들을 방금 검사했잖아, 마리우스”라고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론을 데리고 쌩하니 가버렸다. 해리와 그립죽은 보이지 않게 그들 뒤를 잔걸음으로 쫓아갔다. 문턱을 넘으며 흘끗 돌아보니, 두 마법사 모두 머리를 굽적이고 있었다.

안쪽 문 앞에는 도깨비 두 명이 서 있었다. 그 문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잠재적인 도둑들에게 무시무시한 응징을 경고하는 시구가 새겨져 있었다. 해리는 그것을 옮겼다 보았다. 그러자 불현듯 칼날처럼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평생 가장 멋진 생일이었던 열한번째 생일날,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해그리드가 곁에 서서 말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물을 훔치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날은 그린고트는 말할 수 없이 경이로운 장소, 즉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 소유의 금이 보관된 마법의 저장소로 여겨졌다. 그리고 자신이 도둑질을 하려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조차 못했었다.....잠시 후 그들은 은행의 넓은 대리석 흘 안에 들어가 서 있었다.

긴 카운터에는 높은 의자 위에 걸터앉은 도깨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날의 첫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헤르미온느와 론, 트래버스는 외알 안경을 낀 채 두꺼운 금화를 살펴보고 있는 늙은 도깨비를 향해 걸어갔다. 헤르미온느는 론에게 이 흘의 특징들을 설명해 준다는 구실로 트래버스가 앞서 가도록 했다.

도깨비는 쥐고 있던 금화를 옆으로 휙 던지면서, 딱히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것 없이 “레프러칸(장난꾸러기 요정으로, 가짜 금을 만들어 낸다.<신비한 동물사전>참조:역주)이군”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트래버스에게 인사를 건넸다. 트래버스는 조그만 황금열쇠를 건네주었고, 도깨비는 그 열쇠를 면밀히 검사하고는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번에는 헤르미온느가 다가갔다.

“레스트랭 부인!”

도깨비가 분명히 깜짝 놀란 어조로 말했다.

“이것 참! 무엇을.....오늘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내 금고에 들어가야겠어.”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늙은 도깨비는 약간 움찔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트래버스가 멈칫 서서 쳐다보고 있을 뿐 아니라, 몇 명 다른 도깨비들 역시 일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헤르미온느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신분증은.....가져 오셨지요?”

도깨비가 물었다.

“신분증? 난.....난 한 번도 신분증을 제시하란 요구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들은 알고 있어!”

그립죽이 해리의 귀에 속삭였다.

“침입자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받은 게 분명해!”

“당신의 지팡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부인.”

도깨비가 말했다. 그리고 살짝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해리는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깨달음의 충격과 함께, 그린고트의 도깨비들이 벨라트릭스의 지팡이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지금 해, 지금 하라고.”

그립죽이 해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임페리우스 저주를!”

해리는 망토 아래에서 산사나무 지팡이를 들어 늙은 도깨비를 겨누었다. 그리고 난생처음으로 “임페리오!”라는 주문을 외웠다.

기묘한 자극이 해리의 팔을 타고 흘렀다. 얼얼하고 뜨거운 기운이 그의 머리에서부터 힘줄과 혈관을 타고 흘러 내려와서 그를 지팡이와, 그리고 방금 발사된 주문과 연결시키는 듯 했다. 도깨비는 벨라트릭스의 지팡이를 받아 들고 자세히 검사하더니 말했다.

“아, 새 지팡이를 맞추셨군요, 레스트랭 부인!”

“뭐라고?”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건 내 거야.....”

“새 지팡이요?”

트래버스가 다시 카운터로 다가오며 말했다. 아직도 사방에서 도깨비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느 지팡이 제작자한테 맡기셨는지요?”

해리는 앞뒤를 따질 겨를도 없이 즉각 행동했다. 자신의 지팡이로 트래버스를 가리키며, 한 번 더 중얼거렸던 것이다.

“임페리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트래버스가 벨라트릭스의 지팡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예, 아주 근사합니다. 말은 잘 듣나요? 저는 언제나 지팡이란 길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헤르미온느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기색이었지만, 해리에게는 천만 다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이상한 반전을 받아들였다.

카운터 뒤에 있던 늙은 도깨비가 손뼉을 짹 치자, 좀 더 젊은 도깨비가 다가왔다.

“클랭커가 필요하네.”

늙은 도깨비가 젊은 도깨비에게 말했다. 그러자 젊은 도깨비는 잽싸게 물려가더니, 잠시 후 짤랑거리는 금속이 가득 들어 있는 것 같은 가죽 가방을 들고 돌아와 늙은 도깨비에게 건넸다.

“좋아요, 좋아! 제가 금고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레스트랭 부인.”

늙은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며 높은 의자에서 풀쩍 뛰어내리자, 잠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윽고 도깨비는 카운터 끝을 돌아서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그들 쪽으로 신나게 달려왔다. 가죽 가방 속에 든 물건은 여전히 짤랑거리고 있었다.

트래버스는 이제 입을 떡 벌린 채 미동도 않고 서 있었다. 게다가 롤이 혼란스런 표정으로 트래버스를 빤히 바라보는 바람에 이 기묘한 현상은 더욱 이목을 끌었다.

“기다리게.....보그로드!”

또 다른 도깨비가 카운터를 돌아서 총총걸음으로 다가왔다.

“저희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도깨비는 헤르미온느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 하지만 레스트랭 가문의 금고에 대한 특별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깨비는 보그로드의 귀에 대고 다급히 속삭였지만,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린 늙은 도깨비는 그를 무시했다.

“나도 그 지시를 알고 있네, 하지만 레스트랭 부인께서 자신의 금고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지 않나..... 아주 유서 깊은 가문이고, 오랜 고객이지..... 자, 이쪽으로....”

늙은 도깨비는 여전히 쟁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훌 안으로 나가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를 향해 서둘러 걸어갔다. 해리는 트래버스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이상하게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해리는 결단을 내리고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다. 그러자 트래버스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더니 양전히 뒤를 쫓아왔다. 문 앞에 당도한 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울퉁불퉁한 돌로 된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큰일났군. 그들이 의심하고 있어.”

그들 뒤에서 문이 쿵 닫히는 순간, 해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투명 망토를 끌어내렸다. 그립죽은 그의 어깨에서 훌쩍 뛰어 내렸다. 트래버스와 보그로드 둘 다, 그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해리 포터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들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걸었어.”

하나같이 멍한 얼굴로 서 있는 트래버스와 보그로드를 보고 헤르미온느와 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해리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래도 강력하게 걸지는 못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그때 또 다른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처음 용서받지 못할 저주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진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넌 그걸 정말 진심으로 해야 해, 포터!”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론이 물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여길 나갈까?”

“글쎄, 그럴 수만 있다면.”

헤르미온느가 중앙 훌로 들어가는 문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계속해야 해.”

해리가 말했다.

“좋아!”

그립죽이 말했다.

“그럼, 보그로드가 궤도차를 조종하도록 해야 해. 나는 더 이상 권한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기 저 마법사가 틀 자리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해리는 지팡이로 트래버스를 가리켰다.

“임페리오!”

트래버스는 발길을 돌리더니 어두운 선로를 따라 씩씩하게 걸어 나갔다.

“뭘 하도록 만든 거야?”

“숨도록 했어.”

해리가 이번에는 지팡이로 보그로드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러자 보그로드는 횡하고 휘파람을 불어 자그만 궤도차를 호출했다. 궤도차는 어둠 속에서 선로를 타고 그들 쪽으로 굴러 왔다. 그들 모두가 궤도차에 올라타고 있을 때, 해리는 등 뒤에 있는 중앙 훌에서 터져 나오는 고함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보그로드가 그립죽과 함께 앞에 탓고,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뒤쪽에 함께 끼어 닦았다.

갑자기 덜컹하더니 궤도차가 속력을 내며 출발했다. 그들은 벽의 틈새 속으로 베동거리며 들어가고 있는 트래버스를 지나서 앞으로 돌진했다. 곧 궤도차는 요리조리 방향을 틀면서 미로 같은 통로를 통과하기 시작하더니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갔다. 해리는 궤도차가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리칼이 뒤로 휘날렸고, 그들은 종유석들 사이를 지나 땅속으로 더욱 깊숙이 빠르게 들어갔다. 해리는 계속해서 뒤쪽을 살폈다. 그들은 차라리 엄청난 발자국들을 뒤에 남기고 오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죽음을 먹는 자들이 누가 지팡이를 훔쳐 갔는지 뻔히 알고 있는 마당에, 헤르미온느를 벨라트릭스로 변장시켜 벨라트릭스의 지팡이를 들고 오게 한 것이 더욱더 어리석게 여겨졌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해리는 그린고트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들은 속력을 내어 U자 형 커브를 돌았고, 별안간 그들 앞의 선로 위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해리는 그립훅이 “안 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대로 그 폭포를 훙 통과했다. 해리의 눈과 입 속에 물이 가득 차서 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갑자기 궤도차가 덜컹거리더니 뒤집어졌고, 그들은 일제히 밖으로 퉁겨 나갔다. 해리는 궤도차가 통로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나는 소리를 들었다. 뒤이어 헤르미온느가 뭐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마치 무중력 상태에 들어간 사람처럼, 자신이 아무런 고통 없이 울퉁불퉁한 통로 바닥에 가볍게 등을 대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와.....와충 마법이야.”

론이 일을켜 세워 주자, 헤르미온느가 푸푸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더 이상 벨라트릭스의 모습이 아닌 헤르미온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헐렁한 망토를 두른 채 흠뻑 젖은, 원래 모습의 헤르미온느가 서 있었다. 론 역시 다시 빨간 머리가 돌아오고 턱수염이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만져 보고는,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다.

“도둑 방지용 폭포야!”

그립훅이 엉거주춤 일어서서, 물바다가 되어 버린 선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해리도 그제야 비로소 그 폭포가 단순한 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건 모든 마법을 씻어 버리지. 모든 마법적 위장을 말이야! 그들은 그린고트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를 막기 위해서 방어 장치들을 작동시킨 거야!”

해리는 구슬 백이 아직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헤르미온느의 모습을 보자, 허둥지둥 걸핏 안에 손을 집어넣어 투명 망토를 뒤집어버린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때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흔들고 있는 보그로드를 보았다. 도둑 방지용 폭포가 임페리우스 저주도 제거한것 같았다.

“우리는 저자가 필요해.”

그립훅이 말했다.

“그린고트의 도깨비 없이 금고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클랭커도 필요해!”

“임페리오!”

해리가 다시 주문을 외웠다. 그의 목소리는 돌로 된 통로 안에 짜렁짜렁 울려 퍼졌다. 그는 다시 머리에서부터 지팡이로 흐르는 아찔한 통제력을 느낄 수 있었다. 보그로드는 또다시 해리의 뜻에 따르게 되었다. 어리둥절하던 그의 표정이 정중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변했다. 론은 잽싸게 금속 연장들이 들어잇는 가죽 가방을 낚아챘다.

“해리,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말하더니, 벨라트릭스의 지팡이로 폭포를 가리키며 외쳤다.

“프로테고!”

방패 마법이 통로로 흘러넘치는 마법의 물을 차단했다.

“생각 잘했어.”

해리가 말했다.

“길을 인도해요, 그립훅.”

“어떻게 다시 빠져나가지?”

론이 도깨비를 쫓아 어둠 속으로 서둘러 걸어가면서 말했다. 한편 보그로드는 늙은 개처럼 헐떡거리며 뒤를 따라왔다.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자.”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썼다. 무언가 짤랑거리며 근처를 맴도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립죽, 얼마나 멀었죠?”

“멀지 않았어, 해리 포터, 멀지 않아.....”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들은 출곧 대비해 왔던 그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자, 역시 모두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저 앞에서 거대한 용이 땅바닥에 사슬로 묶인 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네댓 개의 금고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땅 밑에 너무 오래 감금되어 있어서, 괴수의 비들은 색이 바래고 푸석푸석해졌으며, 눈은 뿐연 빛이 감도는 핑크색이 되었다. 그리고 양쪽 뒷다리에는 육직한 족쇄가 채워져 있었는데, 족쇄에 달린 쇠사슬은 바닥에 깊이 박힌 거대한 말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그 날개를 펼친다면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용이 흉측한 머리통을 그들 쪽으로 돌리더니 바위가 진동 할 만큼 커다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입을 껑 벌리고 불길을 내뿜는 바람에, 그들은 통로를 거슬러 달아날 수 밖에 없었다.

“저놈은 앞을 잘 못 봐.”

그립죽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서인지 엄청나게 사납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놈을 조종할 방법이 있어. 저놈은 클랭커가 다가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웠어, 그거 나한테 줘.”

론이 가방을 그립죽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도깨비는 수많은 작은 금속 도구들을 꺼냈는데, 그것들은 흔들면 마치 작은 망치가 모루를 내려치듯 쟁쟁 울리는 커다란 소리를 냈다. 그립죽이 그것들을 내밀자 보그로드는 자신의 크랭커를 고분고분 받아 들었다.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그립죽이 해리, 론,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저놈은 이 소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고통이 따라온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놈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을 때, 보그로드가 손바닥을 금고 문 위에 올려놓아야만 해.”

그들은 클랭커를 흔들며 다시 모퉁이를 돌아 나아갔다. 그 소리는 바위투성이 벽들에 메아리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증폭했다. 그 굉음에 해리는 머릿속까지 울리는 듯 했다. 용은 또 한 번 사납게 포효하더니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해리는 용이 부르르 떠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용의 얼굴에 난 잔혹한 칼자국을 보았다. 해리는 용이 클랭커 소리를 들으면 뜨겁게 달구어진 칼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졌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에게 손으로 문을 누르라고 해!”

그립죽이 해리를 재촉하자, 해리는 지팡이를 다시 보그로드에게 겨누었다. 늙은 도깨비는 명령에 따라 손바닥으로 나무문을 눌렀다. 그러자 금고 문이 스르르 녹아 없어지면서 동굴 같은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황금 동전과 황금 잔, 순은 갑옷, 괴이한 생물들의 가죽(몇몇은 척추가 길었고, 다른 것들은 축 들어진 날개가 달려 있었다.), 보석이 박힌 유리병에 담긴 마법약과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는 해골등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

“찾아봐, 빨리!”

해리가 외치자, 그들은 모두 금고 안으로 황급히 뛰어 들어갔다.

해리는 후풀푸프의 잘이 어떻게 생겼는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만약 이 금고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정체불명의 호크룩스라면, 해리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었다. 미처 그가 주위를 둘러보기도 전에, 그들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금고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 훑싸였다.

“상관없어, 보그로드가 우리를 내보내 줄 수 있을 거야!”

론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자, 그립죽이 타일렀다.

“지팡이를 좀 밝혀 주겠어? 그리고 서둘러! 시간이 별로 없다고!”

“루모스!”

해리는 불 밝힌 지팡이로 금고 안을 비추었다. 지팡이에서 훌러나온 빛줄기가 보석들 위에서 반짝거렸다. 해리는 가짜 그리핀도르의 칼이 높은 선반 위, 목걸이 더미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윽고 론과 헤르미온느도 각자 지팡이에 불을 밝혔다. 이제 그들은 주위에 쌓여 있는 물건 더미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해리, 이게 혹시.....? 아아!”

헤르미온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해리는 얼른 지팡이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보석 박힌 잔 하나가 그녀의 손아귀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잔은 바닥에 떨어져서 갈라지더니 수 많은 잔들이 수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짹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루는 사방으로 굴러가는 똑같은 잔들로 뒤덮였다. 이제 그것들 중에서 원래 잔을 구별해 내기란 불가능했다.

“저 잔에 데었어!”

헤르미온느가 물집이 생긴 손가락을 빨며 신음했다.

“복제 저주와 화상 저주를 동시에 걸어 놓은 거야!”

그립죽이 말했다.

“너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동시에 복제될 거야. 복제된 것들은 아무 가치도 없지.....그러니 만약 너희가 보물에 계속 손을 댄다면, 결국 주체할 수 없이 불어난 황금의 무게에 깔려 죽고 말 것이다!”

“좋아, 아무것도 만지지 마!”

해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론이 떨어지 잔 하나를 잘못하여 발로 슬쩍 건드리고 말았다. 평 하며 스무 개는 더 되는 잔이 늘어났고, 론은 제자리에서 풀짝풀짝 뛰었다. 뜨거운 금속에 닿은 그의 신발은 일부가 타버렸다.

“가만히 서 있어! 움직이지 마!”

헤르미온느가 론을 꽉 붙들며 말했다.

“그냥 둘러만 봐!”

해리가 말했다.

“기억해 봐, 그 잔은 작고 황금으로 돼 있어. 오소리가 새겨져 있고, 손잡이가 둘이야.....그 외에도 어딘가에 레번클로의 상징인 독수리가 있는지 살펴봐.....”

그들은 제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맴돌면서, 후미진 구석과 틈새까지 살살이 지팡이를 비추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번에는 해리가 이미 잔들이 쏟아져 있는 바닥 위에 다시 가짜 금화의 흥수를 일으켰다. 이제는 거의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다. 번쩍이는 황금은 열기로 더욱 달아올랐고, 금고 안은 마치 용광로 같았다. 해리의 지팡이 불빛이 천장까지 솟아 있는 선반들 위에 놓인 방패와 도깨비가 제작한 투구들을 차례차례 훑고 지나갔다. 해리는 불빛을 점점 더 높이 비추었고, 순간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해리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그게 저기 있어! 저기 위에 있어!”

론과 헤르미온느도 그것을 향해 지팡이를 비추었다. 조그만 황금 잔은 세 방향에서 비추는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원래 헬가 후플푸프의 것이었다가 훗날 험시바 스미스의 소유가 되었고, 톰 리들이 그녀에게서 훔쳐 냈던 바로 그 잔이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수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저 위에 올라간담?”  
론이 물었다.

“아씨오 잔!”

헤르미온느가 외쳤다. 너무나 절박했던 나머지, 헤르미온느는 그립죽이 작전 기간 동안 일러 준 사실들을 깨먹은 것이 분명했다.

“소용없어. 소용없다니까!”  
도깨비가 호통을 쳤다.

“그럼 어떡하죠?”

해리가 도깨비에게 눈을 부릅뜨며 물었다.

“만약 칼을 원한다면 그립훅. 우리를 더 제대로 도와줘야 해요. 잠깐! 칼로는 물건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헤르미온느, 그거 이리 줘 봐!” 헤르미온느는 망토 안쪽을 더듬어 구슬 백을 꺼냈다. 그리고 잠시 주섬주섬 뒤적이더니, 번쩍이는 칼을 내놓았다. 해리는 루비가 박힌 칼자루를 쥐고, 칼끝으로 가까이에 있는 은제 포도주 한병을 슬쩍 건드려 보았다. 과연 그 병은 불어나지 않았다.

“내가 저 손잡이에 칼을 찔러 넣을 수만 있다면.....하지만 저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잔이 놓여 있는 선반은 어느 누구의 손도, 심지어 가장 키가 큰 론의 손도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다. 마법에 걸린 보물들에게 훌러나오는 열기가 이글이글 치솟았다. 해리가 잔에 달을 방도를 궁리하며 머리를 쥐어 짜는 동안, 땀이 해리의 얼굴과 등을 타고 훌러내렸다. 잠시 후 그는 금고 문 저편에서 용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쪄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곳을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문 너머에서는 도깨비 무리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보았다.

“헤르미온느”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지자 해리가 말했다.

“난 저 위에 올라가야 해, 반드시 저걸 없애야 한다고.....”

헤르미온느가 지팡이를 들더니 해리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레비코푸스.”

방목을 낚아채인 듯 거꾸로 공중에 떠오른 해리가 갑옷에 부딪혔다. 그러자 하얗게 달아오른 몸뚱이 같은 가짜 갑옷들이 우르르 불어나면서 비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론과 헤르미온느, 그리고 두 도깨비는 고통의 비명을 내지르며 다른 물건들 위로 쓰러졌다. 그러자 그 물건들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점점 차오르는 시뻘겋게 달궈진 보울 속에 반쯤 파묻힌 그들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때 해리가 후풀푸프의 잔의 손잡이에 칼을 밀어 넣었고, 칼날로 잔을 낚아챘다.

“임페르비우스!”

헤르미온느가 자신과 론, 도깨비들을 달아오른 금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곧이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처절한 비명 소리에 해리는 밀을 내려다 보았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허리 깊이까지 보물 더미에 파묻힌 채 점점 차오르는 보울의 홍수 속으로 보그로드가 훨슬려 가지 않도록 용을 쓰고 있었다. 한편 그립훅은 완전히 가라앉아서 긴 손가락 끝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해리는 그립훅의 손가락을 쥐고 끌어올렸다. 물집투성이가 된 도깨비가 악을 쓰며 조금씩 떠올랐다.

“리베라코푸스!”

해리가 소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와 그립훅은 불어나는 보울의 꼭대기에 내려앉았고, 칼이 해리의 손에서 날아갔다.

“저걸 잡아!”

해리는 뜨거운 쇠불이가 살갗에 닿는 고통과 싸우며 소리쳤다. 한편 그립훅은 점점 불어나는 뜨거운 보물들을 피하기로 작정한 듯 다시 그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칼이 어디 있지? 거기에 잔이 걸려 있다고!”

문 반대편에서는 쟁그렁거리는 소리가 귀가 멍멍할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저기!”

칼을 발견한 것도, 그리고 재빨리 몸을 던진 것도 바로 그립훅이었다. 그 순간 해리는 그 도깨비가 단 한번도 자신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립죽은 벌겋게 달궈진 황금의 거대한 물결 속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는 해리의 머리칼을 꽉 움켜쥔 채, 다른 한 손으로 칼자루를 붙잡았다. 그리고 해리가 잡지 못하도록 그 칼을 높이 들었다.

그 바람에 칼날에 손잡이가 걸려있던 자그만 황금 잔이 휙 하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도깨비가 여전히 어깨에 올라타고 있었지만 해리는 몸을 날려 그 잔을 잡았다. 그는 잔에 살이 타들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을 놓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후풀푸프의 잔들이 그의 주먹 안에서 평평 터져 나와 비처럼 그의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때 금고 문이 열렸다. 해리는 걷잡을 수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는 뜨거운 금과 은 더미가 그와 론, 헤르미온느를 실은 채 금고 밖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해리는 온몸을 뒤덮은 화상의 통증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어나고 있는 보물의 물결위로 떠내려가면서도 주머니 속으로 잔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칼을 되찾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립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립죽은 기회가 오자마자 재빨리 해리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에워싼 도깨비들 속으로 쓴살같이 달려가 숨더니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도둑이야!”

그립죽은 몰려오는 무리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도깨비들은 모두 손에 단도를 들고 있었고, 그를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뜨거운 쇠불이 위를 미끄러지던 해리는 간신히 일어섰다. 그리고 유일한 출구가 뚫렸음을 깨달았다.

“스투페파이!”

그가 큰 소리로 외쳤고, 론과 헤르미온느도 가세했다. 빨간 광선이 도깨비 무리를 향해 발사되었다. 몇몇 도깨비가 쓰러졌지만, 나머지 도깨비들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다. 해리는 마법사 보조 여려명이 모퉁이를 돌아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때 사슬에 묶인 용이 으으렁거리더니, 불길이 도깨비들을 향해 세차게 뿜어 나왔다. 마법사들은 방향을 바꿔서 왔던 길로 허둥지둥 달아났다. 그때 놀라운 영감이랄까, 혹은 미친 망상이라고 할까, 어떤 생각이 해리에게 떠올랐다. 그는 야수를 바닥에 묶어 두고 있는 두꺼운 족쇄를 지팡이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레라시오!”

족쇄가 쾅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이쪽이야!”

해리가 소리쳤다. 그리고 다가오는 도깨비들에게 계속해서 기절 마법을 쏘며, 눈먼 용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해리.....해리.....무슨 짓을 하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외쳤다.

“일어나! 올라타, 어서.....”

용은 자신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해리는 한쪽 발을 구부러진 용의 뒷다리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용의 등 위에 올라탔다. 용의 비늘들은 강철처럼 딱딱했다. 그래서인지 용은 그가 올라탄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듯 했다. 그는 한 팔을 내밀었다. 그러자 헤르미온느가 그 팔을 잡고 올라갔다. 론은 그들 뒤를 따라서 용의 등에 올라탔다. 잠시 후 용은 자신이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드디어 용은 포효하며 뒤다리로 번쩍 일어섰다. 해리는 뾰족한 비늘을 최대한 꽉 움켜쥐고는 무릎을 꽉 조였다. 그때 날개가 펼쳐지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도깨비들을 볼링핀처럼 쓰러트렸다. 용은 공중으로 출렁 솟아올랐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용의 등에 납작 달라붙었지만, 용이 열려있는 출구를 향해 뛰어들자, 천장에 달아 몸이 굽혔다. 한편 추격하던 도깨비들이 사납게 단도를 휘둘렀지만 용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우리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이 녀석은 너무 커!”

헤르미온느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용은 입을 꽉 벌리더니 또다시 불꽃을 내뿜어 통로를 폭파해 버렸다. 통로의 바닥과 천장이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다. 용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해리는 뜨거운 열기와 먼지를 피하기 위해 눈을 꼭 감았다.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용이 포효하는 소리에 귀가 멍멍했다. 해리는 행여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며 그저 용의 등에 바싹 달라붙어 있을 뿐이었다. 그때 헤르미온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데포디오!”

용이 크랭커를 울리며 악을 쓰는 도깨비들로 달아나서 더욱 신선한 대기를 향해 날아오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동안, 헤르미온느는 천장에 금을 내어 용이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와 론도 그녀를 따라했고, 더 많은 굴착 주문으로 천장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지하 호수를 통과했다.

느릿느릿 기어가며 으르렁거리는 이 거대한 짐승도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드넓은 공간과 자유를 감지한 듯 했다. 그들이 지나온 통로는 훑훌 내려치는 용의 꼬리와 거대한 바위 덩어리와 집채만한 종유석 조각들로 가득찼다.

도깨비들의 짹그랑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 했다. 한편 앞에서는 용의 불길이 그들의 나아갈 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마침내 그들의 주문과 용의 무지막지한 힘이 합쳐서 통로를 폭파했고, 그들은 대리석 터로 탈출했다. 도깨비들과 마법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숨을 곳을 찾아 도망쳤다. 마침내 용은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시원한 바깥 공기를 향해서 뿔달린 머리를 돌린 용은 입구 너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용이 날아올랐다. 여전히 등에 꼭 매달려 있는 해라와 론, 헤르미온느를 실은 채, 용은 강제로 철문들을 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비틀려서 문설주에 매달린 철문들을 뒤로 한채, 기우뚱거리며 다이애건 앤리로 빠져나가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다.

### 제 27 장 마지막 은닉처

용을 조종할 방법은 전혀 없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용 자신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허공에서 용이 갑자기 몸을 틀거나 거꾸로 돌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용의 넓적한 등판에 달라붙어 있을 수 없을 거란 사실을 해리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저 밑으로 회녹색의 지도 처럼 펼쳐진 런던을 뒤로 한채 점점 더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탈출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고마워서 그저 가슴이 벅찰 뿐이었다. 짐승의 목에 납작 엎드린 해리는 금속성의 비늘을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바람이 화상입고 물집이 잡힌 살갗을 어루만져 주었다. 용의 날개는 마치 풍차의 날개처럼 힘차게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론이 한껏 핏대를 세우며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흐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5분 정도 지나자, 해리는 당장 용이 그들을 떨어뜨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떨쳐 버릴수 있었다. 왜냐하면 용은 저 지하감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용의 등에서 내려가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해리는 용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착륙하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게다가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용이 과연 내려앉기에 적당한 장소를 고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해리는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흉터가 쿡쿡 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레스트랭의 금고를 털었다는 사실을 볼드모트가 아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린고트의 도깨비들은 얼마나 빨리 이 사실을 벨라트릭스에게 알릴까? 과연 그들은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얼마나 빨리 깨닫게 될까? 그리고 황금 잔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결국 볼드모트는 그들이 호크룩스를 쫓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용은 더 차갑고 더 신선한 공기를 갈망하는 것 같았다. 차가운 구름 속을 날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솟구쳐 올라갔던 것이다. 해리는 더 이상

런던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나오는 자동차 행렬의 알록달록한 작은 점들을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날고 또 날았다. 초록색 부분과 갈색 부분으로 나뉜 교외를 지나서, 마치 광택이 나는 리본과 나지 않는 리본처럼 땅 위를 구불구불 수놓은 강들과 도로들 위를 지나갔다.

“이 용이 뭘 찾고 있는 것 같니?”

점점 더 북쪽으로 자꾸만 날아가고 있을 때, 론이 큰소리로 외쳤다.

“전혀 모르겠어.”

해리도 소리쳐 대답했다. 두 손은 추위로 감각을 잃었지만, 감히 움켜쥔 손아귀를 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동안은 출곧 만약 용이 드넓은 바다로 향한다면, 그래서 발밑으로 연안 선박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추워서 온몸이 얼얼했다. 해리는 궁금했다. 이 용은 언제 마지막으로 먹이를 먹었을까? 이 용도 머지않아 뭔가 먹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그런 순간에 용이 자기 등에 대단히 먹음직스런 인간 세 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지? 태양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늘은 쪽빛으로 변해 갔다. 그래도 용은 여전히 날아갔고, 도시들과 마을들이 훑휙 스쳐갔다. 용의 거대한 그림자는 마치 커다랗고 검은 구름처럼 땅 위를 미끄러졌다. 해리는 용의 등에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다보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내가 착각하는 건가?”

기나긴 침묵이 이어진 끝에 론이 소리를 질렀다.

“아니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맞아?”

해리가 밑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초록색 산들과 석양을 받아 구릿빛으로 물든 호수들이 보였다. 눈을 가늘게 뜨고 용의 옆구리 너머로 내려다보니, 풍경들이 점점 더 커지고 뚜렷해지는 것 같았다. 해리는 혹시나 용이 호수에 반사된 햇빛의 광채 때문에 마실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용은 커다랗게 나선을 그리며 점점 더 낮게 날아갔다. 작은 호수들 중 하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용이 충분히 낮게 내려가면 뛰어내리라고 내가 말할게!”

해리가 다른 두 사람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용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채기 전에,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어!”

두 사람이 동의했다. 헤르미온느는 약간 겁이 난 듯했다. 이제 해리는 용의 넓적하고 노란 아랫배가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이야!”

해리는 용의 옆구리를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리고 호수 수면을 향해 곧장 뛰어들었다. 그가 어림잡았던 것보다 떨어지는 높이가 상당했다. 그는 세차게 물과 충돌했고, 돌맹이처럼 갈대로 가득 찬 초록색의 차가운 세상 속으로 풍덩 빠졌다. 그는 수면을 향해서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숨을 헐떡거리며 물위로 떠오르자, 론과 헤르미온느가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원을 그리며 넓게 퍼지고 있는 거대한 파문이 보였다. 용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이미 15 미터쯤 떨어진 용은, 호수 위로 낮게 날아 내려가 상처 입은 주둥이로 물을 떠먹고 있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물을 푸푸 내뿜고 숨을 헐떡거리며 호수의 심연으로부터 떠올랐을 때, 용은 힘차게 날개를 흔들며 날아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있는 강둑 위에 내려앉았다.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반대편 호숫가를 향해 나갔다. 호수는 별로 깊어 보이지 않았다. 곧 헤엄치는 것 보다는 갈대와 진흙을 헤치고 나가는 게 더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물에 흠뻑 젖고 숨을 헐떡이며 기진맥진 한 채, 미끈거리는 풀밭 위에 텔썩 쓰러졌다.

헤르미온느는 기침을 하고 몸을 덜덜 떨면서 무너져 내렸다. 해리도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꺼냈다. 그리고 주위에 일상적인 보호주문을 걸기 시작했다.

그 일이 끝나자, 해리는 다른 두 사람 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금고에서 도망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얼굴과 팔

전체에 빨갛게 성이 난 화상자국들이 가득했다. 옷도 여기저기 불에 타 그슬렸다. 그들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수많은 상처에 디터니 원액을 톡톡 두드려 바르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약병을 건네주더니, 조개껍데기 오두막집에서 가져온 호박 주스 세 병과 세 사람이 입을 깨끗하고 마른 옷가지를 꺼냈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호박 주스를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두 손에 새살이 돌아나는 걸 지켜보며 앉아있던 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호크룩스를 손에 넣었다는 거지. 나쁜 일은.....”

“칼이 없다는 거야”

해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불에 타서 뚫린 청바지 구멍 속으로 심한 화상을 입은 자리에 디터니 원액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칼이 없단 말이지.”

론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 쥐새끼 같은 배신자 악당 놈.....”

해리는 방금 벗어 놓은, 물에 젖은 걸옷의 호주머니에서 호크룩스를 꺼냈다. 그리고 풀밭 위에 내려놓았다. 핫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은 주스를 병째 들이켜고 있던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적어도 이번에는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없어, 목에 걸고 다니면 꽤 이상해 보일걸.”

론이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호수 건너편 저 멀리에 있는 강둑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용이 아직도 물을 마시고 있었다.

“저 용은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무사할 수 있을까?”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너 꼭 해그리드처럼 말하는 구나.”

론이 말했다.

“저건 용이야, 헤르미온느. 얼마든지 자신을 돌볼 수 있어. 정작 걱정해야 할 건 바로 우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너에게 이걸 어떻게 깨우쳐 줘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린고트를 침범했다는 걸 저자들이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고.”

세 사람은 일제히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다. 일단 웃음보가 터지가 멈출 수가 없었다. 해리는 옆구리가 쑤셨고, 배고픔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불에 물들어 가는 하늘 아래 펼쳐진 풀밭에 벌렁 누워서 목구멍이 아프도록 실컷 웃었다.

“그런데 이제 우린 뭘 해야 하지?”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딸꾹질을 하며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되어 물었다.

“그자가 알게 될 거야, 안 그래? 우리가 호크룩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자도 알게 될 거라고!”

“혹시 그놈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

론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그냥 이 사실을 숨기기로.....”

그때 하늘과 호수의 물 냄새와 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칼에 맞은 듯이, 해리의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팠다. 해리는 희미하게 불이 밝혀진 방 안에 서 있었다. 마법사들이 반원을 그린 채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조그만 형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네놈이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의 목소리는 높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단 한가지 일.....하지만 이것이 사실일 리가 없었다. 그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도깨비는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빨간 두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다.

“다시 말해 봐라!”

볼드모트가 중얼거렸다.

“다시 한번 말해!”

“주.....주인님.”

도깨비가 더듬거렸다. 그의 새까만 눈은 공포로 휘둥그레져 있었다.

“주.....주인님.....저희는 그.....그들을 막으려고,

노.....노력했습니다. 치....침입자들이 주인님.....레그트랭 가문의  
그..금고를 뚫고.....뚫고 들어가서.....”

“침입자들이라고? 어떤 침입자들이지? 그린고트는 침입자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그자들이 누구냐?”

“그건.....그건.....포.....포터라는 그 소.....소년과  
두.....두 명의 공범자들.....”

“그래서 그들이 뭘 가져갔지?”

그가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숨 막히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어서 말해! 그놈들이 뭘 가져갔지?”

“자.....작은 황금 자.....잔을, 주.....주인님.....”

현실을 부정하는, 분노에 찬 비명 소리가 마치 다른 낯선 이의 것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그는 격분했고, 광란에 빠졌다. 이것이 사실일 리가 없었다. 이건 불가능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그 녀석이 어떻게 그의 비밀을 알아 낼 수가 있었단 말인가?

딱총나무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자, 초록 불빛이 방을 가로질러 발사되었다.

무릎을 끊고 있던 도깨비가 떼굴떼굴 구르더니 숨이 끊어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법사들도 겁에 질려, 그의 앞에서 황급히 도망쳤다.

벨라트릭스와 루시우스 말포이는 다른 사람들을 밀치면서 문을 향해 전력질주했다. 다시, 또다시 그의 지팡이가 허공을 갈랐고, 남아 있던 자들은 모두 살해를 당했다. 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 죄로, 황금 잔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한 죄로.....

죽은 자들 속에서 흘로 남은 그는 폭풍처럼 사납게 날뛰었다. 그것들의 모습이 그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보물이자 생명의 보호물이며, 불멸을 위한 닻인 그것들이, 일기장은 파괴되었고 잔은 도난당했다. 만약, 만약에 그 녀석이 다른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만약 그 녀석이 벌서 행동을 취하고 더 많은 호크룩스를 추적했다면, 과연 그가 알 수 있을까?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덤블도어가 있었을까? 항상 그를 의심했던 덤블도어, 그의 명령에 의해 죽음을 당한 덤블도어, 그자의 지팡이는 지금 그의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 바로 그 아이를 통해서 그자는 치욕스런 죽음으로부터 손을 뺏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 녀석이 호크룩스들 중 어느 하나라도 파괴했다면, 분명 볼드모트 경이 알아차리지 않았겠는가? 혹은 느끼기라도 하지 않았겠는가? 이 세상 모든 마법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마법사인 그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그가, 덤블도어와 수많은 다른 무가치하고 이름 없는 자들을 죽인 바로 그가 말이다. 도대체 어떻게 볼드모트 경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바로 그가, 그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자기 자신이 공격을 당하고 절단당했는데?

물론 일기장이 파괴되었을때, 그는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 그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몸을 갖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유령보다도 못한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아니, 분명히 다른 것들은 무사하다.....다른 호크룩스들은 틀림없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분명히 확인해 봐야만 한다.....그는 발길에 차이는 도깨비의 주검을 옆으로 걷어차면서 방 안을 서성거렸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의 머릿속으로 온갖 영상들이 흐릿하게 떠올랐다가 회르르 타올랐다.

호수, 곤트의 집 그리고 호그와트.....

이제 약간이나마 마음이 진정되면서 그의 분노가 사그라졌다. 그가 곤트의 집에 그 반지를 숨겼다는 사실을 그 녀석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가 곤트 집안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 관계를 철저하게

감추었고, 그 살인들은 한 번도 그와 연루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반지는 분명 안전했다.

그리고 그 녀석이, 혹은 이 세상 어느 누가 그 동굴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보호 마법을 뚫고 들어 갈 수 있겠는가? 그 로켓이 도난당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한편 학교로 말하자면, 오직 그 만이 호그와트 안의 어디에 그 호크룩스를 넣어 두었는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장소의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파헤쳐 본 사람은 오직 그밖에 없으므로.....

게다가 내기니가 있었다. 이제 그놈은 더 이상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멀리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의 보호하에 가까이 두어야만 한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은닉처들을 하나씩 찾아가 봐야만 한다. 그리고 그의 호크룩스 하나하나에 더욱 강화된 보호막을 쳐야만 한다.....이것은 딱총나무 지팡이를 찾는 일처럼, 반드시 그가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까?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하지? 오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다. 덤불도어는 그의 중간 이름을 알고 있었다.....어쩌면 곤트 집안과의 연관성을 짐작했을지도 모른다.....그들의 버려진 집이야말로 아마 그의 은닉처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일 것이다.

그러니 그가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였다.....

그 호수는, 틀림없이 불가능했다.....비록 덤불도어가 고아원을 통해서 그가 옛날에 저지른 악행들을 일부 알아냈을 가능성은 아주 약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호그와트.....하지만 그는 그곳에 있는 호크룩스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포터가 발각당하지 않고 호그스미드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쩌면 성에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스네이프에게 미리 경고해 두는 편이 안전할 것이다.....물론 그 녀석이 왜 돌아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까지 스네이프에게 말해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벨라트릭스와 말포이를 믿었던 것은 참으로 크나큰 실수였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놈들의 멍청함과 부주의함이 입증하지 않았는가?

이제 내기니를 데리고 제일 먼저 곤트의 집을 찾아갈 것이다.....앞으로는 결코 이 뱀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그는 성큼성큼 방을 걸어 나와서 훌을 지낫다. 그리고 분수가 솟고 있는 어두운 정원으로 나간다. 그는 파셀통그로 뱀을 불렀다. 뱀은 긴 그림자처럼 스르르 미끄러져 나와서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해리가 두 눈을 번쩍 뜨다. 그는 자신을 다시 현실로 되돌리기 위해서 기를 썻다. 그는 저울어 가는 태양이 비추는 호숫가 둔덕에 누워있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걱정 가득한 그들의 표정과 계속해서 육신육신 쑤시는 흉터로 미루어볼때, 그가 갑자기 볼드모트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단 사실이 들통난 모양이었다. 해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여전히 흥빡 젖어있다는 사실이 약간 놀라웠다. 그는 풀밭에서 무심히 풍덩 뛰어 있는 잔과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든 짙푸른 호수를 보았다.

“그가 알았어.”

볼드모트의 높은 비명 소리 이후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웬지 낯설고 낯개 느껴졌다.

“그가 알았어. 이제 그는 다른 호크룩스들이 잇는 곳을 살펴 보려 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 호크룩스는.....”

해리는 이미 벌떡 일어나 앉았다.

“호그와트에 있어. 난 알았어. 난 알았다고.”

“뭐라고?”

룬이 그를 보며 입을 딱 벌렸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몹시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똑바로 앉았다.

“하지만 뭘 본 거니? 어떻게 알았어?”

“그자가 이 잔에 대해 알게 되는 장면을 보았어. 난.....난 그자의 머릿속에 있었지. 그는.....”

해리는 그 살해 장면을 떠올렸다.

“그는 굉장히 분노하고, 겁도 났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 이제 그자는 다른 호크룩스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려 갈거야. 제일 먼저 그 반지부터. 그자는 호그와트에 있는 호크룩스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하면 스네이프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거긴 눈에 띄지 않고 숨어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우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기 있는 걸 제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것 같아. 하지만 어쩌면 그자가 불과 몇 시간 내로 호그와트를 찾아올 수도 있어.”

“호그와트 안 어디에 있는지도 보았니?”

룬이 물었다. 이제는 그도 급히 일어섰다.

“아니, 그자는 온통 스네이프에게 경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정확히 그게 어디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잠깐, 잠깐 기다려!”

룬이 호크룩스를 집어들고 해리가 다시 투명 망토를 꺼내는 순간,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대로 갈 수는 없어. 아무 계획도 안 세웠잖아. 우리 먼저.....”

“먼저 떠나야만 해.”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해리 역시 이제 잠을 잘 수 있으리란 희망에 부풀어 새 �tent 속으로 들어갈 순간만을 고대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건 불가능했다.

“너희는 그자가 반지와 로켓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무슨 짓을 할지 짐작이 가니? 만약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호그와트에 있는 호크룩스를 옮기기라도 한다면?”

“하지만 어떻게 호그와트 안으로 들어가지?”

“일단 호그스미드로 갈 거야.”

해리가 말했다.

“그런 다음에 학교 주변에 어떤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보고, 뭔가 방법을 궁리해 보자. 헤르미온느, 어서 투명 망토 속으로 들어와. 이번에는 다 같이 쓰고 갈거야.”

“하지마 우리가 다 쓸 수는 없.....”

“곧 어두워질거야. 우리 발 정도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텐데 뭐.”

거대한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검은 수면을 가로질러 울려퍼졌다. 용은 실컷 물을 마시고 이미 하늘로 날아 올라가 있었다. 출발 준비를 하던 세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는 용을 지켜보았다. 이제 빠르게 어두워지는 하늘에 찍힌 까만 점이 된 그것은 근처 산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이윽고 헤르미온느가 앞으로 걸어오더니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섰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최대한 밑으로 끌어당겼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빙그르 돋 세사람은 온몸을 짓누르는 어둠 속으로 빨려들었다.

## 제 28 장 잃어버린 거울

해리의 두 발이 땅에 닿았다. 가슴이 아플 만큼 친숙한 호그스미드의 하이가가 보였다. 어두운 가게들과 마을 너머에 어스름한 산 그림자들, 호그와트로 이어지는 도로의 모퉁이, 그리고 스리 브룸스틱스의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자, 해리는 갑작스러운 마음의 동요와 함께, 거의 1년 전, 몹시 쇠약해진 덤블도어를 부축한 채 이곳에 도착했던 기억이 예일 듯이 날카롭게 떠올랐다. 이 모든 생각들이 착지하는 순간, 단 1초 동안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가 룬과 헤르미온느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짧은 순간에, 그 일이 벌어졌다.

잔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볼드모트가 내질렀던 것 같은 비명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 소리는 해리의 모든 신경을 잡아 뜯는 것 같았다. 해리는 그들의 출현이 이 비명소리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다. 그가 망토 밑에 숨어 있는 다른 두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스리 브룸스틱스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망토를 걸치고 두건을 뒤집어쓴 열두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해리는 지팡이를 치켜드는 론의 손목을 꼭 잡았다. 기절 마법을 쏘기에는 상대의 수가 너무나 많았다. 공격을 했다가는 그들의 위치만 탄로날 것이다. 죽음을 먹는 자들 가운데 한 명이 지팡이를 흔들자 비명 소리가 멈추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여전히 먼 산 주위로 울려 퍼졌다.

“아씨오, 투명 망토!”

죽음을 먹는 자 가운데 한 명이 외쳤다.

해리는 망토의 주름을 꽉 붙잡았지만, 투명 망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환 마법은 투명 망토에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망토를 쓰고 있지 않겠지, 포터?”

주문을 쏘았던 죽음을 먹는 자가 소리쳤다. 그러고는 동료들을 향해 말했다.

“흩어져, 그가 여기 있다.”

죽음을 먹는 자들 여섯 명이 그들 쪽으로 달려왔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가장 가까운 샷길로 가능한 빨리 후퇴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간발의 차이로 그들을 놓쳤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죽음을 먹는 자들의 수색 중인 지팡이들에서 흘러나온 광선이 길을 따라 떠다녔다.

“그냥 떠나자!”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당장 순간이동을 해!”

“좋은 생각이야.”

론이 말했다. 하지만 해리가 미쳐 대답할 겨를도 없이 죽음을 먹는 자가 소리쳤다.

“우리는 네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다, 포터! 도망갈 길은 없어! 우리는 널 찾아낼거야!”

“저자들은 우리가 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어.”

해리가 속삭였다.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려 줄 주문을 걸어 놓은 거야. 그러니 우리를 여기에 끌어 두기 위해 원가를 해 뒀을 것 같아.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말이야....”

“디멘터들은 어때?”

또 다른 죽음을 먹는 자가 소리쳤다.

“그들을 풀어 주면, 순식간에 그 녀석을 찾아낼 거야!”

“어둠의 마왕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포터를 죽이길....”

“.....디멘터들은 그를 죽이지 않을 거야! 어둠의 마왕님께서는 포터의 목숨을 바라는 것이지, 그놈의 영혼을 바라는게 아니잖아. 일단 입맞춤을 당하고 나면 그 녀석을 죽이기도 쉬워질걸!”

동의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두려움이 해리를 엄습했다. 디멘터들을 쫓아내려면 패트로누스를 불러와야 할 테고, 그러면 즉각 그들의 위치가 탄로날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이동을 한번 시도라도 해 봐야겠어, 해리!”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해리는 예사롭지 않은 한기가 거리에 덮쳐 오는 것을 느꼈다. 사방에서 빛이 흡수되고, 별들마저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그의 팔을 붙잡는 것을 느꼈다. 곧 그들은 동시에 제자리에서 빙그르 돌았다.

하지만 그들이 뚫고 이동해야 하는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 버린 것 같았다.

순간이동을 할 수가 없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마법을 제대로 걸어 놓은

것이다. 싸늘한 한기는 점점 더 깊숙이 해리의 살을 파고들었다. 그와 론, 헤르미온느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벽을 더듬어 옆길로 후퇴했다. 곧 모퉁이를 돌아서, 열댓 명쯤 되는 디멘터들이 소리없이 미끄러지며 다가왔다. 검은 망토를 쓰고 덕지덕지 딱지가 앓은 썩어 문드러진 손을 지닌 그들은, 주위보다 더 짙은 어둠을 띠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저들은 근처에서 공포를 감지할 수 있을까? 해리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느리고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면서, 이제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공기 중에 퍼진 절망의 맛을 보고 점점 가까이.... 그는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디멘터의 입맞춤을 당하고 있을 수도, 당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익스펙토 패트로눔!”이라고 속삭이며 떠올린 것은 다른아닌 론과 헤르미온느였다.

은빛 수사슴이 그의 지팡이에서 솟아나와 돌진했다. 디멘터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보이지 않는 어디에선가 득의양양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놈이야! 저 아래! 내가 그놈의 패트로누스를 봤어! 수사슴이었다고!” 디멘터들이 후퇴하자 별들이 다시 반짝 튀어나왔다. 죽음을 먹는 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런데 공포에 질린 해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근처에서 빗장이 빠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좁은 거리의 원쪽 편에서 문이 하나 열리더니, 거친 목소리가 말했다.

“포터, 이 안으로 어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들 셋은 열린 현관문을 황급히 통과해 들어갔다.

“위층으로 가! 계속 망토 쓰고, 조용히!”

키가 큰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서 거리로 나가더니 등뒤로 문을 꽁 닫았다.

해리는 처음엔 이곳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양초의 흔들리는 불빛을 통해서 지저분하고 텁밥 천지인 호그스 해드 술집이란 걸 알아차렸다. 그들은 카운터 뒤로 달려갔고, 두 번째 출입구를 지났다.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나무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 계단을 있는 힘을 다해 잽싸게 뛰어 올라갔다. 나달나달한 카펫이 깔린 계단은 작은 벽난로가 있는 응접실로 통했다. 벽난로 위에는 금발 소녀의 커다란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 소녀는 약간 얼이 빠진 듯한 다정한 얼굴로 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 밑의 거리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투명 망토를 쓴 채, 더러운 창문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서 밖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구원자는 두건을 뒤집어쓰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해리는 이제 그가 호그스 해드의 바텐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체 뭐야?”

그는 두건을 쓴 얼굴들 중 하나에다 대고 으르렁거렸다.

“대체 뭐냐고! 자네들이 디멘터들을 내 거리에대 풀어놓으면, 난 거기 맞서서 패트로누스를 보낼 거야! 그놈이들이 내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할거라고! 내가 자네들한테 말했지! 난 참지 않겠어!”

“그건 당신 패트로누스가 아니었어!”

죽음을 먹는 자가 대꾸했다.

“그건 수사슴이야, 포터 거라고!”

“수사슴이라고?”

바텐더가 으르렁거리더니 지팡이를 꺼냈다.

“수사슴이란 말이지! 이 얼간이 같은 놈.....익스펙토 패트로눔!”

무언가 거대하고 뿔이 달린 것이 지팡이에서 솟아 나왔다. 그것은 머리를 숙인채 하이가를 향해 돌진하더니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저건 내가 본 게 아니야.....”

죽음을 먹는 자가 말했다. 하지만 전보다는 자신 없는 목소리 였다.

“누군가 통금 시간을 어겼어, 당신도 그 소리 들었잖아.”

그의 동료들 중 한 명이 바텐더에게 말했다.

“누군가 거리에 나와 있었다고…….”

“고양이를 내보내고 싶으면, 난 그렇게 할거야. 네놈들의 통금 같은 건 옛이나 먹으라지!”

“그럼 당신이 고양이아우성 주문을 작동시킨 건가?”

“그랬다면 어쩔 건데? 나를 아즈카반으로 끌고 가시려고? 내 집 대문 앞에 코 좀 내민 죄로 나를 죽이시겠다고? 그럼, 해 보시지, 정원한다면! 하지만 부디 자네가 그를 호출할 요량으로 그 쪼만한 어둠의 표식을 안 눌렀길 바랄 뿐이야. 그자는 지금 이런 시간에 나나 내 늙은 고양이 때문에 호출 받는 걸 썩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말이야, 안 그런가?”

“우리 걱정은 말고.”

죽음을 먹는 자 가운데 한 명이 말했다.

“당신 걱정이나 하시지, 통금을 어겼으니!”

“그래, 내 가게가 문을 닫으면 자네 패거리들은 어디서 마법약이랑 독약을 밀거래 하려고 그러시나? 그럼 그 쥐꼬리만한 부업은 어떻게 되고?”

“지금 당신 협박하는 건가…….”

“물론 나는 입을 꼭 다물 걸세. 그게 바로 자네들이 여기에 온 이유니까, 안 그래?”

“다시 말하자면 나는 수사슴 패트로누스를 보았단 말이야!”

첫 번째 죽음을 먹는 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수사슴?”

바텐더라 으르렁거렸다.

“그건 염소라고, 이 얼간아!”

“좋아! 우리가 실수했나 보군.”

두 번째 죽음을 먹는 자가 말했다.

“또다시 통금 시간을 어기면, 그때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죽음을 먹는 자들은 하이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헤르미온느는 안도하며 꼼하고 한숨을 쉬더니 투명 망토를 빼져나갔다. 그리고 다리가 흔들거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해리는 커튼을 꼭 닫고 나서, 자신과 론을 덮고 있던 투명 망토를 벗었다. 아래층에서 바텐더가 다시 술집 문의 빗장을 걸고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무언가가 해리의 주의를 끌었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거울이 소녀의 초상화 바로 밑, 선반 꼭대기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바텐더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 천하의 명청이들!”

바텐더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길 온 거야?”

“고맙습니다.”

해리가 말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의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바텐더는 툤투거렸다. 해리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길고 질긴 철사 같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수염 너머로 감추어진 모습을 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지저분한 안경알 너머의 두 눈은 상대방을 깨뚫어 볼 듯이 새파랗게 빛났다.

“제가 거울에서 보았던 게 바로 아저씨의 눈이었군요.”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해리와 바텐더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도비를 보내셨죠?”

바텐더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요정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 녀석이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어디에 내버려 두고 온 거지?”

“도비는 죽었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이 죽였어요.”

바텐더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그거 참 유감이구나, 난 그 집요정을 좋아했는데.”

그는 훅 돌아서더니 지팡이로 등잔마다 불을 밝혔다.

그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당신이 애버포스로군요.”

해리가 그의 등에 대고 말했다.

그는 그 말에 궁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어떻게 저걸 구하셨나요?”

해리는 2년 전쯤에 그가 깨트린 거울과 한 쌍인 시리우스의 거울 쪽으로 걸어가면서 물었다.

“덩에게서 샀지, 한 1년 전에.”

애버포스가 대답했다.

“알버스가 나에게 그게 어떤 물건인지 얘기해 줬어. 그동안 출곧 너를 지켜보려고 애써 왔단다.”

론이 혁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은빛 암사슴! 그것도 당신이었나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게냐?”

애버포스가 되물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암사슴 패트로누스를 보냈어요!”

“저렇게 머리가 나빠서야. 넌 죽음을 먹는자라고 해도 되겠다, 이 녀석아. 내 패트로누스는 염소라는 걸 방금 보여 주지 않았었니?”

“아아”

론이 수긍했다.

“그렇죠....그게 말이죠.....제가 배가 고파서요!”

뱃속에서 커다랗게 꾸르륵 소리가 나자, 론이 변명하듯이 덧붙여 말했다.

“나한테 먹을 게 좀 있다.”

애버포스가 말했다. 그리고 방에서 나가 내려가더니, 얼마 안 있어 커다란 뺑한덩이와 약간의 치즈, 그리고 백랍주전자에 든 꿀술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벽난로 앞에 있는 작은 탁자위에 음식을 차려 놓았다. 세 사람은 게걸스레 먹고 마셨다. 한동안 불이 탁탁거리며 타는 소리와 잔이 땡그랑 부딪히는 소리, 우적우적 씹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그들이 양껏 먹고 나자 애버포스가 입을 열었다. 해리와 론은 졸음에 겨워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다.

“너희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생각해 봐야겠구나. 오늘 밤에는 안 된다. 해가 저문 후에 누군가 밖에 나다니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도 이미 들었지? 고양이아우성 주문이 발동하면 그놈들은 아마 독시 알을 노리는 보우트러를처럼 너희를 찾아낼 거다. 아무리 나라고 해도 두 번이나 수사슴을 염소인 척 속일 수는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 통금이 풀리는 동틀녠까지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다시 투명 망토를 쓰고 걸어갈 수 있을거야. 곧장 호그스미드를 빠져나가서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는 순간이동을 할 수 있을 게다. 어쩌면 해그리드를 만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한 뒤부터 해그리드는 그룹과 함께 동굴에서 숨어지내고 있거든.”

“저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해리가 말했다.

“저희는 호그와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소리 마라, 꼬마야.”

애버포스가 말했다.

“반드시 가야만 해요.”

해리가 말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는 거야.”

애버포스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성안에 들어가야만 해요.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의 형님이 바라셨던 일이에요. 저희가.....”

벽난로의 불빛이 순간적으로 애버포스의 더러운 안경알을 뿐열게 만들었다. 해리는 문득 거대한 거미 아라고그의 멀어버린 눈이 떠올랐다.

“알버스는 참 바라는 것도 많았지.”

애버포스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동안, 사람들은 자꾸만 다쳤어. 어서 이 학교에서 달아나라, 포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를 떠나라. 알버스나 그의 영리한 계획 따위는 잊도록 해. 그는 그 무엇도 자신을 헤칠 수 없는 곳으로 가 버렸으니 말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빛진 게 없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해리는 또다시 말했다.

“오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애버포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보다 네가 알버스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해리가 말했다. 극도의 피로감과 잔뜩 먹은 음식과 술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았다.

“제 말은.....그분이 제게 임무를 남겼어요.”

“허, 그랬나?”

애버포스가 말했다.

“바라건대, 좋은 일이겠지? 즐겁고 쉬운? 이를테면 자격 미달의 마법사 꼬마가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인가?”

론이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헤르미온느는 몹시 긴장한 듯 한 얼굴이었다.

“아니요. 그.....그건 쉽지 않아요.”

해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해야만 해요.....”

“해야 한다? 왜 해야 한다는 거지? 그는 죽었어. 그렇지 않나?”

애버포스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내버려둬, 꼬마 친구. 너도 그의 뒤를 쫓아가지 않으려면 말이야! 네 목숨을 아끼라고!”

“그럴 순 없어요.”

“왜 안 된단 말인가?”

“전.....”

해리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대신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당신도 역시 싸우고 계시잖양! 당신은 불사조 기사단이구요.....”

“한때는 그랬지.”

애버포스가 대꾸했다.

“불사조 기사단은 끝났어. 그 사람이 이겼어. 이제 끝났다고. 그리고 남다른 척하는 이들은 모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네가 여기 있는 건 절대로 안전하지 못해. 포터, 그 사람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다. 그러니 외국으로 가서 종적을 감추어라. 네 목숨을 구하도록 해. 이 두사람도 데리고 가는 게 좋겠구나.”

그는 엄지 손가락으로 론과 헤르미온느를 가리켰다.

“너와 함께 일해 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사는 한, 이들은 언제나 위험할 게야.”

“전 떠날 수 없어요.”

해리가 말했다.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제게 주어진 일이에요. 덤블도어 교수님은 그 일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셨어요.....”

“허, 그랬나? 그렇다면 자네에게 모든 걸 얘기해 주었나? 자네에게 정직했던 말이지?”

해리는 진심으로 “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 단순한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애버포스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우리 형을 잘 알아, 포터. 그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부터 비밀 지키는 법을 배웠지. 비밀과 거짓말. 그게 우리가 성장한 방식이었어. 그리고 알버스는.....알버스는 천부적이었지.”

노인의 눈이 벽난로 선반 위에 걸린 소녀의 그림 쪽으로 움직였다. 이제야

해리는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았는데, 그것은 방 안에 걸려 있는 유일한

그림이었다. 그 방에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사진은 물론, 어느 누구의 사진도 없었다.

“덤블도어 씨?”

헤르미온느가 몹시 머뭇거리며 물었다.

“저 사람은 당신의 여동생인가요? 아리애나?”

“그렇다.”

애버포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가씨도 리타 스키터의 책을 읽었나 보군, 그렇지?”

장밋빛으로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빛 아래서 조차, 빨개진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

“엘피아스 도지 씨가 저희에게 그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헤르미온느를 구해 주기 위해서 해리가 말했다.

“그 늙어빠진 명청이.”

애버포스는 꿀술을 또 한 잔 쭉 들이켜면서 구시렁 거렸다.

“우리 형은 마치 구멍 끊긴 구멍이란느 구멍에서 죄다 햇빛만 쏟아내는 줄 알지. 그 늙은이는 말이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보아하니, 너희 셋을 포함해서 말이다.”

해리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를 들쑤셔 놓았던 덤블도어에 대한 의혹과 반신반의한 마음을 이제 와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도비의 무덤을 파는 동안 그는 선택했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그에게 지시한 구불구불하고 위험한 길을 계속 따라가기로, 그가 알고자 한 모든 사실들에 대해 덤블도어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지만 그저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또다시 덤블도어를 의심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목표로부터 자신을 빛나가게 만들 얘기는 그 무엇도 듣고 싶지 않았다. 해리의 두눈이 형과 아주 놀랄 만큼 닮은 애버포스의 눈과 딱 맞았다. 파랗게 빛나는 두 눈은 그의 형과 똑같이, 마치 관찰하는 대상을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해리는 애버포스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래서 경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해리를 아주 많이 아꼏어요.”

헤르미온느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허, 그랬나?”

애버포스가 대꾸했다.

“거참 우습지. 형이 몹시 아꼈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았을 만큼 안 좋은 결말을 맞았는지 모르거든.”

“그게 무슨 뜻이죠?”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신경 쓰지 말거라.”

애버포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중대한 얘기잖아요!”

헤르미온느가 따졌다.

“그러니까.....당신의 여동생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애버포스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입술은 마치 간신히 참고 있는 말들을  
곱씹고 있는 듯이 달싹거렸다. 이윽고 그가 이야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다.

“내 여동생이 여섯 살이었을 때, 세 명의 머글 사내애들이 그 아이를 덮치고  
공격을 했지. 그 녀석들은 뒤뜰 울타리 너머로 훔쳐보다가, 그 아이가 마법을  
쓰는 것을 목격했던 거야. 아리애나는 아직 어린애였고, 마법을 잘 통제할 수  
없었어. 사실 어떤 마녀나 마법사라도 그 나이에는 그럴 수가 없지. 진작건대,  
그 녀석들이 그걸 보고 겁에 질렸던 것 같아. 그들은 울타리를 뚫고 들어왔어.  
그리고 아리애나가 그들에게 그 마법을 보여 주지 못하자, 그 녀석들은 이 어린  
괴짜가 그 짓을 못하게 한답시고 하다가 도를 넘어 버린 게야.”

벽난로 불빛에 비친 헤르미온느의 눈이 휙둥그레졌다. 룬은 약간 메스꺼운  
표정이었다. 애버포스가 우뚝 일어섰다. 알버스 만큼이나 키가 큰 그의 모습이  
분노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변했다.

“그게 그 애를 망쳤어. 그 녀석들이 한 짓이 말이야. 아리애나는 두 번 다시  
정상이 되지 못했지. 그 아이는 마법을 사용하려 들지 않았어. 하지만 그 힘을  
없앨 수도 없었지. 결국 그 힘은 그 애의 내부로 향했고 그 애를 미치게  
만들었어. 그러다가 아리애나가 그 힘을 조절할 수 없을 때면, 밖으로 터져  
나오곤 했어. 이따금 그 애는 이상해지고 위험해졌지. 하지만 대개는 다정했고  
겁에 질려 있었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한  
후례자식 놈들을 쫓아갔지.”

애버포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을 공격했지. 그 일 때문에 아버지는 아즈카반에 갇혔단다.  
아버지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만약 마법부가  
아리애나의 상태를 알게되면, 그 애는 성 뭉고 병원에 영원히 갇히고 말았을  
테니까 말이지. 그들은 그 애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존재를 국제 비밀 법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을 거야. 더 이상 힘을 참을 수 없을 때면, 마법이  
마구 터져 나오곤 했거든. 우리는 언제나 그 아이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  
주어야만 했어. 그래서 이사를 했고, 그 아이가 아프다는 소문을 냈단다.  
어머니는 그 애를 보살피며 언제나 평온하게 행복하게 해 주려고 노력했단다.  
그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나였어.”

애버포스가 말했다. 그가 그 말을 할 때, 애버포스의 주름살과 뒤엉킨 콧수염  
너머로 칠칠맞지 못한 학생의 모습이 엿보이는 듯 했다.

“알버스가 아니었지. 형은 집에 있을 때면 언제나 자기 침실에 처박혀  
있었으니까. 책을 읽거나 자신이 받은 상의 수를 헤아려 보거나 ‘당대에 가장  
유명한 마법사들’과 서신을 주고 받으시느라 말이지.”

애버포스는 콧웃음을 쳤다.

“형은 아리애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 아이는 나를 제일  
좋아했지.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먹게 할 수  
있었고, 그 애가 흥분했을 때에도 나는 그 애를 진정시킬 수 있었어. 그 아이는  
조용할 때면, 내가 영소들에게 먹이 주는 걸 도와주곤 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열 네살이 되었을 때... 알겠니, 내가 거기에 없었던 거야.”

애버포스가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아리애나는 또다시 흥분상태에 빠졌고, 우리 어머니는 예전 만큼 짊지 않으셨지,  
그리고.....그건 사고였어. 아리애나는 그걸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야. 하여간  
어머니는 죽음을 당했지.”

해리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끔찍한 감정을 느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애버포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해리는 그가 과연 얼마 만에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일까 생각했다. 어쩌면 사실상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 일은 애송이 도지와 함께 떠나려고 했던 알버스의 세계 여행을 망치고 말았지. 그 두 사람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 도지는 혼자 떠나 버렸어. 그리고 알버스는 가장으로서 정착했지, 해!”

애버포스는 불 속에 침을 턱 뱉었다.

“난 아리애나를 보살피려고 했어. 난 형에게 그러겠다고 말했지. 나는 학교 따위는 신경쓰지 않았고, 그냥 집에서 지내면서 그 아이를 돌보려고 했어. 하지만 형은 내게 학교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고, 어머니의 일을 인계받았지. 총명 선생의 몰락이라고나 할까. 반미치광이 여동생을 보살피고, 하루 걸러 그 아이가 집을 날려 버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로 상을 받을 리는 만무하니까, 그래도 몇 주는 제대로 했지.....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야.”

이제 노골적으로 무시무시한 표정이 애버포스의 얼굴에 드러났다.

“그린델왈드, 마침내 우리 형은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만한 사람을, 즉 자신만큼이나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상대를 찾은거야. 그러자 아리애나를 보살피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지. 그들은 새로운 마법 세계의 체제를 세운다는 둥, 성물을 찾는다는 둥, 하며 흥미를 느끼는 거라면 뭐든지 온갖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마법사 인류 전체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판국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쯤 소홀한들 무슨 문제나 됐겠어? 알버스는 ‘더 커다란 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말았지. 내가 호그와트로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워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말했어. 바로 지금 내가 너를 보고 말하듯이 말이야.”

애버포스는 해리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를 보면서 자신의 형과 당당히 맞서는, 강인하고 분노에 찬 심 대 소년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별로 어렵지 않았다.

“나는 알버스에게 말했어. 이젠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이야. 아리애나를 이동시킬 수는 없다고. 그 아이는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지. 형이 어디로 갈 계획이든 간에, 언제부터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그 잘난 연설들을 할 작정이든 간에, 아리애나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고 했어. 알버스는 좋아하지 않더군.”

애버포스가 말했다. 벽난로 불빛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면서 잠깐 동안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안경은 또다시 뿌옇고 불투명하게 빛났다.

“그린델왈드는 몹시 못마땅해했어, 화를 냈지. 나더러 멍청한 애송이라고 하면서, 총명한 형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있다고 말했어..... 일단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마법사들을 은신처에서 끌어내고 머글들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가르쳐 주면, 내 가엾은 동생도 숨어 있을 필요가 없게 될 텐데,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나?”

그리고 언쟁이 벌어졌지..... 나는 내 지팡이를 꺼내 들었어. 그도 자기 지팡이를 꺼내더군. 나는 형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크루시아투스 저주 공격을 당했지. 알버스가 그를 말리려고 하다가, 우리 세 사람은 결투를 벌이게 되었어. 그런데 번쩍거리는 불빛과 굉음이 그 애를 폭발하게 한 거야. 그 애는 그걸 견딜 수 없었지.....”

마치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애버포스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셨다.

“.....내 생각에 아리애나는 돋고 싶어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몰랐어. 우리 중의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의 누구든 그럴 수 있었으니까..... 결국 그 애는 죽었어.”

마지막 말에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애버포스는 가장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텔썩 주저앉았다. 헤르미온느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혼은 거의 애버포스 만큼이나 창백해 보였다. 해리는 극도의 혐오감 이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차라리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를 깨끗이 지워 낼 수만 있다면 좋을 것만 같았다.

“정말..... 정말 유감이에요.”

헤르미온느가 나지막이 말했다.

“갔어.”

애버포스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히 가 버렸어.”

그는 소매로 코를 썩 닦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물론 그린델왈드는 달아났단다. 그자는 이미 자기 나라에서 한 번 전과가 있었으니, 거기에는 아리애나의 일까지 더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야. 그리고 알버스는 자유로워졌지. 안그러냐? 여동생이라는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가 될 수 있게 된 거.....”

“그분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어요.”

해리가 말했다.

“뭐라고?”

애버포스가 물었다.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고요.”

해리가 대답했다.

“당신의 형님이 죽던 날 밤. 그분은 마법약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마구 비명을 지르고, 거기 있지도 않은 누군가에게 애원했어요. ‘그들을 해치지 마, 부탁이야.....대신 날 해쳐라.....’”

룬과 헤르미온느는 해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해리는 이제껏 한 번도 호수의 섬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그와 덤블도어가 호그와트로 돌아오고 난 뒤에 잇달아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그 일은 완전히 가려져 버렸던 것이다.

“교수님은 당신과 그린델왈드와 함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저는 알아요.”

해리는 덤블도어가 흐느끼며 애원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분은 그린델왈드가 당신과 아리애나를 해치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그건 그분에게 엄청난 고문이었어요. 만약 당신이 그때 그 모습을 보셨더라면, 그분이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애버포스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디가 굵고 핏줄이 두드러진 자신의 손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포터? 알버스가 너보다도 ‘더 커다란 선’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이다! 어떻게 네가, 내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없어도 그만인 대상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지?”

순간 싸늘한 얼음 조각이 해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듯 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덤블도어 교수님은 해리를 사랑했어요.”

헤르미온느가 반박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해리에게 숨으라고 말하지 않았지?”

애버포스가 쏘아붙였다.

“어째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몸조심해라, 그게 살길이다’ 라고!”

“왜나하면.....”

헤르미온느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해리가 먼저 말했다.

“때때로 사람은 자신의 안전보다 더 커다란 것에 대해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때때로 사람은 ‘더 커다란 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요! 이건 전쟁이라고요!”

“넌 열입곱 살이란다, 꼬마야!”

“전 이제 성인이에요. 설령 아저씨가 포기한다고 해도, 저는 싸움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내가 포기했다고 누가 그러던?”

“‘불사조 기사단은 끝났어’”

해리가 그의 말을 되풀이 했다.

“‘그 사람이 이겼어. 이제 끝났다고, 그리고 남다른 척하는 이들은 모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나도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해리가 말했다.

“아저씨의 형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끝장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을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저는 제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그러지 못하면 전 죽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 수도 있을지 제가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리는 애버포스가 빙정대거나 반박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단지 인상을 쓰고 있을 뿐이었다.

“저희는 호그와트로 들어가야 해요.”

해리가 다시 말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다면, 귀찮게 하지 않고 동틀때 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만약 저희를 도와주실수  
있다면.....그럼, 지금이 그 일을 의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겠군요.”

애버포스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서, 유별나게 그의 형과 닮은 눈으로 해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목청을 가다듬고 일어서더니, 작은 탁자  
주위를 빙 돌아서 아리애나의 초상화 쪽으로 다가갔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그가 말했다.

아리애나가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돌아섰다. 그리고 초상화 속의 인물들이  
그려하듯이 액자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 뒤로 그려져 있는 긴  
터널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걸어갔다. 그들은 마침내 그녀를 집어삼킬 때까지,  
점점 멀어지는 희미한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뭐죠....?”

룬이 입을 열었다.

“지금으로서는 들어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애버포스가 말했다.

“그자들이 모든 오래된 비밀 통로의 양쪽 끝을 봉쇄해 버렸다는 걸 너희도  
알아야만 해. 내 정보원이 알려 준 바에 따르면, 디멘터들이 학교 주변의 모든  
담들을 돌고 있고, 학교 내부에도 항상 순찰병들이 있다고 하더군. 호그와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경비가 삼엄해졌어. 스네이프가 책임을 맡고 있고  
캐로우 남매가 그의 부관으로 있는 판국에, 너희가 일단 그 안에 들어간들 월  
할수 있을 것 같은가? 그래, 그건 너희도 예상하고 있지, 안 그래? 네 입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니.”

“그런데 저게 뭐.....?”

헤르미온느가 얼굴을 찌푸리고 아리애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림속의 터널 끝에서 조그만 하얀 점이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이제  
아리애나는 점점 더 커지면서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옆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 그 사람은 그녀보다 키가 더 커고, 약간  
절뚝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는데, 몹시 흥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해리가 여태껏  
보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길게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몇 군데나 있는 듯했고, 옷은 갈가리 찢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들의 머리와 어깨만으로도 초상화를 가득 채울 지경이 되었다.  
곧이어 초상화 전체가 작은 문처럼 벽에서부터 앞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진짜 터널로 통하는 입구가 드러났다. 그곳에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얼굴에  
흉터가 난 진짜 네빌 롱바텀이 너덜너덜한 망토를 걸친 채 기어 내려왔다. 그는  
기쁨의 함성을 내지르며 벽난로 선반에서 풀쩍 뛰어내리더니 소리쳤다.

“네가 올 줄 알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해리!”

## 차례

제 29 장 사라진 보관

제 30 장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도주

제 31 장 호그와트의 전투

제 32 장 딱총나무 지팡이  
제 33 장 왕자 이야기  
제 34 장 다시 숲에서  
제 35 장 킹스 크로스  
제 36 장 구멍 난 계획  
에필로그 19년 후

## 제 29 장 사라진 보관

“네빌.....대체.....어떻게.....?”

하지만 네빌은 론과 헤르미온느를 보자마자, 곧장 기쁨의 함성을 내지르며 그들을 와락 껴안았다. 보면 볼수록 네빌의 꿀은 말이 아니었다. 한쪽 눈은 노랗고 푸르스름하게 명이 든 채 잔뜩 부었고, 얼굴에는 여기저기 파인 자국이나 있었다. 전체적으로 너저분하기 짹이 없는 몰골은 그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 왔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뜩 얻어터진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이 났다. 네빌은 헤르미온느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서 입을 열었다.

“너희가 올 줄 알았어!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시무스에게 줄곧 얘기했지!”

“네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거?”

네빌은 이 정도 부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저 머리를 한 번 흔들 뿐이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무스는 더 심한데 뭐, 너희도 할게 될 거야. 이제 우리 가 볼까? 참!”

네빌이 애버포스 쪽으로 돌아섰다.

“애버, 두세 명 더 오고 있는 중이에요.”

“두세 명 더?”

애버포스가 험악한 말투로 되풀이했다.

“두세 명이나 더 온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롱바텀? 마을 전체가 통금과 고양이아우성 주문에 걸려 있는데!”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곧장 술집 안으로 순간이동을 할 거예요.”

네빌이 말했다.

“그들이 도착하면 그냥 통로로 내려 보내 주기만 하세요, 그럴 거죠? 정말 고마워요.”

네빌은 헤르미온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가 벽난로 선반 위로 기어 올라가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론이 뒤를 따랐고, 이어서 네빌이 올라갔다. 해리는 애버포스에게 인사를 했다.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두 번이나 구해 주셨네요.”

“인사는 됐으니, 저 애들이나 잘 보살펴라.”

애버포스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세 번째엔 너희를 구해 줄 수 없을지도 몰라.”

해리는 벽난로 선반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아리애나의 초상화 뒤로 뚫린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 반대편에는 매끄러운 돌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마치 몇 년 동안이나 거기에 통로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놋쇠 등잔들이 벽에 매달려 있었고, 흙바닥은 닳아서 평평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벽 위로 부채처럼 너울거렸다.

“이 통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거지?”

통로를 걸어가면서 론이 물었다.

“호그와트 비밀 지도에는 안 나오잖아, 안 그래, 해리? 난 학교를 들락거릴 수 있는 통로는 딱 일곱 개 뿐인 줄 알았는데?”

“그자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통로들을 모조리 봉쇄했어.”

네빌이 말했다.

“이제는 어느 통로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 입구마다 저주가 걸려있고, 출구에는 죽음을 먹는 자들과 디멘터들이 대기하고 있거든.”

네빌이 환하게 웃더니 그들을 빨아들이는 시늉을 하면서 뒷걸음쳤다.

“그런 건 신경 쓰지마.....그런데 그게 사실이니? 너희가 그린고트에 침입했다며? 용을 타고 탈출했어? 사방에서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테리 부트는 저녁식사 시간에 대연회장에서 그 얘기를 큰 소리로 떠들어 대다가 캐로우한테 얻어맞았지!”

“그래, 사실이야.”

해리가 대답했다.

네빌이 기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용은 어떻게 했어?”

“들판에 자유롭게 놀아주었지.”

론이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그걸 애완용으로 키우자고 했지만.....”

“허풍 떨지 마, 론!”

“그런데 뭘 하며 지냈어? 사람들은 해리, 네가 도망치는 데 급급한 거라고 말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무언가를 계획해 왔다고 생각해.”

“네 말이 맞아.”

해리가 대답했다.

“그보다 우린한테 호그와트 얘기 좀 해 줘, 네빌. 우린 아무 소식도 못 들었어.”

“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호그와트가 아니야.”

네빌의 얼굴에서 미소가 썩 가셨다.

“캐로우 남매에 대해서 알고 있니?”

“여기서 가르친다는 그 죽음을 먹는 자 두 사람 말이야?”

“그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징계를 도맡고 있어. 캐로우 남매는 벌주기를 좋아해.”

“엄브릿지처럼?”

“아이고, 그 작자들에 비하면 엄브릿지는 순해 보일 지경이야.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우리를 캐로우 남매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어. 그래도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 선생님들 모두 우리 못지않게 그 남매를 미워하거든.”

아마커스 그 작자는 예전에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었던 수업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그 수업이 곧 어둠의 마법이라는 점이 다르지. 우리는 징계 대상인 학생들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내리는 연습을 해.....”

“뭐라고?”

동시에 터져 나온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의 외침 소리가 통로를 짜령짜령 울렸다.

“사실이야. 이 흉터가 그래서 생긴 거야.”

네빌이 뺨에 유독 깊게 파인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그걸 거부했거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하고 있어. 크레이브와 고일은 그걸 아주 신나서 하지. 그 자식들이 무슨 일에서건 일등이란 걸 해 보기는 처음일 거야, 아마도.”

알렉토는 아마커스의 동생인데 머글 연구 과목을 가르쳐. 그건 모든 학생에게 필수과목이야. 머글들이 얼마나 짐승같고 어리석고 불결한지, 그리고 머글들이 마법사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나옴으로써 어떻게 마법사들을 은둔 생활로 몰고 갔는지,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여자가 설명하는 걸 우리 모두 듣고 앉아 있어야만 한다니까.”

네빌은 얼굴에 난 또 다른 칼자국 같은 상처를 가리켰다.

“이 상처는, 그 남매한테는 머글의 피가 얼마나 섞였느냐고 그 여자한테 물어봤다가 생긴 거야.”

“젠장, 네빌. 입바른 소리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론이 말했다.

“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못 들어봐서 그래.”

네빌이 말했다.

“너 역시 참지는 못했을 거야.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사람들이 그들에 맞서 대항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건 모두에게 희망을 줘.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곤 했어, 해리.”

“하지만 그놈들은 너를 마치 칼 가는 숫돌인 양 써먹었잖아.”

그들이 등잔 옆을 지날 때 네빌의 부상이 더욱 또렷이 두드러져 보이자, 론이 흠칫 물러서며 말했다.

네빌은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어. 그자들은 순수혈통의 피를 지나치게 많이 쓸고 싶어하지 않아. 우리가 입을 놀리면 약간 고문은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해리는 도대체 네빌이 말하는 그런 일들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네빌의 사무적인 말투 중에 어느 게 더 끔찍한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로 위험에 처하는 학생들은, 학교 밖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야. 그런 학생들은 인질로 잡혀 가거든. 제노 러브굿 노인네가 <이러쿵 저러쿵>에서 좀 지나치다 싶게 노골적인 발언을 하자, 그자들은 크리스마스 방학을 보내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에서 루나를 끌고 가버렸어.”

“네빌, 루나는 괜찮아. 우리가 루나를 만났는데....”

“그래, 나도 알아. 용케도 나에게 전갈을 보냈더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금화 하나를 깨냈다. 해리는 덤블도어의 군대가 서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했던 가짜 갈레온을 알아보았다.

“이게 제 역할을 똑똑히 했어.”

네빌이 헤르미온느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캐로우 남매는 우리가 어떻게 교신하는지 절대로 알아내지 못했지. 그래서 잔뜩 열을 받았어. 우리는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벽에 낙서를 하곤 했어. 덤블도어의 군대, 여전히 모집 중. 뭐 이런 것들을 말이야. 스네이프가 치를 떨었지.”

“하곤 했다고?”

해리가 과거 시제임을 알아채고 물었다.

“저, 그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

네빌이 말했다.

“크리스마스 때에는 루나를 잊었고, 부활절이 지나자 지니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세 명이, 말하자면 지도자였거든. 캐로우 남매는 많은 일들의 배후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 그래서 나를 심하게 벌주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때 마이클 코너가 그자들이 사슬로 매어 놓은 1학년 학생들을 풀어 주려고 하다가 잡혔지, 그자들은 그를 아주 심하게 고문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완전히 겁을 먹었어.”

“설마!”

론이 중얼거렸다. 이제 통로는 오르막에 접어들었다.

“사실이야. 난 사람들에게 마이클이 겪은 일을 똑같이 겪으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위험한 것들을 관뒀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웠고 지하 활동을 계속했어. 불과 이삼 주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그제야 비로소 그자들은 나를 막을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 할머니를 찾아간 거야.”

“그들이 뭘 했다고?”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일제히 소리쳤다.

“그래.”

통로의 경사가 아주 가팔라졌기 때문에, 네빌은 이제 약간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자, 너희도 그자들의 생각을 알겠지? 그건 아주 효과가 만점이었어. 아이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방법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그자들이 그 반대로 해 보는 건 그저 시간문제였을 거야. 그런데 말이지.....”

네빌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해리는 네빌이 태연하게 씩 웃고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했다.

“그자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설불리 덤벼든 거지. 조그맣고 늙은 마녀가 혼자 살고 있으니, 특별한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을 보낼 필요도 없을 줄 알았겠지, 하여간.....”

네빌이 깔깔 웃었다.

“도울리쉬는 아직도 성 뭉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할머니는 도망 중이셔,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보내셨어.”

네빌은 한 손으로 망토 가슴팍의 주머니를 탁탁 쳤다.

“내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고, 나는 틀림없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정진하라고 쓰셨어.”

“정말 멋지다.”

론이 감탄했다.

“그래.”

네빌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일단 나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자들이 결국 내가 없어져야 호그와트가 잠잠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였어. 그들이 나를 죽일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아즈카반에 보낼 계획이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느 쪽이 되었든, 나는 이제 종적을 감출 때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곧장 호그와트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네빌이 대답했다.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제 다 왔어.”

모퉁이를 돌자 앞쪽으로 통로가 끝나는 지점이 나타났다. 또 다른 짧은 충계가 아리애나의 초상화 뒤에 감춰져 있던 것과 똑같은 문으로 이어져 있었다.

네빌은 그 문을 열고서 위로 올라갔다. 해리가 따라가고 있을 때, 네빌이 해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는지 봐! 내가 말하지 않았니?”

해리가 통로를 넘어 방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해리!”

“포터야. 해리 포터라고!”

“론!”

“헤르미온느!”

알록달록한 벽걸이들과 등잔들, 그리고 수많은 얼굴들이 해리의 눈앞에 한꺼번에 쏟아졌다. 잠시 후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스무 명이 넘는 듯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머리카락을 헝크러뜨리며 악수를 청했다. 마치 그들이 방금 쿠디치 결승전에서 우승하고 돌아 온 것 같았다.

“좋아, 좋아, 진정해!”

네빌이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다. 해리는 비로소 주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해리는 그 방이 어딘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곳은 아주 거대했으며, 특별히 호사스러운 목조 저택이나 거대한 선박의 선실내부처럼 보였다. 온갖 색깔의 그물침대들이 천장과 발코니에 매달려 있었는데, 발코니는 짙은 색 나무판을 댄, 창문 없는 벽 앞으로 빙 둘러져 나 있었다. 그리고 벽들은 환한 빛깔의 벽걸이 양탄자로 뒤덮여 있었다. 해리는 빨간색 천 위에 수 놓인 그리핀도르의 황금색 사자를 보았다. 노란색을 바탕으로 한 후풀푸르의 검은 오소리와 파란색을 바탕으로 한 레번클로의 청동빛 독수리도 있었다. 오직 은색과 초록색의 슬리데린만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도 책들이 가득 꽂혀잇는 책꽂이와 벽에 기대어 놓은 빗자루 몇개,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나무로 된 커다란 라디오가 있었다.

“여기가 어디야?”

“당연히 필요의 방이지!”

네빌이 대답했다.

“예전보다 훨씬 훌륭하지, 안 그래? 캐로우 남매가 나를 추적하고 있었고, 나는 이제 남은 은신처는 오직 하나뿐이란 걸 깨달았어. 결국 용케도 그 문을 통과해서 이곳을 발견한 거야! 사실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땐,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어. 이 방은 훨씬 더 작았고, 그물침대 하나와 그리핀도르의 벽걸이 밖에 없었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덤블도어의 군대 회원들이 도착함에 따라 이 방은 더욱더 커졌어.”

“그러면 캐로우 남매는 못 들어오니?”

해리가 어디 문이 없나 들어보며 물었다.

“못 들어와.”

피니간 시무스가 대답했다. 해리는 그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시무스의 얼굴은 온통 멍이 들고 통통 부어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아주 제대로 된 은신처야. 우리 중 한사람이라도 이 안에 머물고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우리를 찾아낼 수 없어. 문이 열리지 않거든. 이건 모두 다 네빌이 알아냈어. 네빌은 정말로 이 방에 대해 훤히 아니까.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방에게 요청해야만 해. 이를 테면 ‘나는 그 어떤 캐로우 지지자들도 들어올 수 없기를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이 방은 그대로 해 줄거야! 넌 그저 문구멍이나 제대로 닫으면 된다고! 네빌이 전문가라니까!”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야”

네빌이 경순하게 말했다.

“이 방에서 하루하고 한나절쯤 지냈을때,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바로 그때 호그스 해드로 가는 통로가 열리더군. 나는 그 통로를 따라 내려갔고, 애버포스를 만났지. 그 후로 줄곧 아저씨가 우리에게 음식을 대 주었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방은 오직 한가지, 먹을 것만은 제공해 주지 못하거든.”

“그건 말이지. 음식은 원소 변신술에 대한 캠프 법령의 다섯가지 주요 예외 사항들 가운데 하나거든.”

론의 대답에 모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에서 거의 2 주 동안이나 숨어 지냈어.”

시무스가 말을 이었다.

“이 방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더 많은 그물침대를 만들어 냈어. 심지어 여자 애들이 나타나니까 제법 괜찮은 화장실 까지 솟아나게 하더라니까.”

“맞아, 정말이지 간절히 씻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해리가 그 순간까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라벤더 브라운이 불쑥 끼어들었다. 이제 제대로 둘러보고 나서야, 해리는 여러 친숙한 얼굴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쌍둥이 패틸 자매도 있었고, 테리 부트, 어니 맥밀란, 안토니 골드스틴과 마이클 코너도 있었다.

“그나저나 너희는 지금까지 월 하고 지냈는지 얘기해 줘. 정말 너무나 많은 소문들이 무성했어. 우리는 계속 <포터워치>로 너의 근황을 따라잡으려고 애썼지.”

어니가 라디오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가 그린고트에 침입하지는 않았지?”

“그랬대!”

네빌이 말했다.

“용 애기도 진짜래!”

산발적인 박수소리가 터져 나오고, 몇 명은 우우 함성을 질렀다. 론은 정중히 답례 인사를 했다.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거야?”

시무스가 열의에 차서 물었다.

하지만 해리 일행 중 누군가 그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슬쩍 받아치고 넘어가기 전에, 해리는 번개 모양 흉터에서 불로 지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가 호기심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들로부터 다급히 등을 돌리는 순간,

필요의 방은 사라졌다. 그는 폐허가 된 돌담집 안에 서 있었다. 썩어 가는 마룻바닥은 발치에서 갈가리 뜯겨 있었고, 그 구멍 옆에는 마루 밑에서 꺼낸 황금빛 상자가 텅 빈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볼드모트의 분노에 찬 비명 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짜렁짜렁 울렸다.

아주 힘겨운 노력 끝에 해리는 볼드모트의 정신으로부터 빠져나와, 그가 휘청거리며 서 있는 곳, 즉 필요의 방 안으로 돌아왔다. 얼굴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그런 그를 론이 부축하고 있었다.

“괜찮아, 해리?”

네빌이 물었다.

“어디 앉을래? 피곤할 거야, 그렇지?”

“괜찮아.”

해리가 대답했다. 그는 볼드모트가 방금 또 다른 호크룩스가 사라진 걸 알았다는 사실을 무언중에 알리려고 애쓰며 론과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만약 볼드모트가 다음으로 호그와트를 방문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우리는 당장 시작해야 해.”

해리가 말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해리는 그들이 상황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린 무얼 해야 하지, 해리? 계획이 뭐야?”

시무스가 물었다.

“계획?”

해리가 되물었다. 그는 볼드모트의 분노에 다시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모든 의지력을 다 쏟고 있었다.

“어, 우리는..... 그러니까 론과 헤르미온느와 나는 말이지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는 여기를 떠날 거야.”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웃거나 환호하지 않았다. 네빌은 당황한 듯 했다.

“무슨 말이야. 여길 떠나다니?”

“우린 이곳에 머물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해리가 통증을 진정시키려고 흉터를 문지르면서 대답했다.

“우리에겐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그게 뭔데?”

“너희에게 말 해 줄 수 없어.”

이 말에 온 방 안이 투덜대는 소리로 술렁였다. 네빌이 눈살을 찌푸렸다.

“왜 우리한테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건 그 사람과 싸우는 것과 관계된 일일 거 아냐, 그렇잖아?”

“어, 그래.....”

“그럼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다른 덤블도어의 군대 회원들도 열의에 찬 얼굴로, 혹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두 명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기꺼이 당장이라도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너희는 이해 못할 거야.”

해리는 지난 몇 시간 사이에 이 말을 아주 많이 한 것 같았다.

“우리는..... 우리는 너희에게 말해 줄 수가 없어. 그 일은 우리가 해내야 해.... 우리 힘만으로.”

“왜?”

네빌이 물었다.

“왜냐하면.....”

해리는 한시라도 빨리 숨겨진 호크룩스를 찾고 싶어서, 아니면 적어도 론과 헤르미온느하고만 따로 모여서 어디서부터 수색을 시작할지를 의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기 때문에, 생각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흉터는 여전히 탄는 듯 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우리 세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남기셨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임무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교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내길 바라셨어. 딱 우리 셋이서만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교수님의 군대야.”

네빌이 말했다.

“덤블도어의 군대라고. 우리는 모두 한 팀이야. 너희 세 사람만 따로 떠나 있는 동안에도, 우린 그걸 유지해 왔다고.....”

“우리가 소풍을 갔던 건 아니야, 친구.”

론이 말했다.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어. 하지만 난 왜 너희가 우리를 못 믿는지 모르겠어. 이 방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계속 싸워 왔고, 캐로우 남매의 추적을 받아서 이곳에 쫓겨 온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덤블도어 교수님에 대한, 그리고 너에 대한 충성을 입증했단 말이야.”

“이봐”

해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입을 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갑자기 터널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네 메시지를 받았어. 네빌! 안녕 너희 세 사람! 나는 너희가 반드시 여기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것은 루나와 딘이었다. 시무스는 기쁨을 못 이기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마구 달려가더니, 단짝 친구를 꼭 껴안았다.

“안녕, 애들아! 아아,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

루나가 신이 나서 외쳤다.

“루나!”

해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어떻게....?”

“내가 루나에게 연락했어.”

네빌이 가짜 갈레온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너희가 나타나면 알려 주기로 루나와 딘에게 약속했거든. 우리는 모두 네가 돌아오면, 그것은 곧 혁명을 의미한다고 믿었어. 우리가 스네이프와 캐로우 남매를 타도할 거라고 말이야.”

“그야 당연하잖아.”

루나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안 그래, 해리? 우리는 그들을 호그와트에서 쫓아낼 거잖아?”

“내 말 좀 들어 봐.”

해리는 점점 커져가는 당혹감을 느끼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돌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그 다음에.....”

“너는 우리를 이 아수라장 속에 남겨 두고 갈 거란 말이야?”

마이클 코너가 다그쳐 물었다.

“아니야! 우리가 하려는 일은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거야,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거니까.....”

론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돕도록 해 줘!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어!”

네빌이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때 그들의 등 뒤에서 또다시 무슨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돌아섰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니가 벽의 구멍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프레드와 조지, 리 조건이 그 뒤를 바짝 쫓아 들어왔다. 지니는 해리는 향해서 눈부신 미소를 던졌다. 해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껏 한 번 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지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이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것이 이렇게 반갑지 않기는 처음이었다.

“애버포스 씨가 좀 짜증스러워 하시던걸.”

프레드가 몇몇 사람들이 인사하는 소리에 손을 들어 답하면서 말했다.

“한숨 자고 싶은데, 그의 술집이 철도역으로 바뀌었으니.”

해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리 조던의 바로 뒤에서 해리의 옛 여자 친구, 초챙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지었다.

“메시지를 받았어.”

초챙이 가짜 갈레온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마이클 코너 옆에 앉았다.

“그래, 계획이 뭐야, 해리?”

조지가 물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

해리가 대답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흉터는 여전히 불로 마구 지지는 듯 아팠던 것이다.

“우리는 쫓아가서 그냥 거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야말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지.”

프레드가 말했다.

“당장 이런 짓을 그만둬!”

해리가 네빌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 하러 이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야? 이건 정신 나간 짓이야!”

“우리는 싸우고 있어, 그렇잖아?”

딘이 가짜 갈레온을 꺼내며 말했다.

“여기 이 메시지에는 해리가 돌아왔다고 적혀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싸울거야! 물론 난 지팡이가 있어야 하겠지만.....”

“너, 지팡이가 없단 말이야?”

시무스가 말문을 열었다.

론이 갑자기 해리 쪽으로 돌아섰다.

“왜 애네들이 도우면 안 되는데?”

“뭐라고?”

“얘네들이 도와줄 수 있어.”

론이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있던 헤르미온느를 빼고는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그걸 찾아야 해. 굳이 그게 호크룩스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론의 말이 맞아. 우리도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에겐 이 얘들이 필요해.”

해리가 여전히 확신이 안 서는 표정을 짓고 있자,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너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할 필요는 없어, 해리.”

해리는 재빨리 생각했다. 흉터는 여전히 쿡쿡 쑤셨고, 머리는 다시 쪼개질 듯이 아팠다. 덤블도어는 그에게 호크룩스에 대해서 론과 헤르미온느를 빼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다. 비밀과 거짓말. 그게 우리가 성장한 방식이었어. 그리고 알버스는.....그는 천부적이었지.....그도 덤블도어처럼 변해 가고 있는 걸까? 믿기를 두려워하며 가슴속에 비밀들을 단단히 묻은 채? 하지만 덤블도어는 스네이프를 신뢰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던가?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서의 살인이었다.....

“좋아.”

해리는 다른 두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럼, 좋아!”

해리가 모두를 향해서 외치자 모든 소음이 싹 사라졌다. 옆의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농담을 쏟아 내고 있던 프레드와 조지도 입을 다물었다. 모두가 바짝 긴장하고 흥분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뭔가를 찾아야만 해.”

해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말이야. 그게 여기 호그와트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건 아마도 레번클로의 물건일 거야. 누구든 그런 물건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니? 이를테면 레번클로의 독수리가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물건을 우연히라도 본 적 없어?” 해리는 기대에 찬 눈길로 몇 명 안되는 레번클로 학생, 파드마와 마이클, 테리 그리고 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작 대답을 한 것은 지니가 앉은 의자의 팔걸이에 걸터앉아 있던 루나였다.

“저, 래번클로의 사라진 보관이 있어. 내가 너한테 그것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기억나, 해리? 래번클로의 사라진 보관! 아빠가 그걸 똑같이 다시 만들고 계시거든.”

“그래, 그런데 그 사라진 보관은.....”  
마이클 코너가 눈을 굴리며 말했다.

“사라졌어. 루나. 중요한 건 그거야.”  
“그게 언제 사라졌지?”

해리가 물었다.

“사람들 말로는 수 세기 전이래.”  
초가 대답했다. 해리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플리트윅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보관이 래번클로가 사라질때 함께 사라졌었던거. 사람들이 찾아봤지만....”

초는 자신의 래번클로 동료들에게 동의를 구하듯이 말했다.

“아무도 그것의 행방을 찾지 못했어, 안 그래?”  
그러자 래번클로 학생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한데. 도대체 ‘보관’ 이 뭐야?”  
론이 물었다.

“그건 일종의 왕관이야.”  
테리 부트가 말했다.

“래번클로의 보관은 마법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쓴 사람은 지혜가 향상된대.”

“그래, 우리 아빠의 렉스퍼트 빨대도....”  
하지만 해리가 루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면 너희 중 아무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니?”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느끼는 실망이 거울에 비친듯 그들의 얼굴에도 똑같이 떠올라 있었다. 이토록 오랫동안, 게다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물건이 성안에 숨겨진 호크룩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다. 해리가 다른 질문을 하기도 전에 초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네가 만일 그 보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면, 내가 우리 기숙사의 학생 휴게실에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줄 수 있는데, 해리. 래번클로 동상이 그걸 쓰고 있거든.”

바로 그때 해리의 흉터가 다시 화끈 달아올랐다. 한순간 필요의 방이 눈앞에서 소용돌이치더니, 방 대신에 검은 땅이 발밑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거대한 뱀이 어깨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볼드모트는 다시 날고 있었는데, 지하 호수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호그와트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가 이동 중이야.”  
해리는 조용히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그리고 초를 훌끗 바라본 후에 다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봐, 별로 실마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난 가서 그 동상을 봐야겠어. 최소한 보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라도 알아내야지.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다른 건 알지? 몸조심해.”

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지니가 아주 매섭게 쏘이붙였다.

“안 돼. 루나가 해리를 데리고 갈거야! 그렇지, 루나?”

“오오, 그래 내가 갈게.”

루나가 즐겁게 승낙했다. 초는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해리가 네빌에게 물었다.

“이리로 와.”

네빌은 해리와 루나를 한쪽 구석으로 인도했다. 거기엔 작은 벽장이 열려있었고, 가파른 층계로 이어져 있었다.

“이건 매일 다른 곳으로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자들은 결코 이걸 발견할 수 없었지.”

네빌이 말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우리도 이 방에서 나갈 때 과연 어느 곳에 떨어질 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조심해 해리. 그자들은 밤마다 복도를 순찰하고 있어.”

“문제없어. 잠시 후에 봐.”

해리가 말했다.

해리와 루나는 서둘러 층계를 올라갔다. 햇불로 밝혀진 그 층계는 길게 이어져 있었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깍였다. 마침내 그들은 단단한 벽처럼 보이는 것 앞에 도달했다.

“이 아래로 들어와.”

해리가 투명 망토를 꺼내 두 사람의 머리위로 덮으며 루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벽을 살짝 밀어보았다.

그가 건드리자마자, 벽은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밖으로 빠져나갔다. 해리는 뒤를 훌끗 바라보았고, 벽이 즉시 다시 봉해진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다. 해리는 루나를 그늘진 곳으로 끌어당긴 다음, 목에 건 주머니를 빠져서 비밀 지도를 꺼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바로 코앞에 펼쳐들고서 자세히 살펴보다가, 마침내 자신과 루나의 점을 발견했다.

“우리는 6 층에 있어.”

해리가 저 앞쪽의 복도에서 그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필치를 주시하며 속삭였다.

“어서, 이쪽이야.”

그들은 살금살금 기어서 빠져나갔다.

해리는 예전에도 여러 번 밤에 성안을 어슬렁거리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심장이 이토록 빠르게 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곳을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했던 적도 없었다. 해리와 루나는 달빛이 마루 위에 만들어 놓은 네모난 그림자들을 지나서, 갑옷들 앞을 지났다. 갑옷의 투구는 그들의 조용한 발소리에 빠걱거렸다. 그들은 다시 원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모퉁이들을 요리조리 돌아갔다. 그리고 불빛이 있을 때마다 비밀지도를 확인하며 걸어갔다. 도중에 유령이 그들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 두 번이나 멈춰서야 했다. 해리는 언제라도 장애물과 맞닥뜨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피브스였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의 요정의 접근을 알려 주는 신호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웠다.

“이쪽이야, 해리.”

루나가 나선형 계단 쪽으로 그의 소매를 잡아끌며 속삭였다.

그들은 뱅글뱅글 어지럽게 원을 그리며 올라갔다. 해리는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어느 문 앞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손잡이도, 열쇠 구멍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널찍한 오래된 나무 문짝과 독수리 모양의 청동 고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루나가 파리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팔과 몸통이에서 분리되어 허공을 둥둥 떠가는 듯, 무시무시해 보였다. 루나가 문을 한 번 두드렸다. 이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해리의 귀에 대포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곧 독수리의 부리가 활짝 열렸다. 히자만 새 울음소리 대신, 부드럽고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느 것이 먼저지? 불사조? 아니면 불꽃?”

“어....뭘까, 해리?”

“뭐라고? 그냥 암호가 있는 게 아니야?”

“오오, 아니야, 질문에 대답해야 해.”

루나가 말했다.

“틀리면 어떡하고?”

“그럼, 다른 누가 맞힐 때 까지 기다려야지,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야, 알겠지?”

“응.....그런데 문제는 다른 누구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야, 루나.”

“그래, 나도 알아.”

루나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어, 그 문제의 정답은 원에는 시작이 없다는 것 같아.”

“설득력 있군.”

목소리가 말했고, 곧 문이 활짝 열렸다.

텅 빈, 래번클로의 학생 휴게실은 넓고 둑근 방이었다. 그리고 해리가 호그와트에서 봤던 그 어떤 장소보다도 바람이 잘 통했다. 우아한 아치 모양의 창문들이 벽을 수놓고 있었고, 창문에는 푸르스름한 청동색 비단 천이 드리워져 있었다. 낮이면 래번클로 학생들은 주변 산들의 근사한 풍경을 즐길것이다. 천장은 둠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별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암청색 카펫과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탁자와 의자, 책장 등이 있었고, 문 맞은편의 벽감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키 큰 동상이 서 있었다.

해리는 루나의 집에서 보았던 흉상 덕분에 로웨나 래번클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동상은 한 문 옆에 서 있었는데, 아마도 위층의 침실로 통하는 문인듯 했다.

해리는 곧장 대리석으로 된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희미하게 짓궂은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약간 위협적이었다.

그녀의 정수리에는 정교해 보이는 머리장식이 대리석으로 재현되어 있었다.

그것은 플로르가 결혼식 때 썼던 티아라와 비슷했다. 거기엔 깨알만 한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해리는 그것을 읽기위해 투명 망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래번클로의 동상이 서 있는 받침돌 위로 올라섰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지혜는 인간의 가장 큰 보물이다.”

“그건 너를 진짜 알거지에 명청이로 만들지.”

꽥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몸을 휙 돌리며 받침돌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등이 구부정한 알렉토 캐로우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해리가 미처 지팡이를 들 겨를도 없이, 뚱툭한 집게손가락으로 팔에 찍힌 해골과 뱀의 표식을 꾹 눌렀다.

### 제 30 장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도주

그녀의 손가락이 표식에 닿는 순간, 해리의 흉터가 격렬하게 타올랐다. 별이 총총히 박힌 방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제 그는 절벽 아래의 불쑥 솟은 바위 위에 서 있었다. 파도는 그의 주위로 철썩철썩 밀려오고 있었고, 그의 가슴은 승리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들이 녀석을 잡았다.

그때 광 하는 커다란 소리에 해리는 다시 자신이 서 있던 곳으로 정신이 돌아왔다. 해리는 어리둥절한 채 지팡이를 치켜들었지만, 그의 앞에 서 있던 마녀는 이미 앞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곧이어 마녀는 책장의 유리창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세게 바닥에 부딪쳤다.

“난 D.A 연습 때 말고는 여태껏 한번도 기절 마법을 써 본 적이 없었는데.” 루나가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끄럽구나.”

아닌 게 아니라, 천장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위층 침실로 통하는 문 뒤에서는 허둥지둥 달려오는 요란한 발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루나의 주문 때문에 위층에서 자고 있던 래번클로 학생들이 깨어난 것이다.

“루나, 너 어디 있어? 나도 망토 밑에 숨어야 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루나의 발이 난데없이 나타났다. 해리가 서둘러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망토를 그들의 머리 위로 덮어씌웠다. 그 순간 문이 왈칵 열리면서, 잠옷 차림을 한 래번클로 학생들이 밀물처럼 학생 휴게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의식을 잊고 쓰러져 있는 알렉토를 보자, 헉하고 놀라는 소리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깨어나 공격할지도 모르는 야수를 다루듯, 천천히 그녀를 둘러쌌다. 곧 용감한 1학년 학생이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더니, 엄지발가락으로 그녀의 등을 쿡쿡 찔러보았다.

“죽은 거 같은데!”

1학년 학생이 기뻐서 소리쳤다.

“오오, 이것 좀 봐.”

래번클로 학생들이 알렉토 주위로 모여들자, 루나가 기뻐하며 속삭였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

“그래.....잘됐어.....”

해리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흉터가 화끈화끈 쑤셨다. 그는 다시 볼드모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이제 그는 첫 번째 동굴로 들어가는 통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그는 이곳으로 오기전에 그곳의 로켓을 확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하지만 그 일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학생 휴게실의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래번클로 학생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었다. 해리는 문 건너편에서 노래하듯 감미로운 목소리가 독수리 머리 모양 문고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사라진 물건들은 어디로 가지?”

“몰라, 모른다고! 닥쳐!”

거친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해리의 짐작으로는 캐로우의 오빠인 아마커스인 듯 했다.

“알렉토! 알렉토! 거기 있어? 그놈을 잡았나? 어서 문 열어!”

래번클로 학생들은 겁에 질려서 웅성거렸다. 곧 아무런 경고도 없이, 커다란 굉음이 잇달아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 문에다 총질을 하는 듯했다.

“알렉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포터를 잡지못했으면.....너도 말포이 가족처럼 똑같이 당하고 싶어? 어서 대답해!”

아마커스가 사력을 다해 문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꼬딱도 하지 않았다. 래번클로의 학생들은 모두 주춤주춤 뒤로 물려서고 있었다. 몹시 겁에 질린 몇 명은 침실을 향해서 헐레벌떡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저 죽음을 먹는 자가 무슨 짓을 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문을 폭파하고 아마커스에게 기절 마법을 걸면 어떨까, 해리가 한창 고민하고 있을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울려 퍼졌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캐로우 교수님?”

“이 염병할 문을 뚫고 들어가려 하는 중이오!”

아마커스가 소리쳤다.

“당장 가서 플리트윅을 데려오시오! 그를 데려와서 이 문을 열게 해요, 어서!”

“하지만 당신의 동생이 저 안에 있지 않나요?”

맥고나걸이 물었다.

“플리트윅 교수님께서 오늘 저녁 일찌감치 그녀를 들여보내 주지 않았나요? 당신의 긴급 요청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그분이 안에서 문을 열어 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당신이 성안의 사람들 절반을 깨워 놀을 필요도 없을 테고요.”

“알렉토가 대답이 없단 말이야, 이 늙어빠진 할망구야! 당신이 열어!

헛소리하지 말고! 열어, 당장!”

“물론 그렇게 하지요, 정 바라신다면.”

맥고나걸이 소름 끼칠 만큼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후로 문고리를 품위있게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사라진 물건들은 어디로 가지?”

“비존재로, 다시 말해 만물로.”

맥고나걸이 대답했다.

“훌륭한 표현이군.”

독수리 문고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다.  
아마커스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문턱을 넘어 들이닥치자, 뒤에 몇 명 남아있던  
래번클로 학생들이 계단을 향해 쓴살같이 도망쳤다. 누이처럼 등이 구부정한  
아마커스는 창백한 밀가루 반죽 같은 얼굴에 눈이 바늘구멍만 했다. 그의  
눈길은 즉시 바닥에 꼼짝 않고 널브러져 있는 알렉토에게로 향했다. 그는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찬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 꼬맹이 녀석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가 소리를 질렀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할 때 까지, 그놈들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내릴  
테다.....어둠의 마왕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아마커스는 누이를 내려다보고 서서, 주먹으로 이마를 턱치더니 빡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그 녀석을 잡지 못했어. 게다가 그놈들이 와서 내 동생을 죽이다니!”

“그저 기절 마법에 걸린 것 뿐입니다.”

알렉토를 살펴보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던 맥고나걸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아주 멀쩡하다고요.”

“절대 멀쩡할 리가 없어.”

아마커스가 버럭 호통을 쳤다.

“어둠의 마왕님에게 불잡힌 후에는 말이야! 알렉토가 그분을 호출했어. 내  
표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포터를 잡았다고  
생각하실 거야!”

“포터를 잡다니요?”

맥고나걸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무슨 말이죠, 포터를 잡다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포터가 래번클로 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놈을 잡게되면 연락을 하라고 하셨단  
말이야!”

“어째서 해리 포터가 래번클로 탑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포터는 제  
기숙사 학생인데요?”

해리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 찬 맥고나걸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미네르바 맥고나걸에 대한 애정이  
용솟음쳤다.

“우리도 단지 그 놈이 여기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야!  
나도 그 이유는 모른다고, 알겠어?”

아마커스가 말했다.

맥고나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말뚱말뚱 빛나는 두 눈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길은 두 차례나 해리와 루나가 서 있는 곳을  
스쳐지나갔다.

“이 일을 애들한테 떠넘기면 돼.”

아마커스가 말했다. 갑자기 돼지 같은 그의 얼굴이 교활하게 변했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알렉토가 애들한테 기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저기 저 위에 있는 애들한테....”

그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는 침실 쪽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그녀에게 표식을 얹지로 누르도록 강요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께 거짓 정보가 보내졌다고 말이야.....그럼 그분은 애들에게 별을  
주겠지. 애들 몇몇 쯤 출든 늘든,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

“진실과 거짓, 용기와 비겁함의 차이 뿐이겠지요.”

맥고나걸이,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간단히 말해, 당신과 당신의 누이는 결코 구별할 수 없는 차이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단 한가지만큼은 아주 분명히 하고 싶군요. 당신은 자신이 저지를

수많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호그와트 학생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뭐라고?”

아마커스는 맥고나걸 곁으로 위협적일 만큼 바싹 다가갔다. 그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은 불과 10 여 센티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았다. 하지만 맥고나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그가 변기에 말라붙은 더러운 뭐라도 되는 듯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건 당신이 용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야. 미네르바 맥고나걸.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곳의 책임자는 바로 우리란 말이야. 당신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거야.”

아마커스는 그녀의 얼굴에 침을 턱 뱉었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젖히고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네놈이 감히 그따위 짓을 하다니.”

아마커스가 흑 몸을 돌렸을 때, 해리가 소리쳤다.

“크루시오!”

죽음을 먹는 자는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그는 고통을 못이겨 악을 쓰고 몸을 뒤틀며,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곧이어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책장의 전면에 부딪혔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벨라트릭스가 말한 뜻을 알겠군.”

해리는 머릿속에서 피가 들끓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걸 정말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포터!”

맥고나걸이 가슴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포터.....여기 있었구나! 무슨.....어떻게...?”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썻다.

“포터, 그건 어리석은 짓이었어!”

“이자가 교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해리가 말했다.

“포터.....그건.....그건 아주.....기사도 넘치는 행동이었지만.....하지만 모르겠니?”

“아니요, 알고 있어요.”

해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웬일인지 맥고나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이 침착해졌다.

“맥고나걸 교수님, 볼드모트가 이리로 오는 중이에요.”

“오오,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말해도 되는 거니?”

루나가 투명 망토를 벗으며 재미있다는 듯이 물었다. 또 다른 무법자의 출현으로 맥고나걸은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낡은 격자무늬 잠옷의 옷깃을 꼭 움켜쥔 채, 비틀비틀 뒷걸음 치더니 가까이 있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부르든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야.”

해리가 루나에게 말했다.

“그자는 이미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그의 머릿속 저편에서, 잔뜩 성이 나서 화끈거리고 있는 흉터와 연결된 그곳에서, 해리는 볼드모트가 유령 같은 초록색 배를 타고 어두운 호수를 빠르게 건너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돌 대야가 놓여 있는 섬에 거의 도착했다.....

“너는 달아나야 해.”

맥고나걸이 속삭였다.

“어서, 포터. 가능한 빨리!”

“그럴 수 없어요.”

해리가 말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수님. 래번클로의 보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래……래번클로의 보관? 당연히 알 턱이 없지, 그건 수 세기전에 사라졌잖니?”

맥고나걸은 좀 더 꼿꼿하게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포터, 이건 미친 짓이야. 완전 미친 짓이라고! 네가 이 성에 들어오다니..”

“그래야만 했어요, 교수님. 제가 찾아야만 하는 무언가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 보관일지도 몰라요. 혹시 제가 플리트윅 교수님하고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때 유리가 쟁그랑거리는 소리와 더불어 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커스가 깨어나고 있었다. 해리와 루나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맥고나걸이 벌떡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는 죽음을 먹는 자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며 말했다.

“임페리오”

아마커스는 스르르 일어서서 알렉토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지팡이를 주워 들었다. 그리고 고분고분하게 맥고나걸에게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와서는 그것을 자신의 지팡이와 함께 넘겨준 후에, 다시 알렉토 옆에 드러누웠다. 맥고나걸은 다시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러자 은은하게 빛나는 한 발의 은색 밧줄이 난데없이 허공에서 나타나 뱀처럼 캐로우 남매를 칭칭 감았다.

“포터”

맥고나걸은 곤경에 처한 캐로우 남매를 완전히 외면하면서 다시 해리를 바라보고 말했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사람이 정말로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말이 떨어지자 마자, 신체적 고통과도 같은 분노가 해리의 흉터 위에서 불을 지피며, 온 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한순간 그는 맑게 변한 마법약이 담긴 대야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 황금로켓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포터, 괜찮니?”

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해리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루나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었다.

“시간이 다 됐어. 볼드모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교수님. 저는 덤블도어 교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찾으라고 했던 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하지만 제가 성을 수색하는 동안,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내야만 해요. 볼드모트가 원하는 건 저예요. 그렇지만 몇 명쯤 더 죽이고 덜 죽이고 하는 일 따위는 개의치 않을 거예요. 이제…….”

이제 그는 제가 호크룩스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해리는 머릿속으로 남은 문장을 끝맺었다.

“네가 덤블도어 교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맥고나걸이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놀란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곧 몸을 쭉 펴고 일어섰다.

“네가 그것을…… 그 물건을 찾는 동안, 우리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 사람에 맞서서 학교를 지키겠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럴 게다.”

맥고나걸이 담담하게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선생들은 마법을 좀 하는 편이지. 우리가 한동안 그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온 힘을 다 기울인다면 말이다. 물론 스네이프 교수에게 원가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제가 할게요.”

“그리고 만약 학교 정문에 어둠의 마왕이 서 있고, 호그와트가 포위당할 것 같으면, 정말이지 가능한 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플루가루 네트워트는 감시를 당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는 순간이동이 불가능하니…….”

“방법이 있어요.”

해리가 재빨리 대답하고서, 호그스 해드로 이어지는 통로에 대해 설명했다.

“포터, 우리는 지금 수백 명의 학생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다…….”

“저도 알아요, 교수님. 하지만 만약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이 학교 주변에 전력을 집중한다면, 어느 누가 순간 이동으로 호그스 해드를 빠져나가든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일리가 있구나.”

맥고나걸이 수긍했다. 그리고 지팡이로 캐로우 남매를 가리키자, 은색 그물이 그들의 포박당한 몸 위에 펼쳐지더니 그들을 꽁꽁 묶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그들은 푸른색과 금색의 천장 밑에 두 머리의 흉측하고 거대한 바다 생물들처럼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좋아. 각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께 경고를 해야겠다. 너희는 투명 망토를 다시 쓰는게 좋겠구나.”

맥고나걸은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동시에 지팡이를 치켜들었다. 그러자 지팡이 끝에서 눈 주위에 안경테 모양의 얼룩이 있는 은빛 고양이 세 머리가 튀어나왔다. 그 패트로누스들은 나선형 계단을 은빛 광채로 가득 채우며, 유유히 앞서 달려갔다. 맥고나걸과 해리와 루나는 다급히 그 뒤를 따라 내려갔다.

그들이 복도를 따라 질주하자, 패트로누스는 하나씩 그들을 떠나갔다.

맥고나걸의 격자무늬 잠옷이 바닥에 끌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고, 해리와 루나는 투명 망토 아래 숨어서 그녀 뒤를 종종거리며 쫓아갔다.

그들이 두 층을 내려갔을 때, 그들의 발소리 이외에 또 다른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흉터에서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던 해리가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그는 목에 건 주머니 속에서 호그와트 비밀지도를 더듬어 찾았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미처 꺼내기도 전에, 맥고나걸 역시 인기척을 느낀 듯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더니 지팡이를 들어 결투할 태세를 취한 채 말했다.

“거기 누구냐?”

“접니다.”

어떤 낮은 목소리가 답했다.

갑옷 뒤에서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걸어 나왔다.

그를 보자 해리의 마음속에서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 때문에 해리는 스네이프의 자세한 생김새를 깨맣게 잊고 있었다. 그의 기름지고 검은 머리칼이 어떤 모양으로 수척한 그의 얼굴을 주위에 커튼처럼 늘어져 있었는지, 그의 검은 눈이 얼마나 생기 없이 차가운 눈빛을 띠고 있었는지 잊고 있었던 것이다. 스네이프는 잠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상시와 같은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고, 똑같이 지팡이를 치켜든 채 싸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캐로우 남매는 어디 있지요?”

스네이프가 조용히 물었다.

“어디가 됐든 당신이 그들에게 있으라고 한 곳에 있겠지요, 세베루스”

맥고나걸이 대답했다.

스네이프가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마치 해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눈길이 맥고나걸과 그 주위 허공을 썩 훑어보았다. 해리도 역시 지팡이를 치켜들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

“저는 알렉토가 침입자를 잡은 줄 알았는데요.”

스네이프가 말문을 열었다.

“정말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맥고나걸이 물었다.

스네이프가 왼쪽 팔을 살짝 구부렸고, 거기에는 피부 깊숙이 어둠의 표식이 찍혀있었다.

“오오, 당연히 당신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비밀 소통수단을 갖고 있지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스네이프는 맥고나걸의 말을 못 들은척 했다. 그러나 눈으로는 여전히 그녀 주위의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월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척 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밤 복도 순찰 당번이 당신인 줄 몰랐습니다. 미네르바.”

“이의 있으신가요?”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서 나오셨는지 궁금하군요.”

“무슨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정말인가요? 사방이 고요한 것 같은데요.”

스네이프가 그녀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해리 포터를 보셨나요, 미네르바? 만약 당신이 그러셨다면 저는 반드시.....”

맥고나걸은 해리의 상상보다 훨씬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지팡이가 허공을 휙 갈랐고, 한순간 해리는 스네이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방패마법 역시 대단히 신속해서, 맥고나걸은 균형을 잃고 나뒹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횃불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고, 횃불은 받침대에서 빠져나와 봉 날아갔다. 그 바람에 스네이프에게 주문을 쏘려던 해리는 쏟아지는 불꽃 바깥으로 루나를 잡아끌지 않을 수 없었다. 불꽃들은 불의 고리가 되어 복도를 가득채웠고, 스네이프를 향해 올가미처럼 날아갔다. 곧이어, 그것은 더 이상 불이 아니라, 거대한 검은 뱀이 되었다. 맥고나걸은 그것을 폭파해 연기로 만들어 버렸다. 연기는 다시 형상을 갖추더니 순식간에 단단하게 굳어서 뒤를 쫓는 무수한 단검들이 되었다. 스네이프는 자기 앞으로 갑옷을 불러와서 겨우 그것들을 피했다. 단검들은 철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차례로 갑옷의 가슴에 박혔다.

“미네르바!”

어디선가 깍깍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날아오는 주문들로부터 루나를 보호하고 있던 해리는 그의 등 뒤에서 플리트윅과 스프라우트가 잠옷바람으로 복도를 따라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뚱뚱한 슬러그훈은 헐떡거리며 그 뒤를 쫓고 있었다.

“안 돼!”

플리트윅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꽉 소리쳤다.

“넌 호그와트에서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를 수 없어!”

플리트윅의 주문이 스네이프가 몸을 가지고 있는 갑옷에 맞았다. 그러자 덜거덕하는 소리와 함께 갑옷이 살아움직였다. 스네이프는 자신을 짓누르는 갑옷의 두 팔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갑옷을 공격자들 쪽으로 날려 보냈다. 해리와 루나는 갑옷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몸을 던졌다. 갑옷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나 버렸다. 해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스네이프는 전력을 다해 달아나고 있었고, 맥고나걸과 플리트윅, 스프라우트는 일제히 쿵쾅거리며 그를 쫓아가고 있었다. 스네이프는 어느 교실로 쓴살같이 뛰어 들어갔다. 잠시후 해리는 맥고나걸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겁쟁이! 겁쟁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루나가 물었다.

해리는 루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투명 망토를 질질 끌며 복도를 따라 달려갔다. 그리고 빈 교실로 뛰어 들어가 보니, 맥고나걸과 플리트윅, 스프라우트가 깨진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뛰어내렸어.”

해리와 루나가 교실로 뛰어 들어오자 맥고나걸이 말했다.

“그가 죽었단 말씀인가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충격을 받은 플리트윅과 스프라우트의 비명 소리를 무시한 채, 해리는 창문 쪽으로 쓴살같이 달려갔다.

“아니, 죽지는 않았어.”

맥고나걸이 씹씹하게 말했다.

“덤불도어 교수님과는 달리, 그자는 아직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 게다가 그의 주인으로부터 몇 가지 재주를 더 배운 것 같구나.”

해리는 공포로 몸이 울렁거리는 걸 느끼면서, 저 멀리 거대한 박쥐 같은 형상이 어둠을 뚫고 학교 주변의 담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육중한 발소리와 헐떡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슬러그흔이 이제야 막 쫓아온 것이다.

“해리!”

슬러그흔은 에메랄드 빛 실크 파자마 아래로 넓적한 가슴을 문지르며 헐떡거렸다.

“귀여운 녀석.....어찌나 놀랐던지.....미네르바.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세베루스가.....무슨.....”

“우리 교장 선생님은 잠시 휴가를 가신답니다.”

맥고나걸이 유리창에 난 스네이프 모양의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다.

“교수님!”

해리가 양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외쳤다. 그는 그의 아래로 흘러가는 인페리우스들로 가득한 호수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령 같은 초록색 배가 지하의 호숫가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볼드모트는 가슴에 살의를 품고 배에서 뛰어내렸다.

“교수님, 학교에 바리케이드를 쳐야해요! 그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잘 알았다. 이름을 불러서는 안될 그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맥고나걸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말했다. 스프라우트와 플리트윅은 놀라서 숨을 삼켰고, 슬러그흔은 낮게 신음했다.

“포터는 덤블도어 교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안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터가 할 일을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어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당신도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짓을 한대도 그 사람을 영원히 못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플리트윅이 깍깍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잡아 둘 수는 있습니다.”

스프라우트가 말했다.

“고마워요, 포모나.”

맥고나걸이 말했다. 두 마녀 사이에 깊은 이해의 눈길이 오갔다.

“학교 주위에 기본적인 방어막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대연회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대부분은 학생들은 대피해야 겠지요. 하지만 성년이 된 학생들 중에 남아서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스프라우트가 벌써 문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20분 후에 제 기숙사 학생들과 함께 대연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스프라우트는 종종걸음으로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텐타큘라, 악마의 뒷, 그리고 스네어갈러프 씨주머니...그래,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물리치는지 보고 싶군.”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플리트윅이 말했다. 그리고 비록 키가 작아 창밖을 거의 내다볼 수도 없었지만, 부서진 유리창 밖으로 지팡이를 겨누더니 굉장히 복잡한 주문을 중얼거렸다.

해리는 뭔가 돌진하는 듯한 요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플리트윅이 바람의 힘을 운동장에 풀어놓고 있는 것 같았다.

“교수님!”

해리는 이 왜소한 마법의 대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교수님,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래번클로의 보관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프로테고 호리빌리스.....래번클로의 보관?”

플리트윅이 깍깍대며 말했다.

“약간의 가외 지식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없지, 포터.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건 별 소용이 없을 거 같은데?”

“단제 제 말은.....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걸 보다니? 살아 있는 사람의 기억으로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사라진지 오래됐어, 이 녀석아!”

해리는 끔찍한 절망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기분을 맛보았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호크록스 일까?

“그럼, 래번클로 학생들과 함께 대연회장에서 뵙겠습니다. 필리우스!”

맥고나걸이 해리와 루나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그들이 막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슬러그흔이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이고!”

슬러그흔은 파랗게 질리고 땀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거렸다. 그의 팔자수염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난리인지! 난 이게 현명한 처사인지 완전히 장담 할 수가 없군요, 미네르바. 그자는 어떻게든 들어올 방법을 찾을 것이고, 알다시피, 그자를 막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주 심각한 위험에....”

“저는 교수님과 슬리데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연회장에서 20 분후에 만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맥고나걸이 말했다.

“만약 학생들을 데리고 떠나고 싶으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우리의 저항을 방해하거나 이 성에서 우리를 향해 무기를 겨눈다면, 그때는 호레이스, 우리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결투할 것입니다.”

“미네르바!”

슬러그흔이 혼비백산 해서 외쳤다.

“슬리데린 기숙사가 어디에 총성을 바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맥고나걸이 말을 가로챘다.

“가서 학생들을 깨우세요, 호레이스”

해리는 슬러그흔이 헛소리를 지껄이는 걸 보려고 자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와 루나는 맥고나걸을 쫓아서 뛰어갔다. 맥고나걸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지팡이를 치켜든 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피에르토톰.....오오 세상에, 필치, 지금은 아니에요....”

늙은 관리인이 절뚝거리며 시야에 나타나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학생들이 잠자리에서 나왔어요! 학생들이 복도에 있어요!”

“저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이 허풍선이 얼간이!”

맥고나걸이 호통을 쳤다.

“당장 가서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해 바요! 피브스를 찾으라고요!”

“피.....피브스요?”

필치는 마치 전에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듯이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피브스! 이 얼간이, 피브스 말이에요! 당신은 사반세기 동안이나 그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나요? 가서 그를 데리고 와요, 당장!”

필치는 맥고나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어깨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낮게 구시렁거리면서 절뚝거리며 사라졌다.

“자, 이제 피에르토톰 로코모토르!”

맥고나걸이 소리쳤다.

그러자 복도를 따라 서 있던 모든 조각상들과 갑옷들이 받침돌에서 뛰어내렸다. 위층과 아래층에서도 쿵 소리가 울려퍼지는 것을 듣고, 성 전체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이 똑같이 행동했음을 깨달았다.

“호그와트가 위험에 빠졌다!”

맥고나걸이 외쳤다.

“호그와트 전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학교에 대한 그대들의 임무를 수행하라!”

철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조각상들의 무리가 함성을 지르며 앞 다투어 해리를 지나갔다. 그중에 어떤 것들은 실물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했는데, 동물들도 있었고, 철컹거리며 칼과 철퇴를 휘두르는 갑옷도 있었다.

“자, 포터!”

맥고나걸이 말했다.

“너와 러브굿은 돌아가서 친구들을 대연회장으로 데리고 오는 게 좋겠구나. 나는 다른 그리핀도르 학생들을 깨워야겠다.” 그들은 다음번 계단 꼭대기에서 헤어졌다. 해리와 루나는 다시 필요의 방의 감춰진 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선생님과 반장의 인솔하에 대연회장으로 내려가는 학생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대부분 잘못 위에 여행용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저 사람이 포터야!”

“해리 포터!”

“그가 맞다니까, 정말이야. 내가 방금 봤어.”

하지만 해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필요의 방 입구에 도착했다. 해리가 마법에 걸린 벽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벽이 열리며 그들을 들여보냈다. 해리와 루나는 서둘러서 가파른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무슨……?”

방 안의 광경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해리는 깜짝 놀라서 층계 몇 단을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뛰어내렸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아까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북적대고 있었던 것이다. 킹슬리와 루핀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올리버 우드와 케이티 벨, 안젤리나 존슨과 앤리샤 스피넷, 빌과 플뢰르, 위즐리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해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루핀이 층계 밑으로 다가와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볼드모트가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학교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어요, 스네이프는 달아났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나머지 덤블도어의 군대에게 전갈을 보냈어.”

프레드가 설명했다.

“설마 모두가 이 재밌는 일을 놀칠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해리? 그리고 D.A 회원들이 불사조 기사단에 알렸어. 그래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야.”

“무엇부터 하지, 해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조지가 소리쳤다.

“우선 어린 학생들부터 내보내고 있어요. 모두가 대연회장에 모여 대열을 갖출 거예요.”

해리가 말했다.

“우린 싸울 겁니다.”

엄청난 함성과 함께 사람들이 우르르 층계 발치로 밀어닥쳤다. 그들이 그를 밀치고 뛰어가는 바람에, 해리는 한쪽 벽으로 떠밀렸다. 불사조 기사단과 덤블도어의 군대, 퀴디치 팀의 동료들이 뒤섞인 그들은 모두 지팡이를 뽑아 든 채 대연회장 쪽으로 앞 다투어 달려갔다.

“어서, 루나!”

지나가던 딘이 소리치며 지팡이를 들지 않은 손을 내밀었다. 루나는 그 손을 잡고 그를 쫓아 다시 층계를 올라갔다.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 오직 한 무리의 사람들만이 필요의 방에 남아 있었다. 해리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위즐리 부인이 지니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들 주위에는 루핀과 프레드, 조지, 빌 그리고 플뢰르가 서 있었다.

“넌 미성년자야!”

해리가 다가갔을 때, 위즐리 부인이 딸을 향해 소리쳤다.

“난 절대 용납 못한다! 사내애들은 괜찮아. 하지만 넌..... 너는 집에 돌아가야 해!”

“안 가요!”

지니가 엄마의 손에서 흉 팔을 잡아 빼는 순간, 그녀의 머리칼이 휘날렸다.

“저도 덤블도어의 군대란 말이에요!”

“십 대 불량학생 모임이지!”

“그자와 대결하려고 했던 십 대 불량학생 모임이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말이죠!”

프레드가 한마디 거들었다.

“이 애는 이제 열여섯 살이야.”

위즐리 부인이 빽 소리쳤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너희 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아이를 데려가다니.....”

프레드와 조지는 약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엄마 말씀이 옳아, 지니.”

빌이 부드럽게 말했다.

“넌 이래선 안돼. 미성년자는 모두 떠나야 해, 그게 옳아.”

“난 집에 갈 수 없어요!”

지니가 소리쳤다. 두 눈에서는 분노에 찬 눈물이 반짝거렸다.

“가족이 모두 여기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채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건 못 참아요, 그리고....”

지니의 눈이 처음으로 해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해리는 고개를 저었고, 지니는 씁쓸하게 외면했다.

“좋아요.”

지니가 호그스 해드로 돌아가는 통로 입구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작별 인사를 할께요. 그리고.....”

이때 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통로에서 나오다가 중심을 잊고 넘어지면서 구른 것이었다. 그 사람은 제일 가까운 의자로 기어 올라가더니, 비스듬하게 걸쳐진 뿔테 안경 너머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제가 너무 늦었나요? 벌써 시작됐나요? 전 이제 막 알았어요, 그래서 전.....전.....”

퍼시가 침을 튀기며 떠들어 대다가 순간 말을 잊었다. 여기서 가족 대부분과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게 분명했다. 한동안 놀라움으로 어쩔 줄 모르는 순간이 길게 이어졌다. 그때 루핀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불쑥 “저어, 아기 테디는 잘 지내줌?” 하고 물었다. 그것은 이 긴장을 깨뜨려 보려는, 무모할 만큼 뻔한 시도였다.

루핀은 깜짝 놀라서 멀뚱멀뚱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즐리 가족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얼음장처럼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저는.....오오, 물론이죠.....아기는 잘 있어요!”

루핀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통스는 아기와 함께 있어요.....친정에.....”

퍼시와 다른 위즐리 가족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여기 사진이 있어요!”

루핀이 외투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플로르와 해리에게 보여 주며 소리쳤다. 사진 속에서는 밝은 청록색 머리칼이 한 움큼 자란 조그만 아기가 카메라를 향해 통통한 주먹을 흔들고 있었다.

“제가 바보였어요!”

퍼시가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컷던지, 루핀은 하마터면 사진을 떨어트릴 뻔 했다.

“제가 머저리였어요! 저는 잘난 척 하는 얼간이였고, 저는.....저는.....”

“마법부를 사랑했고, 가족과 의절한, 권력에 굽주린 저능아였지.”

프레드가 말했다.

퍼시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 난 정말 그랬어.”

“거참, 대답 한번 잘했어.”

프레드가 퍼시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위즐리 부인은 활짝 웃음을 터트렸다. 부인은 앞으로 달려가더니, 프레드를 밀쳐 내고 퍼시를 숨 막힐 정도로 꼭 끌어안았다. 한편 퍼시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다.

“죄송해요, 아빠.”

퍼시가 말했다.

위즐리 씨 역시 빠르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아들을 포옹하기 위해 달려왔다.

“어쩌다가 제정신이 돌아온거야, 퍼스?”

조지가 물었다.

“벌써 오래전부터였어.”

퍼시가 여행용 망토 자락을 들어 안경 밑으로 눈을 훔치며 대답했다.

“하지만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야만 했어. 마법부에서는 그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 그들은 언제나 배신자들을 투옥하니까. 나는 용케도 애버포스 씨와 연락을 취했는데, 그가 10 분 전에 호그와트에서 싸움이 벌어질거라고 나에게 살짝 알려 주었지. 그래서 이렇게 온거야.”

“좋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반장들이 통솔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겠어.”

조지가 잔뜩 거드름을 피우는 퍼시의 태도를 똑같이 흉내내며 말했다.

“이제 올라가서 싸우자. 안그러면 그 많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 전부 다른 사람들 차지가 될거야.”

“그럼, 이제 당신이 저의 형수가 되시나요?”

빌, 프레드, 조지와 함께 총계를 향해 서둘러 출동하는 와중에도, 퍼시는 인사를 건네며 플뢰르와 악수를 나눴다.

“지니!”

그때 위즐리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니가 이 화해의 순간을 틈타서, 덩달아 몰래 총계를 올라가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루핀이 제안했다.

“지니는 그냥 이 방에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도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거 좋은 생각이로군.”

위즐리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니, 너는 이 방에 그대로 잇어라. 내 말 들어.”

지니는 그 제안이 별로 맘에 들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의 엄한 눈초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위즐리 부부와 루핀도 총계로 향했다.

“론은 어디 있죠? 헤르미온느는 어디 있나요?”

해리가 물었다.

“그 애들은 이미 대연회장에 올라가 있을 게다.”

위즐리 씨가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전 걔들이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들은 뭔가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지니가 말했다.

“오빠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말이야.”

“화장실?”

해리는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러 필요의 방 바깥으로 이어지는 열린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화장실을 확인했다. 화장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화장실 얘기를 했던 게 확실해?”

바로 그때 흉터가 불로 지지듯이 아파왔다. 순식간에 필요의 방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날개 달린 수퇘지가 양쪽 기둥에 장식된 드높은 연철 대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학교 운동장 저편에 있는 성 쪽을 바라보았다. 성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기니는 그의 양쪽 어깨 위에 늘어져 있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에 앞서 찾아오는 냉혹하고도 무자비한 목적의식에 사로잡혔다.

### 제 31 장 호그와트의 전투

마법에 걸린 대연회장의 천장은 어둡고 별이 총총히 박혀있었다. 그 아래로 네 개의 기다란 기숙사 테이블에는 머리가 부스스한 학생들이 여행용 망토를 걸치거나 잘못 바람으로 출지어 앉아 있었고, 군데군데 학교 유령들이 허연 진주빛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주시하는 가운데, 맥고나걸은 대연회장 위쪽의 높은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맥고나걸의 뒤에는 나머지 교사들이 서 있었는데, 그중에는 캔타우로스인 피렌체와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 막 도착한 불사조 기사단 단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치 씨와 품프라 부인이 학생들의 대피를 맡아 주십시오. 그리고 반장들은 내 지시에 따라 책임지고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대피 장소로 자기 기숙사의 학생들을 인솔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깜짝 놀라서 돌처럼 굳어 버린 듯했다. 하지만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를 찾으려고 그리핀도르 테이블을 훑어보며 벽을 따라가고 있을 때, 후플푸프 테이블에서 어니 맥밀란이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다.

"만약에 남아서 싸우고 싶다면요?"

약간의 박수갈채가 있었다.

"성년이라면 남아도 좋습니다."

맥고나걸이 말했다.

"물건들은 어찌죠? 저희 트렁크랑 부엉이는요?"

래번클로 테이블의 한 여학생이 큰 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소지품을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맥고나걸이 말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곳을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스네이프 교수님은 어디 계시죠?"

슬리데린 테이블의 한 여학생이 외쳤다.

"그분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튀었습니다."

맥고나걸이 대답하자, 거대한 환호성이 그리핀도르와 후플푸프, 래번클로 학생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해리는 여전히 론과 헤르미온느를 찾으며, 그리핀도르 테이블을 따라서 대연회장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옆을 지나가자 몇몇 얼굴들이 돌아보았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이미 성 주위에 방어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맥고나걸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을 더욱 강화하지 않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반드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빠르고 침착하게 이동하고

반장들의 말을 따르라는..."

하지만 맥고나걸의 마지막 말은, 갑자기 대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또 다른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그 목소리가 한때 지배했던 괴물처럼, 그것 역시 벽 속에 수 세기 동안 잠들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너희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를 꼭 부둥켜안았다.

"하지만 너희의 노력은 전부 부질없다. 너희는 나와 맞서 싸울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호그와트 교사들을 대단히 존경한다. 나는 마법사들이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곧 연회장에 침묵이 감돌았다. 그것은 고막을 짓누르는 팽팽한 침묵이었고, 너무 거대해서 벽이 터져 나갈 것 같았다.

"해리 포터를 내게 넘겨라."

볼드모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아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해리 포터를 넘겨준다면 나는 학교를 건드리지 않고 떠나겠다. 내게 해리 포터를 넘겨라. 그러면 너희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자정까지 시간을 주겠다."

무시무시한 침묵이 또다시 그들 모두를 집어삼켰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있는 모든 눈길이 해리에게 쏠렸고,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광선이 발사되어 그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슬리데린 테이블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다. 해리는 팬시 파킨슨이 부들부들 떨리는 팔을 들며 소리치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가 저기 있어! 포터가 저기에 있어! 누가 그를 잡아!"

해리가 미처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의 앞에 있던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서더니, 해리가 아닌 슬리데린 학생들과 맞선 것이다. 뒤이어 후플푸프 학생들과 래번클로 학생들도 거의 동시에 일어섰고, 그들 모두 해리에게 등을 돌린 채, 오히려 팬시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사태에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해리는 여기저기서 지팡이들이 망토나 소맷부리 아래로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파킨슨 양."

맥고나걸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파킨슨 양이 제일 먼저 필치 씨와 함께 연회장을 떠나도록 해요. 파킨슨 양의 기숙사에 속한 다른 학생들도 따라가도록."

해리는 연회장 반대편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에 뒤이어 슬리데린 학생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래번클로, 따라가세요!"

맥고나걸이 소리쳤다.

서서히 네 개의 테이블이 비어 갔다. 슬리데린의 테이블은 완전히 비어 버렸지만, 래번클로의 몇몇 상급생들은 친구들이 줄지어 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후플푸프의 학생들이 뒤에 남았으며, 그리핀도르의 학생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때문에 맥고나걸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을 몰아내야만 했다.

"절대로 안 된다. 크리비! 그리고 너, 피크스!"

해리는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다 함께 앉아 있는 위즐리 가족 쪽으로 허둥지둥 건너갔다.

"론이랑 헤르미온느는 어디 있어요?"

"아직 못 찾았....."

위즐리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킹슬리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려 높은 단상 쪽으로 걸어 나가자, 위즐리 씨는 하던 말을 멈추었다.

"이제 자정까지는 겨우 30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호그와트 선생님들과 불사조 기사단 사이에서 작전이 합의되었습니다. 플리트윅, 스프라우트, 맥고나걸 교수님은 싸울 사람들을 이끌고 가장 높은 세 개의 탑, 그러니까 래번클로 탑과 천문 탑, 그리고 그리핀도르 탑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서는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주문을 걸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일 겁니다. 그동안, 리무스!"

그는 루핀을 지목했다.

"아서!"

그는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위즐리 씨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로 들어오는 각 통로들의 입구를 방어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저희 봄인 것 같은데요."

프레드가 자신과 조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킹슬리는 찬성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지휘자들은 이리 올라오십시오. 인원을 나눌 것 입니다!"

"포터!"

단상으로 가득 몰려든 학생들이 앞 다투어 자리를 차지하고 지시를 받고 있는 동안, 맥고나걸이 서둘러 해리에게 다가오더니 말했다.

"지금 넌 뭔가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니?"

"네? 오오."

해리가 대답했다.

"오, 맞아요!"

해리는 호크룩스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다. 론과 헤르미온느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일시적으로 그의 머릿속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쫓아내버린 것이다.

"그럼 어서 가 봐라, 포터, 가!"

"알았습니다. 예....."

해리는 다시 대연회장을 달려 나갔고, 대피 중인 학생들로 여전히 붐비는 현관 복도로 들어섰다. 그동안에도 내내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학생들 틈에 훑쓸려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일단 계단 꼭대기에 올라서자, 텅 빈 복도를 따라 헐레벌떡 뛰어갔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의 생각을 흐려 놓고 있었다. 그는 마음을 진정하고 호크룩스를 찾는데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써 보았지만, 온갖 잡생각들이 유리잔에 갇힌 말벌처럼 어지럽게 헛되이 날뛰었다. 그를 도와줄 론과 헤르미온느가 옆에 없으니, 해리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차츰 발걸음이 느려졌고, 텅 빈 복도의 중간쯤에 이르자 그만 걸음을 멈춰 버렸다. 해리는 동상이 떠나 버린 빈 받침돌 위에 주저앉아, 목에 건 주머니에서 호그와트 비밀 지도를 꺼냈다. 하지만 지도의 어디에서도 론과 헤르미온느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해리는 마침 필요의 방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점들이 너무 빽빽하게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가려져 안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호그와트 비밀 지도를 옆으로 치워 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안감힘을 썼다....

볼드모트는 내가 래번클로 탑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거기가 출발점이었다.

볼드모트는 알렉토 캐로우를 래번클로의 학생휴게실에 배치해 놓았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한 셈이었다. 볼드모트는 자신의 호크룩스가 그 기숙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해리가 이미 알고 있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래번클로와 연관시킬 만한 물건은 오직 사라진 보관 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보관이 호크룩스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슬리데린 학생이었던 볼드모트가 수 대째 사람들로부터 자취를 감추었던 래번클로의 보관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살아 있는 사람의 기억으로는 어느 누구도 보관을 본 적이 없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에게 보관이 있는 곳을 얘기해 줄 수 있었단 말인가?

살아 있는 사람의 기억으로는.....

손가락 밑으로 해리의 눈이 다시 번쩍 떠졌다. 그는 받침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뿐인 마지막 희망을 좇아, 왔던 길을 도로 내달렸다. 대리석 계단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필요의 방으로 들어가느라 소란스러웠다. 반장들은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며 자기 기숙사 학생들을 놀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 마구 밀치느라 난리였다. 해리는 자카리아스 스미스가 제일 앞줄을 차지하려고 1학년생들을 줄줄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여기저기서 어린 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좀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형제자매나 친구의 이름을 애탏게 부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해리는 진주 빛의 허연 형상이 저 아래 현관 복도를 미끄러지듯 가로질러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이 북새통 속에서 최대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닉! 닉! 할 얘기가 있어요!"

해리는 학생들의 물결을 힘겹게 뚫고서 간신히 계단 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그리핀도르 탑의 유령인,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그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해리! 우리 귀염둥이!"

닉이 양손으로 해리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자 해리는 마치 두 손을 얼음물에 담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닉,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해요. 래번클로 탑의 유령은 누구죠?"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놀란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약간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당연히 회색 숙녀지. 하지만 네가 필요로 하는 게 유령의 임무라면 내가..?"

"그 유령이어야만 해요. 혹시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보자.."

닉은 빽빽이 몰려가는 학생들의 머리 너머로 이쪽저쪽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닉의 머리가 주름 깃 위에서 약간 달랑거렸다.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그 유령이야, 해리. 머리가 긴 짧은 여자 말이다."

해리는 닉의 투명한 집게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키가 큰 유령을 발견했다. 그 유령은 해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채고 눈썹을 치켜세우더니, 단단한 벽을 통과해 달아나 버렸다.

해리는 그 유령의 뒤를 쫓았다. 그녀가 사라져 들어간 복도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 해리는 통로 끝에서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끄러지듯 그로부터 달아나고 있었다.

"이봐요.....기다려요.....돌아와요!"

그 유령은 땅에서 몇 센티미터 둥동 뜯 채로 멈추어 섰다. 해리는 허리까지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바닥에 달을 만큼 긴 망토를 걸친 그녀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도도하고 오만해 보이기도 했다. 가까이 다가간 해리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복도에서 몇 번 지나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말을 걸어 본 적은 없는 유령이었다.

"당신이 회색 숙녀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래번클로 탑의 유령이시죠?"

"그렇다."

그녀의 말투는 통명스러웠다.

"부탁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라진 보관에 대해 당신이 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알아야만 해요."

순간 싸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미안하지만 날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녀는 그만 떠나려는 듯 방향을 돌리며 말했다.

"잠깐만요!"

해리는 고함까지 칠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노와 두려움이 당장이라고 그를 집어삼킬 지경이었다. 회색 숙녀가 그의 앞에 둑둥 떠 있는 동안, 그는 시계를 결눈질했다. 자정이 되기 15 분 전이었다.

"이건 아주 급한 일이에요."

그가 사나운 어조로 말했다.

"만약 그 보관이 호그와트에 있다면, 전 그걸 찾아야 한다고요, 빨리."

"그걸 탐낸 학생이 네가 처음은 아니지."

회색 숙녀가 비웃듯이 말했다.

"몇 대째 학생들이 날 성가시게 했단 말이야....."

"이건 점수를 잘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해리가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볼드모트.....볼드모트를 무찌르는 일에 관한 거예요. 당신은 그 일에 관심 없나요?"

회색 숙녀는 물론 얼굴을 붉힐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투명한 두 뺨은 더욱 뿌옇게 변했고, 대답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격해져 있었다.

"물론 나는.....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그럼, 도와주세요!"

회색 숙녀는 서서히 냉정을 잊었다.

"그.....그건 상관없는 일이야...."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우리 어머니의 보관이랑은....."  
"당신 어머니의 것이라고요?"  
회색 숙녀는 자신에 대해 화가 난 모양이었다.  
"살아 있을 때, 나는 헬레나 래번클로였어."  
그녀가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래번클로의 딸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겠군요?"  
"그 보관이 지혜를 주긴 하지만....."  
회색 숙녀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를 마왕이라고 부르는 그 마법사를 네가 무찌를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걸 쓰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해리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하지만 당신이 호그와트에 애정이 있다면, 그리고 볼드모트가 파멸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당신은 제게 그 보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모조리 알려주셔야 해요!"  
회색 숙녀는 허공에 둉둥 뜯 채 그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절망감이 해리를 감쌌다. 이 유령이 뭔가 아는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플리트윅이나 덤블도어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두 사람도 분명 그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테니 말이다. 결국 해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막 돌아서 가려고 할 때, 그녀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보관을 훔쳤어."  
"당신이.....당신이 어쨌다고요?"  
"내가 보관을 훔쳤다고."  
헬레나 래번클로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나는 어머니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명해지고 싶었어. 그래서 난 그걸 갖고 달아났어."  
해리는 어떻게 해야 그녀의 신임을 얻어 낼 수 있을지 알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둘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듣기만 했다. 회색 숙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들 말로는, 우리 어머니는 그 보관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걸 여전히 갖고 계신 척 하셨대, 그분은 당신의 손실과 나의 꿈쩍한 배신을 다른 호그와트 설립자들에게 숨기셨던 거야.  
결국 우리 어머니는 병이 나셨어. 죽을 병에 걸리셨지. 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나를 한 번만 다시 보기를 간절히 바라셨어. 그래서 나에게 퇴짜를 맞고도 나를 오랫동안 사랑해 온 한 남자를 보내어 나를 찾게 했지. 어머니는 그 남자가 나를 찾아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계셨던 거야."  
해리는 기다렸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 남자는 내가 숨어 있던 숲속까지 날 뒤쫓아 왔어. 내가 그와 함께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그는 사납게 돌변했지, 바론은 언제나 성격이 불같았으니까. 내 거절에 분노하고 내 자유를 질투한 나머지, 그 남자는 나를 칼로 찔렀어."  
"바론이라고요? 당신 말씀은 그러니까...."  
"피투성이 바론, 맞아."  
회색 숙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입고 있던 망토를 한쪽으로 치켜들어 하얀 가슴팍에 나 있는 검은 상처를 보여 주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이 한 짓을 깨닫고, 회한에 사로잡혔지. 결국 내 목숨을 앗아간 무기를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로부터 수 세기가 지났지만, 바론은 여전히 회개의 뜻으로 자기 몸에 쇠사슬을 감고 다니고 있어....마땅히 그래야지."  
회색 숙녀가 쓸쓸하게 덧붙였다.  
"그러면....그러면 그 보관은?"

"그것은 바론이 나를 찾아 숲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숨겨 놓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속이 빈 나무 안에 숨겨 놓았거든."

"속이 빈 나무요?"

해리가 되물었다.

"어떤 나무죠? 그게 어디 있죠?"

"알바니아의 숲이었어. 아주 외진 곳이었는데. 나는 그곳이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

"알바니아."

해리가 되뇌었다.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기적적으로 정신이 들었다. 그는 이제야 왜 회색숙녀가 덤블도어와 플리트윅에게 말하길 거부했던 이야기를 그에게는 해 주고 있는지 깨달았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죠? 다른 학생에게?"

회색숙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몰랐어.....그는.....듣기좋은 말을 했어. 그는

꼭.....이해하는 것 같았어.....동감하는 것 같았어....."

그렇다. 해리는 생각했다. 톰 리들이라면 자신의 권한이 아닌 놀라운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어 했던 헬레나 래번클로의 욕망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리들이 교묘하게 물건을 빼앗은 사람이 당신이 처음은 아니에요."

해리가 중얼거렸다.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면, 그는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굴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볼드모트는 감언이설로 회색 숙녀에게서 사라진 보관이 숨겨진 곳을 알아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머나먼 숲까지 찾아가서 숨겨진 보관을 찾아왔던 것이다. 아마도 호그와트를 떠난 직후, 즉 보진과 버크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외진 알바니아의 숲은, 훨씬 나중에 볼드모트가 방해받지 않고 1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호기심을 엿보고 있을 장소가 필요했을 때, 훌륭한 은신처로 떠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그 보관이 귀중한 호크룩스가 되고 나자, 볼드모트가 그것을 그 초라한 나무 속에 남겨 두지 않았다..... 아니, 보관은 은밀하게 진정한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것이다. 볼드모트는 그것을 거기에 두었을 게 분명했다.....

".....그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남발!"

해리가 생각 끝에 불현듯 외쳤다.

"뭐라고?"

"그는 보관을 성안에 숨겼어요. 이곳에서 가르치게 해 달라고 덤블도어 교수님께 부탁했던 그날 밤에 말이죠!"

해리가 말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나자, 비로소 그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덤블도어 교수님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이나, 아니면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보관을 숨겼던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교사 자리를 얻으려는 시도 역시 나름대로 가치는 있었죠. 그렇게 되면 그리핀도르의 칼까지 훔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해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둉뚱 떠 있는 유령을 남겨 둔 채 떠났다.

모퉁이를 돌아서 현관 복도로 되돌아간 해리는 시계를 확인해 보았다. 자정이 되기 5분 전이었다. 비록 이제 마지막 호크룩스가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다 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다....

몇 대가 지나도록 학생들은 그 보관을 찾는 일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래번클로 탑 안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톰 리들은 호그와트 성 안에서 어떤 은닉처를 발견했을까? 어느 곳이 영원히 비밀로 감추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걸까?

골똘히 생각에 빠진 채, 해리는 모퉁이를 돌았다. 그런데 새로 나타난 복도로 겨우 몇 걸음을 떼었을 때, 원편에 있던 창문이 귀가 멍멍할 정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해리가 놀라서 옆으로 펄쩍 물러서자, 거대한 몸뚱이가 창문을 통해 휙 뛰어 들어오더니 반대편 벽에 부딪혔다. 새로 나타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커다랗고 털이 난 것이 깨갱거리며 떨어져나왔다. 그러고는 곧장 해리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해그리드!"

사냥개 팽의 관심을 떨쳐 내려고 애를 쓰며, 해리가 소리쳤다. 턱수염이 나고 몸집이 거대한 사람이 엉금엉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도대체...?"

"해리, 너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어!"

해그리드는 허리를 숙이더니 다짜고짜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해리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쪽으로 다시 뛰어갔다.

"잘했다. 그로피!"

그는 창문에 난 구멍에 대고 소리쳤다.

"잠시 후에 보자. 착한 녀석!"

해그리드의 어깨 너머로, 해리는 짙은 어둠이 깔린 바깥에서 멀리 섬광이 터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괴이하고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자정이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제기랄, 해리!"

해그리드가 헐떡거렸다.

"이게 그거지? 싸울 시간이 된 거지?"

"해그리드,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우리 동굴까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

해그리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목소리가 거기까지 들리지 뭐냐? '자정까지 나에게 포터를 넘겨 달라' 그래서 네가 분명 여기 있을 거란 걸 알았지. 뭔가 벌어지고 있단 걸 알았단 말이야. 앉아 있어 팽. 그래서 우리가 합세하러 왔지. 나랑 그로피랑 팽이 말이다. 우린 숲으로 둘러싸인 경계선을 뚫고 들어왔어. 그로피가 우리를, 그러니까 팽이랑 나를 태워 줬어. 그 녀석에게 성에 내려 달라고 말했더니, 글쎄 나를 창문을 통해 밀어 넣지 뭐냐. 대견한 녀석. 정확히 내가 뜻한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론이랑 헤르미온느는 어디 있느냐?"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어서 가요."

두 사람은 함께 서둘러 복도를 따라 달렸다. 팽은 그들 곁을 통통거리며 쫓아왔다. 해리는 사방 복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달리는 발소리와 비명 소리들, 창문 너머로 캄캄한 운동장에서는 더 많은 불꽃이 터졌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쿵쿵 바닥을 울리며 해리의 뒤를 쫓아오던 해그리드가 헐떡거리며 물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해리는 또다시 닥치는 대로 방향을 틀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론과 헤르미온느는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 앞쪽 통로에는 이미 최초의 전투 부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평상시에 교무실 입구를 지키던 두 마리의 이무기 석상은 또 다른 부서진 창을 통해 날아든 주문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들의 잔해는 마룻바닥 위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다. 해리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석상의 머리 하나를 뛰어넘었을 때, 그것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말했다.

"오오, 나는 신경 쓰지 마라.....난 그저 여기 누워서 부서질 테니...."

못생긴 그 석상의 얼굴을 보자, 해리는 갑자기 제노필리우스 러브굿의 집에 있던, 괴상한 머리장식을 쓴 로웨나 래번클로의 흉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곱슬거리는 하얀 머리 위에 돌로 만든 보관을 쓴, 래번클로 탑의 조각상이 떠올랐다.

복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세 번째 석상에 대한 기억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못생긴 늙은 마법사의 흉상이었다. 해리가 그 머리 위에 손수 가발과

녹슨 왕관을 올려놓았던 것이다. 순간 파이어위스키의 열기처럼 엄청난 충격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해리는 하마터면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마침내 호크룩스가 그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이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혼자서 행동했던 톰 리들은 너무나 오만했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이 호그와트 성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간파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덤블도어나 플리트윅 같은 모범생들은 그 특별한 장소에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 바로 그는 종종 엉뚱한 길로 빛나가곤 했던 것이다. 결국 이곳이 덤블도어가 결코 찾아낼 수 없었던, 그와 볼드모트만 아는 비밀이었던 것이다.

해리는 네빌과 대여섯 명의 다른 학생들을 이끌고 쿵쿵거리며 지나가는 스프라우트 덕에 정신을 차렸다. 그들 모두 방한용 귀마개를 한 채, 커다란 화분에 심은 식물처럼 보이는 것을 나르고 있었다.

"맨드레이크야!"

네빌이 달려가면서 어깨 너머로 해리를 향해 소리쳤다.

"이것들을 담 너머로 던져 버릴거야.....그자들이 이길 반기지는 않을걸!"

해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를 알고 있었다. 해리는 속력을 내어 달려갔다.

뒤에서는 해그리드와 팽이 껑총꽝총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초상화들을 차례차례 지나쳤고, 그림 속의 인물들도 덩달아 그들을 따라서 달렸다. 높은 주름 깃을 달고 승마용 반바지 차림을 하거나, 갑옷이나 망토를 입은 마법사와 마녀들이 성의 다른 구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을 소리 높여 외치며, 서로 다른 캔버스 속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성 전체가 몹시 흔들렸다. 그리고 폭발의 여파로 인해 거대한 항아리가 받침돌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해리는 깨달았다. 이 성은 교사들이나 기사단의 것 보다 훨씬 더 악랄한 마법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괜찮아. 팽.....괜찮다니까!"

해그리드가 고함을 질렀지만, 깨진 도자기의 은칠된 조각들이 포탄의 파편처럼 허공에 흘날리자. 덩치 큰 사냥개는 그만 꼴무니를 뺏다. 해그리드는 겁에 질린 개를 쫓아서 해리를 흘로 남겨 두고 쿵쾅거리며 달려갔다.

해리는 지팡이를 치켜든 채, 우르르 진동하는 통로들을 계속 지나간다. 복도 하나를 지나는 동안 내내, 그림 속의 조그만 기사, 캐도간 경은 그림들을 차례차례 통과하면서 그와 나란히 질주했다. 그는 철거덕거리며 연방 격려의 말을 외치면서 작고 통통한 조랑말을 타고 해리의 뒤를 쫓았다.

"허풍선이들과 악당들, 개망나니들과 불한당들, 그런 놈들을 몰아내라, 해리. 그놈들을 내쫓아!"

해리는 쓴살같이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프레드와 리 조던, 한나 아보트를 포함한 한무리의 학생들이 텅 빈 받침돌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래 그 받침돌 위의 동상은 비밀 통로를 가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지팡이를 뽑아 든 채, 숨겨진 구멍 쪽으로 잔뜩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멋진 밤이야!"

성이 다시 흔들리자, 프레드가 소리쳤다. 해리는 기운이 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면서 전속력으로 그들 곁을 지나갔다. 그는 사방에 부엉이들이 가득한 복도를 질주했다. 노리스 부인은 씩씩거리며 앞발로 부엉이들을 후려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부엉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

"포터!"

그때 애버포스 덤블도어가 지팡이를 치켜든 채 복도를 가로막고 섰다.

"내 술집으로 수백명의 꼬마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저도 알아요, 우린 대피 중이에요."

해리가 말했다.

"볼드모트가....."

"공격하고 있지. 그들이 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버포스가 말했다.

"나도 귀먹지 않았어. 호그스미드 전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지.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슬리데린의 학생들 몇 명을 인질로 잡겠단 생각은 못했단

말이냐? 그냥 무사히 내보낸 죽음을 먹는 자들의 아이들이 있던데.... 그녀석들을 여기 잡아 놓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볼드모트를 막지는 못했을 거예요."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형님이라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으셨을테고요."

애버포스는 툴툴거리며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

당신의 형님이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으셨을 테고요..... 그래, 그것은 사실이었다. 해리는 다시 달려가면서 생각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스네이프를 변호했던 덤블도어가 학생들을 인질로 붙잡을 리는 만무했다.

머잖아 마지막 모퉁이를 미끄러지듯 돌았을 때,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발견하고 그만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고함을 내지르고 말았다. 두 사람 모두 커다랗고 구부러지고 더러운 노란 물체를 각기 품에 안고 있었다. 그리고 론은 겨드랑이에 빗자루를 끼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해리가 빽 소리쳤다.

"비밀의 방."

론이 대답했다.

"비밀..... 뭐?"

해리가 그들 앞에 다급히 멈춰 서며 물었다.

"모두 다 론의 생각이었어, 론이 했다고!"

헤르미온느가 숨 가쁘게 말했다.

"너무 멋지지 않니? 네가 떠나고 우리 둘이 남았을 때 말이야. 내가 론한테 말했어, 설령 우리가 또 다른 호크룩스를 찾는다 해도, 그걸 어떻게 없애지? 우리는 아직 이 잔도 제거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바로 그때 론이 그 생각을 해낸 거야! 바실리스크!"

"뭐?"

"호크룩스를 없앨 수 있는 것 말이야"

론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야 죽은 바실리스크의 해골에서 뿐아 온 커다랗고 휘어진 송곳니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거기엔 어떻게 들어간거야?"

해리는 송곳니들과 론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파센통그를 해야 하잖아!"

"론이 했어!"

헤르미온느가 낮게 말했다.

"보여 줘, 론!"

론이 목이 졸린 듯이 무시무시하게 쑥쑥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건 로켓을 열 때 네가 낸 소리야."

그는 해리에게 변명하듯 말했다.

"그걸 제대로 해내기까지 연습을 몇 번이나 해야만 했어. 그래도 결국 우린 거기에 들어갔지."

그가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아주 끝내 줬다니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정말 대단했어!"

"그래서....."

해리는 이야기를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호크룩스를 또 하나 없앴지."

론은 그렇게 말하더니, 외투 속에서 부서진 후풀푸프 잔의 잔해를 꺼냈다.

"헤르미온느가 그걸 찔렀어.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 헤르미온느는 아직 그 기쁨을 못 누려 봤잖아."

"천재적이야!"

해리가 외쳤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론 역시 무척 뿌듯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넌 뭐 새로운 소식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머리 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세 사람 모두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리면서 아득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난 보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냈고, 어디 있는지도 알았어."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그자는 그걸 내가 옛날에 마법약 교과서를 숨겼던 바로 그곳에 숨겨놨어. 수 세기 동안 모두가 물건을 숨겨 온 것이지. 그런데 그 자는 자기가 그곳을 찾아낸 유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야. 어서 가자."

벽이 다시 흔들렸다. 해리는 나머지 두 사람을 이끌고 숨겨진 입구로 들어갔다. 그리고 필요의 방으로 들어가는 총계를 내려간다. 그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여자 세 명만 남아 있었다. 지니, 통스 그리고 좀먹은 모자를 쓴 늙은 마녀였는데, 해리는 그 사람이 네빌의 할머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 포터!"

할머니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서 말해 보렴."

"다들 무사해?"

지니와 통스가 동시에 물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론 그래요."

해리가 대답했다.

"호그스 해드로 가는 통로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있나요?"

해리는 필요의 방 안에 여전히 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곳을 마지막으로 지나왔지."

ロン바텀 부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막아 놓았단다. 애버포스가 술집을 비운 마당에 통로를 열어 놓는 건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내 손주 녀석은 보았니?"

"네빌은 한창 싸우고 있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당연히 그렇겠지."

노부인은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실례하마, 나는 어서 가서 그 애를 도와야겠다."

노부인은 놀랄 만큼 빠른 걸음걸이로 돌계단을 향해 사라져버렸다.

해리는 통스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친정에서 테디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통스는 몹시 걱정스런 표정이었다.

"아이는 어머니가 돌봐 주실 거야..... 그런데 혹시 리무스 봤니?"

"루핀은 싸울 사람들을 이끌고 운동장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통스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쌩하니 가 버렸다.

"지니!"

해리가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이 방을 나가야겠어. 잠깐 동안만 말이야.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도 돼."

지니가 통스를 따라서 신나게 총계를 뛰어 올라가자, 해리는 그녀의 등에 대고 외쳤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만 해!"

"잠깐만 멈춰 봐!"

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들을 깜빡했어!"

"누구?"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집요정들 말이야. 모두 아래층 주방에 있을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너는 집요정들까지 이 싸움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니?"

해리가 물었다.

"아니."

론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내 말은 그들에게 어서 여기서 나가라고 알려 줘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더이상 도비와 같은 죽음을 바라지 않잖아. 안 그래?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죽으라고 명령할 수는 없....."

그때 덜거덕 소리와 함께 헤르미온느의 품에서 바실리스크의 송곳니가 톡 떨어졌다. 헤르미온느는 론을 향해 와락 달려들더니 두 팔로 그의 목을 꼭 끌어안고 그에게 열렬한 입맞춤을 했다. 그러자 론 역시 들고 있던 송곳니와 지팡이를 모두 내던지고, 헤르미온느를 땅에서 번쩍 들어 올리면서 열정적으로 응답했다.

"지금이 그럴 때야?"

해리가 주저하며 물었다. 하지만 론과 헤르미온느가 서로를 더욱더 단단히 껴안으며 제자리에서 비틀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해리는 버럭 언성을 높였다.

"어이! 지금 여기 전쟁 중이거든!"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제야 서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두팔은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나도 알아, 친구"

론이 말했다. 그는 마치 방금 불러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보였다.

"지금이야말로 다시는 없을 기회잖아, 안 그래?"

"그건 됐고, 호크록스는 어떻게 할 거야?"

해리가 소리쳤다.

"보관을 찾을 때까지 너희 두 사람은 그저... 그저 그것만 안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맞아..... 미안...."

론이 대답했다. 그리고 론과 헤르미온느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져서 송곳니를 다시 주워 모았다.

그들 세 사람이 다시 위층 복도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필요의 방에서 몇 분을 보내는 동안에 성안의 상황이 웅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벽과 천장은 전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흔들렸고, 공기 중에는 먼지가 자욱했다. 해리는 가장 가까운 창문 너머로 성의 발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초록색과 빨간색 불빛을 목격하고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 머잖아 이곳으로 들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밑을 내려다보니, 거인 그룹이 지붕에서 떨어져 나간 이루기 석상처럼 보이는 것을 마구 휘드르며, 골이 나서 으르렁대며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룹이 몇 놈 밟고 지나가 줬으면 좋겠네!"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자 론이 말했다.

"그게 우리편만 아니라면 말이지!"

웬 목소리가 외쳤다. 해리가 뒤를 돌아보니, 지니와 통스가 유리창이 부서져 나간, 바로 다음 창문 앞에서 나란히 지팡이를 뽑아 들고 서 있었다. 심지어 그가 보는 와중에도, 지니는 밑에 있는 전사들의 무리 속으로 정확히 주문을 쏘았다.

"잘했다!"

누군가가 먼지 속을 뚫고 그들 쪽으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해리는 다시 애버포스를 발견했다. 그는 회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소규모의 학생들을 이끌고 지나갔다.

"그놈들이 북쪽 흉벽을 뚫고 들어올 모양이야. 자기네 편 거인들을 데리고 왔어!"

"혹시 리무스를 보셨어요?"

통스가 그를 쫓아가며 외쳤다.

“돌로호브와 결투를 하고 있었어.”

애버포스가 소리쳤다.

“그 후론 못 봤네.”

“통스!”

지니가 말했다.

“통스, 분명히 그는 무사할 거예요.”

하지만 통스는 애버포스를 쫓아서 먼지 속으로 달려갔다.

지니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괜찮을 거야.”

해리는 공허한 말이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지니, 우리는 잠시 후에 돌아올 거야, 무조건 피해, 무사해야 해... 가자!”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그들은 쭉 뻗어 있는 벽 너머에서 다음 입장자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필요의 방으로 다시 달려갔다.

나는 무엇이든 감추어 놓을 수 있는 방이 필요하다. 해리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벽 앞을 세번 왔다 갔다 하자, 문이 나타났다.

문턱을 넘어 등 뒤로 문을 닫는 순간, 모든 전투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방이 고요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보이는, 거의 대성당 크기만 한 방에 들어와 있었다. 오래전에 떠나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숨겨 놓은 물건들이 우뚝 솟은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자는 누군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야?”

론이 물었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해리가 대답했다.

“나 역시 이런 식으로 물건을 숨겨야만 했었던 게 그자에겐 참으로 안된 일이지.”

그가 덧붙였다.

“이 아래쪽이었던 것 같아....”

해리는 박제한 트롤과 작년에 드레이코 말포이가 고쳐 놓아 그토록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사라지는 캐비닛을 지나갔다.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로 이루어진 통로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잠시 주저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씨오, 보관!”

헤르미온느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그들 쪽으로 날아오지 않았다.

이 방은 그린고트의 금고처럼 그 안에 숨겨진 물건들을 쉽게 내놓지 않을 모양이었다.

“각각 훑어지자.”

해리가 나머지 두 사람에게 말했다.

“가발과 왕관을 쓴 노인의 돌 흉상을 찾아! 그건 수납장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확실히 이 근처 어딘가에 있어....”

그들은 재빨리 주위의 통로들을 따라 달려갔다. 병과 모자, 나무 상자, 의자, 책, 무기, 빗자루, 박쥐 등 온갖 잡동사니 더미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다른 두 사람의 발소리를 해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근처 어디야....”

해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 어딘가....어딘가....”

해리는 지난번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보았던 물건들을 찾으며, 미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의 숨소리가 자신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의 영혼까지도 파르르 떨고 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바로 앞에, 그가 옛날 마법학교교서를 숨겨 놓았던, 표면이 우둘투둘한 낡은 수납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여기저기 흉집이 난 마법사의 돌 흉상이 있었다. 그것은 먼지가 뿐만 아니라 오래된 가발과 아주 오래되어 녹슨 왕관처럼 보이는 것을 쓰고 있었다.

아직 3 미터 남짓 거리가 남아 있었지만, 해리는 벌써부터 손을 내뻗고 있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어디 한번 잡아 보시지, 포터.”

해리는 얼른 행동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크레이브와 고일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지팡이를 해리에게 겨눈채 서 있었다. 싱글싱글 비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사이로 드레이코 말포이의 얼굴이 보였다.

“네가 들고 있는 건 내 지팡이야, 포터.”

말포이가 크레이브와 고일 사이로 지팡이를 겨누며 말했다.

“이제는 아니야.”

해리는 산사나무 지팡이를 더욱더 꽉 움켜쥐며 숨 가쁘게 말했다.

“이긴 사람이 주인이지, 말포이. 그런데 누가 너한테 지팡이를 빌려줬지?”

“우리 엄마.”

드레이코가 말했다.

전혀 우스울 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큰 소리로 웃어 댔다. 더 이상 론과 헤르미온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보관을 찾아서, 소리가 달지 않는 곳까지 멀리 가 버린 듯 했다.

“그런데 너희 세 사람은 어째서 볼드모트와 함께 있지 않은 거지?”

해리가 물었다.

“우린 상을 받을 거야.”

크레이브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토록 커다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깜짝 놀랄 만큼 나긋나긋했다. 해리는 지금까지 그가 말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크레이브는 커다란 사탕 한 봉지를 약속받은 어린아이처럼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었다.

“우리는 돌아왔어, 포터. 가지 않기로 했지. 너를 그분께 데리고 가기로 한거야.”

“거참 훌륭한 계획이구나.”

해리는 잔뜩 비꼬는 어조로 칭찬을 해 주었다. 이렇게 막판에 와서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에게 훼방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치면서 호크룩스가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흉상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싸움이 터지기 전에 저걸 잡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넌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지?”

해리는 그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물었다.

“난 작년에 숨겨진 물건들의 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

말포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들어오는 법을 잘 알지.”

“우린 바깥 복도에 숨어 있었어.”

고일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우린 이제 투.....투영마법을 할 수 있다고!”

고일은 아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보....보간을 찾을 거라고 말하더라! 근데 보간이 뭐지?”

“해리?”

해리의 오른쪽에 있는 벽 너머에서 갑자기 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휙 하고 채찍을 내려치는 듯한 동작과 함께, 크레이브는 지팡이로 온갖 고가구와 부서진 트렁크, 낡은 책들과 옷, 그리고 정체불명의 잡동사니들로 이뤄진 15 미터 높이의 산더미를 겨누며 소리쳤다.

“디센도!”

벽이 휙 청하더니, 쌓여 있던 잡동사니 더미의 위쪽 3분의 1 정도가 론이 서 있는 옆 통로로 쏟아져 내렸다.

“론!”

해리가 부르짖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헤르미온느가 비명을 질렀다. 해리는 무너진 벽의 반대편 바닥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 우르르 쾅쾅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벽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고

“피니트!”라고 외쳤다. 그러자 그 벽은 잠잠해졌다.

“안 돼!”

크레이브가 종전과 같은 주문을 되풀이 하려고 하자, 말포이는 그의 팔을 제지했다.

“네가 이 방을 부숴 버리면, 이 보관이 파묻혀 버릴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크레이브가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어둠의 마왕님께서 원하시는 건 포터라고, 보간 따위를 알게 뭐야?”

“포터는 저걸 갖기 위해서 이 방에 들어온 거야.”

말포이가 우둔하기 짝이 없는 동료들에 대한 짜증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그건 분명히’ 뭐라는 거야?”

크레이브가 사나운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말포이를 돌아보았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누가 신경이나 쓴대? 난 더 이상 네 명령을 따르지 않겠어. 드레이코, 너나 너희 아빤 이미 끝장났다고.”

“해리?”

잡동사니 벽 반대편에서 론이 다시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해리?”

크레이브가 그 목소리를 흉내냈다.

“무슨 일이야?...안 돼 포터! 크루시오!”

해리는 왕관을 향해 돌진했다. 크레이브의 저주는 그를 비껴가 대신 돌 흉상에 맞았다. 흉상은 공중으로 날아갔다. 보관은 위로 봉 떠올랐다가, 흉상이 떨어진 잡동사니 더미 속으로 떨어지더니 모습을 감추었다.

“멈춰!”

말포이가 크레이브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방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어둠의 마왕님께서는 그를 산 채로 잡기를 원하셔....”

“그래? 그를 죽이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크레이브는 자신을 뜯어말리는 말포이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할 테야. 어둠의 마왕님께서는 하여간 저 녀석이 죽길 바라잖아, 뭐가 달라?”

빨간 광선이 발사되더니, 해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이때 헤르미온느가 그의 등 뒤에 있는 모퉁이를 돌아서 달려왔다. 그리고 크레이브의 머리를 향해서 기절마법을 날렸다. 하지만 말포이가 그를 끌어내는 바람에 그만 빗나가고 말았다.

“바로 그 잡종이다! 아바다 케다브라!”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옆으로 몸을 날리는 것을 보았다. 순간 크레이브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으면서,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에서 다른 모든 생각들이 썩 사라져 버렸다. 해리는 크레이브에게 기절 마법을 쏘았다.

하지만 크레이브는 재빨리 한쪽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그러면서 말포이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탁 쳤다. 그의 지팡이는 부서진 가구와 상자 더미 아래로 굴러 들어가 버렸다.

“그를 죽이지 마! 그를 죽이지 마!”

말포이가 해리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고 있는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들이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해리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엑스펠리아르무스!”

고일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서 쑥 빠져 날아가더니 옆에 잔뜩 쌓여 있던 물건 더미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고일은 지팡이를 되찾으려고 바보처럼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한편 말포이는 헤르미온느의 두 번째 기절 마법을 맞고 퉁겨 나갔다. 그때 갑자기 통로 끝에서 나타난 론이 크레이브에게 강력한 동작 그만 주문을 쏘았지만, 그것은 아깝게 빗나갔다.

크레이브는 빙그르 몸을 돌리더니 다시 소리쳤다.

“아바다 캐다브라!”

론은 초록색 광선을 피하기 위해 펄쩍 몸을 날려 사라졌다. 이제 지팡이가 없는 말포이는 다리가 세 개뿐인 옷장 뒤에 움츠리고 있었다. 한편 헤르미온느는 고일에게 기절 마법을 쏘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게 이 주위 어딘가에 있어!”

해리가 낡은 왕관이 떨어진 잡동사니 더미를 가리키며, 헤르미온느에게 소리쳤다.

“내가 론을 도우러 가는 동안, 그걸 찾....”

“해리!”

그녀가 빽 소리쳤다.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해리는 순간적으로 바싹 긴장했다. 재빨리 고개를 돌려 보니, 론과 크레이브가 전속력으로 그들을 향해 통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다.

“뜨거우니까 좋지, 이 자식아?”

크레이브가 달리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갖지 못하는 듯 했다. 어마어마한 불꽃이 양쪽에 쌓인 잡동사니 벽을 활터으며,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잡동사니 더미는 불길에 달자마자, 새까만 솟덩이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아구아멘티!”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지팡이에서 뿜어나온 물줄기는 허공에서 그대로 증발해 버렸다.

“도망쳐!”

말포이는 기절 마법을 맞은 고일을 불잡아 질질 끌고 갔다.

크레이브가 그들 중 제일 앞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완전히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크레이브의 뒤를 쫓아갔고, 불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보통 불이 아니었다. 크레이브는 해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주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들이 모퉁이를 돌았을 때, 화염은 마치 살아서 감각을 느끼며 그들을 죽이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끈질기게 쫓아왔다. 이제 불길은 계속 모습을 바꾸면서, 불타오르는 짐승들의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다. 활활 타오르는 뱀, 키메라, 용들이 불길 속에서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곤 했다. 그 짐승들은 수 세기 동안 쌓인 잡동사니 더미를 먹어치우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발로 잡동사니들을 허공에 높이 퉁겨 올린 다음 송곳니가 난 입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러면 잡동사니들은 순식간에 지옥불 같은 화염에 훔싸여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불타오르는 괴물들이 그들을 둥글게 에워싼 채, 발톱과 뿔과 꼬리를 휘두르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뜨거운 열기는 그들을 둘러싼 벽만큼이나 완강했다.

“우리 이제 어떡해?”

헤르미온느가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요란한 불길의 포효속에서 소리쳤다.

“어떡하지?”

“여기!”

해리는 바로 옆에 있는 잡동사니 더미로부터 둑직해 보이는 빗자루 한쌍을 낚아채 하나를 론에게 던져 주었다. 론은 헤르미온느를 끌어당겨 자기 뒤에 태웠다. 또 다른 빗자루 위로 올라탄 해리는 힘차게 땅을 박찼고, 그들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들을 향해 덤석 물듯이 달려들던 활활 타오르는 맹금의 구부러진 부리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연기와 뜨거운 열기는 점점 더 맹렬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발아래에서 저주의 불길은 추적에 쫓기던 학생들이 몇 대째 감추어 놓은 금지된 물건들과 금지된 실험의 떳떳하지 못한 술한

결과물들, 그리고 이 방에서 은신처를 구했던 무수한 영혼들의 비밀들을 태워 없애고 있었다. 해리는 그 어디에서도 말포이나 크레이브, 고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을 찾기 위해 약탈을 자행하고 있는 불꽃 괴물들의 위로 가능한 한 낮게 날았다. 하지만 불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가.....결코 이런 일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해리, 나가자! 나가자고!”

론이 소리쳤다. 하지만 시커먼 연기 때문에 문이 어디 있는지 찾기란 불가능했다.

바로 그때 해리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불길의 천둥같은 굉음과 끔찍한 소란의 한가운데에서 희미하고 가련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너무 위험해.....!”

론이 소리쳤지만, 해리는 다시 빙 돌아 날아갔다. 그의 안경이 약간이나마 연기를 막아주었다.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의 신호를 찾아서, 아직 숯덩이처럼 까맣게 타지 않은 팔다리 한쪽이나 혹은 얼굴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불길을 헤치고 아래로 내려갔다.

마침내 그는 보았다. 말포이가 의식을 잃은 고일을 팔로 감싸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새카맣게 탄 책상들의 탑 위에 앉아있었다. 해리는 재빨리 뛰어들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말포이가 한쪽 팔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의 팔을 붙든 순간, 해리는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일은 너무 뜨거웠고 말포이의 손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엇기 때문에 바로 해리의 손에서 미끄러져 버렸던 것이다.

“이러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죽기라도 하면, 넌 내손에 죽었어, 해리!”

론이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이글이글 불타는 거대한 키메라가 그들을 덮쳤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고일을 그들의 빗자루에 끌어올린 다음, 빙글빙글 돌고 흔들거리며 또다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한편 말포이는 해리의 뒤로 기어올랐다.

“문, 문으로 가, 문!”

해리의 귀에 대고 말포이가 소리쳤다. 해리는 소용돌이치는 검은 연기를 뚫고 론과 헤르미온느, 고일의 뒤를 쫓아서 빠르게 날아갔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게걸스러운 불길에 아직까지 타지 않고 남은 물건들이 그들 주위를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저주받은 불의 짐승들은 환호하듯 그것들을 높이 던져 올렸다. 검과 방패, 반짝이는 목걸이, 낡고 녹슨 왕관....

“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문은 저쪽이야!”

말포이가 마구 악을 썻지만, 해리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반짝거리는 보관이 쪽 벌린 뱀의 아가리 속으로 빙글빙글 맴을 돌며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해리는 그것을 손목에 걸어 낚아챘다.

뱀이 그를 향해 돌진해 오자, 해리는 다시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위쪽으로 곧장, 부디 문이 열려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곳을 향해 솟아올랐다. 론과 헤르미온느와 고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말포이는 비명을 지르며, 아플 만큼 세게 해리를 껴안고 있었다. 그때 해리는 자욱한 연기 너머로 벽에 난 직사각형 모양의 문을 보았고, 그것을 향해 빗자루에 박차를 가했다. 잠시 후 많은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복도 건너편 벽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빗자루에서 굴러 떨어진 말포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헐떡거리며 기침을 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해리는 나동그라졌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 순식간에 필요의 방의 문이 사라졌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고일 옆에 앉아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고일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크.....크레이브...”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말포이가 켕켁거리며 말했다.

“크.....크레이브.....”

“그는 죽었어.”

론이 냉정하게 말했다.

침묵이 흘렀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헐떡이는 숨소리와 기침소리뿐이었다. 그때 수없이 많은 광음들이 연달아 성을 뒤흔들었고, 투명한 형상들로 이뤄진 거대한 기마 부대가 말을 타고 달려갔다. 그들의 머리는 갑옷 아래에서 피를 부르며 악을 쓰고 있었다. 목이 없는 사냥꾼들이 지나가고 나자, 해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투는 아직도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해리는 후퇴하는 유령들의 비명소리보다 더 많은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활개를 쳤다.

“지니는 어디 있지?”

해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니는 여기 있었어. 이제 다시 필요의 방에 들어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젠장, 넌 지금 저 불을 보고도 그 방이 여전히 작동할 것 같니?”

론이 물었다. 하지만 론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슴을 문지르며 좌우를 둘러보았다.

“우리 흘어져서 찾아볼...?”

“아니야.”

헤르미온느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하지만 말포이와 고일은 여전히 복도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함께 불어 있자. 내 말은 함께 가자는 거야. 그런데 해리. 네 팔에 그거 뭐니?”

“뭐? 오 이거....”

그는 보관을 손목에서 빼냈다.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렸다. 보관은 여전히 뜨거웠고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가까이 들여다 보자, 그 위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헤아릴수 없이 깊은 지혜는 인간의 가장 큰 보물이다.

바로 그때, 타르 섞인 검은색 피처럼 보이는 물질이 보관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순간 해리는 보관이 사납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곧이어 그것은 그의 손안에서 부서져 버렸다. 그와 동시에 해리는 아주 어렵잖하게 희미한 고통의 비명 소리가 운동장이나 성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손안에서 방금 부서져 버린 물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들은 듯 했다.

“그건 틀림없이 악마의 화염 이엇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부서져 버린 보관들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신음 하듯이 말했다.

“뭐라고?”

“악마의 화염, 저주받은 불이지. 그건 호크룩스를 파괴할 수 있는 물질 가운데 하나야. 그렇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감히 그걸 사용할 엄두를 못냈어. 그건 너무 위험하거든. 도대체 크레이브가 그걸 사용하는 법을 어떻게....?”

“캐로우 남매에게 배운 게 분명해.”

해리가 침울하게 말했다.

“그 불길을 멈추는 법을 가르쳐 줄 때, 그 녀석이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정말 유감이로군.”

론이 대답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헤르미온느의 것과 마찬가지로 온통 그을려 있었고, 얼굴은 새카맸다.

“그 녀석이 우리 모두를 죽이려 들지만 않았어도, 난 그가 죽은게 무척 슬펐을 거야.”

“하지만 넌 아직 모르겠니?”

헤르미온느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우리가 그 뱀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느닷없이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 그리고 틀림없는 결투의 소음이 복도를 가득 채우는 바람에, 헤르미온느는 말을 멈추고 말았다. 주위를 둘러본 해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호그와트 안으로 침입한 것이다. 그제야 프레드와 퍼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모두 가면과 두건을 쓴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그들을 돋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발사된 광선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퍼시와 한창 결투를 벌이고 있던 사람이 잽싸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그의 두건이 훌러내렸고, 그들은 불룩 튀어나온 이마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퍼시가 곧장 씨크니스를 향해 주문을 날리면서 외쳤다. 씨크니스는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몹시 불편한 듯이 망토의 앞자락을 움켜쥐었다.

“제가 사표를 냈다는 말씀을 드렸던가요?”

“농담을 다하네, 퍼스!”

결투를 하고 있던 죽음을 먹는 자가 각기 날아온 세 방의 기절 마법을 뜯이기고 쓰러지자, 프레드가 외쳤다. 한편 씨크니스는 온몸에 작은 가시들이 돌아난 채 바닥에 쓰러졌다. 마치 성게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다.

프레드가 씩 웃으며 퍼시를 바라보았다.

“형이 정말로 농담을 다 하다니.....퍼스.....도대체 마지막으로 형이 농담하는 걸 들어 본게.....”

바로 그 때 광하고 폭발이 일어났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프레드, 그리고 퍼시는 다 함께 한곳에 몰려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는 기절한 죽음을 먹는 자 한 명과, 성게로 변신한 다른 한명이 쓰러져 있었다. 그 짧은 순간에, 위험이 일시적으로 멀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산산조각나고 만 것이다. 해리는 자신의 몸이 공중으로 뿜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를 가능한 한 꼭 움켜쥐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는 것 뿐이었다. 그는 동료들의 비명 소리와 고향을 들었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이윽고 고통과 어슴푸레한 어둠에 싸인 채,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 해리는 방금 전에 끔찍한 공격을 당한 복도의 잔해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걸 보니, 성의 측면이 폭파된 모양이었다. 뺨에 느껴지는 뜨겁고 끈적거리는 느낌은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바로 그때 해리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소름 끼치는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것은 그 어떤 불길이나 저주로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처절한 고뇌의 울부짖음이었다. 해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겁이 났다..... 아마 평생 이보다 더 두려운 적이 없었을 것이다....

헤르미온느는 폐허 더미 속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세 명의 빨간 머리들이 벽이 폭발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은 휙청거리면서 부서진 돌과 나무 더미를 넘어갔다.

“안 돼.....안 돼.....안 돼!”

누군가 소리쳤다.

“안 돼! 프레드! 안 돼!”

퍼시가 동생을 잡아 흔들고 있었다. 론은 그들 옆에 텔석 무릎을 끊고 앉았다. 그리고 프레드의 두 눈은 명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웃음의 흔적이 여전히 새겨져 있었다.

### 제 32 장 딱총나무 지팡이

세상이 끝났다. 그런데 왜 전투는 멈추지 않는 걸까? 어째서 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며 침묵하지 않고, 싸우던 사람들도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걸까? 해리의 머릿속이 걷잡을 수 없이 뱅글뱅글 맴돌면서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사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프레드 위즐리가 죽다니,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 그의 모든 감각들이 전해 주는 증거는 거짓임에 틀림없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폭발로 인해서 뚫린 구멍을 통해 학교 건물 안으로 뛰어 내려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저주가 날아오더니 그들의 머리 뒤쪽 벽에 맞았다.

“죽여!”

해리가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더 많은 저주들이 날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와 론은 양쪽에서 헤르미온느를 불잡고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퍼시는 프레드의 시신 위에 엎드린 채 시신이 훼손되는 걸 막고 있었다. 해리가  
“퍼시 형, 어서요. 그만 이동해야 해요!” 하고 외쳤지만, 퍼시는 고개를  
저었다.

“퍼시 형!”

론이 형의 어깨를 움켜쥐고 잡아끌었다. 해리는 먼지로 까맣게 뒤덮인 론의  
얼굴에 눈을 자국이 하얗게 생겨난 것을 보았다. 하지만 퍼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퍼시 형. 이제 형이 그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가야만.....”

이때 헤르미온느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흙 몸을 돌린 해리는 그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었다. 소형 자동차만큼이나 거대한 괴물 거미가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서 기어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아라고그의 후손 중 한 마리가 이  
싸움에 끼어든 것이다.

론과 해리는 동시에 주문을 외쳤다. 두 사람의 주문이 부딪혔고, 괴물은  
꼼짝하게 다리를 꿈틀거리며 뒤로 벌렁 나가떨어졌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놈이 친구들을 데려왔어!”

해리가 저주에 맞아 폭파된 벽의 구멍 너머로 성의 가장자리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더 많은 거대한 거미들이 금지된  
숲에서 풀려나와 성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금지된 숲 속  
까지 침투한 것이 틀림없었다. 해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절마법을 쏘았다.  
무리를 이끌던 괴물이 주문에 맞아서 동료들 속으로 굴러 떨어지자, 거미들은  
일제히 다시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모습을 감추었다. 곧이어 더 많은 주문들이  
해리의 머리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찌나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는지, 해리는  
주문의 위력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서 가자. 지금이야!”

론과 함께 헤르미온느를 먼저 떠밀어 보낸 후에, 해리는 몸을 숙여서 프레드의  
시신을 옆구리에 꺾다. 퍼시도 해리가 월 하려는지 알아채고, 시신을 꼭  
끌어안고 있던 손을 풀고서 그를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운동장에서 날아오는  
저주들을 피하기 위해 낮게 몸을 숙인 채, 프레드를 함께 끌고 갔다.

“이쪽으로.”

해리가 말했다. 그들은 이전에 갑옷이 서 있던 자리에 프레드의 시신을  
내려놓았다. 해리는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단 1초도 프레드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시신이 안전하게 감추어졌음을 확인한 후에는 곧장 론과  
헤르미온느의 뒤를 쫓아갔다. 말포이와 고일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이제  
먼지와 부서진 돌 조각들, 그리고 창문에서 떨어진 유리 조각이 수북이 쌓인  
복도 저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해리는  
그들이 적군이지 아군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갑자기  
퍼시가 성난 황소처럼 포효했다.

“록우드!”

그러고는 학생 두 명을 한창 쫓고 있던 키 큰 남자를 향해서 돌진했다.

“해리, 여기야!”

그때 헤르미온느가 부르짖었다.

그녀는 벽걸이 양탄자 뒤에서 론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둘이서  
레슬링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해리는 아주 잠깐 동안 두 사람이 다시  
포옹을 하고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퍼시를 뒤쫓아  
뛰쳐나가려는 론을 헤르미온느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 말 좀 들어 봐..... 들어 보라고, 론!”

“난 도와주고 싶어. 죽음을 먹는 자들을 죽이고 싶단 말이야.....”

연기와 먼지로 새까매진 론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애통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다.

“론, 이 일은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뿐이야! 제발, 론..... 우린  
그 뱀이 필요해. 우린 그 뱀을 죽여야 한다고!”

헤르미온느가 타일렸다.

하지만 해리는 론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또 다른 호크룩스를 쫓는 일만으로는 타오르는 복수심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해리 역시 프레드를 죽인 놈들과 싸우고 싶었고, 응징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른 위즐리 가족들을 찾아보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지니가 무사한지, 그걸 꼭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해리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조차 허용할 수가 없었다.

“우린 싸울 거야!”

헤르미온느가 말을 이었다.

“반드시 그럴 거라고. 그 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와서 잊으면 안돼!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헤르미온느 역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깨맣게 그을리고 너덜너덜해진 소맷자락으로 얼굴을 훔쳤다. 하지만 곧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여전히 론을 꼭 붙잡은 채 해리를 돌아보았다.

“너는 볼드모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자는 그 뱀을 자기 곁에 두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안 그래? 그걸 해 봐, 해리..... 그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라고!”

어째서 그 일이 이토록 쉬운 것일까? 몇 시간째 계속 흉터가 화끈거리며, 볼드모트의 생각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기 때문일까? 해리는 그녀의 명령에 따라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당장, 비명 소리와 폭음, 그리고 싸움터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득히 멀어졌다. 마치 그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몹시 황량하지만, 이상하게 낯익은 어느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이란 창문은, 단 한 곳만 빼놓고 죄다 나무판자로 막혀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성을 공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막히지 않은 유일한 창문 너머로, 멀리 성이 있는 쪽에서 평평 터지는 불빛들이 보였다. 하지만 방 안은 오직 외로운 등잔 하나만이 있을 뿐, 온통 캄캄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손가락 사이로 그것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성안에 있는 그 방에 가 있었다. 오직 자신만이 발견한 그 감추어진 방, 마치 비밀의 방을 찾을 때처럼 그 방을 찾으려면 아주 영리하고 재간있고 호기심이 많아야만 했다. 그는 해리가 그 보관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비록 덤블도어의 꼭두각시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기는 했지만..... 사실 지나치게 너무 멀리.....

“주인님.”

절망에 찬, 순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몸을 돌렸다. 제일 어두컴컴한 한쪽 구석에 루시우스 말포이가 앉아 있었다. 기진맥진한 그의 모습에는 지난번 해리를 놀친 이후로 그가 받은 징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한쪽 눈은 통통 부어서 뜰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주인님.....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아들을.....”

“네 아들이 죽는다 해도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루시우스. 그는 다른 슬리데린 학생들처럼 이리 와서 나와 합세하지 않았다. 혹시 해리 포터와 친구가 되기로 결심한 건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말포이가 속삭였다.

“물론 아니길 바라야겠지.”

“혹시..... 혹시 염려되지는 않으십니까, 주인님? 포터가 주인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 죽게 될지도.....”

말포이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전투를 중지시키시고. 모..... 몸소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찾아보시는 편이 더 신중한 처사가 아닐까요?”

“루시우스, 괜한 핑계 대지 마라. 너는 이 전투를 중지시켜서 네 아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보고 싶은 게지. 난 굳이 포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밤이 새기전에 포터는 나를 찾아올 것이다.”

볼드모트는 또다시 손에 든 지팡이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이것이 말썽이었다. 그리고 볼드모트 경을 골치아프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다시 손을 봄야만 했다.

“가서 스네이프를 데려와라.”

“스네이프 말입니까? 주인님?”

“스네이프, 당장 그가 필요하다. 내가 그에게 시킬 일이 있다, 가라”

잔뜩 겁에 질린 루시우스는 어둠 속에서 약간 비틀거리며 그 방을 떠났다.

볼드모트는 손가락 사이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지팡이를 응시한 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길밖에 없다. 내기니.”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이제 허공에 둉둥 떠 있는 굵고 거대한 뱀은 볼드모트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 준 마법의 보호 공간 안에서 우아하게 몸을 꼬고 있었다. 별처럼 빛나고 투명한 공 모양의 그 공간은 광채나는 동물 우리와 수족관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았다.

해리는 혁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주춤 물러서면서 눈을 번쩍 떴다. 동시에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 광하고 부딪히고 부서지는 전투의 소음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집에 있어. 그 뱀도 함께 있는데, 일종의 마법 보호막에 감싸여 있어. 그가 방금 루시우스 말포이를 보내서 스네이프를 불러 오라고 했어.”

“볼드모트가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집에 앓아 있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발끈해서 말했다.

“그자는…… 그자는 심지어 싸우고 있지도 않단 말이야?”

“그는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해리가 대답했다.

“내가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어째서?”

“내가 호크룩스를 쫓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있으니까. 그는 내기니를 계속 자기 옆에 두고 있잖아. 결국 그 뱀에게 접근하려면, 내가 그자를 찾아가야만 하는 거지.”

“맞아.”

론이 어깨를 짹 피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가면 안 돼. 그게 그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일이잖아. 넌 여기 남아서 헤르미온느를 돌봐 줘. 내가 가서 그걸……”

해리가 론을 가로막았다.

“너희 둘이 여기 남아 있어. 내가 투명 망토를 쓰고 갔다가 최대한 빨리 돌아올께.”

“안 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내가 망토를 쓰고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합당한……”

“그런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마.”

론이 헤르미온느를 윽박질렀다.

“론, 나는 할 수……”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들이 서 있던 계단 꼭대기의 벽걸이 양탄자가 짹 갈라지면서 활짝 열렸다.

“포터!”

가면을 쓴 죽음을 먹는 자 두 명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팡이를 완전히 치켜들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글리세오!”

그러자 그들 발밑에 있던 계단들이 쪽 퍼지면서 미끄럼틀이 되었다.

헤르미온느와 해리, 그리고 론은 밑으로 몸을 던졌다. 미끄러지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죽음을 먹는 자들의 기절 마법이 그들 머리위로 한참 빛나가

버렸다. 그들은 계단 밑에 있는 비밀 출입구를 감추고 있던 양탄자를 뚫고 나갔다. 그리고 복도를 데구루루 굴러서 맞은편 벽에 부딪혔다.

“듀로!”

헤르미온느가 양탄자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고 소리쳤다. 그러자 양탄자가 단단한 돌로 변하면서 원가 세계 부딪히는 기분 나쁜 소리가 두 번 들렸다. 그들을 쫓아오던 죽음을 먹는 자들이 돌로 변한 양탄자와 충돌한 것이다.

“물러서!”

론이 고함을 질렀다. 론과 해리,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어느문에 바싹 등을 붙이고 섰다. 경중경중 뛰는 한 떼의 책상들이 천둥처럼 요란하게 그들 앞을 지나갔고, 뒤이어 맥고나걸이 양치기처럼 그것들을 몰면서 정신없이 달려갔다. 맥고나걸은 그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구 흘러내렸고, 뺨에는 깊이 베인 상처가 나 있었다. 맥고나걸이 모퉁이를 돌아갈 때, 그들의 귀에 그녀의 외침이 들려왔다.

“돌격하라!”

“해리, 너는 어서 투명 망토를 입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하지만 해리는 세 사람 모두의 머리 위로 투명 망토를 씌웠다. 비록 망토에 비해 그들의 덩치가 너무 크긴 했지만, 뿐연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돌 조각이 비처럼 쏟아지고 사방에서 주문들이 번쩍번쩍 터지는 이런 와중에, 밑으로 드러난 그들의 발을 발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서둘러 다음 계단을 달려내려갔다. 복도는 한창 맞불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들의 양편 벽에 걸린 초상화들 속에서는 초상화의 인물들이 빽빽이 모여서 저마다 조언과 격려의 말을 던지느라 난리였다. 한편 죽음을 먹는 자들은 가면을 쓴 자나 쓰지 않은 자나 할 것 없이, 학생들과 교사들과 결투를 벌이고 있었다. 딘은 지팡이를 하나 차지한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돌로호브와, 패르바티는 트래버스와 일대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도 당장 각자의 지팡이를 치켜들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사방에서 뒤엉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쏘았다는 우리 편 중 한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결국 세 사람이 서로 딱 붙어 서서 행동할 기회만 노리고 있을때,

“우우우우우!” 하고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해리가 고개를 쳐들자. 그들의 머리위를 승하고 날아가는 피브스가 보였다. 피브스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스네어갈러프 씨주머니를 투하했다. 그러자 갑자기 통통하게 살찐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초록색 씨앗들이 그들의 머리를 꿀꺽 삼켜 버렸다.

“이크!”

한 줌의 씨앗들이 론의 머리를 덮고 있던 투명 망토위에 떨어졌다. 그 끈적이는 초록색 씨앗들은 한동안 거짓말처럼 허공에 둉뚱 떠 있었다. 론은 필사적으로 그것들을 떼어 버리려고 했다.

“저기 눈에 안보이는 누군가가 있다!”

가면을 쓴 죽음을 먹는자 한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딘은 그 죽음을 먹는자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를 놓치지 않고, 기절 마법으로 그자를 쓰러뜨렸다. 돌로호브는 보복하려고 했지만, 패르바티가 그에게 동작 그만 주문을 날렸다.

“그만 가자!”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투명 망토를 바싹 여미고 머리를 낮게 숙인채, 싸우는 사람들 사이를 돌진했다. 도중에 스네어갈러프 즙이 고인 웅덩이에 살짝 미끄러질 뻔했지만, 어쨌든 현관 복도로 가는 대리석 계단 꼭대기로 향했다.

“난 드레이코 말포이에요! 드레이코라고요! 난 당신들 편이라니까요!”

드레이코가 층계참위에서 가면을 쓴 죽음을 먹는 자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 옆을 지날 때, 해리가 죽음을 먹는 자에게 기절 마법을 쏘았다. 말포이는 자신의 구원자를 향해 활짝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론이

투명 망토 아래로 그에게 주먹을 한 방 날렸다. 말포이는 먼저 쓰러진 죽음을 먹는 자 위로 벌렁 자빠졌다. 그의 입술에는 피가 흘렀고, 그는 어안이벙벙한 표정이었다.

“오늘 밤 우리가 두 번째로 네 목숨을 구해 준 거야, 이 박쥐같은 녀석아.”  
론이 욕설을 퍼부었다.

계단과 현관 복도에는 싸우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해리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있었다. 악슬리는 현관문에 바싹 붙어서 플리트윅과 싸우고 있었으며, 바로 그들의 오른편에서는 가면을 쓴 죽음을 먹는 자 한 명이 킹슬리와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학생들은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몇 명은 부상당한 친구들을 들거나 끌고 가고 있었다. 해리는 가면을 쓴 죽음을 먹는 자를 향해서 기절 마법을 쏘았다. 하지만 빗나가는 바람에 하마터면 네빌에게 맞을 뻔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네빌은 베네무스 텐타큘라를 한 아름 안고 휘두르고 있었는데, 텐타큘라는 신이 나서 제일 가까이 있던 죽음을 먹는 자를 덥석 붙잡더니 꽁꽁 휘감기 시작했다.

해리와 룬,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대리석 계단을 전속력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때 그들의 왼편에서 기숙사의 점수를 기록하던 슬리데린의 모래시계가 박살이 나더니 에메랄드 알이 쏟아져 나와 사방으로 굴러갔다. 그 때문에 달려가던 사람들은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렸다. 그들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위쪽 발코니에서 두 명이 굴러 떨어졌다. 뒤이어 해리가 언뜻 보기에 네발달린 짐승 같은 회색 웅치가 현관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오더니, 발코니에서 떨어진 사람 중 한 명을 덥석 물려고 했다.

“안 돼!”

헤르미온느가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그녀의 지팡이세 쾅하고 귀를 먹먹하게 하는 굉음이 터졌고, 펜리 그레이백이 힘없이 움직이고 있는 라벤더 브라운의 몸에서부터 흑 뒤로 나가떨어졌다. 늑대인간은 대리석 난간에 부딪히더니 비틀거리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때 눈부신 하얀 섬광과 함께, 딱 소리가 나면서 수정 구슬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쿵 떨어졌다. 늑대인간은 바닥에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도 더 있다!”

난간 위에서 트릴로니가 빽 소리를 질렀다.

“원하는 놈은 누구든, 얼마든지 더 주마! 여기……”

트릴로니는 마치 테니스에서 서브를 날리는 듯한 동작으로, 가방에서 커다란 수정 구슬을 깨내어 허공에 대고 지팡이를 휘둘렀다. 수정 구슬은 빠르게 현관 복도를 가로질러 날아가 유리창을 박살 냈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나무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더 많은 괴물 거미들이 현관 복도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공포에 찬 비명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호그와트 사람이든 죽음을 먹는 자든 할 것 없이, 싸우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괴물들의 한가운데를 향해서 초록색과 붉은색의 불꽃들이 쏟아졌다. 거미들은 부르르 몸을 떨더니 뒷다리로 번쩍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모습이 전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론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해리나 헤르미온느, 둘 다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해그리드가 분홍색 꽃무늬 우산을 마구 휘두르며 요란하게 계단을 내려온 것이다.

“해치지 마! 해치지 마!”

해그리드가 소리를 질렀다.

“해그리드, 안 돼요!”

해리는 다른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투명 망토 밑에서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리고 현관 복도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저주들을 피하기 위해 허리를 잔뜩 숙인 채 달려갔다.

“해그리드, 돌아와요!”

하지만 해그리드가 있는 곳까지 절반도 채 못갔을때, 해리는 결국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았다. 해그리드가 거미들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거미들은 흉측한 떼를 이루며 허둥지둥 종종걸음을 쳤고 맹렬한 저주의 공격을 받으며 후퇴했다. 해그리드는 거미들 한가운데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다.

“해그리드!”

해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적이든 친구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전력을 다해 어두운 운동장으로 현관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다. 거미들은 그들의 먹잇감을 가지고 떼 지어 몰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해그리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해그리드!”

순간 해리는 거미 떼의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팔이 손을 훔드는 것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서둘러 거미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순간, 터무니없이 커다란 발 하나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내려온 그 발은 부들부들 떨며 서 있는 해리 앞에 텁 하고 놓였다. 해리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키가 6미터 정도 되는 거인 한 명이 그의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거인의 머리는 어둠 속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성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불빛에 비친 나무만큼 굵고 털이 무성한 거인의 두 정강이 뿐이었다. 단 한 번의 사납고 유연한 동작으로, 거인은 위층 유리창을 뚫고 거대한 주먹 하나를 쑥 집어넣었다. 그러자 유리조각이 비처럼 해리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해리는 어쩔 수 없이 현관 입구 쪽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다.

“오, 이런.....!”

헤르미온느가 비명을 질렀다. 해리를 겨우 따라잡은 론과 헤르미온느는 이제 위층 창문 너머로 사람들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인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안 돼!”

헤르미온느가 지팡이를 치켜들자, 론이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저놈을 기절시켰다가는 성의 절반이 짓뭉개질 거야.”

“해거?”

그때 그룹이 성의 모퉁이를 돌아서 비틀비틀 다가왔다. 이제야 비로소 해리는 그룹이 얼마나 작은 거인인지를 깨달았다. 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짓뭉개 버리려고 안달을 하던 거대한 괴물은 획 고개를 돌리더니, 으르렁거리며 노호를 내질렀다. 그리고 자기보다 몹집이 작은 동족을 향해 쿵쿵거리며 달려갔다. 돌계단이 진동을 했다. 그룹의 비뚤어진 입이 떡 벌어지면서, 벽돌 절반만 한 노란 이빨이 드러났다. 이윽고 두 거인은 사나운 사자들처럼 서로를 향해 덤벼들었다.

“달려!”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캄캄한 밤은 두 거인이 맞붙어 싸우면서 내는 무시무시한 괴성과 퍽퍽 때리는 소리로 가득찼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향해서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론이 그 뒤를 따라왔다. 해리는 아직도 해그리드를 찾아서 구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가 어찌나 빨리 뛰었는지, 그들이 다시 우뚝 걸음을 멈추었을 때에는 이미 숲에 절반쯤 다가가 있었다.

순간 주위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해리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둠 속에서 어떤 형상들이 나타났다. 새까만 암흑이 응집된 듯한, 소용돌이치는 그 형상들은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숨소리는 쑥쑥거렸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리 옆으로 바싹 붙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들리던 요란한 전투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직 디멘터들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적이 이 밤을 무겁게 짓눌러 왔기 때문이다. 프레드는 죽었다. 해그리드도 분명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어서, 해리!”

아득히 머나먼 곳에서 헤르미온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패트로누스를, 해리, 어서!”

해리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무기력한 절망감이 점점 더 그의 마음속을 채웠다. 그는 아직 모르지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쓰러졌을까. 그는 자신의 영혼이 벌써 육신을 절반쯤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해리, 어서!”

헤르미온느가 다급하게 부르짖었다.

백 명쯤 되는 디멘터들이 그들을 향해 미끄러지듯 전진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연방 숨을 빨아들이며 해리의 절망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했다. 커다란 잔치에 대한 약속이라도 되는 듯.....

해리는 론의 은빛 테리어가 허공으로 튀어나오더니, 희미하게 깜박거리다가 꺼져 버리는 것을 보았다. 헤르미온느의 수달이 공중에서 몸을 비틀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한편 그의 지팡이는 손안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다.

해리는 머잖아 다가올 망각의 순간이 오히려 반가울 지경이었다. 이제 아무런 감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은빛 토키와 멧돼지, 그리고 여우가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의 머리 위를 획 지나갔다. 그것들이 다가가자, 디멘터들은 뒤로 물러섰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들 옆으로 다가와 섰다. 앞으로 쭉 뻗은 그들의 지팡이에서는 계속해서 패트로누스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루나와 어니, 그리고 시무스였다.

“바로 이거야.”

루나가 씩씩하게 말했다. 마치 필요의 방으로 되돌아가서 단순히 D.A 주문 연습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바로 이거야, 해리.....어서, 뭔가 행복한 걸 생각해 봐!”

“뭔가 행복한 거?”

해리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우리 모두가 아직 여기 있잖아.”

루나가 속삭였다.

“우린 여전히 싸우고 있어. 자, 어서 지금이야!”

은빛 불꽃이 팍 튀더니 일렁이는 한 가닥 빛줄기가 뿐어 나왔다. 곧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해리의 지팡이 끝에서 수사슴이 튀어나왔다. 수사슴은 앞으로 달려갔다. 이제 디멘터들은 정신없이 훑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어둠이 다시 열어지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전투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뭐라고 고맙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론이 루나와 어니, 시무스를 돌아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방금 내 목숨을 구해.....”

이때 엄청난 포효와 땅을 뒤흔드는 진동과 함께, 숲이 있는 방향에서 또 다른 거인이 어둠을 뚫고 불쑥 나타났다. 거인은 그들보다도 더 커다란 곤봉을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뛰어!”

해리가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 뿔뿔이 도망쳤다. 단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바로 다음 순간에 거인의 거대한 발이 정확하게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짓밟았기 때문이었다. 해리가 뒤를 돌아보니,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를 따라오고 있었지만, 다른 세 사람은 다시 싸움터로 돌아가고 있었다.

“여길 벗어나자!”

론이 고함쳤다. 거인은 또다시 곤봉을 휘둘렀고, 거인의 울부짖음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어두운 밤하늘에 메아리쳤다. 운동장에서는 술 새 없이 터지는 붉은색과 초록색 광선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커다란 버드나무로 가자!”

해리가 말했다.

이제 해리는 마음속에 벽을 둘러치고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도록 잡다한 생각들은 그 좁은 공간 안에 쑤셔 넣어 버렸다. 프레드와 해그리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성의 안팎에 흩어져 있는,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걱정 따위는 모두 접어 두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달려야만 했고, 뱀과 볼드모트에게 가야했기 때문이었다. 헤르미온느가 말한 대로, 그것만이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자신이 죽음 자체를 능가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면서, 어둠 속 여기저기에서 승승 날아다니는 불꽃들과 바다처럼 철썩거리는 호수의 소리와 바람 한 점 없는 밤인데도 술렁거리는 금지된 숲의 소리를 모두 무시한 채,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마치 그 자체가 반란을 일으키며 들고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해리는 평생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달려갔다. 마침내 그 커다란 나무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 버드나무는 채찍처럼 훑휙 내려치는 나뭇가지들로 그 뿌리에 감추어진 비밀 통로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해리는 숨을 헐떡거리며 발걸음을 늦췄다. 그리고 훑휙 내려치는 나뭇가지 주변을 맴돌면서, 어둠 속으로 그 두꺼운 밑둥을 살펴보았다. 이 늙은 나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나무에 불어 있는 단 하나의 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 곧이어 론과 헤르미온느가 도착했다. 헤르미온느는 너무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지?”

론이 혁혁거리며 말했다.

“저기..... 그곳이..... 보여. 이번에도..... 크룩생크만 있다면.....”

“크룩생크?”

헤르미온느가 가슴을 움켜쥔 채, 허리를 구부리고 씩씩거렸다.

“너, 마법사 맞니?”

“오..... 맞아..... 그렇지.....”

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땅 위에 떨어진 잔가지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

잔가지는 땅에서 봉 떠오르더니 마치 돌풍에 휘날리듯이 허공에서 뱅그르르 맴돌았다. 그러고는 사납게 내려치는 버드나무의 나뭇가지들 사이를 지나서 곧장 밑둥을 향해 날아갔다. 잔가지가 뿌리 근처의 한 지점을 쿡 찌르자, 날뛰던 나무가 당장 조용해졌다.

“완벽해!”

헤르미온느가 혁혁거리며 탄성을 질렀다.

“잠깐 기다려!”

쾅쾅 부서지고 평평 터지는 전투의 소음이 주변에 가득 울려퍼지고 있는 동안, 해리는 한순간 주저했다. 볼드모트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자신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렇다면, 론과 헤르미온느를 함정 속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음 순간, 잔인하고 명백한 현실이 바싹 다가오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남은 단 한가지 길은 그 뱀을 죽이는 것이고, 그 뱀은 볼드모트가 있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볼드모트는 이 통로 끝에 있었다.....

“해리, 어서 가야지. 이리로 들어가!”

론이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앞으로 떠밀었다.

해리는 나무뿌리 밑에 감추어진 지하 통로 속으로 몸을 비틀며 들어갔다.

그들이 지난번에 들어갈 때보다 통로를 훨씬 더 비좁아졌다. 통로의 천장이 낮았기 때문에 4년전에도 그들은 몸을 완전히 숙인 채 지나가야만 했다.

그러니 이제는 납작 엎드려 기어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해리가 지팡이에 불을 밝힌 채, 제일 먼저 기어갔다. 언제라도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바싹 긴장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다. 해리는 손에 꼭 쥔 지팡이의 흔들리는 불빛만을 응시했다.

마침내 위로 비스듬한 경사가 시작됐다. 해리는 저 앞에서 은색 불빛을 보았다. 헤르미온느가 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투명 망토! 투명 망토를 써!”

그녀가 속삭였다.

해리가 뒤쪽을 더듬었다. 그러자 헤르미온느는 매끄러운 천뭉치를 그의 빈손에 쥐어 주었다. 해리는 힘들게 망토를 뒤집어썼다. 그리고 “녹스”라고 중얼거려서 지팡이 불빛을 끈 다음,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계속해서 기어갔다. 언제 발각당해서, 싸늘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날아오고 초록 불빛이 번쩍일지 몰라 온몸의 신경이 팽팽하게 곤두섰다.

이윽고 해리는 바로 저 앞에 잇는 방에서 두런두런 훌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통로 끝의 입구가 낡은 상자 같은 것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다. 해리는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입구 바로 앞까지 조금씩 다가갔다. 그리고 상자와 벽 사이로 난 가느다란 틈새를 통해 안쪽을 엿보았다.

방 안의 불빛이 희미하긴 했지만, 허공에 둉뚱 떠 있는 반짝이는 마법의 구체 속에 안전하게 들어앉아서 마치 물속에서처럼 몸을 비비 꼬며 소용돌이치고 있는 내기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식탁의 가장자리와, 지팡이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길고 하얀 손가락도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때 스네이프가 불쑥 입을 여는 바람에, 해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스네이프는 그가 잔뜩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는 곳에서부터 불과 10여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주인님. 저들의 저항이 약해지고 있..”

“그래, 네 도움 없이도 그렇게 되고 있지.”

볼드모트가 높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베루스, 네가 비록 숨씨 좋은 마법사이긴 하지만, 이제 와서 크게 상황을 바꿔 놓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 거의 도달했다.....거의.”

“부디 제가 그 아이를 찾아내도록 해 주십시오. 제 손으로 포터를 주인님 앞에 대령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그 녀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인님. 부탁입니다.”

스네이프가 벌어진 틈새 앞을 성큼성큼 지나가는 바람에, 해리는 뒤로 조금 물러났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내기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과연 저 뱀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을 뚫을 수 있는 주문이 뭐가 있을까.....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그의 위치가 드러나고 말 것이다.....

볼드모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해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새빨간 눈과 납작하고 뱀 같은 얼굴도 보였다. 그의 얼굴이 어찌나 장백했던지, 어두침침한 가운데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문제가 하나 있다, 세베루스.”

볼드모트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인님?”

스네이프가 반문했다.

볼드모트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그는 마치 지휘봉을 잡듯이 정확하고 섬세하게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어째서 이 지팡이가 나를 위해 움직이지 않느냐, 세베루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해리는 어쩐지 뱀이 땅리를 틀었다 풀었다 하면서 쑥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볼드모트의 쑥쑥 거리는 한숨 소리가 허공을 떠도는 것일까?

“주.....주인님?”

스네이프가 망연히 되물었다.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인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비범한 마법을 부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볼드모트가 말했다.

“그저 평범한 마법을 행했을 뿐이다. 물론 나는 비범한 마법사이다. 하지만 이 지팡이는.....그렇지 않아. 기대했던 그 어떤 경이로운 힘도 보여 주지 못했다. 나는 오래전에 올리밴더에게서 구한 지팡이와 이 지팡이 간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다.”

볼드모트의 말투는 생각에 잠긴 듯 평온하기만 했다. 하지만 해리의 흉터는 고통을 치며 펄떡거렸다. 이마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해리는 볼드모트의 마음속에 점점 쌓여 가는 분노가 간신히 통제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차이가 없어.”

볼드모트가 또다시 말했다.

스네이프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해리 쪽에서는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해리는 과연 스네이프가 위험을 감지하고, 주인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다.

볼드모트는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변함없이 신중한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하며 배회할 때, 잠깐 그의 모습이 해리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동안에도 해리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분노가 쌓여 갔다.

“나는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세베루스.....너는 내가 왜 너를 전투에서 불렀는지 아느냐?”

일순간 스네이프의 옆모습이 해리의 눈에 들어왔다. 스네이프의 눈은 마법의 우리 안에서 몸을 돌돌 맂고 있는 뱀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모릅니다 주인님. 하지만 부디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포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넌 꼭 루시우스 처럼 말하는구나. 너희 두 사람 모두 나만큼 포터를 잘 알지 못한다. 그 녀석은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포터는 스스로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는 그 녀석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의 한 가지 커다란 결점을 말이다. 그 녀석은 자기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무엇보다 싫어할 것이다. 바로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녀석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막고 싶어 할 것이고, 결국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주인님. 어쩌면 주인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연히 그 녀석을 죽이게 될지도 모릅.....”

“나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내렸다. 포터를 사로잡으라고, 그의 친구들은 죽여 버려라.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더 좋다. 하지만 그 녀석은 죽이지 마라. 하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리 포터가 아니라, 바로 너, 세베루스에 대해서이다. 그동안 너는 나에게 참으로 귀중한 존재였다. 아주 귀중한 존재였지.”

“주인님께서는 제가 오직 주인님을 섬기기만을 원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를 보내시어 그 아이를 찾도록 해 주십시오, 주인님. 제 손으로 그 아이를 주인님 앞에 대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습.....”

“내가 이미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볼드모트가 호통을 쳤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섰을 때, 해리는 그의 눈에서 빨간 불빛이 번뜩이는 걸 보았다. 그의 망토자락은 마치 구불거리는 뱀처럼 휘날렸다. 해리는 확확 타오르는 흉터를 통해서 볼드모트의 조바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세베로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내가 마침내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주인님,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세베루스, 분명히 있어.”

볼드모트가 걸음을 멈추었다. 해리는 또다시 그의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그는 하얀 손가락 사이로 딱총나무 지팡이를 미끄러뜨리며 스네이프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째서 내가 사용했던 지팡이 두 개가 모두 해리 포터를 겨냥했을 때 실패하고 말았을까?”

“저.....저는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그러냐?”

날카로운 분노가 송곳처럼 해리의 머리를 쑤셨다. 해리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고통에 뜯이겨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억눌렀다. 눈을 질끈 감자, 갑자기 그는 볼드모트가 되어 스네이프의 파리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목나무 지팡이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했다, 세베루스. 해리 포터를 죽이는 것만 빼놓고 말이다. 그 지팡이는 두 번이나 그 일에 실패했지. 올리밴더는 고문에 뜯이겨서 똑같은 지팡이 심에 대해서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총고했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루시우스의 지팡이는 포터의 지팡이와 맞부딪히자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저.....저는 아무런 설명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스네이프는 이제 볼드모트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새까만 눈동자는 여전히 보호막 안에서 땅리를 틀고 있는 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세 번째 지팡이를 찾았다, 세베루스. 딱총나무 지팡이. 운명의 지팡이. 죽음의 지팡이를 말이다. 나는 예전 주인으로 부터 그것을 빼앗았지. 바로 알버스 덤블도어의 무덤에서 이 지팡이를 가져왔다.”

이제야 스네이프는 볼드모트를 바라보았다. 스네이프의 얼굴은 마치 데스마스크 같았다. 그 얼굴이 어찌나 대리석처럼 하얗고 고요한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비로소 텅빈 눈동자 너머에 누군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느낄 정도였다.

“주인님, 부디 제가 가서 그 아이를.....”

“이 기나긴 밤 내내,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둔 이때에 나는 이곳에 앉아있었다.” 볼드모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듯 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어째서 이 딱총나무 지팡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전설이 전하는 대로 지팡이의 정당한 주인을 위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인지.....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스네이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어쨌든 너는 대단히 영리한 자니까, 세베루스. 그동안 너는 착하고 충실한 종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구나.”

“주인님.....”

“딱총나무 지팡이는 나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다. 세베루스, 왜냐하면 나는 이 지팡이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딱총나무 지팡이는 이전 주인을 죽인 마법사의 소유가 된다. 그런데 네가 알버스 덤블도어를 죽였다. 세베루스, 네가 살아 있는 한 딱총나무 지팡이는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한단 말이다.”

“주인님!”

스네이프가 자신의 지팡이를 치켜들며 반발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구나.”

볼드모트가 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지팡이의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 세베루스. 이 지팡이를 지배해야 결국에는 포터를 지배할 수 있다.”

볼드모트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허공에 대고 훑 휘둘렀다. 스네이프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아주 잠깐 동안 스네이프는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볼드모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뱀의 우리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더니 스네이프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마자 그의 머리와 어깨를 덮어 버렸다. 볼드모트는 파셀통그로 명령을 내렸다.

“죽여.”

무시무시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얼굴에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았다.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하였다.

뱀의 송곳니가 목을 깨뚫는 순간, 그는 까만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마법의 우리를 머리에서 벗겨 내지 못한 채, 무릎을 꺽으며 그대로 마루에 쓰러졌다.  
“유감스럽구나.”

볼드모트가 싸늘하게 말하고는, 흑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슬픈 기색도, 후회하는 기색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드디어 이 오두막집을 떠나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할 지팡이를 가지고, 볼드모트는 지팡이로 반짝거리는 뱀 우리를 겨누었다. 그러자 뱀 우리는 스네이프를 버려 두고 위로 둉동 떠올랐다. 스네이프는 옆으로 힘없이 쓰러져 버렸고, 그의 목에 난 상처에서는 피가 콤콤 쏟아져 나왔다. 볼드모트는 단 한 번 눈길도 주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가 버렸다. 거대한 뱀은 커다란 보호막에 싸인 채, 그의 뒤를 따라 둉동 떠갔다.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통로 안으로 돌아온 해리는 번쩍 눈을 떴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너무 용을 쓰다가 손가락 관절을 깨물어서 피가 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는 상자와 벽 사이의 좁은 틈새를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부츠를 신은 발 하나가 마루 위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뒤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상자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고 있었다. 상자는 공중으로 2-3 센티미터쯤 봉 떠오르더니 조용히 옆으로 비켜났다. 해리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몸을 평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어째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스네이프의 새하얀 얼굴과, 철철 흐르는 목의 상처를 막으려고 애쓰는 손가락을 보면서도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벗었다. 그리고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을 내려다 보았다. 부릅뜬 까만 눈이 해리를 발견하자, 그는 뭔가 말하려고 했다. 해리는 그의 몸 위로 허리를 숙였다. 스네이프는 그의 망토 앞자락을 움켜잡더니 바싹 끌어당겼다.

스네이프의 목구멍에서는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끔찍한 소리가 훌러나오고 있었다.

“이걸.....받아.....이걸.....받아.....”

피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스네이프로부터 훌러나오고 있었다. 푸르스름하고 은빛 광택이 감도는 그것은, 기체도 액체도 아니었는데, 그의 입과 눈에서부터 분출되고 있었다. 해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플라스크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덜덜 떨고 있는 해리의 손으로 날아들었다. 헤르미온느가 불러낸 것이다. 해리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은색 물질을 플라스크 안에 담았다. 플라스크가 가장 자리까지 가득 찼을 때는, 스네이프에게는 더 이상 한 방울의 피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해리의 옷자락을 쥐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나를.....보아라.....”

그가 속삭였다.

초록색 눈동자와 까만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새까만 두 개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 있던 무언가가 깜박 사라져 버렸다. 뒤에 남은 것은 오직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멍하고 텅 빈 눈알 뿐이었다. 해리를 불잡고 있던 손이 바닥으로 톡 떨어졌다. 스네이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 제 33 장 왕자 이야기

해리는 그저 스네이프를 멍하니 내려다보면서,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날카롭고 싸늘한 목소리가 너무나 가깝게 들려왔기 때문에, 해리는 볼드모트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플라스크를 손에 꼭쥔채 후다닥 일어났다.

볼드모트의 목소리는 벽과 바닥에서부터 울려 나오고 있었다. 해리는 그가 호그와트 인근 지역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그스미드의 주민들과 성안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가 치명타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목덜미에 숨결이 느껴질 만큼이나 바로 그들 곁에 서 있는 듯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날카롭고 싸늘한 목소리가 말했다.

“볼드모트 경은 용기를 존중할 줄 안다. 하지만 그대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이대로 계속해서 나에게 저항한다면 그대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모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훌러 떨어지는 마법사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크나큰 손실이요 낭비이다.

볼드모트 경은 자비롭다. 나는 나의 군사들에게 즉각 후퇴할 것을 명령한다. 그대들에게 한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너희 전사자들을 예를 갖춰 매장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라.

이제부터 해리 포터, 바로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직접 나와 맞서지 않고, 네 친구들이 너를 위해 목숨을 잃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나는 금지된 숲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릴 것이다. 만약 한 시간 후에도 네가 나를 찾아와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투가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이 싸움에 참여할 것이다. 해리 포터,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고 너를 숨기려고 하는 자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조리 별할 것이다. 한 시간이다.”

론과 헤르미온느를 두 사람 모두 해리를 바라보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저자의 말은 듣지마, 전부 다 괜찮을 거야.”

론이 말했다.

헤르미온느도 정신없이 떠들었다.

“어서 성.....성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이 숲에 가 있다면 우린 새로운 작전을 짜야 해!”

헤르미온느는 스네이프의 시신을 힐끗 쳐다보더니, 서둘러 통로 입구로 달려갔다. 론도 그녀를 뒤쫓아 갔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집어 들고는 스네이프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기분을 알 수가 없었다. 오직 스네이프가 살해당한 그 방식과, 그런 짓이 행해진 이유에 대한 엄청난 충격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통로 속으로 기어 들어갔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해리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론과 헤르미온느도 여전히 머릿속을 짜렁짜렁 울리는 볼드모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너는 직접 나와 맞서지 않고, 네 친구들이 너를 위해 목숨을 잃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나는 금지된 숲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릴 것이다.....한 시간이다.....

성 앞은 잔디밭에는 여기저기에 작은 무리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았다. 동이 트기까지는 한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위는 아직도 칠흑같이 어두웠다. 세 사람은 서둘러서 돌계단으로 향했다. 작은 보트만 한 통나무 하나가 그들 앞에 버려져 있었다. 그것 이외에는 그룹이나 그를 공격했던 개인의 흔적은 없었다.

성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이제는 번쩍이는 광선이나 굉음도, 비명소리나 고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현관 복도에 깔린 포석들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산산조각난 나뭇조각과 대리석 파편들과 함께 에메랄드 알들이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계단의 난간은 일부가 완전히 날아간 상태였다.

“다들 어디 있는 거지?”

헤르미온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론이 대연회장으로 앞장서서 들어갔다. 해리는 그만 연회장 입구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기숙사 테이블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생존자들이 서로의 어깨에 팔을 걸친 채, 무리지어 서 있었다. 높은 단상

위에서는 품프리 부인과 도우미들이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피렌체도 있었는데,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일어설수도 없는 듯 자리에 누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한편 사망자들은 연회장 한가운데에 일렬로 놓여 있었다. 해리는 프레드의 시신을 볼 수 없었는데,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지는 프레드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위즐리 부인은 그의 가슴 위에 엎드려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위즐리 씨는 폭포처럼 눈물을 쏟으며 부인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지니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껴안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니의 얼굴은 통통 뾰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한편 론은 플로르, 퍼시에게 다가갔고, 퍼시는 한쪽 팔로 론의 어깨를 감쌌다. 지니와 헤르미온느가 나머지 가족들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해리는 프레드 옆에 나란히 누워 있는 또 다른 시신들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루핀과 통스의 시신이었다. 창백하지만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들의 얼굴은, 얼핏 보면 마치 마법에 걸린 어두운 천장 아래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듯 했다.

일순간 대연회장이 아득하게 멀어지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숨이 턱 막혔다. 다른 시신들을, 그를 위해 목숨을 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차마 눈 뜨고 바라볼 수가 없었다. 위즐리 가족과 함께 잇는 것도 견딜 수 없었고, 그들의 눈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처음부터 그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더라면, 프레드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해리는 획 돌아서서 대리석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루핀, 그리고 통스..... 그는 차라리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기를 바랐다..... 심장이며 내장, 자신의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어 갈가리 찢어 버리고 싶었다.

성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심지어 유령들조차 대연회장에서 애도하는 모임에 동참한 듯 했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마지막 기억들이 담긴 수정 플라스크를 꼭 움켜쥔 채, 쉬지 않고 달렸다. 그리고 교장실을 지키는 이무기 석상 앞에 도착할때 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암호는?”

“덤블도어!”

너무나도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였기에, 해리는 다짜고짜 그 이름을 외쳤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무기가 옆으로 비켜서더니 그 뒤로 나선형 계단이 나타났다.

해리가 둥근 교장실 안으로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다. 벽에 빙 둘러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모두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 방에 남아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교장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 성의 복도에 출지어 걸려있는 그림들 속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해리는 교장 선생님의 의자 바로 뒤에 걸려있는 덤블도어의 빈 액자를 절망적으로 훑듯 바라본 다음 돌아섰다. 돌 펜시브는 늘 있던 대로 캐비닛 속에 놓여 있었다. 해리는 펜시브를 책상 위에 옮겨놓고, 가장자리에 둔 문자가 새겨져 있는 그 넓적한 대야 속에 스네이프의 기억을 쏟아 부었다. 다른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달아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커다란 위안이 될 것 같았다.... 설사 스네이프가 그에게 남긴 기억일지라도, 결코 지금 자신의 생각보다 더 끔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억들은 은백색으로 기이하게 소용돌이쳤다. 해리는 마치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스런 슬픔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처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해리는 햇빛 속으로 곤두박질치며 떨어졌다. 곧 두 발이 따뜻한 대지에 달았다. 몸을 일으켰을 때, 그는 자신이 한적한 놀이터에 잇음을 깨달았다. 거대한 굴뚝 하나가 아득한 지평선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소녀 두 명이 그네를 타고 있었고, 웬 말라깽이 소년이 덤블 뒤에서 그들을 엿보고 있었다. 소년의 새까만

머리칼은 지나치게 길었으며, 옷차림은 어찌나 어울리지 않던지 꼭 일부러 골라입은 것처럼 보였다. 청바지는 너무 짧았고, 어른에게나 맞을 만한 외투는 지나치게 크고 허름했으며, 여자 옷 같은 셔츠는 괴상하기 짝이 없었다.

해리는 소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스네이프는 기껏해야 아홉살이나 열살쯤 되어 보였는데, 혈색이 나쁘고 왜소하고 비쩍 말랐다. 그는 두 소녀 중에서 언니보다도 훨씬 더 높이 그네를 타고 있는 동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야원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갈망이 드러나 있었다.

“릴리, 그러지 마!”

두 소녀 중에서 언니가 빽 소리쳤다.

하지만 동생은 그네가 완전히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네를 놓더니, 정말 말 그대로 출찍 몸을 날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깔깔 웃으며 하늘로 봉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스팔트가 깔린 놀이터 바닥에 쿵 떨어지는 대신, 마치 공중그네를 타는 곡예사처럼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아주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러 있다가 너무나 가볍게 착지했다.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

페트니아는 샌들 뒤축을 땅에 질질 끌어서, 우두둑거리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그네를 멈췄다. 그리고 발딱 일어나더니 양손을 허리춤에 얹었다.

“엄마가 그러면 안된다고 하셨어, 릴리!”

“하지만 난 괜찮은걸.”

여전히 키득거리면서 릴리가 말했다.

“투니, 이걸 봐. 내가 뭘 할 수 있나 좀 보라고.”

페트니아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놀이터에는 자신들과, 그리고 비록 그들은 알지못했지만, 스네이프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릴리는 스네이프가 숨어 잇는 덤불 앞에서 떨어진 꽃 한송이를 집어 들었다. 페트니아는 호기심과 불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가까이 다가갔다. 릴리는 페트니아가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바닥을 펼쳐보였다. 손바닥 위에 놓인 꽃은, 마치 입술이 여러개 달린 괴상한 굴처럼, 꽃잎들을 오므렸다 펼쳤다 하고 있었다.

“그만 해!”

페트니아가 악을 썻다.

“언니를 해치는 것도 아닌데 뭐.”

릴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바닥을 오므리더니 꽃을 다시 땅바닥에 던졌다.

“이건 나쁜 짓이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페트니아의 눈길은 여전히 땅으로 떨어지는 꽃을 뒤쫓으며 한동안 떠날 줄을 몰랐다.

“넌 어떻게 이런 걸 하는 거지?”

페트니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야 뻔하지, 안 그래?”

그때 스네이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덤불 뒤에서 뛰쳐나왔다. 페트니아는 비명을 지르며 그네 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릴리는 분명히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스네이프는 불쑥 나타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다. 릴리를 보자 누르스름한 그의 양쪽 뺨이 희미하게 물들었다.

“뭐가 뻔하다는 거야?”

릴리가 물었다.

스네이프는 초조하고 흥분한 기색이었다. 그는 멀리 떨어져서 그네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페트니아를 훌끗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무슨 뜻이야?”

“너는.....너는 마녀야.”

스네이프가 속삭였다. 릴리는 모욕을 당한 표정이었다.

“남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건 나쁜 짓이야!”

릴리는 고개를 쳐들고 훅 돌아서더니, 언니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걸어갔다.

“그게 아니야!”

스네이프가 말했다. 이제 그의 얼굴을 새빨개져 있었다. 해리는 어째서 그가 그 우스꽝스러운 외투를 벗지 않는지 답답했다. 외투속에 입은 셔츠를 보이기 싫어서가 아니라면 말이다. 스네이프는 외투를 펼럭거리며 소녀들을 뒤쫓아 갔는데, 나이 든 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박쥐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자매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술래잡기에서 술래가 쫓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도 되는 듯이 그네 기둥을 각자 하나씩 붙잡고 있었다.

“너는 그거야.”

스네이프가 릴리에게 말했다.

“넌 마녀라고, 난 한동안 널 지켜봐 왔어. 하지만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나 역시 마법사인걸.”

페트니아의 웃음은 마치 차가운 물처럼 싸늘했다.

“마법사라고?”

페트니아가 빽 소리쳤다. 이제 그녀는 예기치 못한 스네이프의 출현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용기를 되찾은 듯 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넌 스네이프네 자식이지!”

그러고는 릴리를 보고 말했다.

“쟤네 식구들은 저 아래 강가에 있는 동네, 스피너즈 앤드에 산다고.”

그녀의 말투로 보아 그 동네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분명했다.

“왜 우리를 엿보고 있었던 거야?”

“엿보고 있었던게 아니야.”

화창한 햇빛 아래 지저분한 머리를 고스란히 드러낸 스네이프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말했다.

“아무튼, 널 엿보고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러더니 그가 경멸에 찬 어조로 한마디 덧붙였다.

“너는 머글이니까.”

페트니아는 분명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투를 못 알아듣진 않았다.

“릴리, 우리 가자! 어서!”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릴리는 즉시 언니의 말에 따랐다. 그리고 스네이프에게 눈을 부라리며 그곳을 떠났다. 그들이 놀이터 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동안, 스네이프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제 그곳에 남아서 그를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인 해리는 스네이프의 쓰라진 실망감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스네이프가 이 순간을 한동안 계획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이다.....

그 장면이 흐릿해지더니, 해리가 미처 알아차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지금 그는 작은 숲 속에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강이 보였다.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운 곳에 서늘한 초록빛 그늘이 생겨났다. 두 아이가 땅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지금 스네이프는 외투를 벗고 있었는데, 그의 기묘한 셔츠는 반쯤 햇빛이 가려진 그늘 속에서 한결 나아보였다.

“.....그리고 네가 학교 밖에서 마법을 행하면, 마법부는 너를 벌줄 수 있어. 너는 편지를 받겠지.”

“하지만 난 이미 학교 밖에서 마법을 써는걸?”

“우린 괜찮아. 우린 아직 지팡이가 없잖아. 아직 어린아이고 어쩔 수 없었을 때에는 제외시켜 주니까, 하지만 네가 열한살이 되면.....”

스네이프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널 훈련시킬 거야. 그때부터 조심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릴리는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들더니 허공에 대고 휘저었다. 해리는 그녀가 그 끝에서 불꽃이 발사되는 광경을 상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다시 떨어뜨리더니 소년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정말이지, 그렇지? 농담 아니지? 페투니아는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래, 호그와트 같은 건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진짜지, 그렇지?”

“우리에게는 진짜야.”

스네이프가 말했다.

“페투니아한테는 아니지만, 우리는 곧 편지를 받게 될거야. 너랑, 나는.”

“정말로?”

릴리가 속삭였다.

“그렇고말고.”

스네이프가 말했다. 엉망으로 자른 머리와 괴상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팔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묘하게도 꽤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그걸 정말 부엉이가 배달해 주니?”

릴리가 속삭였다.

“보통은 그래.”

스네이프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는 머글태생이니까, 학교에서 누군가 나와서 너희 부모님한테 설명해 줘야 할 거야.”

“머글 태생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스네이프는 주저했다. 초록색 그늘 아래에서, 열의에 가득찬 그의 까만 눈동자가 짙은 붉은색 머리를 한 새하얀 얼굴을 훑어보았다.

“아니, 그건 아무 차이가 없어.”

스네이프가 대답했다.

“다행이다.”

릴리가 긴장을 풀고 말했다.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넌 마법을 참 많이 할 줄 알더라.”

스네이프가 말했다.

“내가 봤어. 그동안 줄곧 널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말꼬리를 흐렸다. 릴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대신 잎이 무성하게 깔린 땅바닥 위에서 기지개를 쭉 펴더니 머리위를 지붕처럼 덮고 있는 잎사귀들을 올려다보았다. 스네이프는 놀이터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을 때처럼 갈망에 찬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희 집은 요즘 어때?”

릴리가 물었다.

스네이프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좋아.”

그가 대답했다.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안 싸우시고?”

“물론 싸우지.”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리고 나뭇잎을 한 움큼 쥐더니 그것들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래도 난 머잖아 떠날 텐데 뭐.”

“너희 아빠는 마법을 안 좋아하시니?”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좋아하는게 없어.”

“세베루스?”

릴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스네이프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

“응?”

“디멘터 얘기 다시 해줘.”

“디멘터에 대해 알아서 뭐 하려고?”

“만약 내가 학교 밖에서 마법을 쓰면.....”

“그들은 그런 일로 너를 디멘터에게 보내지 않아!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나 디멘터에게 보내는 거야. 디멘터는 마법사들의 감옥인 아즈카반을 지키거든. 넌 절대 아즈카반에 끌려가지 않을거야. 넌 너무....”

스네이프는 다시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또다시 나뭇잎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때 뒤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해리가 돌아보았다. 나무 뒤에 숨어 있던 페트니아가 발을 헛디딘 것이었다.

“투니!”

릴리가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함께 짓들어 있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후다닥 일어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엿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 웬 바라는 거야?”

페트니아는 갑자기 발각된 것에 놀라 말문이 막혔다. 해리는 그녀가 원가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생각해 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나저나 네가 입고 있는 건 뭐니?”

페트니아가 스네이프의 가슴을 가리키며 물었다.

“너희 엄마 블라우스야?”

딱 소리가 나더니, 페트니아의 머리 위에 있는 나뭇가지가 뚝 떨어졌다. 릴리가 비명을 질렀다. 그 나뭇가지는 페트니아의 어깨를 쳤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더니 울음을 터트렸다.

“투니!”

하지만 페트니아는 이미 달아나고 있었다. 릴리는 스네이프를 향해 돌아섰다.

“네가 한 짓이지?”

“아니야.”

그는 반발하면서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네가 그랬잖아!”

릴리가 그에게서 뒷걸음치고 있었다.

“네가 그랬어! 네가 언니를 다치게 했어!”

“아니야, 안 그랬어!”

하지만 그런 거짓말로 릴리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 릴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분노에 가득 찬 눈길로 쏘아보더니, 작은 숲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저 멀리 언니를 쫓아갔다. 스네이프는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얼굴이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해리는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9와 4분의 3 번 승강장에 있었고, 스네이프는 바로 옆에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와 매우 닮은 한 여자가 훌쭉하고 누르스름한 얼굴에 심술궂은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스네이프는 조금 멀리 있는 네 명의 가족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가족 중에서 여자아이 두 명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좀 떨어져서 서 있었다. 릴리는 언니에게 원가 애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엿듣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내 말 좀 들어봐!”

페트니아는 자꾸만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마 내가 거기에 가면.....아냐, 들어 봐, 언니! 아마 일단 내가 거기에 가면 덤블도어 교수님을 만나 뵙고 마음을 바꾸시도록 어떻게든 설득해 볼 수 있을 거야!”

“난....난.....가고 싶지 않아!”

페트니아가 소리치며, 동생의 손아귀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뗐다.

“넌 내가 그 명청한 성에 가고 싶어 하는 줄 아니? 그래서 마.....마.....”

페트니아의 절은 눈동자가 승강장과, 주인 품에서 야옹거리는 고양이들과, 새장 속에서 퍼덕거리며 서로를 향해 부엉부엉 울고 있는 부엉이들, 그리고 학생들 위를 쑥 둘러보았다. 학생들 중 몇몇은 이미 길고 검은 망토를 입은 채, 트렁크를 진홍색 증기기관차에 실고 있거나, 혹은 여름방학 동안 해어졌다가 만난 기쁨에 함성을 지르며 서로서로 인사를 하고 있었다.

“넌.....내가.....정.....정신병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니?”

마침내 페트니아가 손을 완전히 뿌리쳤을 때, 릴리의 두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난 정신병자가 아니야.”

릴리가 말했다.

“그런 끔찍한 말을 하다니.”

“거기가 바로 네가 가려는 곳이야.”

페트리아가 고소해 죽겠다는 듯이 말했다.

“정신병자들을 위한 특수학교, 너와 그 스네이프 녀석.....별종들. 그게 바로 너희 두 사람이라고, 너희 같은 애들이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건 좋은 일이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릴리는 부모님 쪽을 훌끗 쳐다보았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승강장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그 광경을 만끽하고 있었다. 릴리는 다시 언니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사나웠다.

“언니가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자기를 받아 달라고 졸랐을 때는, 그 학교가 그런 정신병자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페트리아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졸라? 난 조른 적 없어!”

“난 교장선생님의 답장을 봤어. 아주 친절하게 쓰셨던데.”

“네가 왜 내 편지를 읽는 거야?”

페트리아가 속삭였다.

“그건 내 사생활인데, 네가 어떻게 감하.....”

릴리는 근처에 서 있는 스네이프를 훌끗 결눈질하며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자 페트리아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 자식이 그걸 찾았구나! 너랑 저 녀석이 몰래 내 방에 숨어들어 왔었어!”

“아니, 몰래 들어간 게 아니야.”

릴리가 이제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세베루스가 그 봉투를 봤어. 그는 머글이 호그와트와 연락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것뿐이야! 그는 비밀리에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돌봐주는 마법사들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보아하니 마법사란 족속들은 아무데나 쑤시고 다니는가 보구나!”

페트리아가 소리쳤다. 새빨갰던 그녀의 얼굴이 이제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친 것!”

페트리아는 동생을 향해 내뱉듯이 말하고는 부모님이 서 계신 곳으로 뛰어갔다.....

장면은 다시 사라졌다.

스네이프는 호그와트 급행열차의 통로를 따라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열차는 어느 시골을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미 교복 망토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아마 그 흥측한 머글 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오자마자, 당장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한 무리의 소년들이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객실 밖에서 걸음을 멈췄다. 릴리는 얼굴을 유리창에 바싹 붙인 채, 창가 옆의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스네이프는 객실 문을 열더니, 릴리의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릴리는 그를 훌끗 쳐다보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릴리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왜?”

“투니가 날 미워해. 우리가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를 봤다고.”

“그게 뭐 어때서?”

그러자 릴리는 몹시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를 쏘아봤다.

“투니는 우리 언니라고!”

“걔는 그저....”

하지만 스네이프는 잽싸게 뒷말을 삼켰다. 릴리 역시 남몰래 눈물을 닦느라 바빠서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떠나고 있어!”

스네이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올 게 온 거야! 우리는 호그와트로 떠나고 있다고!”

릴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가 슬리데린에 배정되면 좋을 텐데.”

약간 밝아진 릴리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스네이프가 말했다.

“슬리데린이라고?”

액실에 함께 앉아 있던 남자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그 말을 듣자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때까지는 릴리나 스네이프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던 아이였다. 해리는 비로소 아버지를 발견했다. 호리호리한 그는 스네이프와 마찬가지로 검은 머리였지만, 어쩐지 보살핌을 들판 받고 자란 듯한, 심지어 애지중지 키워진 듯한 인상을 풍겼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스네이프에게는 아주 두드러지게 결핍된 것이었다.

“누가 슬리데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나같으면 차라리 학교 관두겠다. 안 그래?”

제임스가 그의 맞은편 좌석에 나른하게 앉아 있는 소년에게 물었다. 해리는 그가 시리우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흠칫 놀랐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죄다 슬리데린 출신이야.”

시리우스가 말했다.

“젠장. 그래도 넌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제임스의 말에 시리우스가 씩 웃었다.

“어쩌면 내가 그 전통을 깔지도 몰라. 너는 만약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갈 거야?”

제임스는 보이지 않는 칼을 치켜드는 시늉을 했다.

“그린핀도르!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마치 우리 아빠처럼 말이야.”

그러자 스네이프가 나지막이 구시렁거렸다. 제임스를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불만 있냐?”

“아니야.”

스네이프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살짝 떠오른 비웃음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만약 네가 머리를 쓰기보다는 몸이나 쓰는 인간이 되고 싶다면.”

“넌 어디 가고 싶은데? 보아하니 넌 머리를 쓰는 쪽도 몸을 쓰는 쪽도 아닌것 같은데?”

시리우스가 끼어들었다. 그러자 제임스가 요란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몸을 곧게 세우고 앉은 릴리는 얼굴을 붉히며 제임스와 시리우스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자, 세베루스. 다른 액실을 찾아보자.”

“오오.....”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그녀의 거만한 목소리를 흉내 냈다. 그리고 제임스는 스네이프가 지나갈 때 발을 걸려고 했다.

“또 보자고, 스니벨루스!”

액실 문이 광 닫히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다.....

장면이 또다시 사라졌다.....

이제 해리는 바로 스네이프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은 넋 나간 얼굴로 줄지어 서서, 촛불이 밝혀진 기숙사 테이블들을 바라 보고 있었다. 잠시 후 맥고나걸이 말했다.

“에반스, 릴리!”

해리는 어머니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낡아빠진 의자에 앉는 것을 바라보았다. 맥고나걸이 마법의 모자를 그녀의 머리 위에 내려놓았고, 모자는 붉은 머리에 달자마자 소리쳤다.

“그리핀도르!”

해리는 스네이프가 나지막이 신음하는 것을 들었다. 릴리는 모자를 벗어 맥고나걸에게 건네주고는, 곧 환호하는 그리핀도르 학생들을 향해 달려갔다.

도중에 그녀는 스네이프를 힐끔 돌아보았는데, 그 얼굴에 서글픈 미소가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그녀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긴 의자에서 옆으로 조금 옮겨 앉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릴리는 그를 한 번 쳐다보더니, 열차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 낸 듯이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호명이 계속되었다. 해리는 루핀과 페티그루,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릴리와 시리우스의 곁으로 합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열두 명 남짓한 학생들만이 기숙사 배정을 기다리며 남아 있었다. 그때 맥고나걸이 스네이프의 이름을 불렀다.

해리는 그와 함께 의자까지 따라 걸어갔고, 그가 모자 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슬리데린!”

마법의 모자가 외쳤다.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릴리와 멀리 떨어진 연회장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슬리데린 학생들이 그를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었다. 그가 옆에 앉자, 가슴에 반짝이는 반장 배지를 단 루시우스 말포이가 그의 등을 두드렸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다.....

릴리와 스네이프는 성의 안뜰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해리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서둘러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들 곁으로 다가갔을 때, 해리는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키가 많이 컷는지 깨달았다. 기숙사 배정 이후로 벌써 몇 년이 흐른 듯했다.

“.....난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가?”

스네이프가 말했다.

“맞아, 세브. 하지만 난 너랑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애들 중에 어떤 얘들이 싫어! 미안해, 그렇지만 애버리와 룰시버는 정말 꼼꼼하게 싫어! 룰시버! 도대체 너는 개를 월 보고 만나는 거니, 세브? 개는 아주 소름 끼쳐! 개가 전에 메리 맥도널드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

릴리는 기둥으로 다가가서 몸을 기대더니, 스네이프의 누르스름하고 야윈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건 별일 아니었어.”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그게 전부야.”

“그건 어둠의 마법이었다고! 그리고 네가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면.....”

“포터와 그 패거리들이 치는 장난은 어떻고?”

스네이프가 따져 물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아마도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것 같았다.

“그게 포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릴리가 물었다.

“걔들은 밤에 학교를 몰래 빠져나갔어. 게다가 루핀이라는 녀석은 원가 기분 나쁜 구석이 있단 말이야. 그는 왜 계속 외출을 나가는 거지?”

“그 앤 아파.”

릴리가 말했다.

“그 애는 아프댔어.”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만?”

스네이프가 말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릴리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하지만 도대체 왜 네가 게네들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데? 게네들이 밤에 월하고 다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난 단지 다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얘들이 그저 멋진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 주려는 것 뿐이야.”

그의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릴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도 그 애들은 어둠의 마법을 쓰지는 않아.”

릴리가 목소리를 죽이고 말했다.

“게다가 너는 정말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구나. 지난밤에 잇었던 일 나도 들었어. 네가 커다란 버드나무 옆 통로로 몰래 들어갔는데, 제임스가 그 통로 안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너를 구해 줬다고.....”

순간 스네이프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침을 튀기며 말했다.

“구해 줘? 구해 줬다고? 넌 그가 영웅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는 자기 목숨이랑 자기 친구 목숨을 구했던 거야! 너 설마 개를.....난 너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를 뭐? 나를 뭐?”

릴리의 밝은 초록색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스네이프가 즉시 말을 바꿨다.

“난 그런 뜻이 아니라.....난 그냥 네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바라지 않을 뿐이야. 그 녀석이 널 좋아하고 있어. 제임스 포터가 널 좋아하고 있다고!” 그 말은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녀석은 아니야....물론 모두 생각하지....대단한 퀴디치 영웅이라고....”

스네이프는 혐오감과 비통함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두서없이 떠들어댔고, 릴리의 눈썹은 점점 더 치켜 올라갔다.

“나도 제임스 포터가 시건방진 건달이란 건 알고 있어.”

릴리가 스네이프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해 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뮤키버랑 애버리의 유머 감각은 정말 너무 악랄해. 악랄하다고 세브. 난 어떻게 네가 그런 애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

하지만 해리는 과연 스네이프의 귀에 방금 릴리가 뮤키버와 애버리에 대해서 말한 비난이 들렸는지 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녀가 제임스 포터를 욕하자마자, 그의 온몸에서 긴장이 짹 풀렸던 것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을 때, 스네이프의 발걸음에는 다시 새봄이 찾아든 것 같았다.

그리고 곧 장면이 사라졌다.....

해리는 다시 스네이프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의 표준 마법사 수준 시험을 치른 후 대연회장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가 성에서 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제임스와 시리우스, 루핀, 페티그루가 함께 앉아 있는 너도밤나무 그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제임스가 세베루스를 공중에 거꾸로 매달고 그를 조롱한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다시 듣는 것은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해리는 릴리가 스네이프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멀리서 굴욕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스네이프가 그녀를 향해 그 용서받지 못할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잡종”

장면이 변했다.....

“미안해.”

“난 관심없어.”

“미안해!”

“조용히 해!”

밤이었다. 잠옷 차림의 릴리는 팔짱을 낀 채, 그리핀도르 탑입구에 있는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단지, 메리가 네가 밤새 여기서 잘 거라고 위협했다기에 나온것 뿐이야.”

“그랬어. 그리고 정말로 그랬을 거야. 난 절대로 널 잡종이라고 부르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 말이 그냥.....”

“무심코 나왔다고?”

릴리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전혀 없었다.

“너무 늦었어. 난 몇 년 동안 줄곧 너를 옹호해 왔어. 내 친구들은 아무도 내가 왜 너랑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해. 너와 너의 그 귀하신 애송이 죽음을 먹는 자 친구들..... 거봐. 넌 부인도 하지 않는 구나! 넌 심지어 네가

뭐가 되고 싶어하는지 부인조차 하지 않잖아! 넌 그 사람에게 합류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지, 그렇지?”

스네이프가 잠깐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다물었다.

“난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수 없어. 넌 네길을 택했고, 난 내길을 택한 거야.”

“아니야. 들어 봐!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단.....”

“나를 잡종이라고 부를 뜻은 없었다고? 하지만 넌 나와 같은 출생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부르잖아, 세베루스. 어째서 나만 그들과 달라야 하는 거지?”

그는 어떻게든 말을 이어 가려고 애를 썻지만, 릴리는 경멸에 가득 찬 눈길을 한 번 던지더니, 훅 돌아서서 다시 초상화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

복도가 사라지고, 다음 장면으로 다시 바뀌는 데에 약간 시간이 걸렸다. 해리는 마치 훙훨 움직이는 색과 형체들 속을 뚫고 날아가는 듯했다. 마침내 주위 배경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며 언덕 위에서 있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사이로 바람이 쟁 불고 지나갔다. 이제 성인이 된 스네이프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꼭 쥔 채,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그의 두려움이 해리에게까지 전해졌다. 물론 자신이 해를 입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스네이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눈부시게 날카로운 하얀 광선이 허공을 뚫고 날아왔다. 해리는 번갯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스네이프가 털썩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그의 지팡이는 손에서 날아가 버렸다.

“저를 죽이지 마세요!”

“그럴 의도는 없었다.”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에 덤블도어가 순간이동으로 나타나는 소리가 묻혀 버렸던 것이다. 그는 망토 자락을 휘날리며 스네이프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지팡이 불빛이 밑에서부터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래, 세베루스! 볼드모트 경이 나에게 무슨 전갈을 보낸거지?”

“아닙니다. 전갈은 없습니다. 제가 용건이 있어서 온 겁니다!”

스네이프는 조조하게 손을 비틀고 있었다. 마구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저.....저는 경고를 드리려고, 아니. 요청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덤블도어가 지팡이를 까딱 흔들었다. 그러자 여전히 잎사귀들과 나뭇가지들이 그들 주위의 어두운 대기 속을 날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스네이프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자리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죽음을 먹는 자가 내게 무슨 요청이 있단 말이지?”

“그.....그 예언.....그 예고.....트릴로니....”

“아, 그렇군.”

덤블도어가 말했다.

“볼드모트 경에게 얼마나 많은 걸 전해 주었나?”

“전부 다.....제가 들은 내용은 모두 다 전했습니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은 그 예언이 릴리 에반스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여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덤블도어가 말했다.

“칠월의 마지막 날 태어난 사내아이에 대해 말했지.”

“제 말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아이가 바로 그녀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추적할 겁니다. 그들 모두 죽일 거라고요!”

“그녀가 자네에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분명 볼드모트 경은 그녀의 목숨을 살려 주지 않겠나? 아들을 넘겨주는 대신, 그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할 수 없었던 말인가?”

덤블도어가 말했다.

“저는…… 저는 그분께 요청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구역질나는군.”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는 한 번도 그토록 경멸에 찬 덤블도어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스네이프는 약간 주눅이 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녀의 남편과 아이는 죽어도 상관없단 말인가? 자네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전부 죽어도 좋단 말인가?”

스네이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덤블도어를 올려다 보았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를 숨겨 주십시오.”

스네이프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아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그렇다면 자네는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줄 건가, 세베루스?”

“대…… 대가요?”

스네이프가 입을 딱 벌리고 덤블도어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그가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언덕이 사라졌다. 이제 해리는 덤블도어의 교장실 안에 서 있었는데, 무언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끔찍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로 스네이프가 앞으로 몸을 푹 숙인 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덤블도어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잠시 후 스네이프가 고개를 들었다. 그 황량한 언덕을 떠난 이후로, 마치 고통 속에서 백 년쯤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저는…… 저는 당신이…… 그녀를 무사하게…… 지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녀와 제임스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신임했네.”

덤블도어가 말했다.

“자네와 비슷하지, 세베루스. 자네도 볼드모트 경이 그녀를 살려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나?”

스네이프의 호흡이 가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살아남았다네.”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러자 스네이프가 진저리나는 파리를 쫓듯이 갑자기 머리를 움찔했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 있다네. 그 아이는 바로 그녀의 눈을, 그녀와 아주 똑같은 눈을 갖고 있지. 분명히 자네는 릴리 에반스와 눈매와 색깔을 기억하고 있겠지?”

“아니요!”

스네이프가 울부짖었다.

“끌낫어요…… 죽었어요…….”

“후회하고 있나, 세베루스?”

“저는……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덤블도어가 싸늘하게 말했다.

“자네가 만약 릴리 에반스를 사랑했다면, 정말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면, 자네 앞에 놓인 길은 분명하다네.”

스네이프는 마치 혼미한 고통 속에 갇혀 간신히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덤블도어의 말이 그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렸다.

“무슨…… 무슨 말씀이시죠?”

“자네는 그녀가 어떻게, 그리고 왜 죽었는지 알고 있네. 그러니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게. 내가 릴리의 아들을 보호하는 것을 도우란 말일세.”

“그 아이는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의 마왕은 사라졌습니다.”

“어둠의 마왕은 돌아올 것이고, 그때는 해리 포터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걸세.”

긴 침묵이 이어졌다. 스네이프는 서서히 자제력을 되찾았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절대, 절대 말하지는 마십시오. 덤블도어 교수님! 이것은 오직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의 일이어야만 합니다! 맹세해 주십시오!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특히 포터의 아들이라니.....약속해 주십시오!”

“세베루스, 지금 나더러 자네의 가장 훌륭한 행동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건가?” 덤블도어는 고뇌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스네이프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탄식했다.

“자네가 정 고집한다면.....”

교장실 장면이 사라지더니, 즉시 다시 나타났다. 이제 스네이프는 덤블도어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 아비만큼이나 경박하고 오만하기 짹이 없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규칙을 위반하질 않나, 유명세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싶어하고 무례하고.....”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법이지, 세베루스.”

덤블도어는 <오늘날의 변신술>에 눈을 고정한 채 말했다.

“다른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아주 겸손하고 호감이 가고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는 그 애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라고 생각한다네.”

덤블도어는 책장을 넘기더니,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퀴렐에게서 눈을 떼지 말게. 알았나?”

순간 모든 색깔이 소용돌이 쳤다. 이제 사방이 온통 캄캄했고, 스네이프와 덤블도어는 현관 복도에서 약간 떨어져 서 있었다.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학생들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그들 옆을 지나갔다.

“그래서?”

덤블도어가 중얼거렸다.

“카르카로프의 표식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자는 완전히 겁에 질려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마왕이 몰락한 이후로 그자가 마법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는 교수님도 잘 아시겠죠?”

스네이프는 코가 구부러진 덤블도어의 옆얼굴을 곁눈질했다.

“카르카로프는 만약 표식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도망칠 생각입니다.”

“그런가?”

덤블도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때 운동장에서 플뢰르 데라루르와 로저 데이비스가 깔깔거리며 돌아왔다.

“그럼 자네도 그와 합류하고 싶은가?”

“아닙니다.”

스네이프가 새까만 눈으로 플뢰르와 로저의 멀어져 가는 모습을 쫓으며 말했다.

“저는 그런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래, 아니지.”

덤블도어가 수긍했다.

“자네는 이고르 카르카로프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너무 일찍 분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네.....”

덤블도어는 충격 받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스네이프를 남겨 두고 유유히 걸어갔다.....

이제 해리는 또다시 교장실에 서 있었다. 늦은 밤이었는데, 덤블도어는 책상 뒤에 놓인 왕좌 같은 의자에 비스듬히 늘어져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의식이 온전치 못한 듯했다. 그의 오른손은 시커멓게 화상을 입은 채로 덜렁거리고 있었다. 스네이프는 지팡이로 다친 손의 손목을 가리키며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한편 왼손으로는 잔에 가득 담긴 걸쭉한 황금색 마법약을 덤블도어의 목구멍으로 부어 넣고 있었다. 잠시 후, 덤블도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활짝 떠졌다.

“도대체 어째서!”

거두절미하고 스네이프가 다그쳤다.

“어째서 그 반지를 끼셨나요? 그 반지는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교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그걸 대체 왜 만지십니까?”

마블로 곤트의 반지가 덤블도어 앞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부서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리핀도르의 칼이 놓여 있었다.

덤블도어가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바보였지. 몹시 마음이 끌리더라고.....”

“무엇에 마음이 끌렸단 말씀입니까?”

덤블도어는 대답이 없었다.

“교수님이 여기까지 돌아오신 게 기적입니다!”

스네이프는 불같이 화난 목소리였다.

“그 반지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저주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라곤, 그 저주를 억누르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한동한 그 저주가 한 손에만 머물도록 붙잡아 두기는 했지만....”

덤블도어는 시커멓고 쓸모없게 된 손을 들어 올리더니, 마치 흥미진진한 골동품이라도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주 잘 해 주었군, 세베루스. 자네 생각에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나?”  
덤블도어의 말투는 너무나 태연했다. 마치 일기예보라도 물어보고 있는 듯한 어조였다. 스네이프는 잠시 주저한 뒤에 대답했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1년 쯤일 겁니다. 이런 저주를 영원히 멈추게 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결국 몸전체로 퍼져 나갈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해지는 저주니까요.”

덤블도어는 미소를 지었다. 살 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은 그에게 거의, 혹은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닌 듯했다.

“난 운이 좋아. 정말 유별나게 운이 좋지. 자네가 내곁에 있으니 말일세, 스네이프.”

“저를 조금이라도 일찍 불러 주셨더라면, 좀 더 잘 해 드릴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수님에게 시간을 좀 더 벌어드렸을지도 모른다고요!”

스네이프가 사납게 말했다. 그는 부서진 반지와 칼을 내려다 보았다.

“반지를 부수면 주문도 깨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내가 정신이 나갔었어.....분명히....”

덤블도어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으음, 사실 이건 모든 문제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거라네.”

스네이프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덤블도어가 미소를 지었다.

“볼드모트 경이 나를 노리며 벌이고 있는 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걸세. 불쌍한 드레이코 말포이를 시켜 나를 죽이려는 계획 말이야.”

스네이프는 해리가 그토록 자주 앉았던 바로 그 의자에 덤블도어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가 덤블도어의 저주 받은 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해리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는 정중한 거절의 표시로 다친 손을 치켜들었다. 스네이프가 웃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 어둠의 마왕은 드레이코가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저 루시우스가 최근에 한 실패들에 대한 응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실패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걸 지켜보게 하려는 거죠. 드레이코의 부모를 서서히 고문하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녀석은 나와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로군.”

덤블도어가 말했다.

“일단 드레이코가 실패하고 나면, 그 임무의 후임자는 당연히 자네가 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게 바로 어둠의 마왕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마왕은 머지않아서 호그와트에 첨자가 필요하지 않을 순간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겠지?”

“그자는 학교가 곧 자기 손아귀에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 학교가 그의 손에 넘어간다면 호그와트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네 힘이 닿는 데까지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내게 맹세할 수 있겠나?” 덤블도어는 슬쩍 지나가는 말을 던지듯이 말했다.

스네이프는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그럼 자네의 첫번째 임무는 드레이코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내는 거네. 겁에 질린 십 대 소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한 법이지. 그러니 자네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길잡이가 되어 주게, 그 아이는 분명 받아들일 걸세. 그 아이는 자네를 좋아하니까.”

“.....그 애 아버지가 총애를 잃고 난 이후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드레이코는 저를 탓하고 있습니다. 제가 루시우스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나 해 보게. 나는 나 자신보다도, 그아이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든지 그 때문에 뜻하지 않은 희생자들이 생길까 더 걱정일세.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볼드모트의 분노로부터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할 일이 딱 한가지 남아 있네.”

스네이프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그 아이가 교수님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려고요?”

“그럴 리가. 자네가 나를 죽여야만 하네.”

한동안 긴 침묵이 이어지다가, 기묘하게 딸각거리는 소리에 깨졌다. 불사조 퍽스가 오징어 뼈를 콕콕 쪼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 제가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스네이프가 잔뜩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아니면 비문을 작성하실 시간이라도 잠시 드릴까요?”

“오오, 아직은 아닐세.”

덤블도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도 때가 되면 그 순간이 저절로 찾아올 걸세. 하지만 오늘 밤 벌어진 일을 고려하면.....”

덤블도어가 시들어 버린 손을 가리켰다.

“분명 그 일은 1년 안에 벌어질 거야.”

“그토록 죽는게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면, 그냥 드레이코가 그렇게 하도록 내려버 두시지요?”

스네이프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의 영혼은 아직 그렇게까지 손상되지 않았어. 나 때문에 그 아이의 영혼을 갈가리 찢어 놓고 싶지는 않네.”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 영혼은요. 덤블도어 교수님? 제 것은요?”

“한 늙은이가 고통과 수모를 모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연 자네의 영혼을 해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은 오직 자네만이 알겠지. 처들리 캐논 팀이 올해 리그에서 꼴찌를 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 이런 중대한 부탁을 하는 거라네, 세베루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빠르고 고통없는 죽음이 좋다네. 이를테면 만약 그레이백이 연루될 경우에 벌어지게 될, 그런 질질 끄는 너저분한 죽음보다는 말일세.....볼드모트가 그를 영입했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먹잇감을 먹어 치우기 전에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벨라트릭스라든가.”

그의 말투는 한없이 가벼웠지만, 그의 푸른 눈동자는 해리에게 종종 그랬던 것처럼 스네이프를 매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이 그의 눈에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침내 스네이프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덤블도어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네, 세베루스.....”

교장실이 사라졌다. 이제는 스네이프와 덤블도어가 석양빛을 받으며 텅 빈 운동장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다.

“요즘 포터와 월 하시는 겁니까? 저녁마다 두 사람이 함께 꼭 틀어박혀 있으니.”

스네이프가 불쑥 물었다.

덤블도어는 놓시 지쳐 보였다.

“왜? 그애에게 더 자주 방과 후에 남는 벌을 주려는 건가? 세베루스! 그 아이는 머잖아 밖에서 지내는 것보다 벌을 받으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구먼.”

“그 애는 천생 제 아비를 닮아서....”

“외모는 그럴테지. 하지만 그아이의 가장 깊은 내면은 어머니를 훨씬 더 많이 닮았다네. 나는 그 아이와 할 얘기가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낸걸세. 너무 늦기 전에 그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할 정보 말이네.”

“정보라고요?”

스네이프가 되풀이했다.

“교수님은 그 아이를 믿으시는군요. 저를 믿지 못하시고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네. 우리 두 사람 다 알다시피, 나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그 아이가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아이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네.”

“그렇다면 왜 저는 똑같은 정보를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한 바구니 속에 내 모든 비밀을 쏟아 놓고 싶지는 않다네, 특히나 볼드모트 경의 팔에 매달려 아주 긴 시간을 보내는 바구니에다가는 말일세.”

“하지만 저는 교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그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지. 자네가 항상 처해 있는 위험을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세베루스. 핵심적인 정보는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꽤 유용해 보이는 정보를 볼드모트에게 제공하는 일은, 자네가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못했을 걸세.”

“하지만 교수님은 마법 실력도 보잘것없고, 어둠의 마왕의 머릿속과 곧장 연결되어 있는데다, 오클러먼시도 할 줄 모르는 일개 꼬마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볼드모트는 그 연결을 두려워하고 있어.”

덤블도어가 말했다.

“얼마 전에야 비로소 그는 해리의 정신을 진짜로 공유한다는 것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 경험했지.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고통이었어. 그는 해리의 마음을 두 번 다시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걸세. 난 확신할 수 있네.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볼드모트 경의 영혼은 불구가 되어서, 해리와 같은 영혼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네. 마치 얼어붙은 강철에 달은 혀바닥이나, 불길에 훙싸인 살처럼.....”

“영혼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리와 볼드모트 경의 경우는 어느쪽을 이야기하나 마찬가지일세.”

덤블도어는 그들 이외에 아무도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들은 금지된 숲 가까이에 와 있었다. 하지만 근처에 누군가 있는 낌새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네가 나를 죽인 후에, 세베루스.....”

“교수님은 저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그 시시한 임무만은 꼭 제가 해주기를 바라시는군요!”

스네이프가 대들었다. 이제 그의 야원 얼굴에서는 진정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교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덤블도어! 어쩌면 저는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이미 내게 맹세했네, 세베루스. 그리고 자네가 해 주어야 할 임무들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나는 자네가 우리의 꼬마 슬리데린 친구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동의한 줄 알았는데?”

스네이프는 분노와 반항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덤블도어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열한 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세베루스. 그러면 내가 자네를 신임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불평하지는 못할 걸세.....”

이제 그들은 다시 덤블도어의 사무실에 돌아와 있었다. 창문들은 어두웠고, 퍽스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스네이프 역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오직 덤블도어만이 그의 주위를 걸어 다니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해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모르고 있어야 하네. 어쩔 수 없이 알게 될 때까지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아이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겠는가?”

“그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그건 나와 해리 사이의 일이네, 이제 잘 들어 보게, 세베루스. 내 말에 반박하지도 말고, 끼어들지도 말게! 때가 올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말이야. 볼드모트 경이 그 뱀의 목숨을 염려할 때가 올 거야.”

“내기니 말입니까?”

스네이프는 화들짝 놀란 얼굴이었다.

“그렇지, 만약 볼드모트가 더 이상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뱀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대신 그 뱀에게 보호 마법을 걸고 자기 곁에 안전하게 두려고 하는 때가 오면, 내 생각에 그때는 해리에게 말해도 괜찮을 걸세.”

“그에게 무슨 말을 하란 겁니까?”

덤블도어는 심호흡을 하더니 눈을 감았다.

“볼드모트 경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에 대해 그 아이에게 얘기해 주게. 릴리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자신의 목숨을 방패 삼아 내던졌을 때, 살인 저주가 볼드모트 경에게로 다시 풍겨 나갔다는 것을 말일세. 그리고 볼드모트의 영혼이 일부 떨어져 나갔고, 그 무너져 버린 집에 살아 있는 유일한 영혼에 달라붙었다는 사실을 말일세. 볼드모트 경의 일부가 해리 안에 살아 있다네. 그래서 해리에게 뱀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지. 그리고 볼드모트 경과의 정신적인 연결도 가능한 것이고. 물론 해리 자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야. 볼드모트가 알아차렸듯이, 그 영혼의 일부가 해리에게 달라붙어서 해리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한, 볼드모트는 결코 죽을 수 없다네.” 해리는 마치 긴 동굴의 한쪽 끝에서 두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만이 귓가에서 기이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러면 그 녀석은, 그녀석은 끝내 죽어야만 하나요?”

스네이프가 아주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볼드모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만 하네, 스네이프. 그게 핵심이지.” 또다시 긴 정적이 감돌았다. 이윽고 스네이프가 말문을 열었다.

“저는.....요 몇 년간 줄곧.....그녀를 위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릴리를 위해서요.”

“우리는 그 아이를 보호해 왔네.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가르치고 성장시켜, 그 아이가 자신의 힘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야.”

덤블도어가 여전히 눈을 꼭 감은 채로 대답했다.

“그러는 사이, 그들 간의 연결은 훨씬 더 강력해졌어. 기생적인 성장 말일세. 이따금 나는 그 아이가 스스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 어쨌든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라면, 그 아이는 자신의 죽음과 대면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그것이 곧 볼드모트의 진정한 죽음이 되도록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 놓을 걸세.”

덤블도어가 깜았던 눈을 뜻다. 스네이프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그 아이가 적당한 순간에 죽을 수 있게 하려고 지금껏 그를 보호해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너무 놀라지 말게, 세베루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자네가 지켜보았는데 그러는 건가?”

“하지만 근래에는 오직 제가 구해내지 못한 사람들뿐입니다.”  
스네이프가 이렇게 대답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당신은 저를 이용하셨군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저는 당신을 위해 첨자 노릇을 했고, 당신을 위해 거짓말을 했고, 당신을 위해서 제 자신을 죽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오직 릴리 포터의 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제게 마치 도살용 돼지처럼 그를 키워 왔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이거 참으로 감동적이군, 세베루스.”

덤블도어가 진지하게 말했다.

“결국, 자네는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나 보군?”

“그 녀석을요?”

스네이프가 소리쳤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그의 지팡이 끝에서 은빛 암사슴이 치솟았다. 그것은 교장실 바닥에 내려앉더니, 한달음에 교장실을 가로질러 창밖으로 뛰어나갔다. 덤블도어는 패트로누스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것의 은빛 광채가 희미해지자, 덤블도어는 다시 스네이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결국 이제야?”

“항상 그랬습니다.”

스네이프가 말했다.

이윽고 장면이 바뀌었다. 이제 해리는 스네이프가 책상 뒤편에 걸린 덤블도어의 초상화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자네는 볼드모트에게 해리가 그의 이모와 이모부의 집에서 출발하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 주어야만 할 거야.”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심이 커질 걸세. 볼드모트는 자네가 아주 정보에 훤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일세. 하지만 자네는 반드시 유인책을 미리 세워 놓아야 하네. 아마 그렇게 하면 해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걸세. 먼던구스 플레처에게 혼동 마법을 걸어 보도록 하게. 그리고 세베루스, 만약 자네가 추격에 가담하게 되면, 반드시 자네가 맡은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게나..... 나는 자네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볼드모트 경의 총애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네. 그렇지 않으면 호그와트는 캐로우 남매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될 테니.....”

이제 스네이프는 낯선 술집에서 먼던구스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먼던구스의 얼굴은 기묘하게 얼빠진 듯한 표정이었고, 스네이프는 정신을 집중하느라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다.

“자네는 불사조 기사단에 제안하는 거야.”

스네이프가 중얼거렸다.

“유인책을 사용하자고 말이야. 폴리주스 마법약. 똑같이 생긴 포터들. 먹힐 만한 건 그것뿐이야. 자네는 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걸 잊게 될거야. 자네는 마치 자네 생각인 것 처럼 그 계획을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잘 알았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으로 먼던구스가 웅얼거렸다.

이제 해리는 스네이프와 나란히 빗자루를 타고 맑고 어두운 밤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는 두건을 쓴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쪽에는 루핀과, 실제로는 조작인 해리가 날고 있었다.....죽음을 먹는 자 한 명이 스네이프를 앞질러 갔고, 즉시 지팡이를 들어 곧바로 루핀의 등을 가리켰다.

“섹툼센프라!”

스네이프가 소리쳤다.

그 주문은 죽음을 먹는 자의 지팡이를 든 손을 겨냥한 것이었으나, 빗나가서 대신 조지를 맞혔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스네이프는 시리우스의 옛 침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가 릴리로부터 온 옛날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휘어진 코에서는 눈물이 똑똑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고작 몇 줄밖에 적혀있지 않았다.

어떻게 걸러트 그린델왈드와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틸다가 그만 망령이 난 것 같아!

사랑을 듬뿍 담아. 릴리.

스네이프는 릴리의 서명과, 그녀의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를 챙겨 망토 속에 집어 넣었다. 그러고 나서 역시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반으로 찢더니, 릴리가 웃고 있는 부분은 간직하고, 제임스와 해리가 나온 부분은 다시 바닥에 내던졌다. 그 사진은 서랍장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스네이프는 다시 교장의 사무실에 서 있었다. 마침 피니어스 나이젤러스가 자기 액자 속으로 허둥지둥 돌아왔다.

“교장 선생! 그 녀석들이 딘의 숲에서 야영을 하고 있고! 그 잡종.....”

“그 단어는 쓰지 마시오!”

“.....그럼. 그레인저 계집이 구슬 백을 열면서 그 장소를 말하는 걸 내가 들었소!”

“좋아요, 정말 잘됐군!”

교장의 의자 뒤에서 덤블도어의 초상화가 외쳤다.

“자, 세베루스! 그 칼을! 그 칼은 반드시 꼭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리고 그 아이는 자네가 그 칼을 주었다는 사실을 몰라야하네! 행여 볼드모트가 해리의 마음을 읽고 자네가 그 아이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저도 압니다.”

스네이프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리고 덤블도어의 초상화로 다가가더니, 액자 가장자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액자가 앞쪽으로 열리면서, 그 뒤에 숨어 있던 웅푹한 구멍이 드러났다. 스네이프는 거기에서 그리핀도르의 칼을 꺼냈다.

“그리고 교수님은 여전히, 포터에게 이 칼을 전해 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실 거지요?”

옷 위에 다시 여행용 망토를 뒤집어쓰며 스네이프가 말했다.

“안 돼네, 안 될 것 같네.”

덤블도어의 초상화가 말했다.

“그 아이는 그걸로 뭘 할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세베루스. 아주 조심해야 하네. 그 아이들은 조지 위즐리의 사고 이후로는 자네가 나타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걸세.”

스네이프는 문간에서 돌아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덤블도어 교수님.”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곧 스네이프는 방을 떠났다. 해리는 위로 봉 떠오르면서 펜시브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정확히 같은 방의 카펫 깔린 바닥에 누워있었다. 마치 스네이프가 방금 전에 방문을 닫고 나간 것 같았다.

### 제 34 장 다시 숲에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해리는 한때 자신이 승리의 비밀을 전수받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교장실의 먼지 끈 카펫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할 일은 활짝 벌린 죽음의 품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정해진 길을 따라서, 그는 볼드모트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끈들을 제거해야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스스로 몸을 던져 볼드모트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지팡이를

들어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을 때, 모든 일이 깨끗하게 끝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때 비로소, 고드릭 골짜기에서 끝난어야만 했던 그 일이 마무리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살아 있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해리는 자신의 심장이 가슴팍에서 거세게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훨씬 더 세차게 고동치며 용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니, 이 얼마나 묘한 일인가? 하지만 그의 심장은 멈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도 조만간. 심장이 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가 몸을 일으켜 마지막으로 성을 걸어나가고, 운동장을 지나서 숲속으로 들어갈 때 까지, 과연 몇 번이나 더 뛸 수 있을까?

해리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공포가 장례식의 북소리를 울리며 물밀듯이 엄습해 왔다. 죽는 것은 고통스러울까? 그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런 때에도 죽음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삶에 대한 의지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볼드모트로부터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남아 있는 것이라곤 오직 죽음, 그것뿐이었다.

차라리 마지막으로 프리벳가 4번지를 떠나던 그 여름밤에 죽었더라면! 고귀한 불사조 깃털 지팡이가 생명을 구해 주었던 그날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해드위그처럼 죽었더라면, 너무 순식간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을 텐데.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지팡이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더라면.... 이제 해리는 부모님의 죽음마저 부러울 지경이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냉혹한 걸음은 또 다른 종류의 용기를 요구했다. 해리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벽에 걸린 초상화들은 모두 텅 비어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썻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리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더욱더 생생하게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꼈고, 예전의 그 어느때보다도 살아 있는 자신의 몸을 선명히 의식했다. 어째서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뇌와 감각이 고동치는 심장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단 한번도 깨닫지 못했던가? 이제 곧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의 호흡은 차츰 깊고 느려졌으며, 그의 입과 목구멍은 바짝 말라 버렸고, 그의 눈도 마찬가지였다.

덤블도어의 폭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연히 더 커다란 계획이 존재했던 것이다. 단지 해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었기에,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는 이제껏 덤블도어가 자신이 살아남길 바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그는 자신의 수명이 줄곧, 호크룩스들을 모두 없애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에 따라 좌우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덤블도어는 호크룩스를 파괴하는 임무를 그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고분고분하게 단지 볼드모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매듭을 계속해서 조금씩 깎아먹어 왔던 것이다! 이 얼마나 교묘하고 우아한 술책인가! 괜히 또 다른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어차피 도살당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아이에게 그런 위험한 임무를 맡기다니 말이다. 그의 죽음은 커다란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볼드모트에 대한 또 한번의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

게다가 덤블도어는 해리가 꼽무니를 빼지 않으리라는 것을, 끝까지, 설령 그것이 곧 자신의 끝이라고 해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덤블도어는 해리, 그를 알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던가? 볼드모트가 알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덤블도어는 알고 있었다. 해리가 자신에게 그 일을 멈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결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죽어서 대연회장에 누워 있던 프레드와, 루핀, 그리고 통스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다시 물밀듯이 밀려왔고, 그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그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그는 실패했다. 아직도 그 뱀은 살아 있다. 심지어 해리가 죽음을 당한 후에도, 하나의 호크룩스가 남아서 볼드모트를 이 지상에 끓어 둘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좀 더 쉬운 임무 한가지를 남긴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는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물론 론과 헤르미온느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덤블도어는 해리가 그 두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가 자신의 참된 운명을 조금 빨리 맞이하게 될 경우에, 그들이 그 임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들이 차가운 유리창 위에 떨어지는 빗줄기처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단단한 표면위로 후드득 떨어졌다. 그 진실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죽어야만 한다. 그것은 끝나야 한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아주 멀고 먼 나라에 떨어져 있는 듯했다. 해리는 마치 오래전에 그들을 떠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작별 인사도, 어떤 설명도 없을 것이다. 그 점만은 확실했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할 수 없는 여행이었다. 그들은 해리를 말리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겠지만, 그것은 괜히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짓이 될 것이다. 해리는 열 일곱 번 째 생일날 받은 낡은 금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행복할 때까지 볼드모트가 기다리기로 했던 시간이 반 가까이 지났다.

해리는 일어섰다. 심장이 갈비뼈 속에서 광분한 새처럼 날뛰고 있었다. 아마도 심장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리하여 끝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만큼의 박동수를 채울 작정인 듯했다. 그는 교장실 문을 닫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성은 텅 비어 있었다. 홀로 성안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해리는 마치 자신이 이미 죽어서 유령이라도 된 듯 한 기분이었다. 초상화 속의 인물들은 여전히 액자를 비우고 있었다. 성 전체가 섬뜩하리만치 고요했다. 마치 성안에 남아 있는 모든 생명력이 죽은 자와 애도하는 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대연회장에 집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쓰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 복도로 통하는 대리석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어쩌면 자신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눈에 띄기를, 그래서 누군가 보고 자신을 막아 주길 바랐는지도 모르지만, 투명 망토는 언제나 그랬듯이 결코 깨뚫어 볼 수 없었고 완벽했기에, 그는 쉽사리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네빌이 거의 부딪힐 듯이 그의 앞으로 걸어 들어왔다. 네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장에서부터 한 구의 시신을 운반해 오고 있는 중이었다. 힐끗 밑을 내려다본 해리는 또 한 번 배에 둔탁한 충격을 느꼈다. 콜린 크리비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포이나 크레이브, 고일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몰래 다시 돌아왔던 것이 분명했다. 죽어 버린 그의 몸뚱이는 조그마했다.

“저기 말이야. 나 혼자서도 그를 들고 갈 수 있을 거 같아, 네빌.”

올리버 우드는 이렇게 말하더니, 소방관처럼 콜린을 어깨에 들쳐 매고 대연회장으로 갔다.

네빌은 잠시 문설주에 기대서서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의 모습이 마치 늙은이 같았다. 이윽고 네빌은 다시 계단을 내려가 또 다른 시신을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해리는 대연회장 입구를 한 번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죽은 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헤르미온느나 론, 지니, 혹은 다른 위즐리네 식구나 루나의 모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그들을 볼 수 있다면, 그에게 남아 있는 모든 시간을 바쳐도 아깝지 않으리라. 하지만 일단 그러고 나면, 그가 무슨 힘으로 그들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편이 나았다.

해리는 계단을 내려가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새벽 네시가 거의 다 되었다.

죽음 같은 정적에 훨씬 운동장은 마치 해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해리는 또 다른 시신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네빌을 향해 다가갔다.

“네빌”

“젠장, 해리.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잖아!”

해리는 투명 망토를 벗었다. 난데없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모든 걸  
완벽하게 확실히 해 두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너 혼자서 어딜 가고 있니?”

네빌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이건 다 계획의 일부야.”

해리가 말했다.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잘들어 네빌”

“해리!”

네빌이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해리, 너 혹시 자진해서 투항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해리는 선뜻 거짓말이 나왔다.

“절대로 아냐.....이건 다른 일 이야. 하지만 내가 잠깐 안보일지도  
몰라. 너, 볼드모트의 뱀 알지, 네빌? 그자에게는 거대한 뱀이  
있어.....내기니라고 하는.....”

“응, 나도 들어 봤어.....그게 왜?”

“그걸 꼭 죽여야 해. 론과 헤르미온느도 그걸 알고 있어. 하지만 만약 그  
애들이.....”

그런 끔찍한 가능성은 생각만 해도 해리는 숨이 탁 막혀서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었고,  
그는 반드시 덤블도어처럼 되어야만 했다. 냉정을 유지하고, 대리인들, 즉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 갈 다른 사람들을 확실히 마련해 놓아야만 했다.  
덤블도어는 자신 이외에 세 사람이 호크룩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죽었다. 이제 네빌이 해리의 자리를 대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세 사람이 남게 될 것이다.

“혹시 그 애들이.....바쁘다거나.....네가 만약 그럴 기회가  
생기면.....”

“뱀을 죽여?”

“뱀을 죽여.”

해리가 되풀이했다.

“알았어, 해리. 너 괜찮지, 그치?”

“괜찮아. 고마워, 네빌.”

하지만 해리가 그만 떠나려고 하자, 네빌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우리 모두 계속 싸울 거야. 해리. 너도 그거 알지?”

“그래, 나도.....”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벅찬 감정에 말끝이 흐려졌다. 해리는 더 이상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네빌은 그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저  
해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니 그의 손을 놓고는 다른 시신들을 찾기 위해 가  
버렸다.

해리는 다시 투명 망토를 덮어쓰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땅 위에 엎드려 있는 어떤 사람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몇걸음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서야 해리는 그 사람이  
지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리는 그만 가던 길을 멈추었다. 지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엄마를 찾는 여자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

지니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가 널 안으로 데리고 가 줄께.”

“하지만 난 집에 가고 싶어.”

여자 아이가 속삭였다.

“난 더이상 싸우고 싶지않아.”

“나도 알아.”

대답하는 지니의 목소리가 갈라져나왔다.

“다 잘될 거야.”

해리는 한기가 온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그는 어둠을 향해 소리쳐 외치고 싶었고,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니가 알기를 바랐다. 그는 누군가 불잡아 주기를 바랐고, 억지로 도로 끌려가 집으로 돌려보내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집에 있었다. 호그와트는 그가 알았던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집이었다. 그와 볼드모트와 스네이프! 이들 버려진 소년들은 모두가 이곳을 진정한 집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 지니는 부상당한 소년의 손을 꼭 잡고서 무릎을 꽂고 앉아 있었다. 해리는 온 힘을 다해서 간신히 발걸음을 빼었다. 그가 지나가는 순간에 지니가 힐끗 주위를 돌아보는 듯해서 한순간 누군가 걸어가는 걸 알아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났다. 하지만 거기엔 불도 밝혀지지 않았고, 팽이 문을 박박 긁는 소리도, 환영의 뜻으로 짖어 대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해그리드의 집으로 찾아갔던 그 모든 기억들, 불 위에 엎어 놓은 구리 주전자의 광채와 록 케이크와 커다란 굼벵이들, 수염 난 해그리드의 커다란 얼굴, 민달팽이를 토해 내던 론, 노버트를 구하려는 해그리드를 돋던 헤르미온느.....

해리는 계속해서 나아갔고, 숲의 가장자리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추었다.

디멘터 무리가 나무들 사이로 미끄러져 다니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에게는 패트로누스를 불러낼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몸이 덜덜 떨려오는 것조차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엔, 죽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숨을 쉬는 매 순간이, 풀 냄새와 얼굴에 닿는 시원한 공기가 너무나 소중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고 느낄 만큼 술한 세월이, 허송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반면, 지금 자신은 1분, 1초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어쩌면 자신이 계속 나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나긴 게임이 끝났고, 스니치는 잡혔다. 이제 공중에서 내려올 시간인 것이다.....

스니치, 문득 무감각해진 손가락들이 목에 건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리고 해리는 그것을 꺼냈다.

나는 끝에서 열린다.

해리는 가쁜 숨을 쉬며 그것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가능한 한 느리게 가길 바라자, 어쩐지 시간이 더 빠르게 속력을 내는 것 만 같았다.

더불어 그의 이해력도 너무 빨라져서 생각을 건너뛰는 듯 했다. 지금이 바로 끝이었다. 지금이 그 순간인 것이다.

그는 황금빛 금속 덩어리를 입술에 바짝 대고는 속삭였다.

“나는 이제 죽으려 한다.”

순간 금속 껌데기가 쪼개지며 딱 벌어졌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밑으로 내리고, 망토 아래에서 드레이코의 지팡이를 들고 낮게 주문을 외웠다.

“루모스.”

둘로 쪼개진 스니치 속에는 가운데 부분을 따라 삐죽삐죽하게 금이 간 검은 돌이 놓여 있었다. 부활의 돌은 딱총나무 지팡이를 상징하는 수직선을 따라 금이 갔던 것이다. 투명 망토와 부활의 돌을 상징하는 삼각형과 원은 여전히 식별이 가능했다.

이제 해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단박에 이해했다. 이것은 그들을 불러들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해리가 그들에게 합류하려고 하는 참이었기 때문이었다. 해리가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해리를 불러내고 있었다.

해리는 눈을 감고 돌을 손안에서 세 번 뒤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곧 숲가장자리를 나타내는, 나뭇가지들이 흔들어져 있는 훑바닥 위로 쇠잔한 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잇음을 뜻했기 때문이다. 해리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유령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진짜 육신도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기장으로부터 빠져나왔던 리들과 흡사했는데, 리들은 만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기억이었던 것이다. 살아 있는 육신처럼 실체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유령보다는 훨씬 더 실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들은 해리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 모두 똑같이 애정 어린 미소를 가득 띠고 있었다.

제임스는 해리와 키가 똑같았다. 그는 죽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단정치 못하게 헝클어져 있었으며, 안경은 위즐리 씨의 것처럼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시리우스는 키가 훤칠했고 잘생겼으며, 생전에 해리가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놓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서 태평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루핀도 마찬가지로 생전보다 훨씬 더 젊고 덜 추레했으며, 머리카락은 숲이 더 많고 검었다. 그는 이 정든 장소에, 사춘기 시절의 그 술한 방황을 겪었던 현장에 돌아온 것이 기쁜 표정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릴리가 가장 밝게 미소짓고 있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해리에게 다가왔는데, 해리의 눈과 대단히 흡사한 그녀의 초록색 눈은 아들의 얼굴을 열심히 살폈다. 마치 아무리 쳐다봐도 성에 차지 않는 듯 했다.

“넌 너무나도 용감했어.”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마음껏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영원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서 있고 싶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제임스가 말했다.

“거의 다 왔어. 우리는.....네가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그건 아픈가요?”

미쳐 막을 겨를도 없이,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 해리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죽는 거 말이야? 전혀 아니야. 잠드는 것보다도 더 빠르고 간단하지.”

시리우스가 말했다.

“그자는 빨리 해치우고 싶어 할 거야. 그자는 그 일이 끝나길 바라고 있어.”

루핀이 말했다.

“저는 당신이 죽길 바라지 않았어요.”

해리가 말했다.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요. 죄송해요.....”

해리는 그들 중의 누구보다도 루핀을 향해서 간절히 말했다.

“아들을 보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리무스 정말 미안해요....”

“나도 안타깝단다.”

루핀이 말했다.

“난 절대로 그 아이를 알 수 없을 테니 말이야.....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부디 그 애가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란다. 나는 그 아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그때 숲의 심장부로부터 퍼져 나오는 것 같은 차가운 바람이 이마에 난

잔털까지 곤두서게 만들었다. 해리는 그들이 자신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그것은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 곁에 계실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임스가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들을 볼 수 없겠죠?”

해리가 물었다.

“우리는 너의 일부란다.”

시리우스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

해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제 곁에 있어 주세요.”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이윽고 그는 발길을 옮겼다. 디멘터의 냉기도 그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는 길동무들과 함께 디멘터들의 냉기를 뚫고 지나갔고, 그들은 마치 패트로누스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그들은 너무나 빽빽하게 자라서 가지가 뒤엉키고 뿌리가 뒤틀리고 옹이가 진, 늙은 나무들 사이를 다 함께 뚫고 나아갔다. 해리는 어둠 속에서 투명 망토를 단단히 여미고, 점점 더 숲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볼드모트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해리는 그를 발견할 거라고 확신했다. 한편 그의 곁에서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며, 제임스와 시리우스, 루핀 그리고 릴리가 걷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이제 기묘하게 단절된 느낌이었다. 그의 사지는 의식적인 지시도 받지 않고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머잖아 떠나게 될 자신의 몸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이 된 듯했다. 숲을 헤치며 그와 나란히 걷고 있는 죽은 자들이, 지금 그에게는 성안에 살아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의 삶의 끝을 향해, 볼드모트를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론과 헤르미온느, 지니,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유령처럼 느껴졌다.....

쿵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살아 있는 생명체가 근처에서 움직인 것이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쓴 채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루핀과 시리우스도 마찬가지로 걸음을 멈추었다.

“저기 누군가 있어.”

바로 가까이에서 거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녀석은 투명 망토를 갖고 있어. 그렇다면 혹시 그게.....”

이윽고 두 사람의 모습이 근처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그들의 지팡이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다. 해리는 악슬리와 돌로호브가 어둠 속을, 자신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시리우스와 루핀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악슬리가 말했다.

“짐승이겠지, 안 그래?”

“그 정신 나간 해그리드 놈이 이 안에 온갖 짐승들을 다 풀어 놨단 말이야.”  
돌로호브가 어깨 너머를 결눈질하며 말했다.

악슬리는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 포터 녀석도 끝낫군. 그 녀석은 오지 않아.”

“그런데도 그분은 그 녀석이 올 거라고 확신하셨잖아! 그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만 돌아가 보는 게 좋겠어.”

악슬리가 말했다.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고.”

그들은 발길을 돌려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해리는 두 사람이 정확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임을 깨닫고 그들을 쫓아갔다. 힐끗

옆을 바라보니, 어머니는 그를 향해 미소지었고, 아버지는 격려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도 채 지나지 날아, 해리 앞에 불빛이 보였다. 악슬리와 돌로호브는 한때 무시무시한 아라고그가 살았던 그 공터 안으로 들어섰다. 아라고그의 드넓은 거미줄의 잔해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자손들은 죽음을 먹는 자들에 의해 밖으로 내몰려서 그자들의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공터 한복판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었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바싹 경계하고 있는 죽음을 먹는 자들의 무리 위로 불빛이 너울거렸다. 그들 중 몇 명은 여전히 복면과 두건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명의 거인이 무리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바위처럼 울퉁불퉁하고 잔혹한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편 펜리 그레이백이 농땡이를 치며 긴 손톱을 깨물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덩치 큰 금발의 라울은 피가 흐르는 입술을 가볍게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루시우스 말포이와 눈이 움푹 깨지고 수심에 잠긴 나시사도 보였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볼드모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딱총나무 지팡이 위로 새하얀 두 손을 포개고 서 있었다. 어쩌면 그는 기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해리는 공터 가장자리에 조용히 선 채, 어이없게도 술래잡기 놀이에서 숫자를 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볼드모트의 머리 뒤로는 여전히 땋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뱀 내기니가 괴기스러운 후광처럼 반짝이는 마법의 우리 안에 둥둥 떠있었다.

돌로호브와 악슬리가 원을 그리며 서 있는 무리 속으로 복귀하자, 볼드모트가 고개를 들었다.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주인님.”

돌로호브가 말했다.

볼드모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불빛에 비친 빨간 두 눈은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딱총나무 지팡이를 긴 손가락들 사이에서 잡아 뺏다.

“주인님.....”

벨라트릭스가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볼드모트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에서 피가 약간 나긴 했지만, 달리 다친 곳은 없는 듯 했다.

볼드모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벨라트릭스는 입을 다물고, 황홀한 눈빛으로 숭배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올거라고 생각했다.”

볼드모트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높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올 거라고 기대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해리만큼이나 겁에 질린 듯 했다. 이제 해리의 심장은, 마치 머잖아 버림받을 몸뚱이로 부터 달아나려고 작심한 듯, 가슴속에서 사정없이 고동치고 있었다. 투명 망토를 벗어 지팡이와 함께 망토 아래에 쑤셔 넣는 동안, 해리의 손에서는 땀이 흘렀다. 그는 혹시라도 싸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걸 원치 않았다.

“내가 아마도.....실수한 모양이다.”

볼드모트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해리는 잇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부활의 돌이 무감각해진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고, 불빛쪽으로 다가가던 해리는 부모님과 시리우스와 루핀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볼드모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중요치 않았다. 오직 그들 두 사람 뿐이었다.

그 망상은 생겨날 때만큼이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일제히 일어서자 거인들이 으르렁거렸으며, 수많은 함성과 숨을 삼키는 소리,

심지어 웃음소리마저 들려왔다. 볼드모트는 서 있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붉은 눈은 해리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오직 모닥불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때 웬 목소리가 외쳤다.

“해리! 안 돼!”

해리가 고개를 돌렸다. 해그리드가 포박당한 채, 근처 나무에 묶여 있었다. 몸집이 큰 해그리드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자 머리 위의 나뭇가지가 마구 흔들렸다.

“안 돼! 안 돼! 해리, 뭐 하는 거.....”

“조용!”

라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를 까딱하자, 해그리드는 잠잠해졌다. 그때 벨라트릭스가 벌떡 일어서더니, 가슴을 들썩이며 열에 들뜬 눈빛으로 볼드모트와 해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 움직이는 것이라곤 오직 불꽃과, 볼드모트의 머리위로 반짝이는 우리 안에서 뜬리를 틀었다 풀었다 하는 뱀 뿐이었다.

해리는 가슴팍에서 지팡이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뱀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지팡이로 내기니를 겨냥한다면, 50 개의 저주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볼드모트와 해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볼드모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소년을 골똘히 관찰하느라 고개를 옆으로 약간 기울이고 있었다. 입술이 없는 그의 입가에 기묘하게 음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해리 포터.”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탁탁 타오르는 모닥불소리의 일부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살아남은 아이.”

죽음을 먹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온 세상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벨라트릭스는 숨을 헐떡거렸다. 한편 해리는 이해할 수 없게도 지니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눈부신 모습을, 그리고 입술에 달던 그 입술의 감촉을.....

볼드모트가 지팡이를 들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리하느라, 그의 머리는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여전히 겨우뚱 기울어져 있었다. 해리는 빨간 두 눈을 쏘아보며, 그 일이 바로 지금, 어서 빨리 벌어지기를 바랐다. 그가 아직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그가 자제력을 잃기 전에, 그가 두려움을 드러내기 전에.....

해리는 그 입이 움직이는 것을, 초록색 불빛이 번쩍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 제 35 장 킹스 크로스

그는 가만히 엎드린 채, 정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거기에 정말 혼자 있는 것인지 완벽하게 확신할 수가 없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아니 어쩌면 아예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이 존재하는 게 분명하다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정신 이상의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다. 왜냐하면 누워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히 어떤 표면위에 누워 있었다. 그에게는 촉감이 있는 것이고, 그가 몸을 대고 누워 있는 그 무언가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하지만 자신이 완벽하게 혼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걱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자신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볼 수도 있을까 궁금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자신이 눈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환한 안개 속에 누워 있었다. 물론 그것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안개와도 달랐다. 그의 주변은 그 구름 같은 증기로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구름 같은 증기가 아직 주변 환경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가 누워 있는 바닥은 하얀색인 것 같았는데,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잊으면서, 그 위에 무언가 존재할 수 있도록 비어 있는 평평한 무엇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다친 곳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 보았다. 더 이상 안경을 끼고 있지 않았다.

그때 그를 둘러싼 무정형의 무(無)를 뚫고 무슨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파닥거리면서 짓찧고 몸부림치며 내는 작고 미약한 고동소리였다. 듣기에 애처롭기도 했으나, 동시에 약간 추잡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소리를 엿듣고 있는 것만 같아서 깨름칙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그는 옷을 입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가 머릿속에서 그런 소원을 떠올리자마자, 멀지 않은 곳에 옷가지가 나타났다. 그는 옷을 집어서 몸에 걸쳤다. 그것은 부드럽고 깨끗했으며 따뜻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처럼 옷이 나타난 건지 놀라울 때를이었다.

그를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거대한 필요의 방에 와 있는 것일까? 바라보면 볼수록, 점점 더 눈에 띄는 것도 많아졌다. 머리 위로는 높이 솟은 거대한 반구형 유리 천장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아마도 이곳은 궁전인 것 같았다. 안개 속 가까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 기이한 쿵쿵 소리와 낑낑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정지되어 있었다.....

그는 제자리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다. 주변의 풍경이 그의 눈앞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 같았다. 탁 트인 공간은 밝고 깨끗했는데, 대연회장보다도 훨씬 넓었으며, 투명하고 둥근 유리 천장이 덮여 있는 회당 같았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단 한가지를 제외한다면.....

그는 무심코 뒷걸음질을 쳤다. 그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의 정체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것은 벌거벗은 조그만 어린아이의 형상을 하고서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마치 살갗이 벗겨진 듯 거칠고 빨간 살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한 의자 밑에, 아무도 바라는 이 없이 보이지 않게 버려진 채, 숨을 쉬기 위해서 악착같이 용을 쓰며 떨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두려웠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며 부상을 입었을 지라도, 결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라도 뒤로 물러설 태세를 갖추고 천천히 다가갔다. 곧 그것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섰지만, 그는 그렇게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자신이 겁쟁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것을 위로해 줘야 마땅했지만, 그것은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넌 도울 수 없단다.”

그는 몸을 훑 돌렸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활기차고 꽂꽃한 모습의 덤블도어는 바닥까지 끌리는 암청색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해리!”

덤블도어가 두 팔을 활짝 벌렸다. 그의 손은 양쪽 모두 다친데 하나 없이 온전하고 하였다.

“요 놀라운 녀석. 용감무쌍한 사나이 같으니라고. 좀 걷자꾸나.”

덤블도어가 살갗이 벗겨진 채 누워서 낑낑대고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성큼성큼 걸어가 버리자, 해리는 어리둥절해서 그 뒤를 쫓아갔다. 덤블도어는 해리가 미처 잇는 줄도 알아채지 못했던 두 개의 의자 쪽으로 그를 인도했다. 그 의자들은 반짝거리는 드높은 천장 아래 약간 거리를 두고 놓여 있었다.

덤블도어가 그중 하나에 앉자, 해리는 늙은 교장 선생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른 의자에 앉았다. 덤블도어의 긴 은색 머리카락과 턱수염, 반달 모양의 안경을 너머에 있는 깨뚫을 듯한 파란 두 눈과 휘어진 코,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교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해리가 말했다.

“오오, 그렇지.”

덤블도어가 덤덤하게 말했다.

“그럼.....저도 죽은 거죠?”

“아하!”

더욱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게 궁금했구나,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요 녀석아, 꼭 그런건 아닌것 같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바라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니라고요?”

해리가 물었다.

“그래, 아니야.”

덤블도어가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본능적으로 한 손을 들어 자신의 번개 모양 흉터로 가져갔다. 웬지 흉터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전 죽어야만 했어요. 전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자가 저를 죽이도록 내버려 둘 작정이었다고요!”

“내 생각엔,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은 것 같구나”

덤블도어가 말했다.

기쁨이 덤블도어로부터 빛처럼, 혹은 불길처럼 마구 뿜어 나오는 것 같았다. 해리는 그처럼 순수하게, 그처럼 드러내 놓고 만족스러워 하는 덤블도어의 모습을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설명해 주세요.”

해리가 부탁했다.

“하지만 너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덤블도어가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저는 그가 저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해리가 말했다.

“아닌가요?”

“물론 그랬지.”

덤블도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계속 말해 보렴!”

“그래서 제 안에 있던 그의 영혼의 일부가.....”

덤블도어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해리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부추겼다. 그의 얼굴에는 격려하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라졌나요?”

“오오 그렇단다!”

덤블도어가 대답했다.

“그래, 그자가 그것을 파괴했지. 이제 너의 영혼은 온전하고 완전히 네것이란다, 해리”

“그런데 저건.....”

해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 조그만 생명체가 의자 밑에서 떨고 있는 쪽을 어깨 너머로 힐끗 쳐다보았다.

“저건 뭔가요, 교수님?”

“저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이란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볼드모트가 살인 저주를 썼다면.....”

해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위해 대신 죽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넌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덤블도어가 말했다.

“곰곰이 돌이켜 보렴. 그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탐욕과 잔혹함에 눈에 멀어 무슨 짓을 했는지.”

해리는 생각했다. 그리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만약 그들이 앓아 있는 곳이 정말로 궁전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기묘한 궁전이었다. 의자들 몇개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여기저기 철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해리와 덤블도어, 의자 밑에 있는 자라다 만 생명체가 그곳에 있는 전부였다. 바로 그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입에서 선뜻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는 제 피를 뽑아 갔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덤블도어가 맞장구를 쳤다.

“그자는 네피를 뽑아서 그걸로 자신의 살아있는 육신을 다시 만들었어! 너의 피가 그자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면서, 해리. 릴리의 보호마법이 너희 두 사람 모두의 몸속을 흐르게 된 거란다! 결국 그자가 살아 있는 한, 그자는 너의 생명을 붙잡아 두고 있는 셈이야!”

“제가 살아 있단 말인가요? 그자가 살아 있는 동안요? 하지만 저는 .....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우리 두 사람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도 결국 마찬가지인 가요?”

해리는 뒤쪽에서 괴로워하며 깅낑거리고 팔딱거리는 생명체의 소리에 이끌려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게 분명한가요?”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설명해 주세요 ..... 좀 더요.”

해리가 조르자, 덤블도어가 미소 지었다.

“너는 바로 일곱번째 호크룩스 였단다, 해리. 사실 그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호크룩스는 결코 아니었어. 다만 자신의 영혼을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자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 즉 네 부모님을 죽이고 어린아이 마저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동안,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 버렸던 거란다. 결국 그 방에서 달아난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거기에 남겨 두고 떠난 것이지. 그의 일부가 너에게, 바로 희생양이 될뻔했지만 살아남은 아이에게 달라붙은 거야. 그리고 그의 지식은 끝까지 가여울 만큼 불완전 했단다, 해리! 볼드모트가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절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 점에 있어서 말이다. 볼드모트는 집요정이나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랑과 신의와 순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단다. 아무것도 말이야. 그런 것들 모두가 그를 능가하는 힘을, 모든 마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자가 결코 깨닫지 못했던 진실이었어.

그자는 자신을 강력하게 해 줄거라고 믿고서 네 피를 빼앗았단다.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 죽으면서 너에게 부여해 준 마법의 아주 작은 부분을 자기 몸에 받아들인 것이지. 그러므로 그의 몸은 네 어머니의 희생을 여전히 살아 있는 채로 간직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 마법이 살아남는 한 너도 살아남고, 볼드모트 자신에 대한 마지막 희망 역시 살아남을 거란다. “

덤블도어가 해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해리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교수님은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출곧 ..... 알고 계셨어요?”

“짐작했던 거지. 하지만 대개 내 짐작은 아주 잘 들어맞아왔단다.”

덤블도어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길게 느껴지는 시간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편 그들 뒤에 있는 생명체는 계속해서 몸을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해리가 입을 열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어째서 제 지팡이가 그가 빌린 지팡이를 부러뜨렸던 거죠?”

“거기에 대해선 나도 확실치 않다.”

“그럼, 짐작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해리가 다그치자 덤블도어는 웃음을 터트렸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해리. 너와 볼드모트 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고, 입증된 적도 없는 마법의 영역까지 함께 지나왔다는 사실이야. 물론 내 나름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짐작하는 바는 있지. 하지만 그것은 유례없는 일이었어. 그러니 내 생각엔, 그 어떤 지팡이 제작자도 그런 일을 예상하거나 볼드모트에게 설명해 줄 수는 없었을 게다.

이제 너도 알고 있듯이, 볼드모트 경은 인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본의 아니게 너희 두 사람 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 버렸지. 그의 영혼의 일부가 여전히 네 영혼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자는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목적으로 네 어머니의 희생의 일부를 자기 안에 받아들였던 거야. 만약 그가 그 희생의 명확하고 끔찍한 위력을 이해할 수만 있었더라면, 감히 네 피를 건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텐데 말이야.....하지만 만약 그자가 그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애당초 볼드모트 경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듯 이중의 결속이 확실이 맺어지고, 역사상 그 어떤 마법사들보다도 더욱 굳건하게 너희 두 사람의 운명이 함께 얹혀 있는 상태에서, 볼드모트는 계속해서 너의 지팡이와 똑같은 심으로 만들어진 지팡이로 너를 공격했던 거지. 그러자 그때, 너도 알다시피, 무언가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졌단다. 두 개의 지팡이 심이 볼드모트 경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일으킨 거지. 그자는 네 지팡이가 자신의 지팡이와 쌍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그날 밤에 그자는 해리, 너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혔단다. 너는 죽음의 가능성을 인정했고, 심지어 기꺼이 받아들였지. 그런데 그런 볼드모트 경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결국 너의 용기가 승리를 거두고, 너의 지팡이가 그의 지팡이를 제압했던 거야. 그러는 와중에, 두 지팡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단다. 두 주인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 주는 일이 말이야. 내 생각에, 그날 밤 네 지팡이는 볼드모트의 지팡이에서 힘과 특징의 일부를 흡수한 것 같다. 말하자면 그 지팡이가 볼드모트의 일부를 포함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자가 너를 쫓아오자, 네 지팡이는 그자를, 동족인 동시에 불구대천의 원수인 그 사람을 알아보았던 거란다. 그리고 그자가 가진 마법의 일부를 바로 그에게 되쏘게 된 거란다. 그건 루시우스의 지팡이가 여태껏 행했던 그 어떤 마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마법이었지. 이제 네 지팡이는 너의 엄청난 용기와 볼드모트의 치명적인 마법기술들을 모두 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루시우스 말포이의 그 보잘것 없는 막대기가 무슨 승산이 있었겠니? “

“그렇지만 제 지팡이가 그렇게 강력했다면, 어째서 헤르미온느가 그걸 부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해리가 물었다.

“애야, 그 지팡이의 놀라운 능력은 오직, 마법의 가장 심오한 법칙들을 그토록 무분별하게 함부로 위반한 볼드모트만을 겨냥한 것이었단다. 오직 그를 향해서만, 그 지팡이는 이례적으로 위력적인 힘을 발휘했던 거야. 그 점을 제외한다면, 그 지팡이 역시 다른 지팡이들과 마찬가지였어. 물론 장담컨데, 좋은 지팡이이긴 했지만.”

덤블도어가 다정하게 말을 마쳤다.

해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니, 어쩌면 단 몇 초 동안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곳에서 시간과 같은 것에 확신을 갖기란 매우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자는 교수님의 지팡이로 저를 죽였어요.”

“그자는 내 지팡이로 너를 죽이는 데 실패했어.”

덤블도어가 해리의 말을 바로잡아 주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네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덤블도는 자신의 말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는 듯 한마디 덧붙였다.

“네가 겪은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란다. 분명 아주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사실 전 그 순간에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해리는 깨끗하고 흠집 하나 없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죠?”

“글쎄, 그건 내가 너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덤블도어가 말했다.

“네 생각에 여기가 어딘 거 같으냐?”

덤블도어가 물기 전까지는 해리는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잇음을 깨달았다.

“여기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킹스 크로스 역 같은데요. 물론 훨씬 더 깨끗하고 한산하다는 점만 빼놓고요. 보아하니, 열차가 한대도 없네요.”

“킹스 크로스 역!”

덤블도어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킬킬거리며 웃었다.

“아이고 세상에나, 정말이냐?”

“글쎄요, 그럼 교수님은 여기가 어딘거 같으세요?”

해리가 조금 자신없는 어조로 물었다.

“요 귀여운 녀석. 나도 모르겠구나. 그들 말로는, 이게 너를 위한 잔치라던데.”

해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덤블도어는 마치 약을 올리려는 것 같았다. 해리는 그를 노려보다가, 문득 지금 그들이 어디 잇는가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긴급한 질문이 떠올랐다.

“죽음의 성물 말이에요.”

해리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말에 덤블도어의 얼굴에서 웃음이 쑥 가시는 것을 보니 흡족했다.

“아, 그래.”

덤블도어는 심지어 약간 걱정스러운 낯빛이었다.

“그건요?”

해리가 그를 만난 이래 처음으로, 갑자기 덤블도어가 평범한 노인보다도 초라하게, 훨씬 더 초라하게 보였다. 한순간 그는 못된 짓을 하다가 붙잡힌 조그만 사내아이 같아 보였다.

“날 용서해 주겠니?”

덤블도어가 물었다.

“널 믿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너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을? 해리, 나는 단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 역시 실패할까 봐 두려웠단다. 내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실수를 너 역시 범할까 봐 걱정이 됐던 거야.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해리. 네가 그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란 걸 나는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해리는 덤블도어의 말투와 갑작스레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서 물었다.

“성물 말이다. 성물”

덤블도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절망한 자의 꿈!”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잖아요!”

“그래, 진짜지.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지. 바보들을 낚는 미끼랄까.”

덤블도어가 말했다.

“내가 바로 그 바보였단다. 하지만 너도 알고 있지. 그렇지 않니? 난 더 이상 너에게 아무 비밀이 없으니까, 너는 알고 있어.”

“제가 뭘 안다는 거죠?”

덤블도어는 몸을 돌려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새파랗게 빛나는 두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죽음의 지배자! 해리, 죽음의 지배자 말이다! 궁극적으로 과연 내가 볼드모트보다는 나은 사람이었을까?”

“그거야 당연하죠”

해리가 대꾸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으세요? 교수님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누굴 죽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이다, 사실이야”

덤블도어가 수긍했다. 그는 마치 안심시켜 주길 바라는 어린아이 같았다.

“하지만 나 역시 죽음을 정복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단다, 해리.”

“하지만 그자가 했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해리가 말했다. 덤블도어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높은 아치 모양의 천장 아래에 앉아서 스스로를 힐난하는 덤블도어를 변호하고 있으려니 기분이 참으로 묘했다.

“성물이지 호크룩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래, 성물이었지.”

덤블도어가 중얼거렸다.

“호크룩스는 아니었어, 정확히 말하자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 뒤에 있는 생몇개가 깽깽거렸지만, 해리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린델왈드도 그것들을 찾고 있었나요?”

해리가 물었다.

덤블도어는 잠깐 동안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이었어.”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똑같은 짐њ을 가진 두 명의 총명하고 오만한 소년들을 말이다. 그린델왈드는 고드릭 골짜기로 오고 싶어 했단다. 분명 너도 짐작했을 테지만, 이그노투스 피브렐의 무덤때문이었지. 그는 삼 형제 중 셋째가 죽은 곳을 조사하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럼 그게 사실인가요?”

해리가 물었다.

“전부 다 사실인가요? 피브렐 형제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삼 형제란다.”

덤블도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오, 그래.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란다. 물론 그들이 외진 길에서 죽음을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아마 피브렐 형제는 단지 그토록 강력한 물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위험천만한 마법사들이었을 게다. 그 물건들이 죽음에게 받은 성물이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에는 그런 창조물을 둘러싸고 흔히 생겨나는 일종의 전설인 듯 하구나. 너도 알다시피, 그 투명 망토는 여러 시대에 걸쳐 물려 내려왔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그노투스의 살아 있는 마지막 후예까지 곧장 말이다. 그는 이그노투스와 마찬가지로 고드릭 골짜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지.”

덤블도어가 해리를 보며 웃었다.

“저요?”

“너란다. 넌 아마도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밤, 어째서 그 투명 망토가 내 수중에 있었는지 짐작했을 게다. 제임스는 그 일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나에게 그 투명 망토를 보여 주었단다. 그 망토는 그가 학교에서 들키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던 온갖 비행들을 설명해 주었지!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어. 나는 그걸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시험해 보았단다. 세 가지 성물을 한데 결합하겠다는 꿈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지만, 나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단다.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

없었지.....그것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류의 투명 망토였어.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했지.....그런데 바로 그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난 마침내 두 개의 성물을 혼자서 독차지 하게  
되었지 뭐냐!”

그의 어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씁쓸했다.

“투명 망토가 있다고 해서 두분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해리가 재빨리 말했다.

“볼드모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곳을 알고 있었어요. 투명 망토는 그들을  
저주로부터 막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이다.”

덤블도어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이야.”

해리는 잠자코 기다렸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아무 말도 없자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그 투명 망토를 보았을 때, 교수님은 성물을 찾는 걸 이미 포기하고  
계셨던 건가요?”

“오, 그랬지.”

덤블도어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해리의 눈길을 피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았다.

“너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잖니.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경멸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경멸할 수는 없을 게다.”

“하지만 전 교수님을 경멸하지 않아요.”

“곧 그렇게 될 거야.”

덤블도어가 이렇게 말하더니, 숨을 깊이 들어쉬었다.

“너는 내 여동생의 건강이 안 좋았다는 비밀을 알고 있지. 그 머글들이 한  
짓을, 그래서 내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불쌍한 아버지가  
복수한 것도, 그 짓값을 치르다가 아즈카반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또한 어머니가 아리애나를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포기했는지도  
알게다. 나는 그일이 너무나도 분했단다.”

덤블도어는 그 문장을 아주 직설적이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그는 해리의  
머리 꼭대기 너머,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많은 재능을 타고났고 총명했단다. 난 벗어나고 싶었어. 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었고. 영예를 얻고 싶었단다. 그렇다고 나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거라.”

그가 말했다. 그 순간 고통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다시 폭삭 늙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어. 우리 부모님을 사랑했고, 나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사랑했단다. 하지만 난 이기적이었어, 해리. 놀랍도록 이타적인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성치 않은 여동생과 제멋대로인 남동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되었을 때, 난 분노와 쓰라린 마음을 안고 내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단다. 마치 덫에 걸려 망가진 느낌이었지! 그 무렵.....그래  
그가 찾아온 거야.....”

덤블도어는 다시 해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린델왈드. 너는 그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았었는지, 나의 마음을  
타오르게 했었는지 상상조차 못 할게다, 해리. 머글들을 힘으로 굴복시킨다.  
우리 마법사들을 승리로 이끈다. 그린델왈드와 나, 바로 혁명의 자랑스러운  
젊은 지도자들이 말이야.”

오오, 물론, 나는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단다. 하지만 내 양심을  
공허한 말들로 달래려 했지. 이건 모두 더 커다란 선을 위한 일이 될 것이며,  
설사 어떤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마법사들을 위한 권익을 통해서 백배로  
보상할 수 있을것이다. 어쩌면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겔러트 그린델왈드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난 눈을

감아 버렸지. 만약 우리가 꾸미고 있는 계획들이 결실을 거둔다면, 내 모든 꿈들이 실현될 거라고 말이야.

우리 계획의 핵심은 바로 죽음의 성물이었어! 그것들이 얼마나 그를 매혹시켰던지! 아니, 우리 두 사람을 매혹시켰던지! 무적의 지팡이는 우리를 권력으로 인도해 줄 무기였지! 그리고 부활의 돌은, 비록 난 모르는 척했지만, 그에게 인페리우스 군단을 의미했단다! 한편 나에게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것은 곧 부모님의 귀환과 더불어 내 어깨에 놓인 그 모든 책임들을 벗는 것을 뜻했지.

그리고 투명 망토....어쩐 일인지, 우리는 투명 망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단다. 해리, 우리 두 사람 모두 투명망토 없이도 자신을 충분히 잘 감출 수 있었거든. 물론 투명 망토의 진정한 마법은 망토의 주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호하고 막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지. 난 생각했단다. 만약 우리가 그걸 찾게 된다면, 아리애나를 숨기는 데 유용할 거라고, 하지만 투명 망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주로, 그것을 가져서 세 가지 성물을 완성시킨다는 데 있었지.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세 개의 물건을 모두 가진 사람이 진정한 죽음의 지배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패배하지 않는’ 이란 뜻으로 받아들였던 거지.

패배하지 않는 죽음의 지배자,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 광분과 잔혹한 몽상에 사로잡힌 두 달 동안, 난 내게 남겨진 단 두 사람의 가족에게 소홀하게 되었던단다.

그리고 그때...너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게다. 거칠고 제대로 배우진 못했지만 훨씬 더 존경스러운 내 동생, 애버포스의 모습을 하고 현실이 내 앞에 되돌아온 거야. 나는 애버포스가 나를 향해 외치는 진실들을 듣고 싶지 않았지. 나는 연약하고 불안정한 여동생을 끌고서 성물을 찾아 떠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단다.

그 언쟁은 싸움으로 번졌다. 그린델왈드는 자제력을 잃었지. 비록 모르는 척했지만, 내가 언제나 그에게서 느끼고 있었던 점들이 바로 그때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단다. 그리고 아리애나가....어머니가 그토록 돌보고 아꼈던 바로 그 아이가...숨진 채 바닥에 쓰러졌다. “

덤블도어는 숨을 헐떡거리더니 진짜로 울기 시작했다. 해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를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덤블도어의 팔을 꼭 잡아 주었고, 덤블도어는 차츰 마음을 진정했다.

“그래, 그린델왈드는 달아났어. 나만 몰랐을 뿐, 그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 그는 종적을 감췄단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과 머글을 학대하려는 계략을 품은 채, 그리고 죽음의 성물에 대한 꿈, 내가 그에게 부추겼고 또 협력했던 그 꿈을 간직한 채로, 그는 달아났지만 나는 남아서 여동생을 땅에 묻었어. 그리고 죄책감과 무시무시한 슬픔 속에서, 내 수치스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세월이 흘렀단다. 그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진 지팡이를 획득했다는 말도 들리더구나, 한편 나는 마법부 장관직을 제안받았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이다. 당연히 나는 거절했단다. 내가 권력을 맡아도 될 만큼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었지. “

“하지만 교수님이 퍼지나 스크림저 보다 나았을 거예요, 훨씬, 훨씬 더 말이죠.”

해리가 불쑥 소리쳤다.

“과연 그랬을까?”

덤블도어는 무거운 목소리로 반문했다.

“난 그렇게까지 장담은 못하겠구나. 나는 이미 아주 짊었을 때, 권력이 나의 약점이며 치명적인 유혹이란 사실을 증명한 셈이었어. 권력이란 아주 묘한 것이란다. 해리. 아마 권력을 갖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한 번도 권력을 추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게다, 너처럼 지휘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고, 그리고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력자의 옷을 입게 되지만, 놀랍게도 그걸 잘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 말이다. 어쨌든 나는 호그와트에 있는 게 더 안전했다. 그리고 난 괜찮은 교사였던 것 같구나....”

“교수님은 최고셨어요.”

“.....넌 참으로 다정하구나, 해리. 하지만 내가 젊은 마법사들을 훈련시키느라 분주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그린델왈드는 군대를 일으키고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어. 어쩌면 정말 나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생각엔 내가 그를 두려워한 것보다야 덜했을 게다. 오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했던 건 아니란다.”

해리의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고 덤블도어가 대답했다.

“그가 마법을 써서 내게 어떤 짓을 할지는 두렵지 않았단다. 우리 실력이 거의 막상막하였지만, 내가 아주 약간 더 솜씨가 좋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두려워한건 바로 진실이었단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우리 종의 누가 그 끔찍했던 마지막 다툼에서 내 여동생을 죽게 만든 저주를 쏘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단다. 너는 날 겁쟁이라고 나무랄지도 모르겠다. 네 말이 맞다, 해리. 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여동생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어. 비단 내 오만함이나 어리석음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여동생의 목숨을 앗아 간 그 일격을 내 손으로 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야.”

나는 그린델왈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내가 월 두려워하는지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와 만나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더 이상 거절하면 수치스러워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고, 그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했단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너도 알지? 난 그 결투에서 이겼단다. 난 그 지팡이를 획득했지.”

다시 한 번 침묵이 흘렀다. 해리는 덤블도어에게 결국 누가 아리애나를 죽였는지를 알아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알고 싶지 않았다. 덤블도어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은 더더욱 바라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덤블도어가 소망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을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거울이 해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에 대해서 덤블도어가 어째서 그토록 깊은 이해심을 보였는지도 깨달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들 뒤에 있는 생명체의 깅낑거리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해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마침내 해리가 입을 열었다.

“그린델왈드는 볼드모트가 지팡이를 쫓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그는 거짓말을 했죠. 그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척 했어요.” 덤블도어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구부러진 콧날에는 여전히 눈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사람들 말로는, 말년에 그가 뉘우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하더구나. 누멘가드의 독방에 혼자 갇힌 채 말이다. 난 그저 사실이길 바란다. 난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싶구나. 아마도 볼드모트에게 한 그 거짓말은 사죄하려는 시도였겠지. 볼드모트가 성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아니면 혹시 교수님의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해리가 넌지시 말했다. 그러자 덤블도어는 눈물을 흘렸다.

다시 한 번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해리가 말했다.

“교수님은 부활의 돌을 사용하려고 하셨죠?”

덤블도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나긴 세월의 끝에, 나는 곤트 집안의 폐가에 그것이 묻혀 있다는 걸 알아냈지.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갈망했던 바로 그 성물이 말이야. 비록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원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말았단다, 해리. 난 그것이 이제 호크룩스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반지에 분명 저주가 걸려 있을 거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집어서 손가락에 끼웠단다. 한 순간, 나는 상상했단다. 아리애나를,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 내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미안해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난 그렇게도 어리석었단다, 해리. 그 오랜 세월 동안 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거야. 난 죽음의 성물을 모두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놈이었어. 난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인 셈이지. 이게 그 마지막 증거란다. “

“왜죠?”

해리가 반문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교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문제죠?”

“아마도 백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만이 그 성물들을 모두 소유할 수 있을 게다, 해리. 그런데 나는 오직 그것들 가운데 가장 비열하고, 가장 덜 경이로운 것 하나만 소유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난 딱총나무 지팡이를 소유하기에 적임자였지. 하지만 그 지팡이를 뽑내거나, 그것으로 살인을 저지르기에 적합했다는 뜻은 아니다. 난 오직 그것을 길들이고 사용하는 일만 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나는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지팡이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취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투명 망토는 그저 괜한 호기심에서 가져갔던 것이고, 그러니 그 망토가 나를 위해서, 그것의 진정한 주인인 네가 사용할 때와 같은 기능을 할 리가 전혀 없었지. 그리고 그 돌의 경우에는 평화롭게 잠든 이들을 다시 끌어내려고 사용했던 거야. 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희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지. 그러니 너야말로 이 성물의 진정한 소유자란다.”

덤블도어는 해리의 손을 토닥였고, 해리는 노인을 올려다보며 미소지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덤블도어에게 여전히 화를 낼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덤블도어의 미소가 흔들렸다.

“너의 행보를 늦추기 위해서 그레인저 양에게 의지했던 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해리. 나는 너의 성급한 마음이 네 선한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단다. 그 유혹적인 물건들에 대한 정보가 너에게 곧장 전달된다면, 내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 역시 좋지 않은 때에 좋지 않은 목적을 위해 성물을 차지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거든. 만일 네가 그것들을 찾아낸다면, 나는 네가 그것들을 안전하게 소유하기를 원했단다. 이제 너는 진정한 죽음의 지배자가 되었단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배자는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 죽음의 지배자는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꼼짝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란다.”

“그러면 볼드모트는 성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나요?”

“그랬던 것 같다. 그자는 자신이 호크룩스로 만들어 버린 것이 부활의 돌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 설령 그가 그것들에 대해 알았다 한들, 해리, 나로선 그가 첫 번째 성물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 관심이나 가졌을지 의문이로구나. 그자는 자기에게 투명 망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돌로 말할 것 같으면, 그자가 죽음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도로 데려오길 바라겠니? 그는 죽은 자들을 두려워했어. 사랑한 게 아니라 말이야.”

“하지만 교수님은 그가 지팡이를 쫓을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나는 리틀 행글턴의 공동묘지에서 네 지팡이가 볼드모트의 지팡이를 무찌른 이후로 줄곧, 그자가 그 일을 시도할 거라고 확신했단다. 처음에 그자는 네가 월등한 솜씨로 자신을 제압했다는 사실에 겁을 먹었지. 그러다가 올리밴더를 납치하고 나서야, 똑같은 지팡이 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그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됐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빌린 지팡이 역시 네 것을 이길 수 없었어! 그런데 볼드모트는 과연 네 지팡이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 만한 어떤 자질이 네 안에 있는지, 자신이 갖지 못한 어떤 재능을 네가 갖고

있는지를 자문하는 대신에, 당연하게도 그 어떤 지팡이라도 무찌를 수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지팡이를 찾기 시작한 게다. 그에게 딱총나무 지팡이는 너에 대한 집착에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집착이 되었지. 그는 딱총나무 지팡이가 자신의 마지막 약점을 제거해주고 자신을 정말로 무적으로 만들어 줄 거라 믿었던다. 불쌍한 세베루스.....”

“만약 교수님께서 스네이프 손에 죽을 것을 계획하셨다면, 교수님은 스네이프가 마지막으로 딱총나무 지팡이를 갖게 할 생각이셨던 거로군요, 그렇죠?”

“그것이 내 계획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마.”  
덤블도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지, 안 그러냐?”

“네, 아니었어요. 그 부분은 잘 되지 않았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들 뒤에 있는 생명체는 이제 몸을 뒤틀며 신음했다. 해리와 덤블도어는 이제껏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 기나긴 몇 분이 흐르는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깨달음이 서서히 해리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치 부드럽게 떨어지는 눈처럼.

“전 돌아가야겠죠, 그렇죠?”

“그건 네게 달렸단다.”

“제게 선택권이 있다고요?”

“오오 그렇단다.”

덤블도어가 그를 보며 웃었다.

“네 말대로 우리는 킹스크로스에 있잖니? 만약 네가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너는....말하자면.....열차에 오를 수 있다는 거란다.”

“그러면 그건 절 어디로 데려갈까요?”

“위로.”

덤블도어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볼드모트가 딱총나무 지팡이를 차지했어요.”

“사실이다. 볼드모트가 딱총나무 지팡이를 갖고 있지.”

“그래도 제가 돌아가길 바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덤블도어가 말했다.

“만일 네가 돌아가는 쪽을 택한다면, 그자가 영원히 파멸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구나. 물론 난 장담은 못하겠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고 있단다, 해리. 그자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너는 여기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리란 걸 말이다.”

해리는 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의 그늘 속에서 몸을 떨며 깅낑거리고 있는,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훑듯 쳐다보았다.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해리. 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중에서도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렴. 네가 돌아간다면 넌 분명히 불구가 되는 영혼이 더 적어지도록,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이 덜 생기도록 할 수 있을 거야. 만약 그것이 너에게 가치있는 목표인 것 같다면, 그럼 우리는 일단 작별 인사를 하자꾸나.”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숲 속으로 걸어들어갈 때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따뜻하고 밝고 평화로웠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고통과 더 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향해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곧이어 덤블도어도 일어섰다.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가지만 알려 주세요.”

해리가 말했다.

“이건 현실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덤불도어는 그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비록 눈부신 안개가 또다시 내려와 그의 형상을 흐려놓고 있었지만, 덤플도어의 목소리가 해리의 귓가에 또렷하고 우렁차게 들려왔다.

“물론 이것은 네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란다, 해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왜 그게 현실이 아니란 말이냐?”

### 제 36 장 구멍 난 계획

그는 다시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쓰러져 있었다. 숲냄새가 콧속 가득 밀려왔다. 그는 뺨 아래에 달은 차갑고 단단한 땅을 느낄 수 있었고, 쓰러질때의 충격으로 안경의 연결 모서리가 관자놀이에 박힌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온몸 구석구석이 육신거렸고, 살인 저주에 맞은 자리는 마치 강철 주먹으로 세게 얻어맞아 멍이 든 것 같았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원팔은 이상한 각도로 꺽이고 입은 떡 벌어져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는 승리의 환호성을 듣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환호성 대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다급한 발소리와 속삭임, 그리고 걱정스런 웅성거림 뿐이었다.

“주인님.....주인님.....”

그것은 벨라트릭스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마치 연인에게 하듯 속삭이고 있었다. 해리는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대신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애썼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가 망토 속에 그대로 꽂혀 있음을 깨달았다. 가슴과 땅바닥 사이에 지팡이가 배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배 언저리에서 원가 받쳐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 보니, 투명 망토 역시 보이지 않게 잘 집어넣어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주인님.....”

“그만하면 됐다.”

볼드모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황급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너무도 궁금한 나머지, 해리는 눈을 실낱같이 가느다랗게 떴다.

볼드모트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수많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 황급히 그의 곁을 떠나서, 공터 주위에 늘어선 무리 속으로 돌아갔다. 오직 벨라트릭스 만이 볼드모트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남아 있었다.

해리는 다시 눈을 꼭 감고, 방금 본 광경에 대해 생각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볼드모트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고, 볼드모트는 바닥에 쓰러졌던 것 같았다. 그가 살인 저주로 자신을 공격했을 때 무슨 일인가 벌어진 것이다. 볼드모트 역시 쓰러졌던 걸까? 그런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잠깐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주인님, 부디 제가 하도록.....”

“나는 도움 따위는 바라지 않는다.”

볼드모트가 싸늘하게 말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해리는 벨라트릭스가 내밀었던 손길을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 볼 수 있었다.

“저 녀석은.....저 녀석은 죽었나?”

순간 공터에 완벽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무도 해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들은 마치 그를 땅바닥에 더욱 세게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해리는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라도 움직거리지 않을까 두려웠다.

“너”

볼드모트가 말했다. 그리고 광 소리와 함께 고통스런 비명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다.

“저 녀석을 조사해 봐라.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해라.”

해리는 확인을 하도록 보내진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제멋대로 풍덩 뛰는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누워서

조사당하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드모트가 그의 곁으로 다가오기를 꺼린다는 것, 그리고 과연 모든 게 작전대로 된 것인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순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손이 해리의 얼굴에 달았다. 그 손은 계속해서 한쪽 눈꺼풀을 뒤집어 보더니, 셔츠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가슴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그의 심장 박동을 짚어 보았다. 해리는 그 여자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얼굴을 간질이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 여자가 그의 갈비뼈 밑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생명의 고동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드레이코는 살아 있나? 성안에 있니?”

그 속삭임은 거의 귀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그의 콧가에 바싹 입술을 댄 채 깊숙이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구경꾼들로부터 가려 주고 있었다.

“네.”

해리는 가느다랗게 대답했다.

순간 그의 가슴 위에 얹힌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은 거둬졌다. 그리고 그녀가 몸을 일으켜 앉았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나시사 말포이가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그러자 비로소 함성이 터져 나왔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일제히 승리의 환호성을 내지르며 발을 울렸다. 한편 가르다랗게 눈을 뜯 해리는 이 일을 축하하는 붉은색과 은색의 불꽃들이 허공으로 쏘아 올려지는 것을 보았다. 해리는 여전히 바닥에 드러누워 죽은 척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시사는 자신이 호그와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하여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볼드모트가 승리를 거두든 말든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알겠느냐?”

그 엄청난 소란 속에서 볼드모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해리 포터는 내 손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살아 있는 그 어떤 자도 나를 위협할 수 없다! 보라! 크루시오!”

해리는 이런 일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자신의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은 채 숲 바닥에 그대로 남겨지지는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신은 볼드모트의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 능욕당할 것이 분명했다. 공중으로 높이 들어 올려진 해리는 계속해서 축 늘어져 있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과 같은 고통은 닥치지 않았다. 그저 한 번, 두 번, 세 번 허공에 내동댕이쳐졌을 뿐이었다. 그 와중에 안경은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렸고, 지팡이는 망토 속에서 조금씩 빠져나왔다. 하지만 해리는 계속해서 축 늘어진 채, 죽은 척 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공터에는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야유가 울려 퍼졌다.

“이제!”

볼드모트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성으로 간다. 그리고 저자들에게 그들의 영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 줄 것이다. 누가 시체를 끌고 가겠나? 아니지, 잠깐.....”

또다시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고, 잠시 후 해리는 몸 아래에서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네놈이 그를 들고 가라”

볼드모트가 명령했다.

“네놈 품에 안겨 있으면, 저 녀석의 꼬락서니가 더 멋지게 잘 보일 테니까. 안 그러냐? 당장 네 꼬마 친구를 들어 올려라, 해그리드. 그리고 안경, 안경을 씌워라. 사람들이 이놈이 누군지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군가 해리의 얼굴에 마구잡이로 안경을 씌웠다. 하지만 그를 들어 올리는 거대한 손길은 대단히 조심스러웠다. 해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느라 해그리드의 두팔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해그리드가 해리를

품에 안아 올리자,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몸 위로 후두두둑 떨어졌다. 그래도 해리는 감히,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해서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고 넘지시 알려 줄 수가 없었다.

“이동!”

볼드모트가 호령했다. 해그리드는 몸을 비틀거리며 빽빽이 서 잇는 마무들을 헤치고, 다시금 숲을 지나 앞으로 나아갔다. 해리의 머리카락과 망토 자락이 자꾸 나뭇가지에 걸렸지만, 그는 입을 헤벌리고 눈을 꼭 감은채, 가만히 안겨 있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그들 두 사람을 에워싸고 환성을 지르며 나아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해그리드는 계속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해리 포터의 드러난 목에서 맥박이 뛰고 있는지 어떤지 유심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거인 두 명이 지축을 울리며 죽음을 먹는 자들의 뒤를 따랐다. 해리는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나무들이 부러지고 쓰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내는 엄청난 소음 때문에 새들은 날카롭게 울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심지어 죽음을 먹는 자들의 환호성마저 물힐 지경이었다. 개선 행렬은 탁 트인 운동장을 향해 계속해서 행진했다. 잠시 후에 해리는 꼭 감은 두 눈 너머로 어둠이 조금씩 열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나무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파!”

느닷없이 들려온 해그리드의 성난 울부짖음 때문에, 해리는 하마터면 눈을 번쩍 뜰 뻔 했다.

“이제 만족하느냐? 너희는 싸우지 않았지. 이 겁쟁이 말 떼들 같으니, 이제 만족하느냐? 해리 포터가 주.....죽어서.....”

해그리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만 평평 훌릴 뿐이었다.

해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켄타우로스들이 그들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감히 눈을 뜰 수는 없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 중 몇 명이 켄타우로스들을 뒤로하고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잠시 후 해리는 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을 보아, 그들이 숲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정지!”

해리는 해그리드가 볼드모트의 명령에 강제로 따르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해그리드가 몸을 움찔했기 때문이다. 그때 무시무시한 냉기가 그들이 서 있는 곳을 엄습해 왔다. 해리는 숲 바깥쪽을 순찰 중인 디멘터들의 씨근덕 거리는 숨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디멘터들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오르며 디멘터들을 물리치는 부적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마치 아버지의 수사슴이 가슴속에 수호자로 있더라도 한 것처럼.

그때 누군가 해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 해리는 그것이 바로 볼드모트임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잠시 후 그가 말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법을 통해 크게 키워진 그의 목소리는 해리의 고막을 때리며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해리 포터는 죽었다. 너희가 그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동안,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살해되었다. 우리는 너희의 영웅이 죽었다는 증거로, 그의 시신을 너희에게 가져다주겠다.

너희는 전투에서 패했다. 너희는 전사들의 반을 잃었다. 나의 죽음을 먹는 자들은 너희보다 훨씬 수가 많으며, ‘살아남은 아이’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저항하는 자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자의 가족까지 모조리 도살될 것이다. 지금 당장 성에서 나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 주겠다. 너희의 부모님과 아이들, 형제자매들은 모두 살아남을 것이고,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건설해 나갈 새로운 세계에서 나와 함께할지어다.”

운동장에도, 그리고 성에도 정적만이 감돌았다. 볼드모트가 그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해리는 감히 다시 눈을 뜰수가 없었다.

“가자.”

볼드모트가 말했고, 해리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곧 해그리드가 억지로 그 뒤를 따랐다. 그 순간에 아주 살짝 눈을 뜯 해리는 볼드모트가 이제는 마법의 우리에서 나온 거대한 뱀 내기니를 어깨에 두른 채, 앞장서서 당당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들키지 않고 망토 밑에 숨겨진 지팡이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두 사람의 양옆에 서서 차츰 열어지는 어둠을 뚫고 행진하고 있었다.

“해리.”

해그리드가 흐느꼈다.

“오오, 해리.....해리.....”

해리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는 그들이 성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죽음을 먹는 자들의 환호성과 쿵쿵거리는 발소리 너머로, 성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살아 있다는 신호가 들려오는지 분간하기 위해서 귀를 바짝 곤두세웠다.

“정지!”

그러자 죽음을 먹는 자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해리는 그들이 활짝 열린 학교의 현관을 마주 보며 일렬로 늘어서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꼭 감고 있는데도 불그스레한 빛이 느껴졌다. 현관 복도에서부터 흘러나온 빛이 그를 비추고 있는게 분명했다. 그는 기다렸다. 이제 곧, 그가 목숨을 던져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해그리드의 품에 죽은 듯 안겨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안 돼!”

그 비명 소리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낼 거라고 기대하거나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던 맥고나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기에, 한결 더 끔찍하게 들렸다. 뒤이어 가까이에서 또 다른 여자가 킁킁대며 웃어 대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벨라트릭스가 비통해하는 맥고나걸을 보고 희희낙락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들로 가득 찬 문가를 보았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복자를 대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현관 층계로 나오고 있었다. 그는 볼드모트가 하얀 손가락으로 내기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앞쪽에 서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해리! 해리!”

론과 헤르미온느, 그리고 지니의 부르짖음은 맥고나걸의 비명 소리보다 더 처절했다. 해리는 당장 소리쳐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일종의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도 그 이유를 깨닫고는 뒤를 이어 비명을 질렀고, 죽음을 먹는 자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조용!”

마침내 볼드모트가 소리쳤고, 그와 동시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밝은 광선이 번쩍였다. 그러자 그들 모두 입이 봉해졌다.

“이제 다 끝났다! 그를 내 발밑에 내려놓아라, 해그리드. 여기가 바로 그 녀석이 있어야 할 자리다!”

해리는 자신의 몸이 잔디밭 위에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

“알겠는가?”

볼드모트가 말했다. 해리는 자신이 누워 있는 곳 바로 곁에서 볼드모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잇음을 알아차렸다.

“해리 포터는 죽었다! 이제 잘 알겠는가, 혼혹된 자들이여? 이 녀석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타인들에게 의지했던 꼬마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널 이겼어!”

룬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곧장 침묵 마법이 깨져 버렸다. 호그와트 성을 지키던 사람들은 다시 함성을 외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잠시 후 더 커다랗게 광 소리가 나자, 그들의 목소리는 다시 완전히 사라졌다.

“이 녀석은 성의 운동장을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살해되었다.”  
볼드모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의 기미가 느껴졌다.

“제 목숨을 구하려다 죽음을 당한.....”  
그때 볼드모트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해리는 허둥지둥 달려오는 발소리와 고함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또 한 번 광 하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번쩍하더니 고통스런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해리는 아주 살짝 눈을 떴다. 누군가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볼드모트를 향해 돌격한 것이었다. 해리는 그 사람이 무장해제 마법을 맞고 바닥에 텔썩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볼드모트는 도전자의 지팡이를 한쪽으로 내동댕이치더니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데 이놈은 누구냐?”  
볼드모트는 뱀처럼 나지막이 쑥쑥거리는 소리를 내며 물었다.  
“누구란 말이냐?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싸우려고 덤비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자원한 녀석은?”  
벨라트릭스가 신이 나서 웃었다.

“이 녀석은 네빌 롱바텀입니다, 주인님! 출곧 캐로우 남매의 골치를 썩여 온 녀석이지요! 둘 다 오러였던 부부의 아들놈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아, 그래. 기억하지.”  
볼드모트가 네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빌은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생존자들과 죽음을 먹는 자들 사이의 빈자리에 우뚝 일어섰다.

“그런데 넌 순수혈통이 아닌가! 안 그런가, 용감한 친구?”  
빈주먹을 불끈 움켜쥔 채 그를 마주 보고 있는 네빌을 향해 볼드모트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쩔 거냐?”  
네빌이 큰 소리로 받아쳤다.

“너는 용기와 기백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 몸이다. 너는 매우 쓸모 있는 죽음을 먹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네빌 롱바텀.”

“난 절대로 네놈 편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네빌이 말했다.

“덤블도어의 군대여!”  
네빌이 소리치자 군중으로부터 그에 응답하는 환호성이 들려왔다. 아마도 볼드모트의 침묵마법도 그들을 완전히 제지하지는 못하는 듯 했다.

“아주 훌륭해!”  
볼드모트가 말했다. 해리는 비단같이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에서 가장 강력한 저주를 외칠 때보다도 더 커다란 위험을 감지했다.

“네 선택이 그러하다면, 롱바텀. 우리는 원래의 계획으로 돌아가야겠다. 네 머리에.....”

볼드모트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을 씌어주지.”  
여전히 가느다랗게 눈을 뜨고 지켜보던 해리는 지팡이를 휘두르는 볼드모트를 보았다. 잠시 후 성의 창문 중 하나에서 괴상한 새 같은 것이 튀어나오더니 어슴푸레한 대기를 뚫고 날아와 볼드모트의 손에 내려앉았다. 볼드모트는 곰팡이가 슨 그 물건의 뾰족한 끝을 잡고 흔들었다. 속이 비고 너덜너덜 한 그것은 허공에서 대롱대롱 흔들렸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모자였다.

“호그와트에서 더 이상 기숙사 배정은 없을 것이다.”  
볼드모트가 말했다.

“더 이상 여러 개의 기숙사들도 없을 것이다. 내 고귀한 조상인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문장과 방패, 깃발이면 모든 학생들에게 충분할 것이다. 안 그러냐, 네빌 롱바텀?”

볼드모트는 네빌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러자 그의 몸이 점차 뺏뻣해지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자가 네빌의 머리에 강제로 씌워지더니 그의 눈 아래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 성 앞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렁거리자, 죽음을 먹는 자들은 일제히 지팡이를 치켜들어 호그와트의 전사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제 여기 있는 네빌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항할 만큼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 주겠다.”

볼드모트가 말했다. 곧이어 그가 지팡이를 한 번 까딱 움직이자, 마법의 모자는 불꽃을 튀기며 확 타올랐다.

비명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어 놓았다. 네빌은 제자리에 못박힌 듯 꿈쩍도 하지 못한 채 불길에 훑싸였다. 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저 멀리 학교의 경계 너머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함성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수백 명의 인파가 우르르 떼를 지어 시야 밖에 있는 벽을 뛰어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전투의 함성을 내지르며 성을 향해 질주해 왔다. 그와 동시에 그룹이 성의 옆쪽에서 쿵쿵거리며 나타나더니 “해거!” 하고 소리쳤고, 여기에 맞서 볼드모트의 거인들도 고함을 내질렀다. 그리고 수코끼리들처럼 그룹을 향해 지축을 울리며 돌진했다. 뒤이어 말발굽 소리와 횃하고 활 시위 당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죽음을 먹는 자들의 한복판으로 갑자기 화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죽음을 먹는 자들이 비명을 질렀고, 대열은 무너져 버렸다. 해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망토 속에서 투명 망토를 꺼내 쓰고는 벌떡 일어 났다. 때마침 네빌도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의 날쌔고 유려한 동작으로 네빌은 자신을 묶고 있던 동작 그만 저주를 깨뜨렸다. 순간 활활 타오르던 마법의 모자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네빌은 모자 속에서 손잡이에 루비가 박힌, 반짝이는 은빛의 무언가를 뽑았다.

은빛 칼날을 내려치는 소리는 다가오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맞붙어 싸우는 거인들의 소리, 그리고 앞 다투어 달려오는 켄타우로스들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면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듯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네빌은 거대한 뱀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뱀의 머리통은 현관 복도에서 훌러나오는 불꽃을 받아 반짝거리며, 빙글빙글 돌며 하늘 높이 솟구쳤다. 한편 볼드모트는 입을 딱 벌린 채, 소리 없는 분노의 비명을 내질렀다. 이윽고 뱀의 몸통이 그의 발치에 쿵 떨어졌다.

투명 망토 아래 숨어 있던 해리는, 볼드모트가 미처 지팡이를 치켜들기 전에 네빌과 볼드모트 사이에 방패 마법을 쳤다. 다음 순간, 비명 소리와 함성, 결투하는 거인들의 우레와 같은 발소리를 뚫고 해그리드의 외침이 짜령짜령 울려 퍼졌다.

“해리!”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해리, 해리가 어디 있지?”

흔돈이 판을 치고 있었다. 돌진하는 켄타우로스들은 죽음을 먹는 자들을 쫓아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쿵쿵거리는 거인들의 발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었다. 딱히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사방에서 몰려든 지원군들이 사나운 기세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해리는 날개 달린 거대한 생물들이 볼드모트 편 거인들의 머리 주위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세스트랄들과 히포그리프인 벅벅은 거인들의 눈을 할퀴었고, 그룹은 거인들을 향해 연달아 주먹을 날렸다. 이제 마법사들은, 호그와트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나 죽음을 먹는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성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해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음을 먹는 자들을 향해 주문과 저주를 쏘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무엇이 혹은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도 모르는 채 쓰러져 후퇴하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혔다.

해리는 여전히 투명 망토 아래 몸을 숨긴 채, 현관 복도 안으로 훑쓸려 들어갔다. 열심히 볼드모트를 찾던 그는 저편에 있는 그의 모습을 곧 발견했다.

볼드모트는 지팡이로 주문을 쏘면서 대연회장으로 후퇴하고 있었는데, 좌우로 연방 저주를 날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한편 해리는 더 많은 방패 마법을 걸었고, 볼드모트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시무스 피니간과 한나 아보트가 그의 곁을 지나쳐서 연회장 안으로 돌진했다. 대연회장에 들어간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이미 절정에 이르러 있던 전투에 합류했다.

곧이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관 층계를 황급히 뛰어 올라왔다. 해리는 찰리 위즐리가 여전히 에메랄드 빛 파자마를 입고 있는 호레이스 슬러그훈을 앞질러 달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계속 남아서 싸우는 호그와트 학생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호그스미드의 주민들과 가게 주인들로 보이는 무리를 이끌고 돌아온 것 같았다. 한편 켄타우로스 베인과 로넌, 그리고 마고리안이 거대한 말발굽 소리를 울리며 현관 복도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때 해리의 뒤편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부서지며 왈칵 열렸다.

호그와트의 집요정들이 저마다 고기 써는 칼과 식칼을 휘두르고 함성을 지르며 현관 복도로 뛰어나온 것이다. 그들의 선두에는 바로 크리처가 있었는데, 그의 가슴팍에서는 레귤러스 블랙의 로켓이 통통 튀고 있었다. 이 북새통 속에서도 황소개구리 같은 크리처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싸워라! 싸워라! 집요정들의 수호자인 나의 주인님을 위해 싸워라! 어둠의 마왕을 무찔러라! 용맹한 레귤러스의 이름으로! 싸워라!”

집요정들은 죽음을 먹는 자들의 정강이와 발목을 마구 내리찍었다. 그들의 조그만 얼굴은 사나운 적의로 불타고 있었다. 사방 어디를 봐도 죽음을 먹는 자들이 완전한 수적 열세로 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쓸어지는 주문에 맥을 끊었고, 상처에서 화살을 뽑아내려고 깅낑거리다가 집요정들에게 다리를 찔렸다. 그것도 아니면 그저 달아나려고 하다가 밀어닥치는 인파에 휙쓸려 버렸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난게 아니었다. 해리는 결투하는 사람들을 뚫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포로들을 뒤로 한 챘이, 대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볼드모트는 전투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손 달는 자는 누군든 닥치는 대로 찌르고 공격하고 있었다. 해리는 깨끗하게 명중을 시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습을 감춘 채, 점점 더 가까이 비집고 나아갔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대연회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은 점점 더 사람들로 가득찼다.

해리는 악슬리가 조지와 리 조던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돌로호브가 플리트윅의 손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해그리드에게 내동댕이쳐진 월든 맥네어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반대편 돌벽에 부딪히더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또한 론과 네빌이 펜리 그레이백을 제압하고, 애버포스가 롤우드에게 기절마법을 쏘고, 아서와 퍼시가 씨크니스를 바닥에 쓰러트리는 것을, 그리고 루시우스와 나시사 말포이가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아들을 찾으며 군중 속을 달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볼드모트는 막고나걸과 슬러그훈, 킹슬리를 한꺼번에 상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세 사람은 그를 처치하지 못하고, 그의 주위를 맴돌며 이리저리 몸을 피하고 있었다.

볼드모트로부터 50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벨라트릭스도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세 명과 결투를 벌이고 있었다. 헤르미온느와 지니, 루나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벨라트릭스는 그들 세 사람과 맞먹는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해리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향하려던 찰나, 살인 저주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서 지니는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모면했다.

해리는 당장 발길을 돌려서 볼드모트가 아니라 벨라트릭스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가 몇 발짝을 옮기기도 전에 누군가 그를 옆으로 휙 밀쳐 버렸다.

“내 딸은 안 돼, 이 못된 년!”

위즐리 부인이 망토를 벗어 던지며 활개를 치고 달려왔던 것이다. 벨라트릭스는 제자리에서 휙 돌아서더니, 새로운 도전자를 확인하고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렸다.

“너희는 썩 물러서!”

위즐리 부인은 세 소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지팡이를 휙 휘두르며 결투를 시작했다. 해리는 몰리 위즐리의 지팡이가 날카롭게 허공을 가르며 재빠르게 돌아가는 광경을, 공포와 전율을 느끼며 바라보았다. 그러자 벨라트릭스 레스트랭도 웃음을 멈추고 사납게 이빨을 드러냈다. 양쪽 지팡이에서 불꽃이 터져나오고, 두 마녀들 주위의 바닥이 뜨거워지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반드시 상대를 죽이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었다.

“안 돼!”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돋기 위해 앞으로 달려 나오자 위즐리 부인이 소리쳤다.

“물러서! 물러서! 이 여자는 내가 맡겠다!”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벽에 출지어 붙어 서서 이 두 결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볼드모트와 세명의 상대, 벨라트릭스와 몰리. 해리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모습을 감춘 채 서 있었다. 그는 공격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보호하고 싶었으며, 괜히 무고한 사람을 맞힐까 봐 두려웠다.

“내가 널 죽이면 네 애새끼들은 어떻게 될까?”

자신의 주인만큼이나 화가 난 벨라트릭스가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주위에서 춤추는 몰리의 주문들을 까불대며 피했다.

“프레디처럼 엄마가 죽고 나면?”

“넌.....결코.....다시는.....우리 애들을 건드릴 수 없어!”

위즐리 부인이 소리쳤다.

그때 벨라트릭스가 마구 웃어 댔다. 그것은 그녀의 사촌 시리우스가 베일을 뚫고 뒤로 쓰러질 때 냈던 것과 똑같은 격앙된 웃음소리였다. 해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지를 불현듯 깨달았다.

그러나 미처 그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몰리의 주문이 벨라트릭스의 쪽 뻔은 팔 밑에서 봉 솟아오르더니 그녀의 가슴에, 심장 바로 위에 명중했다.

순간 의기양양한 벨라트릭스의 미소는 얼어붙었고, 두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달았고, 곧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러자 구경을 하던 군중은 우레와도 같은 함성을 내질렀고 볼드모트는 비명을 질렀다.

해리는 마치 자신이 슬로 모션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맥고나걸과 킹슬리, 슬러그혼이 한꺼번에 뒤로 헥 밀려나면서 허공에서 팔을 휘저으며 몸부림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남은 최고 부관의 몰락에 볼드모트의 분노가 폭탄처럼 강렬하게 폭발했던 것이다.

볼드모트는 지팡이를 들어서 몰리 위즐리를 겨누었다.

“프로테고!”

해리가 큰 소리로 외치자, 방패 마법이 연회장 한 가운데에 펼쳐졌다.

볼드모트는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해리는 마침내 투명 망토를 끌어내렸다.

“해리야!”

“그가 살아 있어!”

충격에 찬 비명 소리와 함성, 그리고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나오다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볼드모트와 해리가 서로를 노려보는 동시에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바싹 겁에 질려서 당장 굳게 입을 다물고 말았던 것이다.

“저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완벽한 침묵 속에 그의 목소리는 트럼펫 소리처럼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제가 해야만 합니다.”

그러자 볼드모트가 삐죽거리듯이 말했다.

“포터의 말은 진심이 아니다.”

새빨간 눈을 크게 뜨고 볼드모트가 말을 이었다.

“그건 그의 방식이 아니지, 안 그런가? 자, 오늘은 누구를 방패로 쓸 작정인가, 포터?”

“어느 누구도 아니다.”

해리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은 호크룩스는 없다. 이제는 너와 나뿐이다. 다른 한 쪽이 살아 있는 한, 그 어느 쪽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중 한 사람은 영영사라져야 한다.”

“우리 중 하나?”

볼드모트가 비아냥거렸다. 그의 온몸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새빨간 눈은 당장이라도 공격을 가하려는 밤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너는 살아남는게 너 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안 그러냐, 요 우연히 살아남은 꼬마야? 왜지? 덤블도어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냐?”

“어머니가 나를 구하려다 돌아가셨을 때, 내가 살아남은게 우연이란 말이냐?”

해리가 물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완벽한 원을 그리며, 서로에게서 똑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옆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해리의 눈에는 볼드모트의 얼굴 말고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다.

“우연이라고? 내가 그 공동묘지에서 싸우기로 결심했을때도? 모두가 우연이란 말이지? 오늘 밤 내가 스스로 방어하지 않고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다시 싸우러 돌아온 것도?”

“다 우연이고말고!”

볼드모트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마치 돌처럼 굳어지는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대연회장의 수백 명 중 그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우연과 운이었다. 그리고 네 녀석이 더 큰 남자와 여자들의 치마폭 뒤에 숨어서 훌쩍거리며, 내가 너 대신 그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둔 덕분이지!”

“오늘 밤 너는 더 이상 누구도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해리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대적했고, 초록색과 빨간색의 두 눈이 서로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너는 다시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는 네가 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넌 죽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럴 작정이었고, 그렇게 했다! 나는 내 어머니가 했던 대로 한 것이다. 이제 저 사람들은 너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네가 그들에게 건 주문들이 조금도 그들을 속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넌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제 너는 그들을 괴롭힐 수 없다. 넌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단 말이다. 넌 그토록 실수를 하고도 깨닫는 바가 없구나, 리들! 안 그런가?”

“네놈이 감히 그런.....!”

“그래, 나는 감히 그럴 수 있다.”

해리가 말을 이었다.

“나는 네가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으니까, 톰 리들. 나는 네가 모르는 중요한 것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단 말이다. 말해 줄까?”

볼드모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다만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말에 순간적으로 볼드모트가 깜짝 놀라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 남은 비밀 하나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그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또 그 사랑 타령이냐?”

이윽고 볼드모트가 입을 열었다. 뱀같이 생긴 그의 얼굴에 조소가 떠올랐다.

“덤블도어가 제일 좋아하는 해법인 ‘사랑’ 말이냐? 그자는 사랑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 그런데 사랑은 그 작자가 탑에서 떨어지는 걸 막아주지도 못했고, 낡아 빠진 밀랍 인형처럼 부서져 버리는 것도 막아 주지 못했다. 안 그러냐? 사랑, 그건 내가 한낱 바퀴벌레처럼 네 잡종 어미를 짓밟아

버리는 것도 막지 못했어. 포터, 게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뛰어나와 내 저주를 대신 맞아 줄 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내가 널 공격하면 이번에는 네가 죽는 걸 뭐가 막아 주겠느냐?”

“딱 한가지가 있지.”

해리가 대꾸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몰두한 채 원을 그리며 돌았다. 단 한가지 마지막 비밀만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을 뿐이었다.

“만약 이번에 너를 구해 줄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네놈은 내가 터득하지 못한 마법을 자신이 할 줄 안다고 믿고 있는게 분명하군.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냐?”

볼드모트가 말했다.

“나는 두 가지 다 믿는다.”

해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록 금세 사라지긴 했지만, 뱀처럼 생긴 볼드모트의 얼굴에 충격이 스치는 것을 목격했다. 볼드모트는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소리는 그의 비명보다도 더 무시무시했다. 유머라곤 전혀 없는 광기 어린 그 웃음소리는 적막한 연회장 안에 메아리 쳤다.

“네 녀석이 나보다도 더 많은 마법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느냐?”

볼드모트가 물었다.

“나보다 더? 던블도어 자신조차 꿈도 꿔 보지 못한 마법을 부려 온 바로 나, 볼드모트 경보다 더 말이냐?”

“오오, 그분도 그걸 꿈꾸시긴 했었다.”

해리가 대꾸했다.

“하지만 그분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 네가 한 짓을 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알고 계셨지.”

“네 말은 곧 그가 나약했던 뜻이지!”

볼드모트가 소리쳤다.

“너무 나약해서 감히 그럴 수 없었던 거야. 너무 나약해서 자기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지. 결국은 내것이 될 그것을 말이야.”

“아니, 그분은 너보다 똑똑하셨던 거다.”

해리가 말했다.

“더 훌륭한 마법사였고,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

“알버스 던블도어를 죽게 한 건 바로 나였어!”

“물론 넌 네가 그랬다고 생각하겠지.”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네 생각은 틀렸어.”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술렁거렸다. 벽 앞에 둘러서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쉬었다.

“던블도어는 죽었어!”

볼드모트는 해리를 향해 내뱉듯 말했다. 마치 그 말들이 해리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자의 시체는 이 성의 운동장에 있는 대리석 무덤 속에서 썩고 있단 말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포터. 그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래, 던블도어 교수님은 돌아가셨다.”

해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분을 죽인 건 네가 아니야. 그분은 스스로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셨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미 선택을 하시고, 네가 너의 부하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함께 모든 걸 준비하셨던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냐?”

볼드모트가 소리쳤지만, 여전히 공격은 가하지 않았다. 새빨간 그의 두 눈은 해리에게 고정된 채, 흔들리지 않았다.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네 부하가 아니었다.”

해리가 말했다.

“스네이프는 던블도어 교수님의 사람이었다. 네가 나의 어머니를 뒤쫓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던블도어 교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넌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 왜냐하면 네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너는 스네이프가 패트로누스를 불러내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지. 안그래, 리들?”

볼드모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상대를 갈기갈기 물어뜯으려고 하는 늑대들처럼 계속해서 서로를 노리며 맴돌았다.

“스네이프의 패트로누스는 암사슴이었다.”

해리가 말했다.

“내 어머니의 것과 똑같았지. 왜냐하면 두 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스네이프는 평생토록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넌 그걸 알아차렸어야만 했어.” 볼드모트의 콧구멍에서 뜨거운 숨이 뿐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며 해리가 말했다.

“스네이프는 너에게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지, 안 그런가?”

“그는 그저 그 계집을 욕망했을 뿐이야, 그게 전부였다.”

볼드모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계집이 죽고나자, 세상에는 다른 여자들도 많다는 걸, 자신에게 걸맞는 순수혈통의 여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그도 인정했다.”

“물론 너한테는 그렇게 말했겠지.”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그녀의 목숨을 위협한 그 순간부터, 스네이프는 덤블도어의 철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줄곧 너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다! 스네이프가 덤블도어 교수님을 죽였을 때, 교수님은 이미 죽어 가고 계셨단 말이다!”

“그런 건 중요치 않다!”

볼드모트가 빽 소리쳤다. 지금까지 열중해서 한 마디 한 마디 귀 기울여 듣고 있던 그는, 이제 깔깔대며 미친듯이 웃음을 터트렸다.

“스네이프가 내 사람이었는지, 덤블도어의 사람이었는지, 그딴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 작자들이 내 앞길에 어떤 시시한 장애물들을 놓으려 했었는지도 말이다! 나는 스네이프의 위대한 짹사랑 상대였던 네 엄마를 박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자들을 모두 박살내 버렸으니까! 오오 그런데 모든 게 다 이해가 가는구나, 포터. 물론 네 녀석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덤블도어는 내가 딱총나무 지팡이를 내가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스네이프가 그 지팡이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너보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았지. 이 꼬마야. 네가 그 지팡이에 손도 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지팡이를 손에 넣었다. 네 녀석이 따라잡기 전에, 난 그 진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세베루스 스네이프를 세 시간 전에 벌써 죽였다. 딱총나무 지팡이, 죽음의 지팡이, 운명의 지팡이는 이제 진정한 내 것이 되었다! 덤블도어의 최후의 작전은 결실을 보지 못했어, 해리 포터! “

“그래, 그랬지.”

해리가 수긍했다.

“네 말이 옳다. 하지만 네가 나를 죽이려 들기 전에, 너에게 충고 하나 하고 싶군.....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약간의 가책이라도 느껴 보아라, 리들.....”

“그게 무슨 소리냐?”

해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말 가운데, 이 말만큼 볼드모트를 충격에 빠트린 것은 없었다. 그것은 그 어떤 폭로나 비아냥거림도 능가했다. 해리는 그의 동공이 가느다랗게 수축하는 것을, 그의 눈가가 하얗게 질리는 것을 알아챘다.

“이것이 네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해리가 말했다.

“이것이 네게 남아 있는 전부란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될지 난 이미 보았다. 제발 사람답게 굴어라. 노력해 보란 말이다. 조금이라도 가책을 느껴 보도록 해.”

“네놈이 강하!”

볼드모트가 다시 외쳤다.

“물론 나는 감히 그럴 것이다.”

해리가 받아쳤다.

“왜냐하면 덤블도어 교수님의 마지막 계획은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기 때문이지. 그것은 역으로 널 공격했다, 리들.”

딱총나무 지팡이를 쥔 볼드모트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한편 해리는 드레이코의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는 그 순간이 코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 지팡이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엉뚱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결코 딱총나무 지팡이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덤블도어 교수님과 싸워 이긴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스네이프가 죽였.....”

“내 말을 똑똑히 듣고 있는 건가? 스네이프는 단 한 번도 덤블도어 교수님을 이긴 적이 없단 말이다! 덤블도어 교수님의 죽음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교수님은 싸워서 패배당하는 일 없이 죽을 작정이었어. 그 지팡이의 진정한 마지막 주인으로서 말이야! 만약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되었다면, 그 지팡이의 힘 또한 교수님과 함께 소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지팡이를 빼앗긴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포터! 덤블도어는 그 지팡이를 나에게 그냥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볼드모트의 목소리는 사악한 희열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지팡이를 마지막 주인의 무덤에서 훔쳐 왔으니까 말이다! 난 그 지팡이의 마지막 주인의 의지에 반해서 그것을 빼앗아 왔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의 힘은 이제 내 것이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 리들. 안 그래? 그 지팡이를 소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 만으로 그 지팡이를 진짜 네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다. 넌 올리밴더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군? 지팡이가 마법사를 선택한다. 딱총나무 지팡이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죽기 전에 새 주인을 알아보았어. 그 지팡이에 손 한번 대 본적이 없는 사람이었지. 그 새로운 주인은 덤블도어 교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로부터 억지로 그 지팡이를 빼앗았어. 정확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채, 다시 말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팡이가 그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야.”

볼드모트의 가슴이 빠르게 들썩거렸다. 해리는 곧 저주가 발사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을 향해 겨누어진 지팡이 안에서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는 저주의 힘이 느껴졌다.

“딱총나무 지팡이의 진짜 주인은 드레이코 말포이였다.”

한순간 얼빠진 듯한 충격의 표정이 볼드모트의 얼굴에 스쳤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지?”

볼드모트가 조용히 물었다.

“비록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포터. 그건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넌 더 이상 불사조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지, 이제 우리는 오직 실력을 겨룰 뿐이라고, 일단 널 죽이고 난 다음, 드레이코 말포이에게 신경을 쓰면 되겠지.”

“하지만, 넌 이미 늦었다.”

해리가 말했다.

“넌 기회를 놓쳤어. 내가 먼저 성공했거든. 난 드레이코를 몇주 전에 이겼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그로부터 빼앗았다.”

해리는 산사나무 지팡이를 헥 휘둘렀다. 그는 연회장에 잇는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 지팡이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엔 이렇게 된 거지, 안 그래?”

해리가 속삭였다.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자신의 마지막 주인이 무장해제 마법에 당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그 딱총나무 지팡이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니까 말이야.”

갑자기 불그스레한 황금색의 강렬한 빛이 마법에 걸린 천장을 가로질러 그들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눈부신 태양의 가장자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창문턱 위로 살짝 고개를 내민 것이다. 찬란한 햇빛은 두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비추었고, 그러자 볼드모트의 얼굴이 갑자기 번쩍이는 반점처럼 보였다. 해리는 높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동시에 그 역시 드레이코의 지팡이를 겨누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달도록 큰 소리로 내질렀다.

“아바다 캐다브라!”

“엑스펠리아르무스!”

마치 대포를 쏘는 듯이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폭발한 금빛 불꽃들은, 그들이 따라 걷고 있던 원은 한복판, 즉 그들의 마법이 충돌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리는 볼드모트의 초록색 광선이 자신의 주문과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까맣게 보이는 딱총나무 지팡이가 높이 날아오르더니, 마법이 걸린 천장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 그 지팡이는 내기니의 머리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허공을 뚫고 날아왔다. 마침내 자신을 완전히 손에 넣은, 그러므로 결코 죽일 수 없는 주인을 향해서. 해리는 수색꾼다운 완벽한 솜씨를 발휘해 아무것도 쥐지 않고 있던 손으로 그 지팡이를 붙잡았다. 한편 볼드모트는 두 팔을 벌린 채 벌러덩 쓰러졌다. 새빨간 눈의 가느다란 동공은 위로 획 뒤집어졌다. 톰 리들은 바닥에 쓰러져 평범한 최후를 맞았다. 그의 몸은 힘없이 움츠러들었고, 새하얀 두 손은 텅 비었으며, 뱀처럼 생긴 얼굴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볼드모트는 거꾸로 튀어나온 자기 자신의 저주에 맞아 죽은 것이다. 해리는 양손에 각기 지팡이를 하나씩 쥔 채, 껌데기만 남은 적의 모습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전율하는 찰나의 순간동안, 침묵과 충격이 이어졌다. 하지만 곧이어 해리의 주위에서 소동이 벌어졌고, 구경꾼들의 고함과 갈채와 함성이 하늘을 쪼렸다. 강렬하고 새로운 태양이 유리창을 눈부시게 비우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해리를 향해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론과 헤르미온느였다. 그들의 팔이 그를 꼭 감싸 안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외침 소리에 해리는 귀가 멍할 지경이었다. 곧이어 지니와 네빌, 루나가 달려왔고, 위즐리 가족 모두와 해그리드, 킹슬리, 맥고나걸, 플리트윅, 그리고 스프라우트가 다가왔다. 하지만 해리는 그들이 외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조금이라도 안아 보려 애쓰는 이 손길이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모두 살아남은 이 아이를, 마침내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증거인 이 아이를 한번 만져 보기로 단단히 결심한듯 했다.

태양은 점점 호그와트 위로 떠올랐고, 대연회장은 빛과 활기로 찬란하게 빛났다. 환희와 애도, 축하와 비탄이 뒤섞인 이 들끓는 격정 속에서 해리는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이자 상징이며 구원자이자 길잡이인 그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길 바랐다. 그가 한참도 자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들 중의 몇 사람하고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 따위는 어느 누구의 머리에도 떠오르지 않는 듯 했다. 결국 해리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눈물을 지켜보고, 그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것과 더불어 사방팔방에서 속속 날아드는 소식들을 전해 들어야만 했다. 온 나라 안에서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렸던 자들이 제정신을 찾았다는 소식. 죽음을 먹는 자들이 도망을 가거나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 아즈카반에 잇는 죄 없는 수감자들이 바로 그 순간 석방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킹슬리 샤클볼트가 임시 마법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는 소식………….

사람들은 볼드모트의 시신을 프레드와, 통스, 루핀, 콜린 트리비, 그리고 볼드모트와 싸우다 죽은 50 명의 다른 전사자들로부터 따로 떼어 놀기 위해서, 대연회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방으로 옮겼다. 맥고나걸이 기숙사

테이블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자신이 속한 기숙사에 따라 앉지 않았다. 선생과 제자가, 유령과 학부형들이, 캘리우로스들과 집요정들이 모두 한데 뒤섞여 있었다. 한편 구석에 누운 피렌체는 기력을 되찾고 있었고, 그룹은 박살난 유리 창너머로 건물 안을 엿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활짝 웃고 있는 그의 입 속으로 음식을 던져 주었다. 잠시 후, 해리는 자신이 기진맥진한 몸으로 루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너라면, 좀 평화롭고 조용한 데 있고 싶을 것 같아.”

루나가 말했다.

“정말 그러고 싶어.”

해리가 대답했다.

“그럼 내가 사람들의 주의를 딴 데로 끌어 볼게.”

루나가 말했다.

“투명 망토 써.”

그러더니 해리가 뭐라고 한마디 말할 틈도 없이, 루나가 큰 소리로 외치며 창밖을 가리켰다.

“우와, 저것 좀 봐. 블리버링 험딩어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뒤를 돌아보았다. 해리는 그 틈을 타서 투명 망토를 슬쩍 뒤집어 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는 방해를 받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는 두 테이블 건너에 있는 지니의 모습을 발견했다. 지니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이다.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어쩌면 몇년이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는 그리핀도르의 칼을 접시 옆에 둔 채, 열광하는 숭배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음식을 먹고 있는 네빌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에 말포이 가족 세 사람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걱정스러운 듯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눈길이 달는 곳마다, 어디든 다시 모인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함께 있고 싶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나야.”

두 사람 사이로 몸을 숙이며 그가 속삭였다.

“나 좀 따라올래?”

그들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함께 연회장에서 나왔다. 대리석 계단의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난간의 일부도 사라져 버렸다. 그들이 밟고 올라가는 계단에서는 계속해서 잔해와 퓁자국이 눈에 띄었다.

멀리 어딘가에서 피브스가 복도를 따라 훙 날아가면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승전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해냈다네.

우리가 그들을 무찔렀다네.

우리의 포터가 해냈다네.

볼디는 곰팡이가 슬어 버렸지.

그러니 이제 재미나게 놀아보세!

“이 일의 전모와 비극성에 대한 감정을 정말 잘 전달해 주고 있군, 안 그래?”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지나가도록 문을 열며 론이 말했다.

해리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극도의 피로감이 모든 걸 압도해 버렸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프레드와 루핀, 통스를 잊은 아픔이 몸을 찌르듯이 그를 뚫고 지나갔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안도감과 함께 잠을 자고 싶은 갈망이 밀려왔다. 하지만 우선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어야만 했다. 두 사람은 그와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해 왔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펜시브에서 본 내용들와 숲에서 일어났던 일을 힘겹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비록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행선지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걸음이 저절로 향하고 있던 그곳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들 두 사람은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미쳐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해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래로, 교장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무기 석상은 부서져 있었다. 그것은 약간 얹어맞고 얼빠진 표정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었는데, 해리는 과연 그것이 더 이상 암호를 알아들을 수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올라가도 될까요?”

해리가 이무기 석상에게 물었다.

“마음대로 해.”

석상이 꿍꿍대며 말했다.

그들은 이무기 석상을 타 넘었다. 그리고 나선형 돌계단에 올라서자, 계단은 에스컬레이터처럼 서서히 위쪽으로 움직였다. 꼭대기에 이른 해리는 문을 밀어 열었다.

그는 자신이 책상 위에 두고 간 펜시브를 훌끗 곁눈질했다. 바로 그때 귀청이 찢어질 듯한 큰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해리는 비명을 질렀다. 어디선가 저주가 날아오거나 혹은 죽음을 먹는 자들이 되돌아오거나, 볼드모트가 부활했을 거란 생각이 언뜻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박수갈채 소리였다. 벽을 빙 둘러싼 남녀 교장선생님들이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모자나 가발을 들고 흔들고 있었고, 액자 너머로 팔을 뻗어 서로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혹은 그림 속에 그려진 의자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딜리스델웬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흐느껴 울었고, 덱스터 포테스큐는 나팔 모양의 보청기를 흔들고 있었으며, 피니어스 나이젤러스는 높고 새된 목소리로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슬리데린 기숙사가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공로가 잊히지 않도록!”

하지만 해리는 오직 교장 선생님의 의자 바로 뒤에 걸린, 가장 커다란 초상화 속에 서 있는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에서부터 긴 은빛 수염속으로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 가득한 자부심과 고마움은 불사조의 노래처럼 해리의 마음에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마침내 해리가 양손을 들어 올리자, 초상화들은 일제히 정중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환한 웃음을 띤 채, 눈물을 훔치며 열렬히 그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는 덤블도어를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했다. 기진맥진해서 자꾸만 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최후의 조언을 한마디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것이다.

“스니치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해리가 말문을 열었다.

“숲 속에서 떨어뜨렸어요.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다시 찾으러 가지 않을 생각인데, 교수님도 찬성하시나요?”

“그렇단다, 애야.”

덤블도어가 대답했다. 반면 그림 속에 있는 그의 동료들은 어리둥절하고 아리송한 표정이었다.

“참으로 현명하고도 용감한 결정이로구나. 내가 기대했던 대로야. 그런데 혹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고 있니?”

“아무도 몰라요.”

해리가 대답하자, 덤블도어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전 이그노투스의 선물은 간직하고 싶어요.”

해리가 말했다. 그러자 덤블도어가 활짝 웃었다.

“그건 물론이지, 해리. 그건 영원히 네 거란다. 네가 그걸 물려줄 때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이거요.”

해리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내밀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경외심을 품고 그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해리는 정신이 혼미하고 잠이 밀려오는 상태에서도 그 지팡이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전 이걸 원치 않아요.”

해리가 말했다.

“뭐?”

순간 론이 큰 소리로 외쳤다.

“너 제정신이야?”

“저도 이게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걸 알아요.”

해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전 제 지팡이를 쓸 때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목에 건 주머니 속을 뒤적거리더니, 두 동강 난 서양호랑가시나무 지팡이를 꺼냈다. 그것은 아직도 아주 가느다란 불사조 깃털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손상이 너무 심해서 다시 고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제 해리가 아는 것이라곤,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다면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해리는 부러진 지팡이를 교장 선생님의 책상 위에 옮겨놓았다. 그리고 딱총나무 지팡이로 그것을 건드리며 말했다.

“레파로.”

그러자 지팡이가 다시 불으면서, 그 끝에서 빨간 불꽃이 뿜어 나왔다. 해리는 자신이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서양호랑가시나무와 불사조 깃털 지팡이를 집어 드는 순간, 지팡이와 손이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기라도 하는 듯이, 갑자기 그의 손아귀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저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해리는 엄청난 애정과 찬탄이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덤블도어를 향해 말했다.

“그것이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겠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제가 만약 이그노투스처럼 자연사 한다면, 그 지팡이의 힘은 사라지겠죠, 그렇죠? 지팡이의 이전 주인이 결코 패배를 당하지 않은 셈일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이 날거예요.”

덤블도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여 웃었다.

“정말로 그럴 작정이야?”

론이 물었다. 딱총나무 지팡이를 바라보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희미한 갈망이 느껴졌다.

“해리 생각이 옳은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말했다.

“저 지팡이는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말썽거리야.”

해리가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해리는 초상화들로 부터 등을 돌렸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리핀도르 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네 기둥 달린 침대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과연 크리처가 침실로 샌드위치를 하나 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것만이 관심거리였다.

“말썽이라면 난 이미 평생 신물이 나도록 겪었어.”

## 에필로그 19년 후

그해에는 가을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 같았다. 9월의 첫날 아침은 사과처럼 신선했고 황금빛으로 빛났다. 일가족은 그을음 투성이인 커다란 기자역을 향해서 소음으로 가득한 도로를 잽싸게 건너갔다. 자동차 배기구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와 보행자들의 입김이 차가운 공기에 달아 거미줄처럼 반짝였다. 부모가 밀고 있는, 짐을 가득 실은 손수레 위에는 커다란 새장 두 개가 덜컹거리고 있었다. 새장 안에서는 부엉이들이 성이 나서 부엉부엉 울어 댔고,

빨간 머리 소녀는 아빠의 팔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두 오빠를 쫓아가고 있었다.

“머지않아 너도 갈 텐데 뭘 그러니.”

해리가 소녀에게 말했다.

“2년이나 남았잖아.”

릴리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난 지금 가고 싶단 말이야!”

이 가족이 9번과 10번 승강장 사이의 개찰구를 향해 요리조리 뚫고 나아가자, 출근을 하던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부엉이들을 바라보았다. 이때 알버스의 목소리가 주위의 소음을 뚫고 해리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두 아들은 자동차 안에서 시작한 입씨름을 다시 하고 있었다.

“아니야! 난 슬리데린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제임스, 그만 좀 해!”

지니가 타일렀다.

“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제임스가 동생을 향해 씩 웃으면서 말했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잰 어쩌면 슬리데린이 될지도.....”

하지만 제임스는 엄마와 눈이 딱 마주치자 그만 입을 다물었다. 다섯 명의 포터 가족은 개찰구를 향해 다가갔다. 제임스는 약간 빼기는 듯한 눈빛으로 남동생을 힐끗 돌아보더니, 엄마 손에서 수레를 낚아채서는 냅다 뛰어갔다. 잠시 후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저한테 편지 쓰실 거죠, 그렇죠?”

알버스는 잠깐 형이 없는 틈을 타서, 당장 부모님에게 여쭈어 보았다.

“매일 쓸게, 만약 네가 바란다면 말이야.”

지니가 대답했다.

“매일은 아니고요.”

알버스가 잠싸게 대답했다.

“제임스 형이 그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달에 딱 한번만 집에서 오는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요.”

“우리는 작년에 제임스에게 일주일에 세 번씩 편지를 보냈단다.”

지니가 말했다.

“네 형이 호그와트에 대해서 해 주는 말을 전부 믿으려는 건 아니겠지?”

해리가 옆에서 거들었다.

“네 형은 장난치는 걸 좋아하잖니.”

그들은 나란히 서서, 속력을 내어 두 번째 수레를 밀었다. 그들이 개찰구에 달았을 때, 알버스는 잠깐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 가족은 9와 4분의 3 번 승강장 위에 들어섰다. 그곳에서는 진홍색 호그와트 급행열차가 내뿜는 하얀 증기 때문에 앞을 잘 볼 수 없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안개 속으로 몰려가고 있었고, 제임스는 이미 그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다들 어디 있죠?”

그들이 승강장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알버스는 흐릿한 형체들을 열심히 바라보며 초조하게 물었다.

“곧 찾을거야.”

지나가 달랬다.

하지만 짙은 수증기 때문에 누군가의 얼굴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해리는 퍼시가 큰 소리로 빗자루 단속에 대해 떠들어 대는 소리를 언뜻 들은 것 같았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가 있다는 사실이 자못 기뻤다.

“저 사람들 같은데, 알버스.”

지니가 불쑥 말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제일 마지막 객차 옆에 서 있었다. 해리와 지니, 릴리와 알버스가 그들에게 바짝 다가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였다.

“안녕.”

알버스가 몹시 안심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로즈가 그를 향해 활짝 웃었다. 그녀는 이미 새로 산 호그와트 교복을 입고 있었다.

“주차는 잘 했겠지?”

론이 해리에 물었다.

“난 제대로 했거든. 헤르미온느는 내가 머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안 그래? 내가 시험관에게 혼동 마법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아니, 난 안그랬어.”

헤르미온느가 대꾸했다.

“난 당신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사실은, 시험관에게 혼동 마법을 쓴 게 맞아.”

해리가 알버스의 트렁크와 부엉이를 열차에 함께 실어 올리고 있을 때, 론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하지만 겨우 사이드미러 보는 걸 깜빡했던 것뿐인데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난 그런 일에 초감각 마법을 쓸 수도 있다고.”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온 그들은 릴리와 로즈의 남동생인 휴고를 발견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어느 기숙사에 배정될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만약 그리핀도르에 배정되지 않았다면, 쫓겨날줄 알아라.”

론이 말했다.

“뭐 그렇다고 부담 주려는 건 아니다.”

“론!”

릴리와 휴고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알버스와 로즈는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다.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란다.”

헤르미온느와 지니가 타일렀다. 하지만 론은 더 이상 거기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론은 은근히 5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을 턱으로 슬쩍 가리켰다. 한순간 증기가 열어졌고, 그곳에는 세 사람이 서서히 움직이는 안개와 또렷한 대조를 이루며 서 있었다.

“누군지 봐.”

그곳에는 드레이코 말포이가 아내와 아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어두운 색 코트와 단추를 목까지 바짝 채우고 있었는데, 머리가 약간 벗겨져서 뾰족한 턱이 더욱 강조되어 보였다. 처음 보는 소년은 알버스가 해리를 닮은 것 만큼이나 드레이코를 쑥 빼닮은 모습이었다. 드레이코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그리고 지니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하더니 돌아섰다.

“그럼 저게 어린 스콜피우스 녀석이군.”

론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로지, 넌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저 녀석을 놀려야 한다. 정말이지 네가 엄마의 머리를 물려받아서 천만다행이라니까.”

“론, 제발.”

헤르미온느가 단호하면서도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애들을 갈라놓으려 들지 마.”

“당신 말이 맞아, 미안.”

론이 수긍하는 듯 하더니, 그만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도 저 애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는 마라, 로지. 할아버지는 네가 순수혈통하고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절대로 용서치 않으실 테니”

“여기요!”

그때 제임스가 다시 나타났다. 트렁크와 부엉이와 손수레는 벌써 다른 곳에 놓아둔 채, 새로운 소식을 알리려고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테디 형이 저기에 와 있었어요.”

제임스는 어깨 너머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증기 구름 속을 가리키며 숨 가쁘게 말했다.

“방금 형을 봤어요! 글쎄 월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빅투아르 누나랑 키스한대요!”

제임스는 어른들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자, 분명히 실망한 기색이었다.

“우리의 테디! 테디 루핀 말이에요! 우리 빅투아르 누나랑 키스한다니까요! 우리 사촌 누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너 그애들을 방해했니?”

지니가 말했다.

“넌 정말이지 론 삼촌을 쑥 빼닮았구나.”

“.....그런데 테디 형은 누나를 단지 배웅하러 온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썩 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테디 형이랑 빅투아르 누나가 키스했다니까요!”

제임스는 과연 자신의 말이 정확히 전달된 건지 의심스러운 듯 다시 한 번 덧붙였다.

“아아,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테디 오빠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릴리가 들떠서 속삭였다.

“테디는 이미 저녁을 먹으려 일주일에 네번이나 오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테디에게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고, 그 문제를 매듭짓는 게 어떨까?” 해리가 말했다.

“그래요! 전 알버스랑 한방을 써도 상관없어요. 테디 형이 제 방을 쓰면 돼요!” 제임스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건 안 돼!”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고서야, 너와 알버스가 한방을 쓰는 일은 없을 거다.”

해리는 한때 파비안 프레웨트의 것이었던 낡아빠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열한 시가 다 됐구나. 너희는 열차에 오르는 게 좋겠다.”

“네빌 선생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해 주는 거 잊지 마라!”

지니가 제임스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전 교수님에게 사랑을 전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넌 네빌 선생님을 잘 알잖니!”

제임스가 어이없다는 듯 눈알을 굴렸다.

“학교 밖에서야 그렇죠.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분명히 롱바텀 교수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전 절대로 약초학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께 사랑을 전해 줄 수는 없다고요.”

제임스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고는 알버스를 향해 한 번 걷어차는 시늉을 하면서 짐짓한 기분을 털어냈다.

“나중에 보자, 알버스. 세스트랄을 조심해.”

“그건 안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형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

하지만 제임스는 그거 웃으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키스하도록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짧게 포옹을 한 후에, 빠르게 승객들이 차고 있는 열차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들은 손을 한 번 흔들고는, 친구들을 찾아서 열차 통로를 후다닥 달려가는 제임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스트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단다.”

해리가 알버스에게 말했다.

“그 녀석들은 아주 양전하고, 하나도 무섭지 않아. 게다가 넌 학교에 마차를 타고 올라가지 않을 거야. 배를 타고 갈 테니까.”  
지니가 알버스에게 작별 인사로 키스를 해 주었다.

“크리스마스 때 보자.”  
“잘 가렴, 알버스.”

아들이 와락 껴안자. 해리가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해그리드가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된다. 피브스랑 엮여서 말썽부리지 말거라.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 누구하고도 결투하면 안 돼. 그리고 제임스 형한테 휘둘리지 말고.”

“슬리데린이 되면 어떡하죠?”

그 속삭임은 오직 아빠 귀에만 들렸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알버스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해리는 쪼그리고 앉았다. 그러자 알버스의 얼굴이 그의 얼굴보다 약간 위쪽에 있었다. 해리의 세 아이 중 오직 알버스 한명만이 릴리의 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알버스 세베루스.”

해리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니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지니는 눈치 빠르게 열차에 오르고 있는 로즈를 향해 손을 흔드는 척했다.

“네 이름은 호그와트 교장 선생님 중 두 분의 이름을 따온 거란다. 그중 한분은 슬리데린 출신이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분이셨어.”

“그래도 만약.....”

“.....만약 그렇게 되면, 슬리데린 기숙사는 아주 뛰어난 학생을 한 명 얻게 되는 거지, 안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알버스. 하지만 그게 너한테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면, 슬리데린보다 그리핀도르 쪽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 마법의 모자는 네 선택을 존중해 주거든.”

“정말로요?”

“내 경우에는 그랬단다.”

해리가 말했다. 지금껏 자식들 중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알버스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진홍색 열차의 문이 잇달아 탕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고, 흐릿하게 보이는 학부모들이 마지막 키스와 당부를 하기 위해 열차 가까이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알버스는 객차안으로 펄쩍 뛰어들었고, 지니가 뒤에서 문을 닫아 주었다.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 해리 쪽을 돌아보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이 왜 다들 쳐다보죠?”

알버스가 물었다. 알버스와 로즈는 목을 쑥 빼고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신경 쓸거 없다.”

론이 말했다.

“바로 나 때문이란다. 내가 위낙 유명하거든.”

알버스와 로즈, 휴고와 릴리는 웃음을 터트렸다. 열차가 움직였고, 해리는 이미 흥분으로 발개진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며 열차를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아들이 미끄러지듯 멀어져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마치 그 순간이 짧은 사별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느덧 수증기의 마지막 자취까지 가을 하늘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곧 열차는 모퉁이를 돌았다. 해리는 여전히 손을 높이 들어 올린 채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저 애는 괜찮을 거예요.”

지니가 중얼거렸다.

해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마에 난 번개 모양 흉터로 가져갔다.

“나도 알아.”

지난 19년 동안 그 흉터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사했다.  
<끝>